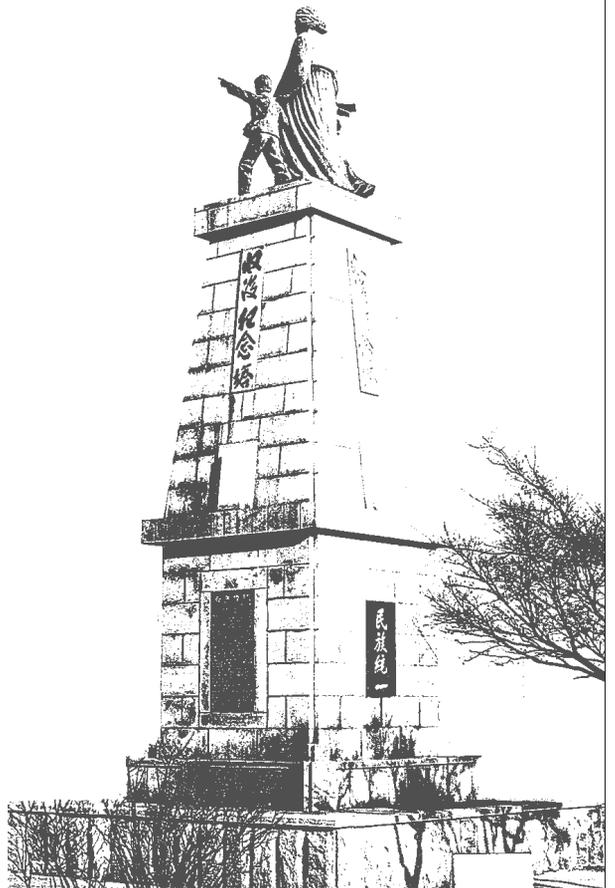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속초문화원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 고운 부녀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기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머리에 흰 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 있기에
모진 풍파, 육된 세월에도
손과 손 글게 붙잡고
통일의 새 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속초시가 실향민의 현장이라면,
그 상징성이 무엇인가.
피난민 정착촌인 청호동으로 통하는 '갯배'와
수복을 기념하여 세운 동명동의 '수복기념탑'이
그 상징물이라 하겠다.
또한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향의 한恨을 안은 채
하나 둘 '망향의 동산'에 묻히게 되니,
이곳 또한 분단의 한 표징表徵이
되고 있다.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발간사

동족 상잔同族相殘의 비극



崔龍文
(속초문화원장)

오늘날 육이오·육이오 동란·육이오 사변·한국 동란·한국 전쟁 등으로 불리고 있는 1950년에 일어난 동족 상잔同族相殘의 비극, 멀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동족간의 이렇게 처참한 전쟁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6월 25일, 그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벽,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외세까지 개입되어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어 양측 군사분계선을 확정지었지만, 판문점(넬문리)에는 지금까지도 '정전停戰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으며, 첨예尖銳하게 대립하던 양상에서 화해의 분위기로 전환되어 바야흐로 평화 통일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육이오 전쟁'이 발발勃發한 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이 고장 이북5도민以北五道民의 '애달픈 수난사'로 기록될 정착사의 탄생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후대까지도 영원히 기억될 역사役事로, 또 귀중한 사료로도 값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피난민들의 삶이 속초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하여 인구 밀도상 피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속초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이 피난민사는 우리 전 피난민사를 대변하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사歷史history란 신에 의해서도 아니요, 자연에 의해서도 아닌, 분명 인간에 의해 만

들어지는 것인 까닭에 위대한 역사든 초라한 역사이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닌 인간 자신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고장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일구어 나간 생활문화는 바로 그들이 만들어 나간 역사의 덩어리요, 그 역사는 바로 문화의 근원이 될 터이다.

문화는 역사의 열매요, 역사는 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피난민의 정착 생활의 터전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현장에 곧 그들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피난민'의 총체적 조망을 통해 우리 민족사의 과거를 점검하고 미래를 살피고자 하였다. 따라서 책의 표제를 설정함에 있어 '실향민', '월남민', '이주민'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보다 정확한 표현과 정체성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도록 '피난민'이라 정하고, 속초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록의 더 큰 뜻은 다시는 이땅에 '육이오 동란'과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하겠다는 민족적 대각大覺이 절실한 시점에서 후대에 서릿발 같은 교훈과 아픈 상흔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동란 체험 세대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정착사의 탄생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정착사의 진정한 밑거름이신 이 고장 실향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이천 년 십이월.



창간사

50년 세월에 걸친 피난민들의 흔적



유 창 영 (속초지구 이북 5도민 연합회장
속초지구 피난민 정착사, 발간 추진위원장)

사랑하는 고향 산천을 두고 참다운 삶과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피난에 피난을 거듭하며 이곳 속초에 정착한 지 어언 반세기,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달래며 살아온 북녘 피난민들 이산의 아픔이 오늘에 그 의지로 결집되어,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가 창간되는 기쁨을 이북 5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오로지 좀더 고향 가까운 곳에 머물고 싶고 또한 통일의 그날 하루라도 빨리 북녘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하나로, 오늘도 속초에 정을 심어 고향으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고향 잃은 북녘 사람들, -용기종기 이웃을 이루며 굳은 의지와 인내를 밑천으로 두 주먹 움켜쥐고, 오늘을 우리의 뒀안길을 조명해 보고 그 뿌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실로 역사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분단과 이산의 아픔이 우리 가슴에 응어리져 흐른 반세기의 강 같은 세월의 한을 고향 소식에 대한 갈증으로 증폭되어, 그 만남을 염원하는 갈망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북 5도민들이 합심하여 이룬 많은 흔적들이 훗날 통일되었을 때에도, 길이 남아서 이 고장 향토 문화의 큰 몫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합친 힘이 더욱 확산되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구심점이 되고, 나아가서 남북 통일의 성업에 일조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속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녘 피난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속초를 말할 때면 설악산과 더불어 떠올리게 되는 곳이 바로 피난민 주거 밀집 지역인 청호동으로, 더욱 피난민의 애절한 피난살이의 삶의 체취가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 때 '고향 심기 운동'이란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이색 표어가 있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 고장에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

이제 속초가 고향이나 다를 바 없다. 여기에 고향을 심고 정을 붙여 제2, 제3의 세대가 자라고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고장의 사회·경제·문화에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 통일 시대에 대비할 몫이 지대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정착사의 창간에 있어 각계각층의 물심 양면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하며, 특히 속초 문화원 최용문 원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뜻을 전하며, 더 나아가서 정착사가 전국에 산재한 많은 피난민들의 피난살이를 대변하는 구실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창간사로 갈음하고자 한다.



축간사

실향민들 50년 세월의 발자취



동 문 성
(속초시장)

사람은 그 어디에서나 살다 보면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이것이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단면이다. 인류는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살아온 내력을 바위·동굴에 그림으로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문자를 발명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아온 역사를 글로 소상히 적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글을 알면서도 민족이 살아온 과정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은 불행한 역사를 가졌다고 할 것이며, 자기 민족의 흘러온 내력을 진실하게 남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주인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는 미지수에 속한다.

속초시에 살고 있는 이북 오도민 연합회 회원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살게 된 동기, 살아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생각과 지난날들에 대한 소상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의 내력과 살아온 역사에 대한 발자취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6·25전쟁의 북한측 시발점이었고, 전쟁 중에는 전쟁터로서의 역할을 다한 이곳에는 살고 있었던 원주민은 남북으로 흩어지는 관계로 수복 직후에는 이곳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곳이다.

이러한 속초에 고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겠다는 일념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네 실향민이었다. 청호동 모래밭에 움집을 짓고, 영랑동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그날 그날 생계

를 꾸려온 우리에게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53년 7월 27일 6·25전쟁이 휴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희망을 접어둔 채, 이 땅을 갈고 닦으며, 고기를 잡고 벽돌을 쌓으며, 이곳에 정을 붙이면서 살아온 것이다. 우리 시가 '63년 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전국에서 모여온 사람들로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었고 전세계로 향한 관광 도시 개발에 한마음 한 뜻이 되고 있다.

이 땅에 발붙인 실향민들이 지난 50년 동안 주체로서 살아온 역사를 추슬러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를 펴낸다는 소식에 접하니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속초 지역 실향민들의 발자취를 재조명 하여 지역의 특수한 기록적 임무를 수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격려하여 마지 않는다.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CONTENTS

- 발간사/ 최용문 · 3
- 창간사/ 유창영 · 5
- 축간사/ 동문성 · 7

제 I 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역사와 사회

제1장 한국전쟁과 속초/ 전상인 · 33

- 1. 한국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 34
- 2. 해방과 전쟁 사이의 강원도 · 38
- 3. 한국전쟁과 강원도 · 42
- 4. 한국전쟁과 속초지역의 사회 변동 · 45

제2장 피난민과 난민법/ 박용길 · 49

- 1. 난민법의 개요와 피난민의 난민지위에 관한 논쟁 · 51
- 2. 피난민의 정착과정과 난민지위 획득과정 · 56
- 3. 속초 피난민의 난민지위와 실제적 경험 · 62

제3장 피난민의 특성과 정체성/ 김귀옥 · 75

- 1. 속초 피난민의 이주 과정 · 76
- 2. 이주민의 특징 · 81
- 3. 이주민의 정체성 · 87

제4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정/ 박철환 · 97

- 1. 어떤 회상 · 98
- 2. 그래서 더 서러운 타향 · 102
- 3. 어찌 잊으랴 그 날을 · 104
- 4. 정착의 몸부림 · 110
- 5. 정착의 과정 · 118
- 6. 망향동산 · 124

CONTENTS

제5장 속초의 지리적 특성과 피난민의 취락형성 과정/ 옥한석 · 127

1. 속초의 지리적 특성 · 127
2. 해방이전의 취락 형성과정 · 129
3. 피난민의 개척에 의한 취락 형성과정 · 132

제6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의 역할/ 사득환 · 137

1. 속초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 기구 · 138
2. 한국 전쟁 전 · 후 피난민 정책 · 145
3. 속초 피난민과 행정의 역할 · 155

제7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산업구조/ 심상목 · 165

1. 농업 · 167
2. 수산업 · 169
3. 상업 · 176

제Ⅱ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문화와 생활사

제1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음식/ 황재희 · 191

1. 속초의 향토 음식 · 192
2. 속초의 북한 음식 · 196

제2장 속초 피난민의 민속/ 장정룡 · 211

1. 세시풍속 · 215
2. 통과의례 · 220
3. 민속신앙 · 224
4. 민속극과 놀이 · 230
5. 구전문요 · 232

CONTENTS

제3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언어/ 김무림 · 239

1. 속초 방언의 위상 · 240
2. 북한 방언의 특성 · 242
3.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 특징 · 252

제4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사회복지 · 환경 · 교육/ 신재주 · 275

1. 속초 피난민 정착촌의 형성과정과 이동 동기 · 277
2. 피난민과 교육환경 · 280
3. 피난민과 보건 · 복지 관계 · 285
4. 피난민과 사회 · 문화적 환경 관계 · 288
5. 피난민과 직업환경 관계 · 298

제5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 환경/ 정재국 · 303

1. 인문 환경 · 304
2. 자연적 조건 · 307
3. 피난민 가옥의 구조 · 309

제6장 문학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 채재순 · 321

1. 실향민 문학의 이해 · 321
2. 속초 실향민 문학 개관 · 323
3. 시 문학을 통해 본 실향의 공간 · 328
4. 소설 및 극 문학을 통해 본 실향의 삶 · 356
5. 속초 실향민 문학의 의의 · 373

제Ⅲ 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과 속초발전

제1장 피난민 정착이 속초 경제에 미친 영향/ 김영식 · 379

1. 속초시의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 381

CONTENTS

2. 속초시 피난민의 경제생활 · 387

제2장 속초의 남·북 통일 및 북방교역 활성화 전망/ 김영식 · 389

1. 북방교역 활성화 방안 · 390
2. 북방 항로의 전망과 개선 방안 · 394

제3장 피난민 문화의 복원과 전승/ 장정룡 · 401

1. 피난민 문화의 인식과 정착 · 401
2. 피난민 문화의 결집과 재창조 · 403

제Ⅳ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

제1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 양언석 · 409

1. 고향에서의 삶 · 411
2. 피난과정에서의 삶 · 414

제2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 체험기 ·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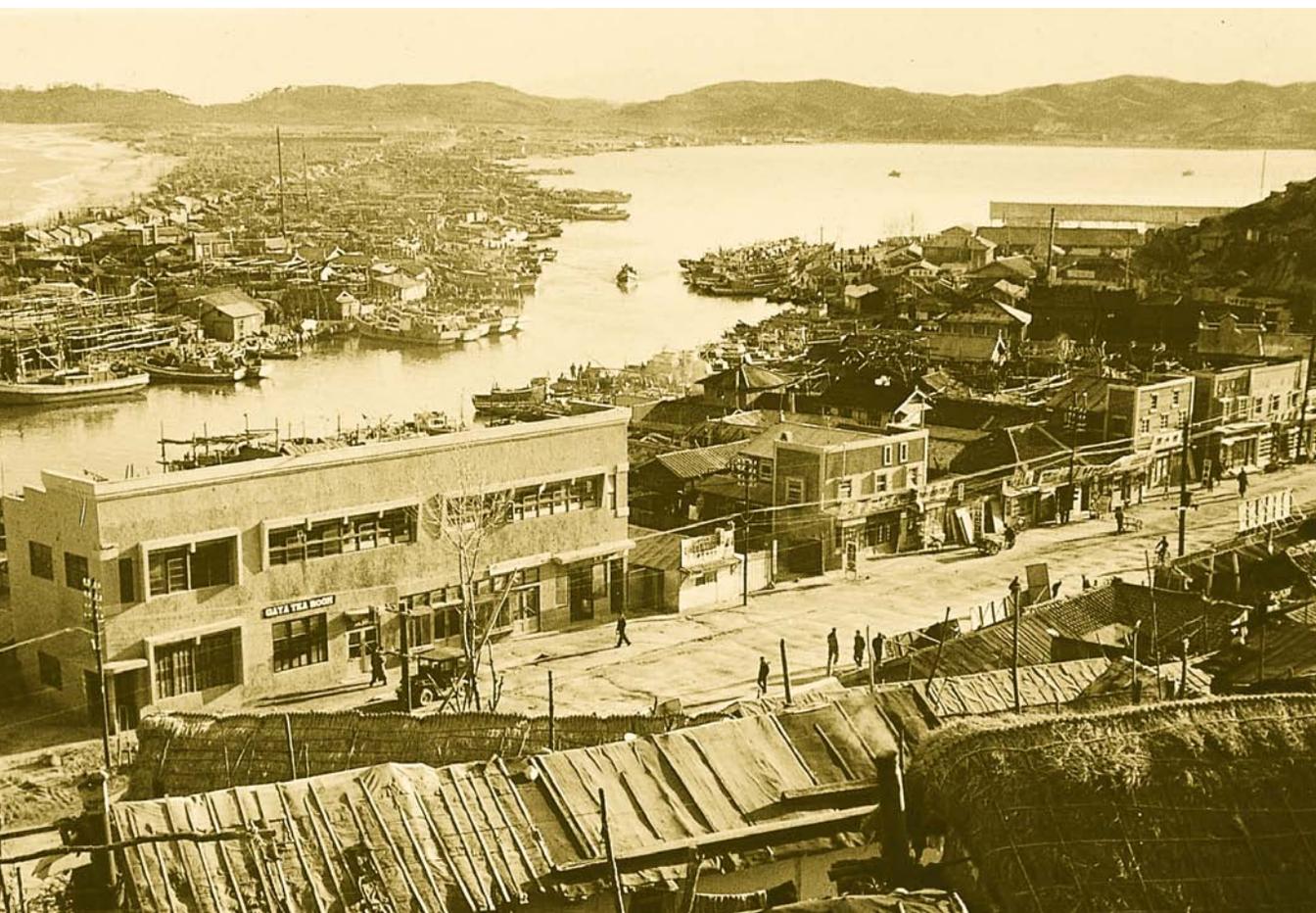
제Ⅴ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사료,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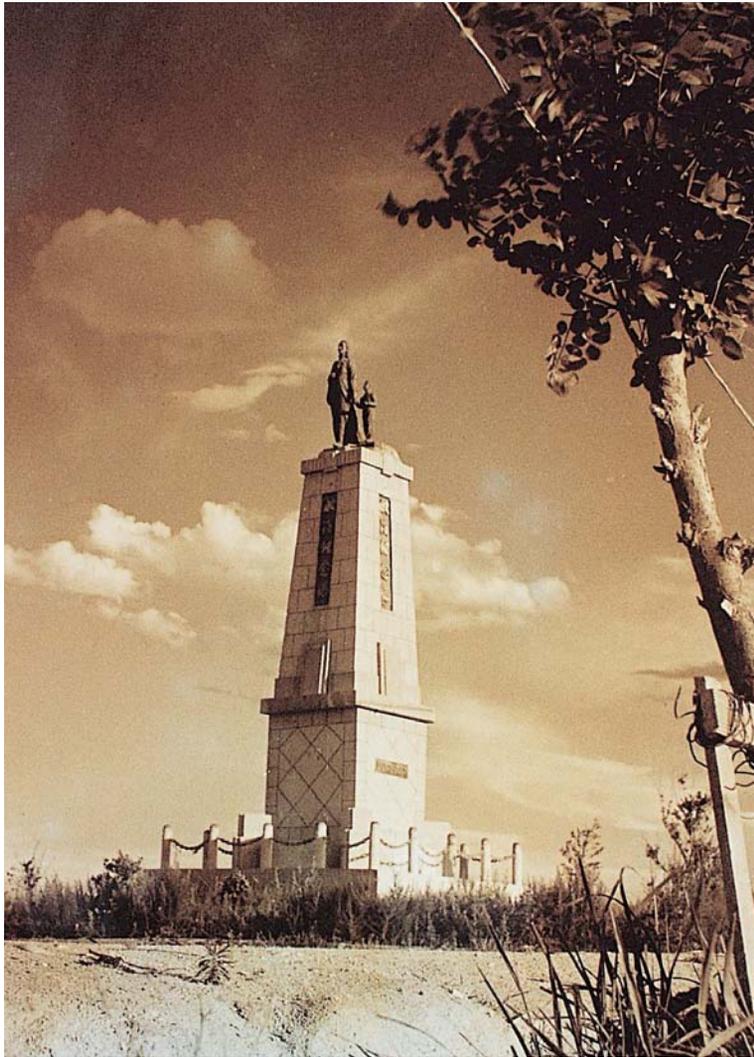
1. 사료 · 연표/ 장재환 · 485

□ 부 록

1. 이북 5도민회, 시·군민회 현황 · 549
2. 설문조사 · 597

사진으로 보는 —————
속초의 어제와 오늘





수복기념탑 收復紀念塔

1954년 5월 10일 건립 당시의 수복탑.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모자상母子像이 파손, 같은 해 11월 17일 복원된 오늘의 기념탑 이전의 모습이다. 속초가 수복된 지역임과 북녘 피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하고 있는 징표가 되는 문화 경관 제1호이다.

사진 / 최구현(북고성 · 원로 사진 작가)

모자상부母子像賦

시 · 장호강張虎崗

침침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굽이굽이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짓궂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둘로 갈리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고 온 옛집이
젓터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피땀 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 고운 북녘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 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 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있기에
모진 풍파 육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 길 더듬는 네 다리는 비록 가날프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가며
걸음걸음 내던이는 참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소중한 옆에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 듯 아롱진 향수가 담뱃 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

갯배* 1

시 · 이상국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 저녁 빼걱거리며
청호동** 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
갈매기들은 슬픔 없이도 끼룩거리며 울고
아이들이 바다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는 동안
세계의 시궁창 같은 청초호에 아랫도리를 적시며
우리는 우리들 피난의 나라를 끌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우리들 살 속을 헤맨 것이다



* 속초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 청초호를 오가는 나룻배.

** 속초에 있는 함경도 피난민이 모여 사는 동네.



속초 시내에서 본 청호동과 동해(1954. 3)
(한국전쟁 참전미군 Mr. Fancher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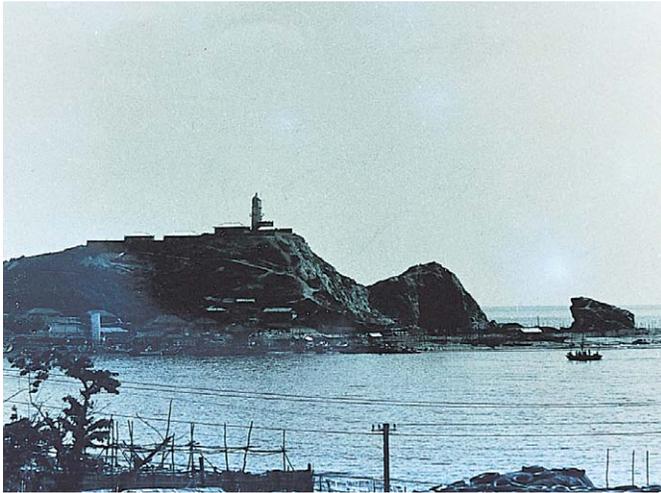
영랑동
먼지를 날리면서 지나는 군용트럭과 방과후
집으로 가는 학동들(1954. 3)
(Mr. Fancher 제공)



속초·양양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 부부(1954)
(속초1군단 민사처장 오천덕 대령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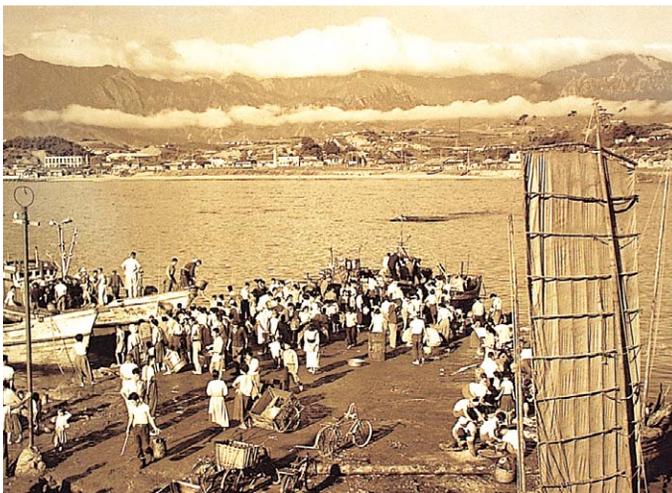


양양고아원생들(1953)
(속초1군단 민사처장 오천덕 대령 제공)
(위 사진들 김귀옥 소장)



57년 6월 첫 점등된
 '속초등대' 60년대의 모습.
 속초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뱃길 길라잡이로 영랑동 성황봉城隍峰에
 세워졌다. 여기가 속초 일번지로 행정구역은
 속초시 영랑동 1의 1번지(1통1반)이며,
 '속초 8경'의 한 곳이다.

속초시 중앙동과
 청호동 사이 수로水路와 양안포구兩岸浦口를
 가득 메운 어선들 - 당시 부산과 맞먹는
 어획고를 자랑하던 속초항이다.



50년대 초 속초항의 선창船倉.
 돛배(범선帆船)가 지금으로서는
 이채로움을 넘어 그저 경이롭다.



범선帆船들.
잡아온 오징어를 아낙네들이 모래톱에서
할복剝腹하고 있다.



속초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돛배(범선)로 명태잡이를 마치고,
노을진 항구로 귀향하고 있다(영금정 앞바다).
오늘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낭만이겠지만
어로 형태로는 가장 원시적으로 근해 어로에서나
이용될 수 밖에 없었던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아낙네들의
명태 낚시 손질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고된 생활이었다.



우물과 지하수를 펌프로 뽑아 올려 사용하던 시절이라 - 냇가는 바로 빨래터였다(부월리 <조양동> 온정천).



속초 시가의 비포장 시절 -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던 때의 눈 내린 시가지에 군인 질차도 간신히 지나고 있다.

어느 피난민의 상여 - 그리도
그리던 고향을
지척에 두고
한 많은 타향살이를
마감하였으니,
어찌 눈인들 제대로 감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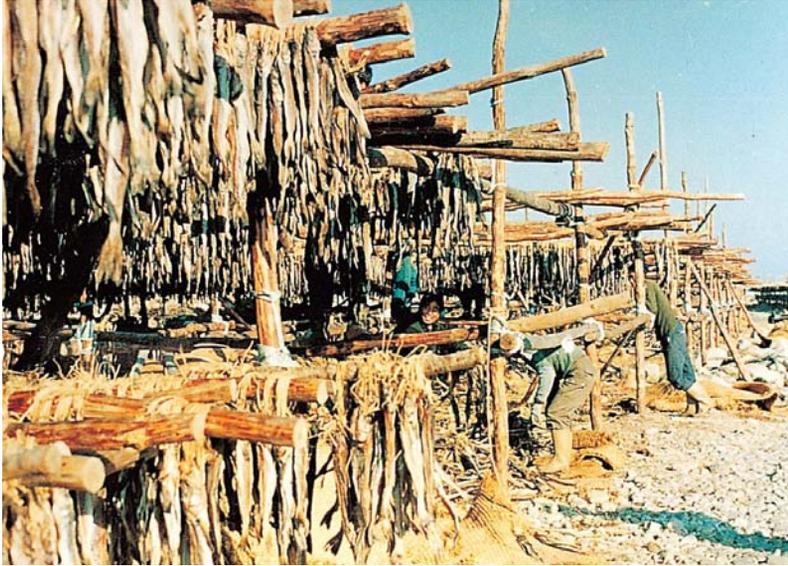
명태와 오징어의 주어장
전진기지로 속초항은 북적거려,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던 호경기였다.
어부들이 밤새 잡아온 오징어를 아낙네들이
할복剖腹하여 창자를 끄집어 내어 씻는다.



오징어를 할복하여 덕장 새끼 줄에 걸어서 말린다.
아이들도 한 몫을 하여야만 했다.



60년대 들어서 범선帆船에서 발동선發動船으로
어로작업 형태가 발전하고 있다.
조선소造船所의 하루는 25시도 짧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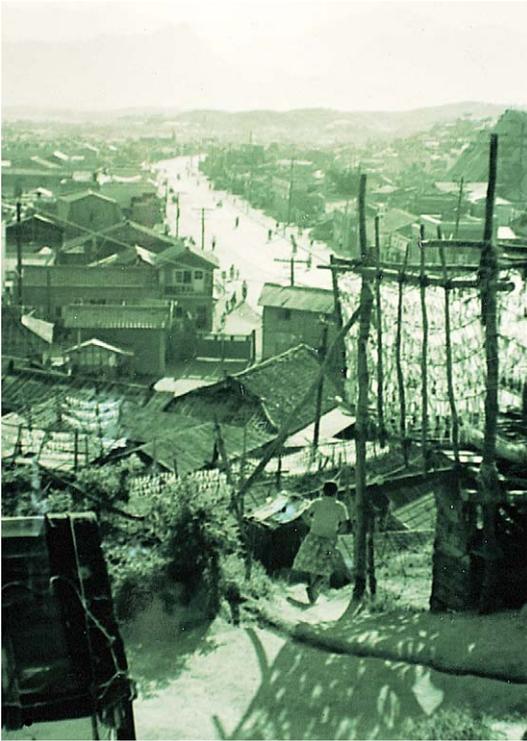


명태明太는 생태生太 그대로
서울 등지로 반출되기도 했지만,
많은 양이 덕장에서 황태黃太로
건조되어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꼽혔다(속초시 대표동 쌍천 덕장).

속초항에서는 잡아온 오징어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어협(수협) 위판장에 산더미
같이 쌓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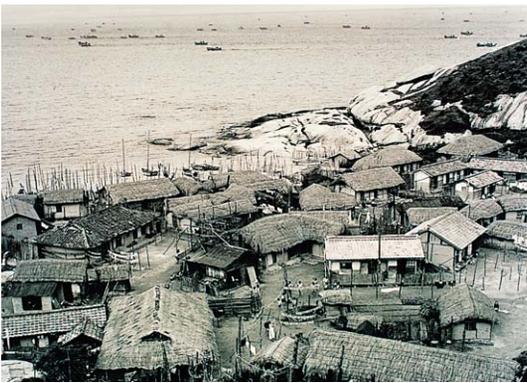


뜯어온 미역을 아낙네들이
모래톱에 가마니를 깔고
건조하고 있다.
소위 '미역 바위'는
입도선매立稻先賣 되던
시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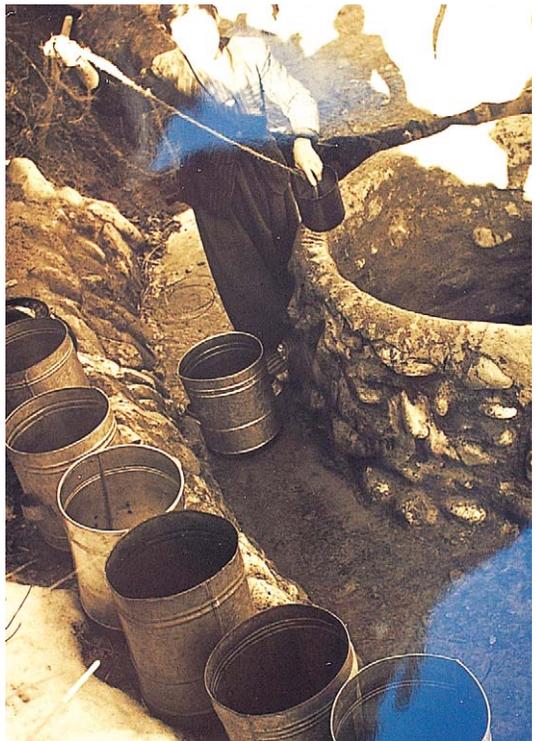
5,60년대 초의 속초시가 - 온 시내가 오징어, 명태 덕장이었다.

설악산은 뱀감의 보고寶庫였다. 새벽밥을 지어 먹고 노학동 뒷산에 올라 술가지 낙엽들을 긁어 모아 한집 가득이고, 해가 기울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낙네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속초등대 뒤(북쪽)의 새족마을. 이들 초가草家에는 피난민들에게 큰 안식을 주었다.

피난 초에 물 얻기는 전쟁이었다. 시내의 한 우물에서 주부가 차례를 얻어 강통으로 만든 두레박으로 물을 담아 올리고 있다. 차례를 맞으려면 죽히 너댓 시간은 보통이었다.





피난민들이 일구어낸 속초가 드디어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 되었다. 그리고 1966년 1월 1일 동제가 실시되었다. 속초시 승격(위)과 동제 실시 경축식(아래).



속초읍 청사 - 속초시는 1966년 9월 28일 새 청사로 이전 할때까지 이 청사에서 집무하였다.



'99 강원 국제 관광 박람회 상징탑

자연 경관의 으뜸 속초-산과 바다와 호수 그리고 온천의 고장에서 '99년 9월 개최된 국제 관광 박람회의 상징탑이다. 73m 높이에 언뜻 여인상을 방불케 하는 나선형으로 청초호 유원지에 자리잡아 동해·설악·시가지를 가장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속초 제3의 문화 경관이다.

사진 / 최홍영(북고성·사진 작가)



2000년 고층숲으로 덮여있는 속초시



80년대의 속초시



속초시가市街의 휘양찬란한 야경은 어느 국제 도시에 견주어도 과히 으뜸이라 하겠다.



2000년 들어 북방 교역과 관광 전진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속초시 - 러시아 · 중국의 교역선(동춘호), 금강산 관광선(설봉호) 취항을 경축하고 있다(동명항 신항만 부두).

사진 / 속초시 문화공보실 제공.



제1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역사와 사회

- 제1장 한국 전쟁과 속초
- 제2장 피난민과 난민법
- 제3장 피난민의 특성과 정체성
- 제4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정
- 제5장 속초의 지리적 특성과 피난민의 취락 형성과정
- 제6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의 역할
- 제7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산업구조



제1장 한국전쟁과 속초

전 상 인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전쟁이 좁게는 한국 현대사, 넓게는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커다란 민족적 비극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20세기의 한가운데 벌어진 한국전쟁은 일제 식민지 경험에 의한 민족사의 시련이 마침내 민족의 분단과 대립의 고착화로 귀결된 역사적 재앙이었다. 또한 그것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냉전 체제의 성립을 기정사실화 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전쟁을 빼놓고,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을 제외하고 지난 반세기에 걸친 세계사의 특징과 운명을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렇듯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의미는 금년 한 해 활발했던 발발 50주년 행사로 쉽게 마감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비극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 안에서도 강원도이다. 언필칭 회자膾炙되는 바 ‘분단의 1번지’로서, 강원도는 냉전과 전쟁, 그리고 그로부터 연유하는 분단 체제의 최일선에 위치해 왔다. 전 지구적 차원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동아시아의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강원도의 남북 분할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전쟁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도 강원도였고, 충성이 가장 나중에 멎은 곳 역시 강원도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억이 점차 빛 바래는 상황에서도, 강원도에서만은 냉전과 전쟁의 그림자가 유독 여전히 진하게 드리우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영북嶺北 동해안 지역에 끼친 한국전쟁의 충격은 실로 드라마틱하지 않

을 수 없다.

38선 이북 양양군에서는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로 평가되는 ‘제3의 미군정’이 실시되었고,¹⁾ 한국전쟁 이전까지 양양군의 일개 면면에 불과했다가 읍으로 승격된 속초는 그 이후 도시로서 일취월장日就月將 성장에 발전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양양군을 제치고 영북 최대의 거점 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 대치 하에서 이 지역은 군사 전략적 요새로 성격이 규정되었고, 특히 속초는 월남민이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난민의 섬’이 되어²⁾ ‘남한내 북한’ 혹은 ‘강원도내 함경도’라는 독특한 분단 문화를 창출해 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과 강원도의 역사, 혹은 한국전쟁과 영북의 현대사는 상호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전쟁 연구 자체도 이제는 관행적인 (국제)정치학적 접근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지방사地方史’에 의해 쇄신되고 보완되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이 글은 한국전쟁을 강원도의 시각과 속초 지역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 1에서는 한국전쟁의 거시적 배경과 구조적 원인, 그리고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제 2에서는 해방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의 상황을 집중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제 3은 강원도가 경험한 한국전쟁의 시말始末을 논의할 것이며, 제 4는 그 가운데서 특히 속초 및 인근 지역의 제반 사회 변동에 끼친 한국전쟁의 영향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1. 한국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3년 이상 계속된 한국전쟁은 개전 쉰 돌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끝없는 학문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분석은 전통주의

1)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 사회』46호 (2000년 여름), 30~53쪽.

2)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강원사회연구회 (편), 『분단강원의 이해: 상황과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214~230쪽.

와 수정주의로 대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주의는 ‘남침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 및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 측의 적극적인 주도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입장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수정주의는 비록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북침설’에 동조하지는 않으나 전쟁의 궁극적인 책임을 남한이나 미국 측에 돌리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연구에는 한반도 내부 사정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이른바 ‘내인론’과, 국제 정세에서 그 발단을 찾는 ‘외인론’이 서로 맞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네 가지 입장은 상호 중첩되어 다양한 종류의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남침설은 구미의 전통주의 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스탈린 단독 주도설”, “김일성 단독 주도설”³⁾, “스탈린 주도, 김일성 보조 역할설”⁴⁾, “김일성·스탈린 공동 주도설”⁵⁾, “김일성 주도, 스탈린 및 모택동 지원설”⁶⁾ 등으로 나누어진다. 당연히 여기서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역할에 비중을 둘수록 외인론에 가깝고 김일성 등 북한 내부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내인론에 접근한다. 예컨대 박명림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공동 결정이었고, 그 배경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전국적 확대와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 세력’의 축출을 위한 이른바 “국토완정론國土完定論”에서 구해진다.

수정주의의 입장도 외인론에 속하는 것이 있고, 내인론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이견을 드러낸다. 초기 수정주의 시각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서 한국전쟁의 기원을 찾았다.⁷⁾ 다시 말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에 대해 소련이 불가피하게 대응하게 되면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또한 한국전쟁이 파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거나 남북한의 정책이 그들의 동맹국, 곧 소련이나 미국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만큼, 이러한 견해는 궁극적으로 외인론에 다가가 있다.

이와 반면에 1980년대 이후 브루스 커밍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된 수정주의 이

3) Robert R. Simons, “The Strained Alliance” (London: The Free Press, 1975)

4)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서울: 두레, 1998)

5) 서주석,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한국 정치 외교사 학회 (편), 『한국전쟁과 휴전 체제』, (서울: 집문당, 1998), 13~40쪽.

6)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① 결정과 발발』(서울: 나남, 1996)

7)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Y: Harper & Row, 1972)

론의 새로운 흐름은 전통주의에 입각한 남침설을 거부하면서도, 개전의 책임을 북한이나 공산국가에게 돌리는데 인색했다.⁸⁾ 그 대신, 여기에서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일제 식민지 이래 한국 사회 안에 내재되어 왔던 각종 사회경제적 모순과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계급 투쟁적 요인들 및 정치적 갈등에서 찾는다든 점에서 내인론에 밀착한다. 말하자면 한국전쟁은 구조적으로 발발이 불가피했던 '내전' (civil war)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책임은 결코 면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커밍스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미국의 '자극' (provocation)과 북한의 '침공' (invasion)이 결합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예컨대 신 수정주의를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내인론과 외인론간의 균형 잡힌 조화를 통해 한국전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며,⁹⁾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소련측 자료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남침론을 내세우는 전통주의 학설이 다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편으로 "전통주의에 고증考證을 더한" (orthodoxy plus archives) 것으로서 평가되면서 "고개 숙인 수정주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¹⁰⁾ 다른 한편에서는 "수정주의에 고증이 더해진" (revisionism plus archives) 결과, 수정주의의 변신을 의미하는 '후기 수정주의'로 해석되기도 한다.¹¹⁾ 다시 말해 한국전쟁의 내전적 성격을 강조하는 커밍스류의 수정주의 자체는 그 본질이 별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냉전의 붕괴 이후 구舊공산권 중주국에서 공개되기 시작한 사료史料의 가치와 신빙성 문제, 북한측 일차 자료의 결정적 부재 혹은 공백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전쟁의 기원 논쟁은 최종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국전쟁이 국제전적 성격에 내전적 특성을 가미한 복합적인 기원을 갖고 있으나, 1950년 6월 25일의 실제 발발 과정에 있어서는 김일성과 북한의 동맹국, 곧 소련이나 중국의 결정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는 남침론이 거의 정설로 수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

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1)

9) John R. Merrill,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 of Delaware Press, 1989); Yonosuke Nagai, "The Korean War: An Interpretative Essay", The Japanese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 1 (1981)

10)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 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출발」,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 현대사』,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98), 259~298쪽.

11)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2000), 190쪽.

있는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에 따라 성취된 민족의 해방은 그러나 미소 양군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38선 남북에서는 미군정과 소군정이 각각 실시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남한과 인민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북한 사이의 이념적 간극은 크게 벌어졌다. 특히 독립 국가의 건설이 지연되는 대신 통일국가 수립 가능성을 내포했던 미소간의 신탁통치 구상이 무산되면서, 남북한은 각자 분단국가의 길로 일로 매진一路邁進했다. 그 결과, 해방된 지 3년만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수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수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각각 들어섰다.

그리고 양쪽 모두 한반도 내에서 배타적 정통성을 자임하면서 '무력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승만의 그것이 호언豪言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김일성의 그것은 준비된 내실內實에 기초한 것이었다.

분단 체제가 수립된 그 이듬해 여름, 한반도에서는 이미 전운戰雲이 진하게 감돌았다.

38선 부근에서 '국경 충돌'이 다반사茶飯事로 일어났던 것이다. 1949년 초, 김일성은 이른바 '국토완정론'을 통해 북한 내 사회주의 혁명의 폭력적 대남 확대를 공개적으로 다짐하였다. 김일성이 보기에 해방 직후 한 때 좌경적 정치 발전을 경험한 바 있던 남한이 자생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이룩하는 것은 더 이상 무망無望했다.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를 한반도에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전쟁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1949년 6월말까지 남한 주둔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한반도에는 일시적 힘의 공백 상태가 나타났다. 그 동안 김일성은 비밀리에 한국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지원을 약속 받았고 모택동의 동의도 얻어냈다. 게다가 남로당 출신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북한 인민군이 남침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남한 내 민중 봉기의 폭발을 장담했다. 이로써 전쟁에 대한 전략적 구상은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전쟁으로의 실제적 이행을 위한 군사적 준비였다. 1950년 6월에 이르러 북한 인민군은 마침내 공격 명령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막을 올렸다. 일차적 점령 목표는 수도 서울이었는데, 의정부-서울 라인을 주공격 방향으로, 그리고 춘천-수원 라인을 보조 공격 방향으로 한 북한 인민군의 공격에 따라 서울은 개전 사흘만에 실패失陷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석 달 동안 북한군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전선을 낙동강까지 밀어부쳤다. 이것이 바로 '제1차'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미군의 신속한 컴백, 초유의 유엔군

결성 및 투입, 그리고 남한 내 민중 봉기의 불발은 북한의 원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1950년 9월 유엔군의 성공적인 인천 상륙 작전에 따라 전세는 역전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군과 국군은 북한 인민군의 38도선 격퇴에 머무르지 않고 차제에 북진 통일을 모색했다. 이를 일반적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라 부른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한국전쟁의 성격은 국제전(國際戰)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대대적인 항미원조(抗美援朝) 파병 때문이었다. '제3차'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951년 봄에 이르러 한국전쟁은 38선 부근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년 이상 계속된 휴전회담 끝에 한반도에 전쟁이 중단되고 불안한 평화가 찾아온 것은 1953년 7월 27일이었다.

2. 해방과 전쟁 사이의 강원도

해방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했다. 그 결과, 조선조 태종 13년(1413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8도제로 실시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강원도 형상이 만들어진 이후,¹²⁾ 처음으로 '두 개의 강원도' 시대가 개막되었다. 일제시대에도 없던 강원도의 분단이였다. 38선은 양양군 현북면과 서면, 인제군 기린면과 남면, 그리고 춘천군 북산면과 신북면 및 사북면 등을 150 Km의 길이로 가로지르며 강원도를 거의 한 가운데서 양단했던 것이다. 이로써 강원도는 11개 군과 82개 읍·면을 가진 38선 이북과, 10개군과 91개 읍·면을 가진 38선 이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철원, 양구, 화천, 이천, 회양, 통천, 고성, 간성 등 8개 군은 완전히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

미군과 소련군 가운데 강원도에 선착한 것은 후자였다. 영북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말경 양양군 현북면에 소련군이 도착하였고, 영서의 경우에는 9월 초 무렵 춘천군 추전리와 원평리에 소련군이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볼 때 소련군은 대체로 38선 이북에 머물렀다. 그러나 강원도에 미군이 진주하기 이전의 공백을 틈타 화천 주둔 소련군은 춘천 시내

12) 강원도, 『강원도사 - 역사편』, (춘천: 강원도, 1996), 202쪽.

로, 그리고 양양 주둔 소련군은 주문진을 거쳐 강릉까지 남하하여 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¹³⁾ 강원도에 미군이 처음 등장한 것은 9월 20일 경 춘천이었고, 중대급 이상의 부대가 본격적으로 진주하기 시작한 것은 10월 말 쯤, 그리고 미군정 체제가 강원도에서 확립된 것은 12월 초 이후였다. 그 동안 강원도에는 일제 식민지의 영향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공권력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해방 이튿날인 8월 16일, 강원도 도청 소재지 춘천에서는 강원도 자치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는 곧 서울에서 결성된 건준의 도단위 하부 조직으로 편입되었다.¹⁴⁾

흥미로운 것은 이 무렵 강원도는 38선을 경계로 하여 도의 영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에 덧붙여 이념적으로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영동과 영서가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춘천에 소재 하던 건준 강원 지부는 보수·우익계의 수중에 장악되어 미군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좋았다.¹⁵⁾ 그리고 원주 또한 미군정기에 있어서 전국에서 치안 질서가 가장 모범적이었던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¹⁶⁾ 하지만 영동 지방의 사정은 사뭇 달랐다. 이 곳은 지리적으로도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 시설도 나쁜 편에 속했다. 특히 강릉은 일제 말기에 인구 이동이 많았고 또한 토지의 반 이상이 미작지米作地라 소작농이 태반이었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강릉을 위시한 영동 지역에는 좌익계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분출하여 미군 당국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¹⁷⁾ 삼척의 형편도 강릉과 유사했다. 당시 삼척은 도내 유일한 산업 지대로서 3만여 명의 노동자가 밀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이 춘천 점수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먼저 군대를 파견한 곳이 삼척이었다는 사실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¹⁸⁾

하지만 영동과 삼척 지역의 좌익계 정치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미군정의 물리력 증강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지만, 신탁통치 지지 선언에 따른 좌익계의 대중적 기반 약화 탓이기도 했다. 강원 도내에서 미군정 체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비교적 넉넉한 병력이 도내 전역에 배치되자 대세는 더욱 더 미군정 혹은 미군정이 비호하는 우파 세력으로 넘어갔다. 우파 정치 엘리트 가운데 특히 강원도에는 이승만이 주도하던 대한독립

13) 양재인, 『강원도비사』, (춘천: 강원일보사, 1974), 29-32쪽.

14) 강원도, 『강원도사 - 현대편』, (춘천: 강원도, 1995), 59쪽.

15)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p. 340.

16) 강원도, 『강원도사 - 현대편』, 60쪽.

17)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p. 340-341.

18)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p. 340.

촉성국민회(독촉)가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1946년 가을에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입의) 선거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세력은 잇따른 압승을 거두었다. 해방 이후 강원도 정치가 이승만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향후 강원도의 장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강원도는 지리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반공 노선의 최고 전진 기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한편, 한반도의 민족 분단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찾아온 곳이 강원도였지만 막상 분단의 고착화 과정은 오히려 더디게 진행되었다. 38선이 강원도의 정치적 분단을 초래했지만 38선이 아직은 '국경'으로 공고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도에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까지 남북한간의 주민 왕래와 물물교환이 지속되었다. 춘천군 사북면, 인제군 남면, 그리고 동해안의 주문진 일대는 남북한간의 비공식적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졌다.²⁰⁾ 이 때 쌀과 의약품, 광목, 고무 제품이 38선 이북으로 많이 넘어갔고, 비료, 화공약품, 인삼 등이 이남으로 주로 내려왔다고 한다. 특히 춘천은 38선 이북으로부터 넘어오는 난민, 귀향자, 그리고 일본인들을 남하시키는 중계지(relay point)의 역할을 담당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질은 전운戰雲 역시 강원도를 먼저 찾아왔다. 분단이 불안정하였던 만큼 군사적으로도 불안정했던 것이다. 예컨대 1949년 5월 4일에는 춘천에 주둔하던 강원도 연고 국군 제8연대 소속의 두 개 대대가 집단 월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²²⁾ 1946년 4월 국군의 모체가 된 국방 경비대가 창설될 무렵 강원도에서는 지역을 연고로 한 제8연대가 창설되었는데, 1948년 10월에 발생한 이른바 '여수·순천 반란'의 여파로 대대적인 숙군肅軍 작업이 진행되면서 제8연대 산하 두 개 연대가 이를 피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른바 '표무원表武源·강태무姜太武 소령 월북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후일 북한군의 남침에 선봉을 서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순 사태의 시작은 전라남도였지만 그 종결은 강원도라고 말할 수

19) 전상인, 「분단 시대의 강원도와 통일」, 강원 사회 연구회 (역음), 『강원 사회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 358쪽.

20) 강원도, 『강원도사 - 현대편』, 90쪽.

21)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p. 340.

22) 강원도, 『강원도사 - 현대편』, 83-84쪽.

도 있다. 왜냐하면 여순 사태의 주모자들이 북한으로 패퇴하면서 오대산과 태백산 등지에서 무장 빨치산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 소재 유격대 훈련소를 통해 대량의 게릴라를 이 지역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이다.²³⁾ 한국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강원도 지역을 후방 교란을 위한 최적지로 인식한 것이다.²⁴⁾ 그 결과, 1949년 여름의 강원도는 사실상 한국전쟁의 전초전 양상을 드러냈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측의 북한 내 유격 활동도 있었다. 이른바 ‘호림虎林부대 사건’은 국군과 서북 청년단이 유격대를 조직한 다음 1949년 6월 29일에 설악산 및 금강산 줄기를 타고 들어가 원산 남방 안변 지구까지 침투한 일이었다.²⁵⁾ 그리고 1949년 8월에는 춘천과 홍천, 그리고 인제 일대에서 남북한 정규군간의 전투가 무려 19일 동안이나 지속되기도 했다.²⁶⁾

하지만 남북한 군대의 무력 충돌은 1949년 가을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는 북한이 전면 남침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몰두했기 때문이었다. 1949년 9월부터 38선 이북 강원도 인민위원회 주도로 남침을 위한 각종 도로와 교량의 신설 및 수리 작업이 착착 진행되었다.²⁷⁾ 또한 6월 14일에는 북한 인민군 제3사단이 철원에 도착하였고, 함흥에 주둔하던 제2사단 또한 춘천의 바로 코앞인 화천에 6월 17일까지 도착하여 전투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²⁸⁾ 이에 따라 38선 이북 지역의 강원도 토박이 주민들은 대거 소개疏開되었다. 이렇듯 강원도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23) 강원도, 『강원도사 - 현대편』, 90~91쪽.

24)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pp. 280.

25)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東草市誌』(속초: 속초시, 1991), 86~88쪽.

26) 강원도, 『강원도사 - 현대편』, 90쪽.

27) 박명림,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 ①』, 334쪽.

28) 박명림,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 ①』, 368~369쪽.

3. 한국전쟁과 강원도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일제히 38선을 넘어 무력 침공을 단행할 때부터 춘천은 북한 인민군의 주요 공격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 점령을 위해 개성과 의정부가 주공격 방향으로 설정되었다면, 춘천은 서울 후방에 위치한 수원을 장악하기 위한 보조 공격 방향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춘천 지역은 한국전쟁 개전 당일부터 진화戰火에 휩싸였다. 그러나 강원도의 한국전쟁은 사실상 이미 하루 전에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북한군의 유격 부대인 제 766부대와 육전대인 제 549부대가 이미 6월 24일에 양양을 출발하여,²⁹⁾ 어선과 작은 화물선에 분승하여 이튿날 새벽 3시경에 38선 남쪽 명주군 옥계면의 정동 향에 약 400명, 그리고 삼척군 원덕면의 임원 향에 약 600여명이 도착하였기 때문이다.³⁰⁾ 이들의 목적은 한국군 후방에 상륙하여 지역 게릴라와 연대, 국군 제8사단의 퇴로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와는 달리 강원도에서 북한 인민군은 한동안 예상외로 고전했다. 우선 춘천을 공격하던 북한 인민군 제 2사단은 계획된 시간 안에 춘천을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국군 제 6사단에 의해 춘천 방면으로의 공격이 저지 당한 것이다. 개전 당일 정오까지 춘천으로 진격하고자 했던 북한 인민군은 6월 28일 밤 10시에 가서야 춘천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만약 인민군의 초기 춘천 전투가 차질을 빚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인민군 사단들이 수원 지역을 점령해 서울로 북상하는 국군 지원부대를 차단”했다면 “한국전쟁의 양상은 실제의 것과 전혀 달랐을 것이다.”³¹⁾ 다시 말해 춘천 전투는 “서부전선의 국군 주력으로 하여금 만 3일이라는 황금 같은 귀중한 시간을 벌게” 하였고,³²⁾ 이런 점에서 “이 전공戰功은 춘천 전투라는 일개 지역 전투에서의 승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한국전쟁 초기의 가장 중요한 승리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³³⁾ 이른바 ‘춘천 대첩’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남침 기도 자체를 좌절로 끝나게 하는 결정적 계기였을 뿐

29) 박명림,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 ①』, 432쪽.

30) 강원도, 『강원도사 - 현대편』, 93~94쪽.;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 pp. 583.

31)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74쪽.

32) 김주형, 『6·25 초전격과 구국대승전사』, (서울: 미래문화사, 1996), 23쪽.

33)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76쪽.

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냉전 대결에서 스탈린의 의도를 최초로 좌절시킨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³⁴⁾ 남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춘천은 ‘구국救國의 도시’였다.

하지만 춘천 전투만이 전쟁 초기에 있어서 북한군에게 좌절을 안겼던 유일한 승전勝戰은 아니었다. 동해안을 타고 포항을 목표로 하여 남하한 북한군은 인민군 제 5사단이었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전에 강원도 내륙 산간 지방에 투입한 비정규전 부대와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해상으로 침투한 상륙 부대와 함께 수륙水陸 양면에 걸친 공격을 감행하였다.³⁵⁾ 그리고 이들의 일차적 점령 대상은 대관령을 차지하고 있는 강릉이었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한편으로는 태백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해안도로 때문에 전차나 기계화 부대가 기동하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³⁶⁾ 대신 게릴라 작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이었다. 북한군의 유일한 오토바이 연대가 인민군 제 5사단에 배치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³⁷⁾ 그런데 사단 사령부를 강릉에 둔 국군 제 8사단은 동해안 전투에서 초기 북한군의 남침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했다. 국군 제 8사단은 인민군 제 5사단을 강릉 지역에 7월 2일까지 약 1주일 가량 묶어 두었던 것이다.³⁸⁾ 이는 북한군이 동해안을 타고 포항이나 부산으로 남하하기 이전에, 미 해군을 동해로 진출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만약 초기 강릉 전투의 승리가 없었다면 한국전쟁의 결과는 또 다시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춘천 전투와 강릉 전투를 통하여 강원도의 초기 한국전쟁은 전반적으로 남한에 유리한 전세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한국군 및 유엔군에게 반격을 위한 시간을 벌어다 준 것에 불과했다. 일단 춘천이 북한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강릉이 함락되면서 강원도는 빠른 속도로 공산화되었다. 한국전쟁 전체의 실질적인 분수령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 강원도가 한국전쟁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인천 상륙 작전 이후 강원도 산간 지역은 북한군의 최대 퇴

34) 김형식, 「6사단의 춘천 대첩은 세계사를 바꾸었다」, 『월간조선』1999년 4월호, 135쪽.

35) 전쟁 기념 사업회, 『한국전쟁사 ③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서울: 행림출판사, 1992), 101~102쪽.

36) 전쟁 기념 사업회, 『한국전쟁사 ① 요약 통사』(서울: 행림출판, 1990), 174쪽.

37)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편), 이원복 (역), 『한국전쟁 (1): 38선 초기 전투와 지연 작전』(서울: 명성출판사, 1991), 87쪽.

38) 전쟁 기념 사업회, 『한국전쟁사 ① 요약 통사』, 174~178쪽.

로가 되었다. 그런 만큼 강원도의 전쟁 피해는 초기가 아니라 후기에 집중되었다. 또한 동해안 전선은 1950년 10월 1일부로 한국군이 원산을 향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출발 지점이었다.³⁹⁾ 그 이전까지의 한국전쟁이 봉쇄(containment)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그 이후는 이른바 석권(rollback)을 위한 전쟁이었고, 그러한 전략적 변화의 기점이 바로 강원도 동부 전선이었던 것이다.

북진의 선봉에 섰던 부대는 국군 제 3사단 23연대였다. 9월 30일 저녁에 38선에 도달한 이 부대는 이튿날 새벽 5시에 38선을 돌파하여 하루 반만에 양양을 접수한 다음, 고성을 거쳐 원산으로 치달았다. 오늘날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기념되는 것은 바로 강원도에서 시작된 북진 공격 때문이다. 그러나 잇따른 중공군의 전면적 개입에 따라 전쟁의 목표는 석권으로부터 봉쇄로 다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1951년 7월 이후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강원도는 북한군과 한국군 사이의 이른바 ‘땅뺏기’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발생한 지역이 되었다. 지금도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 강원도에 한국전쟁 관련 기념비나 유적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지방의 경우 1951년 4월 말에 개시된 공산 측의 이른바 춘계 대공세를 방어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설악산 전투와 대관령 전투에서의 대승大勝은 공산 측으로 하여금 무력 공세를 거두고 휴전회담에 임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⁴⁰⁾ 이와 함께 동해안 지역에서는 1951년 여름부터 1953년 7월 휴전 때까지 한미 합동의 유격대 활동이 왕성했다. 이들은 북한의 해안 도시나 후방 깊숙이 기습 상륙하여 정규전 못지 않는 혁혁한 전과를 기록했다. 커크랜드부대, 아벤리부대, 스톱부대가 그들을 대표하는 부대 이름이다.⁴¹⁾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은 판문점에서 끝났지만 전투는 강원도에서 끝났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한국전쟁은 강원도에서 가장 나중에 종식되었다. 그리고 북한군의 초기 전쟁 계획에 결정적인 차질을 야기한 곳도, 38선 이북 북진을 통해 전쟁의 물꼬를 바꾼 곳도, 또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도 모두 강원도였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남다른 전쟁의 시련을 겪었다. 우선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못지 않게 억척락뒤락했던 곳이 춘천이었다. 인천 상륙 작전 이후 패주하던 북한군은 금강산에 집결하

39) 전쟁사업기념회, 『한국전쟁사 ④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서울: 행림출판사, 1992), 247~248쪽.

40)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90~91쪽.

41)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92~93쪽.

여 1950년 11월 18일에 춘천을 기습 공격, 12월 2일까지 약 보름 동안을 재점령했다.

이 때 서울 쪽으로 피난을 떠난 춘천 시민을 남한 정부가 경기도 마석磨石에서 차단했는데, 이를 ‘마석피난’이라 부른다.⁴²⁾ 또한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부산에 임시 수도를 설치한 것처럼, 춘천은 1951년 4월 15일부터 1953년 7월 30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강원 도청을 원주에 내주었다. 이를 ‘피난 도청’ 시대라 부른다. 그러나 강원도의 가장 큰 시련은 역시 도의 재분단과 분단의 가일층 공고화였다. 이제 분단은 강원도의 숙명이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강원도의 면적은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확장되었다. 강원도내 182.4 km의 휴전선은 양양군과 화천군을 완전히 수복시켰으며, 철원, 김화, 양구, 인제, 고성 등의 일부 지역도 이남으로 편입되었다. 속초 역시 남강원도의 일부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휴전협정 조인 이후 완전히 북한 통치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평강, 통천, 이천, 그리고 회양 등 4개 군으로 줄었다. 1953년 이후 (남)강원도는 전체 강원도 면적 25,697 km²의 67.8%인 16,896 km²를 차지하게 되었다. 적어도 관할 면적에 관한 한 강원도는 한국전쟁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롭게 편입된 강원도가 곧바로 강원 도민의 것으로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곧 살펴볼 것처럼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권은 1954년 11월까지 유엔군 사령부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가장 먼저 드리워졌던 전쟁의 그림자가 강원도에서 가장 늦게 거두어진 셈이다.

4. 한국전쟁과 속초 지역의 사회 변동

오늘날의 속초는 한국전쟁이 만들었다. 한국전쟁은 속초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지금이야 전국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라도 속초를 알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동해안의 속초는 거의 무명無名의 작은 포구였다. 일제시대인 1937년까지 지금 속초 시가지로 형성된 지역은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로서, 양양군에서만 아니라 도천

42) 강원도, 『강원도사 - 현대편』, 99~100쪽.

면에서도 알아주지 않을 만큼 작은 마을이었다. 그 때 양양군의 중심지는 양양읍이었고 도천면의 중심지는 대포리, 곧 현재의 속초시 대포동이었다. 그러다가 1937년 7월 1일, 도천면은 속초 면으로 이름을 바꾸고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겼다.⁴³⁾ 그것은 그 무렵에 동해에서 청어와 정어리가 많이 잡혔는데, 많은 수요의 고깃배가 드나들기에 속초리가 대포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⁴⁴⁾ 그리고 1942년에 속초 면은 속초읍으로 승격되었으나 여전히 그다지 크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포구에 불과하였다.

해방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었을 때, 속초는 38선 이북 지역에 속했다. 따라서 속초가 한국전쟁에 직접 휘말리게 되는 것은 1950년 10월, 전세가 역전되어 북진이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말하자면 속초는 한국전쟁에 의해 수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1951년 초 1·4후퇴에 의해 속초는 다시 북한의 통치 지역으로 넘어갔으나, 2월 11일에 재탈환되어 오늘날까지 휴전 체제하에서 남한 체제의 일부로 존속하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이 속초의 운명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동안 속초는 한국전쟁을 매우 특이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태학적 성격마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는데, 그 첫째는 속초에 대해 3년여 가까이 국지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38선 이북 출신 실향민들에 의해 속초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 성장과 도시 발전을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속초 지역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실시한 세 번째의 군정이었다.⁴⁵⁾ 다시 말해 한국전쟁에 의해 수복된 속초에는 한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했고, 그 기간은 1953년 7월에 있었던 휴전협정 조인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미국이 속초 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⁴⁶⁾ 첫째는 남북 대치 하 군사·전략적 거점으로서 속초는 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군사적 질서와 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둘째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지역으로부터 적성敵性을 제거하고 순화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 기획이

43) 강원도교육위원회 (편), 『향토교육자료집 내고장 강원도 상』, (춘천: 강원도교육위원회, 1990), 11쪽.

44)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전: 강원도』, (서울: 뿌리깊은나무사, 1983), 137쪽.

45) 첫째는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고, 둘째는 1950년 가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에 실시된 미군정이다.

46)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어쨌든 속초는 과거 이북 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에 의해 남한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무려 3년여 외국 군대의 군정을 경험했던 매우 이례적인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 역사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경험이었다.

그리하여 군정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던 속초 지역은 이와 같은 미군정기를 보내면서 인구의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속초를 비롯한 38선 이북의 영동 여러 지역이 월남민들의 집합적 거주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속초 전체를 볼 때 월남민이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청호동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월남민 1세대와 그 후세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1·4 후퇴 때 피난민으로 월남하였다가 휴전선이 고착화되면서 ‘고향이 가까운 길목’으로 모여들었는데, 특히 함경도 출신 주민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950년 12월 소위 흥남 철수 때 유엔군을 따라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다가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올라오면서 고향 가까운 곳에 주저앉은 곳이 바로 속초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읍에 유입된 월남민은 48,72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로 청호동에 거주하는 피난민을 출신지별 구분해 볼 때 92.9%가 함경남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속초시 청호동 일대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 거주 지역으로서 흔히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 신흥 정착민들은 현지 원주민과 경쟁하고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하는 동안 과거 북한 주민으로서도 아니고 전통적인 강원 도민으로서도 아닌 새로운 정체성과 독특한 하위문화를 창출하였다.⁴⁸⁾ 또한 언어생활이나 음식 문화, 주거 공간 등의 측면에서도 이 지역은 남한 속의 북한문화, 강원도 속의 함경도 문화를 유지 내지 계승하고 있다. 결국, 분단 문화라는 전쟁 이후의 보편적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내 속초 시민은 가장 한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없는 오늘날의 속초를 상정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난 한국전쟁은 단순히 강원도의 분단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측면에 있어서 전국의 어느 지역에 비해 가장 무

47)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217쪽.

48)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 속초문화원, 1998); 김귀옥,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렸한 상흔傷痕을 안겨 주었다. 전반적인 지역 저개발, 세계적 수준의 고군사화高軍事化와 함께 분단 문화의 일상적 보편화가 바로 그것이다.⁴⁹⁾ 그 가운데서도 속초의 한국전쟁 경험은 매우 특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속초의 사회 변동에 끼친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분단의 1번지’ 강원도만큼, 그리고 수많은 실향민을 안고 있는 속초시만큼 통일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도 전국적으로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의 통일은 곧 강원도 분단 시대의 종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속초 주민들의 오랜 염원, 곧 귀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때마침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이한 금년, 남북간에는 최초의 정상회담에 이어 화해와 협력의 길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분단의 1번지’를 ‘통일의 1번지’로 바꾸고자 하는 강원도에게 각별한 역할을 주문하고 속초에게 특별한 임무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한반도 냉전의 해체는 가장 구체적으로 강원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 통치와 남한 통치, 그리고 미군 통치를 모두 경험했던 속초는 탈냉전 시대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범 지역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만이 한국전쟁과 강원도, 그리고 한국전쟁과 속초가 맺었던 역사적 악연惡緣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49) 전상인, 「한국전쟁의 상흔과 강원 사회의 과제」, 강원개발연구원 6·25 5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전쟁과 강원도」발제논문, (2000년 6월 22일, 속초문화원).



제2장 피난민과 난민법

제도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 용 길 (동우대 행정학과 교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개인의 인권 및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난민에게 있어서는 조국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보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는 존재이다. 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은 모든 국가에 비호요청자 및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 또는 장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난민의 발생원인이 변화하여 최근에는 내란 및 민족, 부족, 종교적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UNHCR은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피해 조국을 떠나,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한다.

한반도의 난민이라고 하면 주로 해방이후 월남해 온 피난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

* 본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체계화하는 작업으로서 사관적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기주장이나 원리개입이 적용되지 않았다. 일반적 역사적 사실을 체계화하는 작업은 문서나 구전에 의한 자료에 의존하므로 연구내용이 유사하다. 이 연구사례 또한 피난민문제를 속초시에 한정시켜 과거경험을 체계화하는 작업이므로 선행연구

나 해방이전 일제의 학정으로 생긴 수백만의 동포 역시 피난민에 해당한다.¹⁾ 특히 1950년 6·25전쟁을 전후하여 많은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거나 피난하였는데, 이것이 근대적 의미의 대표적인 피난민 사례에 해당한다. 피난초기에는 대부분 집단부락을 형성하여 거주하던 북한주민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정치가 안정됨에 따라 전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2000년에 와서도 ‘속초 아바이마을(청호동)’을 비롯한 몇 개의 피난민 촌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²⁾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연 피난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6·25전쟁으로 인해 월남한 피난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이유는 비록 북한이 하나의 독립된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여기에서는 남한)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영토의 일부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피난민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보다는 ‘국내실향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국내실향민(IDP)이란 난민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써 본향에서 강제 이주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UNHCR에서도 국내실향민에게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는 영토에 규정으로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라고 규정하여,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과 남한의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체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월남 피난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여기에서는 피난민에 대해 난민의 지위와 권리보장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정책을 펼쳐왔으며 남한주민과 차별대우는 없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피난민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개해 나가자 한다.

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에서는 김귀옥의 저서 “월남민 생활경험과 정체성”을 주요 참고 문헌으로 삼고, 나머지는 주민의 증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한반도의 난민은 일제학정으로 300만, 북한의 남침으로 500만이 각각 발생하였다. 특히 대량의 난민이 발생한 것은 1910년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강제합병에서 비롯되었고, 한민족의 해외탈주를 촉진하였다. 1997년 외무부 자료「해외동포현황」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해외동포는 미국 200만, 중국 199만, 일본 70만, 러시아 45만, 캐나다 11만의 순으로 총 554만 명이 142개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1998년 이북 5도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실향민 집단촌은 속초 아바이마을, 전북 김제시 용지면, 서울 용산구 후암동 등 36개 마을 2,296가구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피난민들은 그에 따른 응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제 1에서는 난민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피난민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가, 논쟁의 이슈는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제 2에서는 역사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피난과정과 정착과정, 그리고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정을 개략적으로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 피난민의 난민지위 부여과정과 속초시 피난민의 지위획득 과정을 조사한다.

제 3에서는 피난민에 대한 지원정책의 체계와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 속초시 거주 피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를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속초 거주 피난민이 난민으로서 지위를 누렸는가를 판단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았다.

1. 난민법의 개요와 피난민의 난민지위에 관한 논쟁

가. 난민법의 개요와 법규의 주요 내용

20세기 초반에 난민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고, 인도적 이유로 난민을 보호하고 원조하는데 대한 책임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난민을 위한 국제적 행동양식은 국제연맹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난민을 돕기 위한 많은 국제협정이 채택되었는데, 주요 협정은 1950년을 전후하여 체결되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 해결노력이 없어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법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³⁾

3) 구체적으로 난민상황에 관련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대신,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법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7월 28일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었고, 54년 4월 21일 발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난민상황이 출현하였고, 1951년 협약규정을 새로운 난민에게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준비되었다. 의정서 제출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심의를 거친 후 67년 1월 31일 가입신청을 받고, 그 해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51년 협약에서는 난민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문구는 난민정의의 핵심이다. 종전의 난민정의에서는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특정한 자에 대신하여 관련동기로서 공포의 일반적인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 문제가 조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박해를 피해 이주하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명확히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OAU(아프리카 통일기구)회의는 UNHCR의 정의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난민규약을 작성했는데, 이 난민규정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전쟁 피해자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떤 형태이든 공식적인 난민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요청하는 자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의 근거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종에 대한 말살정책이나 기타 폭력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대이동이 발생할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원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 매우 시급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난민지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특정집단 구성원 모두가 이와 같은 이유로 이동할 경우, 난민지위에 대한 ‘집단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반대증거부재의 원칙에 따라 전체를 난민으로 간주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주자와 난민들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국을 떠난다.

그러나 난민들에게는 경제적 충족보다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주자와 난민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난민의 지위는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두 가지 국제법문서는 국제연합 체제 내에서 채택되었고 여기에 의거한 난민지위 인정은 그 영역에서 지위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신청 당시 체재하는 체약국의 의무가 된다.

난민법에 의하면 국적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⁴⁾ 등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나 몇 가지 특례사항이 있다. 대표적인 특례로서 “전쟁난민”에 대한 조항을 보면,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의 결과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는 통상 51년 협약이나 67년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제문서, 예컨대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49년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1977년 의정서에 규정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난민발생의 원인이 내란 및 민족, 부족, 종교적 충돌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 UNHCR은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피해 조국을 떠나,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한다.

나. 6·25전쟁 전후 피난민의 난민지위에 관한 논쟁

우리가 피난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남·북한의 국가적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사회에 의해 어떻게 취급 받고 있는가와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피난민의 개념과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남한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았으

4) 1951년 협약의 제1조에 의하여 난민성격을 가지는 자가 난민지위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적용배제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는 다음의 3가지 집단에 속한다. 첫 번째 집단은 이미 국제연합의 보호 또는 원조를 제공받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두 번째 집단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를 다루고, 세 번째 집단은 국제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범주를 열거한다.

며,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에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남한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북한당국(Authorities of North Korea)’ 이라고 부른 것은 남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서 ‘반도단체(ingurgency) 또는 교전단체(belligerency)’ 로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엔은 북한을 유엔 가입을 계기로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남한 역시 과거에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북한을 하나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형식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나 통일국가 형성이라는 과도기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6·25를 전후하여 월남한 피난민에 대하여 난민법에 의한 ‘난민의 지위 부여’가 어려운 까닭은 북한을 우리 나라 영토의 일부로 보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내국인의 이동”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남한 주민보다 특별히 대우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례로서 특정 국내 실향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UNHCR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인도주의적 활동이나 항구적인 난민 해결책 마련이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주예방책의 모색이나 귀향민 정착 같은 특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물며 공산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억압을 피하여 남한으로 피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난민의 지위결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불법 체류외국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국외로 추방된다. 그러나 UNHCR은 무력충돌 및 대규모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가에서 피난해 온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호 요청이 기각된 모든 사람에게 국외로 추방되기 전에 재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피난민은 대부분 1950년 12월 유엔군 철수 후부터 51년 1월 사이에 남하하였다. 피난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월남인’과 ‘피난민’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쟁 전에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월남인’에 해당하며, 전쟁으로 인해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은 ‘피난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종류를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피난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피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

우리 나라의 피난민에 대하여 난민법의 적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주민을 '강제이주민' 과 '동독 난민' 으로 구별하는데, 전자는 이주민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동독 난민은 동·서독 분단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했으며 탈출의 강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난민문제이다.⁶⁾

독일의 난민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남한 거주하는 대부분 피난민은 전쟁을 전후하여 북한체제의 강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월남하였으므로 강제이주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법적으로 남한의 주민권리를 취득하기 전에는 난민법에 의한 난민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난민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 자신의 나라밖으로 나간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 실향민(displaced persons)이란 난민과 비슷한 사태로 인해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로 정의된다.⁷⁾ 이러한 실향민은 자국민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거주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상황이나 그들의 고립상태, 국가안의 만연된 혼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난민과 비슷한 불안정하고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여 난민관련 국제기구들은 실향민을 난민과 동일한 신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각각의 정치체제를 형성한 후부터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6·25를 겪는 동안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주민등록을 취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동안 난민법에 의한 '전쟁난민' 으로서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

5) 1990년대 들어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국(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은 난민에 대한 적용범위를 "박해의 두려움 외의 이유로 강제 이주되었거나 국경을 건너지 않은 국내 난민"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6) 김귀옥,『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57~258쪽

7) 법무부,『난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 법무부, 1988, 8쪽

2. 피난민의 정착과정과 난민지위 획득과정

가. 6·25전후의 북한주민 피난과정과 정착과정

1945년 해방이 되자 제일 먼저 고향을 찾는 실항민은 징병이나 징용으로 강제 연행되었던 젊은이들이었고, 뒤이어 북한 피난민들은 38선 이북이 공산화되자 체제기피를 위한 대대적인 피난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 귀향자 및 피난민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 패망으로 귀향하는 동포들은 출신지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로서 그들은 고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북으로부터 피난 나온 사람들은 38선 이남에 고향이나 주거지가 없었다.⁸⁾

1947년 2월까지의 월남 피난민의 수를 보면 2만여 가구 10만 6천 명에 달하였고, 49년 10월에는 6만 4천 가구 28만 3천 4백 명으로 집계되었다. 피난으로 모든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피난민은 산비탈이나 강변에서 노숙하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여 굶어죽는 사람과 겨울에 동사하는 자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특히 주택이 부족하여 정부는 일본군이 사용했던 건물, 서울 용산의 일본인 육군관사, 사찰 등을 수용소로 이용하였다.

6·25 후의 피난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전쟁이 터지고 사흘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되자 150만 명의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서울 이남으로 피난을 떠났고, 50만 명은 피난할 겨를이 없어 서울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했고, 피난민들도 부산의 임시 피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였다.

그해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13일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 38선을 넘어 10월 26일 평양을 거쳐 압록강까지 도착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난다는 생각에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10월 25일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게 되고 급기야 유엔군이 평양철수를 결정하자 50만의 북한주민은 국군을 따라 남으로 내려왔다.

유엔군은 흥남에서 대대적인 철수작전을 계획했는데, 여기에는 피난민 수송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1952년 12월말 피난민 수와 수용 현황을 보면 전국의 총 피난민 수는 2,394,918명이

8) 1946년부터 1948년 사이에 발간된 신문자료에 의하면 남하하는 동포가 하루에 천명도 넘었으며, 1주일에 4천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었으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한 사람은 685,276명이었다.⁹⁾ 당시 피난민들은 수용소의 시설부족으로 대부분 스스로 의식주를 해야했다. 남북한 전체 피난민 2,394,918명중 381,991명만이 수용소에 입주하였다. 수용소에 수용되지 못한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월남 초기단계에 집단촌을 형성하여 생활하였다.

서울의 대표적인 피난민 거주지역은 용산구 후암동과 용산동 2가 일대인데, 평북 선천군 출신들이 선천군민회를 조직하면서 판자집 촌락이 형성되고 피난민 정착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인천지역 또한 용현 1동, 송원동, 만석동을 중심으로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는데, 전쟁전후에는 인천 전체인구의 40%가 피난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4리(일명: 수용소촌)는 1951년 당시 북한 피난민 수용을 위해 철도청 부지 1,653평에 지은 4동의 판자촌으로, 81년 화재가 발생하여 27호가 소실하고 99년 말 현재 75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54년 정부는 피난민 정착촌에 대한 지방분산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월남인들은 김제와 군산, 신탄진, 진천 등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이때 황해도 출신의 피난민 450가구가 김제에 집단부락을 형성하여 '용지농원'을 운영하며 정착하였다.¹⁰⁾

나. 속초 거주 피난민의 피난과정과 정착과정

속초는 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으로서 북한에 소속되었다가 1951년 8월 18일 전쟁수복지구로 군정치하에 들어갔다. 이때 많은 이북 실향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함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읍 5구로 설정되었다.¹¹⁾ 6·25이후 속초지역에 유입된 난민은 48,722명으로 나타났는데, 배를 이용하여 월남한 사람들은 주로 청호동 지역에 거주하고, 육로를 통하여 피난한 사람들은 학사평(현재 종합공설운동장 뒤쪽)지역에 해방촌을

9)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3년사』, 국방부, 1954, D7쪽.

10) 1997년 말 현재 용지농원 전체의 인구에 대하여 피난민 인구비율은 약 15%에 그치고 있어 집단부락의 성격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천군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서울 용산의 200여 가구의 집단부락도 1998년 현재 5가구 정도만 살고 있다.

11)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강원사회연구회』, 1999, 217~219쪽

이루고 생활하였다. 청호동 정착민의 출신지역을 보면 함경남도가 92.9%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의 70% 정도는 어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꾸려왔다. 따라서 청호동 거주 난민집단은 함경남도 해안지역의 어민들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학사평의 해방촌 난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정전 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지금은 집단촌의 자취를 감추었다.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양양군 속초읍은 군정치하에서 민정으로 이양되었다.¹²⁾ 63년 1월 1일 속초시로 승격한 후 당시(12. 1현재)의 인구규모는 10,864가구 55,619명이었는데, 청호동의 인구는 1,246가구 6,329명이었다. 청호동의 인구는 1970년까지 7천명 내외로 유지되었는데, 1980년 이후 어업부진에 따른 주민유출로 3~4천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표1〉 연도별 청호동의 인구변화(1956~1999)

연도별	구 분	가구수	인구수
1956	속초시	5,255	22,567
	청호동	-	-
1966	속초시	12,785	67,079
	청호동	1,301	6,981
1976	속초시	14,801	72,042
	청호동	1,262	6,153
1986	속초시	17,584	71,211
	청호동	1,143	4,881
1996	속초시	27,022	82,568
	청호동	1,178	4,572
1999	속초시	30,891	88,914
	청호동	2,128	5,923

속초시 청호동에 거주하는 피난민들은 함경남도 출신이 90%에 이르며, 주로 북청, 영흥, 단천, 홍원, 이원군 등 해안지역 난민이 주류를 이룬다.¹³⁾ 이들의 피난시기는 1950년

12) 1956년 12월말 당시 속초지역의 행정구역은 양양군 속초읍에 해당하였으며, 양양군의 행정구역은 양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강현면, 도성면, 죽왕면으로 구성되었고, 속초읍의 인구규모는 5,255가구 22,567명이 거주하였다.

13) 김형재, 「속초시의 월남난민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말과 1·4후퇴 때가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1·4후퇴 후 휴전기간 순서로 나타났다. 월남 당시의 교통수단은 선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군(軍) 트럭이나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지역 피난민의 이동경로를 보면 대부분이 여수, 거제, 구룡포, 후포, 울진, 죽변, 묵호, 주문진, 양양, 대포를 거쳐 이 지역으로 정착하였다.

속초시는 전체인구 대비 피난민이 비중이 가장 큰 도시로서 1975년 당시 총인구 71,475명 가운데 실향민 74%(53,000명)에 달했으나, 1999년 현재 전체인구 88,914명 가운데 실향민 비율은 34%인 약 30,128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청호동이 피난민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1975년 청호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고향심기운동’인데 이것이 속초의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난민법에서 제시하는 난민지위에는 개인의 인권 및 신체적 안전보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대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난민은 모든 개인적 기본권과 언론, 거주이전, 노동,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성인에게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일할 권리가, 아동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침을 제시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난민지위 획득과정과 지위획득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천내용을 살펴본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주민권의 발급여부,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 및 의료,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권과 의식주 해결에 관련된 지원내용 및 경험이 주요 분석 내용이다.

다. 우리 나라의 피난민에 대한 난민지위 획득과정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 제59조에 의하면 월남인을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국 총 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 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 민간인(실향사민: displaced civilians)”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피난민에게 확실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38선의 인식차이에서 기인한다. 38선은 해방후 일본문제처리를 위한 경계선으로 이용되었고,

1948년 남북한에 각각 수립된 단독정부는 38선 반대쪽을 미수복지구로 인식하였다. 전쟁이전 각각의 정부는 해당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고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피난민들은 전쟁과정에서 실향민이 됨으로써 합법적인 신분보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모든 피난민들을 박해에 의한 공포가 피난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이주자들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피난민에 대하여 확실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한정부가 월남 피난민에 대하여 “동족의 박해에 의한 허가 받지 않은 이동”으로 취급하여 그들의 신분보장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¹⁴⁾

월남 피난민의 지위획득 과정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비체계적인 제도와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위 획득과정은 심사기관과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으로의 입국 초기심사는 수용소를 경유했으나,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사절차와 내용이 달랐다.

입국 초기심사는 피난과정과 수단에 관련된 것으로서 군용선을 이용하거나 38선의 통제구역을 거쳐오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당국의 일괄적인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속초시의 청호동 피난민 경우 군용선 외의 소형선박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비 통제구역을 통해 남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일괄심사를 받기보다는 피난정착지로서 제일 먼저 어디에 체류했는가, 그 지역이 누구의 관할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심사를 거쳤다.¹⁵⁾

피난민의 초기심사는 수용소의 경유여부에 따라 경유자는 수용소파견 난민담당의¹⁶⁾ 심사를 받은 후 난민으로 등록되어 제한적인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수용소를 거치지 않은 피난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수행하였는데, 수임기관의 종류를 보면 행정관련기관, 피난민 연락소, 친정부형 사설 민간단체(청년단체) 등이다.

개별적 난민심사의 방법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조사내용은 주로 주소나 가족관계와 같은 인적사항, 북한 정부의 협조 관계, 피난전의 직업, 인민군의 징집에 대한 수용 여부, 북한에서의 정치 활동 여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방법은 구술에 의한 서면 기

14) 이인희, 「8·15와 6·25를 전후한 북한 출신 피난민의 월남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6.

15) 김귀옥, 위의 책, 262~265쪽.

16) 남한 정부에서는 사회부가 피난민 대책을 담당하였으므로 피난민에 대한 입국심사도 사회부의 직원이 수행하였다.

재 내용을 토대로 동향사람이나 함께 피난 온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때로는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군영 징집관계가 의심스러운 사람의 경우 감금이나 고문형태의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사기간은 여자, 노약자 및 어린이 등 신원이 어느 정도 증명되는 사람은 즉석에서 이루어졌고, 청장년의 경우 과거의 직업이나 사회활동, 학력, 가치관 등 비교적 몇 일 동안의 엄격한 심사를 받았으며, 특히 징집대상에 있는 청년과 인공치하에서의 부역관계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장기간 심사를 받기도 했다. 피난민의 난민자격심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에서 개신교 목사를 했거나 북한에서 치안대 활동의 증명서를 제시하면 조사과정을 간소화하여 거주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점이다.

속초읍에서는 1954년 피난민들의 일시적 거주 등록을 위한 기류신청을 받았는데, 이 업무는 “피난민 연락소”의 피난민 반장·부반장이 보조하였다. 피난민 연락소장은 피난민 지역출신자가 맡고, 피난민 반장은 다른 지역출신자를 임명하였다. 피난민 소장의 신분확인 도장이 있으면 밀고 거주증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속초 피난민의 경우 황해도 출신이 대부분인 김제의 피난민 집단부락¹⁷⁾과 달리 불특정 지역을 경유하였기 때문에 난민조사가 비 정식 심사관에 받았고, 심사내용도 주로 인공치하 부역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3. 속초 피난민의 난민지위와 실제적 경험

가. 피난민 지원 정책의 제도체계와 실천내용

1950년 전후의 우리 나라 공공정책은 경제원조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피난민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의 경제원조정책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 김귀옥의 연구에 따르면 황해도 출신이 대부분인 김제피난촌의 경우 고향 부근 도서島嶼에서 일정기간 머무른 후 집단적으로 군산이나 목포로 내려왔고 사회부 기관의 정식조사를 받음으로써 조사과정에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1948년 12월 한미경제 원조협정이 체결된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남한에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였다.

원조비용 가운데 약 70%이상이 직접적 군사원조로서 주한미군과 국방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무기, 탄약, 함선, 기타 군수용 기자재로 제공되었거나 군사비로 전액 소비되었다. 또한 경제원조 명목으로 배당된 약 30억 달러 역시 남한 군사력 유지비 염출과 군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은 원조물자의 관리를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남한정부의 재정예산에 편입하였다가 대부분 군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도 군수공업 부문에 투자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방 이후 정부수립부터 미군정 통치기간의 피난민 정책은 일제시대의 빈민구제 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소수 외국 원조단체들의 활동하는 정도였다. 또한 피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임시적 구호가 주목적이었으며, 부모를 잃은 아동들이 주요 보호대상이었다.

6·25 이후에도 정부의 난민구제 공공정책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피난민을 돕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민간단체의 원조활동과 구제사업 등이 확산되었다. 피난민 가운데 요보호자로서 어린이는 우선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¹⁸⁾

피난민정책의 주요 권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통솔권을 위임함으로써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유엔군사령부 산하의 유엔 민사원조처(UN Committee of Assisting Civilians)¹⁹⁾가 가지고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미군정 치하에서 부임한 초대 군정관은 츠비어만(Zwierman)중령이었다. 그리고 내무, 학무, 재건, 보건 등 각 부(部)에 소령급 고문관이 배치되었다. 그 밖에 1개 군에 1명씩 할당되어 구성된 ‘강원도정 고문회’가 자문기구로 활동하였다.²⁰⁾

남한 정부에서는 사회부가 피난민 대책을 담당하였다. 구호활동의 체계는 서울특별시·각시·도와 읍·면·동에 ‘구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하급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

18) 1949년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은 98개소였으며, 양로시설은 12개소에 불과하였다. 1959년에 와서는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은 900개소 이상이었던 반면 양로시설은 41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19) 유엔 민사원조처(UN Committee of Assisting Civilians)는 피난민 구호물자 공급, 구호예산규모, 구호물자 선정문제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0) 전상인, 「분단과정과 강원사회」, 강원사회연구회, 『분단강원의 이해』, 1999, 39쪽

대로 유엔 민사원조처가 제공하는 구호물자를 할당·분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긴급상황 발생시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부처간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아 '전시구호대책중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해방전후에서 1950년 말까지 우리 나라의 빈민구제 관련법제를 보면 1946년 9월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보건 후생부에 부녀국이 설치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의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녀국을 사회관련 업무 부서에 편입시켰다.

전쟁이후 급증한 요보호 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서울과 부산에 국립모자원을 1개소씩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과 부산이 지정된 이유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이면서 전쟁과정을 통하여 가장 많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과 경남지역의 경우 대량의 피난민들이 1·4후퇴와 함께 남하하여 곳곳에 분산 수용되면서부터 다양한 시설이 생겨났다.²¹⁾

전쟁기간 동안 남한정부가 부산에 임시정부를 설치한 것처럼 강원도는 1951년 4월 15일부터 1953년 7월 30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원주에서 '피난도정시대'를 가졌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이 강원도로 최종 이관된 것은 1954년 11월 17일이었다.

나. 피난민으로서의 난민 지위와 실제적 경험

전술한바와 같이 피난민이 난민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난민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난민지위를 가질 수 있고, 수용국과 유엔 난민고등판무국은 난민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한다.

1951년 협약에 나타난 그들의 주요 임무를 보면 첫째, 난민에 대해 자발적 송환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적 송환은 금지되어 있다. 둘째, 국적취득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만약 자발적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난민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난민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통합과정을 거쳐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기본적 생존에 관련된 것으로서 물

21) 1952년 부녀사업관 조례제정으로 부산시에 부녀사업관(현재는 경상남도 여성회관)이 설치되었고, 부랑아시설인 '시립아동보호소'를 설립하였다. 피난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인 관계로 이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4개 설립되었다.

질적 지원의 임무가 있다. 만약 난민지위가 획득되었다면 숙소, 음식, 신분증·여행증명서 발급과 기타 취업과 같은 재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입각하여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이 난민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난민으로서의 정치적·법적 지위와 경험

6·25 당시 피난민에 대한 증명서로 발급하는 신분증과 여행증은 그것을 발급하는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심사를 받은 후 해당지역에 국한된 신분증과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만 무상양곡도 배급 받을 수 있었다.

난민으로서 법적 지위에 대한 적용을 시기별로 전쟁중과 정전 협정후의 기간으로 구별하여 살펴보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여 부산까지 후퇴한 연합군은 10월 3일 북진을 시도하여 북한지역의 상당부분을 점령하였다. 남한의 통치권한을 위임받은 연합군이 1950년 10월 3일자로 공포한 북한 점령정책은 공산당원이 아니라면 관직이나 직장에 그냥 다니도록 하여 군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미 정부간의 합의에 의해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 밑에 '북한출신 남한 거주인(전쟁 전 월남인)' 들을 북한 행정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 시정방침이 결정되었다.²²⁾

당시 조병옥 내무장관은 시정 방침에서 점령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의 색출과 질서유지 등의 활동에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반공 단체들과 월남동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할이라고 하여 반공 청년단체를 적극 참여시켰다.

그러나 1950년 12월 3일 유엔군의 갑작스런 후퇴결정이 이루어지고, 동년 12월 16일 '국민 방위군 설치법' 이 국회에 상정되어 21일 공포됨으로써 '청년방위대' 등 유사 군사 단체는 모두 해체되어 '국민방위군'에 편성되었고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인 남자는 국민방위군에 편입되도록 하였다.

난민지위가 자발적 혹은 지침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 방법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군복 노무자의 징발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22) 라종일, 「북한통치의 반성 -1950년 가을」,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한반도 통일문제』, 1997, 21쪽

은 직접적 전투요원으로서 활동하기 보다 군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북한 점령지에서 철수할 때 이주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노무자를 징발하였는데, 주로 배를 소유한 선주나 자동차·기차를 운행하기 위한 기술자 및 보조원, 군수물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피난민의 경우도 군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 당시에도 군을 정규군과 비정규군으로 구분하였는데²³⁾, 둘 사이의 기준은 군번을 부여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비정규군은 정식군인이 아니었으므로 계속해서 제 2국민병의 징병대상이 되었다.

속초시에 거주하는 피난민의 병역경험을 청호동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41명의 남성 가운데 15명이 군 경력이 있고 이 가운데 8명이 정규군 출신이었다.

특히 피난민가운데 한국 노무단에서 종사한 사람이 많았다. 이 노무단은 미군의 요청에 의하여 1951년 7월 만들어 졌고, 미 8군사령부의 특별 참모과가 감독과 통솔을 담당하였다. 군 노무자는 노무동원령에 의거하여 노무자의 징집을 각 도·시·읍·면에 할당하였고, 35~45세(또는 50세)까지의 남자를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적 지위상 정규군인이 아닌 미군 군속으로서 한국군이나 예비군과는 상관이 없었다. 물론 이 제도는 월남 피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주로 가난한 영세민이나 월남인들로 충당되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피난민들도 정규군이나 군노무단, 제 2국민병과 같은 비정규군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일반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정책의 제일 목표가 주권수호라는 인식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다.

2) 난민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경험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 전반까지 남한의 경제 현황은 일제시대의 억압정치로 인한 경제파탄과, 연이어 발생한 6·25전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였다.

일반 주민들조차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난민에게 특별 지원을 해주고자

23) 정규군이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 HID와 같은 정규첩보부대를 가리키며, 비정규군은 제2국민병, 한국 노무단, 유격대원, 청년방위대(대한청년단의 군사조직) 국민방위군을 가리킨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속초 거주 피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일반 주민과 비교하여 경제적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는가 또한 자립기반 건설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남한정부는 피난민의 주거문제를 수용소에 수용함으로써 숙식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수용장소로서 학교와 같은 공공건물이 이용되었고, 자립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장기수용이 가능하지만 자립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단기 7일간에서 장기 3~4개월 기간만 수용하고 그 후에는 퇴소시켰다. 따라서 수용소에서 장기간 수용되는 것은 노약자나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므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피난민에 대한 식량배급을 위해서 1951년 초부터 일반피난민에게는 하루 평균 3홉, 부식비 5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사회부의 지침은 1일 단위로 구호양곡을 배급한 것으로 지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최종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배급되는 경우가 많았다.²⁴⁾

반면에 수용소에 수용되지 않은 피난민들은 '피난민 연락소'나 행정기관에 난민등록 신고를 마친 후 양곡이나 밀가루 등을 배급받을 수 있었다.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은 1일 3~4홉이 지급되었으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1일 1홉~1홉 반이 지급되었다. 배급기간은 지역마다 다양하여 처음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배급되었으나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배급되었다.²⁵⁾

전쟁기간 동안의 혜택에 비해 오히려 정전협정 후의 시기가 피난민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 후반에 중앙정부의 사회부는 속초를 포함한 38선 이북 양양 지역의 농민을 대상으로 주택건축용 자재와 일인당 매일 4홉씩의 식량(어린이 3홉)과 종곡 등을 무상으로 배급할 것을 발표했다.

실제로 1955년 3월 정부는 극빈자에 한해서 무상배급품이 지급되었으나 그 수혜 대상은 청호동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5.5% 수준에 그쳤다. 정부입장에서는 수복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구호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재정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마저 1950년 중반 군부대가 철수하고, 1960년 초에 구호품 배급

24) 식량배급의 형태는 수용소에 수용된 경우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수용소에 수용된 피난민들은 1951년 상반기까지 매끼니 주먹밥을 먹었고 얼마 후에는 1인당 2홉 정도의 양곡을 배급받아 가족단위로 밥을 지어먹었다.

25) 김귀옥, 위의 책, 268~270쪽.

이 중단되면서 피난민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없었다.

속초 거주 피난민들은 대부분의 다른 지역 피난민들이 경험하듯이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원 없이 자력으로 해결했다. 피난민들은 초기 정착단계에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가건물, 판자집 등을 지었는데, 집을 짓는 재료는 주로 청호동 앞 바다에 버려진 군용목재나 드럼통, 박스를 사용하여 집을 지었다.²⁶⁾ 주거문제 해결과정을 경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피난민의 진술을 들어보자.²⁷⁾

“56년에 내가 직접 집을 지었는데, 이 벽이 흙집이야. 처음에는 판자집을 지었지. 그리고 10년 후에 흙을 덧 바른거야. 이 땅이 빈터이기 때문에 그냥 지은 거지. 처음 이곳이 산이기 때문에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을 지어 놓고 있으니깐 한 10년 전에 이 땅 주인이 나왔단 말야. 그래서 그 주인한테 내가 샀지. 그래서 내 땅이 된 거지.”

피난민들이 청호동에 밀집하여 정착한 배경에는 배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바다에 인접하려 했고, 어업(수산업)조합이 있는 시내지역인 중앙동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특성이 작용하였다. 이외에도 청호동은 일반주택지가 입지하기에 부적합한 사질토양으로서 정착 당시에는 공터로 있었고 군정허가를 받아 점유할 수 있는 국유지였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적었기 때문이다.

정착민들은 1960년대 들어 주거지로 적합한 땅을 만들기 위해 연탄재 등으로 메우기도 하였다.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하고 행정체제가 자리잡힌 후 1970년경부터 피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땅의 토지세를 물면서 지상점유권과 가옥소유권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피난민은 피난하기 전에 북한에서 특별한 자산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일을 해야했다. 특히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은 어업에 많이 종사했다. 속초시의 경우 1955년까지 농업(1955, 양양군, 군세일람, 속초읍. 농업 2,051명, 어업 1,722명)이 어업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어업(1961, 양양군, 통계연보, 속초읍. 농업 1,925명, 어업 2,896명)의 비중이 커졌다. 속초지역의 피난민들은 대개 어업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어업장비

26)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짓는 재료를 미군이 읍사무소를 통해 나누어준 미 군용선 목재로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이것은 한정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피난민은 스스로 재료를 충당해야 했다.

27) 조동학, 남, 속초시 동명동(함경북도 명천군)

는 북한에서 징발되어 왔거나 피난수단으로 타고 온 배들이 이용되었다.

청호동을 중심으로 어업이 발달하자 비 어업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이 지역에서 터를 잡거나 고용되어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호동의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이상(1955, 속초읍, 읍세일람, 5구<청호동>인구 1,976명, 어민가구원 1,005명)이 어업에 종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업의 분화와 전문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선박제조 및 수리, 건조업, 정규노동자 등으로 특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군정시기에는 청호동 해안지역에 국방군 제 1군단이나 여러 특수부대들이 주둔했던 관계로 어업이외에 군속으로 생계를 해결했던 사람도 많았다. 이들의 생계해결을 위한 고용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미군부대나 국방군의 군속으로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유형과 군부대의 필요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해산물이나 후생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한 대가로 일정액으로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간 유형이 있다.²⁸⁾

여성들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빨랫감이나 잡일을 한 대가로 배급품을 받아 생활하거나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4년 11월 이후 1군단의 이전으로 군부대와 관련된 생계수단은 사라졌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볼 때 남한정부의 피난민 구호는 그들에게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난민지위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식량배급, 직업선택의 자유²⁹⁾ 등 기본적인 조치는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외형적인 면에서는 차별대우가 없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갈등이 상당히 표출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피난민이라는 일상적인 차별대우 외에 임금, 인사 등

28) 피난민의 구호에 따르면 한국노무단이나 계약고용 노무자의 80%가 피난민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피난민 가운데 계약고용 노무자들은 일정량의 해산물을 군납하고 남은 해산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쌀이나 양곡, 부식 등을 보조적으로 배급받아 생활하였다.

29) 북한에서 피난하여 남한사회에 적응한 사람들 중에는 전직 교사의 경우 남한에서 교사 및 경찰직에 임명되어 직업선택의 차별대우가 적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월남 후 교직이나 경찰 같은 정규직에 종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남한에서의 군 복무경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30) 속초 청호동의 최신양의 진술에 따르면 피난민들은 원주민 고용주에 의해 임금이 깎이거나 떼이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김창열(속초 청호동)의 경우 피난민의 임금은 보통 일반 남한 노동자의 1/3이하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철도기관사의 경험이 있는 김성진(청호동)은 남한 기관사의 월급에 비하여 1/3 수준밖에 못 받았으며, 원하지 않는 타지 전출도 경험했다고 한다.

의 차별대우를 경험했다.³⁰⁾ 물론 이것은 정부정책이나 권유에 기인하기보다 일반 주민의 가치관이 표출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피난민들은 남한정부의 식량배급에 의존해서는 생활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택건설 지원, 취업알선과 같은 더 많은 지원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난민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 모두에게 충분한 생계지원을 해줄만한 입장이 못되었기 때문에 피난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계수단으로서 직업 또한 취업알선정책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난민들은 스스로 일을 찾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3) 난민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의 사회적 지위로서 교육과 의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과 의료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난민지위의 권리보장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능력을, 둘째는 피난민과 남한 주민의 차별대우에 대한 정부의 의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난민에게 교육기회와 의료혜택을 제공했는가를 알아보는 동시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 문제에 대해 일반 주민(남한)과 피난민 사이에 차별대우는 없었는가를 가지고 난민지위의 보장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난민의 경우 교육기회는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만 되면 누구나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의료혜택도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에는 보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구호가 있었다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남한 주민과 피난민 모두에게 혜택이 적었다.

피난민들은 고향에 생산기반과 재산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웠다. 따라서 교육기회가 개방되어 있어도 피난 정착초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보자. 지금은 초등학교(구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에도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자기부담으로 다녀야 했다. 또한 학교시설이 부족한 관계가 겹쳐 자녀의 교육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피난민의 경우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에 있다가 피난하여 남한에서 같은 등급의 학교에 편입이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이익은 다소 있었으나 편입학 시험을 치른 후 진학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속초에서 고등

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 시험자격이 바로 주어지지 않고 다시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해야만 고등학교의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에서의 수업정도와 졸업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교육행정 또한 연합사령부의 권한하에 있었기 때문에 속초시는 1군단이 교육기관의 신축 및 학교 인·허가를 수행하였다. 속초시 청호동의 피난민들은 정착초기에 자녀들을 속초국민학교에 보내다가, 후에는 난민촌에 국민학교 신축허가를 얻어 현재의 청호초등학교를 만들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남한정부가 피난민에 대하여 교육기회의 차별이나 교육시설 지원을 회피하고자하는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의 제공현황과 피난민의 경험을 보면 1950년 12월 유엔군과 국방군이 후퇴하던 시기에 피난민 사이에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 천연두 기타 전염병이 발생하였다. 피난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보건부 장관의 지시하에 긴급 의료구호에 나섰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보건부는 산하단체나 관련단체를 동원하여 방역반, 위생반, 검역반, 모자보건반을 조직하고, 남하하는 통로 곳곳에 구호소를 설치하며, 피난민과 함께 구호반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1년 초에 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상당수에 달했고, 부산수용소의 경우 피난민 절반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의 방역구호반 활동은 극히 한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6·25를 전후해서 방역과 예방접종이 의료서비스의 주요 임무였는데, 피난민의 경우 주거환경과 영양실조에 의한 불리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지금의 양양군 보건소는 공무원을 교육시켜 학교에서 청소년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피난민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속초시 피난민의 경우 3가족 당 1가족이 자신이나 가족이 전염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수혜자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이 당시 일반 주민이나 피난민의 개인적인 병 치료는 자기부담에 의하여 약방이나 의원

31) 조사에 따르면 속초지역의 피난민은 대다수 자신이나 가족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951년 초에 백령도 인근 도서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국방부는 황해도 각 도서에 의약품을 보급하고 38선 접경 강원도에는 전투기를 동원하여 가끔 DDT를 살포하고나 월남민들이 수용소에 도착하는 즉시 방역반이 DDT를 인체에 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염병 등의 의약품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을 이용하였다. 정부가 지금처럼 다양하고 저 비용의 의료지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의약품조차 미국에서 원조 받는 상태에서 개인의원이나 의료원을 신설하는 것이 재정적·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론적 피난민의 난민지위 보장여부에 관련하여 교육 및 의료부분에는 차별이 없었으나, 의료의 경우 정부정책과는 달리 혜택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하나된 통일국가를 꿈꾸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난 50년간의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이데올로기적 인식에서 파생된 민족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거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피난민의 문제를 고찰하여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분단과정에서 발생한 피난민을 상황적 분석이나 법적 지위를 논하기 전에 좌경시하거나 또 다른 체제의 이방인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전쟁의 위협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피난 온 사람들을 국제법에서 인정하듯 난민지위의 권리보장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에 전개해 보았다.

피난민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한다는 이슈에는 많은 논쟁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이동을 피난민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6·25를 전후하여 어려웠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피난민에게만 특별지원을 해야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시각과 난민취급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보면 6·25전쟁이 비록 국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정치체제간의 분쟁이므로, 자신이 기피하는 체제를 피해 온 사람은 당연히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보면 피난민은 당연히 남한정부의 인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남한정부가 피난민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전 후 남한정부에서는 수복지구인 속초, 양양 지역의 피난민에 대해서 1954년 행정기관에 의한 기류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아 호적법으로 가호적을 발급하기 전까지 피난민들을 법적 지위를 “기류자”로 보아 국적이 없는 난민지위로 분류하였다. 이런 사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피난민들이 1960년과 1962년 호적법에 의하여 남한의 주민권을 획득

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남한정부가 피난민의 기본권익을 보장하는데 일반 주민과 차별대우를 했는가하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난민지위의 보장여부에서 나타났는데, 피난민들이 남한정부에 대해 차별대우나 박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피난 올 때 경제기반과 재산을 두고 오므로써 남한의 정착 과정이 현지 주민보다 더 힘들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난민을 한 민족으로 본다면 왜 쉽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과 원망의 표시 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남한정부가 일반 주민에게만 차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기에 반문한다면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하며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난민에 대한 차별대우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민지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원인도 있지만, 이보다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갈등문제가 피난민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남한 주민들은 동족간의 전쟁을 유발시킨 공산체제를 증오하는데 그 한풀이를 피난민들이 공산 체제에서 살다 월남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로 차별을 합리화 시키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유가 어떻든 피난민에 대해 피난동기나 상황적 분석 없이 일방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피난민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 탓으로 돌린다 해도, 이데올로기적 시각으로 피난민을 좌경시했던 우리의 자세는 교정 되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원도 양양군, 『수복연감』, 『군세일반』, 양양군청, 1954.
- 강원사회연구회,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7.
- 강정구, 「해방후 월남민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한국사회학회 편, 풀빛, 1992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지원사 - 인사·군수·민사지원」,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종덕, 「한국의 1950년대 정치경제와 농업부문배제」, 1997.
- 김형재, 「속초시의 월남난민 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88.
- 남상준, 「준북 김제지방의 북한난민 개척촌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982.
- 라종일, 「북한통치의 반성 - 1950년 가을」, 『한국 전쟁과 한반도 통일정책』,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편, 1997.
- 법무부, 『난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 법무부, 1988.
- 속초시, 『속초시 통계연보』, 『속초시 연감』.
-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속초시지』, 속초시, 1991.
- 속초시, 『시정 30년사』, 속초시청, 1994.
- 이동원 · 조성남, 『미군정기의 사회이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이문웅, 「도시지역의 형성 및 생태적 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방촌을 중심으로 -」, 1966.
- 이인희, 「8·15와 6·25를 전후 한 북한 출신 피난민의 월남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분단강원의 이해』, 강원사회연구회 엮음, 1999.
- 전상인, 「분단과정과 강원사회」, 『분단강원의 이해』, 강원사회연구회 엮음, 1999.
- 조형 · 박명선,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법적 성격과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1호(통권17호), 통일원, 1993.
- UNHCR.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UNHCR 한국지부, 1998.
- Overdorfer D.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97.



제3장 피난민의 특성과 정체성

제도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 귀 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속초 동명항의 수복탑의 모자상은 속초의 상징이자, 이산된 민족의 통일 염원을 담고 있다. 슬한 사람들의 애절한 사연을 담은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속초’라는 특성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속초란 풀을 묶는다는 뜻이라고 했다¹⁾. 현대적 의미로 속초란 어쩔 이산가족들의 한이 한데 묶인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작위일까?

속초에는 실로 많은 한이 맺혀 있다. 2000년 이산가족 생사확인 과정에서도 조금이나마 밝혀졌듯이 속초를 포함한 영북권에는 적지 않은 월북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이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남인의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애절한 심정’이 속초에 모이게 했다. 따라서 과거 청초·영랑호의 관동 8경과 ‘산·호수·바다·온천’의 4대 명물과 같은 자연의 절경²⁾을 가졌다는 속초의 명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위 ‘이산가족의 도시’로서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해마다 명절이나 특히 2000년 8월 15일 이산가족의 서울-평양간 동시 역사적 상봉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거의 모든 대중매체에 소개되다시피 했다. 심지어 일본이나 해외 방송 매체에도 등장했다.

1) ‘속초’ 지명에 얽힌 유래에 관해서는 1987년 속초문화원이 간행한 『속초의 민속』(향토사료 제2집)에 소개되어 있다.

2) 김정우, 『내고향』, 강원일보사, 1997; 박익훈, 『낙수집』, 강원일보사, 1996.

이와 같이 속초가 이산가족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1950년 한국전쟁에 연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속초에 월남 피난민이 본격적으로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51년 6월경으로 볼 수 있다. 그 무렵 38이북 양양군과 속초가 유엔군과 국군의 관할에 들어오게 되는데, 군인이나 대한청년단 등과 함께 월남 피난민들이 속초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50, 60년대 월남 피난민들이 계속 속초로 유입되어 왔다. 급기야 1963년에는 속초가 전국에서 29번째, 강원도에서 4번째 도시로 승격되기도 했다³⁾. 그 과정에서 과거 속초의 성격이 전변 되었다.

글쓴이는 비록 속초 사람은 아니지만 1996년 9월부터 6개월간 속초 청호동에 머물며 속초 월남인을 연구 및 조사한 이래로 해마다 몇 차례씩 속초를 방문하고 있다. 그 때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질문지조사법 등을 사용하여 속초 이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였다. 학위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계속 속초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제3자의 시선으로 또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시선으로 속초의 특성과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속초 피난민의 이주 과정

한 사람이나 사회의 기본 특성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속초 이주민들의 특성을 보기 위해 우선 그들이 속초로 이주해 들어오는 과정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그들이 이주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유입하는 시기, 이주 형태, 이주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 김태영(대한노인회 전 속초지회장)선생은 속초가 도시로 승격된 데에는 인구의 규모보다는 정부의 정책 배려가 강하다고 증언했다. 다시 말해 북에서는 50년대 이미 개성시가 직할시로 되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58~59쪽). 그래서 남한 정부측에서는 개성에 대해 남한이 수복한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속초가 시로 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97년 8월 6일 면담.

가. 이주 시기

그들의 이주 시기를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이주한 시기를 심층면접대상자 40명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⁴⁾.

- ▷1951년 8월 수복 이후 군정시기(1951년 8월~1954년 11월)—22명(55.0%)
- ▷민정 이양 이후 속초 시 승격 전 시기(1954년 12월~1962년 12월)—15명(37.5%)
- ▷1963년 1월 속초 시 승격 이후 시기—3명(7.5%)

속초에 상당수의 월남인들이 이주해오는 시기는 대개 1951년 수복 이후 1960년대 초쯤이 된다. 특히 속초 정착촌 월남인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속초에 수복되어 군정⁵⁾이 실시하던 시기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54년 11월 17일 군정이 민정으로 이양되고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지역으로 소속되고 나서 1963년 1월 1일 당시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거의 모두가 유입되었다.

이러한 점은 다음 <표 1>의 속초의 인구 변천과정에서도 나타나 있다.

<표 1> 속초의 인구 변화 추세 (단위: 명)

년도별	세대수	인구	세대당 평균인수
1926*	-	5,784	-
1949**	2,321	11,406	4.91
1953***	3,661	16,213	4.43
1954**	4,841	20,599	4.26
1955****	5,350	23,699	4.43
1958★	7,029	31,435	4.47
1961★★	8,883	42,258	4.76
1963	10,864	55,619	5.1
1966	12,264	63,100	5.2
1976	14,801	72,042	4.9
1986	17,584	71,211	4.5
1995	25,792	80,709	3.13
1999	30,891	88,914	2.9

4)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127~128쪽.

5) 속초 및 양양에 실시된 군정에 대해서는 줄저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경제와사회』, 2000년 여름호)을 참조바람.

- 자료 : 각 연도 『63~99 속초통계연보』
 * 양양군 도천면 『면세일람』, 1926
 ** 양양군청, 『군세일반』, 1954가
 *** 양양군, 『수복년감』, 1954나
 **** 속초읍, 『읍세일람』, 1955
 ★ 속초읍, 『읍세일람』, 1959
 ★★ 양양군, 『통계연보』, 1962

위 표를 보면 속초의 인구는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는 잠시 인구가 (-)성장을 보였으나 90년대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 사회주의 북한 치하의 속초 인구는 약 1만1천여명이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속초 원주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1954년 양양군청이 펴낸 『군세일반』이다. 군정 하에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고, 분류의 엄밀성 또한 의문이 있긴 하다. 아무튼 그 자료를 자세히 보면 원주 인구가 9,337명으로서 약 3년 사이에 2~3천 여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 또한 '철수민'으로 명명되어 있는 피난 월남인이 11,256명으로서 군정 당시 상당수가 속초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196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월남인들이 속초로 이주해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속초는 원주민보다 월남 이주민(피난민) 수가 초과하는 월남인의 도시로 특성을 시 출범 이전에 갖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주 형태

원래 정부가 속초에 피난민 정착촌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었던 듯이 보이지만⁸⁾, 무산되었다. 그러나 속초에는 지속적으로 피난 월남인들이 이주해 들어왔다. 이주의 형태는 대개 개별적이지만, 전혀 연고 없는 이동이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찾아오는 '연쇄 이동'⁹⁾이

6) 원주민이 감소하게 된 것은 군에 징집된 사람들 외에도 전쟁 중 학살된 사람들, 월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김귀옥, 위의 책, 1999, 124쪽.

7) 김귀옥, 위의 책, 124쪽.

8) 『동아일보』 1954년 2월 23일자에 따르면, 사회부는 강원도 춘천, 강릉, 양양 등지에 부동 난민 20여만 명을 정착시킬 정착사업을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많았다. 개별 이동에서도 개인 단독이동보다는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동반 이동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 국내외 이주와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외 이주도 연쇄 이동이 많은 편이다¹⁰⁾.

- 속초 정착촌 월남인의 이주 형태(청호동 정착 피난민 40명을 중심 면접조사)

▷개인	이동 : 6(15.0%)	} 합: 40명(100.0%)
▷가족(전체)이동	: 12(30.0%)	
▷부분	이동 : 22(55.0%)	
∞연쇄	이동 : 27(67.5%)	

이러한 연쇄이동에 의해 속초에는 이북 출신 중 함경도 출신이 다수를 점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쇄이동의 형태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지역이 청호동으로서 그를 '아바이마을'로서 오랫동안 명명해왔다. 청호동 내에는 동향인 출신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신포마을', '짜꼬치마을', '영흥마을' 등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다. 이주의 현실적 동기

앞에서 말한 대로 속초의 상징인 '모자상'은 이산 가족의 고향을 향한 염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속초 이주민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고향에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으로 속초에 모여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이주의 시기에 따라 이주 동기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60년대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소망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은 현실적 동기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전쟁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소망이 강했고 가능성이 있었다

9) 연쇄 이동이란 일단 이동하여 정착한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이동의 기회나 이점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실제로 이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을 제공받음으로써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을 의미한다. 이흥탁, 『인구론-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7, 501쪽.

10) 연쇄이동의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재미 한인의 초청이민이다. 먼저 미국에 정착하게 된 형제자매가 본국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동이다. 이광규, 『재미한국인-총체적 접근-』, 일조각, 1997(1989), 110쪽.

고 하더라도 ‘군정’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속초에 들어오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쉽지 않았다. 이주의 현실적 동기를 살펴보자¹¹⁾.

- 이주의 현실적 동기

- ㉠ 속초는 고향에 가까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였다.
- ㉡ 군후생사업 차 38선 이북으로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속초 정착촌에 이동하였다.
- ㉢ 속초에 주둔한 군 계통에서 일하는 동향인과 함께 일하게 되어 이동하였다.
- ㉣ 속초에 이미 정착한 연고자와 같이 살기 위해 이동하였다.
- ㉤ 속초가 어항으로 발전하여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동하였다.
- ㉥ 속초 청호동에 오면 적은 비용으로 정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동하였다.

월남인들은 흔히 ㉠번 동기로 인해 속초로 집거 하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위의 여섯 가지 동기 및 계기 중에서 2~4가지가 결합하여 속초로 유입하였다. 특히 ㉡, ㉢, ㉣, ㉥번은 1954년 11월 민정 이양이 이루어지기 전 군정 하에 이주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사항이다. 속초에 오면 고향에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군후생 사업¹²⁾’에 참여하면 기본적인 생계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월남인들은 속초 유입을 강력히 희망했다. 또한 군정 당시 속초에 일반 연고자가 거의 없었던 월남인으로서 속초 지역에 주둔하였던 군관계자를 안다는 것은 속초에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였다.

또한 ㉥번 동기에 따라 고향사람들이 10여 세대씩 집단 이주하는 사례도 여러 명에게서 발견되었다. 특히 속초의 청호동은 식수의 결핍과 교통의 불편으로 주거지로서 부적합하였으나 국유지로서 정착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많은 월남인들이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번의 동기도 청호동으로 모여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다.

군정이 민정으로 이양되고 난 후 유입된 사람들은 주로 ㉡, ㉢, ㉥번의 복합 동기에 의해 주로 이동했다. 50년대 민정 이양 후 속초는 어업경기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62년경

11) 김귀옥, 위의 책, 128쪽.

12) 군후생사업의 주 내용은 군납품할 해물의 포획과 북한 지역 해안 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국방군, HID 및 각종 첩보부대에 보내줄 군수품과 생필품의 운송, 북한 지역으로 침투하는 첩보원의 수송 등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군후생사업에 여러 월남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 가운데에는 북한 지역에 올라간다는 사실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 129쪽.

에는 어업인구(32.1%)가 농업인구(16.4%)를 능가하게 된다¹³⁾. 그러한 산업구조는 과거 어업에 종사하였던 월남인들로서는 강력한 유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55년 이후 청호동으로 오는 월남인에게는 ㉞번과 같은 명분은 거의 호소력이 없어지고 같은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㉞번과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㉞번, 땅 값이 거의 필요 없고 집 값이 싼 ㉞번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보아 대다수 월남인의 공통된 이동 동기는 ㉞에 기반 하여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착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월남 이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귀향의 열망을 안고 속초에 모여들었지만, 현실적으로 50년대 중반까지는 군 계통의 일과 관련되어 이주할 수 있었고, 6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했다. 또한 이주 형태와 관련되어 무연고 이주보다는 먼저 정착한 친, 인척, 동향인들을 통해 속초가 '먹고 살기가 좋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이주할 수 있었다.

2. 이주민의 특징

속초 이주민의 특성은 속초 성격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첫째, 산업 구성 면에서 농업 중심에서 어업 중심으로 바꾸었다. 둘째, 강원도 출신보다 함경도 및 이북출신이 많은 곳으로 바뀌었다.

우선 농업 중심의 지역이 어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동북 최북단의 어업 기지와 어민

속초는 일제시대 중반까지만 해도 농업인구가 다수인 농촌 지역이었다. 1926년 도천면

13) 방상목, 「속초시 도시성장의 지리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24쪽.

사무소가 작성한 『면세일반面勢一班』을 보면, 속초의 한국인 전체 인구 5,784명(표 1 참조) 중 농업 인구는 3,941명(68.1%)이며 어업 및 관련 종사인구는 1,104명(19.1%)이었다. 1953년 기준으로 볼 때 양양군에서 속초는 큰 평야는 없었지만 농지 총면적은 토성면¹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넓었고 농업 인구는 토성면, 양양읍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¹⁵⁾.

어업이나 어민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일제시대 1930년대 청초호가 속초 내항으로 개발되면서부터였다. 속초 원주민인 향토연구가 김정우의 증언에 따르면,

“청초호가 속초 내항으로 개발되던 1930년대 이후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정어리떼를 따라 견착선이 몰려들어 청초항내는 발동선이 까맣게 틈새 없이 호수를 메웠고 외항에도 거의 바다를 메우듯이 발동선이 운집하였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견착선 한 척당 4, 5척의 고기 운반선이 반드시 따라붙기 때문에 가령 견착선이 백척이라하면 어로에 임하는 어선 수는 400~500척이 되니까 항내와 외항 바다가 배들로 메워질 수밖에!”¹⁶⁾

정어리 어항으로서 속초에는 정어리 가공업 공장이 설립되었다. 속초 원주민인 박영식¹⁷⁾과 박희수(가명)¹⁸⁾ 등의 증언에 따르면 청초호변에는 해방 직전 5개의 수산공장, 주복이공장, 오나까공장, 허준네공장, 금전수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업 주도형의 지역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전후로 속초는 농업 중심에서 반농·반어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 다음 표 2를 보자.

14) 토성면은 원래 양양군에 속하였으나 수복 후 38선 이북 행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6호에 의해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양양문화원, 『양양의 땅이름』, 1995, 26쪽.

15) 양양군, 『수복년감』, 1954년, 32쪽.

16) 김정우, 앞의 책, 39-40쪽.

17) 1996년 12월 6일 면접.

18) 1997년 1월 26일 면접.

〈표 2〉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 (1955년 현재) (단위: 호, 명)

농/어업별		행정구역						전체
		1구 (영랑동)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기타 지역	
호수 및 인구	호수	911	357	1,103	1,316	454	1,209	5,350
	남자	1,840	794	2,380	2,783	1,046	3,059	11,902
	여자	1,890	789	2,363	2,703	930	3,117	11,792
	계	3,730	1,579	4,743	5,486	1,976	6,176	23,699
농업	농가수	28	23	29	25	·	790	895
	농업인구수	97	91	186	101	·	4,426	4,901
어업	어가 호수	72	106	296	169	201	302	1,146
	어민수	126	292	653	644	529	519	2,763
	어민가구원	288	530	1,480	845	1,005	1,518	5,666
	발동선	2	5	50	68	30	1	156
	범선	10	27	42	34	33	120	266
	중선	16	29	52	68	106	85	356

자료: 속초읍, 《읍세일람》, 1955, 14쪽.

1955년 직업별 인구를 보면 속초 전체 인구 2만 3천 699명 가운데 농업인구가 4,901명(20.7%), 어업인구는 5,666명(23.9%)이었다¹⁹⁾. 속초 시내에 해당하는 1~5구 지역은 전반적으로 어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현재의 청호동에 해당하는 5구는 농업 인구는 전혀 없는 어업 중심 지역이다. 반면 1~5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등은 대다수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다.

당시의 속초 지역과 직업분포로 볼 때, 월남 이주민들과 원주민들간에는 느슨하나마 지역과 직업 분포 상의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월남인들은 대개 속초에 들어온 후 주로 어업에 종사한 반면, 원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했다. 또한 월남인들은 주로 1~5구에 거주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이 바다에 가까워²⁰⁾, 어업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¹⁾. 반면 원주민들은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농촌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했던 것

19) 속초읍, 위의 책, 1955, 14쪽.

20) 군정 당시 미군 부대나 군부대 관련 용역회사들도 대개 청초호를 끼고 동명동이나 중앙동에 있었다. 군부대에서 일한 노무자의 절대 다수가 월남인이었던 사정도 이주 초기부터 월남인들은 시내에 주로 모여 살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월남 이주민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기 전부터 어민출신이 많았는가를 그들의 월남 전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청호동 이주민의 경우에는 어민출신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심층면접에 응했던 대상자 40명 중 25명(64.1%)이 어민²²⁾이었다. 기타 순수 농민 1명, 상인 2명, 사무원 5명, 노동자 4명, 학생 1명, 전업주부 2명으로 조사되었다²³⁾. 어민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으나 기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속초 청호동으로 이주한 이래로 40명중 34명(85%)이 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속초문화원이 실시한 질문지 조사²⁴⁾에서도 이주민 1세대의 고향 부모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 어민 출신보다는 농민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속초에 들어온 월남 이주민의 경우, 전직 어민이건 비 어민이건 간에 무연고, 무일푼으로 쉽게 일할 수 있는 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련 노동이 필요로 되는 어부뿐만 아니라 잡부도 상당수 필요로 되었던 것 같다.

〈표 3〉 속초의 산업별 인구 구성

(단위:%)

년도별	어업	농업	상업	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1955*	23.9	20.7	?	?	?	?
1962	32.1	16.4	12.5	7.2	2.9	28.9
1965	40.2	16.4	14.7	10.2	2.2	16.3
1968	41.4	13.2	22.3	11.8	4.6	9.3
1989**	16.5	6.1	73.1		4.3	-
1998***	18.4	8.8	34.2	25.1	7.0	6.5

자료: 속초시, 『도시개발계획』, 속초시 1970

* 속초읍, 『읍세일람』, 1955

21) 월남인 가운데는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1~5구에 주로 거주했다.

22) 반농반어민의 경우에도 어민으로 취급하였다.

23) 글쓴이가 1997년에 월남인 2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대략 10년전에 청호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형재의 질문지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김형재, 「속초시의 월남난민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88.

24) 이 조사는 글쓴이의 1997년 1월 질문지에 바탕을 두어 91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 경제기획원, 『지역통계연보』, 1989; 속초시, 『속초시지』, 1991, 487쪽 재인용.

*** 속초시, 『속초통계연보』, 1999

그런 조건에서 속초에서는 표 3에서 보듯, 이미 50년대부터 어업이 제 1의 산업으로 자리잡아갔다. 따라서 1945년 38선 분단 이후 강원도 북쪽 지역에는 주문진이 북단의 어항이었으나 1951년 속초가 남한 관할로 되면서부터는 항구가 좁은 주문진에 비해 어항으로서 양호한 입지를 가진 속초가 영북의 어항으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서울-경인지역,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제조업 부문의 발전에 비해 농·어업 등 1차 분야의 지체가 현저해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이농 향도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었다²⁵⁾. 표 1에서 보듯 그 영향으로 1980년대에는 절대인구 자체가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중반 되면서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 구조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속초는 강원도 평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 즉 3차 산업의 취업자수나 소득 구성이 1차 산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1980년대 이래로 속초는 어업의 비중도 줄어 들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속초의 산업 구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1차 산업 중심의 도시에서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속초는 오랫동안 월남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에 의해 과거 농촌 지역을 탈락하고 휴전선 바로 아래의 가장 큰 어항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다.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속초는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을 잇는 기지로서 성장할 잠재성을 갖고 있다.

나. 함경도 출신의 이주민

속초는 언뜻 보아 과거 함경도 출신 1세대 이주민과 그 후세들의 도시로 비춰질 만큼 함경도 출신이 많다. 속초 시내 중심가에는 마치 서울 구기동에 소재한 이북 5도청 함경

25) 1960년대 전국 시·군의 인구비는 28:72였으나 1980년 그 비는 57.3:42.7로 뒤바뀌게 되었다. 강원도의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6.5%에서 1970년 5.9%, 1980년 4.8%, 1990년 3.6%로 급감 하였으며 1990년은 1960년과 비교할 때 절대인구 자체가 감소하였다. 최진호·최병선,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통계청, 1993, 5쪽.

도 관련 단체들이 모두 옮겨와 있는 듯하다. 함남도민회, 함북도민회, 함흥시민회, 원산 시민회, 홍남시민회, 함주군민회, 정평군민회, 영흥군민회, 고원군민회, 문천군민회, 안변군민회, 흥원군민회, 북청군민회, 이원군민회, 단천군민회, 신흥군민회, 갑산군민회 등의 지회가 속초시내에 모여 있다. 또한 도민회 소속 읍·면민회도 적잖이 있고, 서울의 이북5도청에는 없는 리민회가 있기도 하다.

김형재의 1986년 조사에서 당시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던 동별 월남인 통계를 제공하였다. 그 통계에 따르면, 월남 이주민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동으로 교동(60.0%), 금호동(59.98%), 동명동(60.0%), 영랑동(59.97%), 조양동(54.97%), 중앙동(59.96%), 청학동(59.99%), 청호동(65.30)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통계만 보아도 속초는 이주민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함경도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자. 2000년 속초문화원이 조사한 91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에서 원적이 함경남도출신 이주민은 61%, 함경북도출신 이주민은 10.6%로서 합치면 70%가 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글쓴이가 1997년 1월, 청호동에서 월남인 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신의 부모의 원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함경남도 출신이 76.3%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1996년 11월 현재 청호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평균 함경도 출신이 평균 68%에 달하고 있다²⁶⁾.

속초에는 함경도 월남 이주민 외에도 이북 출신이 적지 않다. 청호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신은 북강원도(휴전선 이북 강원도) 출신이다. 1996년 11월 현재 청호동 인구조사에서 북강원도 출신은 대략 15~26%정도이다. 그 외 황해도, 평안도 등의 월남 이주민도 소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1960년대 이후 속초 어업이 활기를 띠자 삼남지방에서도 적잖이 속초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속초는 원주민보다 월남 이주민-후세대를 포함-의 인구구성 비율이 더 높은, 이주민의 도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26) 청호동 인구조사는 1996년 11월 청호동의 1, 2, 3, 4, 10통장의 협조 하에 각 세대주 직업, 원적, 계층 조사중에 나온 자료이다. 또한 2000년 10월 현재 청호동 인구중에서 피난민 1세대는 245세대 245명(가족포함 698명)으로 이중 함경남도 출신이 212명(88.6%)에 달하고 있다.

27) 2000년 10월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피난민 1세대 조사에서 청호동 인구중 북강원도 출신은 13명, 함북 11명, 평안도 6명, 황해도 3명 등으로 나타났다.

3. 이주민의 정체성

이상과 같이 속초 이주민의 특성, 즉 어민 출신이 많고, 함경도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속초에 이주한 후 속초의 성격을 바꾸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여기서 1950년대 초 속초가 형성되는 배경으로서 '바다'가 갖고 있던 군사적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²⁸⁾.

군부대에 의해 초기 많은 연관 산업들이 발생했고, 해양활동의 물적 토대도 마련되었다. 상당수의 군부대가 철수한 이래로도 속초는 어업 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아무튼 발생적 요인을 배제시키면 현대 속초를 형성하는데 이주민이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제 이주민의 이러한 특성에서 빚어지는 이주민의 정체성을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속초는 원주민에 비해 이주민이 더 많은 지역이며 이주민도 단일하기보다는 함경도 출신이 절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각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아주 다양하다. 속초에서는 '이 사람은 토박이다', 또는 '저 사람은 피난민이다', '저 사람은 청호동 사람이다'는 표현을 흔히 듣곤 한다. 그 중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이 '청호동 사람'일 것이다.

학문적으로 정체성이란 '누구인가'의 문제로서 흔히 주관적인 자기 식별로 이해된다.

예컨대 외국인을 만날 때 자신의 정체성이 요구된다. 그럴 때 자신이 가진 '국적'에 따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할 때, 자신의 정체성은 민족 또는 국민정체성으로 된다. 또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군대와 같이 각 지역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곳이나 서울과 같이 각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지역 정체성은 중요한 자기 식별력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속초 원주민이 오히려 소수가 되고 이주민이 더 많고, 이주민도 다양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묻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속초 이주민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8)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귀옥, 앞의 책, 1999와 김귀옥, 앞의 글, 2000을 참조.

가. 정체성 구성 요소

이러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의 출신 지역과 함께, 사회적 관계, 문화²⁹⁾적 요인 등일 것이다. 또한 생활문화를 형성하는데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주민의 배우자 출신 지역과 근린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문화적 요인으로는 자신의 문화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우선 월남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배우자 출신 지역과 근린 관계, 사회 단체 및 조직의 참여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배우자의 출신 지역

사람이 결혼하여 동반자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다보면 닮아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닮아 가는 이유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문화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배우자의 출신 지역이나 후세대 배우자의 출신 지역을 알아보는 것은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아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생활 문화에서 사는가를 판단하는데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청호동 이주민을 조사하면, 월남 이주민이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피난할 당시 가족을 모두 동반한 사람은 17%정도에 불과하고 가족의 일부만 내려온 사람은 45%가량 된다.

성인 월남 이주민의 경우 과반수 가량은 독신 상태여서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결혼 및 재혼하게 된 것 같다³⁰⁾.

또한 40명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 1세대의 배우자의 출신지를 보면 같은 이북 지역 출신인 사람이 67%이고, 이남 지역 중 강원도 출신이 30% 정도이다. 반면 2세대 배우자³¹⁾의 출신지역이 이북의 경우는 대략 20%이지만 강원도 출신이 약 40%에 달한다³²⁾. 그

29) 문화란 생활양식이며, 규범이나 규칙, 법, 제도 등과 같은 사람들과 의미를 공유하게 만들어 주는 실천 그 자체이다. Ann Swidler,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 1986 April: pp273-286; R. Williams, Key Words, London: Fontana, 1983.

30) 김귀옥, 앞의 책, 1999, 309~310쪽.

가운데 속초 원주민은 12%정도가 된다.

즉 이주민 1세대들은 가급적이면 자신의 고향사람, 또는 이북 출신을 배우자로서 선호하지만, 2세대의 경우 선호 여부와 상관없이 수적 제한으로 인해 이북 출신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또한 2세대들은 초등학교는 대개 근거리 학교를 다니지만 중학교 이상은 속초 전역이나 양양군 여러 지역 출신의 학생들과 만남으로써 다양한 출신자들과 접촉 빈도가 높아지게 되어 1세대와 같은 경향을 띠지 않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살고 2세대가 결혼하여 경제권을 쥔 경우, 1세대 고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 않다. 다음 이주민의 근린 관계를 보자.

2) 이주민의 근린(近隣) 관계

사람들의 근린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적 근접성과 친밀성이다. 근린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 문화와 지역 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기본 요소가 된다.

청호동 월남 이주민의 경우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75%가 동향인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주민 2세대의 경우 근린이 이북 출신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5.0%이다. 이를 속초시 전체를 모집단으로 조사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

이주민 1세대의 상당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노인의 근린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한노인회 지회 각 동별 '노인회' 참여 여부일 것이다. 청호동의 예를 들어보면, 1997년 1월 현재 청호동 노인회에서 이북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78.7%가 된다³¹⁾.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 지역 출신들은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자신의 가장 친한 근린이 이북 출신임을 의미한다.

다만 속초 내에서 비교적 이주민 정착지로서 뚜렷한 성격을 형성해 왔던 청호동의 경우에도 남성 월남 이주민들의 다수는 강원도 주민들과 결혼하여 정착해왔다. 또한 1세대에 비해 2세대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근린 관계에 자연스럽게 강원도 주민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속초 전체적으로도 이주민과 강원도 주민들 간의 근린 관계는 좀더 넓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1) 엄밀히 말하면 배우자의 부모의 고향을 의미한다.

32) 김귀옥, 위의 책, 313쪽.

33) 위의 책, 321쪽.

3) 사회단체 및 조직에의 참여 동기와 참여 여부

월남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표현하는데 중요한 사회단체의 하나는 각종의 도, 시·군, 읍·면민회가 될 것이다. 지역의 이러한 동향조직은 중앙 이북 5도청에 종적으로, 각 지역의 같은 동향조직과는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북 5도청은 6개 광역시와 9개 도에 시·도사무소를 개설하였고, 각 사무소는 지방별로 조직되어 있는 출신 도민회와 유기적 협조관계로 되어 있으며, 각 도민회는 시, 군, 읍, 면민회를 관장하고 있다. 중앙 이북 5도청이 사업의 기본방향과 역점 추진 시책이 결정되면 시·도사무소와 도, 시, 군, 읍 면민회(이하 '민회'로 줄임)를 거쳐 소속 회원에게 전달되는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³⁴⁾. 또한 각 도민회는 기관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방 도민회와 연락을 취한다. 중앙에서 말단 민회까지는 정보 전달이나 지시 사항이 위계체계를 밟으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말단 소속 회원까지 전달되고 잘 수행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말단 조직이 보다 원활하게 움직이면, 조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지만³⁵⁾ 말단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고 자금 동원력도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다³⁶⁾고 한다. 월남인 관련 기관의 중앙지도부는 민회의 성격을 친목단체 이상으로 규정하여 월남인들이 민회와 같은 동향조직으로부터 자신의 의식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고 흡수통일의 주도세력이 되리라고 가정한다³⁷⁾. 그러나 실제 많은 민회 회원들은 그 단체의 성격을 '친목단체'로 생각하여 그리운 고향의 정을 나누는 곳으로 인지하는 편이다³⁸⁾.

대부분의 속초 이주민에게 동향조직의 성격을 물으면 '친목단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왜 동향조직에 나가느냐고 물으면 고향 사람들을 만나 고향 소식이나 월남 동향인들의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아무튼 동향조직에 나가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 참여 여부를 보면 속초 이주민의 경우 대략 과반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34) 1997년 이북 5도청 『기본현황』보고서 참조.

35) 1996년 9월 9일과 13일, 원산시민회 속초시 지부 전임 회장 김창길씨의 면담.

36) 함남 북청군 신창읍민회 속초시지부에 대한 회원의 구술.

37) 이경남, 「동화의 메아리/실향민들 설 땅은 어디냐」, 『월간동화』1995. 12월호.

38) 정진교, 「실향민촌탐방/강원 고성」, 『월간동화』1993. 2월호: 242~9쪽.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7년 조사에서는 1세대의 38%정도는 자주 참여하고 23%정도는 간혹 참여한다고 대답하였다. 2000년 속초문화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75%정도가 자주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속초 이주민들이 동향조직에 대한 참여도는 다른 지역의 일반 월남인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편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상황과도 관련 지어 볼 수 있다.

4) 문화적 요인의 보유 여부

속초 이주민에게 고향식으로 사느냐고 물으면 십 중 칠, 팔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특히 이북식 말씨의 사용이나 음식의 음용(飲用)면에서 그렇다. 특히 '아바이마을'로 알려진 청호동에 대해서 속초 이주민들조차 청호동 주민들이 이러한 면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청호동 이주민에게 말씨면에서 고향식을 따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2.5%, 음식면에서 32.5% 정도이다. 또한 1997년 1월 청호동 이주민 2세대에게 수행한 조사에서는 말씨 60.0%, 음식 25.5% 정도를 부모의 이북식을 따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2000년 속초문화원의 조사에서도 고향의 것 중 변화 없는 것으로 말씨 72%, 음식 10% 정도가 응답했다.

글쓴이는 심층 면접 조사이건 질문지 조사이건 응답에서는 고향식을 따르고 있다고 한 여러 사람들의 생활을 참여 관찰하는 가운데, 언어나 음식이 고향식 그대로인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꼈다. 음식의 경우에는 음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조리법이 결정된다. 이주민의 부인이 강원도 사람이라면 강원도식에 함경도식이 가미된 요리를 만들게 되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속초에서는 수많은 이북식 젓갈류 상품이나 냉면류의 음식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정통 북한식에 남한식이 혼합되어 있다. 언어면에서도 특정한 방언 등은 남아 있으나³⁹⁾ 대다수의 생활 언어는 강원도식, 남한 서울 표준어가 혼합되어 있다. 20년 넘게 서울 생활을 해왔고 그 전에는 함경도 말씨를 별로 접해 본 적이 없는 글쓴이가 속

39)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초 청호동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호동 노인들의 말을 대부분 알아들은 것이 그 예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속초 시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나 원주민들도 ‘청호동 말씨’를 구분해 낸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청호동 노인회관에 방문하여 노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 그들은 원 고향말의 차이는 거의 사라지고 공통된 말씨로 얘기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예컨대 함흥말씨와 단천말씨는 원래 큰 차이가 있으나 청호동에서 말할 때는 그 말씨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50년 가까이 이주민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근린을 형성하는 가운데 비슷한 말씨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나. 이주민의 정체성

이주민의 정체성은 이상의 요인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내용을 갖고 만들고 있다. 이것은 완성된 것이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세대간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창조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이주민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참여 관찰과 심층면접에서 조사된 그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정착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청호동에는 물이 없었는데, 근단자리에 우물이 하나 있었으나 이 물은 주로 윗통⁴⁰⁾ 사람들이 먹었고, 아래 동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중앙동 공동우물에 가서 많이 길어왔는데, 당시 물 때문에 괘시를 많이 받았다. 1970년대 전후 통반 단위 별로 공동수로를 가설하였다. 1통쪽에는 화장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화장실 없는 집이 많다”(청호동 박철(가명)면접).

“사람 못사는 곳을 우리의 손으로 흙을 파다가 땅을 만들고 아무런 보조도 없이 집을 지어 사람 사는 곳으로 바꾸었다.”(청호동 장명성(가명)면접).

그들은 적수공권으로 피난 나와,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적응을 잘하여 개인적으로도

40) 윗통은 청호동을 5통 이상을, 아랫통은 청호동 1통~5통 사이를 가리킨다.

일가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속초를 현재와 같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 자부심은 속초가 월남 이주민의 도시라는 자부심과도 연결되고 있다.

둘째, ‘굴러 들어온 돌’, ‘피난민’ 의식이 아직 남아 있다.

“물이 없어 중앙동 우물물을 길러 먹으러 갈 때면 중앙동 사람과 물싸움을 하곤 했다. 당시만 해도 속초 원주민들은 우리가 억세고 생활력이 강한 반면 강원도 사람들은 순해서 우리를 싫어하는 편이었다. 우리는 부지런해 일찍 물을 길러 가면 중앙동 사람들은 정작 물을 길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이북 부인들간에는 화목한 편이었다.” (장명성의 면담).

“결혼 전에 나는 동서가 될 사람과 같이 배를 탔는데, 그가 자신의 처제를 소개해준다며 나를 강원도 토성면 출신인 장인될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어. 훗날 장인은 당시 내가 나이도 많고 함경도 사람이라고 반대했다.” (청호동 장선장(가명)의 면담).

“속초에 오니 원주민들은 우리를 별로 팔시하지 않았다. 거제도과 부산에 있을 때는 피난민이라고 거지 취급당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속초에 처음 왔을 때 원주민을 보니, 배타는 사람은 누비옷을 입고 일하는데 거지나 진 배 없었고 큰 신을 신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속초에는 신사복 입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청호동 이아름(가명)의 면담).

과거 이러한 의식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로 있었다. 한 원주민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들은 현재 속초사람으로 정착하였고, 억세고 성실하게 일하여 자신들이 속초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장이다. 청호동만 해도 아직도 불량촌으로 낙후되어 있다.” (원주민의 면담).

원주민과 이주민들간에는 표면적인 대립과 갈등은 별로 없었지만, 초기에만 해도 대립 의식이나 차별의식이 강했던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처럼 이주민 1세대들의 근린 관계의 양상이 넓어지고 2세대의 경우 대부분 원주민, 이주민 구분 없이 근린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립 및 차별의식은 거의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실향민 의식은 이주민의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이다. 실향민 의식은 고향에 대한

관심과 고향의 것을 지키겠다는 의식,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귀소본능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고향 것을 고수한다는 의식은 앞서서도 본 것처럼, 본인의 의식과는 달리 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문화가 혼합되어 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1세대들은 자신의 2세대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신보다는 잘 동화하여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고수한다는 문제는 자신에 대한 긍지로도 나타나는데 2세대에게 이북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속초 사람이라는 자부심 여부를 질문하였다. 2세대에 있어서 이북 사람으로서 긍지가 있다는 대답은 38.8%인 반면, 속초 사람으로서 긍지가 있다는 대답은 51.3%에 달하였다. 즉 2세대들은 자신의 부모세대가 이북출신이더라도 자신은 속초 사람이라는 긍지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세대는 어느 정도 고향에 대한 관심과 귀소본능을 갖고 있는가? 글쓴이가 청호동 월남 이주민들을 심층 면접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향의 산천에 대해 많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귀소 본능의 경우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1996~97년 시점에서 '통일되면 돌아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28%정도였던 반면 '방문만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60%나 되었다. 그런데 2000년 5월 속초문화원이 실시한 질문지 조사에서는 '꼭 돌아가 살겠다' 48%, '잠시 방문만 하겠다' 25%로 조사되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대개 질문지 조사에서 응답자는 질문지 기획자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1996년과 2000년의 남북정세의 차이와 조사의 신뢰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질문은 남북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한편 50년 가까이 이주민 1세대는 속초에 정착하여 바다와 벗하여 사는 가운데 인적·물적 토대를 속초에 마련하였다. 또한 그들의 자식들도 속초와 남한에서 삶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주민 1세대는 설령 귀향을 희망하고, 통일되어 귀향할 조건이 되더라도 실제로 귀향하여 재정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속초 이주민들은 자신을 '실향민'으로 인식하지만, 속초 사람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주민 2세대는 부모의 인식과 희망에 긍정을 보내지만 자신은 남한 사람이며 속초 사람이라는 인식을 더 널리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년 가까이 월남 이주민과 원주민, 기타 지역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가운데 속초는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주민은 농촌 지역인 '면' 단위 속초를 어업 기지의 '시'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 특히 청호동 이주민의 경우 공유수면을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창조하였다. 또한 이주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가운데 언어와 음식, 놀이 문화 등의 각종 문화에 있어서 강원도의 것과 함경도의 것이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로 빚어지고 있다. 해마다 거행되고 있는 '설악문화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빚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과거 속초나 양양군, 인근의 사회문화의 상대적 침체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월남 이주민이 수적으로 많다하더라도 원주민의 문화와 삶의 가치는 보존되고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과거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수면 밑에 있던 갈등의식은 앞에서 본 것처럼, 직업과 거주 지역이 느슨한 경계가 되어 존재했다.

이제는 그 경계가 거의 약화되고, 서로간의 동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아직도 1세대에게는 그러한 의식이 사회적 관계에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한 경계를 초월하고 같은 속초민으로 의식을 빚어나가고 확산할 때이다.

속초의 역사를 성찰적으로 살펴보면 원주민의 상당수도 이산가족이다. 50년에 걸친 이산가족들이 서로 얽혀 살아가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삶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다. 어쩌면 향후 통일되어 이룩하게 될 사회문화 공동체를 속초에서 보고 있는 지도 모른다. 나아가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 이산가족들로서 서로 이산의 아픔을 나누고 상호 수용할 때, 이산의 도시로서 속초는 새롭게 자리매김되어 나가며, 21세기 통일의 도시로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정

박 철 환(강릉대 경제학과 교수)

속초! 이곳에 와 보라. 실향민이 있다. 별처럼 수많은 사연을 지닌 채 모두가 주인이면서 또 누구도 주인이 아닌 채로 이곳에 모여 살고 있다.

그들은 6·25 한국전쟁 때 난難을 피해 월남한 사람, 해방직후의 분단초기에 월남越南했거나, 아니면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 입대하여 월남하게된 사람, 그리고 본적은 이북이지만 중국에 살다 남한이 좋아 이주를 하게된 사람 등 각양각색의 실향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피난민은 모두가 실향민이지만 실향민 모두는 피난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용어선택에 약간의 혼란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6·25 한국전쟁 중에 피난을 온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착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속초지역 피난민은 국군의 수복당시 국군에 협력한 반공주의자, 그리고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실시한 농지개혁으로 줄지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중산층, 종교이념이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종교인 등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북한 체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육로를 따라 걸어오기도 했고, 배를 타고 해상으로 남하 하기도 했다. 또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마음의 결정을 미루다가 국군이나 지역 인사들의 권유에 의하여 월남한 사람도 있다.

1950년 12월 들어 미 제 1군단과 한국군의 철수에 때맞추어 성진城津과 흥남興南으로부터 군 수송선 편으로 월남한 사람들도 수 만 명에 이른다. 동 기간동안 군 L.S.T로 성진항을 빠져나간 사람이 1만 4천여 명이며, 12월 22일 단 하루동안 흥남 항에서 마지막

으로 철수하는 군 L.S.T를 타고 월남한 사람들이 1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월남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마 육로나 민간선박을 동원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들까지 합치면 십만여 명에 이른다.

고향을 떠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생이별을 아쉬워하면서 타관 땅을 유랑했다. 이렇게 월남한 피난 1세대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두고 온 부모형제와의 천상재회天上再會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으며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난민 가운데는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나 아직도 좌절과 소외감으로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한 많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1. 어떤 회상

“내 이름은 김 철섭입니다. 함경남도 북청군이 내 고향입니다. 국군이 밀린다는 소문은 이내 마을을 슬렁이게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서로 서로 인편을 놓아 연락을 취한 결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약 40 여명은 죽히 되었습니다. 그때가 1950년 양력으로 12월 7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저와 아버지 단 두 식구만이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씨는 남겨야만 된다는 이유로 아들인 나만을 데리고 피난을 나온 것 같습니다. 막상 배를 타고 피난을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석양 무렵 만춘리 포구에는 조그만 범선이 닻을 내리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서 붓짐을 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뱃머리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손을 잡고 두 달 정도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보내는 사람이나 떠나오는 사람도 별 생각 없이 우리 가족들은 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지금까지 담담하던 어머니가 목놓아 울었습니다. 철섭아! 철섭아! 하시는 거예요. 침통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보시던 아버지는 역정만 났습니다. 됐네. 됐어. 그만 가라니까! 그러나 좀 체로 어머니에게 얼굴을 주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민망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저 어이! 어이! 하고 서로 손만 휘 켜던 그 모습이 부부의 연이 끊어지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숨으로 누빈 두툼한 방공모자를 씌워 주셨고 아버지께겐 담배 씹지인 듯한

접 지압을 넘겨주었습니다.

돛단배가 바람에 밀려 고향에서 점점 멀어져 가니 내 마음도 산란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하나같이 바위처럼 굳은 얼굴로 멀어져 가는 고향산천을 바라 볼뿐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타서 그런지 뱃전까지 파도가 올라옵니다. 떠날 때부터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배 난간을 보면서 파도높이를 가늠해 본 거죠. 그런데 파도가 올라오면 육지가 솟아오르고 파도가 내려가면 육지도 가라앉아 버려요.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금강산 앞 바다쯤인 것 같아요.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세가 사나워 지더군요. 뱃전으로 물이 치 잡니다. 배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바람을 받으니 돛대가 내려 오지 않습니다. 죽었다 싶어요. 이렇게 되니 아무리 배를 잘 탄 다는 만춘리 사공도 어쩔 수 없더군요. 때 마침 지나가는 함정인 듯한 검은 물체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갈퀴리 같은 걸 던져 우리가 탄 배를 끌어당겨 로프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누구냐고 묻고는 어디론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끌려 갈 뿐 어디로 가는 지 알 수 없었지요. 만화에서나 본 해적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건 다 빼앗고 난 다음 바닷물 속에 집어넣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봐요.

소름이 끼치는 일이 아닌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통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뿌옇게 밝아올 때 어느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 만춘리 포구는 분명 아니었던데요.

모두 하선 시켜 놓고 누군가 우리들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국군 경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곳은 속초였구요. 새벽 동이 틀 때의 추위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해서 다시 배를 타고는 돛을 펴 덮고 웅크리고 앉았지요. 그리고 해 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배가 고팠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백설기 덩어리를 입에 넣었습니다. 입 속에서 녹습니다.

배 난간을 때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깐 졸았습니다. 어머니 꿈을 꾸 거지요. 잠이 깨니 더욱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동생들의 모습도 아물거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지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때 치안대라고 쓴 완장을 찬 사람이 왔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몸을 추스려서 다시 배를 탔습니다. 고생고생 하면서 오는 동안 주문진에 도착해 약 10일 간 머물다가 이남으로 이동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 다시 범선을 타고 도착한 곳이 경상북도 후포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후포에서부터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20일 쯤 걸어서 도착한 곳이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10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 동안의 마음 고생은 이루 말로는 다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보고싶어 죽겠어요. 그 뿐인가요. 고향에 있을 때엔 의식이 그림자 같았는데 이렇게 피난민이 되니 모든 게 다 모자라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나 오정이 지나면 저녁이 걱정이 되었어요. 당장 때 거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매일 자고 나면 이곳에 있는 미 공보실 게시판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뭐 새로운 소

식이 나 붙지 않는가 해서지요.

어쩌다 동네 아이들과 싸움이라도 하면 동네에서 야단이 납니다. 피난민과 사람이 싸웠다는 거죠 뭐. 이곳에서 막 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짬 만 나면 포항 고개 위에 올라가 지나가는 피난민 대열을 지켜봤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으면 이곳을 지나가는 신창서 나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지요. 그곳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피난살이에 정들 무렵 우린 다시 그곳을 떠났어요. 강원도 묵호(동해시)로 왔습니다. 발한리 라는 곳이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지게를 지고 사문재에 올라가 생 송아리를 베어 와 배다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주인집에서 농 빼다지(농 설합)을 얻어 엿장수를 시작했습니다. 발한리(현 동해시 발한동)에 가면 백 원을 내고 엿을 열 다섯 가락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되 곁이로 한가락에 십 원씩 받고 팔면 결국 한 행보에 오십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앞 묵호 기차역 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주로 피난을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만남의 광장 같은 거지요. 어른들은 이곳에 모여 돌아가는 정세를 얘기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엘 가면 엿이 잘 팔렸습니다. 여기 저기서 엿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캱패들 때문에 엿장수 하기도 힘이 들어요. 배가 고프니 엿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장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호리에 가면 사제 권연(종이로 말아만든 개피담배)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넘겨 오는 가격이 야메(암시세)로 한갑에 30원입니다. 이것을 50원이나 받고 팔았다니까요. 장사치곤 꽤찮은 장사였지요. 그러나 이 장사도 쉽지 않았습니. 단속이 심했던지 물건을 구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담배로 품목을 바꾸었어요. 아까마루(럭키 스트라이크라는 양담배)와 캐펠 그리고 화한 맛이 나는 쿨 담배가 인기였습니다. 장사는 좀 되긴 했지만 채수 없는 날엔 담배를 캱패들에게 몽땅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풍문에 들으니 삼척 정리진엘 가면 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상의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정리진이 라고 해서 다들 바 없지요. 삼척다리 밑에서 찹쌀떡 장수를 했습니다. 다리가 끊어 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다리 밑을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를 레면 사람들의 내왕이 많은 길목이었습니다.

뱃일도 하고 품도 파는 아버지와 함께 4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 동안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창궐하여 굶주리고 헐벗은 수 많은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냇가나 야산 여기저기에는 애총(애기무덤)이 있었어요. 급히 남쪽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죽은 어린애의 시신을 주인집 뒤 안 장독대 곁에다 묻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 들개와 여우가 한 낮에도 출몰하여 들이나 야산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재를 넘어가는 길목엔 어린애가 포대기에 쌓인 채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애 부모가 버린 거지요. 비정하기 이를 데 없지요. 가슴아픕니다. 그때 장티푸스를 엠병이라 해서 걸리기만 하면 죽는 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 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죽어도 고향 가까운 곳으로 가서 죽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손목을 잡고 북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때가 1953년입니다.

오다가 잠깐 머문 곳이 강릉 사천면 산대월리 승깨(승포마을) 라는 곳입니다. 강릉 시내에서 북쪽으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 농촌입니다. 하룻밤 잠자리를 청한 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 부자는 쌀 두가마를 받기로 하고 최씨 성을 가진 집의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큰 머슴이고 나는 작은 머슴으로요. 부자 일꾼은 그 날부터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습니다. 매일 밤 허리가 아픈 아버지의 아픔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소먹기였습니다. 배꾸레가 툭 튀어나오도록 소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 먹이는 일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러워 죽겠어요. 이른 아침이면 새벽밥을 먹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 모습이 울라리 구멍을 지나가거든요. 어떤 아이는 막 뛰어 갑니다.

뛰지 않으면 영남없이 지각을 하나 봐요. 하긴 강릉중학교까지는 30리나 되니 안 뛰고 되겠습니까? 덕분에 사천 아이들은 모두가 마라톤 선수들 같았습니다. 나도 그 애들처럼 달리고 싶었습니다.

시·군 대항 체육대회 하는 날 강릉 공설운동장 (지금의 남대천 둔치)에서 연곡까지 왕복으로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소를 먹이다가도 방골(사천면 방동리) 신작로로 나가서 달리는 선수들을 눈으로 보고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고 운동을 하는 동안 나는 소의 풀을 뜯기는 일이나 했으니 한심스러웠어요. 그러나 언감생심 내색을 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먹이는 소와 나는 같은 코뚜레에 묶여 있는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졸랐습니다.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하시던 아버지는 어느 날 인가 주인집 영감에게 뜻을 알리고는 나의 손목을 끌고 그 집을 나오셨습니다.

속초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정으로는 민간인 신분으로 아직도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접적지역인 속초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진에 가면 속초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리배 (저인망)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대구리 배 어부로 가장하여 속초로 왔습니다.”¹⁾

그들은 마을 언덕에서 또는 고향 포구에서 일가 친척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2~3개월 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고향을 떠나왔다. 멀어져 가는 고향산천을 뒤돌아보면서 바로 그곳이 50년이 넘도록 만날 수 없는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질곡의 세월을 살아가

1) 김철섭, 64세. 1998~99년도, 함경남도 도민회장. 속초거주. 사업

야할 비극의 땅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들은 남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리움에 시달려야 했다. 그 그리움은 곧 진한 눈물자국이 되어 아무리 애써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2. 그래서 더 서러운 타향

인간에게는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두 가지 본능이 있다. 하나는 종족 보존본능이요 또 하나는 생존본능이다. 이것을 이대공준二大公準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이와 같은 공준에 악착같이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혀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 반공포로로 석방되어 남한에 정착하게된 유창연(속초거주)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주민등록증 나이는 24년 생 이지만 본래 나이는 19년 생 이거든... 뭐 슬라 거든 확실히 써, 뭐나.. 반공포로라고 써야 맞아. 인민군이 후퇴할 때 그 놈의 새끼들은 그저 여기 저기서 사람을 막 잡아들이고 지랄하는 거야. 사람이 자꾸 죽으니 수를 채우느라고 그랬던가 봐. 그 해 50년 10월 달에 붙들렸단 말이야. 이곳 저곳 피해 다니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집에 들렀다가 붙잡혔지. 기가 찼지. 그때가 밤이거든. 꿈쩍 못하고 잡힌 거야. 마누라와 3남 1녀를 두고 인민군에 끌려온 거야. 마누라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나도 울었어. 기막히더군. 후퇴하는 판이라 도망가기 바쁘더군. 뭐 도망가는 판이라 전망은 구경도 못했어. 총 한방 쏘 보지 못한 군대란 말이지. 그저 후퇴 만 한 거야. 놈들은 왜정때 그 찌카다비라는 게 있어. 그걸 신고 싸움을 하거든. 나도 찌카다비를 신었지 뭐. 평양 쪽으로 후퇴하는 길인데 평양 못 가 사리원리이라는 데가 있거든. 미군이 사리원 쪽을 막았어. 그래서 북으로는 더 못 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그만 미군에 붙들렸지 뭐. 이를 레면 포로지. 전쟁한번 못 해보고 잡힌 포로란 말이야.

허허. 제주도로 실려 갔다가 거제도로 왔지. 포로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거야. 체기랄 .. 그 수용소 안에도 빨갱이가 있더라 말이야. 밤마다 교양 한다고 떠들어 대고 말 안 듣는 놈은 똥통에다 얼글을 쑤셔 박고 지랄을 해 대니 겁이 나서 통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잠이 들면 영낙없이 꿈을 꾸었거든. 빨갱이 놈들이 가위로 목을 자르는 꿈, 그래 그 뭐 있지. 악몽 맞아. 아! 악몽을 꾸는 거야. 감시 헌병은 속사정은 모르더군. 자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몇 사람씩 없어

저. 어디로 간지 난 몰라.

포로를 바꾼다고 하더군. 이북으로 가는 모양이야. 난 이북엔 안가. 싫거든! 우리는 이승만 박사가 6월 18일 날, 뭘 해 가지구. 강제로 철조망을 뜯어내고 석방 된 거야.

난 포로로 왔으니까 뭐 실랑이고 뭐고 없지. 피난민도 아니고 뭐 해당이 없어.”

그는 자신을 피난민이라 부르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실랑민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오로지 반공포로다. 이북으로의 송환을 거부한 반공포로였었다는 긍지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실낱같은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모든 분노와, 회한과 억울함을 다 잊고 가난한 어부로 살다가 죽기로 작정한 것 같기도 하고, 삶 그 자체를 체념한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가난이라는 고통에 그렇게도 너그러울 수 있던 말인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는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피난민으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늙은이가 되어 그가 겪은 반공포로 석방 당시의 상황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유창연씨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될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던가.

1953년 6월 18일 새벽 2시였다. 이른 장마철에 접어든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날씨는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야산과 들판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상한 일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큰일이 생길 때마다 비가 내렸다. 공산군이 삼팔선을 돌파 남침하던 순간인 6월 25일 새벽에도 비가 내렸고, 서울이 함락되던 6월 28일 새벽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가.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 소위 제 2의 엑서도스라고 불리는 피난소동이 벌어졌던 7월 1일 새벽에도,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사건이 전개되었던 53년 6월 18일 새벽에도 부슬비가 내렸다.

6월 18일 새벽 2시, 그 운명의 순간에 송환반대 포로들이 모여있는 부산, 마산, 거제도, 광주, 논산 포로수용소 등은 발각 뒤집혔다. 국군헌병들이 난사하는 칼 빈 소총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찢으며 수용소 주변의 경비용 전등들을 모조리 깨뜨려 버렸다. 그 순간 북으로의 송환을 결사 반대하는 2만 7천여 반공포로들은 노도와 같이 삼중 사중의 수용소 철조망을 뛰어넘어 것처럼 같구하던 자유의 품안에 안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전 세계를 경악시킨 6.18 반공포로 석방은 충격적으로 단행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이 지휘한 반공포로 석방은 완전히 유엔군이나 공산군측의 허를 찌른 것으로써, 조인 일보 직전의 휴전회담을 와해위기 까지 몰고 갔으나 결국은 충격은 멎었고 후에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실제로 이 석방작전에 앞서 각 반공포로수용소에서 탈

출을 지원하는 국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군과의 사이에는 007 수법을 그대로 재연하는 아슬 아슬한 활극이 수없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반공포로들의 탈출에 만전을 기하려는 국군과 경찰의 치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철조망을 기어올라 자유의 문턱을 막 넘어려던 반공청년 60여 명이 미군의 저지사격을 받고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유창연씨도 이렇게 사선을 넘어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다. 인민군 포로병 출신 유창연씨! 그래서 더 서러운 그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3. 어찌 잊으랴 그 날을!

한국전쟁이 발발한지도 어언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전진 또 전진을 하던 미군과 국군이 무슨 이유로 갑작스런 후퇴를 했어야만 했나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군과 피난민들과의 운명적인 해후와 성진과 흥남으로부터의 철수가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나 하는 점이다. 당시의 전황을 개괄하면서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본다.

가. 흥남 철수작전의 전말

1950년 11월 26일 중공군의 제 2차 공세가 시작되었다. 네드 아먼드 장군이 지휘하는 미 제 10군단은 한국의 동북부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다. 한국군 제 1군단의 수도사단과 제 3사단, 미 제 1해병사단, 미 제 7사단, 제 3사단 그리고 영국군 해병대로 구성된 미 제 10군단은 4열 중대로 한·만 국경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었다. 한반도 동북부에는 평탄한 계곡은 별로 없고 험준한 산으로 내 뺀 후미진 회랑뿐이었다. 그곳에 있는 길은 대부분 진흙길이었다. 이런 지형 때문에 10군단의 각 사단간의 연락은 제대로 취할 수 없었지만 11월 27일 까지 진격은 그런 대로 순조로웠다.

해안을 따라 북진한 한국군은 청진에 돌입 해 있었고, 미 7사단의 17연대는 한·만 국

경의 해산진에 도착하여 기세를 올렸으며, 미 제 1해병사단의 제 5, 제 7연대와 미 제 7사단의 제 31, 제 32연대의 2개 대대는 장진호 일대를 점령 확보하였다. 그리고 새로 증원된 제 3사단은 예비연대로 원산에 대기하고 있었다.

중공군이 11월 26일 서부전선에서 맹공을 가해 위커장군의 미 제 8군이 위태롭게 되자 맥아더 원수는 10군단 막하의 미 제 1해병사단에 서북방으로의 진격을 명령하여 8군에 대한 적의 중압을 덜어 보려고 했다. 이때 중공군은 12개 사단을 가지고 27일에는 동·북부의 제 10군단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해왔다. 특히 미 해병 사단에 대해서는 6개 사단의 중공군이 포위 공격을 가해 옴으로써 미 해병 사단은 8군을 지원 하기는 고사하고 해병대 자신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부득이 맥아더 원수는 11월 30일 8군과 함께 10군단에 대해서도 총 후퇴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8군은 육로로 후퇴할 수 있지만 10군단의 10만 5천 병력은 지형 상으로 해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나. 국군의 후퇴

중공군이 11월 27일 제 10군단에 대하여 제 2차 대 공세를 전개할 때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던 한국군 제 1군단의 수도사단과 3사단은 한·만 국경인 회령會寧과 무산茂山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다. 원산탈환작전에서 치열한 선두공격 경쟁을 벌인 두 사단은 함흥을 수도사단 제 1연대(연대장 한 신 대령)가 선취한 후부터 산발적인 적의 저항을 배제하면서 진격을 계속했다. 중공군이 10월 15일에 제 1차 대공세를 감행했을 때에도 한국군 제 1군단의 예하 부대들은 장진호에 들어갔던 3사단 26연대(연대장 이치업 대령)를 제외하고는 북한 공산군 패잔병들과 가벼운 접전만을 계속하면서 북진을 재촉했다. 수도사단과 3사단의 진격이 이렇게 쾌속이었던 것은 두 사단이 워낙 잘 싸우기도 했지만 중공군과 조우하지 않았던 점과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기 때문에 미군의 함포와 공군의 지원이 손쉬웠기 때문이었다.

11월 29일 국경선을 지척에 두고 총 퇴각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두 사단의 전면에는 중공군은 없었고 퇴각하는 북한 공산군의 뒷모습만 보였을 뿐이었다. 도망가는 적을 바라보면서 퇴각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두 사단은 큰 피해 없이 성진과 흥남을 통하여 각각 해상으로 철수 할 수 있었다.

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던커크 철수를 방불케 하는 흥남 철수작전에서는 10만 5천 명의 전투요원이 고스란히 적전에서 철수할 수 있었다. 12개 사단의 중공군의 가중된 압력을 받으면서 많은 병력과 장비를 큰 피해 없이 적전에서 무사히 철수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흥남 철수작전의 또 하나의 특색은 전투병력과 거의 맞먹는 수의 피난민이 해로를 통하여 철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성진으로부터 1만 4천 명, 흥남으로부터 10만여 명의 북한 피난민이 군 수송선이나 동원된 민간선박을 타고 월남했다.

최후의 군 수송선 L.S.T를 타고 온 1만 7천여 명의 피난민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 겨우 배편이 마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하여 당시 한국군 제 1군단 민사처장 류원식柳元植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12월 18일 유엔군의 철수 문제를 논의할 때 미 10군단장 네드 아먼드 장군이 나를 부릅니다. 장군은 흥남에서 곧 철수를 할텐데 한국 민간인으로는 함경남도지사인 이구하李龜河, 모윤숙毛允淑여사의 숙부인 모학복毛鶴福, 그리고 어느 목사 한 분을 지명하면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라고 해요. 나는 아연 실색했어요. 모두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가겠다는 데 세 사람만이라니 말이 되는 겁니까. 나는 적어도 10만 명은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더니 아먼드 장군은 깜짝 놀리면서 지금으로서는 군인과 장비도 철수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는 것입니다. 결론을 못 내린 채 옥신각신 하다가 나와 버렸어요. 군단 본부에 와서 김백일 군단장에게 보고했더니 즉시 참모회의를 열었어요.

김백일(당시 육군 소장) 장군을 비롯한 각 참모들도 피난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 장군은 미군 측에서 영영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국군 제 1군단은 피난민들을 엄호하면서 육로로 후퇴하자고 해요. 모두 그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미 10군단 헌병이 나를 데리러 와서 다시 아먼드 장군을 만났어요. 그는 피난민은 3천 명만 데리고 가리면서 그 이상은 한 명도 더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나는 우리 군단 참모회의에서 피난민과 함께 육로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먼드 장군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끝내 ‘노-노’를 연발하기에 그냥 나와 버렸어요. 좀 있더니 참모장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아먼드 장군이 또 오라는 거예요. 장군은 최종적인 양해라고 하면서 군인과 장비를 싣고 남은 공간에 피난민들을 태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군용선과 징발한 민간 목선을 이용,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수송했습니다. 조그만 목선은 너무 많이 타서 도중에 가라앉

기도 했었어요.”²⁾

다음은 구사일생으로 L.S.T를 타고 북녘 땅을 탈출해온 이광춘씨(함북출신)의 증언 들어본다.

“치안대나 자치대에 근무한 사람들은 성진에서 흥남까지 가는 기차를 탈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저희 두 형제는 기차를 탈 자격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11월 3일 국군이 길주에 입성했을 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형님은 치안대에, 그리고 나는 자치대에서 일했거든요. 집에서 오전 10시쯤 출발하여 저녁 어둑어둑할 무렵 아마 그때가 6시쯤 되었을 거예요. 성진에 도착했습니다. 기차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성진 시내에는 피난민으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온통 피난민으로 뒤 덮혀 있던걸요. 포목상을 경영하시던 어머니께서 지녀주신 인공화폐를 마침 갖고 있었기에 하루 밤을 그래도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인공화폐를 교환해 주는 곳이 있다 하기에 성진 시내를 하루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장 어느 모퉁이에 하염없이 앉아 있을 때 마침 외가 동네에 사는 최창호 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린 찢먹이를 등에 업고 남편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기막힌 일이지요. 찾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타일렀더니 울기만 했어요. 결국 돌아간다 하기에, 마침 갖고 있던 인공화폐 10만 원을 주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나의 여동생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오빠 둘이 입을 난넵구(런닝셔츠), 뽀뽀(팬티) 그리고 내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진한 형제애를 느꼈지만 여자는 안 나가도 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일렀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단을 쳤지만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친구하고 100여 리 눈길을 걸어왔는데 왜 내가 돌아가야 하느냐 하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타이르다 못해 할 수 없이 뺨을 한 대 후려갈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동생은 울면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저미는 일이지요.

피난 갈 방도를 찾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수도사단 18연대 백골부대에서 모병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12월 7일이었습니다. 장로교 교회당에서 모병 신체검사를 받았지요. 몸이 건강한 우리 두 형제는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부터 군인이 되었습니다. 모병을 할 때 고등학교 졸업생 이상은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들었더니 나는 분대장, 우리형은 부분대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2) 『민족의 증언』, 권 3. 중앙일보사, 1972. 298~299 쪽에서 전재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18연대 장병들은 성진항에 정박하고 있는 빅토리호(1만 2천 톤 급) 화물선에 탄약과 무기를 싣는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24시간 밤새우며 선적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11시 경에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물 사다리 칸을 딛고 배에 열심히 기어오르는 데 마침 오르는 그 칸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사람인지는 몰라도 건장한 체구를 자랑이나 하려는 듯 저드랑이 근육을 한껏 찌 내면서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등판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배의 마도로스인 것 같았습니다. 마주칠 것 같아 난 엉거주춤 배 달린 채 기다렸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올라오라고 손짓 하네요.

올라갔죠. 그러나 웬 심술이 났는지 겨우 올라 온 나를 발길로 획 걷어차는 거예요. 물귀신이 될 뻔했습니다. 그 때 처먹지 못한 양놈이 난 지금도 눈에 선 합니다. 배에 승선하고 보니 배는 1항지부터 5항지까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3항지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리로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이것을 1단블, 2단블 하네요. 화약냄새와 총기름 냄새가 코를 쓰았습시다. 전부 탄약과 무기로 꽉 채워져 있어 겨우 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배 뒤편에 널판지로 만들어 로프로 매어 놓은 간이 화장실 밖에 없었습니다. 똥을 누면 그냥 철썩거리고 바다에 떨어칩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면 똥이 나오질 않아요.

2단블에서 새우잡을 지야 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안남미로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3시 경 드디어 흥남 부두에 도착하였습니다. 흥남항 안에는 수백 척의 군함과 대소 함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레이손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각 분대장은 저기 쌓여있는 레이손 박스를 가져 올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지고 와서 분대원 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걸음에 달려가서 네 박스를 운반해 왔습니다. 분대원 들에게 나누어주니, 허!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린애들 같았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곧 흥남항에서 출항하여 12월 9일 부산 제 4부두에 입항했습니다.”

당시 함경남도 도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박진수씨는 마지막 철수선을 탔던 사람이다. 그때의 참경을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12월 15일 경부터 유엔군 철수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민간인들이 슬렁대기 시작했어요.

12월 22일에 함흥에 있는 도청에 출근하니까 전 직원을 집합시키고 즉시 흥남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흥남으로 내려갔지요. 황당했습니다.

부둣가에서 생각하니 아무래도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도중에서 인민군을 만났습니다. 다음박질로 다시 흥남으로 내려 왔지요. 나는 겨우 맨 마지막

피난민 수송선에 올라탔습니다. 우리가 탄 맨 마지막 배가 떠나니까 아직도 남아있던 많은 피난민이 아우성을 치며 배에 매 달리더군요. 더러는 바다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그 참상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울음이 나왔어요. 우리 배가 항구를 빠져 나오자 미군의 함포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흥남 시내는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피난민이 몰려 있던 부두는 검은 연기에 휩싸였어요.”(『상계서』. 299~300 쪽 참조)

라. 최후의 구난선 온양호

다음은 12월 22일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 된 이후 맨 마지막으로 흥남항을 떠난 L.S.T(온양호溫陽號)의 수습항해사로 있던 황호채黃鎬采씨는 그때의 숨막히던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였다.

“그때 우리는 민간인으로 6·25에 참여했기 때문에 군복에 ‘징徵’자 휘장을 달고 다녔는데 세 번째 흥남에 입항했을 때 앞에는 피난민이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밀어닥쳐 갑자기 후퇴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면서 또한 천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27,000톤 밖에 안 되는 온양호에 1만 4천 명을 실었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 포개 앉았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 같았어요. 그래도 흥남 부두 쪽에서는 배를 타지 못한 피난민들이 새까맣게 모여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었는데, 엘에스티는 선수쪽 문을 서서히 열고 있었습니다. 미쳐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피난민들이 문틈에 끼어 발버둥 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위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밀쳐내고 혼자 배를 타는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우리 배가 흥남 부두에서 이날 5시쯤 출항하여 3마일쯤 항해하자 벌써 흥남 시내에서 작전이 벌어져 시가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때 배를 타지 못하고 부둣가에서 아우성 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선수를 돌려 항해하다가 묵호항에 잠깐 들렀어요. 4일 만에 거제도 장승포에 닿았는데, 이때 승선인원을 재 점검해 보니 흥남 부두에서는 분명 1만 4천 명을 태웠는데 지금 보니 1만 7천 명이에요. 3천 명이나 더 났던 것입니다. 항해 중 배에서 밥을 지어 피난민에게 주었는데 나누어 줄 방법이 없어 주먹밥을 피난민의 머리 위에다 마구 던졌지요. 아무튼 장승포까지 항해하는 동안 배 안에서는 6명의 새 생명이 탄생했고 24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쳐버린 사람도 7명이나 되었으니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으리라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상계서』300~301 쪽 참조)

4. 정착의 몸부림

가. 피난기

월남 피난민에겐 넘어야만 할 산도 많고 극복해야 할 적도 많았다. 외로움이 그들이 넘어야할 산이라면 가난은 그들이 극복해야할 적이었다.

가족 이산의 고통과 가난의 설움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의 인간인 채로 이곳 저곳을 부유하면서 그들은 살 곳을 찾아 나섰다. 어깨를 짓누르는 피난보따리를 둘러메고 삶의 무게를 통감하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 보았지만 그들을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에겐 살기 위해 먹는 일과, 먹기 위해 사는 일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들 마음속엔 이 상반된 두 개의 가치가 하나의 그릇 속에 녹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삶이 그들을 배반하지 않는 한 죽을 수도 없었다. 살아 남아야만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그들은 철저히 복종했다. 그래야만 고향을 찾아 갈 수 있고 그리운 처자와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이 존재해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마땅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고생했던가. 그때의 처절한 상황을 최병일씨(64세, 현 속초거주, 사업)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의 고향은 함남 북청군입니다. 당시 열네 살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작은할아버지를 따라 피난을 왔어요. 사정이 워낙 다급한지라 홀로되신 어머니에게 조차 알릴 틈 없이 풍선을 탄 거지요. 어머니는 내가 월남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요. 나를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배가 점점 중 바다로 들어오자 높은 파도에 배가 춤추는 거예요. 심한 배멀미를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도 헛 구역질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쳐 잠이 들었다가 추위 때문에 잠이 깨었습니다. 어디까지 온지도 물론 알 수 없었습니다. 피난 첫 날밤은 이렇게 보낸 거지요. 남하하는 중간에 고성에도 들렀고 거진에도 들렀습니다. 이렇게 몇 날을 고생하면서 주문진을 지나 묵호까지 왔습니다. 묵호에서부터는 풍선을 탈수 없었어요. 풍선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지요. 묵호에서부터 L.S.T를 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수영비행장 옆에 있는 동사무소 건물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곧 나와야만 했어요.

건물 자체가 군에 징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백섬 밑에 가면 피난민을 위한 가설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가마니를 덮고 깔고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탈이 나면 큰일납니다. 화장

실 가기가 아주 불편했거든요. 자고 나면 미군부대 앞에 쪽그리고 앉아 구두를 닦았어요. 우리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하루에 스무 켈레를 닦아야 내일 아침 먹을 쌀을 살수 있었습니다. 스무 켈레 못 닦으면 그 다음날 아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스무 켈레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난에 찌들다 이젠 더 못 참을 지경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밥을 못 먹을 판이라 우리 식구들은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피난을 온지 3년쯤 지났을 때인 1954년도였죠. 부산에서 배를 타고 경주 감포에서 내렸습니다. 더 갈 수 없다고 해서 내린 거지요. 여기서부터 걸었습니다. 주로 해변을 이용했지요. 혹시 배편이 있을 까 해서 바닷가 길을 따라 온 거죠. 주문진에서부터 배를 탔습니다. 일금 3만 원을 주니 배를 태워 주네요. 쇠돌, 기사문, 수산, 물치, 이چه 다 왔나. 아니 아야진에 도착한 거지요. 근 두 달 걸려 걷고 타고 해서 온 길입니다. 고향하늘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고향에서 말아보던 비릿한 바다냄새가 났습니다. 이곳에서도 워커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군복수선을 했어요. 수입이 괜찮은 듯 했습니다. 구두 닦는 일보다는 재봉침 바퀴를 돌리는 일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5월 중순까지만 구두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2일까지 구두를 닦았습니다. 난 지금도 5월 12일은 못 잊어요. 그 날이 바로 내가 어께에서 구두 통을 내려놓은 날이거든요. 그때부터 바늘과 실로 살아오는 것이 오늘까지도 계속이 되네요.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나이 어린 소년들은 구두닦이를 하거나 껌팔이, 엿장수, 담배장수, 머슴살이, 심지어는 남의 집 양아들로 입적하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피난을 온 사람들은 피난이라고 하는 극한적인 상황논리가 이미 의리와 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고 있었다. 그들에겐 인정이나 동정심 같은 것을 바란다는 것이 사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어떤 웅색한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었던 젊은이가 눈물을 흘린 얘기가 있다. 단신 월남하여 거리의 화가로 연명했던 이색경력의 소유자 김광수씨(당시 27세, 함경남도, 함흥)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남쪽에 아무 연고도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거리를 헤매 돌아다니다가 마침 군에서 함께 지내던 서울대 미대생이었던 김 태. 전상수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산에 가면 미군들이 많으니 그들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학도병 수송차량에 얹혀 부산으로 갔습니다. 송판대기 하나를 들고 거리에 앉아 초상화를

그리는 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림 1점에 5달러씩 받고 그림을 그려 주었지만 손님이 없었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55년도 10월쯤 되었나 싶은데 군대에 함께 근무했던 동지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접했습니다. 미련없이 부산을 떠나 고생 고생하면서 양구로 왔습니다. 아직도 포연이 가시지 않은 듯 여기 저기에는 포탄이 떨어지면서 파 놓은 웅덩이가 있었고, 포격에 쫓겨진 다리도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 근무한다던 친구는 없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심한 허탈감과 현기증뿐이었습니다. 마땅한 일 거리가 있을 리 없었지요. 배운 게 그림이라 또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미군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초상화 그리는 생활은 눈물겨웠어요. 말형 격인 나는 미군부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엉터리 영어실력으로 손 발질을 섞어 가면서 겨우 겨우 주문을 받아 가지고 오면 김 군과 전 군은 그림을 그립니다. 사진과 똑 같게 그리지 않거나, 또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려진 얼굴이 험상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얼굴도 잘생긴 얼굴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애써 몇 푼 벌어들인 달러를 깡패들에게 몽땅 빼앗기기도 했어요.

무법천지였거든요. 벌어난 달러를 워커 신발 창에 감추거나 단지 속에 넣어 밤나무 밑에 묻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해서 근근히 모아 둔 돈을 몽땅 도둑을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허망함은 그 어디에다가도 비길 수 없었지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네요.”

비록 피난생활의 살벌한 생존경쟁을 이기고 사업기반을 마련했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실패했던 경우도 있다. 다음은 김연진 金然陳(85세, 속초 거주)씨의 경우이다.

“나는 동생 연우然祐와 매부 김 철 金喆과 함께 하숙방을 구하러 다니다 우연히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해방 즉시 월남한 함북출신 청년회 광 복만씨와 다른 회원 10여 명이 그들입니다. 경남도청을 찾아가 피난민 구조대책을 논의하러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함께 동행을 하여 도청에 갔습니다. 진지한 의논을 했었지만 딱 부러지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을 턱이 없었지요. 결국 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피난민들을 부산 영도에 있는 국제극장에 다 수용하는 일과 1인 당 가마니 2장씩 주는 것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때부터 가마니를 깔고, 덮고 사는 거적때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일쯤 지났을 무렵, 우리 몇몇은 제 2부두에서 군수물자 하역작업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첫 일거리를 잡은 것이지요. 몇일 후 사진기술이 있는 동생은 남포동의 어느 사진관에, 그리고 매부는 임시정부가 들어서 있는 경남도청의 경비원으로 취직이 되어 각각 헤어졌습니다.

나는 부두노동자 생활 20여일 만에 체력이 딸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허리를 추스릴 수도

없었고 어깨는 만신창이가 되어 성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고 당장 이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타관에서 몸이 아프니 더욱 심란해 집니다. 수중에는 집에서 떠날 때 가지고 온 돈 가운데서 쓰고 남은 5만 원 이 비상금으로 남아있었지요. 이일 저일 고민하고 있을 때 내 처지를 측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담배장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망설이 다가 용기를 내서 담배장사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침 갖고 있는 5만 원을 밀천으로 국제시장에서 사제 담배장사를 하는 장사치기가 되었지요. 그 때에는 담배를 종이에 말아 만든 개피담배(권련이라고 했다)가 새벽시장에서 도매로 갑당 30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되받아 한 갑에 5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항구도시의 1월은 매섭게 추웠어요. 시장 모퉁이에서 레이손 박스 위에도 갑 담배를 쌓아 놓고 부지런히 ‘담배요. 담배!’ 하면서 외쳐 댔습니다. 때로는 좌판을 메고 광복동 뒷골목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많이 팔 땐 하루 2백 갑씩이나 팔려 나갔고 수입도 째짤했습니다. 저녁이면 기진 맥진해 돌아 왔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소주잔을 기울리기도 했고, 때로는 방위군에 입대했다가 먹지 못해 부기가 든 사람들에게 밥도 사 주곤 했습니다. 어쩌다 쉬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전매서 단속반이 뜬다는 소문이 있으면 그 다음날은 쉬어야 했어요. 그러면 영도다리로 나가 그 밑을 빠져나가는 배의 수를 세기도 하고, 갑판 위에 총총히 서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세기도 했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지요. 전선이 불리해 지는 것일까. 영도다리 밑을 빠져 나가는 부상병을 실은 후송선이 부쩍 늘어나는 듯 싶었습니다.

피난살이에 찌든 그들은 냉정한 인정에 울어야 했고 내일이 없는 떠돌이 생활로 점점 허무주의적인 인간으로 변모해 갔다. 실향의 설움이 복받쳐 올 때마다 그들이 즐겨 부른 노래가 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 봤다 찾아도 봤다.
 금 순아 어디를 가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1·4 이후 나 홀로 왔다.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몸은 국제시장 장사 치기다.
 금 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

“곧 끝이 날 것 같던 전쟁은 그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고향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 했구요. 그러나 봄이 되면서 장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저축이 늘어나면서 좌판을 면했습니다.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 사업을 확장했거든요. 그때 나는 창고에 20만 갑의 담배를 쌓아두고 있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어처구니없게도 이렇게 잘 나가던 담배 장수도 하루아침에 거덜이 났습니다. 전매서 단속반에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었어요.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 날을 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1952년 이었습니다. 빈털터리 피난민으로 되돌아 온 나는 아버지의 고향친구 송보연 宋寶連씨를 찾아갔습니다. 염치 없는 식객 노릇을 하자니 거북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눈치밥 먹는지도 어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 우리와 이웃을 하고 사는 김형철 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2부두 미군 피엑스에 근무를 하고 있던 순수 부산토박이 김씨는 내게 함께 사업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빈털터리인 나를 어떻게 믿고 그런 제안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피엑스로 나오는 배급물자 (주로 광목, 내의, 양말 등의 피복류)를 되받아다 팔아 그 이익을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할 일이 마땅치 않던 나는 즉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 뒤라던가 불감청이면 고소원이 아닙니까? 그 날부터 당장 피복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일동 시장에 나가 이 바다에 물이 녹은 진짜 장사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떼다가 도매 값으로 파는 일이어서 이문이 박했지만 잘 팔리는 재미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53년 9월부터 나는 독립하기로 마음먹고 부전시장에서 피복류 노점상을 차렸습니다. 장사 요령도 잘 알고 이력이 나고 보니 이일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가 들 여유가 생긴 거지요. 1954년에 결혼(부인 정 저옥씨)했습니다.

결혼 이듬해에 조그만 판자로 만든 점포도 마련했습니다. 이를테면 뿌리를 내린 것이지요. 7년쯤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재미도 봤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에 걸려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었지요. 설상가상으로 5·16 군사혁명 정권에 의한 판자촌 철거령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점포와 기거하던 단칸방도 몽땅 날리고 말았습니다. 망연 자실 했었지요.

모든 꿈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실의의 나날을 보내면서 다시 일어 설 방도를 찾아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63년 11월 5일 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속초로 왔습니다.”

나. 시련기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갖고 많은 피난민들은, 그곳에 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기에, 속초로 왔다. 그러나 반겨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한 허무 뿐이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짐을 벗고 정착할 수 있었던 곳이 청호동이었다. 왜냐하면 청호동은 이곳을 찾아 온 그 누구에게도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가꾸어 주는 대로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차츰 사람 사는 마을로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황량한 모래 언덕에서는 어느덧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고, 닭 우는소리도 들려왔다. 이 황량한 불모지에서 그들은 내다 버린 연탄재를 밟으며 나름대로의 영토를 확장해 갔다. 육지 속의 섬이란 말이 있다. 모든 소식과 문화가 외부와 차단된 고립지역을 그렇게 부른다. 그렇다. 청호동이야말로 육지 속의 섬이다. 갯배가 아무리 유행을 실어 날라도 섬사람들은 변할 줄 몰랐고, 갯배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실어 날라도 거기엔 내 부모 내 형제가 있지 않았다. 외로운 섬 마을에 밤이 오면 천길 만길 나락에 떨어지는 주검 같은 적막이 흐른다. 그러나 그곳엔 슬픈 사연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나 보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를 한탄하며, 밤잠을 설치는 노인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비탄의 섬이 바로 청호동이었다.

시인의 눈에 비친 당시의 청호동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상국(설악신문사. 주간, 속초시 거주)은 「청호동, 그 부채의 섬에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50년, 동란이 나고 겨울이 왔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전선이 밀리면서 대대적인 철수가 시작되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잠깐 피난했다 오리는 아버지의 말씀 끝에 무작정 남으로 가는 목선을 탔다. 1·4 후퇴였다. 주문진, 삼척을 지나 부산, 거제까지 흘러갔다가 차츰 북상하는 전선을 따라 어찌 어찌 수소문해 만난 고향사람들과 함께 속초까지 올라왔다.

‘됐다. 이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향이다.’

그 임자 없는 백사장이 청호동이었다. 그리고 휴전이 되었다. 그 이후 그는 모랫벌 깊숙이 빠진 생애를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청호동, 동해와 청초호가 양쪽에서 밀어 올린 모래밭이 남북으로 약 1km, 동서로 너비 80여 미터의 띠를 이룬 10만 평 가량의 백사장, 전시엔 경비행기 이착륙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버려진 땅이었다. 앞 바다엔 미역바위가 많아서 우선 미역 따다 넣어 말리기에 그저 그만한 곳이 없고 그것이 밥이 되어 주기도 했다. 그곳

에 움막을 지었다. 부서진 배에서 밀려나온 널 조각과 레이손 박스로 벽을 만들고 루핑으로 지붕을 이었다. 본능적으로 고향 가까운 곳으로 몰려든 함경도 피난민들은 모두 그렇게 모래밭에 난민촌을 만들어 갔다. 고향을 코앞에 두고 하루가 일년이 되고 십 년이 지나고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영흥에서 나온 비슷한 처지의 처자에게 새 장가를 든 그는 백사장에 3남 4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일흔이 훨씬 넘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향 가는 버스는 오지 않고 이북에 남겨 두고 온 아내의 얼굴도 이제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분하고 기가 막힌 세월이었지만 모두 부질 없다. 그러나 이 말라비틀어진 육신에 무엇이 남아있기에 부모와 고향이 야기 끝에 망령되게 눈물이 나오는 지, 그는 그 눈물이 부끄럽다.

청호동은 속초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면 북쪽으로 소 뿔 모양을 하고 있는 모래 땅 언덕이다. 청초호는 옛날부터 석호瀉湖였으나 지금은 한쪽 귀를 헐어 바닷물이 드나들게 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고기잡이 어선들이 비좁게 출입하는 호리병처럼 생긴 청초호의 외벽에는 갈데 없는 함경도 피난민들이 정착촌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곳을 '아바이 마을'이라 고도 한다. 이 아바이 마을엔 피난민 촌이란 이름에 걸맞게 거주하는 1천여 가구 5천 4백여 주민의 8할 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피난 온 월남민들이었지만 지금은 피난 1세대만이 이곳을 지키는 뿐 1.5세대들 대부분은 이곳을 떠났다. 이곳에 가보면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구실을 하는 갯배도 있다. 저쪽으로 건너가면 이쪽이 허전하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저쪽이 비어있는, 건너가도 그만이고 또 건너와도 그만인 갯배를 보면 그곳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갯배가 와 닿는 길목에는 '가을동화'를 촬영한 곳이라는 광고지를 문짝에다 붙여놓은 상점이 있다. 이 상점이 있는 곳 뒷길을 따라 조금만 가다보면 목소리도 비슷하고 모습도 비슷한 사람들이 한 무리 모여 산다. 혈연이 같거나 아니면 지연이 같아, 그래서 형성된 인격도 같은 신포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이루어 놓은 곳이라 해서 언제부터인가 이곳을 '신포 마을'이라고 했다.

청호동엔 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살고 있다. 잘못 접어들면 남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기 십상인 골목길, 그 길을 따라 어깨를 포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북청에서 온 사람, 단천에서 온 사람, 흥원에서 온 사람, 영흥, 원산, 안변 등 심지어는 저 멀리 중국에서 왔다는 늙은 부부도 있다. 어떻든 전체 신포인의 27.3%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좁은 섬에 살고 있다.

여기서 김철섭(전 함경남도 도민회장)씨의 증언을 다시 들어 본다.

“속초에 도착한 그 다음날 나는 일 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인부들이 철사 망을 양쪽에서 들고 흔들며 사 모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벽돌 찍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복탑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의 수복탑이 아닙니다. 간청해서 벽돌 나르기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일한 대가로 건빵 두 봉지를 얻어 왔습니다. 기막히더군요. 한번은 교동의 언덕에 하염없이 앉아 바라보니 저 건너편에 기러기 떼가 날아와 앉는 모래언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판자 집들이 무질서하게 붙어 있었어요. 저쪽 끝난 곳엔 군인 부대도 있고 연습기가 뜨고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 곳이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곳엔 우리와 같은 처지의 피난민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징어 명태덕장 옆에다 판자 집 한 채 마련했죠. 바닷가에선 부서진 배 조각을 주어 오고 미군 부대 옆의 쓰레기장에서선 지천으로 버려진 레이손 박스를 주어 왔습니다. 그것으로 골조와 지붕으로 하여 단칸 방을 마련한 셈이지요. 보잘 것 없었지만 밤에는 별빛을 가리워 주고 찬 바람도 막아 주었습니다. 속초 앞 바다엔 미역 바위가 많았습니다. 그 미역을 따다가 말리면 돈이 되는 거지요. 2월과 3월이면 청호동 피난민들은 밤마다 귀를 밖에 내 놓았습니다. 바다가 끓는 소리를 내면 햇 미역이 녹는다고들 해서, 특히 2-3월 봄눈이 쏟아 질 때 더 크게 귀를 열고 물 끓는 소릴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듯 미역을 소중히 하게 된 것은 미역이 우리에게 곧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땐 물 반 명태 반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명태가 지천으로 잡히었습니다. 오징어도 잡히고, 꿩치, 정어리 할 것 없이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잡혔지요.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아마 큰 산 밑에 살면 손해를 보아도 큰 물 옆에 살면 손해보는 일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맞아요. 하느님은 정말로 공평하시어 흉년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요. 할 일이 생기네요. 배 탄 오징어나 명태를 덕장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덕장에 거는 일도 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의 뇌리에선 지나온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이게 어디 김철섭씨 만이 겪은 일이라. 김씨를 대표단수로 하는 피난민 모두의 아픈 과거이다. 여하튼 얘기하는 동안 그는 두 번이나 울었다.

“생활이 조금 펴자 나는 당시 속초중학교 야간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밥 먹여 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해서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양복기술이지요. 처음엔 군복 수선하는 정도의 기술을 익힌 겁니다. 그땐 군복 수선하는 일이 아주 전망 좋은 사업이었으니까요.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힌 후 독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곳 저곳 수소문하

여 재봉침(틀)을 갖고 있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동명동에 살고있는 김씨라는 분으로부터 2만 환을 주기로 하고 우선 외상으로 들여와 그 날부터 재봉틀 바퀴를 돌려 댔습니다.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 길로 아주 양복쟁이가 된 거지요. 돈이 생기면 우선 쌀을 샀습니다.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해서 이지요. 하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유 돈이 생기면 금반지를 사 모았습니다. 이걸 피난지에서 익힌 교훈입니다.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하필이면 금반지를 선호했을까? 그 어려운 판국에? 금은 불변의 가치 저장수단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더욱 절실한 것은 피난할 때 간편하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편리한 교환의 매개물이 바로 금반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피난민들은 하인처럼 돈을 벌어 정승같이 써야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몸소 절약의 미덕을 체득해 가면서 오로지 성실과 신용을 밑천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또 상권을 넓혀 나갔다.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실향민들은 나의 입장에서 남을 생각하고, 나를 미루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피난생활이라는 극한 상황을 통하여 터득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의리를 소중히 여긴다. 그 의리야말로 피난민 사회를 지탱해 온 정의의 법칙이었다. 피난민 사회에서 의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곧 파문破門을 의미한다. 파문을 당하면 소속집단에서 축출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이기심과 이타심을 조화시켜 모두의 공익公益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겐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따로 없다. 우리 모두의 것이 있을 뿐이다.

5. 정착의 과정

물론 근면과 성실로 자기 성취를 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져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피난민의 굴레를 쓰고 가난과 병마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반공포로병 출신 유창연은 아직도 그런 사람이다.

“직업은? 없지. 내가 이까바리 하다가서. 그 짓 안 한지가 3년이야. 원 나이로 82세인데 주민등록 나이는 78세이거든, 여하튼 75세까진 이까바리를 했어. 이까? 왜말로 오징어가 이까

야. 지방 생활은 내게 해당되는 건 정부서 말이야.. 생활보호자야. 그러니 정부에서 먹을 걸 주거든. 생활보호비로 10만 원이라는 걸 줘. 뭐라 하더라.. 음 하나 또 있어. 4만원이 붙는 게 있는데.. 그래 연금이다. 맞아..합이 14만 원인데 고걸로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깐 내게 대한 건 이거 밖에 없구.. 할미가 있거든.. 저기 있잖아. 다시마를 주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뭐. 우리 가족은 둘 뿐이야. 아들? 있어. 59세야. 무직이야. 지도 먹고 살기 바쁘거든. 그러니깐 할미하구 나 뿐이지. 월 평균 소득?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쓸 수가 없어. 뭐야 이걸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는 거야. 내가 호주지만 내건 하나도 없어.”

유창연씨는 가난을 벗어나 살아온 세월이 50년이라면 외로움을 벗어나 살아온 세월도 50년이다. 가난과 외로움이 체질화되어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그의 모습은 곤궁함 그 자체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비 14만 원에 그는 목숨을 걸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40년 전 또는 50년 전이나 존재했던 피난살이에 찢든 때가 지금도 이렇게 얼룩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피난직후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 실향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기업이 있었다.

1953년도에 속초시 금호동에 설립 되었던 동방주물공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를테면 최초의 속초지역 향토기업이었다. 임정순씨에 의해 세워진 동방주물공장에서는 선박엔진과 부품을 조립했다. 일본말로 아끼다마(소옥, 燒玉)라고 하는 직류 발전기로 선박엔진을 돌리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산업이었다. 이 엔진을 두 개만 부착하면(이것을 두 개를 뜻하는 더블이라 했다) 손으로 노를 젓는 속도의 4배속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직류식 발전기를 장착, 보수, 수리를 해 주는 동방주물 공장이 설립된 후 영동지역 특히 속초지역의 어선들의 동력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다. 풍력을 동력으로 대체한 어선들은 울릉도 근해까지 어업의 권역을 확대해 갔고, 자체의 동력으로 오징어 집어등을 밝힐 수 있어 야간 오징어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곳 주민들은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다. 명태나 오징어의 어획량의 증가는 또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곧 전방산업인 채낚기 도구나 그물 등 어구산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또 후방산업인 오징어나 명태 덕장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활어의 배 따기, 매달기 등의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졌고, 동시에 덕거리 임대업, 운송업을 활성화 시켰다. 명란 가공 산업은 그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녀 노동을 고용할 수 있었다. 남성에 비하여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녀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요 보람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너무 영세하여 가내수공업의 형태를 면치

못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 노동생산성도 대단히 낮았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명태나 오징어 덕장에서 가공된 제품들은 군납품으로 또는 민간소비품으로 시장을 넓혀 나갔다. 어떤 기업이 전·후방 연관효과를 가져올 때 그 기업을 선도기업이라 하고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선도 기업인이라 한다. 바로 임정순씨가 그런 사람가운데 한 사람이다.

속초는 미도美都이다. 여러 가지의 색깔로 조화를 이루는 가을의 설악이 아름답게 보이듯이 다양한 인격들이 이루어 놓은 속초도 아름답다. 그러나 미도 속초에는 가슴아픈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1959년 추석을 전후하여 휘몰아친 태풍 '사라' 호는 피난민 생활을 더욱 더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다. 청호동 끝머리 방파제까지 마중 나왔던 가족들은 참혹한 광경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버렸다. 실신하기도 했다. 원 근해에 조업을 나갔던 고기 배들은 천신만고 끝에 동명동 등대 앞까지 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내항인 청초호에 접어들기 위하여 방향을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어부들은 바쁘게, 그리고 결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덮쳐오는 삼각파도는 배를 삼켜버렸고 파도에 휘감긴 어부들은 몇 번인가 파도 위에서 머리를 솟구치더니 다시는 물위로 나오지 못했다. 이 처절한 죽음이 마중 나온 아내들의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한 많은 삶의 마감은 또 하나의 한 많은 삶을 그들 아내에게 남겨 주었다.

태풍 '사라' 호는 피난민의 생활터전을 고스란히 앗아가 버렸다. 그리고 신포 사람이 많이 살고있는 청호동에 신포 과부라는 신종의 인간 그룹을 토해 놓았다.

이것이 어찌 신포 사람들만의 슬픔이라. 그건 크게 보면 속초사람 모두의 비극이요 작게 보면 피난민의 비극이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불굴의 용기로 험난한 인생 항로를 헤쳐 나갔다.

가. 1960년대

이 기간은 재건 국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기간이다. 1960년대를 통하여 피난민들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은 해산물 관련산업이었다. 속초시에는 다수의 명란 가공 공장이 가동되었고 또한 오징어 건조나 명태를 건조하는 사업장이 활발히 운영되었다. 집

집마다 마당이나 지붕, 그리고 바다 백사장에 미역을 널어 말렸고 이렇게 말려진 미역은 속초의 대표상품으로 자리 매김 해 나갔다.

명태덕장 사업은 더욱 활성화되어 겨울이면 청호동일대, 심지어는 한계령 등의 한랭 지역까지 권역을 넓혀갔다. 김태성씨는 대규모 덕장을 운영했던 대표적인 기업인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동태 또는 노랑태라 했다. 독특한 맛과 색깔로 주로 군납으로 충당되었지만 일반시장의 수요도 아주 많았다. 물자 부족시대인 당시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시장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만들기만 하면 팔렸다. 속초 앞 바다의 미역바위를 입찰하여 미역을 채취하는 사업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워낙 투기성이 강해 이 사업에 멋모르고 뛰어 들었던 사람이 꽤나 망신한 경우도 있었다.

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연대인 1970년대를 통하여 피난민 세대들은 생활의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사업은 부동산 및 건설업이었다. 사업적인 기반을 다져간 실향민들에게는 이제 속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된 연대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속초에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 위하여 속초에 고향심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당시의 속초시의 경우는 전체인구의 70%인 5만 3천여 명이 실향민이었다. 실향민들은 이제 생활기반이 호전되고 보니 이복에 두고 온 고향 그리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

정서면에서 이기적이 되어 가면서 지역개발 문제에 무관심해 짐은 물론이려니와 정착 의욕도 약화되어 갔다. 이젠 속초를 떠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이와 같은 심적 공황상태가 계속될 때 마침 행정당국에서는 실향민에게 고향심기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고향이 없는 실향민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청년회의소, 속초라이온스클럽, 속초로타리클럽, 새마을 금고, 시장번영회 등등 많은 분야의 사회 봉사활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향민 회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고향심기운동이 전개되자 이 운동은 결국 전 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속초 사회에서는 실향민이라는 용어는 사라져 버렸다. 모두가 속초의 주인이 된 것이다.

동기간은 또한 실향민 1.5세대가 사회로 또는 상급학교로 진출하는 도약기였다. 고등학교 과정을 끝낸 젊은이들은 대학으로, 사관학교로, 공무원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디디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나 신원조회라고 하는 신분제한이 그들의 길을 막는 경

우도 허다했다. 이복에 가족을 두고 피난 왔기에 당연히 일가 친척이 복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연좌제라고 하는 족쇄로 많은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아 그들로 하여금 좌절의 늪에 빠지게 했다.

그 무렵 속초 거주 일부 실향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민이다.

1세대들은 노쇠하고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수생受生은 수난受難을 뜻함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 고생만 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허탈감과 상실감 뿐인 실향민들은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가뜩이나 심란할 때 1.5 세대들의 타지 진출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외롭게 했다. 그들에겐 내 곁을 떠나야 할 자식들에게 더 늙기 전에 송조의 범도를 훈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찾아 보아야 할 사람들 얘기를 전해 주어야 하고, 고향에 두고 온 땅의 위치 그리고 지목과 번지를 암기 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던가? 그들이 돌아가야 할 할 영원의 안식처를 찾는 일이었다.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실향민 1세대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 지기만 했다.

다. 1980년대

성장연대인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흑자가 실현된 해이기도 했으며 서울 올림픽(1988년)이 열린 연대이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국제수지흑자로 빛어진 외환부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부동산 투기 열기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의 변동을 가져왔다. 명산 계곡마다 메밀 막국수 집과 토종닭 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농사를 짓던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 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농촌의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외지인들에게 매도되었다. 부채지주의 소유가 된 농토는 방기되었고 여기 저기서 개발붐으로 잡종지가 논, 밭 보다도 더 고가로 매매되는 기현상을 빚게 되었다.

고도성장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보다 많은 풍요를 가져왔지만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의 현상을 심화 시켰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구는 저소득계층에 상대적인 빈곤 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특히 근로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향민들에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실향민에겐 떠나는 아들의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아들

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면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부모가 지켜야만 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허리가 휘는 아픔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편안할 날이 있을 수 없는 실향민들은 아픈 허리로 외로움이라는 짐을 하나 더 져야 했다.

라. 1990년대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품 경제현상과 무역흑자기조의 퇴색 그리고 외채의 누적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철수 등은 우리 경제를 서서히 압박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울타리 없는 세계경제의 물결은 우리의 안방시장을 위협했고, WTO체제의 수립으로 우리의 농수산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급한 OECD가입으로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도 포기해야만 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가뜩이나 허약한 우리나라 경제는 그 기반부터 동요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소위 IMF 사태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맞아 나라의 운명이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경기와 가장 민감하게 연동되는 관광산업이 위축됨으로써 속초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더구나 한·일 어업협정으로 우리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었고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 동해의 적조현상, 바다 바위의 백화현상 등으로 불경기에 견디다 못한 선주들은 어선의 감척減隻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또 배를 타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속초지역 경제는 외환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와 같은 불경기에 특히 민감한 저소득층 가운데는 다수의 실향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향민들은 몸으로 실감하면서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일 거리를 찾아 나서야 했다. 모두들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하는 데 돌아오는 성장이익은 미미했다. 실향민들에게 궁핍화성장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6. 망향동산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다. 자식들은 자기들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그곳을 고향이라 한다. 그렇다면 자식들의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피난 1대의 고향도 결정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그곳이 고향인체 하는 것이지 결코 고향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두고 온 산하가 있기 때문이다.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고향을 버려도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고향을 버리지 않는다.

자식이 태어나서 자란 곳도 고향이라고 불러 주고 있다. 아버지는 고향으로 가지 못할 바에야 이곳 속초 땅에 묻혀야 한다. 한 사람 두 사람 씩 이 세상을 하직한 선배들이 이미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

죽은 이들은 곡비哭婢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남향 양지바른 곳에 곱게 묻혔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일어나 앉아 형형한 눈으로 북녘하늘을 바라고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피난 1세대의 참담한 모습이다.

때문에 먼저 타계한 고향 선배들의 유택을 마련하고, 한식이나 추석명절이 되면 동향사람들이 한데 모여 회포를 풀고 친목을 다지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향동산을 쌓고 비석을 세워 이곳이 내가 가야 할 고향임을 표시해 두었다.

반룡산盤龍山の 정기어린 장엄한 위용, 치마대馳馬臺의 유구한 옛 정취 성천강城川江의 여울과 관북關北 제일의 은반銀盤. 만세교萬歲橋에 물결치던 대보름의 인파, 다시 동東으로! 호련천瑚璉川의 백사白沙, 백로白鷺에 덮힌 정화릉定和陵의 아치雅致, 귀주사歸州寺의 은은한 종소리 온 누리에 그윽한 여운餘韻을 남겼거늘, 향수鄉愁와 통한痛恨의 애달픔이 뒤엎힌 내 고향 함흥咸興! 버려진 지 어언 오십성상五十星霜, 조상祖上님들의 넋을 달래며 통일願을 안고 오늘 이곳에 망향탑望鄉塔을 다시세워 후세後世에 남기노니 영원하여라 내 강산江山아!

이 글은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 66번지에 조성된 함흥시민회 망향동산에 세워진 망향탑에 명각된 함흥송咸興頌이다. 구구절절 고향 그리는 마음을 풀어 놓은 것은 이곳을 지나는 후세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함이며, 그들로 하여금 실향의 고향을 훈도케 함이니 망향동산은 단순한 묘원이 아니라 묘원 그 이상이다.

함흥에서 온 실항민들은 12,249㎡ (3,705평)의 망향동산을 마련했다. 이곳에 망향동산을 조성하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행정당국의 제한조치와 당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사업을 중단할 뻔한 위기도 겪었다. 오계호(속초지구 함흥시민회장)씨의 증언을 들어 보자.

“속초시 관내에 마련했던 공원 묘원 부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났어요. 가야 할 곳은 인근 고성군입니다.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한데 묘지가 10 만기나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군 당국에서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살아서도 마땅히 갈데 없어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갈데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여러번 진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국회 의원회관도 방문 했었죠. 뾰족한 수가 없었던 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묘지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묘원이 어디 혐오 시설입니까? 왜 묘지가 들어오면 부근의 땅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임야에다 묘원을 설치하는 건데 그게 어디 도시계획에 위반되는 건지요. 지역 주민들과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묘원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당국으로 부터 묘지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묵인해 주는 상태이니 영 불안합니다.”

함흥시민의 망향동산 건립의 연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977. 6. 12 동향 선후배 17인의 준비위원으로 재 속초 함흥시민회를 창설 결의
- 1977. 7. 10 창립총회를 개최 및 임원 선출
- 1978. 5. 6 망향동산 부지 매입(속초시 교동 304번지 임야 7,200평)
- 1979. 1. 도시계획에 의거 본 임야 분할 매각(총회동의)
- 1997. 3. 5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 66번지 임야 3,705평을 매입
- 1997. 6. 공원 묘지식으로 향원화鄉苑化 하고 고故회원 묘 전부를 이장완료
- 1998. 11. 본 향원에 망향탑을 재 건립

이것이 어디 어느 특정지역의 실항민들만이 부디쳤던 어려움이겠는가?

현재 속초시와 고성군 관내에는 함경남도 도민회가 운영하는 망향동산이 20여개소(함흥, 원산, 흥남, 단천, 북청(신포, 신창, 속후), 만춘, 이원, 함주, 정평, 영흥, 고원, 문천, 신흥, 장진, 갑산, 삼수, 풍산, 혜산진, 안변등)나 있다. 이외에도 함경북도, 황해도, 평

안도 그리고 북 강원도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망향동산이 있다.

회고해 보건대 지난 세월은 실향민들에겐 피와 눈물·고달픔과 시련이 점철된 애환의 반 세기였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하나. 통일과 자유가 함께 동터오는 역사의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의 뒤 안으로 사라지는 고향 선배를 보면 마음이 바빠진다. 앞으로 고향 노래를 몇 번이나 더 부를 수 있을지!

묘원의 설치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곳 속초를 떠난 피난민 1.5세대들은 이제 또 인생의 한 고비에 와 있는 중년이 되었다. 이제는 그들이 돌아갈 고향도 있어야 한다. 이미 1세대는 노쇠하고 고향 젊은이들은 각각 분산되어 만날 길이 아득했다. 그러나 망향 동산이 설립되고 난 후부터 도민회나 군민회 주관으로 한식이나 추석 그리고 총회가 열리는 날이면 고향 망배禱拜행사도 할 수 있다. 이곳에 오면 고향소식도 전해들을 수 있고 어쩌다 운이 좋으면 북녘에 있는 부모 형제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속초를 찾아오는 횟수가 요즘 와서 부쩍 잦아지고 있다.

나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비극적인 정착의 과정을 기초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실향민이 되어야 했다. 속초에 정착한 이후 50여 년을 내내 그들과 함께 살아 온 기분이다.

그 어려웠던 50년! 그러나 마뜩치 않은 역사도 역사다. 그래서 그 50년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고 있지 않은가!

실향민은 역사의 단절을 몸으로 이어왔다. 갈 곳이 막히면 돌아왔고 더 갈 수 없으면 스며들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는 그들을 칭송하고 싶다.

‘내가 작은 개울이라면 그대는 하나의 가람伽藍’이라고.

본 피난민 정착사를 엮음에 있어 생동감을 주기 위하여 많은 분들의 증언을 참고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델로 설정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은 사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전적으로 글쓴이의 책임이다. 용서를 빈다.



제5장 속초의 지리적 특성과 피난민의 취락형성과정

옥 한 석(강원대 지리학과 교수)

1. 속초의 지리적 특성

동해안은 태백산맥의 동쪽사면이 해안까지 임박하여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가 짧고 하구 부근에 약간의 충적평야가 발달하게 된다. 이 충적지는 연안류를 따라 이동하는 모래가 바다 쪽으로 가로막음으로서 형성된 석호 부근에 잘 나타난다. 그래서 동해안은 산지, 구릉지, 충적지, 모래언덕,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 이른바 사빈해안이 태백산지에서 해안쪽으로 차례대로 전개된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동해안의 취락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농업·어업 활동에 유리한 충적지나 해안에 먼저 취락이 발생한 후, 구릉지로 취락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견게 된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에 따라 속초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걸으며 도시 형태가 발달하게 된다.

속초시는 행정구역상으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태백산맥의 주요한 산인 설악산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세 하천에 의하여 3분된다.

제일 북쪽에 있는 하천 하나가 영랑호로, 그 중간에 하나의 하천이 청초호로, 마지막으로 제일 남쪽에 쌍천이 동해로 각각 유입된다. 이들 동서방향의 하천은 각각 작은 유역 분지를 이루게 되고 산지에서 많은 토사를 운반해와 하구에 퇴적시키고, 토사의 일부가 동해의 연안류를 따라 흘러가다가 하구 입구를 메워 영랑호와 청초호 등의 자연 호수를 이루어내게 되었다. 속초는 쌍둥이 모양의 자연호가 입지한 곳이다.

동서로 발달한 이들 하천은 동서방향의 인구 이동에는 유리하지만 남북간의 이동에는 별로 유리하지 않았다. 육로에 의하여 이들 유역분지를 넘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해안의 연안류에 의하여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남북간의 교류에 더욱 유리하였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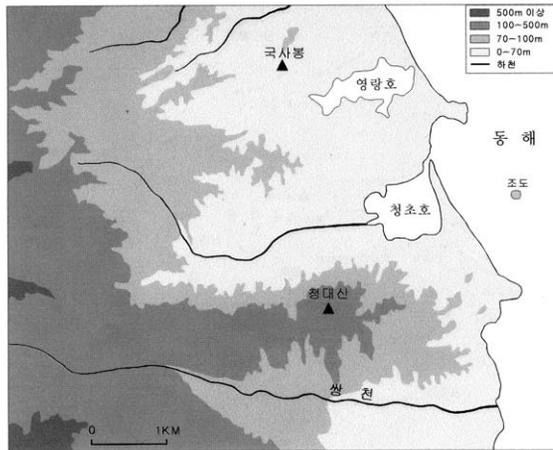


그림 1. 속초 부근의 지리적 특성

조선 후기에 속초는 양양군의 일개 마을인 속초리, 또는 속진리에 불과하였다. 양양군의 읍치소인 양양읍은 동해로 유입되는 남대천이 이루어 놓은 넓은 충적평야 상에 위치하는 강원도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지역 중심지였다. 강릉, 삼척, 고성, 통천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양양군의 일개 마을인 속초리는 해안가에 위치하였으므로 반농 반어의 촌락이었다. 읍치소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세인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던 속초리가 오늘날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와 함께 영동 북부 지방의 중심 도시인 속초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날의 속초시는 충적지가 세 하천에 의하여 삼분되어 있어 도시 발달에 필요한 넓은 배후지를 가질 수 없어 취락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도시 발달의 조건을 충적지에서 찾기보다는 해안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구릉지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속초가 양양을 능가하는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 요인을 자연적 조건보다는 다른 인문적 조건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몇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양양과 속초는 설악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지를 함께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는 자연적 입지 조건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이다.

2. 해방 이전의 취락 형성 과정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속초의 취락 발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오늘날의 속초시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은 양양부 도문면道門面·소천면所川面, 간성군 토성면土城面이다. 당시 양양부는 부내면, 동면, 부남면, 서면, 남면, 현북면, 현남면, 위산면位山面, 사현면沙峴面, 강선면降仙面, 도문면, 소천면 등 12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양양부의 도문면 관내에는 양양의 양양 북쪽 30리에 상도문리上道門里, 북쪽 25리에 하도문리下道門里, 북쪽 20리에 물치리勿縑里, 북쪽 25리에 대포리大浦里, 북쪽 25리에 웅진리瓮津里, 서북쪽 40리에 신흥사神興寺 등이, 소천면에는 북쪽 30리에 논산리論山里, 북쪽 30리에 부월포리扶月浦里, 북쪽 35리에 속초리束草里, 북쪽 35리에 속진리束津里 등이 있었다. 오늘날의 속초시에 해당되는 당시의 토성면에는 간성 남쪽 65리 장천리獐川里, 남쪽 50리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 등이 있었다. 이들 12개리의 행정 명칭은 오늘날에도 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속진리는 속초리의 포구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도문면은 쌍천雙川 유역 일대, 소천면은 청초호로 유입하는 하천 유역 일대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그림2).

이들 취락들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속초 부근의 취락 발생과 그 요인 및 기능에 관하여 어느정도 추측할 수 있다. 사진리, 속진리, 부월포리, 대포리, 웅진리, 물치리 등은 해안의 절벽에 입지하여 어촌 또는 포구로서의 기능을, 논산리, 상도문리, 하도문리 등이 충적평야 상에 입지하여 농촌으로서, 신흥사 등은 내륙 산지에 입지하여 사하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진津, 포浦 등의 지명에서 그 기능이 확인된다. 속초 부근에 어촌이 먼저 발생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이 먼저 발생하였는지는 이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해안과 그에 인접한 충적지가 취락 발생의 전진기지였음은 분명하다. 이들 농촌과 어촌이 속초 부근 취락의 기원지에 해당된다. 어촌과 농촌 중에서 어느 마을이 당시의 중심지였는가? 18세기 경에는 속초리와 속진리를 합친 인구가 447명이나 되어 이 지역의 인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표1). 다시 말하여 당시의 전체 인구 1,263명 중에서 35.4%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대포는 34호, 104명으로 속초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표 1.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리별 인구(단위 : 명)

연도/리별/비고	장항리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물치	대포	외옹치	부월	논산	노리	속초리	장천리	사진리	합계	
1785년	호수	20	20	-	35	18	34	78	18	20	-	144	15	18	420
	인구수	49	66	-	126	52	104	107	86	97	-	447	59	70	1,263
1925년	호수	50	129	92	27	86	155	93	84	95	119	189	-	-	1,119
	인구수	214	741	541	174	468	777	463	476	572	735	1,058	-	-	6,219

자료 : 여지도서, 면세일반

18세기 이후 농업 기술의 발전과 인구 변동에 의하여 20세기초에는 속초 부근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은 일제에 의하여 명칭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나타났다.

1917년에 발행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 따르면, 양양의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해진 도천면이 출현하고, 도천면에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대포리, 내물치리, 노리蘆里,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외옹치리外甕峙里 등이 나타난다. 간성군 토성면의 장천리, 사진리도 나타난다.

이들은 이전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몇개 마을들이 통합, 또는 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명칭 변경 이전의 도문면 장항리·토왕성리土旺城里·정고리丁庫里가 합쳐져 장항리가 되고, 도문리에서 중도문리가, 물치리에서 내물치리가, 부월포리에서 부월리가 분화된다. 외옹치리는 웅진리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청초호靑草湖 부근 유역일대에 입지하는 도천면의 노리는 18세기 이후 새로 출현한 취락으로서 산간 개척의 전진기지였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와 1917년 경의 취락명을 기초로 하여 취락 발달을 살펴보면 속초 부근은 4개 축을 중심으로 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즉, 내물치리-하도문리-중도문리-상도문리를 잇는 선, 부월리-논산리-노리를 잇는 선, 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를 잇는 선, 장천리-사진리를 잇는 선이 그것이다. 내물치리축은 쌍천을, 부월리축은 청초호를, 장항리축은 설악산을, 사진리축은 영랑호永郎湖를 끼고 있다. 장항리축은 설악산 아래의 신흥사라고 하는 사찰이 취락 개척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세기의 일제시대 초 중도문리에 면사무소가 소재한 것으로 보아 속초 부근은 내물치리-하도문리-중도문리-상도문리를 잇는 쌍천 유역의 충적지가 지역 중심지로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즉 내물치리 축의 물치장이 물자와 정보의 유통 중심지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였던 것이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양양 전체의 인구가 1815년의 2,106명에서 1913년의 59,756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는데, 양양의 일부인 속초읍 부근의 인구 변동에 관해

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 속초 부근의 취약별 인구 분포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경지 확대와 새로운 농업 기술의 보급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구는 늘었다.

1916년에 간행된 1:50,000 지형도에 따르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아직도 토성면에 소속되어 있으며, 도천면에 새로이 학사평鶴沙坪, 이목동梨木洞, 도리원桃李原, 척산리尺山里, 응하應河, 청대리靑岱里, 반부평半扶坪 등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나타난다. 이들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음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촌락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사평을 제외한 이들 대부분 지명은 청초호에 유입되는 청초천 일대 충적지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청초호는 18세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오랜 개간을 통하여 그 호수가 축소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반부평이란 촌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바다를 막아 호수를 이루어 낸 사주 상에도 촌락이 서서히 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물치리축, 부월리축, 장항리축, 사진리축 중에서도 부월리 축인 청초호 유역 일대의 충적지와 낮은 구릉은 일제 시대 초에 상당히 개간이 진행되어 속초읍 시가지의 골격을 이루는 바탕을 형성하였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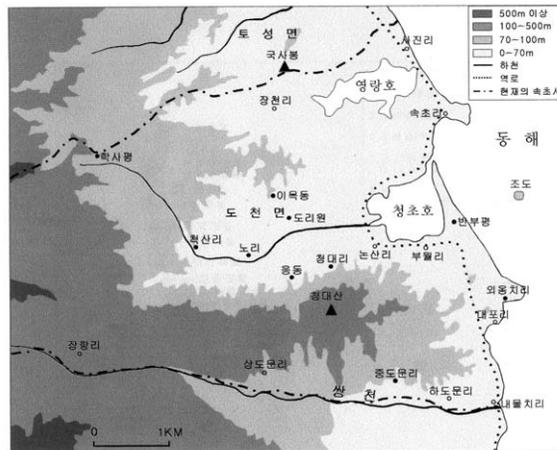


그림2. 속초시 부근의 취약발달(18~20세기 초)

쌍천유역의 지역 중심지와 함께 조선시대이래 포구로서의 기능을 존속하던 속초항이 일제 시대에 들어와 정기 기선의 기항지(寄港地)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속초 부근은 취약 발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기항지가 속초 부근의 인구 폭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당시 속초 부근의 양대항인 대포항과 속초항은 항구로서의 조건이 비숫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항에 정기 기선의 기항지가 들어서게 된 것은 대포항이 어선의 포구로서, 속초항이 항구로서의 기능이 각각 분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속초항은 양양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나아가 쌍천구역의 대포리와 중도문리를 누르고, 나아가서 양양 읍치소와 경쟁을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37년 7월 1일에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조선 후기의 인구 중심지였던 속초리·속진리가 실질적인 지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속초항은 그 자체로서는 협소하지만 조도鳥島, 청초호를 잇는 삼각형의 만灣이 이루어져 있어 많은 배를 수용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특히 석호인 자연호를 막아주고 있는 긴 사주는 넓은 황무지를 제공해 주어 외부로부터의 유입 인구에 의한 개척촌을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1925년경에 이르면 18세기와 비교하여 전체의 인구 증가가 뚜렷하고, 동별로 보면 내물치 468명, 대포리 777명, 속초리 1,058명으로서 속초면은 어항 또는 기선의 기항지로서의 어항 기능이 점점 강해지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농업 부문의 생산력의 증가가 이루어져 부월리, 논산리, 노리와 함께 상도문리, 중도문리의 인구가 정체하고 있지는 않았다. 조선시대 때 비록 지역 중심지는 아니지만 속초리 및 속진리가 가지고 있던 인구 집중지로서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제시대에 들어와 속초리가 기항지로서 각광을 받게된 형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표1).

3. 피난민의 개척에 의한 취락 형성 과정

일제시대 초에 청초호에 유입되는 청초호 부근 구역 일대의 충적지 즉, 부월리扶月里측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간이 상당히 진행되어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 만한 터가 없었다.

동해안의 가파른 산지 사면 방향으로의 개척은 화전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관헌의 눈을 피하여 화전을 개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체에서 늘어나는 인구와 외부로부터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는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때 청초호를 막아주는 긴 사주가 새로운 주거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곳에 서서히 취락이 형성되던 중 1945년 이후의 월남 피난민과 1·4 후퇴 당시 남하한 피난민은 귀향하기에 쉬운 사주일대에 피난민촌을 건설하여 오늘날 속초시 발전의 원동력을 이루어 내었다.

일제시대에 반부평으로 불리던 이곳은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지로서 청호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청호동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아바이마을’이라고도 한다.

6·25 때 청호동에는 정어리 기름공장이 두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흥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었다(그림 3). 이 중에서 단천마을과 신포마을이 중심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다른 38선 이북지방과 마찬가지로 이 곳은 군정 당국의 소관이었는데, 군정은 이 지역에 피난민 정착촌 형성을 위해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에 이 곳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현재의 청호동 1, 2, 3통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소규모 가건물, 판잣집 등을 불규칙하게 짓고 살았다. 재료의 대부분은 미 군용선에서 버린 것을 모아 사용했고, 청호동 앞바다에 떠다니던 군용 목재나 목재소에서 나오는 죽더끼(피죽), 드럼통, 박스 등을 주워 재료로 활용하여 집을 짓기도 했다. 군정 당시 청호동에는 식수원이 없어서 청초호 건너 중앙동에 있는 공동 우물을 이용해야만 했다. 군정 철수 후 정착민들이 4통 이상으로 뻗어나갔던 이유는 더 넓은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때문이기도 했지만, 군단이 위치했던 근처에 군단이 개발한 지하 펌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난민들은 청호동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다가 대부분 속초항 부근으로 이주하였다.

청호동 일대는 초기 개척촌으로서는 유리하였지만 이들 인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생업의 기반이 취약하였다. 부근에 함경조선소, 부산조선소, 군영 간이 비행장, 명태덕장 등이 들어섰지만 이들이 피난민의 인구를 수용하기는 산업이 빈곤하였던 것이다.

속초리에서 청초호에 이르는 속초항 부근의 아주 좁은 해안평야와 그 뒤쪽의 낮은 구릉지에 해당되는 곳은 이후의 도시 개척에 알맞았다. 피난민들이 내륙 산간 지역의 농지 개간을 통하여 자신의 터전을 개척하기에는 경작지가 너무나 협소하였고, 가파른 태백산지는 화전의 개간이 어려웠으며, 낮은 충적지는 이미 선주민이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피난민들은 속초항과 대포항을 중심으로 한 낮은 구릉지에 기대어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동명동 등대밑(삼호마을), 감리교회 밑(단천마을), 시내를 가로지른 구 철도부지와 동명, 중앙, 금호동의 산(언덕) 비탈에 피난촌이 형성되었으며, 그리고 1군단 공병단의 지원으로 웅덩이를 메워 중앙시장과 청학, 교동택지가 마련되어 피난민들을 수용한 것이다.

도시로서의 속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난민의 도시 개척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피난민에 의해 개척된 청호동과 속초항이 속초시 도시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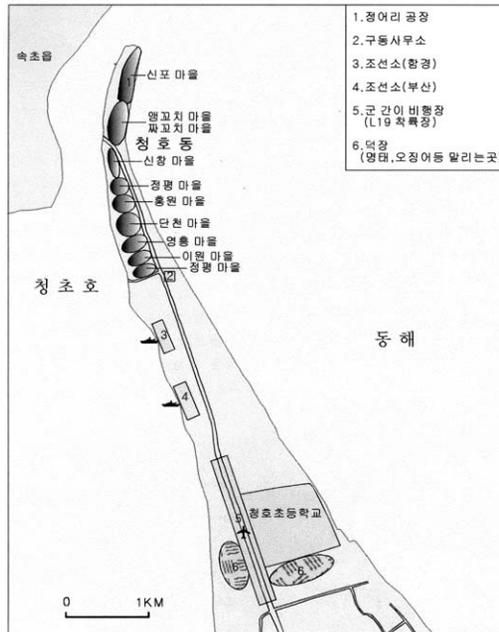


그림3. 6·25 직후 청호동 일대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된 후 속초읍은 6구로 나뉘어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모두 14개리가 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여 피난민의 속초시 개척사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속초읍이 6구로 분화된 것은 속초항과 청호동의 비중을 보여준다. 1962년에 그 일단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속초 1구에서 6구까지의 인구가 평균 5천명 이상이 되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속초읍내의 인구가 총 35,846명이다. 이에 비하여 도리원 부근 2,531명, 청대 부근 2,095명, 대포 부근 2,450명, 중도문 부근 1,854명 등 속초항 부근 이외는 2천 여명에 불과했다(표2).

표 2. 속초의 동별 인구(1962) (단위 : 명)

리별	속초1구	속초2구	속초3구	속초4구	속초5구	속초6구	도리원 부근	청대 부근	부월 부근	대포 부근	중도문 부근	합계
인구	5,082	5,570	6,255	7,044	6,852	5,043	2,531	2,095	5,927	2,450	1,854	50,703

자료 : 1963년. 『속초통계연보』

이러한 비중과 함께 1962년 당시 동별 직업별 인구를 보면 전체직업별 인구 23,579명 중에서 어업인구는 7,197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다. 1963년의 『속초통계연보』에 의할 것 같으면 속초리 1구 292명, 2구 647명, 3구 524명, 4구 996명, 5구 1,347명, 6구 1,098명 등이었다. 이들 어업인구는 속초 5구, 6구, 부월리에 집중되어 있다(표3).

표3. 속초의 동별 직업별 인구(1962) (단위:명)

구분 리별	총수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 사업	상업	운수업	서비스 업	기타
속초1구	2,320	58	292	2	76	91	33	394	28	121	1,225
속초2구	1,799	70	647	1	62	84	35	340	141	135	284
속초3구	2,035	9	524	11	73	268	15	778	33	239	85
속초4구	2,515	30	996	9	89	83	15	626	188	333	146
속초5구	4,272	91	1,347	38	130	167	26	925	48	339	1,161
속초6구	2,385	130	1,098	8	151	30	27	193	56	163	529
도리원	1,387	1,231	2			32	7	10		39	66
청대	1,244	801	208		4	3	3	55	8	66	96
부월	3,102		1,449		5	7		369	2	125	1,145
대포	1,388	358	634	2	5		1	71		39	278
중도문	1,132	882		1	54	25	1	55	3	26	82
계	23,579	3,660	7,197	72	649	790	163	3,816	510	1,625	5,097

자료 : 1963년. 『속초통계연보』

이러한 인구 분포와 직업별 분포는 2000년 8월 1일부터 2개월간 속초시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된 피난민 1세대들의 분포와 일치를 하게 된다. 그 세대수를 보면 호적부상 전체 1,654세대 중 직업별 분포는 총 617세대로 어업세대수를 보면 영랑동 8세대, 동명동 12세대, 금호동 16세대, 교동 32세대, 노학동 25세대, 조양동 2세대, 청호동 123세대, 대포동 6세대 등 총 224세대로 36.4%이다.(표3)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청호동, 교동 등은 속초 1~6구에 해당되어 이들 어업인구인 피난민들이 속초시 개척의 선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4. 피난민 1세대의 동별 직업별 분포(2000년 9월현재) (단위:명)

동별	농업	어업	상업	서비스업	노동	무직	기타	합계
영랑동	1	8	10	1	5	85	17	127
동명동		12	11	1	1	128	11	164
금호동	12	16	36	4	2	247	5	322
교동	4	32	29	5	6	178	15	269
노학동	10	25	29	3	17	137	36	257
조양동	12	2	11	1	1	167	2	196
청호동	2	123	32	3	17	55	13	245
대포동	5	6	22	1		40		74
합계	46	224	180	19	49	1,037		1,654

자료 : 속초시 자치행정과

표4에서 피난민 1세대의 동별 직업별 분포를 볼 수 있다. 먼저 전체 1,654명 중에서 어업(224명)·상업(180명)·서비스업(19명)·노동(49명)에 종사하는 사람이 472명(28.5%)으로 농업의 46명(2.8%) 보다 월등한 분포를 보인다. 동별로 보면(어업, 상업, 서비스, 노동) 영랑동 24명(5.1%), 동명동 25명(5.3%), 금호동 58명(12.3%), 교동 72명(15.3%), 노학동 74명(15.6%), 조양동 15명(3.2%), 청호동 175명(37%), 대포동 29명(6.2%)으로 나타난다. 그 중 청호동을 보면 어업 123명, 상업 32명, 서비스업 3명, 노동 17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수가 제일 많았으며, 금호동은 상업에 많이 진출하였고, 교동은 어업에 많이 진출하였다.

신홍사와 같은 사찰 아래 형성된 취락에도 진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58년에 와서야 속초와 신홍사 사이를 잇는 도로가 개통되었으므로, 신홍사와 같은 사찰 아래 형성된 취락에도 진출하기 힘들었다. 이들이 설악산 관광 지구의 개발에 따라 호텔 숙박업소에 진출하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호동 일대에 정착한 1세대 피난민들은 청호동과 속초항이 갖는 항구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어업 및 항구도시로서 속초시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오늘날 속초시가 관광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설악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도 해안과 항구로서의 조건과 어우러져 휴양과 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피난민에 의한 속초시 개척은 지난 역사의 큰 장을 장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6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의 역할

사 득 환(동우대 행정학과 교수)

속초 피난민이라 함은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월남하여 속초시에 정착한 실향민들을 지칭한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전국에 93개소에 이르렀던 실향민 정착촌이 현재 36개소로 축소되었고, 아직도 피난민 정착 마을이 있다는 사실은 분단 한국의 아픔을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속초시 청호동은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후 근 50년 동안 월남난민들의 집단 거주촌으로서 기능해 왔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묻혀 버릴지도 모를 월남 피난민들의 삶의 발자취를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남기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많은 피난민 1세대들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착 과정, 특히 이들이 속초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를 심층적으로 연구·기록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함경도 출신의 월남 난민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집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명 ‘떠도는 섬’ 또는 ‘난민의 섬’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현재 약 8백여 가구의 피난민들만 살고 있는 ‘아바이 마을’은 최근 청초호 수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속초 전역에 걸쳐 약 4만 8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고,

특히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행정이 어떤 지원과 규제를 해 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의 기간 동안 피난민들¹⁾의 정착 과정과 생활양식, 그리고 정체성에 관해 몇몇 학자들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대다수의 행정적 자료들이 소멸된 시점에서 피난민과 행정간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으로서, 주로 피난민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본 논문은 속초 피난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속초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 기구

가. 속초 피난민의 정착

유엔 난민 기구인 UNHCR은 피난민(refugees)을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피해 조국을 떠나,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²⁾ 이런 측면에서 속초시 피난민이라 함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을 떠나 남하하여 속초시에 정착한 민간인들”을 지칭한다. 특히 속초에 거주하는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6·25전쟁 전·후 이북에서 월남해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 한국전쟁 이후 남하한 월남인들을 과연 “피난민”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피난민이란 “전쟁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피해 이주한 주민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한 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할 경우 남과 북을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예. 헌법상의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실향민” 혹은 “월남인” 등의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6·25전쟁 전후로 월남한 실향민들”을 피난민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1949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각국 외교관 회의에서 합의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피난민이란 “전투 밖에 놓여진 사람이나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전시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同조약 제3조).

6·25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하였던 데, 1952년 3월 15일 사회부가 파악한 피난민 수는 135,745세대의 618,721명이었다.³⁾ 전쟁 당시 압록강 유역까지 진군했던 한국군이 1951년 초 후퇴하면서(일명 '1·4후퇴') 많은 수의 피난민들이 남하하였다. 사실 1952년 말경이 되면 주로 휴전선 근방에서 쌍방이 국지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남 지역의 지리산을 비롯한 몇몇 산악 지방에서 유격대와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전쟁이 '교착·제한전쟁'⁴⁾의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 때에는 이미 다수의 월남인들이 남하한 상태였다.⁵⁾

속초시 피난민 역시 6·25를 전후하여 북에서 넘어 온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쟁 후 전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차츰 고향과 가까운 속초로 모여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중 많은 수가 동해안 북쪽, 즉 함경도, 38이북 강원도 출신들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속초시 피난민은 48,722명으로 함경남도 출신이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68.6%가 어업 종사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당시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수용소에 수용하거나 월남인 집단촌에 소개되었다. 피난민 수용소의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줄곧 남하한 피난민들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전쟁 이후 남하한 월남민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특히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청호동 지역을 중심으로 피난민 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⁷⁾

3)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2년사』, 국방부, 1953, D21쪽.

4)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 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205쪽.

5)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6회 23호, 1953.

6)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강원 사회 연구회, 『분단강원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1999, 217쪽.

7) 실향민 정착마을의 형성의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고향과 가까운 곳에 잠시 머물다가 통일 후에 귀향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장정룡, 앞의 논문, 229쪽).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동향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결속력도 생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 수 있고, 군후생사업이나 군계통에서 일하기가 수월하고, 집합적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정착촌 형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표 1〉 피난민 수와 수용 상황(1952년 12월 말 현재)

종별 도별	총 피난민* 수			월남 피난민 수			수 용 별			수용소 수
	남(명)	여(명)	계(명)	남(명)	여(명)	계(명)	수용 (명)	비수용 (명)	계(명)	
서울	32,214	40,247	72,461	5,360	10,495	15,855	-	72,461	72,461	-
경기	327,562	395,812	723,374	98,697	134,348	233,045	177,638	545,736	723,374	216
강원	28,616	47,988	76,604	20,684	23,738	44,422	51,277	25,327	76,604	10
충북	57,824	69,019	126,843	6,624	7,880	14,504	23,017	103,826	126,843	23
충남	137,264	153,888	291,152	29,973	27,554	57,527	20,163	270,989	291,152	60
경북	97,685	130,104	227,789	18,902	24,996	43,898	17,161	210,627	227,789	44
경남	171,191	171,383	342,574	75,335	84,557	159,892	51,798	290,776	342,574	220
전북	176,149	207,004	383,153	29,562	39,320	68,882	38,955	344,198	383,153	47
전남	64,687	65,466	130,153	19,587	20,166	39,753	696	129,457	130,153	21
제주	10,073	10,742	20,815	3,694	3,804	7,498	1,286	19,529	20,815	66
총계	1,103,265	1,291,653	2,394,918	308,418	376,858	685,276	381,991	2,012,927	2,394,918	707

자료: 내무부 치안국

출처: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3년사』, 국방부, 1954, D7쪽.

* 피난민은 월남인, 전재민戰災民, 전재고아戰災孤兒 등을 포함한 통계이다.

나. 전쟁 전후 행정 기구의 변천사

1) 속초시 행정의 변천사

속초시는 조선시대 양양 도호부 소천면에 소속되어 있던 작은 마을이었다. 이 후 1937년 양양군 속초면으로 개칭되었고, 1942년 양양군 속초읍으로 승격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공산 치하에 있다가 1950년 6·25전쟁으로 수복되어 1951년 8월 18일 군정이 실시되었다.

전쟁이 끝난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 공포돼 같은 해 11월 17일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양양군 속초읍으로 행정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1956년 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양양군에는 속초읍과 양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강현면, 토성면, 죽왕면이 있었고, 속초읍에는 5,255가구, 22,567명이 거주하였

다. 1963년 1월 1일에는 양양군에서 분리되어 속초시로 승격되었고, 인구는 10,864가구에 55,619명이었다. 당시 청호동 지역은 부월리 2구로 개칭되었는데, 1구에는 37개 반 196가구 970명, 2구에는 1,119가구에 5,927명이 거주하였다. 1966년 1월 동계 개편에 따라 부월리 2구는 다시 청호동으로 명명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2〉 속초의 연혁

년 도	연 혁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 소속
1914. 3. 1	양양군 도천읍(부령 제111호) - 도문면, 소천면 통합
1937. 7. 1	양양군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개칭
1942.10. 1	양양군 속초읍으로 승격(부령 제104호)
1945. 8.24	공산치하에 들어감
1951. 8.18	수복지구로 군정 실시
1954.10.21	양양군 속초읍 수복(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11.17	민정으로 이양
1963. 1. 1	속초읍에서 속초시로 승격(법률 제1176호)

2) 전쟁 전후 행정 기구와 피난민

6·25전쟁 이전에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이 제법 많았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방 이듬해부터 넘어오기 시작한 탈북민들은 1949년 30만 명에 육박하였다.⁸⁾ 당시 탈북 피난민들을 담당했던 행정부서는 사회부였다. 사회부는 탈북 피난민들의 거주지, 수용소 문제 및 구호 행정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회부는 탈북 피난민들의 수가 증가하자 서울특별시와 각 도, 시, 군, 읍, 면, 동에 '각급 구호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군 지휘 통수권 및 작전권을 이양하였고, 피난민 문제 역시 유엔군 사령부로 넘어갔으며, 특히 유엔군 사령부 산하 민사원조처(UN Committee of Assisting Civilians)가 피난민 문제를 담당하

8) 1946년에서 1949년까지의 신문을 보면 “봄따라 남하하는 동포 하루에 천명도 넘어”라든가 “월남하는 이 북동포 1주일간에 4천명 돌파” 등의 표제를 달아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1949년 10월 말 통계에 따르면 6만 4천가구 28만 3천 4백명이 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였다. 전쟁 초기에는 속초시의 경우 38선 이북 지역으로 공산 치하에 있었으므로 피난민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으나, 1951년 2월 11일 재탈환하여 8월 18일 수복지구로 군정하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피난민 문제가 대두되었다.

피난민 구호 행정 기구로서는 1951년 초에 사회부를 대체하여 만든 군·관·민 협력 기구로서 '전시 구호 대책 중앙위원회'가 유엔 민사원조처가 제공하는 구호 물자를 할당·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는 군·관·민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군부나 정부부처, 현지 피난민간에 원활한 협조를 통해 구호 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개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⁹⁾ 이 위원회는 매주 '구호상황주보'를 발행하고, 피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현황에 따라 수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피난민들을 귀향시켜 농경기 농사를 장려하려는 일을 하였다.¹⁰⁾ 또한 이 위원회는 휴전 후에는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로 바뀌어 농림부와 사회부 및 기획처가 합동으로 전개하는 구호 사업을 관장하였다.¹¹⁾ 이와 동시에 피난민 보건관련문제는 보건후생부, 월남인 소개관련 사항은 국방부의 주도로 수행되었고, 양곡 배급 문제는 농림부가 관장하였다.¹²⁾

3) 기타 공공행정기관 대두

구 분	명 칭	연 혁	역대 읍·시장명단
시 행정	속초시청	14. 3. 1 도천면(면사무소 대포리)	초대 읍장
		37. 7. 1 속초리로 면사무소 이전(도천면을 속초 면으로 개칭)	박상희朴祥喜
		42. 10. 1 부령 제104호 속초읍 승격	2대 읍장
		63. 1. 1 법률 제1176호속초시로 승격, 시청개칭	김주혁金周赫
사법·치안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64. 7. 21 시청사 기공(66. 9. 28 준공)	3대 읍장
		67. 3. 30 법률 제1922호로 설치	정주벽鄭珠碧
		67. 6. 17 개원	4대 읍장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70. 11. 26 현청사로 이전(동명동 300)	김근식金根植
		67. 6. 17 개칭	5대 읍장
		70. 11. 26 현청사로 이전(동명동 300)	김남용金南龍

9)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63호, 1951.

10)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2년사』, 국방부, 1953, 49쪽.

11) 동아일보, 1953년 10월 20일자.

12) 이러한 피난민 기구체계를 보면 행정능력과 효율성이 높았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피난민 대책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고, 행정기관이나 군기관의 상부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피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6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의 역할 143

구 분	명 칭	연 혁	역대 읍·시장명단
사법·치안	속초경찰서	51. 1. 27 수복으로 임시군정 실시, 치안대 설치 54. 11. 17 행정이양과 동시 속초읍에 양양경찰서 설치 54. 11. 24 본서를 양양면 군행리로 이전 63. 1. 1 토성 죽왕지서 관할을 고성경찰서에 이양하고 강릉경찰서 관할 인구지서를 인수 63. 10. 26 동명동에 신축한 청사로 이전하고 속초경찰서로 명칭 변경 (6개지서, 4개파출소, 1개 출장소) 66. 4. 6 인구지서를 현남, 만천을 교동, 부월을 조양 외설악은 설악파출소로 명칭 변경 87. 8. 1 대공과 신설 (90. 10. 19 낙산지서 신설) 91. 8. 1 보안과를 방법과로, 대공과를 보안과로 변경 96. 4. 6 현 청사로 이전(노학동)	6대 읍장 이규완李圭完 7대 읍장 전성우全星宇 8대 읍장 김치룡金致龍 1대 시장 이동보李東普 1963.2.25 1963.8.20 2대 김동석金東石 1963.10.29 1964.8.26
	속초해양경찰서	69. 11. 1 해양경찰대 속초기지대 발족 72. 4. 17 동해어로보호본부 신설 72. 5. 6 속초지구해양경찰대로 승격 (91. 8. 1 속초해양경찰서로 개칭)	3대 박건주朴健周 1964.8.27 1966.9.20
국세·전매	속초세무서	68. 9. 9 속초세무소 신설(강릉에서 분리) 82. 1. 2 2급지에서 3급지로 하향 조정 (85.4.1 2급지로 환원)	4대 최규연崔圭然 1966.10.1 1967.11.21
	한국담배인삼공사 속초지점	55. 3. 1 서울지방전매청 강릉지청 양양전매서 설치 67. 9. 8 양양전매서 폐쇄 속초전매서로 개칭 73. 7. 15 양양전매서 부활로 관할 구역 분리 73. 12. 31 속초전매서 청사 준공 이전 87. 4. 1 한국전매공사 속초지점 89. 4. 1 한국담배인삼공사 속초지점	5대 이진웅李健雄 1967.12.1 1969.10.11 6대 김경산金景山 1970.3.3 1971.7.19
체신 전기통신	속초우체국	54. 12. 1 우체국개국 (66. 11. 28 전화 ST 1,000회선 개통) 83. 1. 1 전화업무 공사이관 89. 12. 30 속초시·고성군으로 관할구역 변경(양양군 분리)	7대 엄대현嚴大鉉 1971.7.21 1974.9.1
	한국통신공사 속초전화국	82. 1. 1 속초사업소 개소(우체국에서 분리) 83. 1. 1 속초전신전화국 개국 90. 1. 5 속초전화국으로 개칭 (91. 1. 1 1급 기관장으로 승격)	8대 김명한金明漢 1974.9.3 1977.6.2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점	65. 1. 1 한국전력(주) 강릉지점 속초출장소 신설 68. 9. 21 속초영업소로 승격 82. 1. 1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속초지점으로 개칭 85. 8. 1 동 강릉지사 속초지점으로 개칭	9대 전영호全英浩 1977.6.3 1979.7.26
소방	속초소방서	54. 11. 17 군정이양과 동시 속초의용소방대 발족 62. 10 청사신축 이전(중앙동 시청 옆), (77. 11. 21 속초소방 서 설치승인) 77. 12. 28 속초소방서 개서 및 중앙파출소 개소(78. 5. 31 설 악파출소 개소) 80. 11. 25 청사신축 이전 82. 4. 30 소방서관할구역 확대조정(양양군 강현면 일원)	10대 조성운趙誠雲 1979.8.1 1981.6.30 11대 정준시鄭俊時 1981.7.1 1983.4.10

구 분	명 칭	연 혁	역대 읍·시장명단	
소방	속초소방서	89. 2. 4 영랑파출소 개소	12대 김광용金光容 1983.4.11 1983.12.26	
		92. 1. 1 소방서관할구역 확대조정(양양군 양양읍, 고성군 토성, 죽왕)		
		92. 12. 31 소방서관할구역 확대조정(고성군 간성읍 일원)		
		93. 2. 9 간성파출소 개소		
지방언론	지방언론 일반현황	52. 4. 15 동해일보 창립	13대 양중석梁鍾釋 1983.12.27 1987.1.14 14대 윤태경尹泰景 1987.1.15 1988.6.10 15대 배계섭裴桂燮 1988.6.11 1988. 12. 31 16대 박원주朴桓周 1989.1.1 1989.12.26 17대 홍순호洪淳縞 1989.12.27 1991.11.30 18대 김승래金昇來 1991.12.1 1993.1.17 19대 김광용金光容 1993.1.18 1993.12.31 20대 한상철韓尚澈 1994.1.3 1994.12.31 21대 이돈섭李焜燮 1995.1.1 1995.6.30 22대 동문성董文星 (민선초대 시장) 1995.7.1 1998. 6.30 23대 동문성董文星 1998.7.1~현재	
		56. 8. 1 KBS 속초이동방송국 개국		
		61. 12. 31 KBS 속초방송국으로 승격		
		62. 3. 2 강원일보 속초지사 설립		
		88. 7. 22 강릉 MBC속초사무소 개소		
		90. 3. 31 영복신문(주간) 창간		
		90. 5. 28 속초신문(주간) 창간		
		92. 8. 8 강릉 MBC 속초지사로 승격		
		92.11.2 속초신문이 설악신문으로 제호변경		
		92. 11. 26 강원도민일보 속초지사 설립		
해운	동해지방 해운 항만청 속초출장소	55. 12. 2 목호지방 해무청 속초출장소 (61.10.1 목호지방 해운국 속초출장소)	16대 박원주朴桓周 1989.1.1 1989.12.26 17대 홍순호洪淳縞 1989.12.27 1991.11.30 18대 김승래金昇來 1991.12.1 1993.1.17 19대 김광용金光容 1993.1.18 1993.12.31 20대 한상철韓尚澈 1994.1.3 1994.12.31 21대 이돈섭李焜燮 1995.1.1 1995.6.30 22대 동문성董文星 (민선초대 시장) 1995.7.1 1998. 6.30 23대 동문성董文星 1998.7.1~현재	
		73. 5. 16 부산항만관리청 목호항만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76. 3. 13 목호지방항만관리청 속초출장소		
		77. 12. 16 목호지방해운항만청 속초출장소		
		80. 5. 6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속초출장소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속초항로표식관리소	57. 6. 8 속초등대 건립. 초점등	1991.12.1 1993.1.17 1993.1.18 1993.12.31 20대 한상철韓尚澈 1994.1.3 1994.12.31 21대 이돈섭李焜燮 1995.1.1 1995.6.30 22대 동문성董文星 (민선초대 시장) 1995.7.1 1998. 6.30 23대 동문성董文星 1998.7.1~현재	
		64. 9. 4 무霧신호사 설치 (65. 5. 30 공기압축기(무신호기)설치)		
		66. 12. 24 전원개량(자가 발전에서 한전 전원으로)		
		73. 4. 23 발동발전기 개량(DC에서 발전기로, 진일3kw)		
		83. 12 발동발전기 개량(KEG-4BAI, 35HP-20kw)		
91. 11. 26 공기압축기(무신호기)개량				
기타기관 및 사회단체	재향군인회 속초지회	53. 7. 1 양양군 재향군인회 속초사무소 개설	20대 한상철韓尚澈 1994.1.3 1994.12.31 21대 이돈섭李焜燮 1995.1.1 1995.6.30 22대 동문성董文星 (민선초대 시장) 1995.7.1 1998. 6.30 23대 동문성董文星 1998.7.1~현재	
		57. 3. 27 대한상무회로 재발족		
		60. 5. 4 재향군인회로 개정		
		84. 4. 6 향군회관 신축기공식		
	재향경우회 속초지회	63. 11. 23 창립	1995.1.1 1995.6.30 22대 동문성董文星 (민선초대 시장) 1995.7.1 1998. 6.30 23대 동문성董文星 1998.7.1~현재	
		보훈 미망인회 속초지회		52. 5. 1 창립
				상이군경회 속초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속초시지회	63. 8. 23 창립	23대 동문성董文星 1998.7.1~현재		
	대한지적공사 속초시 출장소		38. 1. 24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 창설	
77. 7. 1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명칭변경				

구 분	명 칭	연 혁	역대 읍·시장명단
기타기관 및 사회단체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63. 2. 7 법률 제1225호에 의거 위원회 구성 69. 9. 4 청사신축 87. 11. 7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변경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	65. 11. 5 “설악산” 천연기념물 제171호 지정(70. 3. 24 국립공원지정) 71. 9. 18 공원관리사무소 개소 (87. 8. 5 설악산관리사무소 개소)	
	속초문화원	65. 3. 22 문화공보부장관의 설립허가 “속초문화원” 법인 등기 76. 6. 30 문화원청사 준공 (동년 12. 1 문화원 청사 속초시 기부 채납)	
	무공수훈자회 속초지회	92. 4. 7 창립	
	속초시 번영회	64. 1. 30 속초시 개발위원회 발족 (82.1.30 속초시 번영회로 개칭)	
	강원도립 속초병원	56. 12. 31 설립	
	대한통운 속초지점	63. 2. 1 개점	
	속초상공회의소	66. 7. 26 설립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속초지점	85. 8. 1 개점	
	속초도서관	87. 12. 4 개관	
	속초시의료보협조합	89. 4. 14	
	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	67.1.13 한국반공연맹 속초시지부 창설(89.4.1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 명칭 변경)	

2. 한국전쟁 전·후 피난민 정책

가. 해방 이후의 월남민정책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잉태시킨 북한은 전쟁 준비를 위한 소위 ‘동원형 국가’로 전략하게 된다. 이에 북한은 주민들을 노력 동원, 징집 등으로 징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피해 많은 주민들이 월남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에서 49년까지의 신문을 보면 “봄따라 남하하는 동포 하루에 천명도 넘어”라든가 “월남하는 이북 동포 1주일간에 4천명 돌파” 등의 표제를 달아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1949년 10월 말 통계에 따르면 6만 4천가구 28만 3천 4백 명이 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남하하자 미군정청과 정부는 임시 검역소와 수용소를 설치하

여 이들을 수용하였다. 피난민들을 다루고 집행하는 부서는 미군정청의 사회부와 보건후생부, 중앙 전재민 대책 위원회, 시·도·군의 사회부였다. 1947년 7월 이전 피난민들은 일단 주요 지점의 미군 헌병 검문소에서 월경동기와 소지품에 대한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하면 구역 검역소에 일정 기간 수용하였다가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내졌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전에는 검문소 통과시, '38교역' 상인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약한 편이었다.¹³⁾ 38선 검문소를 경유한 후 남하자들은 주로 5개 구호 검역소救護檢疫所와 임시 구호 검역소를 경유하도록 하였는데, 황해도와 평안도의 피난민들은 주로 청단, 토성 등에 있는 검역소를 이용하고 관동 지방이나 38이북 강원도 피난민들은 동두천, 춘천, 주문진을 이용하였다.

〈표 3〉 38선 접경 구역검역소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지역	용진	청단	토성	개성	동두천	포천	의정부	춘천	주문진	계
수용자 수	20,769	36,287	37,521	52,005	15,042	11,007	33,769	8,524	4,948	219,872

자료: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9, IV-240쪽.

1947년 4월 1일부터 미군정청과 보건후생부는 청단과 토성, 동두천, 춘천, 주문진 등에 급식과 치료 및 숙박 시설, 무임승차권, 갈 곳의 지도 등을 갖춘 국영 구호 검역소를 개설하여 매일 2천 7백 50명을 수용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와 경기도에는 다섯 곳 외에 요소 요소에 임시검역소를 설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단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피난민에 대한 단속과 검문이 심해져 검문소가 있는 근처의 파출소 경관이나 서북 청년회 대원들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¹⁴⁾ 1947년 7월 이전 피난민들은 주로 생계와 학업을 이유로 서울로 모여들었다. 전체 피난민들의 약 70%가 서울로 집중하였기 때문에 주거 문제와 식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13) 강원도의 경우, 38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정부 수립 때까지 남북간의 제한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인제군 남면 관대리 및 주문진과 함께 춘천군 사북면은 대표적인 남북간 물자교역지였다. 특히 1949년 초까지만해도 춘천의 경우 '국경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북한으로부터 해산물, 비료, 화공 약품, 인삼 등이 주로 들어왔고, 쌀과 의약품, 광물, 고무제품, 전기용품 등이 북으로 넘어갔다.(전상인, 「분단과정과 강원사회」, 강원 사회 연구회, 『분단강원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1999, 40쪽.)

14) 김귀옥, 『월난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73~74쪽.

15) 작(勺)은 흡수의 1/10임.

하였다. 정부 당국은 피난민 수가 많아지자 1947년 4월까지의 쌀 1홉 5작勺,¹⁵⁾ 잡곡 1홉, 합계 2홉 5작을 배급하던 것을 이 후에는 쌀 1홉 4작, 잡곡 1홉 1작씩 배급하여 쌀의 지급량을 줄였다. 따라서 피난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생활 그 자체였다.

한편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서울 용산동의 '해방촌'과 같이 집단촌을 건설하거나 군민회 등을 조직하여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고, 도로, 수도, 전기 등의 기본 시설을 만들어 나갔다. 서울과 부산에서 개신교도들이 만든 '영락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서울의 영락교회는 1945년 10월 월남한 한경직 목사와 월남인 27인에 의해 1945년 12월 '베다니 선교교회'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여 1946년 11월 영락교회로 개칭하였고, 피난민들의 생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나. 한국전쟁과 피난민 정책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군 지휘권을 이양해 주었다. 따라서 피난민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유엔군 사령부였으며, 그 산하에 유엔 민사원조처(UN Committee of Assisting Civilians)가 주담당 부서였다. 유엔 민사원조처가 피난민 구호 물자 공급, 예산 규모, 물자 선정문제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였다.¹⁶⁾ 그리고 남한 정부 가운데 피난민 대책을 담당하던 부처는 사회부였는데, 1951년 상반기까지 사회부가 서울특별시 및 각급 도·시·군·읍·면·동에 '각급 구호 위원회'를 설치하여 하급기관에서 조사한 전재민 수를 집계하여 유엔 민사원조처가 제공하는 구호 물자를 할당·분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1951년 상반기부터는 군관민이 참여하는 '전시 구호 대책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시의 피난민 구호를 담당하였다.

당시 구호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배급 사업이었다. 계획상의 전재민 1일 1인당 평균 배급분은 1950년 11월 24일 현재 쌀 2홉, 밀가루 1홉 3작, 압맥 7작이었으나,¹⁷⁾ 1951년 초에는 양곡 3홉, 부식비와 연료비를 포함하여 50원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가동 능력可動能力'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1일 3~4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한 홉 내지 한 홉 반을 주었다. 또한 양곡 외에 모포, 광목, 원면, 비누, 식료,

16)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63호, 1951, 8~9쪽.

17) 동아일보, 1950년 11월 23일자.

18) 국회사무처,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6회 43호, 1953, 12~13쪽.

천막, 연료 등을 배급하기도 하였다.¹⁸⁾

식량 배급 해당자는 요구호 대상자로서, 1952년 3월 15일 사회부가 발표한 대상 세대 수는 1백 87만 3천 441세대, 9백 12만 8천 351명에 달했다.¹⁹⁾ 이 중 '일시적 요구호 대상자'와 '항구적 요구호 대상자'는 각각 절반 가량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 피난민 수와 비교할 때, 요구호 대상자의 숫자가 거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보아 요구호 대상자에는 전 재민과 피난민, 일반 빈민들이 중복 계산되었을 여지가 있고, '유령 인구'의 숫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행정당국은 요구호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이 행정 편의주의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피난민의 거주 문제는 식량 못지 않게 시급한 문제였다. 거주 문제의 해결 방식은 크게 보아 3가지였다. 첫째, 수용소에 수용하는 방법, 둘째 하급 행정기관의 주선으로 피난민들이 원주민들의 집에 무료로 거주토록 하는 방법,²⁰⁾ 셋째 피난민들이 집거하여 살 수 있는 피난민 정착촌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 먼저, 수용소는 일정한 공간에 50명 이상을 집단 수용한 곳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구호미와 부식대를 배급받도록 되어 있었다.²¹⁾ '1·4후퇴'로 피난민들이 일시에 급증한 1951년 6월 현재, 수용소의 수는 1천 480개 였다가 1952년경에는 707개소로 줄어들었다.

수용소는 주로 서울, 평택, 경기도 도천면, 김포시,²²⁾ 부산, 거제도, 마산, 전주,²³⁾ 통영, 인천,²⁴⁾ 군산, 목포, 목호, 주문진, 원주,²⁵⁾ 제주도²⁶⁾ 등에 있었다. 수용소는 내무부

19)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2년사』, 국방부, 1953.

20) 정부에 의해 소개된 경우에 어떤 지역원주민은 피난민으로부터 방세를 받고자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지역원주민의 방을 빌린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21)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63호, 1951, 9쪽.

22) 김포시에는 4군데 월남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다(정진교, 「속초 청호동 주민들의 통일염원」, 월간동화 8월호, 1990, 277쪽).

23) 1951년 말에 전주의 2개 수용소에 3천 5백여명의 피난민이 수용되었다(동아일보, 1951년 12월 9일자).

24) 1952년 3월 인천의 27개 수용소에 20만 8천 534명이 수용되었다(동아일보, 1952년 3월 23일자).

25) 원주의 '홍업수용소'나 '서곡수용소'에는 철원군과 과거 금화군과 같은 강원도 중부전투지역의 주민이 주로 분산·수용되었다.

26) 제주도에 피난민을 소개하는 문제는 유엔군의 작전상의 이유로 몇 번의 반복 끝에 1951년 1월 18일 최종 결정되었다. 해당자의 다수는 군경가족이었으며(동아일보, 1951년 1월 24일자), 수용소 수용직후 대대적인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기도 하였다.

27)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8호, 1951.

나 사회부, 국방부가 운영한 국립 수용소가 대부분이었다.²⁷⁾

707개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은 <표 1>에서 보듯이 1952년 12월 말 총 전재민 2백 39만 4천 918명 가운데 38만 1천 991명으로 약 16%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한 수용소당 평균 약 540명 꼴로 수용되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월남 직후에 한번 수용소에 수용되면 이후 여러 수용소를 경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피난민 가족 중 부양능력자가 없는 경우는 계속 수용소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용소에서 나가야 했다. 처음에는 수용소로서 기존의 건물, 특히 학교 건물을 많이 이용하다가 차츰 움막이나 판자, 씨레이션(C-ration) 또는 휴대 식량 상자,²⁸⁾ 구호 목재로 지은 가건물을 이용하였다.

또 다른 주거 해결 방법에는 지역 원주민들의 집에 피난민을 기숙시키는 방법이었다.

어느 지역의 몇 명의 주민 집에 소개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당시 피난민들을 수용할 만한 집이 마땅히 없었고 또한 피난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였다.²⁹⁾ 하지만 당시 지역 주민들 역시 가난에 시달린 상태였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피난민을 중심으로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자체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피난민 수가 비교적 안정되고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소위 '피난민촌'으로 불리는 월남인 정착촌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공공건물을 이용한 수용소나 지역 원주민의 집에 피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하자 정부는 임시 막사를 지어 피난민들끼리 살도록 응급조치를 취했다.³⁰⁾ 부산의 용두산, 국제 시장 등의 대규모 천막촌이나 판자촌이 만들어진 것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피난민들이 모인 곳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착촌이 세워졌다.

1953년경에는 피난민 정착촌이나 일반 전재민, 유격대 토벌 작전으로 인해 소개된 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정착촌 수가 전국적으로 200여 개나 되었다고 한다. 그 외 '피난수용소 임시조치법'에 따르면, 불하되지 않은 적산에 임시로 피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³¹⁾

또한 피난민 구호 활동 가운데 빼 수 없는 것이 치료 및 예방 사업이었다. 1950년 10월

28) 이 상자의 안쪽에는 비닐이 붙어 있어 방수의 효과가 좋아서 상자를 이용하여 가건물을 많이 지었다고 한다.

29)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8호, 1951, 2쪽.

30)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63호, 1951.

31)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사』, 국방부, 1952, C56쪽.

하순에 중국 인민 지원군이 참전한 이래로 그 해 12월 유엔군과 국방군이 후퇴하던 시기에 이북 지역에서 남하한 피난민 사이에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 천연두, 기타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보건부에서는 산하 단체와 외곽단체를 총동원하여 방역반, 위생반, 검역반, 모자母子 보건반을 조직하였다. 심지어 월남 피난민이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정된 의사와 간호사 등을 가지고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최소한 50만班的의 의료 구호반을 단시일 내에 결성하여 군용도로를 피하여 피난민이 남하하는 요소 요소에 의료 구호소를 설치하는 한편, 가능하면 이동하는 피난민과 함께 구호반을 이동시키는 기동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³²⁾ 실제로 부산 수용소의 경우 피난민의 절반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보도와 함께 정부 대변인은 소독과 청결에 대해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³³⁾

맥코맥(McCormack)에 따르면 1945년부터 52년까지 중국과 북한 지역에는 세균전의 혐의를 보이는 전염병이 퍼졌는데, “북강원도, 황해도, 함경남도, 평양 등에 천연두가 만연했고, 봄이 되자 장티푸스가 창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⁴⁾ 김귀옥에 따르면 속초 지역의 40명을 면접한 결과 자신이나 가족 중에 전염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명(32.5%)이나 되었고, 월남 2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속초의 경우 18%가 “월남 도중 자신의 가족 중에 전염병에 걸렸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대답하였다.³⁵⁾

한편, 월남 피난민에 대한 국방부의 주요 조치로는 1950년 유엔군의 철수 당시 이북 주민의 조직적인 소개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사회부가 이북 5도 책임자와의 회의³⁶⁾에서 지시한 피난민에 대한 소개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소개 및 피난민은 각 지방 단위로 할 것.
- ② 국도 통행을 하지 말 것.
- ③ 지도자의 지시를 준수할 것.

32) 동아일보, 1950년 12월 17일자.

33) 동아일보, 1951년 2월 12일자.

34) McCormack, Gavan, “Gold War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Sydney: Hale & Iremonger, 1983, pp.154.

35) 김귀옥, 앞의 책, 93쪽.

36) 이 회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6·25발발 후 1차 서울 후퇴 당시 군부와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후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인민군에 동원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4후퇴’에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데 있었다(국회사무처,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9회 3호, 1950).

- ④ 각 도별로 연락 사무소 및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요구호 대상자도 연락 사무소에 등록하여 집단구호를 받도록 할 것.
- ⑤ 적 5렬과 불순분자 적발에 서로 협력할 것.

여기에서 피난민을 국도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군 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동 지역 피난민의 경우 최대한 해로를 통해 소개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군 당국은 관동 지역 피난민에 대해 미군 군용선이나 이북 '수산합작사'나 개인 소유의 배를 징발하여 해로를 통해 조직적으로 피난민을 이동시켰다. 따라서 함경도 방면의 피난민은 대부분 부산에 수용되거나 거제도의 장승포를 비롯한 각 면, 리에 분산·수용되었다. 그 결과 1951년 초 일시적으로 거제도 피난민이 예상 피난민 수 10만 명³⁷⁾을 훨씬 넘는 17만 명에 이르렀다.³⁸⁾

그러면 6·25전쟁 기간 동안의 피난민 구호 사업이나 정책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구호 행정이 유엔군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은 관계로 업무의 신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손 치더라도 피난민에 대한 상급 책임 부서는 사회부였고, 사회부는 유엔 민사처에 피난민 수와 상태를 보고하여 유엔민사처가 구호 물자를 결정해 공급해 주면 그것을 보급 받기만 할 뿐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이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군 통수권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유엔군이 한국전쟁의 남측 대표 자격을 갖게 된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³⁹⁾

둘째, 구호실무집행에서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의 부족은 피난민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구호 물자의 입하와 수송은 '외자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양곡 관리는 '농림부'에서 담당하며, '사회부'는 다만 서면 할당만 하였다. 따라서 서면상 할당은 있으나 수송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물자의 할당량과 실제 인수량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구호 물자가 부산이나 군산 등의 항만부두에 입하된 후 창

37) 1950년 말 사회부의 계획에 따르면, 거제도에는 10만명, 제주도에는 50만명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11호, 1951, 12쪽).

38) 김귀옥, 앞의 책, 95쪽.

39) 1950년 10월 12일 남한의 외무부 장관 임병직이 미국 국무성을 방문했을 당시 상대는 한국담당관 에먼스(Arther B. Emmons)라는 사실로부터도 미국에 대한 남한의 예측적인 지위를 엿볼 수 있다(라종일, 「북한 통치의 반성: 1950년 가을」, 국제평화전략연구원편, 『한국전쟁과 한반도 통일문제』, 1997, 21쪽).

고에 쌓여 수송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구호 물자가 부패하여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⁴⁰⁾ 심지어 담당 기관, 수용소 관계 또는 군부대 상급 책임자가 담합하여 수송 물자를 도난 당한 것으로 위장하여 횡령하는 일도 있었다.⁴¹⁾

마침내 1951년 2월 허 정 사회부 장관이 구호 물자가 분배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들에 의해 빼돌려진다는 혐의를 갖고 '특별 감찰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⁴²⁾ 그러나 구호 물자의 할당과 수송, 배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⁴³⁾ 그러한 부정부패로 15만 명의 동·아사자, 행방불명자를 낳은 비극적인 '국민 방위군 사건'⁴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위와 비슷한 문제로서 구호 계획과 실행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체인 1일 1인당 배급 양곡 기준 분은 1950년 11월 24일 현재 2홉, 밀가루 1홉 3작, 압맥 7작이었으나⁴⁵⁾ 1951년 초부터는 양곡 3홉, 부식비 50원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부산이나 거제도로 피난 온 피난민들에게 15일 동안 쌀(안남미) 3홉밖에 배급되지 않았고, 부식비 50원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⁴⁶⁾ 이 점에 대하여 사회부 당국은 주로 상부 관청에서 "예산 영달令違이 늦거나 또는 영달이 있어도 현찰 준비 부족으로 현금을 지출치 못하는 점과 하부 관청이 상부 관청과의 연락 불충분으로 상급 관청이 현금을 보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치 않은 것에 기인"하였다고 해명까지 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⁴⁷⁾

넷째, 사회부가 집계하여 발표하는 피난민 통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1951년 하반기부터는 비교적 전선이 교착 상태로 돌입하여 피난민 발생률이 51년 초에 비하면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사회부 발표에 따르면, 51년 6월 말 현재 피난민 총수는 571만 972명이나 되었다.⁴⁸⁾ 그러던 것이 52년 3월 15일부터 전국 난민 등록자 수를 집계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⁴⁹⁾ 피난민 수는 남한 인구 2천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 46만

40)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63호, 1951.

41) 김귀옥, 앞의 책, 98쪽.

42) 동아일보, 1951년 2월 21일자.

43) 김귀옥, 앞의 책, 99쪽.

44) 이태섭,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비평 여름호, 1989, 136쪽.

45) 동아일보, 1950년 11월 23일자.

46)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8호, 1951.

47)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63호, 1951.

48) 동아일보, 1951년 6월 25일자.

49) 동아일보, 1952년 4월 29일자.

491명(남자 4백 91만 1천 857명, 여자 5백 52만 2천 634명)으로 늘어났다. 사회부 집계는 같은 시기의 내무부 자료(표 1 참조)와 비교하면 약 5배나 많은 규모여서 통계의 부정확 문제를 드러냈다. 피난민의 범위를 전재민, 지역 빈민, 월남 피난민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 바, 이는 중복해서 기재하였거나 ‘유령 인구’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다. 전쟁 이후의 피난민 정책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으로 끝났다. 이에 피난민의 신분이 정착민으로 변경되었다. 다시 말해서 피난민은 ‘복귀 가능 난민’에서 ‘복귀 불능 난민’, 즉 정착 난민으로 그 과정을 거쳐 1960년에서 62년에 걸쳐 가호적假戶籍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정부는 일반 피난민에 있어서는 전황에 따라 가급적이면 빨리 원거주지로 복귀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요구호자에게만 최소한의 구호 물자를 지급했다.

피난민 신분을 복귀 가능 난민에서 복귀 불능 난민으로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1954년 3월 1일 발생하였다. 즉, ‘실향사민失鄉私民 송환 사건’이 그것이다.⁵⁰⁾ 남한 국회에서는 ‘납치 인사 귀환’으로 홍보된 실향사민 송환은 정전 협정 명시 사항이었다. 정전 협정은 당시 남측 대표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클라크(Mark, W. Clack)와 북측 대표인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원수인 김일성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 팽덕회가 서명하여 영문과 한글로 작성되어 배포되었다.

실향사민(失鄉私民, displaced civilians)이란 한국전쟁으로 인해 38선을 경계로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주된(displaced)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원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취지에서 이 항목이 만들어졌다. 또한 정전 협정은 송환

50) 그러나 피난민을 피난 또는 소개시킬 1950년 12월 당시부터 정부는 북한 지역을 다시 점령하지 않는 한 피난민들을 돌려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국회의원들은 피난민 소개를 ‘5년 동안 공산당의 만행으로 인해 고생한 피난민을 구출해 낸 것으로 공론화하고 소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결국 상대방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 상황에서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대방 정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처음부터 실향사민을 송환할 의사가 부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을 위한 송환기구, 즉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협정 당사자인 유엔측 대표와 북한측 대표, 중국군 대표로 구성됨으로써 남한측은 배제되었다. 남한 국회는 별도로 '납치 인사귀환 대책 위원회(대표: 임홍순, 정일형)' 를 구성하였다.⁵¹⁾

그런데 남한측에서는 국회의 '납치인사귀환위원회' 를 본따 협정문의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 를 '민간 납치인 귀향협조위원회'⁵²⁾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향사민을 '민간 납치인' 으로 번역·홍보함으로써 군사상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남겨 두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월남 피난민에는 자발적 이주자나 강제 이주자, 피난과정에서의 예상치 않은 이주자가 포함되었다. 특히 1951년 2월 전황이 차츰 호전되어 유엔군과 국방군이 재 진격할 태세를 취하자 38이남으로 피난하였던 많은 월남인들이 귀향하고자 북상함으로써 미군 당국은 "6·25 이후에 이북에서 월남한 자는 별도 지시가 유(有)할 때까지 잔류케 할 예정"⁵³⁾임을 공표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미루어 납치 민간인은 여러 부류의 실향사민 가운데 포함되었고, 그들만이 아닌 다른 부류의 실향사민 가운데도 귀향을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대로 실향사민의 자유로운 귀향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과 같은 소위 '천만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향사민을 '민간 납치인' 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은 피난민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정전협정 59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귀향 희망자의 등록을 1954년 1월 25일부터 접수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사무소에 등록 수속을 취하면 집단적으로 월북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하였다.⁵⁴⁾ 하지만 속초의 경우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⁵⁵⁾ 아무튼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가 가동된 후 '간첩소동' 과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54년 3월 2일 월북을 희망한 실향사민 37명은 판문점을 통해 귀향하게 되었다.⁵⁶⁾ 이 과정에서 월북 희망자 44명이 귀향하기 위해 속초항에 대기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⁵⁷⁾ 3월 2일 이후 더 이상 귀향자는 없었다.

51) 동아일보, 1953년 12월 17일자.

52)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3년사』, 국방부, 1954, C403쪽.

53) 동아일보, 1951년 2월 14일자.

54) 동아일보, 1954년 1월 25일자.

55) 유창영, 남·65, 2000년 9월 29일 면담.

56) 동아일보, 1954년 3월 4일자.

그렇다면 속초항에 대기 중이었던 월북 희망자 44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속초의 어떤 심층 면접 대상자의 경우 자신은 당시 실향사민에 관한 공고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자신의 지인 가운데 실향사민으로 등록하여 속초항에 대기했다가 결국 못 돌아가고, 그 지역 반공 단체 청년들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⁸⁾ 결국 실향사민 송환은 1954년 3월 2일 단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 그 후로 송환이 있었던 사실조차 잊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실향사민 송환’ 사건 이후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남한에는 ‘돌아가기를 원하는’ 실향사민은 없으며, 모두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며, 이후 피난민들을 남한 사회의 주민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후의 피난민들에 대한 정부 정책 역시 특이한 것은 없으며, 특히 기존의 남한 주민들과 큰 차별 정책을 추진하였다고는 확인하긴 어렵다.

3. 속초 피난민과 행정의 역할

가. 군정 시기의 행정 체계

속초는 국군 제 1군단에 의해 1951년 8월 18일 수복되어 1954년 11월 17일까지 군정이 실시되었다. 군정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통치권은 유엔군 사령부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속초 주둔 국군 제 1군단 사령관이 군정의 책임과 집행을 담당했다. 또한 1군단 사령부 역시 실제 민정은 민간인 민정관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허용하였다. 다시 말해 1군단 민사처가 민사를 담당했고 실제 행정은 양양군과 각 읍의 민정관(읍면장) 및 치안대 등에서 집행했다.

57) 동아일보, 1954년 2월 26일자.

58) 김귀옥, 앞의 책, 105쪽.

〈군정 시기 행정 체계〉

민정장관(1군단장) - 1군단 민사처 - 군민정관(군수) - 읍면민정관(읍·면장)

1군단헌병대 - 군치안대장 - 속초치안 지대장

특무대 (경찰서장) (지서장)

군정 시기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은 1군단 민사처가 민정관을 통해 관장하였으며, 치안 업무는 1군단 헌병대와 치안대가 담당하였다. 이 당시 양양군은 군민정관(군수)과 부민정관(부군수) 아래 내무과, 산업과, 학무과 등 3개 부서가 있었다. 내무과와 산업과에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학무과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했다. 그리고 속초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은 읍·면 민정관이 업무를 관장했는데, 당시 속초읍 민정관은 김근식이 임명됐다. 군민정관은 민정 장관으로부터 예·결산과 각급 학교의 개교 및 신설에 관한 사항, 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 받아 집행했다.

당시 인사권은 당연히 1군단 사령관이 갖고 있었는데, 군민정관을 민정 장관인 1군단 사령관이 임명하고, 부민정관과 일반 직원, 치안 대장 및 대원, 각급 학교 교원은 군민정관이 임명했다.

나. 속초 피난민과 구호 행정

군정 당시 속초는 양양군과 속초 학사평에 주둔한 한국군이 행정, 치안 등을 담당하였다. 당시 군 당국에 부여된 가장 큰 임무는 미군이 지급해 준 구호 물자를 배분해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 역시 미군이 주는 구호 물자를 재분배해 주는 관계로 구호 물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곤 하였다.

미군이 지급하는 구호 물자는 밀가루, 이불, 옷가지, 비누, 식료, 연료 등이었고, 인구수에 맞추어 엄격하게 배분되었다. 특히 미군은 한국군에 대해서도 구호 물자를 동일하게 배급해 주었는데, 미군이 구호 물자를 배분하는 날에는 피난민을 포함해서 전주민 모두가 군복을 입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태가 연출되었다. 특히 당시의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속초 지역에 연고가 없이 월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계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고, 군인으로 가장假裝하여 양양에 소재한 군부대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최소한의 구호 물자는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⁵⁹⁾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은 교회 등을 통해 구호 물자를 지급하였다. 당시 교회로는 속초감리교회, 속초천주교회(동명동), 그리고 ‘중앙교회’ 및 ‘천도교’가 바로 뒤에 세워졌다. 따라서 이들 교회에는 피난민들이 주로 다녔고, 이 교회들을 통해 구호 물자가 지급되었다. 피난민들은 전국적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공동체적 터전으로 삼았는 바, 속초 역시 비슷하였다. 교회를 설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난민들이 심리적인 안전감과 공동체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구호 물자 지급 등과 같은 생계와도 관련성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속초 지역의 피난민들은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미군 등 군속으로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 군속으로 근무할 경우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신분상의 위해를 받을 염려가 적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특히 당시에는 전후 복구를 위해 많은 군속이 필요하던 시절이었다.⁶⁰⁾ 이외에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경우 자녀들을 통해 밀가루 등 식량을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속초 피난민들에게 군 당국의 구호 물자가 충분히 지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순 없으나 심층면접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미 부정 부패가 만연한 상태였고, 기관의 횡포가 극심하였던 상황에서 피난민들에게 충분한 구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은 간다. 따라서 많은 피난민들이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되고 속초 지역이 민정으로 넘어가면서 피난민들은 생계를 찾아 어업 등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어업의 경우 제법 고기가 많이 잡힌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수월치 않았던 데 기인한다. 특히 큰 기반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어업이었고, 이에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중심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어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생활을 꾸려 갔다.

59) 이관희, 남, 2000년 9월 29일 면담.

60) 당시 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군은 한국에 노무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 노무단은 1951년 7월 만들어졌고 미8군 사령부의 특별참모과가 노무감독과 통솔을 담당하였다. 군 노무자는 노무동원령에 의거하여 노무자의 징집을 각 도, 시, 읍, 면에 할당하였고, 35세~45세(또는 50세)까지의 남자를 의무복무토록 하였다. 그러나 법적 지위상으로는 정규군이 아니었고 미군 군속으로서 한국군이나 예비군과는 상관이 없었다.

다. 속초 피난민과 규제 행정

1951년 8월 18일 수복 지구가 되면서 피난민들이 어떤 정치적·행정적·인권적 규제를 받아 왔는가를 살펴보자. 구호 물자를 받는 대신에 그 이면에는 크게 직업선택의 제약과 ‘빨갱이 색출 과정’에서의 공포감이 뒤따랐다.

당시 군정시에는 피난민들에게는 미 군무원, 공병대 등 군속이 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공무원 등 공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한 봉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무원 생활을 한 피난민의 증언에 따르면 “피난민 중 공무원이 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⁶¹⁾ 당시 속초의 인구구성을 보면 피난민들이 60~70%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직자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피난민에 대해 공직자로의 진출을 최대한 제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군정시 추진한 ‘빨갱이 색출’ 작업은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요원이나 경찰, 사회부 직원 또는 사설 청년 단체 요원들이 ‘불순분자’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은 다름 아닌 ‘빨갱이 색출’로 나타났다. 피난민 사회를 상호 불신과 불안감으로 점철시켰던 빨갱이 색출 작업은 피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감과 레드컴플렉스(red complex)를 갖도록 하였다. 특히 군정 당시 빨갱이 색출 작업은 발견되면 즉시 처형되었던 관계로, 많은 피난민들이 상호소통을 끊거나 공포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⁶²⁾

뿐만 아니라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반공 정책은 피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수시로 감시와 통제를 받았고, 특히 피난민 자녀들에 대해서는 신원 조회를 통해 공무원, 군장교 등이 되는 것을 막았다. 이로 인하여 피난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대부분 남한 출신으로 호적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⁶³⁾ 피난민 본인과 자녀들,

61) 오홍인(함남·안변), 남·60, 2000년 8월 25일자.

62) 필자가 면접한 피난민들은 한결같이 “피난민 중에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63) 물론 피난민들이 호적을 거짓으로 만든 데에는 한국정부가 1960년대 초 피난민의 남한 주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피난민들이 남한 사회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한 것과 자신들이 월남한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의 방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몇몇 피난민들은 월남하여 정착하면서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⁶⁴⁾ 즉, 남한 정부가 자신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난민들에 대한 규제 행정은 특정한 피난민들에 한해서 행해졌고, 다른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무튼 피난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몇몇 구호 사업을 제외하고 그 어떤 지원이나 혜택도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각종 규제조치만 뒤따랐을 뿐이다.

라. 민정 이양 후의 행정(1954. 11. 17 이후)

1954년 8월에 들어서면서 수복 지구 행정권의 한국 정부로의 이양 준비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8월 18일, 정부는 수복 지구 행정권 이양을 위한 한미협정 초안 작성에 착수했으며, 8월 28일에는 수복 지구 행정인수위원단을 조직키로 하였다. 그리고 9월 4일 한미 교섭 2차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행정권 이양에 관한 행정적인 세부 항목에 완전 합의하고, 10월 3일 수복 지구 행정권 인수협정 서명에 이어, 마침내 11월 17일 유엔군 사령부는 38 이북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양양군의 행정권도 비로소 한국 정부로 돌아왔으며, 군정 시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민정시기를 맞게 됐다. 1군단 사령부는 이 때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했다.

1) 행정 체제의 변화

행정권 이양에 앞서 정부는 10월 21일 ‘수복 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을 공포 시행하게 되는데, 속초읍이 속한 양양군도 이 임시 행정 조치법에 따라 운영되었다. 임시조치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①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②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군수가 교육감과 세무서장의 직무 대행을 맡는다는 것이다.

64) 김남표, 남·85, 2000년 9월 29일자.

군정에서 민정으로 바뀌면서 군정 하의 모든 공무원을 공무원법에 의거, 전형을 거쳐 재임용 하였다. 초대 양양군수로는 군정 시기 군민정관을 지낸 김주혁이 재임용 됐는데, 강원도지사(최헌길)가 임명하였다. 경찰서장(이현규)은 강원도 경찰국장(이하영)이 임명했으며, 군정 시기 치안 대원을 대상으로 경찰관 임용고시를 실시하여 경찰 공무원을 선발하였다. 교육공무원은 각급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을 통하여 재 임용하였고, 학력과 경력을 참작하여 특수교사와 준교사로 구분하여 자격증을 부여하였다.

2) 민정 이양 후의 구호 활동

1955년 3월 속초의 요구호 대상자 세대수는 667세대로 집계되어, 2년 전에 비하여 난민 대상자가 대폭 감소하였지만⁶⁵⁾, 민정 이양 후에도 한동안 피난민 구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단지 전쟁으로 산업이 황폐화되어 정부 재정이 곤궁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지 못하였다.

민정 시기에는 미국의 480호 잉여 농산물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쌀, 밀가루, 보리, 콩 등이 피난민들에게 주로 분배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 구호 단체가 수집하여 기탁한 구호 물품과 한국 주둔 미군 부대에서 유출되는 군수물자가 피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당시 미군의 군복이나 군화를 착용하지 않은 피난민이 없었고, 미군 담요 한 두장을 가지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였다. 피난민들은 구호품인 밀가루 죽이나 옥수수 가루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어렵게 생활하였다.

요구호 대상자 (음세일람, 1959, 속초읍, 40쪽)

구 분	총세대수	총인구수	요구호대상자				계	
			항 구 적		일 시 적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속초읍	7,029	31,435	422	1,077	1,435	4,325	1,857	5,402

65) 김귀옥, 앞의 책, 137쪽

구호양곡배급상황

곡 종	총수하량	배 급 량	
		배 급 인 원	배 급 량
소 맥	2,748,960g	194	2,748,960g
정 맥	432,216	185	432,216
호 맥	5,513,600	391	5,513,600
옥 수수	3,850,200	307	3,850,200
옥수수분	19,170,000	2,209	19,170,000
소 맥 분	6,380,000	745	6,380,000
계	38,794,976	4,031	39,794,976

마. 속초시 승격과 동제洞制 실시

1962년 7월 24일 ‘속초시제설시추진위원회’ (이하 시제추진위)가 구성되면서 시 승격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시제추진위는 속초읍 변영회가 발전된 것으로 위원장을 김주혁(초대 민정 양양군수)이 맡았다. 시제추진위는 그 해 8월 16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앞으로 시제 실시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간격으로 강원도지사와 내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속초시 승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마침내 1962년 11월 21일 ‘시 설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6호)’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1963년 1월 1일 양양군 속초읍 일원이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속초시 승격 당시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에 22개 부락과 31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구는 10,864 세대에 55,619명이었다. 행정 기구는 시장 산하에 1실(공보실), 6과(총무과, 재무과, 교육과,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2사업소(농촌지도소, 보건소)로 이뤄졌으며, 공무원의 정원은 72명이었다. 1963년 2월 25일 이동보가 초대 속초시장으로 취임하였다.

1966년 1월 1일 속초시 승격 3년 만에 ‘속초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95호)’가 공포됨에 따라 동제가 실시돼 16개 리가 12개 동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속초리 1구·2구 지역 :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속초리 3구·4구 지역 : 금호동
 속초리 6구 지역 : 청학동, 교동
 도리원리·이목리·노리·척산리 지역 : 노학동
 청대리·논산리·온정리·부월리 지역 : 조양동
 속초리 5구·부월리 2구 지역 : 청호동
 대포리·외옹치리·내물치리 지역 : 대포동
 하도문·중도문·상도문리 지역 : 도문동
 장항리 지역 : 설악동

또한 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대통령령 제6542호)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흡수, 장사동으로 개칭, 신설되어 13개동으로 1개동 증가되었고, 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027호로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 법정동으로 통합,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13개동으로 되었다가 98년 동 통폐합으로 13개동에서 8개동으로 조정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속초시는 역설적으로 말해 6·25 전쟁 전후 민족적 혼란기가 만들어 내고 성장시킨 역사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속초시의 토대가 됐고, 군정 시기와 민정 이양기를 거쳐 시로 승격되었으며, 속초시는 피난민들의 안식처로, 제 2의 고향으로 행정적 체계를 정립해 갔다고 하겠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문혀 버릴지도 모를 월남 피난민들의 삶의 발자취를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남기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더군다나 많은 피난민 1세대들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착 과정, 특히 이들이 속초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어떤 관련을 맺었는가를 심층적으로 연구·기록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함경도 출신의 월남 난민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집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명 ‘떠도는 섬’ 또는 ‘난민의 섬’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현재 약 8백여 가구의 피난민들만 살고 있는 ‘아바이마을’은 최근 청초호 수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속초 전역에 걸쳐 약 4만 7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속초 피난민들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속초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가를 짚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적·역사적 자료들이 소실된 시점에서 이를 서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대부분 주민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피난민들의 증언만큼은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속초 피난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결론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다. 즉, 피난민들이 행정적 지원이나 후원 없이 타향 땅에서 정착해 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행정으로부터 많은 감시와 억압을 받아 왔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숨기기”에는 뭔가 아쉬운 감이 든다. 특히 피난민들이 받아 온 갖은 핍박과 고초를 생각한다면...

□ 참고 문헌

-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 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사』, 국방부, 1952.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2년사』, 국방부, 1953.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2년사』, 국방부, 1953.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3년사』, 국방부, 1954.
-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3년사』, 국방부, 1954.
- 국회사무처,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9회 3호, 1950.
-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11호, 1951.
-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63호, 1951.
-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0회 8호, 1951.
-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6회 23호, 1953.
- 국회사무처,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6회 43호, 1953.
- 김귀옥, 『월난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 동아일보(1950년~1954년).
- 라종일, 「북한통치의 반성: 1950년 가을」, 국제평화전략연구원편, 『한국전쟁과 한반도 통일문제』, 1997.
- 이태섭,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비평 여름호, 1989.
-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강원사회연구회, 『분단강원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9.
- 전상인, 「분단과정과 강원사회」, 강원사회연구회, 『분단강원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9.
- 정진교, 「속초 청호동 주민들의 통일염원」, 월간동화 8월호, 1990.
-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9.
- McCormack, Gavan, *Gold War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Sydney: Hale & Iremonger, 1983.



제7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산업구조

심 상 목(관동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글은 속초시 피난민의 산업구조를 현장조사의 고증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내용을 집필한 것이다. 속초시에 거주하는 피난민들의 산업구조에 대한 고찰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피난민이 속초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생계로 삼아 정착했는가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속초시 피난민의 직업구조를 알기 위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서울대 김귀옥 박사의 연구서적이 다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시작하였다. 속초시에 분포되어 있는 이북 5도민 사무실에서도, 군민회 사무실에서도 기초적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김귀옥 박사의 서적을 중심으로 조사하던 중 속초시 자치행정과에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하나는 관동대 양언석 박사가 조사한 피난민 정착사 집필 설문지 결과물로 나름대로 실향민들의 직업 분포를 알 수 있었다. 각 분야별 피난민 사례연구는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속초문화원에서 실향민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중 피난민 1세대라 이미 퇴직하거나, 현직에서 물러난 경우가 많았다. 전체 48.4%가 무직이었고, 상업이 7.7%, 가사가 4.4%, 공무원이 3.2%, 자영업자가 9.9%, 기타(용역, 운수업, 농사, 어업, 서비스, 건설업, 건조업, 인쇄업, 변호사, 의사, 사법단체, 은행원, 여행사 등)가 2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속초시 자치 행정과 민간협력담당 윤중배 계장의 도움으로 얻은 자료에서도 비슷한 분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료는 속초 피난민 1세대의 출신지, 성별, 연령, 직업, 생활정도를 6명의 인원을 1개월간 투입하여 최초로 피난민들의 실태조사를 한 귀한 자료인 셈이다. 이 조사는 분단 반세기만의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과 8·15 이산 가족상봉 등으로 남북간 신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이산가족간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속초시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으로 향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조사된 바 있다.

속초시 피난민 1세대의 직업분포 (2000년 8월 현재)

동별	농업	어업	상업	서비스업	노동	무직	기타	계
영랑동	1	8	10	1	5	85	17	127
동명동	-	12	11	1	1	128	11	164
금호동	12	16	36	4	2	247	5	322
교동	4	32	29	5	6	178	15	269
노학동	10	25	29	3	17	137	36	257
조양동	12	2	11	1	1	167	2	196
청호동	2	123	32	3	17	55	13	245
대포동	5	6	22	1	-	40	-	74
계	46	224	180	19	49	1,037	99	1,654

자료 : 속초시 자치행정과

한편 서울대 김귀옥 박사의 연구서적에 나와있는 정착민의 직업분포를 보면 1980년경 정착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호동 실항민의 직업분포(단위 : 명, %)

직업별	지역별	속초정착촌 월남인
어민		34(85.0)
농민		-
상인		3(7.5)
사무원		1(2.5)
서비스		1(2.5)
기타		1(2.5)
계		40(100)

1. 농업

속초는 동쪽은 동해에 면하고 북쪽은 고성군, 서쪽은 설악산을 경계로 인제군과 접속되고 있으며 남쪽은 쌍천을 경계로 하여 양양군과 경계한다. 속초항의 남서방면은 고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가지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호반에 연해서 길게 발전하고 동서간은 19km 남북간은 8km로 총면적은 104.97km²에 달한다.

농업은 우리 나라 전통사회의 기본적인 산업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에 의한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업의 비중이 축소되어 왔다. 그 결과 농업의 저 성장과 농촌의 저 발전을 가져왔으며, 나아가 산업간 지역간 소득불균형과 함께 농촌노동력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다가 최근의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정 체결은 해마다 심화되는 농업소득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켜 농업의 존립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농촌사회의 존립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지역은 해안에 접해 있는 구릉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한 지형을 구비하고 있다. 기후조건 상으로도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 온화한 해양성 기후 등은 농업 입지 여건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속초의 농지분포는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흐르는 쌍천 연변의 도문동 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평야지대를 지나는 청초천 연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피난민들의 초기 유입된 시기엔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속초의 중심지는 바다에 인접해 있고 농촌은 설악산에 가까이 있는 편이다. 월남인들은 바다에 인접한 시내에 집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초 읍내, 즉 속초 1, 2, 3, 4, 5구에 주로 거주하게 되었다. 당시 속초읍 행정구역 가운데 시내에 속하는 속초리 1~5구의 농민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속초읍내 구역의 농민 분포(1955년 현재)(단위 : 호, 명)

		구역						
		1구 (영랑동)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기타 지역	속초 전체
농업	농가수	28	23	29	25	-	790	895
	농업인구	97	91	186	101	-	4,426	4,901

자료 : 속초읍, 『읍세일람』(1955)

속초리 1~4구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월남인이 모여들었지만 농토가 없던 5구, 즉 청호동에는 대부분 월남인들이 집거하였다. 속초 인구 23,699명 가운데 농업인구는 4,901명이며 이중 속초의 1~5구의 농업 인구는 9.7%였고, 5구에 농업인구는 전혀 없었다.

농가수와 농가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구분	총가구수	총인구수	농가호수(%)	농업인구			비고
					계	남	여	
1955		5,350	23,699	895(16.74%)	4,901	
1958		7,029	31,435	877(12.48%)	5,202	
1960		9,412	45,708	992(10.54%)	5,599	
1961		8,883	42,258	918(10.34%)	5,425	
1962		10,464	50,703	1,167(11.15%)	5,404	2,794	2,610	
1972		14,366	74,485	1,086(7.56%)	6,389	
1982		15,117	69,248	1,040(6.88%)	5,590	
1991		20,587	72,208	993(4.82%)	4,308	
1999		30,891	88,914	770(2.49%)	2,957	1,518	1,439	

자료 : 양양군 『군세일람』, 『양양군통계연보』,

속초읍 『읍세일람』, 『속초시정30년사』, 『속초시통계연보』

위 표에서 농가수와 농가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대도시로의 이동과 관광사업,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전업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또한 70~80년대 부동산 투기바람에 이은 UR협상으로 인한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별다른 주소득원이 없던 속초의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영농의욕을 상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피난민 초기 유입시에는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최근의 조사(2000년 8월, 속초시 자치행정과)에서 보듯이 피난민 1세대 전체 1,654명중 46명으로 금호동(12명), 조양동(12명), 노학동(10명), 대포동(5명), 교동(4명), 청호동(2명), 영랑동(1명)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기할 사항이라 하겠다.

년도별 농지면적과 수확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년도	농 지 면 적			수확량 곡물종별			
	계	답	전	미 곡	맥 류	두 류	서 류
1954	9,012 反	5,272	3,740	1,658 석	496	48	158
1958	7,745	4,886	3,859	4,652	665	267	204
1960	7,753	4,886	2,867	6,752	454	310	220
1962	1,061 ha	775	286	929 톤	34	133	-
1972	1,150	672	478	1,401	73	81	238
1980	1,182	697	485	2,318	30	147	527
1990	1,117	630	487	2,242	-	89	367
1999	821	566	255	2,551	-	48	654

자료 : 1955, 『군세일람』, 양양군, : 1959, 『읍세일람』, 속초읍, : 1961, 『통계연보』, 양양군.

62~91, 『속초통계연보』, 속초시, : 1994, 『시정30년사』, 속초시.

2. 수산업

속초항의 연간 최고 기온은 35.8°C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다. 강우량은 연평균 1,350mm 인데 최대강우량은 연 1,550mm 인 한편 조위潮位는 동해안 일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불규칙적으로 1일 2회 조석현상潮汐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조차는

33.8cm이며 평균수위는 16.9cm이다. 조류는 본 항근해에서는 대한해협으로부터 북류하는 난류와 오후트트해로부터 남류하는 한류가 교차되므로 풍부한 근해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조류의 속도는 장조류는 남방파제 선단부에서 최대유속 0.23m/sec으로 동쪽에서 서향하다가 청초호 입구에서 다시 남향하며, 낙조류는 최대유속 0.21m/sec으로 장조류와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선박 출입항에는 별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다.

속초항은 원래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부재되고 있으므로 어항으로 발전했으나 양양 철광이 개발되어 철광석의 선적량이 늘어나면서부터 철광석 적출항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하여 석탄, 시멘트, 유류, 선어, 양곡, 기타 해상 화물량이 격증하여 항세는 물론 속초시 발전이 가속화 하였다.

가. 초기 피난민들의 어업인구

속초 원주민은 어업보다는 농업에 주로 종사하여 1950년대만 해도 월남인의 활동의 여지가 컸다. 1955년 어업인구가 농업인구를 상회하게 되는데 이는 군정의 군속(주로 군 후생사업)으로 선발되어 속초로 들어온 함경도 출신의 월남인들이 주로 어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군속이 아니었던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의 배를 타고 몰래 속초로 들어왔다.

심지어 해안 검문소에서 발각되면 초소 군인에게 뇌물을 주고 들어오기도 했다. 1951년 유엔군에 점령되면서 먼저 군속으로 들어간 월남인들을 통해 속초는 어업을 하여 살만한 곳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실 많은 월남인들이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피난민 수용소가 있던 주문진과 속초가 거리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항만조건이나 어업조건이 월남인을 유입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난민들이 초기 유입되기 시작했던 1952년경만 해도 어업보다는 농업 우위의 지역이었으나 미국과 국방군 제1군단 및 여러 특수 부대들이 주둔하면서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피난민들이 유입하면서 속초에서는 농업보다는 어업의 비중이 더 커졌다.

피난민들은 대개 유입 초기부터 어업 기술을 갖고 있었다. 정착 초기에는 북한에서부터 징발되어 왔거나 월남 운송 수단으로 타고 온 배들이 어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피난민들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의 중심지는 바다에 인접해 있고 농촌은 설악산에 가까이 있는 편이다. 피난민들은 바다(내항

청초호)에 인접한 시내에 집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초 읍내, 즉 속초 1, 2, 3, 4, 5구에 주로 거주하게 되었다. 당시 속초읍 행정구역 가운데 시내에 속하는 속초리 1~5구의 어민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속초읍내 구역의 어민 분포(1955년 현재)

속초 행정구역		1구 (영랑동)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기타 지역	속초 전체
호수 및 인구	호수	911	357	1,103	1,316	454	1,209	5,350
	남자	1,840	794	2,380	2,783	1,046	3,059	11,902
	여자	1,890	789	2,363	2,703	930	3,117	11,792
	계	3,730	1,579	4,743	5,486	1,976	6,176	23,699
어업	호수	72	106	296	169	210	302	1,146
	어민수	126	292	653	644	529	519	2,763
	가구원	288	530	1,480	845	1,005	1,518	5,666
	발동선	2	5	50	68	30	1	156
	범선	10	27	42	34	33	120	266
	중선	16	29	52	68	106	85	356

자료 : 속초읍, 『읍세일람』, 1955, 14쪽

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속초 1~5구의 어민수가 전체의 81%이고, 어선수가 74%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 어민가구원수도 73%나 되고 있다. 특히 청호동의 경우 전체인구 가운데 절반이상이 어민 가구원이었다. 처음에는 배도 대부분 무동력 소형어선이었으므로 생산성이 낮았고 저장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난민이 유입되면서 조업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는데 낚시로 잡는 어업을 유자망 어업으로, 그리고 무동력선을 동력선으로 바꾸었다. 원산출신 임정순이 소구燒球엔진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범선을 발동선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잡은 고기의 몫을 분배함에 있어 선주의 몫과 어부의 몫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어부의 작업 의욕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선의 기계화는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게 했으며, 따라서 조난사고가 빈발하여 많은 어민들이 숨져갔다.

최근 조사된 자료를 보면 어업인구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피난민 1세대 어업가구수 (2000년 8월 현재)

동별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어업	8	12	16	32	25	2	123	6
총계	127	164	322	269	257	196	245	74

자료 : 속초시 자치행정과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은 수의 가구가 어업을 포기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청호동의 경우 아직도 50%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나. 어업의 실태

1) 어선의 종류

수복 이후 피난민들이 어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배는 피난 당시 타고 월남한 범선인 창이배와 강원, 경상도 지방의 주된 범선인 오마리배가 주종이었으며, 몇 척의 기계선(동력선)이 었다. 그러나 어업인구의 증가와 전문적인 직업화는 어선과 어구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50년대 중반에 들면서 범선이 동력선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주로 10~15톤급(소구엔진 10~12마력)의 소형 동력선이 만들어지고 60년대 들면서 20톤급으로 늘어났다.

2) 주어종과 조업실태

주어종은 명태, 오징어, 꽁치, 양미리 등으로 명태잡이가 10~2월, 오징어와 꽁치잡이가 5~9월, 양미리잡이가 10~12월에 이루어졌다. 기타 잡어로 가자미, 우러기, 이면수, 열갱이 등을 어획하였다.

명태가 가장 많은 어획량 이었다. 범선으로 한 낚시 조업의 경우 이른 새벽에 출항하여 초저녁에 입항하는데 강한 하늬바람(설악산내기)을 맞는 날에는 자정이 넘을 때도 많았다. 지친 어부들이 그리고는 눈을 붙이나 마나하고 또 조업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동력선의 등장은 조업의 편리함은 물론 어획량도 훨씬 많았

다. 1962년도의 어획량은 무려 30,000톤에 이르렀다. 이는 범선 조업이 대부분이 었던 1955년의 7배나 되는 것이다. 잡은 명태는 어협에서 위판이 되어 그 날밤으로 트럭에 실려 서울의 동대문 등 어시장에서 전국에 팔려나갔다. 이 명태 운반차량을 생태차라고 이름하기도 하였다. 나머지는 덕장^{德場}에서 팔려졌다. 건태^{乾太}를 만드는 것이다. 속초의 변두리는 물론 거의 집집마다 덕장이 있었고, 멀리는 진부령이나 대관령에서 황태^{黃太}를 만들었다. 「황태」라는 것은 겨울내 얼었다가 말려져 노랗게 빛이난 이름이다. 이같은 명태의 다량어획은 속초항을 북방어업전진기지로 만든 큰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속초항은 호황의 겨울 명태잡이가 끝나면 어한기^{漁閑期}가 된다. 그러면 어민들은 서해 조기잡이를 떠난다. 소위 남바리가 시작된다. 서해 조기잡이에서 돌아온 어민들은 꽁치잡이를 하고 이어 오징어 잡이를 하였다. 꽁치는 생물 아니면 염장으로 처리되었다. 오징어 잡이는 재래식인 일본조^{一本釣} 조업이었으며, 집어등^{集魚燈}은 카바이트 가스 불을 쓰다가 동력선으로 바꾸면서 자체 발전한 전기등^燈을 사용하여 어획은 몇 배로 늘어났다. 잡은 오징어는 건조가 위주였으나 장마철을 맞으면 새끼줄에서 찍어내려 온 시내가 악취에 묻히기가 다반사였다. 그리하여 염장법이 시작되었고 또한 구공탄이 생기면서 연탄불 건조가 생겨났다. 조미가공은 후의 일이다. 이때의 오징어 잡이에는 박봉의 학교교사와 고학생(고교생)도 많았다. 정말 모두가 열심히 살은 시대였다. 꽁치와 오징어잡이가 끝나면서 양미리와 함께 명태잡이가 시작된다. 그때의 양미리잡이 방법은 지금 같은 코걸이가 아닌 후리 방식이었다. 두척의 주선^{主船}이 고기떼를 보고 그물을 빙 둘러치고 종선^{終船} 몇척이 돌을 던지면서 고기떼를 후리안에 몰아 넣어 잡는 것이다. 산란을 위해 바닷가에 몰려든 양미리떼는 정말 엄청났다. 한두름(20마리)씩 벗집으로 엮어서 덕장과 집마당의 빨래줄 같은데서 말렸고, 상당량은 염장을 하여 명태^鱈시 미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속초항 어민들은 일년 내내 쉴 틈 없이 고기잡이를 하였다. 많은 피난민들은 살아 남기 위한 잠깐의 어부생활이 이제는 전문적인 어업인이 된 것이다.

이 피난민들은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서 ‘북청물장수’ 답게 자식들을 관내의 학교는 물론 서울 등 외지 유학(고·대학)도 보내는 열성이었다.

년도별 어업 발전추세

년도별	어가수	어민수	어 선					어획고 (톤)
			총계 (척)	동 력		무 동 력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1955	1,146	2,763	723	156	-	567	-	4,594
1958	2,010	8,029	727	336	-	391	-	19,649
1962	3,831	5,327	811	325	3,229.56	486	555.37	30,010
1963	4,538	6,067	762	328	3,231.79	434	563.09	23,960
1965	4,174	22,203	821	343	3,584.07	478	639.88	29,554
1967	4,333	24,183	804	447	5,082.72	257	505.64	20,337
1969	4,624	25,644	1,259	493	6,470.26	766	992.47	18,293
1970	4,727	25,065	936	509	6,691.70	427	402.86	26,588
1980	3,066	15,223	571	375	6,930.49	196	201.53	36,991
1990	1,855	7,379	652	569	23,866.10	83	77.87	23,549
1999	1,430	4,968	604	581	12,783.55	23	14.71	27,100

자료 : 양양군 『읍세일람』, 1955, : 1959, 『시정30년사』, : 1963~2000 『속초시 통계연보』

년도별 주요어족별 어획고

년도별	주요어족별 어획고					
	총계(톤)	오징어	명 태	꽁 치	미 역	기 타
1955	4,594	1	3,058	432	71	1,032
1958	19,649	1,233	17,083	286	1	1,056
1962	30,010	6,170	13,180	3,870	2,390	4,390
1963	23,960	13,649	8,923	323	239	826
1965	29,554	14,948	6,747	2,558	2,091	3,209
1967	20,337	5,702	5,187	2,637	1,428	5,383
1969	18,293	7,774	2,763	1,704	572	5,480
1970	26,558	13,214	4,431	1,775	1,342	5,796
1980	36,991	7,372	3,280	541	-	5,310
년도별	총계(톤)	어 류	갑 각 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해산물
1990	23,549	8,249	6,366	8,367	108	459
1999	27,100	3,029	9,754	11,401	88	2,828

“아버지와 같이 52년 9월에 속초에 들어왔다. 속초에 온 이유는 고향으로 좀 더 빨리가기 위해서였다. 배(창이배)에서 4~5개월 정도 살았다. 먹고사는 방법은 고기를 잡는 일이다. 결국 어업인이 된 것이다. 선주 노릇도 20년간 하다가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감축어선으로 배를 팔았다.”¹⁾

“고향에서 농사일을 돕던 두 형제는 거제도, 부산, 묵호를 거쳐 속초에 온 것이 54년 가을이었다. 우리 형제는 유난히도 멀미를 많이하여 배를 탈수가 없었다. 명태, 오징어, 양미리 등의 건조업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²⁾

3) 공업의 태동

속초지역의 공업이란 어업의 호황으로 어선의 수요가 증가하며 조선造船에 따른 공장의 생성이다. 범선이 동력선으로 바뀌면서 선체船體와 기계의 제작 그리고 수리를 하는 공장이 하나 둘씩 늘어난 것이다. 물론 원자재인 나무판의 공급을 위한 목재소도 같이 생겨났다. 이때의 조선소는 영동, 원산, 제일, 삼화, 칠성, 공영, 함경, 원풍 등이며 기계 및 철물공장은 동방, 이성, 원일, 동아, 중석, 단천 등이 성업하였다. 목재소는 삼화, 함흥, 무림, 인제, 대성 등 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계공장들은 60년대 들어 소구엔진이 디젤엔진으로 발전되면서 사양을 맞았다. 어선의 기계화에는 주물鑄物에 앞장 선 임정순 의 역할이 큰 공이었다.

“속초에 온 것이 53년 3월이다. 광신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과자, 계란, 돼지고기 군남 등 안해 본 장사가 없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주둔 군부대의 철수로 장사가 시원치 않아 그만 두고 어업은 대풍이었으나 어업방법은 대부분이 목선 이어서 고기잡이는 힘들었고 조난사고도 빈번했다. 그래서 발동선 기계제작을 생각하고 손을 댔다. 동방기계제작소란 간판을 걸고 기술자의 힘을 빌어서 소구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처음 이었다. 처음에는 10마력 짜리에서 나중에는 80마력기계까지 만들어 냈다. 선박의 소구엔진 제작 공장으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디젤엔진의 보급으로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었다.”³⁾

1) 방성춘 (함남 흥원군)

2) 황승환 (함남 영흥군)

3) 임정순 (함남 원산시)

함남 북청군 출신 피난민 어부 유정충의 살신성인한 한 생애가 여기 그려져 있다. 타항에서도 서러운데 망망대해에서 생을 다 한 그였기에 피난민들을 더욱 오열하게 하고 있다.

유정충 선장 동상劉禎忠 船長 銅像은 속초시 금호동 근로복지회관 뒷편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 3월 1일 제주도 서남방 370마일 동지나해에서 선원 21명을 구하고 하나호와 같이 운명한 유정충 선장의 동상으로 1991년 1월 9일 제막되었다. '하나호 선장 유정충 상' 이라고 새겨진 사각형 좌대座臺 위에 유선장이 반쯤 침몰된 하나호에 혼자 남아 긴 급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구리로 조각되어 있다. 뒷면과 오른쪽 옆면에는 각각 '동상 건립문' 과 '추진위원 명단' 이 새겨져 있다.



고 유정충 선장 동상

「동상 건립문」

유정충 선장은 1990년 3월 1일 13시 51분 제주도 서남방 370마일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갑자기 밀어닥친 돌풍에 휘말려 배가 위기를 당하자 선원 21명을 구출하려는 일념에서 배에서 탈출하지 않고 통신기가 작동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602 하나호 침몰 중...' 이라는 말을 남긴채 애선과 함께 수장되셨다. 그는 "내 한몸 받쳐 전선원을 구한

다면 기꺼이 죽겠다." 라는 평소의 살신성인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동료 선원을 구한 고귀한 그의 열을 기리기 위해 이상용 강원도지사의 주선으로 도민의 뜻을 모아 여기 이 상을 세운다.

1990년 12월 30일 고 유정충 하나호선장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세움」

3. 상업

상업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지급하고 점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달성하려는 노력

등 부족물을 교환한데서 비롯되어 시장의 생성과 상인의 출현으로 구체화되었다.

현대의 상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상품의 장소적 이동과 시간적 차이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복잡한 변수들이 상호 작용하여 변화 발전하고 있다. 또 상업은 극도로 전문화되어 산지도매, 도시도매, 소매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매점, 전문상점, 백화점, 통신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상업은 전통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시장은 개시되는 날짜에 따라 정기시장과 부정기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시장은 일정한 날짜 또는 기간 동안에 개시되는 것으로 매 5일에 열리는 시장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상시로 개설되는 상설시장이 포함된다. 반면에 부정기 시장은 당국이나 소비자 생산자 등의 필요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어물시장, 채소시장, 야시장 등이 이에 속한다.

1967년도 속초 시장의 상황

구분 시장	소재지	시청과거리	정기별	년간거래액	점포수	중요거래상품명
제일시장	영랑동	1.0k	상설	150,000,000	55	직물, 피복,
중앙시장	중앙동	0.5k	상설	1,150,000,000	272	고무신, 곡류,
대포시장	대포동	6.9k	정기	50,000,000	37	주류, 식품

자료 : 속초시 『통계연보』, 1967

속초시장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개략하게 살펴보면 속초는 수복 당시 영랑동이 중심생활권이었던기 때문에 영랑동에 5일장이 서게 되었다. 피난민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국군과 미군부대가 계속 주둔하게 되자 상업경기가 지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일상경제 생활의 수요를 5일장으로는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영랑동 5일 장터는 상설시장이 서게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영랑동 시장은 말이 상설시장이지 반듯한 점포 하나 없는 초라한 시장이었다. 피난민들 중에는 장사에 뜻을 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점상을 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상인들은 길모퉁이의 판자집이나 초가집 추녀 밑에 좌판을 설치하고 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P.X물품(양담배, 양주, 껌, 과자류 등)들을 진열하는 것이 고작 이었다. 그러나 귀향민과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수요가 급증, 좌판이 20~30개로 늘고 쌀, 부식 등 생필품 거래도 시작되었다. 미곡상, 잡화상, 의류상, 부

식품가게 등이 속속 들어서 시장은 점점 번창해 갔다. P.X물품은 미군부대의 종업원, 양공주들이 공급하였으며, 의류와 잡화, 쌀은 초기에는 강릉에서 구입하여 오다가 후에는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조달하였다. 특히 쌀은 인근 양양, 간성산으로는 태부족 이어서 생선트럭으로 서울에서 공급받았다.

제1군단과 미군 그리고 일반인(주로 피난민)들이 속초의 좁은 공간에 운집한 상경기는 자연적으로 호황을 이루었다. 유흥, 요식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시장(영랑)을 중심으로 다방은 칼멘, 방가로, 고복수, 망향, 카바레로 비비, 신고아라, 요정으로 국일관, 음식점으로 사육관, 원산식당, 동일면옥 등이 번창하였다. 이때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예인단(악극단) 출연이 잦았는데 고복수, 황금심, 황해, 백설희, 김승호, 김희갑, 허장강 등 연예인들이 속초에 상주하기도 하였다. 가수 고복수, 황금심 부부가 피난민들의 요청으로 “타향살이”를 부를때면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문화, 보건, 숙박시설도 뒤따랐다. 극장으로 밀림, 속초, 중앙, 인쇄소로 중앙, 속초, 의원으로 협인, 백, 오, 대동, 김성우, 구호, 구세군, 강원도립 속초, 약방으로 해동, 강원, 원산, 목욕탕으로는 보건, 청호, 정일, 은하, 낙천, 사진관으로 백마, 평화, 승리, 남바완 그리고 「동해일보」제호의 신문도 발행되어 특히 피난민들에 전황을 신속하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53년 휴전에 이어 다음해 국군(1군단)과 미군부대가 이동하면서 영랑동 시장의 상경기는 빛을 잃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어협 위판장이 있는 중앙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56년도에는 중앙시장이 건립된 것이다. 이어 청학, 청호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중앙시장은 90년도 구 상가건물을 정비하여 500여 개의 점포를 가진 현대식 건물로 변모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53년 4월 속초에 왔다. 영랑시장에 좌판을 차리고 꽃감, 군계급장, 모자, 만년필, 화장품 등 피난살이 첫 장사를 했다. 휴전이 되어 군인들이 떠나면서 영랑시장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중앙시장에 쌀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다가 60년 들어 중앙극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제일극장을 인수했다. 61년 5·16혁명 후 쌀 가격통제와 정부미 다량 방출로 쌀장사가 시원치 않아 폐업하고 극장 사업에 힘을 쏟았다.”⁴⁾

50년대 속초시의 문화, 보건, 숙박 및 서비스 제조업 종별로 간추려본다.

4) 이원익 (강원도 회양군)

유흥, 요식업	동일면옥(영랑), 원산식당(영랑), 국일관(영랑), 사육관(영랑), 함흥면옥(중앙), 금강원(중앙) 서울별관(금호), 대명춘(영랑) 대흥면옥(영랑)	학 원	명신고등공민학교, 씨얼학원 재건중학교
		다 방	칼멘, 방가로, 망향, 고복수, 샘
		카바레	비비, 신고아라
		인쇄소	중앙, 속초
사진관	백마, 평화, 승리, 남파완	벽돌공장	삼일기업, 광진, 통일기업
약 방	해동, 강원, 원산, 중앙, 속초	양조장	세기, 복록주, 석천, 속초, 평화, 금성, 낙천
극 장	밀림, 속초, 현대(동보) 중앙, 제일, 대원		목욕탕
	기계, 철공소	동방, 이성, 석산, 원일, 동아, 중석, 단천	조선소
연탄공장	삼표, 강원, 속초, 정일, 합동	병 원	대동, 협인, 백, 오, 제중, 김성우, 구호, 구세군, 강원도립 속초
목재소	삼화, 함흥, 무림, 인제, 대성		신 문
여 관 여인숙	동신, 속초, 향도, 원산, 설악, 비선, 와선, 영화, 평북, 창동, 문화, 강원, 중앙, 강릉, 협신	보육원	영랑(초기천주교에서~후 낙산흡수)
			버 스
교회, 성당	감리교(속초), 장로교(중앙) 천주교(동명·교동), 천도교(금호)		

속초시 서비스업소 현황

년도별	여관,여인숙 (호텔포함)	여행사	음식점	다 방	이미용	목욕탕	유기장	휴게실
1966	77		105	5	60	5	4	
1968	80		95	7	71	5	5	
1970	100		93	10	96	8	3	
1972	128		100	16	96	5	8	
1974	156		221	18	99	5	11	
1976	179		275	18	89	8	10	1
1978	110		283	16	84	12	9	1
1980	145		330	36	92	14	32	4
1982	165	6	315	54	96	14	31	6
1984	218	6	404	65	106	12	44	7
1986	212	7	442	82	121	17	68	12
1988	219	7	478	77	122	17	75	16
1990	235	8	579	71	129	19	80	17
1999	248	12	1,609	104	224	28	61	164

자료 : 속초시『시정30년사』, 『속초통계연보』

실향민 초기에 많이 집중되었던 어업 및 수산업에서 최근 상업으로 많이 이전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실향민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가. 판매업

속초 지역의 상업은 외지 관광객의 유입, 레저 관광시설의 점차적 증가로 활기를 찾게 되었으며 1999년 현재 도소매업 2,458업체에 종업원수가 무려 5,409명에 이른다. 속초시의 총판매업 업소 974개중 식, 음료품 판매업소가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농산물 판매업소로 17.9%, 의류 및 장식품 판매업소가 13.8%이다.

나. 음식, 숙박업

음식, 숙박업소의 증가 추세를 보면 속초시가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자취들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도소매업에 못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8년 현재 2,203업체에 종사자수 6,030명에 이르고 있다. 피난민 중에서 숙박업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48년 2월달에 단독 월남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처하고 아들이 하나있다. 그 외 가족은 다 나왔다. 이모네집이 서울역전 앞 남대문에서 남산여관을 하고 있어 그곳으로 왔다. 월남할 때 걸어서 왔고 황해도 해주로 해서 벽성군 청단으로 넘어왔다. 60년도에 속초로 와서 정착했다. 초기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심지어 여기와서 오징어잡이도 했다. 지금 현재는 여관업을 운영중이다.”⁵⁾

“45년 12월 5일에 월남했다. 부모님은 농업을 하셨고 월남이유는 사상문제가 싫어 나왔다. 자유당 때 정치생활을 하다가 일이 안돼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돈이 없어서 의지할 데도 없

5) 석찬익 (황해도 은륜군)

고 해서 1958년 8월 속초에 오게되었다. 월남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열악한 생계 조건(막노동, 오징어잡이 등)이었고, 현재는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다.”⁶⁾

다. 서비스업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특징이다. 여기서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을 제외한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말하며 특히 건설업, 전기, 가스업도 3차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의 개인 서비스업 역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소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0년 1월 월남했다.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작은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과수원에 맨 처음 정착했다. 월남했을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먹는 것이었다. 현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⁷⁾

“국군이 복진했을 당시에 여기서 현지 임대를 하고 국군들과 같이 월남을 하였다. 그때가 1·4후퇴 때 일이다. 월남 할 때는 일시 피했다 다시 수복하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왔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1953년도에 장교로 임관, 장교생활 하면서 후방과 전방도 같이 전전하면서 근무하였다. 그때는 직업군인이었고 장교였으니까 휴전 후부터 대략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⁸⁾

라. 중소기업

속초시의 기업체 현황을 보면 1969년도에서 최근까지 지나오면서 매년 기업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속초의 기업체가 꾸준하게 성장하지 못한 요인은 몇 가지로 나누

6) 계익선 (평안북도 강계군)

7) 석기동 (함경남도 원산시)

8) 주종철 (황해도 은율군)

어 볼 수 있다. 첫째,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이고, 둘째 업종자체가 원료나 환경조건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며 셋째, 접적 지역이라 심리적 투자기피 현상과 군사작전지역상 지나친 제약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업종을 보면 조선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식품가공업, 제재업, 기계 제작업 순이다. 특히 제재업이나 조선업은 목선제조가 거의 기피되고 산림자원의 고갈과 함께 이러한 기업들은 상당수가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던 것이다.

1961년도 통계자료엔 연탄공장이 10군데, 도정업이 15군데, 조선소가 6군데, 어간유공장이 5군데, 주류공장이 5군데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68년도엔 선박과 관련된 조선공장이 21군데 있었고, 연탄공장 10군데, 도정업, 제재소가 11군데, 어간유공장이 7군데로 유지하고 있었다. 1972년도 통계를 보면 부력기와 공장이 8개로 제일 많았고, 어선 건조 수리하는 조선공장이 7군데, 어간유공장이 6군데, 연탄공장이 2군데였다.

주요 기업체 현황

업종별	구분	공장수	생산품목
1969		121	-
1970		84	-
1971		67	-
1972		51	-
시멘트가공		8	부력기와
조선공장		7	어선신조수리
어간유공장		6	어간유
연탄공장		2	연탄제조
기계제작업		6	선박기계수리
공예품제조공장		2	목각인형절구
제재업		3	목재
인쇄업		2	각종인쇄
제과업		3	과자

자료 : 속초시『속초시통계연보』, 1973

“50년 11월 5일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월남하여 2년간 살다가 속초로 와서 48년 동안 살고 있다. 속초로 정착하게 된 이유는 이북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남한으로 와서 생활이 안정된 때는 1975년부터 공무원 일을 하면서부터였다. 현재직업은 정화조, 폐기물관리를 하고 있다.”⁹⁾

“51년도 10월경에 월남하였다. 한 3개월 동안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 가는걸로 생각하고 나왔다. 이웃사람들과 한 30여명이 선박으로 해서 왔다. 거제도수용소에서는 석 달 또는 넉 달 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일년 내내 있는 사람도 있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물자와 양곡 같은 것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배급제도가 있어 지원양곡으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속초에서 집 이라는게 판자집 이었고 그 판자로 비만 안새게하고 지붕 밑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65년도부터 건설회사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¹⁰⁾

“50년 12월 24일 월남했다. 이북에서 부모님의 직업은 수산상업을 하셨으며, 아버님이 먼저 월남을 하셨고, 그 뒤 어머니와 함께 왔다. 아버님이 먼저 월남하신 이유는 집안에 지식이 많아 공산군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거제도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 1~2개월 머물렀고, 1957년도에 속초로 왔다. 현재 LPG가스 충전소를 경영하고 있다.”¹¹⁾

마. 공무원

속초문화원에서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피난민들 중에 의외로 공무원 출신이 많았다. 응답자 전체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다. 현 동문성 속초시장도 피난민중의 한 분이다. 현재 속초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피난민 2~3세가 30% 정도나 된다.

“46년도에 기차를 타고 가족 모두 함께 월남,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60년도에 양양군청에 공무원으로서 출발하였다. 속초시로 승격되던 해 63년에 속초로 자리를 옮겨 94년 청학동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4년간 공직에 몸담아 왔다. 지금은 여러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9) 김기호 (함경남도 이원군)

10) 박승호 (함경남도 흥원군)

11) 홍영진 (함경남도 함주군)

하고 있고, 현재 속초지구 5도민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¹²⁾

“50년 12월 8일 배를 타고 월남했다. 주문진을 거쳐 포항에 갔고, 포항엔 거쳐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한 열흘을 어떤 막사에 있다가 미군 L.S.T를 타고 여수로 갔다. 53년 10월에 서울에서 한 오년 동안 살았고 성균관대학교 법정대에 들어갔다. 학비 조달이 어려워 군대를 갔고, 제대해 여기서 61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¹³⁾

“45년 9월 기차를 타고 월남했다. 속초에 온 이유는 정착 할 작정으로 왔다. 속초상고에서 초대교사 때문에 왔다. 피난민 수용소 경험은 없었다. 속초에서 집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관청 소유였던 집을 내 명의로 옮겼다. 여기로 이사온 해는 1983년으로 17년정도 됐고 월남하여 생활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북 사람이라는 편견과 아무 것도 지니지 않은 채 일어서기가 가장 힘들었다. 동양척식과 라는 곳을 2년 반 동안 다녔었다.”¹⁴⁾

바. 전력공급

1933년에 박상희(초대읍장)가 속초발전을 촉진하고자 전기유치의 결의하여 지역인사와 민간인의 협조를 얻어 경성전기주식회사에 의해 현재 중앙동(구, 중앙동사무소자리)에 1,500마력의 발전기로 출력 800kw의 화력발전소를 설치하여 간성, 양양까지 송전하였다. 일제말기 중일전쟁으로 전쟁물자 징발로 발전기를 일본군부에서 철거해 가고, 통천군 추지령 수력발전의 전기를 인입하여 대체하다가 6·25동란으로 절단되었다. 수복 후 군부대에서만 부대별로 자가발전기에 의해 점등하였을 뿐이었으나, 정착 민가가 증가하자 54년 이동근 사장, 김진화 발전소장으로 한 동해전기주식회사가 설립되어 180마력, 60kw의 출력을 가진 미제 발전기 시설로 속초읍내만 일몰시 송전하고 자정에 정전하는 송전제한 방식으로 전력공급을 하다가 55년 일제디젤로 교체하면서 250마력에 160kw의 출력으로 가동하였다.

그러나 전력수요와 공급의 투자문제로 56년 서울의 장수달이 동해전기를 인수하고 현

12) 유창영 (함경남도 회산군)

13) 이원식 (함경남도 북청군)

14) 이호순 (함경남도 이원)

한전자리로 발전소를 이전하여 600마력 350kw를 증설, 총 534kw로 늘리고 우풍전업 주식회라고 명명하였으나 전기가설 신청의 급증과 노후 된 3대의 발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수시 정전되고 전력부족으로 인한 가설제한을 하는 등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63년 시로 승격되자 시설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전력 유치가 지역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떠올랐고, 당시의 김동석 속초시장이 주축이 되어 지역인사를 규합 64년 1월 8일 속초시 전력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인근 양양, 고성군과 연합한 영북지구 전력 대책 연합위원회를 64년 1월 23일 구성하여 정부 및 관계요로에 건의 등 추진, 전개하였다.

64년 6월 25일 상공부장관이 '수복지구 전기복구 공사비 추경예산 계상의 건'을 상정하여 총 공사비 1억 5천 4백 만원 중 국고보조 5천 만원을 장기 기채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64년 7월 16일 전기가설추진위원회 대표 김동석 시장과 한국전력간 전기가설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지방수용가 부담 2천 만원의 염출 어려움을 겪다가 중앙에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전달하여 우정자금을 우선 용자받기로 협의되어 64년 8월 22일 전력복구 기공식을 갖고 착공되었으며, 강릉~속초간 72km의 고압선 시설을 수 개월내에 속성 완공하여 동년 12월 23일 준공과 더불어 점등식을 거행하였다. 속초시 2구에 있던 기존 관동전기회사 발전소와 전기시설을 64년 11월 27일 2백 만원에 한전에서 매입, 변전소를 시설하였고, 65년 1월 1일 한국전력강릉지점 속초출장소가 개설되었다. 기존 관동전기회사에서 관리하던 옥내선 시설 등 미비로 일반가정에서 실질적 전기혜택을 받기까지는 그 후 수년이 걸렸으나 이 지역의 전력유치사업은 60~70년대까지의 최대의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사. 금융

속초의 금융기관은 읍 당시인 56년 농업은행 양양지점 속초출장소가 처음 개설되어 금융업무를 개시하였고, 61년도에 농협중앙회 양양군조합 속초지소로 승격하여 속초지역 금융기관의 효시가 되었다. 속초시로 승격된 해인 63년 2월 1일 국민은행 속초지점이 설립됨으로서, 2개 은행으로 늘어났고, 예금고의 급속 신장으로 농협속초지소의 경우 전년도 예금고 32백 만원에서 63년도 1억 6천여 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국민은행은 2천 3백

만원의 예금고를 기록했다. 이어서 66년 상업은행 개점을 비롯하여 속초시 수협, 신용업무 취급, 강원은행 지점개설 등으로 금융기관이 확충되어 왔고, 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마을금고의 설립이 개시되면서 비 통화금융기관도 대폭 증가하였다.

금융기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통계연보, 속초시지, 금융기관단체)

기 관 명	설립년월일	비 고
농협중앙회 속초지부	61. 8. 15	92. 1. 1 지부 승격
속초어업협동조합	62. 4. 1	(77. 4. 1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국민은행 속초지점	63. 2. 1	
한국상업은행 속초지점	66. 9. 26	99. 1. 2 한일은행과 합병(한빛)
속초농업협동조합	69. 9. 23	
속초신용협동조합	72. 11. 5	
강원은행 속초지점	74. 9. 10	
청호동새마을금고	74. 12. 24	
중앙동새마을금고	75. 11. 12	
영랑동새마을금고	77. 7. 5	
금호동새마을금고	79. 2. 25	
장사동새마을금고	79. 4. 9	
동명동새마을금고	79. 6. 20	
청학동새마을금고	79. 8. 27	
교동새마을금고	79. 9. 17	(전신, 부녀마을금고 76. 8. 30)
속초축산업협동조합	87. 6. 26	상호금융업무 개시
보람증권 속초지점	88. 2. 26	전 동남증권
한일은행 속초지점	90. 1. 18	99. 1. 2 상업은행과 합병(한빛)
조흥은행 속초지점	91. 7. 8	
설악신용협동조합	92. 4. 6	
한국주택은행 속초지점	92. 8. 11	
금강신용협동조합	94. 1. 21	
동화은행 속초지점	95. 11. 21	98. 6. 29 신한은행과 합병
중소기업은행 속초지점	96. 9. 23	
신한은행 속초지점	98. 8. 3	98. 6. 29 동화은행과 합병

우 리 나 라 의 통 화 조 치		
통화조치의 시기	화 폐 단 위	교환비율
1950. 8. 28	조선은행권 원(圓) - 한국은행권 (圓)	1 : 1
1953. 2. 17	원(圓) - 환(還)	100 : 1
1962. 6. 10	환(還) - 원	10 : 1

아. 도선渡船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 주고있는 도선 갯배는 일제말기에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생긴 것이다. 당초 부월리2구(청호동)와 속진(중앙동)이 맞닿아 있던 것을 준설, 외항과 내항(청초호)이 통수되고 폭 92m의 수로가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도선에 이용하였는데, 당시의 갯배의 크기는 트럭한대와 우마차 한 두대를 같이 실은 크기였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폐선, 그후 수복이 되면서 거룻배(중선)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때에 소위 조막손 영감(김영학, 金永學)이라고 불려진 이가 주업으로 하였는데 물론 자기소유의 거룻배를 이용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피난촌 청호동민들의 불편은 여간 아니 었다. 특히 자전거나 손수레의 이용은 더 어려웠다. 그후 민정이 되면서 55년초 속초읍에서 지금 모양의 갯배 1척을 만들어 5구(구장 김무림)에 관리를 맡겼다. 61년 한 척을 더 만들어(철성 조선소 제작)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지회장, 마장건)에 위탁운영을 하였다.

속초시는 88년에 다시 청호동 개발위원회에 위탁 운영,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98년에 40,000천원을 들여 35인승 FRP선으로 개조한 것이다. 시는 연간 선부 4명의 노임으로 40,800천원을 주면서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항시키고 있다. 피난촌 청호동민들에게는 처음부터 무료혜택을 주고있는데, 도선료는 편도가 대인 150원, 소인 80원, 자전거, 오토바이 150원, 손수레 200원을 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의 유료 이용객 수가 모두 117,823명이었다. 피난민촌 청호동민의 이용이 연간 20만이 넘는다. 속초피난민들의 애환이 설인 갯배- 정녕 속초의 상징이다.

지금까지 피난민들의 삶과 경제생활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구조별로 살펴해보았다. 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피난민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역사였으며 애환이었고, 고통이었고, 숨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일주일만, 또 어떤 이는 한 달만 머무르고 돌아가리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더 살게 된 것이 지금껏 속초에서 터전을 잡아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뉘니뉘니 해도 의식주 해결이었던 것이다. 배고픔과 굶주림이 죽음을 엄습하였고, 몸 하나 의지할 만한 주거지도 마련치 못하면

서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과 정열은 이들의 끈질길 생명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생계를 잇기 위해 어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상업(장사)이었다. 이들의 강인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역민들에게 피난민이라는 편견과 차별을 무척이나 인내하고 생활해 오면서도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지닌 채 살아왔던 것 같다. 속초시 내에서 이제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정을 담당하는 동문성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30%정도가 피난민 2~3세라 하니 가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들이 속초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속초에 정착해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성공했는데 이는 속초시민들이 그만큼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성공한 것이오, 속초시민들이 다들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늘린 거야. 그래서 나도 장학재단에 2억원이란 돈을 출연해 가지고 3년 계속 1,500만원씩 매년 학생들에게 주고 있어. 앞으로도 이 장학재단은 계속 발전 될 거야.”라며 속초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어느 피난민의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제Ⅱ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문화와 생활사



- 제1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음식
- 제2장 속초 피난민의 민속
- 제3장 피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언어
- 제4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사회복지 · 환경 · 교육
- 제5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환경
- 제6장 문학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



제1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음식

황 재 희(영동전문대 호텔조리과 교수)

향토 음식이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그 지방의 조리법으로 개발한 음식으로 현재에도 그 지방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고장의 겪어 온 정치, 경제, 문화 변천의 영향을 받으며 기후, 지세 등의 자연 배경에 순응하면서 개발된 것으로 그 지방 특유의 방법으로 만든 음식으로 독특한 맛과 조리법이 있다.

우리 나라 향토 음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는 면적이 작지만, 각 지역의 기후, 풍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산물이 다르고 기후도에 차이가 나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 민족은 농경이 주업인 민족이어서 곡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주식과 부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지형적으로 북부 지방은 산이 많아 밭농사를 주로 하므로 잡곡밥을, 남쪽 지방은 쌀 농사를 주로 하므로 쌀밥과 보리밥을 먹게 되었다. 찬으로는 김치류, 짬짜리류, 젓갈류, 장류 등과 같은 저장 식품이 발달되었다. 또한 음식의 맛이 다양하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음식의 간은 그 지방의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남쪽 지방은 음식의 간이 세고 매운 맛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젓갈과 조미료를 많이 쓴다. 반면 북쪽 지방은 기온이 낮으므로 남쪽 지방보다 싱겁고 매운맛이 덜하며 음식의 양도 푸짐하다.

특히, 북한의 향토 음식은 추운 기후 특성과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의 조리 활용도가 뛰어나며, 조미료를 적게 사용하여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의 맛과 신선미를 함께 느낄 수 있으며, 화려한 겉모습과 자극적인 맛의 음식보다는 먹음직스럽고,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살아 있다. 옛 고구려의 기백이 담겨 있는 듯 음식을 크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는 문화의 교류에 따라 조리법이 변하고 교통의 발달로 인한 식품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인스턴트식품의 대량생산과 화학조미료, 향신료의 사용으로 고유한 향토 음식의 맛이 많이 상실되어지고 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는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한 음식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전통 음식을 정리할 뿐 아니라 속초 지역에 거주하는 실향민들만의 특색 있고 고유한 음식 문화를 전승, 발굴하고 전통적인 향토 음식으로 보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조사 방법은 속초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피난민들 중 연세가 많으시고 조리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직접 찾아 면담을 하였다. 북한에서 자주 만들어 먹었던 음식 중 남하하여 속초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나 정착 후 일반화된 음식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정리하였다.

북한의 음식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황해도 음식, 평안도 음식, 함경도 음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이북에서 남하한 실향민들의 생활 문화가 반세기 동안 속초 지역에 정착하면서 기존 속초의 문화에 흡수되었고,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고유한 것도 잔존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속초지역 음식과 유사하였다.

또한 그들이 남하시 나이가 평균 15~20세 안팎으로 어머님께서 해주었던 음식들을 기억하여 정리해 주었고, 남자 혼자 남하한 사람들은 남쪽 여성이나 속초지역 여성과 결혼하여 예전 북한 음식은 거의 해먹지 않고 어렸을 때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속초에 거주하면서 먹는 향토 음식과 지역마다 보존되어 명절 때나 행사시 또는 간식, 일상식에 주로 먹고 있는 북한 음식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1. 속초의 향토 음식

□ 도루묵(명태) 칼국수

칼국수에 생선을 넣어서 끓인 음식으로 냄비에 물을 붓고 적당량의 고추장과 된장을 풀고 호박, 감자를 넣어 끓이다가 생선을 넣어 끓인다. 생선이 다 익으면 생선 가시를 발라

내고 칼국수를 넣고 끓이면서 다진 파, 다진 마늘, 후추, 깨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 회국수

국수는 끓는 물에 삶아 놓고 가자미는 뼈째로 썰어서 양념장에 무쳐 놓는다. 양념장은 고추장에 고춧가루, 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어 만든다. 깻잎, 상추는 깨끗이 씻어 채 썰고 배도 채 썬다. 육수는 물에다 멸치, 다시마, 간장, 된장을 넣어 끓여 간을 맞추어 놓는다. 대접에 삶은 국수를 담고 양념한 가자미와 채소와 배를 얹어 비벼 먹는다. 회국수는 비빔국수로 소면을 적당히 삶아서 이용하고 육수를 만들어 곁들여 낸다.

□ 평양냉면

냉면 국물은 꿩을 삶은 육수가 으뜸이나 보통 사골이나 쇠고기로 끓인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합하여 만든다. 국수 위에는 편육과 동치미 무 썬 것, 오이생채와 배 채썬 것, 삶은 계란을 얹는다.

□ 함흥냉면

함경도는 감자녹말 국수로 냉면을 만든다. 물냉면도 만들지만 함흥에서는 가자미 날 것을 회로 쳐서 매운 양념 고추장으로 무쳐서 국수에 얹어 먹었다고 한다. 지금은 흥어를 구하기 쉬워 식초에 재웠다가 맵게 무쳐서 얹는다.

□ 황태복어해장국

황태는 두들겨 살을 발라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송송 썬 배추김치와 콩나물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이 때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한 후 끓으면 달걀 줄 알을 친다.

□ 순두부

대두는 꺾고 좋은 것을 골라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물에 불렀다가 맷돌에 간다. 끓인 물에 같은 콩물을 넣고 끓인 후 가는 체에 부어서 거른다. 거른 콩물을 다시 끓이면서 간수를 넣고 주걱으로 저어 주어 약 10분간 놓아두면 두부가 엉긴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참기름을 쳐서 먹는다.

□ 명태조림

뿌듯하게 말린 명태를 5cm 크기로 토막을 내고 냄비에 무를 깔고 명태를 올려 간장 양념을 끼얹어 가며 조린다.

□ 송이버섯 박고지 볶음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찢어 놓고 박고지는 물에 불려 찢어 놓는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박고지, 송이버섯을 넣어 볶으면서 양념을 한다.

□ 가리비꼬지

가리비는 살짝 데쳐 살을 발라내고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찢어 양념하여 볶는다. 피망과 붉은고추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고 꼬지를 준비하여 여러 재료를 색을 맞춰 끼우고 끝에 호일로 마무리한다. 꼬지에 달걀 물을 적신 후 팬에 살짝 지지 낸다.

□ 미역 나물

생미역은 데쳐 놓고, 쇠고기는 양념하여 볶아 놓는다. 큰그릇에 볶은 쇠고기, 생미역,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소금, 참기름, 식초를 넣어 무친다.

□ 콩치된장구이

콩치는 깨끗이 손질한 후 된장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콩치 앞뒤에 바른다. 석쇠를 달군 후 식용유를 바르고 콩치를 올려 노릇하게 구워 낸다.

□ 오징어 불고기

오징어의 배를 가른 후 내장을 빼고 앞뒷면에 칼집을 사선으로 얇게 넣고 정종,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생강즙, 간장을 혼합하여 양념장을 만든다. 오징어는 물기를 닦아 낸 후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바른 뒤 석쇠에 구워 낸다.

□ 오징어순대

오징어는 배를 가르지 않고 내장과 다리를 떼어놓는다. 찹쌀밥과 각종 채소를 볶아 고추장과 양념을 넣어 섞어 놓는다. 오징어의 속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속을 채워 넣고 산

적꼬지로 입구를 꿰맨다. 소를 넣은 오징어를 찜통에 찌서 식은 후 썰어 낸다.

□ 명란젓

생태의 알에 소금을 뿌려 보름쯤 절인 후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엿을 넣고 버무려 하루 정도 재운 후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 창란젓

명태의 창자를 소금에 절였다가 속을 훑어 깨끗이 씻어 소금을 뿌려 보름 정도 삭힌 후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엿 등을 섞어 골고루 버무려서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 오징어젓

오징어의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담아 소금에 절여 푹 삭힌 후 먹을 때 소금을 씻어 내고 껍질을 벗겨 채를 썬다. 무는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오징어와 마늘, 생강, 물엿,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린다.

□ 서거리젓

서거리는 명태의 아가미를 가리키는 말로 소금에 절인 후 간이 베이면 고춧가루로 버무린다. 무는 납작하게 썰어 고춧물을 들인 후 아가미와 섞어 가진 양념을 하여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 오징어식해

생 오징어는 굵게 채 썰고 무는 나박 썰기하고, 마늘, 파, 생강은 다진다. 오징어채와 준비한 양념을 넣어 버무리다가 찰밥을 넣고 2~3일간 삭혀서 먹는다.

□ 동치미

무는 작고 단단한 것을 택하여 깨끗이 씻어 소금에 굴려 항아리에 담고, 남은 소금은 위에 뿌려 하룻밤 재운다. 항아리 맨 밑에 양념 주머니를 넣고 절인 무를 한 켠 놓고 저민 생강, 마늘 주머니와 청각, 홍고추, 삭힌 고추를 얹고 다시 무 담기를 반복한다. 맨 위에 잣과 실과 묶음을 얹고 대나무 잎으로 덮어 떠오르지 않도록 돌로 눌러 준다. 항아리에 소금물을 만들어 가만히 부어 뚜껑을 덮는다.

□ 장떡

된장, 찹쌀가루,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등 모든 재료를 넣어 반죽한 뒤 동글동글하게 빚어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지져 낸다.

□ 호박범벅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속을 긁어 다듬은 후 도톰하게 썰어 놓는다. 냄비에 물을 붓고 호박과 설탕을 넣고 푹 삶아지면 건더기는 건져 놓는다. 삶은 팔과 고구마, 밤을 호박 삶은 물에 넣고 무르게 삶는다. 어느 정도 익으면 찹쌀가루 푼 물을 조금씩 따라 부으면서 주걱으로 놀지 않게 저어 준 후 호박 건더기를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 낸 후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다.

2. 속초의 북한 음식

가. 황해도 음식

1) 특색

황해도는 북쪽 지방의 곡창 지대로 연백 평야와 재령 평야에서 쌀의 생산량이 많으며 잡곡의 질도 좋고 풍부하다. 특히 조는 구수하고 알이 좋아서 잡곡밥을 많이 해먹는다.

또한 곡식은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이 생산되어 가축들의 사료로 이용되는데 질 좋은 사료를 먹는 가축의 고기 맛은 유별하다고 한다.

각 가정마다 닭을 많이 기르며, 닭은 살찌고 맛이 좋아 여러 음식에 다양하게 쓰고 있다. 만두나 밀국수를 즐겨 먹으며, 소로 닭고기를 많이 쓴다. 음식은 구수하고 소박하며 음식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음식의 양이 풍부하고 큼직큼직하게 만든다. 간은 싱겁거나 짜지 않고 충청도 음식과 비슷하다고 한다. 김치는 국물을 충분히 만들어서 냉면 국수나 찬밥을 말아먹기도 한다.

2) 종류

□ 주식류

잡곡밥, 김치밥, 비지밥, 김치말이, 냉콩국, 수수죽, 밀범벅, 밀다갈버무리, 호박만두

□ 찬 류

김치국, 김치순두부찌개, 조기매운탕, 돼비지탕, 애호박찌개, 돼지족조림, 붕어조림, 행적, 대합전, 잡곡전, 개구리구이, 호박지, 순대, 목장떼묵, 호박김치, 동치미

□ 병과류

꿀물경단, 증편, 오쟁이떡, 수리치인절미, 잔치메시루떡, 무설기, 좁쌀떡, 혼인인절미, 혼인절편, 큰송편, 무정과, 닥알떡, 닥알범벅

□ 음청류

연한 식혜

3) 조리법

□ 녹두지짐

녹두를 껍질을 벗기고 분말기에 넣고 간 후 불린 쌀을 곱게 갈아 섞는다. 숙주, 도라지, 고사리, 돼지고기는 각각 양념을 하고 김치, 파, 고추는 썰어 놓는다. 갈아 놓은 녹두와 불린 쌀에 여러 재료를 섞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번철에 지져 낸다. 녹두전은 도톰하고 크게 부친다. <제보자: 이기섭, 남, (수안)>

□ 호박김치

껍질이 파란 조선히박을 껍질째 사용하며, 호박에 속을 채우고 납작하게 썰어 소금에 절이고, 열무도 씻어 절인 후 황새기젓 등을 넣어 양념하여 만든다. 그냥 김치로는 못 먹고 막장을 넣어 얼큰하게 찌개에 넣어 끓여 먹으며 호박이 사각사각하게 씹히는 맛이 특이하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호박만두

애호박 등근 것을 채 썰어 소금에 절여 짠후 숙주, 두부, 고기와 함께 양념을 하여 소로 넣어 만두를 빚는다. 닭은 삶아서 육수를 만들고 고기는 지져 양념하여 꾸미로 올린다. 국간장으로 색을 내고 소금으로 간을 하며 여름 보양식으로 좋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찐지두부

각 가정에서 순두부를 만들어 먹을 때 순두부가 거의 엉겨붙을 때에 썰어 놓은 배추김치와 볶은 김치 국물을 위에 슬쩍 뿌리면 김치 속으로 순두부가 스며 엉겨붙으면 순두부와 김치 국물을 조금 제거하고 살짝 끓여 낸다.

〈제보자: 이만원, 남, (장연군)〉

□ 조잡쌀취떡(차조쌀취떡)

차조 쌀과 취를 찌서 방망이로 찼은 후 아주까리 기름(피마자기름)에 발라 옹기 항아리에 채워 두면 1년을 두고 먹을 수 있다. 숯불에 석쇠를 올려 구우면 탁탁 부풀어 일어나는 것이 특이하며 맛이 아주 좋다. 단오 때 많이 해 먹었다고 한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돼지순대

내장은 소금물로 씻어 분비물을 제거하고 찹쌀 찢 것과 숙주, 우거지에 양념한 것, 선지를 넣어 소금간을 한 후 내장에 채워 실로 묶는다. 된장물이 끓으면 순대를 넣고 10분 정도 끓이다가 꼬지로 찢러 보고 30분 정도 충분히 익힌다. 식힌 후 썰어서 소금 양념을 곁들여 낸다.

□ 좁쌀떡

좁쌀밥을 지은 후 절구에 차지게 쳐준 다음 적당한 두께로 밀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팔고물을 위아래에 묻혀 잣으로 장식하여 낸다.

〈제보자: 이만원, 남, (장연군)〉

□ 행적

배추김치에 밀가루를 입힌 후 달걀 옷을 입혀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 낸 음식으로 정초에 많이 해 먹으며 술안주나 밥반찬에 좋다.

□ 오쟁이떡

황해도 이북 지역에서 해먹는 떡으로 인절미에 팔소를 넣고 오장이 모양으로 큼직하게 빚어 만든 떡으로, 오장이란 새끼로 네모지게 엮어 씨앗 등을 담아 놓았던 망태기의 일종이다.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므로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한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조갯살 식해

황해도 연안 지방에서 즐겨 먹는 젓갈류로, 조갯살의 내장을 빼고 씻은 후 소금에 절여 물기를 제거한다.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 엇기름 가루를 섞어 넣고 여기에 조갯살, 잣, 대추,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후 항아리에 담고 밀봉하여 일주일 정도 후에 먹는 밥반찬 및 술안주이다.

□ 남매죽

요즘의 팔죽이나 녹두죽에 찹쌀가루와 밀 칼국수를 썰어 넣어 끓인 죽으로 기호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가미한다. 〈제보자: 이만원, 남, (장연군)〉

□ 청포묵

녹두를 거피하여 곱게 간 후 양금을 얻는데 이것이 녹두 녹말로 녹말 가운데 가장 좋다. 오래 두고 쓸 때는 완전히 말려 둔다. 묵을 쓸 때에는 가루를 물에 풀어서 풀을 쭈듯이 익혀 그릇에 부어 굳힌다.

□ 김치밥

겨울철에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양념하여 볶다가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찻어 놓은 쌀을 넣어 밥을 짓는다. 뜸이 잘 들면 양념장을 넣어 비벼 먹는다. 북쪽 지방에서는 김치밥은 물론 비지밥, 콩나물밥도 즐겨 먹는다. 돼지고기 대신 굴이나 홍합을 넣어도 하기도 한다.

□ 김치말이

추운 겨울밤에 즐기는 야식으로,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닭 육수를 합하여 국물을 만든다. 대접에 찬밥을 담아 김치 국물을 부어서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먹는다.

□ 고수김치

고수를 하룻밤 물에 담가서 독한 맛을 뺀 다음 바지락이나 조개젓, 황새기젓으로 버무려서 김치를 담근다. 그 밖의 김치류로 갓김치, 호박지가 있다. 고수가 맛이 진하면 배추와 섞어서 담그기도 하고, 고수와 쪽파, 고수와 총각김치, 고수겉절이를 담그기도 한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냉공국

콩을 불려 곱게 갈아서 콩물을 만들고 차수수 경단을 삶아 건더기로 넣고 소금간을 하여 만든 콩국이다. 여름철 음식으로 맛이 고소하며 영양가도 높고 시원하다.

□ 돼비지탕

콩을 불려 맷돌에 갈아서 돼지고기, 돼지뼈, 배추김치, 배추우거지, 새우젓, 흰깨를 넣고 끓인 찌개이다. 젓국 대신 양념 간장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며 북한 지방 사람들이 모두 즐기는 음식이다. <제보자: 이만원, 남, (장연군)>

□ 밀낭화(칼국수)

밀을 맷돌에 갈아서 체에 바쳐 가루를 낸 후 반죽하여 국수를 만든다. 고명으로 굴, 조개를 올리고 간장으로 간하여 먹는다. 여름철에 손님 접대로 인기가 좋다.

□ 된장떡

밀가루에 된장을 넣어 반죽한 후 동그랗게 빚어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진다. 약수물 먹으러 갈 때 먹는 음식인데 약수물을 많이 먹으려면 된장떡과 같이 짠 음식을 먹어야 하므로 나온 말이다. <제보자: 이만원, 남, (장연군)>

□ 메밀 동치미 막국수

동네마다 메밀 농사가 끝나면 다 거두어서 방아에 찧어서 큰솥을 걸어 놓고 국수를 삶

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동치미 막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황해도 메밀은 굉장히 질기고 끈기가 많다고 한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칼치젓갈 및 무장아찌

봄에 칼치를 손질하여 몸채, 머리와 내장을 소금과 함께 큰 독에 넣어 삭힌다. 적당히 발효되면 겨울쯤에 메밀밭에 심었던 무를 통째로 젓갈 담근 큰 독에 넣어 장아찌를 담근다. 메밀밭에 심었던 무는 크지 않고 주먹만한데 씹으면 아삭 아삭하고 연하므로 사용한다. 젓갈 담근 독 안에 군덕내가 나지 않게 대나무 잎을 탱기 쳐 덮어 눌러 놓는다. 이듬해 봄에 밭갈이 할 때 노랑게 물든 무를 꺼내어 솥에 찢 다음 채 썰어서 참깨가루와 참기름,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 무쳐 밥반찬으로 이용한다. 또한 젓갈 담글 때 뿐 아니라 김치와 된장 담글 때에도 위에다 대나무 잎을 덮어 눌러 준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감자장아찌

큰 감자를 통째로 껍질을 깎아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늘에 3~4일 말린 후 망에 넣어 고추장, 된장, 막장 단지에 넣었다가 봄에 꺼내어 적당하게 썬다. 썬 감자를 밥솥에 찌서 참기름, 참깨가루, 설탕 등에 무쳐 밥반찬으로 쓴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닭백숙

닭을 깨끗이 손질하여 마늘, 찹쌀, 대추, 인삼, 황기등을 넣어 푹 고아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다.

□ 밀다각범벅(떠덕범벅)

통팔을 삶아 버글버글 끓을 때 밀가루를 노릇하게 반죽하여 수제비처럼 뜯어 넣어 푹 끓인 후 꺼내어 뭉갬다. 밀가루 대신 감자 가루를 넣어도 맛있다.

□ 수수부꾸미

수수는 깨끗이 씻어 떫은맛을 우려내고 뿡아 소금을 넣어 간을 한다. 팔은 찌서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한다. 반죽한 수수는 동그랗게 빚어 팬에 지진 후 팔소를 넣고 잣과 대추

로 장식한 다음 뜨거울 때 설탕을 뿌려 낸다. 부꾸미 재료로 찹쌀, 차수수, 녹두 등이 이용되며 찹쌀부꾸미도 수수부꾸미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 동치미

메밀밭에 심었던 무와 갓, 쪽파를 넣어 동치미를 담그며, 군덕내를 방지하기 위해 위에 다 대나무 잎이나 바삭 말린 들깨나무를 덮어 탱기친다. 메밀밭에 심은 무는 아주 크지도 않고 주먹만하며 아삭아삭하고 연하여 동치미용으로 좋다고 한다.

〈제보자: 정옥준, 여, (장연군)〉

나. 평안도 음식

1) 특색

평안도는 기후가 춥고 산세가 험하다. 서쪽은 서해안과 접하고 있어 해산물이 많고, 동쪽은 산이 높고 험하지만 들판도 넓어 산채와 밭곡식이 풍부하다. 특히, 신의주 평야나 안주 평야 등에서 비교적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잡곡 중에서 보리보다는 조를 많이 생산한다. 평안도 사람의 성품은 진취적이고 대륙적이어서 음식도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푸짐하다. 메밀로 만든 냉면과 만두국 같이 가루로 만든 음식이 많으며 국수를 즐겨 먹는 편이다. 또한 콩과 녹두 음식이 많은 것도 큰 특징이다.

추운 지방이라 기름진 육류음식을 즐겨 먹으며, 간은 맵고 짜지 않고 싱거우며 음식은 모양보다는 소담스럽게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양의 음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평양냉면, 순대·쟁반·온반이 유명하다.

2) 종류

□ 주식류

평양냉면, 온면, 강랑국수, 평안 만두국, 온반, 김치말이, 닭죽, 어복쟁반, 생치냉면, 굴린만두

□ 찬 류

돼지순대, 녹두지짐, 콩비지, 꽃게찜, 고사리국, 내포중탕, 오이토장국, 돼지고기구이, 무공더덕전, 도라지장아찌, 냉채, 가지김치, 영변김장김치

□ 병과류

노티, 조개송편, 송기떡, 무지개떡, 골미떡, 꼬장떡, 빵떡, 니도래미, 찰부꾸미, 과줄, 건과류, 엿, 태식, 돌배

3) 조리법

□ 노티

참쌀가루와 기장 및 수수가루에 엿기름 가루를 넣고 버물 버물 섞어 젖은 행주를 깔고 찌낸다. 찌낸 떡에 나머지 엿기름 가루를 솔솔 뿌리면서 고루 반죽한다. 반죽한 것을 항아리에 담아 뜨거운 방에 푹 덮어 5~6시간 삭힌다.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동글납작하게 빚어 팬에 노릇하게 지져 낸 후 항아리에 설탕을 뿌리면서 차곡차곡 담아 재워둔다. 주로 명절 음식상에 차리며 맛이 달고 새콤하며 쫄깃쫄깃하며 끈기가 있다.

〈제보자: 백여환, 남, (평양)〉

□ 은반

일종의 장국밥으로 녹두 녹말로 지단을 부쳐 채 썰고, 계란지단도 부쳐 채 썬다. 양지머리와 사태를 편육으로 썰어 양념에 무친다. 늦주발에 밥을 담고 편육 무친 것, 지단, 실고추를 얹어 육수를 붓는다. 두부를 꼭 짜서 양념하여 보슬보슬하게 볶은 후 밥에 얹기도 한다.

□ 굴만두(굴린만두)

밀가루를 반죽하여 동글고 얇게 밀어 배추김치, 숙주, 두부, 돼지고기로 소를 준비하여 만두피에 넣어 장국에 끓인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소로 빚은 것을 밀가루에 굴려서 다시 손으로 주물러서 냉수에 넣었다 다시 건져 밀가루를 입혀 더운 장국에 넣어 만두국을 끓인다. 〈제보자: 백여환, 남, (평양)〉

□ 순대

돼지의 창자에 돼지고기와 선지, 두부, 찹쌀밥, 파, 마늘, 생강, 후춧가루, 소금으로 양념한 것을 소로 채워 넣고 양끝을 실로 묶는다. 끓는 물에 넣어 대꼬치로 찢러 가면서 속이 터지지 않도록 충분히 삶는다. 다 찢으면 썰어서 양념 소금을 찍어 먹는다.

□ 돼비지탕

돼지갈비를 토막내어 냄비에 볶다가 콩비지를 넣어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이며, 여기에 배추김치나 배추 절인 것도 함께 넣는다. 이것은 콩을 되게 갈아서 두유를 빼지 않았다고 하여 돼비지라고 한다. 신김치나 김치국을 넣어야 비지가 잘 엉기고 맛이 더 좋다. 돼지고기나 돼지뼈를 넣어 끓여도 구수하고 부드럽다.

〈제보자: 계익선, 남, (강계군)〉

□ 녹두지짐

녹두를 갈아서 숙주나물, 고사리, 돼지고기와 옥수수전분을 조금 넣어 번철에 도톰하게 지져 낸. 주로 설날, 추석때 먹는다. 〈제보자: 백여환, 남, (평양)〉

□ 닭죽

닭을 손질하여 푹 삶은 후 닭고기는 건지고 그 물에 불린 쌀을 넣고 죽을 쑤다. 닭고기는 살만 발라서 가늘게 찢어 풋고추를 많이 다져 넣고 닭고기 양념을 한다. 닭죽에 소금으로 약하게 간을 하고 양념한 닭고기를 얹어 낸다. 예전에 강가에 천엽을 가서 물고기를 잡아 죽을 쑤어 먹는 어죽 놀이가 유명하였는데, 물고기 대신 닭을 가지고 가서 죽을 끓여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닭과 물고기를 함께 넣어 죽을 끓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제보자: 계익선, 남, (강계군)〉

□ 온반(장국밥)

삶은 쇠고기는 편육으로 썰어 양념하고 옥수로 간을 맞춘다. 거피한 녹두를 간 후 녹말을 가라 앉혀서 계란지단처럼 얇게 부쳐 채 썰고 달걀도 황백지단으로 부쳐 채 썬다. 장국 대접에 밥을 담고 양념한 편육, 달걀지단, 실고추, 녹말지단을 얹어 옥수를 붓는다.

〈제보자: 백여환, 남, (평양)〉

□ 가지 소박이

가지에 소를 넣어 만든 김치의 하나로 오이소박이처럼 만든다. 가지소박이에 이용되는 가지는 살이 연하고 자름 자름한 것이 좋다. 평안도 지방에서는 가지로 만든 음식이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가지나물, 가지순대, 가지김치가 잘 알려져 있다. 가지는 단맛과 독특한 질감이 맛을 한층 돋구어주며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다.

□ 팽막국수

생일날이나 평일에 팽을 삶아 육수를 내어 막국수를 끓여 먹었다. 팽고기는 양념하여 웃기로 올린다. <제보자: 계익선, 남, (강계군)>

□ 찰수수지짐

찰수수가루에 소금과 찬물을 넣고 반죽하여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지지면서 팔소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 지진다. 또한 찹쌀가루만으로 반죽하여 지지기도 한다. <제보자: 장문팔, 남, (강계군)>

다. 함경도 음식

1) 특색

함경도는 우리 나라의 제일 북쪽에 위치하며 기후가 가장 추운 지방이어서 벼농사보다 밭농사를 많이 하며 잡곡의 질도 우수하고 많은 양이 생산된다. 주식으로 기장밥과 조밥을 많이 해 먹고, 쌀, 기장, 조, 수수가 매우 차지고 구수하다. 감자, 고구마도 품질이 좋아 녹말을 만들어 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먹는다. 동해안은 리만 한류와 동해 난류가 교류하는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로 명태, 대구, 삼치, 정어리, 청어 등의 생선이 많이 잡힌다. 음식의 간은 짜지 않고 담백하나 마늘, 고추 등 양념은 강하게 쓴다. 함흥냉면은 생선회를 맵게 비벼먹는 것으로 다대기라는 말도 이 지방에서 나온 말로 고춧가루 양념의 별칭이다. 음식의 모양은 먹음직스럽고 크게 만들고, 장식이나 기교를 부리거나 사치스럽지 않다.

2) 종류

□ 주식류

닭비빔밥, 잡곡밥, 찰조밥, 옥수수죽, 열린코죽, 감자국수, 감자 막가리만두, 회냉면, 물냉면

□ 찬 류

가릿국, 다시마냉국, 세천어국(천엽국), 동태매운탕, 비웃구이, 영계찜, 닭섭산적, 가자미식해, 도토리묵식해, 고등어회, 콩나물김치, 원산잡채, 채칼김치, 함경도 대구 깍두기, 봄김치, 동태순대

□ 병과류

오그랑떡, 함경도인절미, 달떡, 찹쌀구비, 괴명떡, 꼬장떡, 언감자떡, 산자, 강정, 과줄, 만두과, 약과, 들깨엿강정, 콩엿강정

□ 음청류

식혜(단감주)

3) 조리법

□ 오그랑떡

불린 팥을 삶다가 팥물이 자작해지면 쌀가루로 경단을 빚어 넣어 익으면 설탕과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고 주걱으로 떡과 팥을 고루 버무려 팥물이 고루 스며들도록 한다. 떡의 모양이 동그랗게 오므라 들은 모양이라 오그랑 떡이라 하였으며 팥물이 경단에 골고루 스며들어 팥의 향기가 진하며 맛이 있다. 떡이 물렁하여 어른과 아이들이 좋아한다. <제보자: 이명월, 여, (단천군)>

□ 콩떡

쌀가루에 불린 콩 간 것을 섞고 소금을 넣어 반죽하여 둥글 납작하게 빚는다. 찜통에 배 보자기를 깔고 한김 오르면 약 15분 정도 찌낸다. <제보자: 임송순, 여>

□ 가자미 식해

참가자미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내장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소금에 절인 후 15~20시간 정도 그대로 둔다. 가자미가 꾸덕꾸덕 해지면 2cm 정도의 길이로 썰어 메조밥, 다진 마늘, 생강즙, 고춧가루, 엿기름가루를 넣어 빨강게 버무린다. 2~3일이 지나면 가자미가 삭으면서 국물이 잘박하게 생길 때 소금간을 한 무를 가자미와 섞어 버무린다. 단지에 가자미 식해를 꼭꼭 눌러 담고 10~15°C 온도에서 약 20일간 익힌다.

〈제보자: 윤정식, 여, (북청군)〉

□ 햇떼기 식해

햇떼기는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에 절여 2~3일간 두었다가 씻어서 5분 정도 물에 담그어 둔다. 좁쌀로 밥을 하여 절여 놓은 햇떼기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생강, 설탕, 깨소금을 넣어 버무린다. 양념한 햇떼기 식해는 따뜻한 곳에 담요를 덮어 익혀야 맛이 나며 담근 후 10일정도 후에 먹을 수 있다. 〈제보자: 윤정식, 여, (북청군)〉

□ 명태순대

함경도는 명태가 가장 많이 잡히는데 특히 명태로 만든 순대가 유명하다. 명태를 절인 뒤에 입쪽에서 내장을 빼내어 깨끗이 씻어 물기를 거둔다. 명태내장, 두부, 삶은 배추와 숙주,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 소금, 된장 등을 모두 섞어 소를 만들어 명태 입쪽에서부터 배속까지 꼭꼭 채워 넣고 입을 아무린다. 김장철에 많이 만들어 꾸덕꾸덕하게 말려 겨울 동안에 찌거나 구워서 썰어 먹는다.

〈제보자: 윤이순, 여, (북청군)〉

□ 콩부침

콩과 불린 쌀을 갈아서 파, 마늘, 풋고추, 돼지고기를 섞어 빈대떡처럼 부친다. 잠곡전이라 하여 녹두가루나 차수수가루를 섞어 부치기도 한다.〈제보자: 김옥근, 여〉

□ 감자국수

감자를 강판에 갈아 체에 바쳐서 건더기는 따로 두고 붉은 물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번 물을 갈아 녹말을 가라앉힌다. 오래 두고 쓸 것은 이 앙금을 말려 쓴다. 체에 거른 건더기와 감자녹말 앙금을 섞어 손바닥만한 크기로 빚어 찜통에 찌서 국수들에 넣고 눌러 뺏다.

국물은 찬 동치미 국물이나 육수로 하고 옷기로 파김치나 갓김치를 엮는데 때로는 돼지고기 편육, 숙주나물, 무김치를 쓰기도 한다.

□ 닭비빔밥

닭고기를 통째로 푹 무르게 삶아서 고기를 가늘게 찢어 맵게 양념하고 콩나물을 데쳐서 양념한다. 뜨거운 밥에 닭고기와 나물을 얹고, 닭국물은 따로 탕그릇에 담아 내며 비빔밥에 닭국물을 조금씩 넣어 비벼 먹는데 맵게 양념하여 먹는 것이 특색이다.

□ 갓김치

싱싱한 갓을 소금으로 절이고 배추꼬랭이는 꾸덕꾸덕하게 말려 섞어 국물을 넉넉히 부어 물김치를 담그면 국물이 붉으스레한 고운색이 난다.

□ 함흥의 보신탕

보신탕의 원고장은 함흥이라고 하며 함경도의 추운 고장에서는 옛날에 개가죽 바지, 개가죽 저고리 등을 입은 풍속이 있었으므로 개고기를 식용에 많이 썼음을 알 수 있으며, 함흥 일대는 개장국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장국을 끓일 때는 먼저 개고기를 통째로 푹 고아서 살을 손으로 찢어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고 간장, 고춧가루, 후춧가루로 조미한다. 조미한 고기를 그릇에 담고 그 위로 끓여 놓았던 맑은 국물을 붓는다. 개장국은 여름 한 때의 보신용 음식으로 쓰인다.

□ 콩나물 김치

콩나물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 후 곱게 채 썬 파·마늘·생강과 실고추, 소금과 함께 항아리에 담고 소금물을 부어 간을 맞춘다. 담근 지 3~4일 정도면 먹기에 알맞다.

□ 북어전

북어는 물에 불린 후 방망이로 두드려 뼈를 발라내고 5cm 길이로 토막내어 껍질 쪽에 칼집을 넣은 후 양념 간장에 재운다. 양념 간장에 재운 북어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 물을 입혀서 기름에 노릇하게 지져 낸다. <제보자: 백희손, 남·68세, (홍남)>

□ 명태전

원래 명태전과는 달리 생명태 또는 반 건조된 명태를 찜통에 찌서 뼈를 추리고 살을 주물러 으갠 후 달걀을 깨뜨려 넣고 쪽파와 맛살을 잘게 썰어 섞은 후 소금과 밀가루를 넣어 반죽한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국자씩 떠 넣어 둥글 납작하게 전을 지진다. <제보자: 김이부, 여>

□ 통김치

김치 속의 양념으로 무,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이 쓰이며 명태, 도루묵, 돼지고기 등을 많이 넣고 젓갈류로는 새우젓을 많이 섞어 넣는다. 생선은 비교적 작은 것을 선택하여 갈집을 넣어 통째로 사용한다. 김치국물은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간이 알맞고 맛이 시원하다고 한다. 그 밖의 채칼김치, 물김치, 대구각뚜기 등이 있다.

<제보자: 박옥순, 여, (북청군)>

□ 함경도식순대

돼지 머리와 무청은 삶아서 다지고 돼지 선지는 삶아서 으깨어 놓는다. 찹쌀은 씻어 건져 놓고 두부는 물기를 짜 놓는다. 큰그릇에 모든 재료를 담고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로 양념하여 돼지내장에 넣어 끓는 물에 삶아 낸다. 이때 내장에 바늘침을 주어 내장 안의 수분을 제거한다.<제보자: 김이부, 여, (북청군)>

□ 미역냉국

생미역은 끓는 물에 데쳐 적당한 크기로 썰어 놓고 대게는 찌서 살을 발라 놓고 오이는 채 썬다. 냄비에 된장과 물을 넣고 끓인 후 식혀서 생미역, 게살, 채 썬 오이를 넣고 얼음을 띄운다. 함경도지역은 게가 많이 잡히며 미역 등 해조류의 생산이 많아 자주 해 먹는 음식 중의 하나이다. <제보자: 조의섬, 여, (북청군)>

■ 참고 문헌

- 강인회, 한국의 맛,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2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대계7(풍속, 예술사 上), 1981
-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한국민족종합보고서(향토음식편), 1987
- 송수권, 남도의 맛과 멋, 창공사
- 이철호, 새로 쓰는 우리 음식 이야기, 유림문화사
- 윤서석, 한국민속조사보고서(강원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87
- 윤서석, 한국음식 역사와 조리, 수학사, 1980
- 염초애 외 2인, 한국음식, 효일문화사, 1999
- 지연태,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방안, 웃고문화사, 1993
- 주영화,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 도서출판 공간, 1991
- 조선료리협회, 만들어보고 싶은 북한 생활요리 맛 자랑 상차림, (주)여명미디어, 2000
- 조선료리협회, 만들어보고 싶은 북한 연회요리 손님접대 일품요리, (주)여명미디어, 2000
- 조선료리협회, 만들어보고 싶은 북한 전통요리 바로 그 맛 266선, (주)여명미디어, 2000
- 최필승, 자랑스런 민족음식-북한의 요리, 북한연구자료선 16, 도서출판 한마당, 1989
- 한복려, 궁중음식과 서울음식, 1995
- 한복진, 전통음식, 대원사, 1989
- 한복진, 팔도음식, 대원사, 1989
- 황재희, 향토음식문화-강원도 영동·영북 지역, 강원미디어, 1998
- 황혜성, 궁중음식 향토음식, 홍보문화사, 1980
- 황혜성, 한국의 요리(Ⅳ 향토음식), 1988
- 황혜성, 외 2인, 한국의 전통음식, 1991



제2장 속초 피난민의 민속

장 정 룡(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원도 속초시는 1945년 남북한 분단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북한 피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는 1999년말 현재 속초시 총인구 88,914명 가운데 피난민이 30,128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지난 1986년 속초의 평균 피난민 비율은 57% 였으나 농촌을 제외한 속초 시내 1구에서 5구까지 피난민 비율은 61%에 달하여 피난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속초를 포함한 고성과 양양 등 영북 지역 전체는 피난민이 현재 48,000여명이므로 속초 청호동을 중심으로 정착촌에 대부분의 피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함경남도 주민들이 모여 살아 속칭 ‘아바이마을’ 이라고 불리는 청호동은 2000년 9월 현재 5,779명 주민 가운데 피난 1세대만 600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전체 2,115세대 가운데 38%인 약 800여 세대가 피난민 가족으로 집계되어 전국 정착촌 거주 세대 2,300세대의 35%가 속초 청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3년 동안 남북한 전체 100만 명 이상이 이동하였고, 수십 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속초지역을 보면 해방기에 3,561명, 동란기에 48,722명이 유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함경남도가 92.9%를 차지하는데 북청·영흥·단천·홍원·이원군의 순이며, 어업종사자가 68.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들은 함경남도 해안출신으로 1·4후퇴 때 가장 많이 월남했으며, 1·4후퇴 후 휴전시, 6·25전쟁 발발시 등이다. 이렇게 모여든

피난민들은 난민이라는 집단 개성을 유지하여, 경제활동과 사회문화활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로작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됨으로써 난민사회는 안정감과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북한 피난민들이 최초의 정착지로 속초를 정한 것은 아니나 '내일이면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휴전선 근처의 고향에 인접한 속초어항으로 유입되었다. 실제로 유입인구가 늘어난 1953년부터 1년간은 난민집단이 무작정 북상하였으나, 1955년 이후에는 집단 거주지가 마련되고 이들 끼리의 결속과 귀속심리, 어업 활발 등으로 머물게 되었다.

속초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함경남도 해안지역 민속문화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민속문화가 토착문화와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선택 가능한 요소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난민의 출신지와 속초는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의 생계가 어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문화요소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속초 피난민의 문화는 함경남도 이주문화 속초해안의 정착문화가 섞여 전승되고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속초 지역과 피난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남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으나 남북간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또는 연말 연시, 명절날 등이 아니면 평소에는 그 관심밖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초시 청호동 마을을 온통 축제의 마당으로 흥분시키고 밤새도록 북과 장고를 두드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던 피난민들은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8·15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영북 지역 피난민은 한 명도 배정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큰 상실감에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명절 또는 남북관계의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속초시는 단골로 등장되고 특히 청호동에 사는 함경남도 피난민들은 단골 초청인사로 인터뷰를 당했으며, 나아가 민족분단 실상과 그 아픔을 보여주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위한 상징적 집단으로 전국적 초점화가 되어 왔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분단이테올로기에 잠재적으로 그리고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희생되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피난민들은 그들 특유의 끈질긴 생활력으로 정착하면서 속초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도적 세력을 만들어 왔으며, 그들의 후손들이 이를 계승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속초 피난민의 민속은 1945년 분단이후, 1950년 한국 전쟁 중 함경남도에서 남하한 1

세대의 주민들의 민속으로 한정한다. 근래 피난민의 숫자가 날로 줄어들고, 북한민속도 쇠퇴하거나 혼재 또는 융합되는 현실에서 이들 피난 1세대가 북쪽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견지하고 있는 생활민속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결국 이산(離散, Diaspora)이라는 한국적 현실에 따른 이들의 생활을 드러냄으로써, 피난민 문화의 정체성을 밝혀내고 장차 남북문화의 이해를 통한 민족통합이라는 원대한 희망도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한국전쟁 이후 80년대까지 전국에 93개의 피난민 정착촌이 있었으나 현재 36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분단 55년 동안 간과되었던 피난민 정체성과 생활, 정착마을의 형성요인, 난민취락 등에 대한 연구가 김형재¹⁾, 김귀옥²⁾, 장정룡³⁾ 등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피난민에 관한 다양한 접근은 현실적 정책만큼이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난민의 사회적 관계나 적응상태, 생활풍습, 세대간의 갈등문제, 문화전승연구 등 아직도 적잖은 과제가 남아 있다.

피난민이라는 용어는 월남민이나 실향민, 북한이주민보다 속초시 피난민의 성격이나 의미를 내포하기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채택되었으므로 본고에서도 준용하고자 한다.

피난(避難)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난을 피해 멀리 옮겨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대나 상황의 특수성을 지닌 난민(難民, refugee)은 일반적 주민이동인 이주(移住, migration)와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월남민(越南民)이라는 호칭은 베트남 전쟁으로 각인 된 월남, 라이파이한의 슬픈 과거를 안고 있는 월남인, 월남사람과도 친숙하게 혼동되므로 적절한 호칭은 아닌 듯하다.

이밖에 흔히 사용하는 실향민(失鄉民)은 고향을 잃고 타향살이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넓은 의미로 보면 속초를 주거지로 삼지만 그 이외의 지역이 고향인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속초에서 사용되는 실향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고향을 잃거나 빼앗겨서 가지 못하는 피난민을 대표하는 폭넓은 호칭이다.

속초의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언어, 음식, 민속놀이 등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피난 1세대는 50% 이상이 자신들의 고향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2세대는 40%내외로 엄밀한 의미에서 속초방언과 함경방언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二重言語,

1) 金炯在, 「東草市 越南難民聚落의 形成過程과 構造의 特色에 關한 研究」, 『지리교육논집』 20집, 서울대 사대 지리교육과, 1988

2)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3)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bilingualism)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청호동은 난민취락(難民聚落, Refugee settlement)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피난민들끼리 동향의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 글은 분단 55년이 된 현재의 시점에 속초시 거주 북한 피난민을 대상으로 민속의 현장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피난민 기억이나 생활관습상의 개인차도 있으므로 북한민속의 전체 현황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50여 년 전 북한민속의 모습들이 피난 후 속초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온 난민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북한민속의 현재적 상황을 정리하였다.

속초 피난민의 민속은 피난민의 정착과 삶이라는 남북분단사 내지 난민사와 일정한 연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해방이후 북한 공산치하를 탈출한 피난민과 6·25전쟁 때 월남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바다를 통해 용이하게 이주가 가능한 함경남도 주민들이 속초로 몰려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월남하였고, 난민취락을 형성하면서 집단으로 생활하였다.

초기에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이질적인 언어관습과 행동양식, 생활풍습, 문화방식 등으로 토착주민들과 융합되기가 힘들었으나 전쟁 중이거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복구기간에 피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명제 하에 대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심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은 공지나 해변가에 임시로 집을 짓고 살면서 직접적인 마찰을 피했으며, 곧 통일이 되어 공산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일념으로 일시적인 거주 방식을 취했다.

경제활동의 경우 대부분 이들이 생업으로 종사했던 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명동과 청호동 일대에 한 두 가구가 모여들기 시작함에 특색이 강한 독자적인 '난민의 섬'(Refugee island)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초에 거주한 북한 피난민들은 나름대로 전통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 토착민과 일정한 민속 문화적 교섭을 가졌다. 그러한 예로 북청도청北靑道廳을 만들어 사자놀음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정서적 갈등을 해결했으며, 도민회를 만들어 결집하면서 강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며 주변 이웃과 공유하면서 원만한 적응을 이루었다. 또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매진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면서 지역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속초 피난민과 그들의 민속은 지금까지 피난 1세대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으므로 시대적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는 복합적 민속문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한 해 동안 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풍습으로 특정한 때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다. 이러한 세시歲時는 일상적인 무시無時와 달리 특정한 지역과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며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의 세시풍속은 실질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으로 민족적 전통의식의 결여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지지층의 약화에서 기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피난민들은 특수한 처지와 현실에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세시풍속을 견지하고 전승함으로써 결속력을 다지는데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세시풍속이 속초의 세시풍속과 습합습속되고 혼재되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도 주목된다.

속초지역 피난민의 세시풍속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의 지리적 특징과 피난민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 또는 산촌과도 다르고, 분단이전의 북한지역 특히 함경남도 세시풍속의 정형을 유지해왔는가의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피난민의 세시풍속은 어업이 생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연력과 생업력이 강하며, 의례력은 함경남도 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 피난민들은 세속명절로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등을 명절로 치고, 추석은 남쪽의 명절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함경남도에서는 제일 명절은 정월 초하루를 치고, 제이가 단오, 제삼이 팔월 추석입니다. 우리 살던 곳에서는 그렇고, 함경도 곳곳이 풍속에 따라 달라요. 여기 나와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정월 초하루를 제일로 치고 제이로 팔월 추석을 치더군요. 대개 이북에서는 정초를 제일로 치고, 단오를 크게 쳐요. 추석은 강원도 사람이나 산에 다니지 함경도 사람은 산에 다니지 않아요. 안가고 한식 때는 가서 메를 올렸지요. 추석보다 한식을 더 중하게 생각했지요.”⁴⁾

가. 정초 세배

음력 정월 초하룻날 차례를 마친 후에는 피난민들은 단천, 함흥, 영흥 등 주로 고향 마을단위로 모여 살기 때문에 집단으로 세배를 다닌다. 아이들은 동네 어른을 찾아 세배를 다니는데 친척이 많지 않으므로 이북고향이 같은 동네 어른들을 주로 찾는다.

함경도 사람이 많은 청호동에서는 세배객이 찾아오면 북한식의 큼직한 찰떡, 가래떡, 인절미를 내놓고, 후배나 친구가 찾아오면 명란젓과 명태국, 별식으로 명태순대 등을 반주상으로 내놓는다. 북청사람들은 명절 때 명태순대를 ‘통심이’라고 해서 만들어 먹는다.

예전에는 이북에서 묵은세배를 했으나 월남해서는 하지 않는다.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 상에는 직접 잡은 명태와 가지미를 찌서 반드시 올려놓으며, 어물로 만든 적과 말린 포를 제물로 쓴다.

“이북에서는 설날에 떡도 해먹고 세배도 하는데 여기나 한가지요. 우리가 아이들 때 기억나는 것은 세배를 정월 초하룻날 한 것이 아니라 설달 그믐날에 다니면서 했어요.”⁵⁾

“함경도 음식은 송편은 크고 찰떡도 크게 잘라요. 뭐이든지 주먹보다 크지요. 구정 때는 명태순대를 많이 하거든요. 명태를 아주 큰 놈, 대구 만한 것, 거기다가 뱃속에다 두부도 넣고 김치도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여러 가지 양념을 넣지요. 구정 때 해서 먹지요. 진미예요. 만들어서 얼리는 데 문밖에 놓아 얼리지요. 명태 창자 속을 빼고 거기다가 넣지요. 아가미 창자 다 빼고 거기다가 창자 대신 양념을 넣고, 밖에 걸어놓으면 얼어요. 한 보름 전에 만들어서 걸어 놓게 되면 마르는데, 완전히 마르지 않지요. 그래 그걸 명절 때 먹지요. 찰떡은 크게 해 놓지요. 찰떡을 좋아해요. 여기는 조그맣게 하는데, 큰 함지에다 놓고 썰어 크게 만들면 몇 개 못 먹어요. 돼지고기도 많이 먹지만 순대를 즐겨요. 청호동에서도 순대를 많이 해먹지요. 집에서 차례 지낼 때는 가지미하고 명태를 제물로 많이 써요. 다 찌 가지고 올려놓지요. 명태는 안 들어가면 안되지요.”⁶⁾

4) 윤덕훈, 남·76, (1990. 11. 17.)

5) 김태수, 남·79, 1998.11.20, 청호동

6) 김호웅, 남·66, 1988. 10.3, 전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내 고향이 북청군 만춘리인데, 거기서는 명태순대를 통삼이라고 해서 별미로 명절 때면 해서 먹었어요. 남쪽에 와서도 해서 먹었는데, 명태 찹자 빼고 거기에 녹두, 두부, 돼지비개를 버무려서 넣고 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우리 선친은 북청사자놀음에 대해 잘 알고 후원을 많이 했지요. 덤배 북청이라고 북청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덤비는데 통삼이 만큼은 지금도 잘 해 먹어요.”⁷⁾

“청호동 사람들은 명절 때 이북 사람들 고향 마을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집단으로 세배를 다니고 그러지요. 이북 찰떡은 이만하지요. 한 입에 못 먹을 정도로 손바닥만해요. 이것을 서너 토막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찰떡은 아주 소문이 났어요. 손바닥만한 게 먹음직하지요. 명태순대는 설날 명절이나 잔치 때 먹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요.”⁸⁾

나. 정월 뱃고사

정월달이 되면 피난민 선주들은 뱃고사를 지낸다. 이들의 배 안에는 성주를 모시고 있는데 한 해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한다. 정초에 택일하여 성황당에 먼저 가서 치성을 올리고 무녀를 데리고 가서 대신 빌기도 한다. 청호동 어부들은 “잘되면 복치고 안되면 가슴친다.”고 할 정도로 풍어를 기원한다. 뱃고사를 지낼 무렵에 상고가 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 마른 짚을 불붙여 이물에서 휘둘러 고물에다 버린다. 이것을 ‘부정쓸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바다에 나가서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

다. 정월달 첫째 뱀날

정월달에 12띠로 처음 드는 뱀날을 상사일上巳日이라고 한다. 이 날을 ‘털없는 날’이라 하여 출어를 포기한다. 배가 출어하면 미끄러져 파선된다고 하는데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고 출어 하지 않는다. 대체로 털이 많은 짐승의 날인 유모일(有毛日)을 첫 출어날로

7) 김철섭, 남·62, (2000. 8. 26.)

8) 김철수, 남·44, (2000. 8. 29.)

잡기도 하지만 요즘은 일기예보로 판단한다.

라. 정월 대보름날 달점치기와 액막이

정월보름날이 되면 북청 출신 피난민들은 사자탈을 만들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한 해 동안 병도 없고 탈도 없다고 한다. 사자탈은 고인이 된 북청사자놀이 기능보유자인 김수석 씨가 만들어 보관해왔으며, 김하륜 씨는 통소를 분다.

대보름날 아침에는 부럼을 깨물어 몸의 부스럼을 예방하고 약밥을 먹는다. 피난민들은 약밥을 찰 때 지누아리와 같은 식용 해초를 넣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과 명태젓갈을 반찬으로 먹는다. 저녁에는 성황당이 있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달을 보고 풍흉을 점친다. 청호동에서는 바다 축항에 나가서 망우리를 돌리다가 던진다. 삼재가 든 사람은 허재비를 만들어 부적을 붙여 버리거나, 집안의 액막이로 약밥을 한지에 싸서 바다에 내던지면서 한 해 동안 평안하기를 빈다.

마. 연날리기

정월 대보름날까지 연을 날리는데 주로 바다 쪽을 향한다. 참나무 껍질로 손바닥만하게 배를 만들어 띄우고 거기에 연줄을 묶는다. 이렇게 참연이나 가오리연을 만들어 띄우다가 연 밑에 썩을 묶어서 불을 붙이면 줄이 끊겨 연이 하늘로 날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의 나쁜 액이 멀리 날아간다고 믿는다. 일부 주민들은 연에다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날리기도 한다.

바. 한식날

피난민들은 한식날 동향별로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개사초를 한다. 군민회에서 조성한 공원묘원에는 피난 나왔다가 고향에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친을 자녀들이 찾는다.

피난민의 후손들은 북쪽 고향에 있는 조상들의 선산을 찾아볼 날을 기대하며 한식날을

맞이한다.

사. 바람님날

음력 2월 초하루를 '영등날' 또는 '바람님날', '영등할머니날' 이라고도 부른다. 어로작업은 비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 날에는 바람님을 잘 모신다고 한다. 대체로 70년대까지는 성의껏 잘 모셨다고 하는데 명태를 소금을 넣어 맑게 끓이고 메를 지어 식구수대로 수저를 깨끗이 치성을 올린다. 음력 2월 15일날 하늘로 올라가고 20일되면 수부신까지 모두 올라간다고 한다. 이 기간에는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상가집에 가지 않는다. 바람님의 노여움을 타면 무서운 '서마나을' 바람이나 '원산내기' 와 같은 매서운 바람이 불어 해난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아. 동짓날

동짓날이 되면 피난민들은 오구랑을 넣은 팔죽을 해서 먹는다. 새알처럼 생긴 옹심이를 함경남도 방언으로 오구랑이라 한다. 오구랑 팔죽의 오구랑은 수수로 작게 만들어 수 십개를 넣어서 끓여 먹는다. 일부 집에서는 집안과 밖에 뿌려서 액을 막기도 한다.

“이북 음식은 찌서 먹는 것이 많고, 찰떡을 좋아하네요. 동지 때는 수수로 만든 오구랑을 넣어 먹고, 시루떡도 크게 만들어 먹지비. 함지에다 찰떡을 넣고, 바다풀인 뚝뚝이를 가루로 찌 먹는데, 오징어순대는 배고파서 먹던 음식이요.”⁹⁾

“동짓날 팔죽을 먹을 때 오구랑을 넣는 것도 있고, 이북에서는 사투리로 오구랑이라 하지요. 제사 지낼 때는 팔죽을 올리지 않아요. 설날에는 가래떡을 상에 놓지요.”¹⁰⁾

9) 박춘원, 남·75, (1998. 11. 21.)

10) 여석창, 남·72, (1998. 11. 1.)

자. 용갈이

용갈이는 한자어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호동 주민들은 청초호가 얼면 그것을 보고 한해의 풍흉을 점친다. 청초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호수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북판만 갈면 이듬해 풍년이고,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아놓으면 평년작이라고 점을 친다.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숫룡과 암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하고 용선놀이가 전한다. 용갈이풍속은 조선시대 세시풍속지에 기록하는데, 청호동 주민들은 동지무렵 용이 밭을 갈면 마을의 소들이 진땀을 흘린다고 증언한다.

2. 통과례

통과의례는 한 개인이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평생동안 중요한 고비를 통과하여 넘길 때마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의례로 일생의례라고도 하며 관혼상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통과례는 출생례, 성년식, 혼인례, 환갑, 회갑례, 상장례, 제례 등이 속한다. 민속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북쪽지방은 상례에 밝고 남쪽지방은 혼례에 밝다고 하는데 북한 피난민들이 사는 속초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로 함경도의 통과례와 다름이 없는데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산육풍속産育風俗과 상제례 풍속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가. 산육풍속

속초시 청호동에 거주하는 주부가운데 60세가 넘는 함경도 출신 김순녀, 김옥남, 박금순, 이분이, 이월계 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태교신기』(1877)에 의하면 ‘스승 십 년이 어미 열 달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임신과 출산이 관련된 습속은 기자풍속祈子風俗, 산전풍속과 산후풍속, 육아풍속으로 나뉜다.

피난민들의 기자풍속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산에 가서 바위에 빌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리거나 성황님께 빈다. 집안에 산모가 있으면 아궁이를 수리하지 않고, 문구멍을 바르지 않으며, 굴뚝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개나 닭, 돼지 같은 것을 살생하지 않으며, 상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태몽은 아들의 경우 흰구렁이, 붉은고추, 고구마, 호랑이, 밤, 배 등이며, 딸은 파란고추, 또아리, 호박, 꽃, 가위, 실 등이라고 한다.

주부들이 임신하면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며, 출산 후 첫 칠일까지는 미역국과 밥만 먹는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며, 제사에 참가하지 않고, 물동이를 이지 않고, 절구질을 하지 않으며, 아기 눈에 삼이 선다고 못을 박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삼칠일까지 지킨다.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는 흰 새끼로 끈 금줄을 매는데 소아피(솔가지)를 섞찌질(대문간)에 건다. 아들은 숯과 고추, 솔가지를 달고 딸은 숯과 솔가지만 단다.

삼신은 아기 머리맡에 모시는데 세 분을 3.7일 동안 모신다. 아기의 백일에는 밥과 국을 해서 동네사람과 나누어 먹으며, 수수떡과 백설기를 하며, 백설기는 백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좋다고 하며, 수끼떡(수수떡)은 바람을 물리치라고 만든다. 첫 돌이 되면 돌상에 책, 연필, 돈, 쌀, 방망이, 실, 붓 등을 올려놓고 ‘돌잡힌다’며 아기가 잡는 것으로 미래를 점친다.

나. 상제례풍속

상제례喪祭禮 풍속은 혼례와 달리 전통성이 강하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정착한 피난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격식을 중시하는 상제례를 통해 정신적으로 결속하기도 한다. 함경도 피난민의 경우 상례는 재산이 없는 사람은 3일장을 지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5일장이나 7일장을 지내기도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요즘에는 보통 3일만에 내간다고 한다.

“우리는 고향에서 하던 대로 고매로 합니다. 상례법에 대해 소개하겠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사람이 세상 떠서 삼 년 지나면 기일체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선친이 돌아간 날짜에 삼 년이 지나면 기일 제사라 하는데, 기일제사도 반드시 지방이 들어갑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지방을 적어서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출세한 분은 관직도 넣고 출세 아니했다하면 거저 ‘현고학생부군신위’라고 써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 함경도에서는 제사 지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지방을 소각시킵니다. 지방을 태우거든요. 이곳은 고향하고 다른 게 있지만 다 개조가 되었어요. 제사도 그

전에 지내던 옛 법을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함경도에서는 나이 삼 십을 먹어도 장가를 못 가면 비향동원입니다. 그러나 열 다섯 먹은 아이가 장가를 가면 부락에서 향동원이라 합니다. 부락에 사는 명단에 들어갑니다. 서른 살 먹은 사람이 장가를 안가면 죽어도 향동원이 아니라 해서 삼 일만에 땅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동원은 삼 일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빠르면 5일, 그렇잖으면 7일, 9일씩을 하고 짝을 맞춰 나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걸 볼 수도 없지요. 살아가는 형편이 곤란한데 삼사일 이상 집안에 모셔 놓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경도 식으로 솔직히 하기 어렵고 지금은 고대광실이 있더라도 삼 일만에 땅속으로 가게 되었고, 옛날에는 귀한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아까워서 구일이나 칠일 이전에 못 나갔어요.”¹¹⁾

상례는 크게 나누어 초종初終, 염습殮襲, 성복成服, 문상問喪, 치장治葬으로 나뉘는데 초종 즉 임종 때는 고복阜復을 하는데 ‘혼부른다’고 한다. 남자의 경우 ‘아무개 생 아무개 복복복’ 이렇게 외치고, 여자의 경우는 아무개 부인이라고 말한다. 고복이 끝나면 ‘수세걸음’을 한다. 망자의 손을 펴서 배 위에 올려놓고 발을 똑바로 세운 다음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다음에 한지를 세 번 두르거나 베로 손목과 발목, 허리를 묶는다.

이것이 끝나면 역복易服을 하는데 상주는 직령으로 갈아입고 남좌여우男左女右라하여 망자가 남자일 경우는 왼쪽 팔, 여자인 경우는 오른쪽 팔을 끼지 않고 통건을 쓴다. 호상護喪은 상주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일처리를 한다.

염습은 습과 소렴으로 구분되나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아주 묶어 입관하는 것이다. 수의는 ‘습의’라고도 하는데 생시에 마련해 둔 속옷, 중의, 바지, 속적삼, 적삼, 저고리, 덧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힌다. 이것이 끝나면 ‘반함’이라 하여 쌀을 불려 망자의 입에 떠 넣는다. 이것은 저승에 갈 때 사용하는 식량이라고 하는데, 세 번 하면서 ‘천석이오. 만석이오’라고 외치면서 동전을 넣어 저승 노자로 쓰라고 하고 ‘백냥이오. 만냥이오’라고 외친다.

다음은 교포를 쓰는데 시신을 묶은 다음 입관하고 천금을 덮는다. 그리고 관뚜껑을 덮은 다음 결관을 하고 관 위에는 명정을 써서 덮는다. 이렇게 염습이 끝나면 성복을 한다.

성복이 끝나면 혼백을 접고 퀘연을 설치하여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한 후 조문객들의

11) 윤덕훈, 남·76, (1990. 11. 17.)

문상을 받는데, 이 과정이 끝나는 3일장 후에 치장을 한다. 장지가 결정되면 출상 당일 발인제를 지내는데, 속초 피난민들은 거의가 각 지역 도민회에서 마련한 장지로 향한다.

제례는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 절사節祀라고 한다. 설과 정월 대보름날, 한식, 추석, 동지 등에는 차례를 올렸으나 피난민들은 설과 한식, 추석을 주요한 명절로 꼽는다. 대부분 이복식으로 제사를 지내므로 초저녁 제사는 없고 주로 새벽 자시子時경에 지낸다.

조상제례는 시제時祭,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는데 북한 피난민들 가운데 청호동에 거주하는 함경도민 가옥은 대부분 백사장에 임시로 지어진 것이므로 특별히 옛날식 사당이 설치된 가옥을 볼 수 없고 집안에 위패를 모시는 정도다.

기제는 삼년 이상 지난 망자에게 올리는 제사로 대부분 고조까지 지내고, 그 위는 시제나 절사만 지낸다. 절사는 명절에 묘지에 가서 지내는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직계조상에 제를 올린다. 제사 음식은 일반적으로 ‘치’ 자가 들어간 생선은 쓰지 않는데, 도치를 싱어, 새치를 임연수라하여 제수로 사용한다.

제사 음식의 그릇수는 반드시 홀수로 장만하며 날회는 쓰지 않는다. 김치는 씻어서 담고, 닭은 대꼬치에 꽂아 굽고, 무숙채는 반드시 올린다. 떡을 편틀에 고여 담는데, 제편, 약계, 중계, 인절미, 절편, 솔편 순서로 고인다. 떡은 차좁쌀로 만든 초찰떡을 비롯하여 시루편과 찰떡을 쳐서 밀대로 밀고 썰어 기름을 치고 벌철에서 구워내서 물엿을 바른 자바귀떡을 놓는다. 그 외에 제사에 쓰는 과줄은 찹쌀을 붙여 큼직하게 만들어 높게 고이며 하얗게 만든다.

“정초 아침에 차례 지내는 것은 우리 고향에서는 첫 닭이 올 때 세 시나 네 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는 날이 세서 해가 떠야 차례를 지내지요. 그기 다르지요. 우리 차례 지낼 때는 남의 집에 발자국이 문 앞에 지나가기 전에 차례를 지내지요. 여긴 그렇지 않고 청호동도 그런데 우리 실향민들은 안 그래요. 실향민들은 해가 뜨기 전에 끝내지요.”¹²⁾

“차례라는 것은 지방이 안 들어 간 것이 차례거든요. 구정 음력설에 산 사람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돌아가신 망령에게도 보내야 하니 차례를 지내지요. 대개 시간은 새벽 3시 이내에 지내요. 세 시에 상을 차려 가지구서리 모두 집안 식구들이 망령한테 절도하고 차례를 지내지요. 하여간 해뜨기 전에 차례를 다 지내요.”¹³⁾

12) 윤덕훈, 남·76, (1990. 11. 17.)

13) 조일량, 남·75, (1990. 11. 17.)

속초시에 거주하는 피난민들은 각기 홍남시민회, 함주군민회, 정주군민회, 영흥군민회, 흥원군민회, 북청군민회, 이원군민회, 단천군민회 등을 구성하여 매월 같이 모이고 있다. 이들은 속초와 고성지역에 망향의 동산을 만들고, 고향사람들만 묻히는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한식과 추석 때가 되면 통일되어 고향 땅을 밟을 날을 고대하며, 망향제례행사와 군민회 총회를 개최하며 향수를 달래고 있다.

3. 민속신앙

민속신앙은 민간신앙, 민속종교, 민중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대중 층에서 전승되는 자연적인 종교를 일컫는다. 민속신앙은 집안에서 신봉하는 집안신앙, 마을단위로 행해지는 마을신앙, 무속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무속신앙 그리고 점복신앙, 풍수신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민속신앙은 시대의 추세와 외래종교의 유입과 부흥에 따라 날로 쇠퇴되어 가는 실정이다.

속초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청호동의 경우, 개인적으로 성주제나 티고사를 지내고 선주들은 배성주제를 지내고 있으며,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성황제를 지낸다. 또한 무속신앙과 점복신앙도 숭봉하는데 3년 또는 5년마다 풍어굿을 하며, 개인적으로 점을 치거나 풍흉어에 대한 예조를 믿고 출어나 조어에 따른 금기를 지키고 있다.

가. 성황제

성황제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한국의 마을신앙으로 이를 통칭하여 동제 또는 동신제라고도 부른다. 이 외에도 마을 수호신으로 모셔지는 동신은 산신, 국수신, 장군신, 용신, 장승, 솟대 등이 있는데, 신앙적 성격상 혼재 되기도 한다. 성황신은 마을과 관련된 남녀 혹은 어느 한쪽의 성황신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데, 성황당에는 이외에도 토지신, 여역신 등 세 신위를 함께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호동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성황제를 지내는데, 어촌계에서 주관한다. 대

약 40년 전에 선주들이 풍어와 안전을 위하여 고사를 지내던 야산 위에 당집을 지었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남녀성황신의 화상을 걸었으며, 남성황신은 수염이 긴 노인의 모습이고, 여성황신은 족두리를 쓴 여인이다.

“성황제라 하면 주교가 전체 동민들이 모여가 하는기 원칙이지마는 여기가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돈을 내고, 제물을 갖추고 굿도 하고 소도 잡고, 옛날에는 두 마리씩 잡고 했는데, 그기 동전체의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런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주로 돈을 모아서 지냈지요.”¹⁴⁾

성황제는 피난민을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믿는데, 제물은 삼색실과와 어물, 소머리를 반드시 올린다고 한다. 마을 제사는 제관 중 고령자로 부정함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며, 성황제 이외에도 정초에 첫 출어 할 때, 어로작업이 부진할 때는 여기에 와서 빈다. 또한 외지에서 동해안으로 고기 잡으러 온 어부들도 풍어를 위해 성황당에서 빈다고 한다.

나. 용왕제

어업에 많이 종사하는 피난민들은 바다신을 의지하는데, 대표적인 신격이 용왕신이다.

그러므로 동해바다의 해신인 동해 용왕신에게 3년 또는 5년마다 ‘배신굿’이라 하여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풍어제의 일종으로 첫째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의 성격, 둘째는 바다에 나가 사고 없이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의 성격을 갖는다.

용왕제 때 행해지는 곳은 풍어굿과 수살굿이 있는데, 풍어굿은 부정굿, 성황굿, 성주굿, 조상굿, 심청굿, 군웅굿, 제면굿, 손님굿, 장군굿, 칠성굿, 세존굿, 별상굿등 모두 12거리 굿을 하는데 대개 2~3일간 행한다. 용왕제는 어촌계에서 주관하며 동해안별신굿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무녀들을 불러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한다. 용왕제때 행해지는 풍어굿은 축원굿 계통이고, 수살굿은 망자의 영혼을 건지는 오구굿 계통이다. 용왕굿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황화수, 남·75, (1998. 11. 2.)

모시자 모시자 용왕님네를 모시자/남선부중에 용왕님을 모시자
 강원도 이십육관/시는 속초시고 동으로는 청호동
 삼 년마다 용왕제를 올리는데/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법을 아니내고
 옛법을 버리지 않는 오늘날/청호동 대동안에 이 정성을 드립니다
 동해안 바다에 용왕님네요/남해안 바다에 용왕님네요
 서해안 바다에 용왕님네요/북해안 바다에 용왕님네요
 사해팔방 용왕님을 모시고/물밑에는 옥녀당 용왕님네여
 물위에는 거북당 용왕님네여/수천당아 용왕님을 모시고
 청호동 각성만이 육성만이 자손들/어깨위에 불켜 주시는 용왕님네
 용도용도 용신님네/당신을 무얼 불과했나
 심을 망자도 불켜주고/그물 망자더 불켜주지
 이리가도 미나발/저리가도 미나발
 뽀뽀뽀 대주여/어서옵셔 옵셔 대주
 남해안 바다 용왕님네여/당신은 무엇을 불켜했나
 동해안 바다고기 불켜했지/울고간다 우래기도 불켜주고
 해망화 소망화 불켜했지/대명태 소명태 불켜했지
 이리가도 미나발/저리가도 미나발
 뽀뽀뽀 대주여/어서옵셔 옵셔대주
 서해안 바다 용왕님네/당신은 무엇을 불켜했지
 청호동 대동안에/각성만이 고기잡이를 불켜했지
 동지선달 널괘어/오동통통 복쟁이
 대문어 소문어도 불켜주고/대이까 소이까도 불켜했지
 이리가도 미나발/저리가도 미나발
 어서옵셔 옵셔 대주여/북해안바다 용신님네야
 당신은 무엇을 불가했소/청어붕어 남너노소
 온갖 자손들 고기잡이 마련하고/어끼이끼도 불켜주고
 우물배도 불켜주고/잠수배도 불켜주고
 큰배 작은배도 불가했지/어장배도 붕어배도 불켜주고
 이끼산 산마일도 불켜했지/이리가도 미나발
 저리가도 미나발/뽀뽀뽀 대주여
 어서옵셔 옵셔대주/청호동 대동안에

각성육성반이 자손들/명다 값고 축원공덕 올립니다.
(빈순애, 여·39, 1997. 11. 28.)

다. 수살굿

수살굿은 어로 작업 중 해난사고를 당한 망자를 위한 굿이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닳아 몸이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살아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혼백을 떨쳐 버리기 위해 무녀를 불러 굿을 하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수살굿의 절차는 먼저 ‘혼부름’을 한다. 무녀와 화랭이, 사공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육지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지고 간 산 닭다리에 끈을 묶어 바다에 던진다.

이때 그릇에 밥을 담아 끈으로 묶어서 같이 던진 다음, 남자 무당인 화랭이가 혼을 끌어 올리는 대나무인 ‘인혼’에 망자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매달아 돌리면서 ‘금일 영가 아무 개 영가’라고 세 번 부른다.

이것은 고복의례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배에 있는 상주가 대답을 한다. 화랭이는 “젖은 옷을 벗어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육지 환생하옵소서.”라고 고축을 한다.

이 과정은 상례의 초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혼대를 몇 차례 더 흔든 다음 내려놓고 닭과 밥그릇을 끌어올린다. 올라온 닭이 죽지 않으면 혼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화랭이는 끈을 당기며 대다라니경을 외운다. 바다에서 건진 혼백을 담은 돛자리와 위패를 굿당으로 모신다.

두번째는 ‘수살잡귀구축’으로, 죽은 닭을 망자의 육신으로 상징하며, 여기에 망자의 혼백이 실렸다고 여긴다. 물에 빠져 죽은 망자의 혼백이 미망인에게 덮히면 무녀는 복숭아 나무로 돛자리를 때리며 “온다. 귀신아. 물에 수살귀신, 귀신들. 일척, 월척, 감척, 수구사자 귀신들, 한 많고 원 많은 귀신들아, 잡귀잡신들 물러가라.”고 외우며 수살잡귀를 쫓는다. 이렇게 해야 미망인이 제 정신이 들고 아픈 몸이 치유된다고 한다.

세 번째는 ‘길가름’으로, 미망인 혼백을 길가름 하는데 이는 혼백의 극락왕생을 위한 절차다. 상주와 친척들이 상복을 입고 광목천 옆에 길게 서면 무녀는 돛자리와 혼백상자를 안고 춤을 추면서 광목천을 가르다. 무녀가 천을 가르며 혼백상자를 이끌고 나가면 상주들은 천위에 노자돈을 놓는다. 무녀는 천이 갈라져 두 갈래가 되면 이것을 잡고 극락춤

을 춘다.

마지막은 ‘극락춤’으로, 무녀가 선소리에 맞추어 출상소리를 하면 상주들이 뒷소리를 한다. 이 모습은 발인과정과 같은 것으로 무녀와 함께 극락에 도달한 혼백을 위해 빠른 장단으로 극락춤을 추고, 가정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한다. 극락춤 상주뿐 아니라 평소에 망자와 친했던 주민들이 어울려 망자의 혼백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오구긋의 한의 식이다.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빠져 죽으면 우리가 혼을 불러서 고사를 할 때 용왕님한테 빌어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들어왔다.’고 하고 어떤 것은 못 찾아 가지고 ‘그냥 어디로 간지 없다.’ 이러면 들어와도 혼이 물밑에 있고, 안 들어와도 물밑에 가리았아 고기가 다 뜯어먹어도 물밑에 혼이 있으니 그럴 때는 용왕님한테 빌어요. 아무개 김뱌이, 최뱌이 이름써서 산 닭 집어넣고 그 사람 혼이 나와 달라고 그것을 사해 용왕님한테 비는 거지 뭐. 육지로 환생해 달라고 그저 비는 거지. ‘어떻든지 좋은데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거지. 혼을 불러올 때는 닭을 넣어야 돼요. 닭은 안 넣으면 그 혼이 안나와. 또 해야 되고 하니 죽은 것은 넣지 않고 산 닭을 넣어야 돼요. 밥그릇에다가 밥을 딱 떠가지고 뚜껑을 덮어 가지고 매어서 꼬나풀을 길게 하고 닭도 발을 묶어 가지고 질게 해서 똑같이 남자들이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막 혼을 부르는 거야. ‘용왕님, 사해용왕님요. 내 명에 죽었는지, 남의 명에 죽었는지 용왕님 앞에 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불쌍한 증생 혼을 좀 육지로 환생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닭이 물에서 휘 맵기다가 물먹고 죽으면 그 혼이 또 오는거야. 그거 안 넣으면 혼이 나올 수가 없어. 또 하고 또 해야돼. 닭이 숨지면 그것을 불러내다가 닭을 꼬집어내다가 땅을 파고 묻어. 손없는 방우에. 삼 살방우, 나쁜 방우에다가 묻으면 안되고, 손 없는 그 해 손 없는 방우에다가 땅을 파고, 그 닭을 묻지. 그러면 그 사람 혼이 나오는 거지.”¹⁵⁾

라. 배성주제

배성주제는 배에 모신 성주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흔히 ‘뱃고사’라고 한다. 이것은 선주가 개인적으로 치성을 올리는 것인데, 집안처럼 배를 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배성주신에게 제를 지내는 경우는, 배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마을에서 성황제를 지낼

15) 정춘자,여 · 63, (1997. 11. 27.)

때, 첫 출어시, 첫 수확시, 흥어나 풍어시, 매년 정초 무렵에 안전과 만선을 기원할 때 등으로 다양하다.

배성주는 배를 지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한지를 한쪽 변이 10cm쯤 되도록 모나게 여러 겹으로 접어서 돈과 청홍실을 넣어 어부들이 잡자는 ‘방장’이나 고기를 잡아 담아 두는 ‘큰대명’에 모신다. 배성주신을 모실 때는 제물로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쓰지는 않는다.

절차는 개인 고사형태로 진행되며, 보편적으로 무당을 청해서 고축을 하며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특별하고 엄격한 금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배성주의 신체는 한지와 실을 묶어서 걸어 두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길지형吉紙形이라 한다. 피난민들이 사는 청호동 어부들은 이북에서는 단지를 모시는 단지형이었는데, 월남해서는 이곳 풍속에 따라 길지형이나 뱃기형으로 바뀌고 있다. 신체는 무신체형, 지방형, 뱃기형, 서낭단지형, 서낭함형 등으로 다양하다.

선주들이 처음에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 해 처음 잡은 생선과 메, 떡, 술 등을 차려놓고 축원을 한다. 다음에 배성주신을 상징하는 한지를 거는데 이미 달아놓은 한지는 불에 태운다. 배성주의 성별은 선주의 생기에 맞추어 무너가 정하며 더러 선주의 꿈에도 현몽한다고 한다. 남자 성주신은 한지만 매달고 여성주는 삼색천을 거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여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여자 성주가 많고요. 배를 만들어 내릴 때 고때 성주를 모셔놓고 술 한잔씩 올리는 거지요. 그거는 항상 비는 것보다 마음으로 성주 앞에서 배에서 술 한 잔이라도 할 때는 성주앞에 올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마음으로 모시는 거지요. 첫 설망할 적에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 그걸 성주님한테 모시지요. 일 년에 한 번씩 같지요. 그전에는 명태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오징어가 많이 잡히니까 오징어를 올리지요. 성주는 실하고 한지로 모시지요. 육지나 바다나 모시는 거는 한가지요. 함경도 단천에서는 단지귀신을 모시지요.”¹⁶⁾

“여긴 대부분 여성주예요. 성주한테는 자기가 마음이 이상하다하면 밥을 해서 술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집에서 하는 대로 고대로 하고, 절도하고 그러지요. 바다에 나가서 일기가 나쁘면 성주가 운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배가 작아서 그런 경험은 못했어요. 배성주는 한지에다 실을 묶어서 매년 정초에 달아요.”¹⁷⁾

16) 이학주, 남·63, (1998. 12. 20.)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살면 토신이라고 있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그렇게 모셔놓는데, 배에 두 배를 지키는 수호신이지요. 그런 성주를 모셔요. 대개가 보면 한지에다 실을 한테 감고 그러구 흑시 빨간 천 같은 거, 비단천 같은 거, 천조각을 묶어서 좋은 배들은 가미다마 같은 신당을 맨 들어서 거기다가 넣구요. 대개 목선들은 그냥 어느 한쪽에다 모다구 치구 걸어요.”¹⁸⁾

4. 민속극과 놀이

가. 북청사자놀이

민속극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으로 월남한 피난민들에 의해 1950년대 부터 속초에서 연희되었다. 속초에 모여든 함경남도 사람들이 집단화되자 1957년 정월 대보름날 처음 북청사자놀음이 공연되었으며, 1959년 5월 2일 북청동향친목계가 구성되면서 북청사자놀음 공연이 결성되었다. 당시의 북청도청 계원은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 36명이었다. 이들은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북청사자놀음 공연, 장의, 부조사업 등을 하였다.

57년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 정월대보름날부터 10일 동안 사자놀음이 행해졌는데, 당시 속초에는 북청에서 13세부터 사자춤을 추고 19세 때에 애원성을 잘 불렀던 죽평리 출신 김수석 씨가 거주했으므로 이 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에 임시로 사자탈과 통소, 복식 등을 새로 만들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사자춤을 추었으며, 1958년 김수석 씨가 만든 사자탈이 현재 남아있다. 연희자는 김수석(사자앞채, 애원성), 오동술(사자뒷채), 이종욱(양반), 양계건(꼭쇠), 박씨(사당춤), 장남우(의원), 김봉수(승무), 김원사(총각), 마유득(곱추), 김효환(도깨비), 이종호(중국인), 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등 길잡이 놀이패 몇 명 등이었다.

17) 남원춘, 남 · 64, 1998. 12. 20, 청호동

18) 박수길, 남 · 77, (1998. 11. 1.)

58년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부터 금호동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 받아 북청도청을 건립하였으며, 1966년 10월 24일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김수석, 오동술, 이재섭 씨등이 참가하여 김수석 씨가 개인상을 받으면서 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70년 4월 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인가되고, 김수석 씨가 기능보유자 제84호로 인정받았다. 현재 김수석 씨는 고인이 되었으나 속초문화원과 청호동지역에서 사자놀음을 계승하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2~3일간 행해지거나 설악문화제 때 공연되는데 등장인물은 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 춤 2명, 거사춤 2명, 사당춤 2명, 칼춤 2명, 무동춤 4명, 꼬새춤 2명 등이 참가한다. 악기는 통소 3~4개, 팽과리, 장고, 북, 징을 사용하며 연회소요시간은 40~50분 정도 걸린다. 이 가운데 사자춤은 5~10분 정도 행해지며 벽사진경이 목적이다.

필자가 김수석, 김하륜 씨에게 조사한 연희내용은 아홉굿거리 열두마당이다. 아홉굿거리는 입장곡, 애원성곡, 예구내딸봉심이, 연풍대,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자유곡이며, 열두마당은 양반 꼭쇠의 해학마당정리, 애원성노래, 사당춤, 무동춤, 꼬새춤,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승무, 풍자, 군무 등이었다.

북청사자놀음전수교본에 따르면 마당놀이마당으로 마당돌이과장, 애원성과장, 사당·거사춤과장, 무동춤과장, 녀두리춤과장, 꼬추춤과장, 칼춤과장이 있으며, 사자놀이마당은 사자춤 초장, 사자춤 중장, 사자춤 말장, 마을돌이와 뒷풀이과장으로 되어 있다.

나. 든대질 놀이

든대질은 새로 만든 배를 바다로 옮기는 채래식 이동방식이다.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리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로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한다. 이처럼 든대를 이용하여 물에 배를 띄우는 진수를 '설망' 또는 "배 내린다"고 말한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개안과 항구가 없는 모래땅인 날바리 땅을 주축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 1950년대 속초 청호동과 장사동 일대는 날바리 땅이므로 여기에서는 폭풍이 치거나 해일이 일어나면 시간을 다투어 배를 끌어올려야 했다. 이때는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평상시는 여유있게 '허리도리'라는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뒷소리를 받으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 소리는 속초지역에 전승되는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상황에 따라 여러 내용이 삽입된다. 배를 처음 만들어 바다에 띄울 때는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먼저 지내는데, 솔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오색 만선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리고 빈다. 제물은 술, 과일, 포, 돼지머리, 시루떡 등을 쓴다.

기원제는 선주가 제사의 주인이 되면 도사공은 제관을 한다.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들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로 배가 물에 닿게 되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되고, ‘따리’를 잡은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이때 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조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돛을 올려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뱃전을 들고, 뒷고물에서 휘두른 다음 바다에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를 하는 것으로, 삼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작업에 들어간다.

5. 구전민요

속초지역 구전민요는 토착민들과 북한 피난민들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요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뉘는데, 노동요 가운데 해안 가에서 불리는 어업노동요가 피난민들에 의해 주로 불리고 있다. 속초의 어업노동요는 속초민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청호동, 장사동, 대포동, 조양동 지역에서 주로 불린다. 청호동의 김형준(작고), 장사동의 전봉준, 동명동의 신재덕 씨가 잘 부르는데, 청호동은 함경도 이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많고, 일제시대 때 일본말로 부르던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

피난민들에 의해 불리는 속초 어업요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지어소리’, 그물 당기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털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르는 ‘베끼소리’, 고기를 퍼 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가 있으며, 배를 바다로 이동시키는 ‘든대질소리’가 있다. 특히 ‘지어소리’는 ‘음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소리 끝에 ‘음음’이라는 후렴이 들어간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퍼내면서 부르는 소리는 ‘산자소리’라고도 하고,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는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이들 소리는 대체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선입후제창의 형식을 지닌다. ‘든대질소리’는 일명 ‘배내리는소리’라고도 하는데, 배를 다 만들어 진수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일종이다. 어업노동요 가운데 함경도 출신으로 청호동에 살았던 김형준 씨의 소리를 채록하였다. 따라서 이 소리는 함경남도의 피난민의 뱃소리라 할 수 있으며, 속초출신 전봉준 소리는 유사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수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함경남도 피난민들이 부르는 민요로 돈돌날이가 있는데, 아직도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돈돌날이는 회전을 의미하고 또한 동틀 날인 여명을 상징하는데, 북청 사람들이 일제의 외침과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항일민요로 부각된다. 돈돌날이는 함남 북청군을 비롯하여 홍원, 함흥, 이원, 단천, 풍산, 갑산, 함북 성진 등에 전승된 민요로 봄철나비, 해가 떨어진다. 거스러미노래, 미나리꽃, 전갑삼타령, 삼천리노래, 양유나청산, 라리라 돈돌 리띠리 등과 함께 불린다. 돈돌날이 춤도 낙천적인 특색을 지닌다. 돈돌날이 민요는 속초에서 애원성 민요와 함께 들을 수 있다.

□ 지어소리(노젓는소리, 음음소리)

에헤라 지어라 매겨라/에헤라 에라 보잔다
 에헤라 지어라 보자 음음/지어차 지어차 음음
 어여라 배기조라 음음/저어라 보자 음음
 지어라 지어라 음음/지어라 간다 음음
 손허리 저렇게 베끼고 음음/어찌들려 싸겠니 음음
 어이어이 지어라 보자 음음/지어라 보자 음음
 잘가도 못가도 음음/그렇게 노질하고 음음
 언제 가겠느냐 음음/배삼치고 들어치고 음음
 지어라 보자 음음/지어라 보자 음음

행-혜 행-혜/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세월아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이팔청춘 그림도다/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크다 하는 저 달을 싣고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우리 고향 언제가나/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 다리어소리(그물당기는 소리)

다리어라 내자/다리어라 내자
 다리어라 내자꾸나/다리어라 내자
 니가 내가 어찌하든/다리어라 내자
 힘을 쓰고 용을 써라/다리어라 내자
 동지선달 긴긴밤/다리어라 내자
 누웠으니 잠이 오나/다리어라 내자
 앉아 있는 들 넘어 오나/다리어라 내자
 잠도 넘도 아니온다/다리어라 내자
 배가 고파 받은 밥은/다리어라 내자
 돌도 많고 니도 많다/다리어라 내자(하락)

□ 산자소리(그물당기는 소리)

에헤 산자/에헤 산자
 에헤라 산자/에헤 산자
 에넘어라 한마디하자/에헤 산자
 에넘어라 오늘어디/에헤 산자
 올려라 올려라/에헤 산자
 에이야 사이다

□ 베끼소리(그물터는 소리)

어라 뱃기고 보자/에라 뱃기고 보자
 베끼어라 내자꾸나/에라 뱃기고 보자꾸나
 에라 뱃기고 보자/뱃기어라 내자꾸나
 에라 뱃기고 보자꾸나/에라 뱃기고 보자꾸나

슬렁슬렁 뱃기자고/에라 뱃기고 보자
 이말저말 하지말고/이등칸에서 들어내라
 에라 뱃기고 보자꾸나/에라 뱃기고 보자꾸나
 저 손질이 저러구/소년 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뱃기고 보자/에라 뱃기고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뱃기어라 보자
 손발시려 내뭇살겠네/뱃기어라 보자(하략)

□ 가래소리(고기 퍼담는 소리)

에라소 가래로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니잘나고 내 잘나도 소용없잖나/에라소 가래로구나
 똑같이 들어서 당져다오/에라소 가래로구나
 오늘이 이렇게 되면은/에라소 가래로구나
 한 배 만선해서 실고/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고향 들어가면은/에라소 가래로구나
 얼마나 기분 좋고 명이나느냐/에라소 가래로구나(하략)

□ 든대소리(배 진수할때 소리)

자, 자 이럴 적에 기운을 내고
 자, 자 이럴 적에 용기를 써라
 소지항이 황금출이요/개문항이 만복래라
 우리 배를 내려다 보니/모진 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이 내 손발이 다 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 내려/정리진 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정리진 들어가니
 막걸리 장사가 지나치며/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 밤에 가구/동네 술집은 낮에나 가자

□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모래청산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이하 후렴생략)
 시내강변에 돈돌날이요 시내강변에 돈돌날이요
 모래산천에 돈돌날이요 모래산천에 돈돌날이요
 보배청산에 돈돌날이요 보배청산에 돈돌날이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강산에/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속초지역 피난민의 민속은 독자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함경남도의 방언이 사용되는 언어의 섬(language island)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 분단 50여 년이 지나면서 속초의 고유한 민속과 습합되기도 하고 독자성이 유지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피난 1세대가 고령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전승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피난민의 문화적 정체성도 차츰 흐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점에서 피난민의 민속전승실태를 파악한 내용을 서술하고 앞으로 피난민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결론 삼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속초피난민의 세시풍속은 어촌풍속이 주류를 이룬다. 정초의 뱃고사나 바람신인 영등 할머니제와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이것은 함경남도 출신이 많은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동해안 어촌풍속과도 연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농촌이나 산촌의 독특한 세시풍속은 전승되지 않고 일반적인 세시의 명칭상 습합이나 내용상 혼효되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 세시명절의 인식도 북방형 설과 단오를 중심적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으나 남방형인 추석명절을 큰 명절로 인식하는 적응성을 보이고 있다.

통과의례에서는 상장례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실향의 특수한 상황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례의 경우 3일장이 대부분이나 장지는 피난민들이 조성한 망향의 동산과 같은 공동묘지를 이용하고 있다. 피난민들은 상장례를 통해 결속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상장례에 관해서는 주민들간 협조나 군민회의 부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산육속은 지역의 풍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민간신앙은 성황제가 대표적이거나 속초 피난민의 경우는 생업과 관련된 것으로 용왕제와 수살굿이 전승된다. 용왕제는 풍어굿과 함께 치제하는데 3년 또는 5년마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바람신인 풍신을 위하는 것이나 배성주제를 정성껏 모시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차츰 전승이 끊기고 있다. 이것은 동해안 일대의 어로관련 신앙과 같은 맥을 잇고 있다.

민속극인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피난민의 대표적인 탈춤으로 전승된다. 그러나 기능보유자인 김수석 씨 타계이후 문화원과 청호동 청년회를 중심으로 확고한 전승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청사자놀음은 속초사자놀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난민들이 정착 초기에 북청도청을 만들어 대보름놀이로 전승시키며,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립한 중요한 문화재다. 든대질놀이는 배를 진수시키면서 행하는 작업으로 이것을 놀이화하여 전승시킴으로써 기계화되는 가운데 전통적 노동유희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피난민의 구전민요는 어업노동요가 주류를 이룬다. 다양한 어로 작업시 행해지는 구전민요는 작업의 기계화가 되면서 날로 사라져 가고 가창자가 연로하거나 타계하여 전승위기에 봉착했다. 따라서 전승을 위한 기능보유자의 지정과 녹음작업, 어업요 전수회관의 건립 등이 필요하며, 함경남도 민요의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끝으로 분단의 현상이며, 피난민문화의 메카인 속초지역에서 피난민과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난민 문화촌의 건립과 이북 5도민 가요제, 북한 문화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피난민 언어사전편찬, 피난 사진집 발간, 피난민역사자료 수집, 이북음식축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1998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장정룡, 속초시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계획, 속초시, 2000

장정룡, 속초 영랑호 설화의 형상화 계획, 속초시, 2000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속초시, 속초시지, 1991

전경옥, 북창사자놀이 전수교본, 북창사자놀이보존회, 1996

강릉대 박물관,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강원사회연구회, 분단강원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1999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제3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언어

김 무 림(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원도 속초시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장 선명하게 간직한 곳이다. 속초시에는 1945년에서 한국 전쟁(6·25전쟁)에 걸치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桎梏에서 이산離散의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피난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함경남도 신히민들은 귀향의 그날을 기약이라도 한 듯이 청호동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면서 고향의 언어와 풍습을 잃지 않고 분단 50여 년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속초시에 거주하는 피난민들은 그 출신 지역이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도, 황해도 등 북한의 전지역에 걸쳐 있지만, 함경도 출신이 대부분이며 평안도와 황해도는 소수이다.

특히 함경도 중에서는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이 대부분으로서, 이들 피난민들은 청호동이라는 반도 형태의 지역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 형태의 집단성은 출신 지역의 언어와 풍습을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학이나 사회학의 측면에서 청호동 주민의 생활상은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된다.

본고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피난민의 언어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함경남도 출신을 제외한 기타의 피난민들은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단 거주 형태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언어를 잃어가면서 강원도 속초 방언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안도와 황해도를 기반으로 한 서북 방언,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남부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 방언, 그리고 함경북도 북부의 육진 방언에 대해 개관하고, 피난민의 구체적인 언어의 실상에 대해서는 함경도 북청 방언을 간직한 청호동 지역

의 언어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하겠다.

1. 속초 방언의 위상

속초束草는 조선시대의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 도시이다. 그러다가 청초호靑草湖가 개발되면서 1937년에 속초면, 1942년에 속초읍, 1963년에 속초시로 계속 발전하였다.

강원도에 속해 있는 속초의 언어는 흔히 중부 방언으로 모호하게 분류되었으나, 이익섭(1981)에 이르러 강원도 방언을 영서嶺西와 영동嶺東으로 이분하는 방언권 설정에 따라 영동의 북부 방언권으로 속하게 되었다. 한편 김영황(1982), 황대화(1986) 등의 연구에 힘입어 강원도 영동 방언은 경상-강원-함경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방언의 성격이 규정되기도 한다. 특히 동해안 방언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강원도 영동 방언은 경북과 함경을 잇는 전이지대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승녕(1967)이나 김병제(1988)에서 구분한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방언 구획은 다음과 같다.

가. 국어의 대방언 구획

- ㉠ 동북 방언 지역: 함경도 지역
- ㉡ 서북 방언 지역: 평안도 및 황해도 지역
- ㉢ 중부 방언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
- ㉣ 동남 방언 지역: 경상도 지역
- ㉤ 서남 방언 지역: 전라도 지역
- ㉥ 제주 방언: 제주도 지역

이러한 대방언권에 의하면 강원도에 속하는 속초는 중부 방언권이라 할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영동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북 및 동남 방언권과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음이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 드러난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속초 방언의 위상은 중부 방언의 성격과 동해안 방언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전이지역複合轉移地域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영동 방언권인 속초의 언어는 함경 방언과 같은 북부 방언과 경상 방언인 동남 방언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면서, 영서로 연결되는 중부 방언의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방언의 삼각지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동 방언의 특성은 영동 방언만의 독특한 체계로서 기술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속성 자체가 주변의 다른 방언과 항상 공통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적 성격으로 인하여 영동권인 속초 방언의 위상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방언 연구의 충분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동 방언권에 속하는 속초 방언은 같은 방언권이라 할 수 있는 강릉 지역이나 삼척 지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현식 1991).

나. 속초 방언의 특징: 강릉 및 삼척 방언과 비교하여

- ㉠ ‘ㅂ, ㅅ’ 보존형이 우세하다.
- ㉡ 단어나 문장의 고저 억양이 심하다.
- ㉢ ‘-나?’ 보다 ‘-니?’ 가 우세하다.
- ㉣ ‘-니다. -니까?’ 가 ‘-네다, -네까?’ 에 가깝게 발음된다.
- ㉤ 일부 단어의 형태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속초의 북부 지역인 함경도 방언의 영향과 함께 한계령 및 진부령을 통한 영서 방언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는 이러한 속초 방언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술될 것이다.

2. 북한 방언의 특성

북한의 언어는 함경도의 동북 방언,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를 아우르는 서북 방언으로 크게 나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회령, 부령의 이북 지역인 함경북도 북부의 육진 지역은 동북 방언의 전체적인 측면과 구별되는 요소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서북 방언, 동북 방언, 육진 방언의 셋으로 나누어 북한 방언의 특성을 개관하기로 하겠다.

가. 서북 방언

서북 방언은 평안남북도 언어가 중심이지만 황해도 북부의 일부와 동북 방언의 영향을 받은 후창 지역 등은 서북 방언에서 제외된다. 현재의 북한 행정 구역으로는 평안북도의 일부가 자강도에 편입되어 있다.

1) 음운적 특징

음운적인 측면에서 서북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구개음화에 대한 저항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치음인 ‘ㅅ, ㅆ, ㅈ’의 뒤에서 ‘ㄷ’가 ‘ㄴ’로 발음되는 구개모음화에 대하여 저항성이 강하며, ‘ㄷ, ㅌ’이 ‘ㄴ’ 모음 앞에서 ‘지, 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서북 방언의 음운적인 특징을 열거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는 괄호 안에 넣는다.

가) 서북 방언의 음운적 특징

- ‘ㅅ, ㅆ, ㅈ’의 뒤에서 ‘ㄷ’가 ‘ㄴ’로 발음되지 않는다.
 습원(십원), 일쪽(일찍), 즐다(질다), 아춤(아침), 음숙(음식)
- 경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① 덩거당 (정거장), 도타(좋다), 둥국(중국), 텃하(천하), 당개(장가)
 - ② 테격(체격), 퉁딕(충직)
 - ③ 딸따(짧다), 퉁계(층계)

- 어두의 ‘ㄴ’이 ‘ㅣ’ 모음 앞에서도 발음된다.
 - ① 니팍(이밥), 넌날(옛날), 닐굽(일곱), 녀름(여름)
 - ② 닝에(잉어), 냥반(양반), 뉴행(유행)

음운적 특징의 (가)-□-②)는 단모음화에 이른 용례들이고, (가)-□-③)는 본래 ‘ㅈ, ㅊ’이던 어휘들인데 경구개음화에 대한 저항에 따른 유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2) 문법적 특징

서북 방언의 특이한 조사 용법과 용언의 활용에 나타나는 특이한 어미를 문법적 특징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의 특징

- 주격 조사 ‘이, 래’
 - ① 코이 큰 그 에미네 말이요(코가 큰 그 여자 말이요)
 더기 바다가 뵈네다(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 ② 소래 달아났어요(소가 달아났어요)
 내래 갔다오갔수다(내가 갔다오겠습니다)
- 공동격 조사 ‘과, 하구’
 - ① 친구과 얘기 좀 했수다(친구와 이야기 좀 했습니다)
 - ② 소과하구 말에다 잔뜩 신고 갔어요(소와 말에다 잔뜩 신고 갔어요)
- 보조 조사 ‘암불라, 암걸라’
 - ① 나암불라 안 가믄 돼갔소(나조차 안 가면 되겠소)
 - ② 너암걸라 달라구 그르믄 어카간(너조차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나) 어미의 특징

- 과거 시제 어미 ‘댓, 드랫’
 - ① 누구래 찾아가댓나(누가 찾아갔다)
 - ② 님자네 집에 갔드랫는데 어딜 갔댓소(임자네 집에 갔었는데 어디를 갔었소)

□ 평서형 종결 어미

- ① 클마니 오실 때가 댓습무다(할머니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 ② 가덜이 말 잘 안 듣습먼다(그 아이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 ③ 한번에 늑백원을 벌으와요(한번에 육백원을 벌니다)
- ④ 아를 업구서 일힙니다래(아이를 업고서 일합니다 그러)
- ⑤ 내래 개 오디요(내가 가져 오지요)
- ⑥ 작업 반당과 하냥 가구래(작업 반장과 함께 가구려)

□ 의문형 종결 어미

- ① 어느메 가십네까(어디로 가십니까)
- ② 오닐 우덩 간답테까(오늘 일부러 간답디까)
- ③ 문을 열어 뒀(문을 열어 두었니)
- ④ 그 사람 어느메 간(그 사람 어디에 갔느냐)

□ 명령형 및 청유형 종결 어미

- ① 어서 가시라요(어서 가십시오)
- ② 이제 일을 시작헙세다(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 연결 어미

- ① 그래 들썩 해가구 갔소다(그래 들썩 해가지고 갔습니다)
- ② 가기는 가디만 똥겨 같디 않습먼다(가기는 가지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③ 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구래(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구려)
- ④ 보라 가니까니 없쉬다(보러 가니까 없습니다)
- ⑤ 상덤에 가문 만이 있습메(상점에 가면 많이 있소)

다) 어휘적 특징

어휘적 특징으로는 합성어에서 분석되는 접사의 특징과 서북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수한 어휘를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 잘 쓰이는 접미사

접미사 '아지/어지, 양이/앵이

- ① 살가지(살), 불거지(노을)
- ② 말랭이(마루), 갈구랑이(갈구리)

접미사 ‘기, 개, 갱이, 대기, 댕이’

① 녹두기(녹두), 넙차개(호주머니), 새갱이(작은 새우), 독갱이(작은 독)

② 봉대기(봉우리), 감태기(감투), 몽댕이(먼지), 누평이(늪)

기타 접사

끈타부(끈), 벌격지(벌레), 벨구디(벼룩), 주먼치(주머니), 떠깡이(뚜껑)

□ 특유한 어휘

① 일반 어휘

아이물(처음 먹이는 물), 얼커니(먼 일가), 널미녕(굵은 무명의 한 종류), 과티다(떠들어대다, 소리치다), 움허다(정신을 집중하다), 재장바르다(예민하다, 약하다), 호니허다(시끄럽다), 벌차다(세차다), 야싸허다(딱하다, 야릇하다), 알쫘허다(순전히 그것만 있다),

② 친족 어휘

크나반/크나배/하내비(할아버지), 클마니/클만(할머니)

아바니/아반(아버지), 오마니(어머니)

오레미(올케), 오르바니(오라버니)

서나(남편, 사내), 에미네/넨(아내, 여자)

맡아뻘(큰아버지), 맡엄매(큰어머니)

적은아(동생)

가소마니(장모)

너쫘자(증손자)

나. 동북 방언

동북 방언은 육진 지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와 안평군 이북의 함경남도에서 사용되는 방언이다. 동북 방언은 동해안 연안을 따라 형성된 방언권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동남 방언과도 관련이 있다. 속초 피난민 언어의 주류는 동북 방언에 있다.

1) 음운적 특징

동북 방언의 음운적 특징으로는 전설 모음화와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기타의 특징적인 현상들과 함께 음운적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동북 방언의 음운적 특징

□ 전설 모음화

- ① 궤기(고기), 뉘비(누에), 핵교(학교), 사래미(사람이)
- ② 상튀(상투), 데러분(더러운), 모재(모자)

□ 구개음화

- ① ‘ㄷ, ㅌ’의 구개음화는 표준어와 같다.
- ② 지슴(김), 지달구다(기다리다), 치(키), 송(홍), 세때(혀)

□ 어중의 ‘ㅅ, ㅂ, ㄱ’이 나타난다.

- ① 가슬(가을), 마슬/마실(마을), 가새(가위)
 낫다~나스니, 젓다~저스니
- ② 누베/뉘비(누에), 새비(새우), 우병/우봉(우영)
 곶다~고부니, 겁다~기부니, 칩다~치부니
- ③ 시구다/시쿠다(시다), 멸구/멸기(머루), 몰개/몰개미(모래), 실경/실공(시렁)

□ 어중이나 어말의 연구개 비음 ‘ㅇ’이 탈락하면서 앞 모음이 비음화하거나, 모음과 ‘ㅣ’모음 사이의 ‘ㄴ’이 탈락하면서 앞에 있는 모음이 비음화한다(밑줄 부분). 또는 비자음이 완전히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¹⁾

- ① 걱제~이(걱정이), 따~이(땅이), 고재~이(고장이), 모애~이다(모양이다)
- ② 식자~(식장, 찬장), 피~야(평양)
- ③ 아~이(아니), 마~이(많이), 가마~이(가만히)
- ④ 그야(그냥), 내연(내년), 오연(오년)

1) 비모음화鼻母音化 표시는 비모음이 되는 모음 뒤에 ‘~’를 표기한다.

2) 문법적 특징

동북 방언의 특이한 조사 용법과 용언의 활용에 나타나는 특이한 어미를 문법적 특징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의 특징

□ 주격 조사 ‘이, 가’ 의 용법

- ① 나라이 수테 발전했음매(나라가 많이 발전하였소)
- ② 이것이가 저것보다 좋수다(이것이 저것보다 좋습니다)

□ 목적격 조사 ‘으, 르’

- ① 쇠르 몰구 가우다(소를 몰고 가시오)
- ② 밥으 먹어야 하젠소(밥을 먹어야 하지 않소)

□ 부사격 ‘게, 끼’

- ① 내사 뉘게 주는젠지 모르젠소(내야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지 않소)
- ② 운전수끼 말하무 된다이(운전수에게 말하면 된다)

□ 기타의 조사

- ① 이리루 가무 신흥으루 가지비(이리로 가면 신흥으로 가지)
- ② 차마 눈을루 볼 수 없습데(차마 눈으로 볼 수 없습디다)
- ③ 금년으느 조йка 감지두 대풍이웁세(금년은 조와 감자도 대풍입니다)
- ④ 보리밥보구사 더 낫지비(보리밥보다야 더 낫지)
- ⑤ 아덜아부라(/아부러) 다 가구 업스(아이들조차 다 가고 없소)
(아이들 아울러 다 가고 없소)

나) 어미의 특징

□ 평서형 종결 어미

- ① 저 산에느 예끼두 있음다(저 산에는 여우도 있습니다)
- ② 금연에느 귀밀이랑 잘 댕습니(금년에는 귀밀이랑 잘 댕습니다)
- ③ 여기서 머지 애임(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 ④ 쇠 들으 기루우다(소 들을 기릅니다)
- ⑤ 아자꺼지 농살 했수다(이제까지 농사를 했습니다)

- ⑥ 이새간지 오래 됐답데(이사간지 오래 되었답니다)
- ⑦ 나두 모르구 그릴루 갔다이(나도 모르고 그리로 갔다)
- ⑧ 그래썸메(↘)(그렸습니다)

□ 의문형 종결 어미

- ① 이거 무스겁니까(이것이 무엇입니까)
- ② 여기서 길주 한 이십리대까(여기서 길주가 한 이십리 되오)
- ③ 그래썸메(↗)(그렸습니까)

□ 명령형 및 청유형 종결 어미

- ① 퇴끼 한 마리 잡아 읍소(토끼 한 마리 잡아 오십시오)
- ② 여기다 모다구르 박소(여기에다 못을 박으시오)
- ③ 빨리 가세요(빨리 가세)
- ④ 날래 갑세(빨리 가세)

□ 연결 어미

- ① 물이 혼하니까나 농새 걱정 없스(물이 혼하니까 농사 걱정이 없소)
- ② 폐야으 가무 내 손지 만내보우다(평양에 가면 내 손자 만나보시오)
- ③ 술기 타자구 그러우다(수레 타려고 그렇니다)

3) 어휘적 특징

어휘적 특징으로는 합성어에서 분석되는 접사의 특징과 동북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수한 어휘를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가) 잘 쓰이는 접미사

□ 접미사 ‘아지/어지/아치/악지’

- ① 놀가지(노루), 썰지(송아지), 덕어지(언덕), 강아치/개지(강아지), 모각지(먹서리)

□ 접미사 ‘끼, 구, 대기’

- ① 다루매끼(대님)
- ② 부꾸(북), 수꾸(숯), 도꾸(뚝자리)
- ③ 목대기(목침)

나) 특유한 어휘

□ 일반 어휘

빼치다(참견하다), 마스다(부수다), 얼빰하다(멍하다), 재빌루(자기 힘으로), 빨주깨/뺨줄깨(활발한 여자), 오새(철), 피개(새끼 낳는 암돼지), 참질땅(보드라운 땅, 참진흙땅)

□ 어업 관련 어휘

바로가다(고기잡이 가다), 마물(남쪽에서 밀려오는 물), 마반냄물(남쪽으로 나가는 물), 지내(질게 낀 안개), 한놀(뒤에서 방향을 잡는 노), 물배지(물바가지), 물더품(물거품)

□ 친족 어휘

큰아배/클아바이(할아버지)

큰아매/아마이/아매/우매(할머니)

만아배(큰아버지)

만아매(큰어머니), 큰제미(큰어머니)

아배(아버지)

어매(어머니)

어시(부모)

가스집/가시집(처가)

다. 육진 방언

함경북도의 부령富寧, 경흥慶興, 경원慶源, 온성穩城, 종성鐘城, 회령會寧의 여섯 군은 흔히 육읍六邑, 또는 육진六鎭으로 통칭된다. 육진이란 명칭은 조선 세종 때에 두만강 지역의 여진족을 제압하고 이곳에 육진을 설치한 데서 유래한다. 육진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국토가 된 것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갖는 이 지역의 언어는 부령과 경흥의 남부 지역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함경 방언과 구분되는 점이 많아서 육진 방언으로 하위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1) 음운적 특징

육진 방언의 음운적 특징으로는 구개음화의 저항성에 있어서 서북 방언과 유사하나 약간 편이고, 어중의 ‘ㅅ, ㄱ, ㅂ’의 개재와 같은 현상은 동북 방언과 유사하다. 이들 현상을 비롯한 기타의 음운 현상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육진 방언의 음운적 특징

□ 구개음화에 대한 저항

도타(좃다), 티장(치장), 더것덜(저것들), 텃하(천하), 고디(꽃이), -디요(-지요)

□ 어중의 ‘ㅅ, ㅂ, ㄱ’이 나타난다.

① 가슬(가을), 겨슬(겨울), 잇다~이스니(이으니)

② 호박(확), 누베(누에), 밭다~미브니(미우니)

③ 벌거지(벌레), 갈기(가루),

□ 어두의 ‘ㄴ’

① 니부자리(이부자리), 녀름(여름), 념말(옛말)

② 녹십(육십), 네절(예절)

2) 문법적 특징

육진 방언의 특이한 조사 용법과 용언의 활용에 나타나는 특이한 어미를 동북 방언과 다른 점만 열거하여 문법적 특징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및 어미의 특징

□ 부사격 조사 ‘파, 과’

① 그 사람이 나와 동갑인데(그 사람이 나와 동갑인데)

② 종지와 돼비르 마이 했소(종자와 돼비를 많이 했소)

□ 존대 어미

① 큰아바니랑 다 저옵서쓰꾸마(할아버지랑 다 계셨습니다)

② 큰아매느 니른너입시꾸마(할머니는 일흔넷이십니다)

③ 다 압시께꿈(다 아시겠습니다)

- 평서형 종결 어미
 - ① 영기 우리집이 있스꾸마(여기 우리집이 있습니다)
 - ② 밥으 녀어스꼬마(밥을 먹었습니다)
 - ③ 열다섯에 시집 왔스파니(열다섯에 시집 왔습니다)
 - ④ 무산으 칩은데디(무산은 추운데지)
- 의문형 종결 어미
 - ① 영의 왔습니까(여기 왔습니까)
 - ② 여라 사람 가티 감둥(여러 사람이 같이 갑니까)
 - ③ 이렇거 가져완(이런것 가져왔니)
- 명령형 및 청유형 종결 어미
 - ① 내 말으 들어봄게(내 말을 들어보게)
 - ④ 일으 날래 하께(일을 빨리 하께)

3) 어휘적 특징

육진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수한 어휘의 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특유한 어휘

□ 일반 어휘

우재(농담), 고수재기(곱절되는 수확), 녀(수염), 모시간(외양간), 미새미치다(완강히 반항하다), 종배(돌배), 자심하다(귀찮다), 사곡(끼니), 사냥하다(나무하다), 동애 고지(호박꽃), 불디(아주), 쾌마대(툽), 나래(후에), 빼새/머새(바보), 말쩍(모두), 여름(열매), 고테(다시), 완우루(완전히)

□ 친족 어휘

크라반(할아버지), 새기(색씨), 나그네(남편), 시애끼(시동생), 노데기(노친네)

3.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 특징

속초시 청호동 주민은 함경도 주민이 주류를 이루고 약간의 평안도 주민이 혼재해 있으며, 함경도 가운데서도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주민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청호동의 언어는 속초 방언과 함께 평안도 함경도 방언이 섞여 있는 착잡성錯雜性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북청군 주민이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도 북청 출신의 신향민 언어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북청군 출신의 월남민을 주 제보자로 한 방언 조사를 토대로 하여 청호동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청호동 방언의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청호동 방언 제보자

	〈성명〉	〈성별〉	〈나이〉	〈원적〉
	김성길	남	73	함경남도 북청군
	여석창	남	72	함경남도 북청군
	최옥순	여	68	함경남도 북청군
	이주선	남	76	함경남도 북청군

가. 음운적 특징

1) 성조 체계聲調體系

동해안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저高低에 의한 의미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북청어가 중심인 청호동의 언어도 여전히 성조(聲調, tone)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동남 방언과 마찬가지로 동북 방언은 성조소聲調素로서 고조高調와 저조低調의 변별적인 두 성조소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조에 의한 변별 기능을 동남 방언인 경북 방언과 비교한 어휘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²⁾

2) 해당 어휘 성조형은 최명옥(1998: 475-478)을 참조하였다.

가) <어휘>	<동남방언>	<동북방언>
말馬이	고-저	저-고
말斗이	고-고	고-저
말語이	저고-고	고-저, 저고-저
꽃花이	고-저	저-고
집家이	고-저	저-고
물水이	고-고	고-저
달月이	고-고	고-저
거미蛛가	고-저-저	저-고-저
다리脚가	저-고-저	고-저-저
구름雲이	고-고-저	고-저-저
까마귀鳥가	저-고-저-저	저-고-고-저
며느리婦가	고-저-저-저	저-고-저-저
무지개虹가	고-고-저-저	고-저-저-저
사다리梯가	저-저-고-저	저-고-고-저

그러나 이러한 성조형은 청호동 언어와 비교했을 때, 동북 방언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성조의 변별 기능이 약하여 동북 방언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나 개인에 따른 언어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청호동의 언어에 성조가 있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좀더 면밀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모음화鼻母音化

청호동 언어의 음운 현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음운 현상의 하나는 비모음화鼻母音化이다. 비모음화는 비음인 ‘ㄴ[n], ㅇ[ŋ]’이 주로 ‘이’ 모음 앞에서 앞 모음을 비모음화시키고 탈락하는 현상이다. 우선 이러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비모음화의 용례

- ‘ㄴ’의 경우

한번이지 → 한벼~:이지

많이 → 마~:이

신북청면이라고 → 신북청면~:이라고

함경선이거던 → 함경서~:이거던

가마니 → 가마~:이

노존이라는 → 노조~:이라는

아닌 → 아~:이, 아니구 → 아~:이구, 아니지 → 아~:이지

농군이러 → 농구~:이러

□ ‘오’의 경우

큰 강이 → 큰 가~:이

신북청이 → 신북처~:이

고랑이라도 → 고라~:이라도

이랑이 → 이라~:이

이백 평이 → 이백 피~:이

이백 평을 → 이백 피~:으

질병이라구 → 지벼~:이라구

우이정이다 → 우이저~:이다

구멍이 → 구머~:이

알맹이르 → 알매~:이르

고양이 → 교야~:이

방아 → 바~:

이와 같은 비모음화는 앞 모음이 비음화와 더불어 장음화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적 장음화(補償的長音化, compensatory lengthening)라 할 수 있다.

비모음화를 유발시키는 비음에는 양순비음兩脣鼻音인 ‘ㄹ’이 포함되지 않는다. 양순 비음이 비모음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조음체인 혀가 양순 비음에는 작용하지 않은 까닭이라 하겠다. 이것은 모음의 주요 조음체인 혀가 ‘ㄴ, ㄹ’의 조음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모음화는 모음의 비음화와 비음 탈락이라는 일련의 작용을 통하여 노력 경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양순 비음인 ‘ㄹ’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

치경음齒齶音이나 경구개음硬口蓋音 아래에서 후설모음後舌母音이 전설모음화하는 하는 것은 동북 방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음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호동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휘에서 전설모음화라 할 수 있는 용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전설모음화가 기대되는 어휘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역시 동북 방언에 기반을 둔 청호동 언어는 전설모음화에 적극적인 곳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해당 용례 및 반례를 각각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전설모음화의 용례

□ 수 → 시

부수어가지고 → 부시기가지고

수수땡기 → 시이땡기

숫돌 → 시뚜리

대목수 → 대목시

국수 → 국시

□ 일어나지 않는 경우

머스마, 쓸개, 업써쓸까야, 송구다(← 심다), 음숙(← 음식), 점슴(← 점심)

특히 반례에서 ‘음식’이 ‘음숙’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것은 전설모음화에 대한 저항이 이 지역의 특징인 점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움라우트(umlaut)

움라우트는 흔히 ‘이’ 움라우트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후설모음後舌母音이 뒤에 오는 ‘이’에 동화되어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하는 음운 현상이다. 움라우트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움라우트 용례

다니는 → 대니는, 땡기는

방망이 → 방맹이
 두루마기 → 두루매기
 보자기 → 보재기
 토끼 → 퇴끼
 포기 → 쫄기
 고기 → 괴기
 누비 → 뉘비

5) 전설고모음화前舌高母音化

전설고모음화는 용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에, 어’가 ‘이’ 모음화하는 현상으로서, 이것은 동남 방언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설고모음화의 용례

어울린 데 → 어울린 디
 짓는 게지(짓는 것이지) → 짓는 기지
 이바비란 게 → 이바비란 기
 이게 → 이기
 그런다고 → 그린다구
 가을에 가서 → 가으리 가서
 봄에 → 보미(보미 나가서 헤치게 되면)
 먹이고 → 미기구
 그런다고 → 그린다구
 이렇게 → 이리키
 처녀 → 치에
 상투 → 상티

6) 구개음화口蓋音化

청호동 언어에서 구개음화는 ‘ㄱ’ 구개음화가 많이 발견된다. 구개음화의 용례를 보이

면 다음과 같다. 구개음화는 남부 및 동부 방언의 특징으로서 특히 서북 방언과 구별되고 있다.

가) 구개음화의 용례

- 가까우니 → 가차우니
- 키 → 치
- 밭이 → 바치
- 길게 → 질게
- 길마 → 지르매(고어: 기르마/기르마)
- 만들어내는 → 맨지러내는
- 길어다가 → 지러다가
- 곁에 → (저)테 → 저테
- 끼리 → 찌리
- 길다랗게 → 지다라케
- 밭길질 → 밭찌질
- 가시다(洗) → 자시다
- 기저귀 → 지제기
- 겨드랑 → 저드랑
- 형 → (성) → 성

7) 음운 및 음절의 탈락

청호동 언어에서 음운 및 음절의 탈락은 다양한 종류가 발견된다. 종류별로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음운 및 음절 탈락의 용례

- 조사의 말음 탈락
 - 북청군수를 → 북청군수르
 - 참대를 → 참대르
 - 옷을 자를 적에 → 오스짜르찌기

농한기에는 → 농한기에는

□ 형태소 내부

울타리 → 우타리

만약에 → 마야게

강냉이 → 강네, 강네

항아리 → 하리

평양 → 피양

방앗간 → 바~간

겨울이 → 겨리

□ 합성어에서

돌쩌귀 → 도쪼기

오늘나조 → 오나조

□ 기타

어떻게 → 어테

때문에 → 따메

이렇게하면 → 이케하면

있지 않은가 → 있쟁가

음운의 탈락에 해당하는 것은 대개 비음鼻音이나 유음流音으로서, 청호동 언어에 많이 일어나는 비음 탈락 현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아울러 뒤에서 살피볼 개음절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음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운 현상은 발음 간소화라는 일반적인 원리에 의한 현상이므로 어느 방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일정한 원리로써 규칙화하기는 힘들다. 다만 조사의 말음 탈락은 단순한 음운 현상에 덧붙여 형태론적으로 해당 조사의 형태가 탈락된 형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론적 가치를 아울러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8) 음운의 첨가

음운의 첨가는 조사 ‘-(으)로’의 열결에서 ‘ㄹ’이 덧 생기는 현상이 발견된다. 용례만 간단히 보인다.

가) ‘ㄹ’ 첨가

여러가지로 → 여러가질루

따로 → 딸로

9) 단모음화單母音化

단모음화는 ‘여, 와, 위, 위’와 같은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특히 ‘명절 → 밍절’은 전설고모음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단모음화는 특정한 음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발음 편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언 음운 현상이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단모음화의 용례

몇이 → 메치

관념이 → 간녀미

부엌이 → 벽이

부어서 → 버서

사과 → 사가

과일 → 가일

기저귀 → 지제기

명절 → 밍절

10) 개음절화開音節化

개음절화는 종성의 파열음이 불파음화不破音化하지 않고 파열시키는 발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불파음화 현상은 국어사적으로 중세 국어 시기를 전후하여 완성된 음운 현상이다. 청호동 언어의 개음절화는 이 언어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몇몇 어휘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다만 형태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접미사 ‘-이’의 연결과 관련하여 개음절에 대한 지향성志向性이 다른 방언에 비교하여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접미사 ‘-이’를 연결하는 것도 일종의 개음화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음절화의 용례

짚 → 지프

노존 → 노조느

집은 → 지브는

떡, 떡이라 → 떡그, 떡기라

저녁 → 지너그

11) 용언의 활용에서

남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청호동의 언어는 ‘ㅂ’과 ‘ㅅ’을 어간 말음으로 하는 용언이 ‘오/우’로 약화되거나 또는 탈락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ㅂ’과 ‘ㅅ’을 어간 말음으로 하는 용언의 활용

□ ‘ㅂ’ 어간 말음

덥다 ~ 더버, 매다 ~ 매버, 그립다 ~ 그리바

□ ‘ㅅ’ 어간 말음

긋다 ~ 그서라, 짓다 ~ 지서라, 잇다 ~ 이서라

나. 문법적 특징

1) 조사의 연결

조사의 연결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음운의 탈락, 전설고모음화, 개음절화, 그리고 접미사 ‘-이’ 등의 특징적인 방언 현상에 의하여 다음과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사의 형태적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가) 조사 연결에 나타나는 각종 형태

□ 주격 조사

북청읍이 → 북청읍비가

집이 → 지비가

하나가 → 하내

모음이 → 모으미가

□ 목적격 조사

북청군수를 → 북청군수르

참대를 → 참테르

□ 부사격 조사

여러가지로 → 여러가질루

가을에 가서 → 가으리 가서

농한기에는 → 농한기에는

어업에 종사하지 → 어어비 종사하지

중국에 → 중구기

□ 보조사

북청군은 → 북청구느는

바칼은 → 바카트느는

돈은 → 도느는

밭은 → 바치는

농한기에는 → 농한기에는

주격 조사의 연결에서 ‘집이가’와 같은 것은 ‘-이’를 접미사로 처리하게 되지만, ‘하내(하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이(주격)’로 분석된다. 목적격 조사는 ‘르’이 탈락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부사격 조사는 음운의 첨가와 전설고모음화에 의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보조사 ‘-느’의 연결은 좀더 주의를 요한다. ‘돈은(도느는)’과 같은 경우는 ‘도느’를 개음절화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농한기에는’와 같은 경우를 참조하면 ‘느’이 탈락한 보조사 ‘-느’에 다시 보조사 ‘-느’이 중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미의 연결

어미의 연결에서 방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는 어미 ‘-

고'가 '-구'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어미 '-고'의 연결

그래가지고서 → 그래가지구서

잘 한다고 → 잘 한다구

3) 접미사 '-이'의 연결

청호동의 언어에서 받침으로 끝나는 말에 접미사 '-이'를 연결시킨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특히 동북 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접미사 '-이'를 연결한 형태는 해당 어휘가 개음절화 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핀 개음절화와 일정한 맥락의 일치 여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접미사 '-이'의 연결 형태는 그대로 주어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주격 조사 '-가'를 후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발화 상황에서 형태적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 접미사 '-이'에 의한 형태

이밥 → 이바비

명석 → 명서기

노블(노을) → 노브리

내굴 → 내구리

반딧불 → 반디뿌리

밭 → 바치

바람 → 바라미

다. 방언 어휘

1) 방언 어휘의 특징

청호동 방언 어휘의 특징은 함경남도 북청 언어의 어휘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

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 용례를 조사하였다.

청호동의 방언 어휘는 옛 고향의 언어를 잘 유지한 까닭으로 고어古語의 형태나 특수한 형태의 어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달(다리), 고굼(학질), 아시나조(초저녁), 열(쓸개), 우티(옷)’ 등의 고어형이나, ‘댕거지(고추), 노쟁이(여자), 노존(자리), 멀기(파도), 배재(울타리), 통골(소경), 흘기(그네)’ 등의 어원을 알 수 없는 어휘들이 많이 있다. 아울러 ‘누비(누에, 누이), 노블(노을)’ 등은 이들 어휘의 어원적 형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들이다.

어휘 의미에 있어서는 ‘그립다’가 ‘부족하여 아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나, 부엌 공간이 방과 함께 위치하는 북부 지역의 주거 특성상 ‘정지’가 ‘안방’의 의미로, ‘봉당’이 ‘부엌’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색다른 것이었다. 한편, 바람風을 뜻하는 고유 어휘인 ‘셋바람’이 ‘동풍東風’이 아닌 ‘북풍北風’을 뜻하고, ‘갈바람’이 ‘서풍西風’이 아닌 ‘남풍南風’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2) 방언 어휘의 용례

여기에 소개하는 청호동 방언 어휘는 방언 채록물과 거주민들에게서 얻은 것이다. 방언 어휘에는 해당하는 표준어나 간략한 뜻풀이를 하였으며, 고어古語와 관련이 있거나 어원적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³⁾

- 가달, 가다리: (사람의) 다리 ⇨ ‘다리足, 분파分派’를 뜻하는 고어 ‘가랄’과 관련이 있다.
- 가마치: 누룽지
- 가매: 가마
- 가매목, 가매모기: 부엌에서 가마솥을 거는 부근, 부뚜막
- 가세/가새: 가위 ⇨ 고어는 ‘갸’
- 가스미, 가스이미, 가스어머이: 장모 ⇨ 고어 ‘갓’은 ‘여자, 아내’를 뜻하는 말이다.
- 가스애비: 장인

3) 방언의 채록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출판한 방언조사 설문지의 항목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기초 어휘에 대한 조사를 우선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가오뎡: 가오리
- 간: 반찬 ⇨ 고어는 ‘간’으로 소금 성분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 간나, 갈라: 계집 아이 ⇨ 어원적으로 ‘갓女+아이兒’에서 생긴 말이다.
- 갈바람, 갈바라미: 남쪽에서 오는 바람 ⇨ ‘갈바람’은 원래 서풍西風이다.
- 감주: 막걸리
- 강네, 강네: 강냉이
- 개계: 가게 ⇨ ‘가계’의 어원은 한자어 ‘가假家’이다.
- 개자리: 가장자리
- 개지: 강아지 ⇨ 축소 접미사 ‘-아지’에서 비음鼻音 ‘ㅇ’이 탈락한 형태이다.
- 개파리: 개구쟁이
- 개패쟁이(개패재~이): 장난꾸러기
- 거두메: 벼 타작, 추수
- 거름벙이(거름배~이): 거지
- 검데기: 굴뚝 검댕이
- 게시케: 게젓 ⇨ ‘게蟹+식해食醢’이다. 생선젓을 뜻하는 ‘식해食醢’는 쌀밥에 엿기름을 넣어 만든 ‘식해食醢’와 구분된다.
- 게우닥질/게우각질: 구토嘔吐
- 고굼, 고구미: 학질, 말라리아 ⇨ 고어로는 ‘고뵈, 고곰’이 함께 쓰였다. ‘고뵈’과 ‘고곰’은 같은 말이다. 음운 변화에서 ‘뵈’와 ‘기’은 흔히 넘나든다. ‘거뵈龜’이 ‘거북’이 되고, ‘솨裏’이 ‘속’이 되었다.
- 고방: 광 ⇨ 표준어 ‘광’은 ‘고방庫房’에서 음운 탈락과 축약에 의해 생긴 말이다.
- 고토밤, 고토바미: 도토리 ⇨ ‘꼬투리’의 고어인 ‘고토리’와 관련이 있는 형태로 생각된다.
- 곤물: (떡)고물
- 곰배: 아궁이에서 재를 퍼내는 기구, 고무래
- 곱찌: 팽이
- 구먹떠리: 굴뚝 부근
- 구묵, 구무기: 굴뚝, 구멍 ⇨ ‘구멍’의 고어로는 ‘구무, 굽’의 쌍형이 있었다.
- 구세/구새: 굴뚝
- 구시: 외양간에 걸어 놓고 사용하는 소의 여물통, 구유 ⇨ 표준어 ‘구유’의 고어로

는 ‘구슈, 구시’이다.

- 구엥, 구영: 구멍
- 국뚜기, 국띠기: 아궁이의 재를 긁어내는 기구, 고무래, 부삽
- 군, 구디: 곳 ☞ 표준어 ‘곳處’의 고어는 받침이 ‘디’인 ‘곶’이었다.
- 그: 그곳, 거기
- 그립다: 아쉽다(예: 소금이 그리우니까, 물이 그립거든) ☞ 청호동 언어에서는 ‘그립다’가 거의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아쉬워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 길굼/질굼, 질그미: 콩나물이나 녹두나물
- 까마치: 누룽지
- 까세다: 씻다, 가시다
- 꺼꺼버리: 말더듬이
- 꼬장바지: 속바지
- 내굴, 내구리: 연기 ☞ ‘내굴, 내구리’는 ‘내煙氣’에 접사가 붙은 말일 것이다.
- 노블, 노브리: 노을 ☞ 표준어 ‘노을’의 고어는 ‘노을, 노을, 노을’ 등이지만, 아마도 ‘노블’이 근원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노쟁이(노재~이): 여자
- 노존(노조느): 깔고 생활하는 자리의 일종
- 놀가지: 노루
- 누갈: 눈알
- 누꺼리: 싸구려
- 누비/뉘비: 누이 ☞ ‘누이’의 고어는 ‘누위’이므로 방언형 ‘누비/뉘비’는 어원적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 누비고치: 누에고치 ☞ ‘누에’의 어원은 ‘눙-臥+에’이다. 그러므로 ‘누비’는 ‘누베’에서 전설고모음화를 거친 형태임을 알 수 있고, ‘뉘비’는 다시 ‘누비’에서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태라 하겠다.
- 누이: 누에 ☞ 청호동 언어에서는 ‘누비’와 ‘누이’가 함께 쓰인다.
- 눙, 누마: 사내 남자를 이르는 말 ☞ 중세어에서 ‘눔者’은 비칭卑稱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平稱이었다.
- 니비띠: 허리띠
- 단감주: 식혜

- 닭수리: 독수리
- 담배 콩대기: 담배 콩초
- 대창: 조그만 창문, 환기창
- 대통: 담뱃대(주로 긴 것)
- 땡거지: 고추 ⇨ ‘고추’의 방언인 ‘당가지, 땡거지, 땡가지’는 대체로 북부 방언권에서 사용되는 어휘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당가지’로서, 어원적으로는 ‘당唐+가지’로 분석된다. ‘고추’는 가짓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 ‘가지’의 어원은 한자어 ‘가자茄子’에 있고, ‘고추’의 어원 역시 한자어 ‘고초(苦草 또는 苦椒)’에 있다.
- 덤바치: 퇴비장 ⇨ ‘덤’은 ‘두엄’의 준말일 것이며, ‘바치’는 ‘밭’일 것이다.
- 도쫓기: 돌쩌귀, 문지도리
- 도투: 돼지
- 두가달방: 두다리 방아
- 두렁상: 둥그렇게 생긴 밥상
- 둥기, 두멍, 두무: 담은 큰 그릇
- 뒤비/디비: 두부 ⇨ ‘두부’에서 음운 변화한 말이다.
- 뒷고방: 뒷광
- 디우란/뒤올안: 뒷마당
- 따꼼쟁이(따꼼재~이): 자기것을 매우 아끼는 사람
- 따발이: 또아리
- 떡구시: 떡판
- 멀기: 파도, 물결, 멀미 ⇨ ‘멀기’는 강원도와 함경도 방언으로 알려져 있는 어휘이다. ‘멀기’는 ‘물결’이란 의미 외에 ‘멀미’의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멀미’와는 같은 어원이라 생각된다.
- 메떼기: 메뚜기
- 메지: 메주
- 모새: 모래
- 몽디, 몽치: 몽둥이 ⇨ ‘몽디’는 ‘몽둥이 → 몽두이 → 몽뒤 → 몽디’로 변한 말이다.
- 무끼, 무꾸: 무 ⇨ ‘무’의 고어는 ‘무수’이다.
- 무릅고도리: 허벅지나 무릎 부위의 뼈

- 무스그: 무슨
- 무쫂리: 담뱃대(주로 짧은 것), 담배 파이프
- 물뚱기, 물두무: 물을 길어 담는 통
- 미꽂, 미꽂이, 미꽂기: 엉덩이
- 바다첸처리, 바다천처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사나운 바람
- 바당: 부엌
- 바당문: 부엌문
- 바지가달: 바짓가랑이
- 반칫상: 서당의 훈장에게 바치는 진지, 또는 잘 차린 상
- 발찌질: 발길질
- 방(바~): 방아
- 방칫돌: 다듬잇돌
- 배재: 울타리 ☞ 지역에 따라서는 ‘바자/바지(경북), 바재(중부 및 북부), 바주(평안, 황해)’ 등의 관련 형태가 있다. 이러한 방언 어휘는 기본적으로 ‘바자’라는 형태가 기본적인 것이며, 다시 ‘바자’는 한자어 ‘파자篋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 배차/배채: 배추 ☞ ‘배추’의 어원은 한자어 ‘백채白菜’이다.
- 밴세: (떡)만두
- 벨, 배리: 창자 ☞ ‘벨’은 표준어 ‘배알’의 준말이다. ‘배알’의 고어는 ‘비술ᄃᆞᆫ’이다. 어원적으로는 ‘비腹+술ᄃᆞᆫ肉’으로 이해되고 있다.
- 뱃꾸비: 배꼽
- 버버리: 병어리
- 버치: 넙적한 질그릇
- 베랑때: 경사진 벼랑
- 봉당: 주방 ☞ ‘봉당封堂’의 원래 뜻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를 흠바닥 그대로 둔 곳’이다. 청호동 언어에서는 ‘정지’가 ‘안방’의 뜻으로 쓰이고, ‘봉당’이나 ‘벽’이 ‘부엌’의 뜻으로 쓰인다.
- 부시기: 거짓말
- 비치각질, 빼치각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말참견
- 빼다지, 빼베: 서랍
- 빼지: 다래끼

- 사막때기: 사마귀
- 사치: 새끼(줄) ⇨ ‘새끼草索’의 고어는 ‘솻’이므로, 고어 형태를 원형에 가깝게 보여주는 방언형이다.
- 상티: 상투 ⇨ ‘상투’의 어원은 한자어 ‘상두上頭’이다.
- 새뜨개: 사팔뜨기
- 새복: 새벽 ⇨ ‘새벽’의 고어는 ‘새박, 새배’이고, 어원은 ‘새新, 東+ 밝明’으로 추정된다.
- 새비: 새우 ⇨ ‘새우鰕’의 고어는 ‘사비’이다.
- 새옹: 총각, 시동생 ⇨ 중세어에서 ‘샤옹’은 ‘남편(夫)’을 뜻했다.
- 셋바람, 셋바라미: 북쪽에서 오는 바람 ⇨ ‘셋바람’은 원래 동풍東風이다.
- 생지: 행주 ⇨ ‘행주’의 고어는 ‘형주’이다. ‘생지’는 ‘행주’에서 ‘ㅎ → 스’ 구개음화와 전설음화를 거쳐서 된 말이다.
- 서나: 결혼한 남자 ⇨ ‘선스나’가 줄여서 된 말로 생각되며, ‘서나’의 어원은 중세어 ‘손莊丁’으로 추정된다.
- 서답: 빨랫감 ⇨ ‘서답’의 어원은 ‘세답洗踏’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 선스나: 남자, 사내 ⇨ ‘선스나’는 동북 및 서북 방언에 분포하므로 한국의 북부 방언이라 할 수 있다. ‘선’은 ‘손莊丁’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스나’는 ‘사나이’의 고어인 ‘사히男子’로부터의 변화한 형태로 생각된다.
- 성: 형
- 썩, 서피: 껍질 ⇨ ‘썩’은 ‘썩나무薪’를 뜻하는 ‘썩’에서 온 말이다.
- 세치: 작은 이면수
- 소금재: 잠자리(곤충)
- 소래: 세숫대야 ⇨ 중세어 ‘소라盥’는 둥글넓적하게 생긴 큰 그릇을 뜻하는 말이다.
- 소케: 목화, 솜, 속, 고갱이
- 소케기, 소쾌기: 하얀 배추속
- 솔검부리: 마른 솔잎
- 쇠구시: (소)구유
- 쇠추네: 작은 미꾸라지, 작은 개울에 사는 고기, 아마도 세천어細川魚 또는 소천어小川魚에서 온 말로 생각됨.
- 순대구영: 하수도

- 솟가매(수까매): 솟구멍, 정수리
- 쉼미: 수염
- 시애끼: 시누이나 시동생
- 시이, 시이때, 시이땡기: 수수, 수숫대
- 신다리: 허벅지, 넓적다리 ⇨ ‘신다리’는 북부 방언이다.
- 씨개: 서캐, 이의 알
- 썰: 헛바늘 ⇨ ‘썰 쓸다(헛바늘이 돋다)’와 같은 관용구 형식으로 쓰인다.
- 아궁지: 아궁이
- 아마이: 할머니(혈육간에는 사용하지 않음)
- 아바이: 할아버지
- 아шина조: 초저녁 ⇨ ‘아шина조’는 ‘아시初+나조夕’에 의한 합성어이다. ‘아시’는 ‘애시당초’의 ‘애시’와 같은 말이며, ‘나조’는 ‘저녁夕’을 뜻하는 말로서 중세어에서 빈번히 사용된 말이다.
- 아재비, 아지비: 숙부
- 아지미: 숙모
- 아지미: 형수, 숙모
- 안고방: 안광 ⇨ ‘고방’ 참조
- 안까이: 아내, 마누라
- 어기머케다/어기막히다, 어기차다: 어이없다, 기가 차다
- 열기: 큰 빗
- 열라: 어린애
- 열레기: 얼룩
- 에미네: 여자, 부인들
- 여수땡이: 사탕수수
- 역사질하다: 노력하다
- 연무기: 서까래
- 열, 여리: 쓸개 ⇨ ‘쓸개’를 뜻하는 ‘열, 여리’는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방언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방언이다. ‘열’은 중세어에서 이미 사용되었으며, ‘웅담熊膽’을 ‘고뫼열’이라 하였다.
- 열레: 서까래

- 엄지: 부추
- 엄치개, 엽치개: 주머니
- 엽차개: 주머니
- 옹다: 냇다 ⇨ ‘녕다’의 고어는 ‘녕다’이다. 그러므로 ‘녕다’에서 초성의 ‘ㄴ’이 탈락하면 ‘옹다’가 되고, 초성의 ‘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모음 ‘이(j)’를 탈락시키면 ‘녕다’가 된다. 이것은 두음법칙頭音法則에서 초성의 ‘ㄴ’이 ‘이’모음 앞에 오기 어려운 음운적 상황을 방언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 예장간/애장간, 예장간이/애장간이: 대장간 ⇨ ‘예장간/애장간’은 함경도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이다.
- 오나조: 오늘 저녁, 오늘 밤 ⇨ ‘오늘’의 고어는 ‘오닐’로서, 어원적 분석은 ‘온스+올디’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오나조’는 ‘온스+나조夕’에서 동음 생략에 의해 ‘ㄴ’이 탈락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왜지: 오얏 열매
- 외가달방: 외다리 방아
- 외기호미: 호미의 일종
- 우뎡, 우떼니: 뒷마당
- 우티: 옷 ⇨ ‘우티’의 고어형은 ‘우퇴’이다. 원래 ‘우퇴’는 ‘치마’나 ‘아랫도리옷’을 뜻하는 말이었다. 청호동 방언에서는 일반적인 ‘옷’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 웅디: 웅덩이 ⇨ ‘웅덩이’에서 둘째 음절의 비음 ‘ㅇ’이 탈락한 형태인 ‘웅더이’에서 ‘웅디’로 변화한 말이다.
- 유거리: 거지
- 이민수: 이면수
- 이밥/이바비, 이팍/이파비: 쌀밥 ⇨ ‘이밥, 이팍’의 ‘이’는 고어에서 ‘니’로서, ‘니’또는 ‘니밭, 니쌀’은 ‘땀쌀’을 뜻하는 말이다.
- 이차: 이내, 곧
- 자랑, 자랑이(자라~이): 어른 ⇨ 함경도에서만 사용된다. 이 밖에도 ‘자란이, 자랑기, 자란사람’ 등의 형태도 함경도 지역에서 사용되므로, 이 말의 어원은 ‘자라-成長+ㄴ(어미)+이(접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새, 연짜새: 물레질할 때, 실 감는 기구
- 자시다: 씻다, 가시다

- 자신물: 그릇 씻은 물
- 자신통: 그릇 씻는 통
- 작디: 작두
- 작시: 지게 바치는 것
- 장물: 국
- 짐바치: 짐쟁이
- 징약간: 변소
- 징지: 안방
- 조가지: 조개
- 조양간: 찬장
- 조팍: 조밥
- 종가리: 종아리
- 주디: 주둥이 ⇨ ‘주둥이 → 주두이 → 주디’의 변화 과정을 거친 말이다.
- 지렁(지러~): 간장 ⇨ 전라도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다. 관련된 형태로는 ‘지랑(경북, 충남), 지레(함북)’ 등이 있다.
- 지렁보시기: 간장 종지
- 지자마기: 참빛
- 지제기: 기저귀
- 질구벙이: 절름발이
- 짐치: 김치 ⇨ ‘김치’의 가장 오래된 고어형은 ‘딴치’이며, 그 이후의 어형으로는 ‘짐치, 탐치’ 등이 있다. 그러므로 ‘짐치’는 ‘딴치’에서 ‘ㄷ’ 구개음화를 거친 어형으로서, 결코 ‘김치’로부터 ‘ㄱ’ 구개음화에 의해 변화한 말이 아니다. ‘김치’는 ‘짐치’로부터 부정회귀不正回歸에 의해 생긴 어형이다. ‘김치’의 어원은 한자어 ‘침채 沈菜’에 있다.
- 집나이: 출가외인, 시집간 딸
- 철떡, 철떠그: 찰떡, 인절미
- 첩시꾸비: 접시의 일종, 접시의 굽(바닥)
- 초리: 꼬리 ⇨ ‘꼬리’의 고어는 ‘소리’로서 같은 의미로 쓰인 ‘초리’와는 별개의 말이다. ‘초리’는 표준어에도 ‘회초리, 눈초리’와 같은 말에 남아 있다.
- 초매, 치매: 치마

- 초매땡이: 부인, 시집간 여자
- 치매띠: 여자(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 치에: 처녀
- 칠시간: 변소
- 크애비: 큰아버지
- 큰애비: 큰아버지
- 큰이미, 큰어머이: 큰어머니
- 툅씨기: 명석의 일종
- 토새: 지신을 모시는 것
- 통골, 통고리: 소경, 장님 ☞ ‘쇠경’ 이란 말과 함께 쓰인다.
- 하니바람, 하니바라미: 하니바람. 서쪽에서 오는 바람
- 하리: 항아리 ☞ ‘항아리’ 에서 비음 ‘ㅇ’ 이 탈락한 형태이다.
- 할개: 기지개
- 해자바리: 해바라기
- 헌거트: 형걸 ☞ ‘형걸’ 의 고어는 ‘헌것’ 이었으므로 제 2음절의 받침은 오히려 청호동 방언이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헤챙이(헤체~이): 언챙이
- 호부래비: 홀아버
- 호부리미: 과부
- 홀기: 그네 ☞ 함북 지역에서는 ‘굴기’ 라는 형태로 쓰이므로 ‘홀기’ 는 ‘굴기’ 와 관련 있는 형태이며, ‘굴기’ 는 고어 ‘글위’ 와 관련되므로, ‘홀기’ 의 ‘홀’ 은 ‘굴’ 에서 마찰음화한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라도에는 ‘군지’ 라는 형태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굴기, 군지’ 는 우선 관형형 어미라 할 수 있는 ‘-ㄴ’ 의 연결 여부에 의해 분화하고, 구개음화의 여부를 거쳐 각각 형성된 어휘인 것을 알 수 있다.

속초시 피난민의 언어는 곧 속초시에 있어서의 북한의 언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북 방언과 육진 방언의 사용자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피난민의 주거 상황에서 집단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방언권 해당 지역의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옛 언어를 기억 속에 간직하면서 주위의 언어에 동화되는 언어 생활을 했다고 하겠다. 반면에 주로 함경남도를 고향으로 하는 속초시 피난민들은 청호동이라는 고립된 지역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분

단 반세기를 버티는 끈질긴 생활사를 엮어왔다는 점에서 우선 놀라울 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도, 속초시 내에서 동북 방언이 살아 숨쉬도록 하는 집단의 기반을 잃지 않았다.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남도 방언(특히 북청 언어)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다. 이것은 속초시 청호동 지역에서 함경남도 피난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이곳의 문화나 언어에 동화되지 않고, 고향의 민속과 언어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호동 주민의 언어사용을 관찰하면, 강원도 속초 방언이나 표준어 어휘를 고향의 언어와 함께 중복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속초시 청호동 주민들은 두 방언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二重言語, bilingualism)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한 언어에 대한 복수의 방언을 기준으로 이중언어를 논의한다면,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는 모든 화자話者가 이중언어 사용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초시 청호동 월남越南 주민들의 복수 방언 사용 실태는 집단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정도가 심한 복수 방언 사용자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청호동 주민의 언어에서도 함경남도(특히 북청군)의 방언 특징을 염두에 두고 청호동 언어를 기술하였다. 청호동의 언어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핀 바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동해안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북부 지역의 방언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가장 큰 언어적 특징은 성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구개음화의 현저한 진행, ‘ㅂ, ㅅ’ 불규칙 용언의 규칙 활용 등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특히 성조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 하루빨리 청산되어 속초시에 거주하는 북한의 피난민들이 자신들의 언어가 살아 있는 고향 땅에서 그리운 가족과 친구를 다시 만나 고향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서럽고 깊은 한恨을 흐르는 강물처럼 너울너울 풀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 참고 문헌

- 금성출판사(1996), 『국어대사전』
- 김무림(1992), 『국어음운론』 한신문화사.
- 김무림(1995), “영동방언의 ‘ㄱ’ 음 개재고 -국어음운사의 측면에서-” 『한남어문학』 20.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김영환(1982), 『조선어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출판국.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 민현식(1991), “제3장 속초의 방언” 『속초시지』 속초시.
-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 유창돈(1965),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기동(1987), 「함경남도 북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대학원.
- 이상규·백두현 외(1996), 『내일을 위한 방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전학석(1993),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 최학근(1990)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 황대화(1986), 『동해안 방언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S. R. Ramsey(1974), “함경·경상 양방언의 액센트 연구” 『국어학』 2, 국어학회.



제4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사회복지 · 환경 · 교육

신 재 주(동우대 행정학과 교수)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를 정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데탕트 시대를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되며, 피난민 1세대들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전쟁사의 일부분인 피난사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속초시는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실향민들이 거주해 왔던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피난민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정립하는 것은 속초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속초시는 머지 않아 닥칠 한반도 통일시대에 남과 북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시지탄은 있으나, 이러한 연구작업은 시대적인 요청이요, 필수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피난민 정착사란 과거의 퇴적을 기틀로 만들어지는 피난민들의 삶의 뒤안길이며, 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 경제적 · 물리적 환경에 기초하며, 현재를 반영하는 속초시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난민 정착사는 사실(fact)에 기초하여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피난민들의 희로애락과 관련된 각종의 현상들을 시간의 진행순서대로 나타내는 역사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초시의 피난민 정착사 작업은 검증되지 않은 사안들의 모음이 대부분이고 관련 자료와 통계치의 부재로 완벽한 연출이나 설계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둔다.

하지만 속초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

도 꼭 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여느 글과는 달리 피난사의 일부분을 써 내려갈 때는 새악시처럼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난민 정착사와의 소중한 인연을 실타래 풀 듯 접근하기도 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피난민 정착사 기록 작업은 속초시의 발전과정 중 피난민들이 살아왔던 생생한 과정을 순수하게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월남인들의 애환과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섞여있는 그 시대의 교육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및 의료·복지적 환경을 그려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피난민 정착사에 대한 접근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즉, 그들이 공부했던 교육기관, 건강을 돌보던 의료기관이나 시설, 구호활동, 사회보장제도, 복지시설, 피난민들만이 지니고 있었던 관혼상제 그리고 음식문화 등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방법이다.

첫째, 피난민 정착사를 기술함에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 피난민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시대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피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특성, 가치관, 사회적 배경, 문화적 환경 등에 대한 고찰이다. 셋째, 피난민들의 직업이나 생업, 직업과 계층 및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생존하고 있는 피난민들과의 직접인 대화를 통해 모색한다. 넷째, 피난민 정착촌에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업관련 기술과 정보, 계층, 언어, 음식 문화, 관습, 사회 의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방법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섯째, 과거 북한에서는 거의 만만적이었던 여러 지방의 월남인들이 정착촌에서 같이 살면서 새로운 언어와 음식 문화를 창조해 냈다는 점도 기술한다. 여섯째, 또한 원주민과 교류하거나 일부는 결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변용 시켜 왔다는 점도 함께 기술한다.

본 피난민 정착사 작업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거나 현재의 구성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속초시 피난민들의 문화적 특성을 정립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반도 통일은 정치적 통일은 물론,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속초시의 피난민 정착사 정리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예행연습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관련된 문제를 조명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당시 속초시 피난민 대부분은 북한의 실정을 잘 알고 월남한 사람들로서, 학력도 북한 사회에서 높은 편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난민 대부분은 초기 속초지역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여도 농토

가 없었고,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으며, 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오늘날까지 생업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보건 복지분야를 조사하면서 피난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병으로 인한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피난민 스스로가 복에서 배운 지식으로 서로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속초시 피난민에 대한 문헌자료는 당시 환경에 비추어볼 때 예상대로 찾아 볼 수 없어, 피난민 중에서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나이가 연만하신 관계로 한계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었으면 한다.

다시 말해 본 피난민 정착사 정리에 있어 가장 큰 한계점은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적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과의 녹취나 일상적인 정보를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귀옥(서울대 : 1998)의 논문은 본 글을 쓰는데 결정적인 조타수 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밝혀 두며, 향후 새로운 연구조사에 의해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피난사의 기록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다가서길 기대해 본다.

1. 속초 피난민 정착촌의 형성과정과 이동 동기

가. 정착촌 형성과정과 개관

정착촌 사람들 중 피난민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상당수 조사되었다. 이는 피난민들이 함경도에서 배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고, 평안도 · 황해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인민군 패전 병들과 싸워가며 내려와 지역적으로 고향과 가까운 속초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난민들이 대부분 고향에로의 귀향을 꿈꾸며 속초에 머물고 있고, 상대적으로 개성이나 평양이 고향인 사람들은 서부 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월남 당시 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해안 연안에서 살고 있었던 지리적 여건이 작용되어 어선들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부분의 어선은 동력이 없는 배로 함경도 사람들은 이를 창이배라고 부른다. 어선을 이용하지 않은 사

람들은 미군 수송선인 L.S.T를 타고 남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걸어서 남하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들은 도보로 남하하였고, 전쟁 당시 현지에서 국군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군용차나 군부대의 이동에 따라 남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남하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쟁상황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난 당시 배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거제도, 부산, 포항 등을 경유하여 속초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고, 도보로 남하한 사람들은 철원이나 포천, 삼척, 고성, 인제, 주문진 등을 경유한 것으로 나타나 동부전선에서의 전쟁상황이 급박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속초로 이주할 당시 대부분은 무허가로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며, 이 당시에 청호동 ‘아바이 마을’이 생성되었으며, 전세나 자택을 소유한 경우는 전쟁이전에 월남한 사람들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초로의 이주는 1953년부터 57년경에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 당시에 이주한 사람들 외에는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70년대 후반 이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대부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생활정도는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월남 당시 단독으로 월남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외적으로 가족 모두 남하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난을 목적으로 남하한 경우, 대부분 단독으로 월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를 목적으로 한 월남은 전쟁 이전에 이루어졌다.

대부분 북에 가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족이 모두 월남한 경우에도 일가 친척들은 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남 이유로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섭거나 싫어서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로 나타났다. 월남 후 어려웠던 것으로는 생활의 터전을 북에 두고 왔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쪽에 정착하면서 받았던 남한 사람들의 차별대우와 북한 출신에 대한 편견 등이 아주 힘들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이 된다면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한 사람은 전부였으며, 70세가 넘는 사람들은 통일 후 북으로 이주하여 살겠다고 대답한 반면, 70세 미만의 사람들은 고향을 방문만 하고 생활은 남쪽에서 하겠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전체 실향민들은 동향모임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90%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공동묘지관리를 위주로 하여 상당한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민들은 지금까지 북쪽에서 보여준 남북대화의 태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귀향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으나, 남북 화해의 무드 속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금강산 관광, 남북한 철도의 개통 등과 관련하여 큰 희망을 품고 있다고 보여 진다.

속초 정착촌 피난민들은 국가의 지원이나 대책이 없이 자력으로 주거를 해결해야 했다.

초기 정착촌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현재의 청호동 1, 2, 3통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소규모 가건물, 판잣집 등을 불규칙하게 지었다. 대부분의 집의 재료는 미군용선으로부터 버려진 것들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착민들은 청호동 앞 바다에 떠다니는 군용 목재나 목재소에서 나오는 죽더끼(피죽), 드럼통, 박스 등을 주워 재료로 활용하여 집을 지었다.

과밀화와 함께 속초 정착촌에는 여러 개의 동향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미 1955년 이전에 정착민들은 신포마을, 짜꼬치마을, 영흥마을 등을 형성하였다. 마을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더라도 흥원군이나 이원군, 신창읍 사람들도 함께 모여 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동향마을들은 내적으로는 단결하고 다른 마을과는 경쟁하였다. 마을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청년들간에 싸움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가장 큰 규모의 피난민 정착촌인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속초가 수복된 51년 8월 이후였다고 한다. 피난민들이 속초에 모여든 동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피난 월남인들이 “내일이면 집에 간다”는 일념으로 한발자국이라도 고향에 인접한 지역에 유입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를 대체로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중 38선 이북지역에는 민간인들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쉽게 움직이거나 원한다고 하여 정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정착촌으로 유입하게 된 개인의 동기는 “고향에 하루빨리 돌아가겠다는 일념”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동 동기

위에서 살펴본 정착촌의 형성과정을 기초로 하여, 피난민들이 속초로 이동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특히 피난민들의 이동은 객관적 조건과 개인적 욕구 및

동기가 결합되어 일어나게 되는데, 속초 정착촌 피난민들은 정착촌에 어떤 동기를 갖고 유입되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들과 관련된 다른 속성들을 알아보는데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속초 정착촌 피난민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이동 동기나 특별한 계기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속초는 고향과 가까워 하루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였다.
- 군 후생사업 차 38선 이북으로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속초 정착촌에 이동하였다.
- 속초에 주둔한 군 계통에서 일하는 동향인과 함께 일하게 되어 이동하였다.
- 속초에 이미 정착한 피난민 연결망과 같이 살기 위해 이동하였다.
- 속초가 어항으로 발전하여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동하였다.
- 속초 청호동에 오면 적은 비용으로 정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동하였다.

2. 피난민과 교육환경

가. 교육여건 및 수준

피난민들의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 중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36년 교육령이 개정되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교육령에 따르면 4년제 보통학교가 6년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6년제를 다닐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난민 중에는 초·중·고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각급 학교의 개교 및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속초중학교와 속초고등학교를 조기에 설립하여 개교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상황 속에서 각급 학교의 교원부족은 교과운영의 큰 어려움이었다. 이때 북한 피난민 출신의 전직교원이나 고 학력자를 교직에 임용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교과운영정상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난민들이 속초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제도

군정치하의 교육행정체제는 다음과 같다.

- 민정장관(1군단장) — 군단민사처 — 군민정관 — 군청학무과 — 각급학교
- 군청 : 군민정관 — 부민정관 — 내무과
 - 산업과
 - 학무과 —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은 군민정관이 각급 학교장을 임용하였고, 각급 학교의 교사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민정관이 임시교사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명목상의 급료가 교사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형과 교사로 조직된 학교 후원회인 사친회가 만들어졌고, 매월 학생들은 사친회비를 납부하였다.

이렇게 납부된 사친 회비는 교재 연구수당으로 지급되었으며, 매월 무상으로 쌀과 보리 쌀이 교원에게 지급되었다. 교과운영에 필요한 교재는 문교부가 제정한 국정교과서를 교재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1) 속초교육의 연혁

속초에서의 최초 공교육기관은 일제시대 1면 1교정책에 의해 1919년 설립된 대포공립 보통학교가 그 효시이다. 근대 교육기관으로 최초인 이 학교는 개교당시 4년제 2학급과 강습소 1학급으로 편성되었으며, 23년 6년제로 승격하였고, 36년 대포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3년 후인 39년 조선총독부 국민학교 교육령에 의해 대포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한편 도천면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지고 속초면으로 승격되는 등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인구집중이 되자 37년에 영랑공립심상소학교가 두 번째로 설립되었고, 해방 후 이 두 학교는 북한의 통치하에 운영되다가 6·25동란중인 50년 영랑학교는 속초국민학교로 개칭됐으나 1·4후퇴시 소실되고 다시 수복된 후 51년 10월 8일 속초국민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개교기념일로 삼고 있으며, 영랑국민학교는 55년 12월 1일 새로 개교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대한 제도적 확충은 완전한 형태의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군·민 양자의 협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연구 조사되었다. 당시 수복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

군단의 지원으로 속초 초등학교를 피난민들과 같이 건축하여 51년 10월 8일 설립하였으며, 초대 박춘하 교장이 부임하였다. 취학학생으로는 이미 연령이 지난 피난민 자녀들이 주로 늦깎이로 입학하여 최초 1회 졸업생 35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아동복지 사업으로 초기에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부모로부터 유기 또는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자나, 보호자가 교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구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61년에 와서 시설수용아동의 복지를 위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까지 포함하는 전체아동으로 확대되어 법정 8세미만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속초의 최초 아동복지 시설로는 52년 5월 영랑보육원이 설립되었고, 60년 3월에는 착한탁아소, 65년 5월에는 속초탁아소, 66년 7월에는 삼육탁아소가 설립, 운영 되었다.

2000년도 현재 속초시에 설립되어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40개소, 놀이방 29개소로 총 83개소가 설립, 운영 되고있다.

중등학교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해방 후 북한정부에 의해 속초인민중학교를 청호동 동창실업자리에 세워졌으나, 전쟁 중 소실되고 복원되지 않아 사라졌다. 수복 후 우리 정부에 의해 세워진 중학교로 51년에 설립된 속초중학교가 최초이며, 개교당시 조양동 논산리에 목조 초가 빈집을 이용하여 3학급 남녀공학으로 운영하였고, 52년 첫 졸업생 34명을 배출하였다. 이 학교는 53년 5월 교동으로 옮겨져, 이 자리에서 35년간 중등교육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오다 88년 교동776-1번지(구 속초고등학교)로 옮겨졌다.

중학교 제도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1군단의 지원 속에 속초중학교를 군으로부터 인가 받아, 초대(51. 10. 16 ~ 55. 3. 6) 교장으로 이철우가 취임하였으며, 교사 4명과 전학생 135명으로 개교한 것이 최초의 일 이었다. 또 속초여자중학교 초대(55. 5. 24 ~ 60. 1. 31) 유장렬 교장이 취임하였다. 피난민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워 속초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피난민 박성주(함남)와 전도사가 동명동 전 경찰서 뒤 역사 자리에 미군의 천막을 지원 받아 명신고등공민학교(주간, 야간)를 설립하여, 초대 교장으로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김효근(평남)교장이 취임·운영하였다. 그 당시 학년별 40명 정도로 약 120명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2대 명예교장으로 피난민 박성주(함남, 사망)교장이 취임하여 약 20여 년간 어려운 피난민 자녀의 교육적 욕구해소에 기여하였다.¹⁾(폐교일 79. 2. 28)

고등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와 동일하게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피난민이 건립하여

운영되었으며, 속초 고등학교 초대(52. 6. 2 ~ 61. 9. 4) 서창하 교장이 북에서 교직의 경험이 있는 피난민 출신으로 부임하여 당시 피난민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초고등학교가 설립된 것도 역시 전쟁 중이던 52년 6월 2일 개교하였는데 현 속초초등학교 서편에 교무실과 교실 한 칸씩을 1주일만에 만들어 서창하 교장과 몇몇 교사진을 확보하여 50명 정원의 입학생 모집한 결과 정원을 넘어 62명(남57명, 여5명)이 첫 입학했다. 그 후 55년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회에서 공급받은 자재로 25사단 공병대가 시공하여 영랑동에 목조 2층 12개 교실을 완성 입주하였다가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교사이전을 거듭했다.

속초에서의 최초 여성 전문교육기관이 탄생한 것은 55년 5월 개교한 속초여자중학교로서 남녀공학이던 속초중학교에서 분리, 설립되었고, 63년 속초고등학교에서 여학교가 분리되어 속초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되었는데 3학급 규모로 속초여자중학교와 병설로 존립되어졌다.

그리고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81년 3월 속초경상전문대학이 개교되어 영북지방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양교육을 사회교육에도 참여하고 있고, 83년 9월 동우전문대학으로 개명하였다가 98년 5월 1일 동우대학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타 불우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로 대포재건중학교 등이 있었으나 81년 이후 전부 폐교되었다.

속초교육청은 63년 시 승격 당시 속초시 교육과에서 교육행정을 관할해오다 64년 교육자치제의 부활로 속초시교육청으로 발족됐으며, 73년 교육법 개정으로 양양군 교육청이 속초시에 통합되어 현재까지 속초시와 양양군 교육행정을 관장해 오고 있으며,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원도 속초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 윤영호 (함남, 북청, 당시 명신고등공민학교 수학교사)

각급학교의 설립년도

구분	학 교 명	개교 년월일	위 치
초 등 학 교	대포초	19. 4. 1	대포동 350
	속초초	51. 10. 8	청학동 640
	온정초	53. 7. 1	노학동 620
	영랑초	55. 12. 1	영랑동 163-1
	청호초	58. 4. 13	청호동 779-6
	중앙초	63. 4. 1	중앙동 509-3
	교동초	69. 10. 2	교동 779-16
	조양초	71. 3. 2	조양동 413-1
	설악초	74. 3. 1	설악동 180-1
	청대초	97. 3. 1	조양동 551-1
중 학 교	속초중	51. 10. 16	교동 776-1
	속초여중	55. 5. 24	금호동 625-37
	설악중	67. 6. 5	교동 78-5
	설악여중	71. 3. 1	교동 802-2
고 등 학 교	속초고	52. 6. 2	장사동 460
	속초여고	63. 3. 20	교동 802-1
	속초상고	70. 3. 1	조양동 589-7
대학	동우대학	81. 3. 28	노학동 산 244

2) 민정이양과 교육여건

1954년 11월 17일 민정이 이양됨에 따라 교육행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임시행정 조치법에 따라 학교가 양양 군수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고, 교육에 관한 경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게 되었다. 각급 학교의 교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새로 임명되어 속초중학교 김창성 교장, 속초고등학교 서창하 교장 재임용, 각급 학교의 임시교사는 전형을 거쳐 학력 및 경력을 참작하여 특수교사와 준교사로 구분하여 발령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교육여건은 극히 열악하였다. 민가를 개조하여 가교사로 사용하였으며 칠판만 걸어놓은 교실에서 책·결상도 없이 수업을 받았다. 교재는 교과서가 전부였고, 참고서나 사전류는 구하기 힘들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교납금을 내지 못하여 등교 정지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었으며, 돈이 없어 필기구

는 사치에 불과하였다. 아침은 굶고, 도시락도 없어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성어기에는 학교를 결석하고 오징어 배를 타야만 했으며, 방과후나 일요일에는 명태 할복장에서 품을 팔아 학비에 보태야 했다. 방학 때는 손수레를 끌고 산에 가서 땀감을 해다 팔기도 했다. 그래도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학비가 싼 명신고등공민학교에 진학하였다. 60년대에 들어 대포재건중학교와 씨얼학원, 웨슬리학원(야간, 속초감리교회)을 다니면서 면학하였다.

이들은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하여 성공한 학생들도 많았다.

3. 피난민과 보건 · 복지 관계

가. 구호활동

피난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구호활동의 하나는 식량배급 사업이었다. 계획상의 전재민 1일 1인당 평균 배급분은 1950년 11월 24일 현재 쌀 2홉, 밀가루 1홉 3작 압맥 7작이었으나, 51년 초부터는 양곡 3홉, 부식비와 연료비를 포함하여 50원으로 바뀌었다. 휴전 후에는 평균 4홉을 주되「무상배급을 하고 있는 연간 양곡 15만석에 대해 53년 11월부터 7할은 무상, 3할은 유상 배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실제로『가동능력可動能力』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1일 3~4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에 1홉 내지 1홉 반을 주었다. 또한 양곡 외에 모포, 광목, 원면, 비누, 식료, 천막, 연료 등을 배급하기도 하였으나, 배급을 주는 기간과 실제 집행 상황을 알려주는 각종의 기록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해당자는 요구호 대상자로서 52년 3월 15일 사회부가 발표한 대상 세대수는 1백 87만 3천 441세대, 9백 12만 8천 35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가운데「일시적 요구호 대상」과「항구적 요구호 대상자」는 각각 절반 가량에 해당된다. 하지만 피난민 수와 비교할 때 요구호 대상자의 숫자가 거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보아 요구호 대상자에는 전재민과 피난민, 원주민들이 중복 합산되었을 여지가 매우 농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국은 요구호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전재피난민보다 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원주민에 대한 구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제시가 없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피난민들이 받았던 식량 배급품은 쌀을 비롯하여 밀가루, 옥수수, 설탕, 광목, 알루미늄 등 이었으며, 실제인원 보다 배급표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해프닝을 벌였다고, 당시 피난민 시절을 회고하는 1세대 피난민들이 꽤나 있다. 더욱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배급표를 다른 상인들에게 전매하여 돈을 챙기려고 아우성 치던 생지옥도 자주 볼 수 있었던 비일비재한 일 이었다고 한다.

피난민 정착촌 유입 동기부터 무상 배급품이 중요하였듯이 초기 정착 생활에서 배급품은 정착촌에서 생계를 꾸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급품으로는 쌀(외국산 안남미)과 보리, 옥수수가루, 밀가루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외 약간의 의류품과 의약품, 어린이 용품도 있었다. 배급품의 지급기준을 보면 일반 정착민은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밀가루 한 포대를 배급받았지만, 농원 간부들은 3포대 정도 배급받아 일반 정착민에 비하면 풍족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시기에 정착촌 피난민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무상배급품을 지급 받아 생계를 보조하기도 했다. 55년 3월 청호동의 구호대상자는 51명 25세대로 배정되어 청호동 전체 세대수의 5.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호동의 반장을 역임했던 구술자 등에 따르면, 극빈자에 한해서 구호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38선 이북지역 중 수복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특별 대상(54년 2월 하순경에는 사회부는 속초를 포함한 38선 이북 양양지역의 농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자재와 일인당 매일 4홉씩의 식량(어린이 3홉)과 종곡 등을 무상 배급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 없다.) 이 되었으므로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0년대 중반 군부대가 철수하고, 60년대 초 구호품 배급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정착촌 피난민들은 어업에 관련한 일에 매달려 살게 되었다.

난민구호상황(1955, 양양군 『군세일람』)

구 분	피 난 민		전 재 민		합 계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속 초	134	260	95	95	229	355

요구호자일람(1955, 양양군 『군세일람』)

구 분	피 난 민				전 재 민				원 주 빈 민				합 계			
	일시적		항시적		일시적		항시적		일시적		항시적		일시적		항시적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양양군	696	2,363	897	2,080	537	1,700	226	724	887	5,056	1,543	5,022	1,362	9,101	2,668	7,726

나. 보건 · 복지

피난민과 관련된 보건 ·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남한의 타 지역에 비해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당시의 약방은 미군이 공급하는 약품을 지원 받아 특정 계층의 주민만이 이용하였으며, 간단한 병은 민간요법에 의하여 소약을 중심으로 치료하였다고 한다.

양약은 구입하기 힘들어 한방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한의사는 북한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다 월남한 한인설로부터 화제(처방전)를 받아 직접약초를 구입 다려먹고 치료하였던 것으로 구술자에 의해 조사되었다. 특히 피난민들은 한의사 한인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으며, 그 당시 보건소의 간호사와 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속초읍사무소 사회계 직원이 주민들의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

또한 임산부의 출산은 특별한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피난민 사이에서 출산의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직접 집에서 아기를 받았다고 한다.

2) 유창영, (함남, 해산)

4. 피난민과 사회·문화적 환경 관계

가. 혼인과 가족 및 친족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하지만 피난민의 경우, 가족주의 및 연고주의는 더욱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월남 초기에는 월남한 가족이나 친척, 동향인들은 가급적이면 뭉쳐서 살고자하는 욕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월남 당시 연령층이 20~30대였던 청장년 가운데는 미혼이었거나, 결혼했다라도 단신으로 월남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정착 직후 대부분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혼인 상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정착촌 월남인의 월남 직후 혼인 상황 (단위: 명, %)

결혼상황	지역별	속초피난민 정착촌
월남 후 재혼		13(32.5)
약혼 후 월남하여 타인과 결혼		3 (7.5)
초혼		5(12.5)
부부동반		19(47.5)
모름		-
계		40(100.0)

자료 :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밀로부터 월남인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9) 참조.

위 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결혼 또는 약혼하였으나 전쟁 이후 월남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 또는 재혼한 사람들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부부 동반으로 월남했거나 월남 후 합류한 사람들로서 재혼자의 수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남한에 온 후 재혼했거나 북한에서 약혼 후 남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피난민들의 재혼 및 결혼 시기를 <표 2>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북한에서 약혼한 사람들도 재혼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약혼한 사람들이 한국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혼하였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전쟁과 월남으로 인해 부득이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2〉 정착촌 월남인의 재혼 및 결혼 시기 (단위: 명)

연도 지역별	1952	1953	1954	1956	1957	1958	계
속초 정착민	1	2	8	3	1	1	16

자료 : 김귀옥, 상계서 참조.

여하간 휴전되기 이전보다는 거의 휴전 후에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망부석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담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속초나 양양지역의 “할머니 원조 순두부”이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조 순두부를 만들어 생계를 연명했다는데서 유래된 것으로서 초당두부 담론과 유사하다. 현실적으로 월북인 남편을 둔 부인으로서 재혼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 부담감을 지고 살아야 하는 문제였던 것 같다. 초혼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월남 후 재혼의 시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점은 해당자 중 많은 수가 휴전 직후인 1953~54년에 결혼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휴전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고향에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귀향 자체를 유보했거나 포기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혼례는 피난민사이에서도 원적이 다양하여 각 지역마다의 전통에 따라 결혼을 하였다. 당시는 주로 전통 혼례를 하였으며, 특히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은 함경도 전통혼례로 결혼 첫날밤을 신랑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나. 친·인척 관계

정착민들간의 경조사, 특히 제사에 자주 참여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친·인척들끼리 함께 사는 경우도 흔한 일이었다. 60~70년대까지 신평마을이나 짜

꼬치, 영흥마을 등과 같은 소규모 마을에는 동향인이 밀집해 살았는데, 한 사람이 터전을 잡으면 자신의 친척을 불러 들여 땅을 조금 떼 주고, 마당을 같이 쓰면서 친·인척간의 단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친·인척망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연결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개 속초의 여성들은 피난민 남편을 중심으로 이웃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지만, 남편의 이웃과 부인의 이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설령 남편들이 다같이 이북출신이거나 친·인척관계로 맺어 있더라도, 이북 출신의 여성과 강원도 출신의 여성간에는 미묘한 경쟁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자생적 모임

피난민들은 의식주의 공동화共同化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친·인척은 물론, 동향인들이 모여 집단촌을 만든다. 가급적이면 직업을 같이하고, 집을 같이 짓고, 이웃하여 상부상조하면서 생활의 유대를 갖는다. 청호동의 단천, 이원, 영흥, 정평, 신창 마을 등이다.

이 같은 마을(리) 단위는 읍·면에서 조직되는 것이다. 재속초 함남, 함북, 평안, 황해, 북강원도와 산하의 상당한 수의 시·군·읍·면·리민회가 결성되어 있다. 여기에 특기할 것은 민회가 거의가 공동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묘지에 망향탑을 세우고, 망향제를 지내고(주로 한식, 추석), 총회를 갖고, 기금을 모아 장학사업 등 상부상조한다.

타향에서 돌아가신 이들의 명복을 빌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망향의 시름을 달래고, 통일을 기원하는 이 모임이야말로 말로 더한 귀속歸屬이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신 지역을 가로지르는 모임도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년배를 중심으로 한 ‘동갑계’이다. 이는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출생 년도가 같은 청호동에 사는 피난민끼리 만든 친목모임이다. 구술자의 대부분은 그러한 친목모임에 가입하여 관혼상제 때에 상호부조하며, 함께 관광여행을 가거나, 생일모임 등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어업 정보를 교환하고, 경제 교류를 하며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다. 동갑계는 농촌과 같은 위계 서열의 전통 사회에서 구성원들간에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조직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호부조나 친목도모 등을 목표로 하여 비슷한 연령의 구성원들끼리 모임을 운영해 나가면서, 마을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선거와 같은 사건이 있는 때에는 여론을 형성하여 마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가장 개방적인 자생조직 중의 또 하나가 ‘노인회’이다. 시간은 가고, 귀향은 멀어지면서 피난세대들은 환갑이요, 칠순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타향살이를 타하고, 늙음을 슬퍼하면서 한자리하여 술 몇 잔에 푸념들이다. 이렇게 노인회 생성은 자연적이었다. 이 ‘노인회’는 정착촌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 조직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였다. 노인회는 만 65세 이상 된 자로서 정착촌에 거주하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었다. 노인회는 노인들이 모여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지역 사회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 행정, 풍어제 행사 등을 자문하고, 근년부터는 “설악문화제”의 노인경연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아무튼 월남인 1세대들은 동향모임, 동갑계, 노인회, 기타 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중복 소속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대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성원들간에 아는 사람이 상호 중복이 되면 될수록 협소한 관계 내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반면, 넓은 차원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에는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속초 정착촌의 경우 동향 피난민 네트워크나 소규모 모임에서는 연대가 강했던 반면, 동향 모임들 간 또는 친목 모임들간에는 경쟁과 갈등도 있었다. 청호동의 지역 대표(시의원,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어촌계장 등 : 정착촌에는 이외에도 개발위원회, 새마을운동 지도자, 90년대 생긴 시의원 등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나, 특히 마을금고 이사장직과 어촌계장 직위가 기득권과 관련이 많다. 뽑을 때 동향 단위로 세를 규합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예를 들면 수산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인 어촌계장(수협이 어업조합으로 불렸을 때는 대의원을 총대總代라고 불렀다. 60~70년대 청호동민의 대다수가 어민이었던 시절에는 총대의 지위는 현재의 시의원보다 높은 지위였다. 그런 이유로 총대를 뽑을 때는 동향인 중심으로 세를 규합하고 세가 적은 집단은 합종연횡을 하기도 했다.)을 선출하는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 주민의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는 청호동민의 입장에서 어촌계장이란 청호동 대표와 마찬가지로, 그 대표는 어촌계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향인이 대표가 되면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마을금고 이사장을 뽑을 때나 시의원을 뽑을 때도 동향인 조직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그것이 오히려 청호동 전체에 치명적인 균열은 가져오지 않을지라도 정착촌 전체의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다.

라. 원주민과의 차이점

속초 피난민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에는 지역적으로 또는 주로 종사하는 직업에 따르는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즉, “남편이 배를 타고 원양 조업을 나가면 남편의 부재로 인한 이야기”, “바닷가 사람들이 많아서 남녀간에 의견대립으로 인한 싸움시 남녀의 구별이 없이 거칠고 양순한 느낌이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위와 같은 근거에 기초해 볼 때, 속초 피난민들에 대한 특성을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적응력이 강하여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정착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아직까지 원주민과의 거리와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정착촌을 일종의 고립지역으로 인지하고 있다.

셋째,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현지 원주민과 차이가 남아 있다.

넷째, 피난민간에는 단결력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한눈에 읽을 수 있다.

마. 사회·문화적 특성

피난민 네트워크는 경제적·문화적 공동체의 기초가 되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승선한 경우에는 동향사람들 중심으로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어업에 관련된 기술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마치 두레공동체처럼 그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노동요를 부르며 서로 장단을 맞추어가면서 단결력을 과시했다. 김소리와 최신양의 『노동요』는 여러 번 방송되기도 했고, 이 방면 노동요 연구자들에 의해 채록된 바 있다. 또한 동향인 네트워크는 그들끼리 이웃관계의 형성을 촉진시켜 고향의 생활방식과 습관을 보존케 함으로써,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심지어 그 네트워크 내의 사람들은 고향의 일이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류의식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난민 네트워크는 그들이 정착촌에 처음 정착하는 데나, 피난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속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화적 요인이다. 지역간의 경

계나 국가간의 구별은 언어, 관습, 풍습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라는 뚜렷한 인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정착촌 피난민과 비정착촌 사람들을 구분 지으며, 정착촌 사람들의 연대감 또는 동일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애착이라고 볼 수 있다. 피난민들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로서 언어나 음식, 관혼상제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1) 풍습

이북음식과 사투리가 많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많이 변했거나 몰라서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관혼상제를 고향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부분이 일부만 지키고 있다고 하였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모두 지킨다고 하였다.

함경남도의 특별한 풍습으로는 ‘개고기’라 하여 집을 나가 객지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개처럼 죽었다하여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이채로웠다.

남한과는 달리 한식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과 제사를 4년마다 지내는 풍습도 속초 정착촌 피난민들의 관혼상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구술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황해도에는 ‘거지밥상’이라 하여 추수할 때에는 거지가 찾아와도 따로 밥상을 차려주는 풍습이 있었다. 남한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풍습으로는 제사복장과 비석에 넣는 비문이나 묘문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2) 언어

월남인 1세대의 언어가 얼마나 고향의 원형 방언에 가까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았다. 서울 북청 군민회 간부의 구술에 따르면 청호동 사람들은 고향식대로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속초향토문화연구가 최재도에 따르면 속초 청호동 피난민 1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는 함경도 방언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함경도 방언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같은 함경도라 할지라도 함경남·북도의 방언간에는 차이가 있고, 함경남도만 해도 정평군 이남과 이북 지방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함경남도 북청군과 단천군 간에도 여러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함경도 출신이 모여 있는 청호동 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그런 지방적 특색이 분명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향토문화연구가의 지적대로 북한 여러 지역의 언어가 청호동에 와서 혼합되어 제3의 언어로 탄생된 것이다. 중요한 점은 과거 이북지역에서는 별로 접촉이 없었던 지방간의 언어들이 청호동에서 만남으로써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월남인 2세대들의 지적처럼 속초 시내 나가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말하는 것만 들으면 청호동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속초 시내에 거주하는 피난민들도 말씨를 들으면 청호동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 낸다고 한다.

결국 언어의 혼합성과 더불어 식생활에서도 그러한 혼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음식

고향식 대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언어와 비교할 때 원주민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구술자들을 통해 볼 때, 고향식을 준수하고 있다고 대답한 피난민 가족이 먹고 있는 음식이 강원도 원주민이나 비정착촌 사람들의 음식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함경도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고향의 음식으로는 김치와 젓갈류를 예로 들 수 있다.

함경도 지역은 강원도나 이남에 비해 훨씬 춥고 겨울이 길어 김치를 싱겁고 고춧가루를 별로 뿌리지 않고, 백김치에 가깝게 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김장김치를 담글 때는 겨울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을 위해 명태식해나 가자미 등의 생선을 김치와 함께 저장한다고 한다.

많은 피난민들은 월남 후 김치가 점점 짜지고, 고춧가루의 양은 많아지고, 김장에 명태 등을 넣는 빈도와 양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한 사실은 기후와 관련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다. 속초 정착촌 사람들은 젓갈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직접 담아 먹는 사람들은 몇 가정되지 않는다. 젓갈류와 같은 몇 가지 향토음식이 상품화되어 감에 따라 편리하게 사먹을 수 있으나, 맛은 고향식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에도, 전반적으로 현지의 것에 동화해 가는 동시에 현지의 것과 자신의 것과의 혼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향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착의 정도와 인지의 문제이며, 실제 생활에서는 혼합된 다양한 생활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지 머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피난민 가족 중에서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4) 장례

50년대 초기의 장례문화는 사망을 하여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위도 없이 사망 당시의 상태로 양지 바른 곳에 매장하였으며, 이때 같은 실향민 몇 사람이 매장에 도움을 줄 정도였다고 한다. 예의를 갖추어 장례행위를 치루게 되었던 것은 5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북청 출신 이성주(사망)라는 자유당 운영위원장이 상여를 기증함으로써, 피난민들은 처음으로 상여를 이용하여 장례 의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³⁾

5) 종교

피난민들의 종교활동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환경, 생업과 안전에 기복사상을 기초로 하여 출발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피난민들의 종교는 그들이 월남하여 살아가기 위한 생활터전이 수산업이었으며, 이에 종사하면서 바다와 관련된 수신을 모시는 풍어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활동은 주로 무속신앙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보존된 청호동 성황당과 금호동 성황당은 피난민들이 당시 수신을 모시기 위하여 건립하였던 것이다.

가) 종교별 전래과정

(1) 개신교

속초에 개신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1927년 일제치하에서였다. 미국 감리교의 쿠퍼 선교사의 전도로 이영학 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연보와 쿠퍼 선교사의 도움으로 27년 5월 17일 초가 8칸을 매입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지역 최초의 교회인 속초 감리교회가 창립되었다. 이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39년에는 당시의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 1구(현 속초시 동명동)에 24평의 교회를 신축하고, 교인 40여명이 신앙생활을 하였다. 40년 12월에는 일제의 종교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예배당을 빼앗기고, 많은 신도들이

3) 김남표, (함남, 북청)

구금, 구타, 가택수색 등을 당하면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압류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박성여 외 교인 17명이 당시의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 1구에 초가 6칸을 매입해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빼앗겼던 예배당을 다시 찾고, 교인 6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중 당시 공산당 치하의 속초지역 교회는 비품을 압수 당하는 등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51년 8월 수복으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자 북한에서 피난하였다가 복진하는 전선을 따라 북상하다 정착한 함경도 교인들이 가세하면서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52년에는 속초감리교회에 함께 소속돼 있던 북한출신 장로교인들이 새로이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동년 12월 11일에 속초리 4구(청학동 석산철물점 자리)에 기와집 35평을 구입하고, 중앙장로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한편 이즈음에 감리교단에서는 논산교회(현 성광교회)를 개척했고, 54년경에는 미군이 운영했던 구호병원(현 교동천주교회 부지내)내의 창고에 김신우 목사가 동광교회라는 장로교회를 창립하였다. 60년에 성결교단이 전도를 시작하여 같은 해에 두 개의 성결교회가 창립된 이후 계속해서 여러 교파·교단의 교회들이 생겨났다.

(2) 천주교

천주교는 엄격한 교구제도와 관할구역의 확정 위에 전개되는 바, 속초지역은 로마 교황청 산하의 서울교구 춘천교구에 속해 있다. 속초에는 1953년에 처음으로 천주교회가 창립되었는데 현재의 속초천주교회(동명동)가 그것이다. 속초의 규모가 발전하고 신도 수가 증가하게 되자,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67년에 교동 천주교회를 건립하게 되었다.

한편 설악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과 관광여행중인 천주교인들을 위하여 81년에 설악동 천주교회가 창립되었고, 85년에는 청호동 교인들이 따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청호동 경당”을 건립하였다. 따라서 현재 속초시에는 3개의 천주교회가 세워져 있고 1개 경당이 교동 천주교회의 관할구역인 청호동에 위치하고 있다.

(3) 불교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전래된 후 우리민족의 전통신앙으로 자리잡혀 왔기에 속초에서의 불교의 전래과정을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종단별 교세확장을 통해 속초지방 불교의 전래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사찰명	창립년	비고
조계종	신흥사	진덕여왕 6년 625년	조계종 제3교구 본사
	보광사	1930년	
	청룡암	1932년	
	관음사	1948년	
	연풍사	1952년	
	구복암	1956년	
	원각사	1982년	
천태종	대한불교 천태종 (속초신도회관)	고려 숙종 2년(1097년) (1970년)	
총화종	총화종단 백운암	1970년	1984년 수해로 재건
한국일연 종불교회	한국일연종정	1971년	
원불교	원불교 속초교당	1973	

(4) 기타종교

구분	종교단체명	창립년	비고
천도교	천도교 속초교구	52년 창립	부설 광제유치원운영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속초중앙교회	1952년 3월	부설 삼육유아원운영
여호와증인	위치타위성서책자협회 여호와의 증인의 속초북부회중	1963년	
통일교회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속초통일교회	1975년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속초지회	1989년	
증산도	한민족의 세계종교 증산도 속초도장	1990년	

5. 피난민과 직업 환경 관계

가. 직업 및 인구분포

어업의 활성화는 1930년대에 비로소 이루어져 50년대까지 월남인의 활동이 현저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비하여, 이 당시 원주민은 주로 어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 어업인구가 농업인구를 상회하게 된 것은 바로 군정의 군속으로 선발되어 속초로 들어온 함경도 출신의 월남인들이 주로 어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표 1〉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1955년 현재) (단위 : 호, 명)

속초 행정구역		속초1구 (영랑동)	속초2구 (동명동)	속초3구 (중앙동)	속초4구 (금호동)	속초5구 (청호동)	기타 지역	속초 전체
농/어업별	호수	911	357	1,103	1,316	454	1,209	5,350
	남자	1,840	794	2,380	2,783	1,046	3,059	11,902
	여자	1,890	789	2,363	2,703	930	3,117	11,792
	계	3,730	1,579	4,743	5,486	1,976	6,176	23,699
농업	농가수	28	23	29	25	·	790	895
	농업인구수	97	91	186	101	·	4,426	4,901
어업	어가 호수	72	106	296	169	201	302	1,146
	어민수	126	292	653	644	529	519	2,763
	어민가구원	288	530	1,480	845	1,005	1,518	5,666
	발동선	2	5	50	68	30	1	156
	범선	10	27	42	34	33	120	266
	종선	16	29	52	68	106	85	356

자료: 속초읍(1955)『읍세일람』,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 월남인 연구』서울대 출판부, 1999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년 현재 속초 전체 인구 가운데 속초리 5개 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7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리 1~4구에는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피난민이 모여들었지만 농토가 없던 5구, 즉 청호동에는 대부분 피난민들이

집단 거주하게 되었다. 전체 속초인구 가운데 속초리 1~5구의 농업인구는 28.0% 차지하였고, 어업인구는 32.4%로서 어업인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구에는 농업인구는 전혀 없고, 대부분 어업인구라는 점은 청호동에 집단거주한 인구가 원래 어업종사자이었던음을 알려준다.

속초 정착촌 피난민들은 일단 38선 이북 유입에 성공한 과거 직업과 계층에 상관없이 대개 어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다. 55년 어업상황은 청호동은 속초읍을 중심으로 보면 어선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으나, 그 수준은 매우 영세하였고, 청호동 전체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의 피난민 생활 방식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은 속초의 경우, 어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어업이나 농업은 모두 1차 산업, 즉 비근대화부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속초에서는 농업보다는 어업의 중요성이 더 커졌던 것은 피난민들이 유입 초기부터 어업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착 초기에는 북한에서부터 징발되어 왔거나, 월남 운송수단으로 타고 온 어선들이 어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속초 정착촌에 들어온 후 피난민의 80% 이상이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였다. 월남 직전의 직업과 비교할 때 피난민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20%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참조〉 이는 북한 사회에서의 사무원이나 노동자 및 학생들의 상당수가 어업 부문에 종사하게 된 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이동에 따른 직업의 선택의 결과로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정착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월남인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정착 후 정착촌 월남인의 직업 분포 (단위: 명, %)

직업별	지역별	속초정착촌월남인
	어민	34(85.0)
	농민	-
	상인	3(7.5)
	사무원	1(2.5)
	서비스	1(2.5)
	기타	1(2.5)
	계	40(100.0)

자료 :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 월남인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9

군정 시기에는 군속으로 생계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크게 보아 미군부대와 국방군 부대의 군속으로 종사하여 소정의 정규적인 임금을 받고 생계를 해결했던 사람들과 군부대의 필요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군 후생에 필요한 물자, 특히 해산물을 보급하며 생계를 해결했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징발하여 군 후생사업에 참여시킨 피난민들은 정규적인 임금 없이 잡은 해산물 가운데 군납하고 남은 해산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쌀이나 양곡, 부식 등을 보조적으로 배급받아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속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기 있는 직종이었는데, 군 보급품을 운송하거나 하역하면서, 그들이 임의로 취한 생필품은 추가적 수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4년 4월 29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군정 치하에서의 군정은 삼림벌채와 노무동원권을 가지고 있어, 수북 지역 주민들을 수시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정착촌의 많은 여성들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빨랫감을 빠는 일과 같은 허드렛일을 하며 소정의 배급품을 받아 생활하거나, 군인들을 상대로 행상을 통해 생계비를 벌기도 했다.

나. 산업구조

1930년대 어업종사자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일제가 한반도 병참기지정책을 수행하면서 속초의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속초에 군수품으로 군납될 쇠고기와 고

등어나 콩치 등 통조림공장이 설립되고, 정어리 기름과 정어리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도 여러 개 생겨났다. 공장들은 대개 천혜의 항만 조건을 갖춘 속초의 청초호라는 자연 석호변에 설립되었다. 현재의 청호동, 중앙동 지역에 해방 직전까지 5개의 수산공장, 복이공장과 오나까공장, 허준네공장, 하마타濱田공장, 하야시까 공장과 금전수산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공장들은 대부분 해방 후 가동이 중지되었다.

선박제조업주는 제조업자로 분류해야 하지만 어업을 위한 선박을 제작·수리함으로써 어업 관련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건조업(또는 덕업)주는 오징어나 명태 등을 건조하는 덕장 棧場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김귀옥은 그의 연구에서 농사법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일찍이 배급품에 의존하기보다는 과거 북한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 맞는 농사법을 찾아내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람도 많았다.

위와 같은 생계 방식이 몇몇 월남인들에게 퍼져 있었으나 대부분의 정착촌 피난민들은 배급에 의존하면서도 서서히 불모지를 개간하여 전작지대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

버려진 땅을 월남인 한 세대당 수백 평~수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개간하였다. 일단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무료 사용권을 인정받았으나, 70년대 중반부터는 소정의 토지세를 지불하여야 했다. 또한 방기된 원주민의 땅을 개간하여 사용했던 경우에는, 얼마 후 원 지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피난민들은 그 땅을 구매하거나 포기해야만 했다.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간한 땅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분쟁은 피난민과 지주 사이의 법정 시비로 발전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피난민들은 땅의 원주인이 나타난 이유를 버려진 땅이 옥토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그러한 해석이 부분적으로 옳더라도 답의 지가 상승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전국 수치로 보면 73년경부터 답의 지가가 쌀값 지수보다 앞서기 시작하였다. 즉 지가의 상승으로 농민이 농지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이 상승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가 상승의 부담으로 더 이상 농지를 확장할 수 없게 되자, 원 지주는 그 동안 방치했던 자신의 땅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97년 7월 현재 피난민들이 경작하는 주된 농산물은 대개 감자, 고추, 고구마, 포도, 배, 복숭아, 땅콩 등이 있다. (작목은 시기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개간 초기에는 북한에서 주로 경작하였던 작물이 많이 경작되었으며, 호밀이나 조, 고구마 등이다. 또 70년대에는 양잠을 하는 집도 여러 호수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생산성이 높은 상업적 작목을 주로 함으로 감자를 경작하는 집이 많다.)

현재 속초시 피난민 정착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피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피난민의 정체성으로서,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확장되어감에 과거의 피난민이 어려움으로부터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보건·복지 분야를 정리하면서 피난민이 정착시기에 애환과 삶의 흔적들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속초시를 이해하는데 피난사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남북이 변화에 급류를 타고 있는 현실에 피난민들의 고향방문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원 사회과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강원사회연구회, 「강원사회의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7.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장정룡, 「실학민의 생활과 문화」, 『분단 강원의 이해』, 강원사회연구회, 1999.
 속초시 교육청, 학교 연혁부
 속초시, 『속초연감』, 1996·1997.



제5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 환경

정 재 국(관동대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은 인간의 행위를 담는 그릇이며, 주거 건축은 일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이라는 단위공간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곳이다. 즉 각자의 요구되어지는(Demand) 공간을 기능에 맞게 구성(Organigation)하여 필요한 행위들(Need)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은 정주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살고 싶은 대지 한 곳을 정하여 터를 잡고서, 이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조상은 집터를 정함에 있어 길흉화복을 고려한 좋은 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풍수 지리설을 일찍부터 도입하여 왔으며,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의 주거환경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건축은 일종의 경제적 행위로서 자본이 있어야 한다.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주택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적절한 재료들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외부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체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동력과 기술과 함께 경제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공간이 완성되면 실내의 활동을 위한 각종 집기들이 있어야 하며, 이곳들은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각종의 필요한 것들이 놓여 있어야 한다. 즉 공간의 활용을 위한 도구들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거환경의 구성은 각종의 인문·자연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특징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속초의 피난민은 보편 타당한 주거환경과는 다른 급격한 환경에 대한 변화의 영향을 받

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생활하고 있다.

다음은 속초 피난민의 인문·자연 환경이 주거환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1. 인문환경

가. 인구의 증가

전쟁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는 전쟁 전의 속초 인구와 비교하여 2배정도 증가시키고 있으며, 원주민은 18%정도 감소하는 대신 철수민에 의해 증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954년 군정시기 속초주민 통계표 (단위:세대, 명)

원 주 민				철 수 민				외국인	계	
세대수	남	여	계	세대수	남	여	계		세대수	인구
1,922	4,293	5,044	9,377	2,919	5,953	5,303	11,256	6	4,841	20,599

자료 : 양양군청, 1954, 『수복년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초로 이동한 이유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각각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50년대 속초는 고향이 가까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군 후생 사업차 38선 이북으로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속초 정착촌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속초에 주둔한 군 계통에서 일하는 동향인과 함께 일하게 되어 이주하였으며, 속초에 이미 정착한 월남인 연결망과 같이 살기 위해 이동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60년대는 속초가 어항으로 발전하여 일자리가 많았다는 것과 속초 청호동에 오면 적은 비용으로 정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주하였다는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빠른 인구의 유입은 주거의 부족을 발생하게 하여 주거환경의 질적인 저하

를 가져오게 하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실향민에게는 임시거처 형태에서 주생활을 영위하게 하였다.

나. 정착촌 정책

전쟁 중의 피난민에게는 임시생활이 가능한 거주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그들은 혈연, 동향, 지연 등에 의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였다. 행정부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정착촌에 모여 살게 하였다.

하지만 38이북 지방은 1954년 11월 행정권이 이양되기까지 그의 관할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월남인 등 전쟁 재해민의 구호는 전적으로 군정 당국의 소관이었으며, 군정 당국은 원주민과 월남인을 ‘난민’으로 동일시하였다. 즉 속초에 들어온 월남인과 원주민을 구별하여 구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군정은 청호동 등 지역에서 월남인 정착을 위한 정착촌 형성을 위한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수복된 후에도 청호동은 1군단 부대와 비행 활주로로 이용되어 현 청호동의 6통에서 10통 사이에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한편 군정은 청호동 북단인 1통에서 3통 정도의 지역에는 월남인이 정착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1군단이 1954년 11월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청호동 월남인들은 주로 1~3통에 자리잡았다. 1군단 이동 후에는 현재의 10통 방면으로 1~2집을 옮겨가며, 오늘날의 10통 경계까지 정착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¹⁾

이러한 정착촌의 무분별한 계획은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형태로 고착되어, 좁은 통로의 가로와 담장이 없이 지붕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주거환경에 있어 공동의 공간과 편리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며, 좁은 가로를 따라 각 방이 일렬로 배치되는 주거 형태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정착촌 초기를 지나서 건축된 10통 경계까지의 건축은 처음보다 조금씩 여유공간을 갖추게 되어 방의 규모, 건축자재 등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다. 교통여건의 편리

청호동은 1951년 8월, 1군단이 청호동 9~10통 자리에 들어서기 전 오래 전부터 양양에서 속초 시내나 고성 쪽으로 가는 육지 지름길로 이용되었다. 청호동 북단에서 현재 중앙동까지의 폭은 100m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얇아 거의 육로였다. 그런데 일제가 30년 무렵 배가 입항할 수 있도록 청초호 개발을 한 후, 바다에 맞닿은 호단이 깊어져 갯배를 띄울 수 있게 되었다. 일제 시대 때의 갯배는 현 갯배보다 커서 우마차나 소형 버스를 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7번 국도의 전신인 청초호 우회도로는 39년에 착공하여 40년에 준공되었다. 속초 주민들은 교통이 최근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속초시내와 조양동이나 양양 방면을 왕래할 경우에는 갯배를 이용하고 청호동을 걸어다니는 일이 다반사였다.²⁾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은 속초와의 왕래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갯배를 이용하여 쉽게 시내에 진출하여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즉 편리한 교통여건은 계속적으로 정착인이 고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속초의 발전에 따라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정착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청호동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하였다.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은 청호동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주거환경은 규모와 자재의 종류, 화려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우수성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할 때 거주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통의 편리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가로정비, 생활환경개선, 부분개조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촌락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박익훈, 1966. 김정우, 1977

2. 자연적 조건

가. 어항

속초는 1930년부터 어업이 활성화되었으며, 55년 월남인 중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농업보다 어업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즉 농토는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의 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며, 이에 따라 조업이 가능한 어항이 있는 고향 가까운 곳으로 월남인이 많이 모여 오는 것은 당연하다. <표2>의 속초 농어민 분포에서와 같이 청호동은 백사장으로써 속초 1, 2, 3, 4구와 다르게 농업종사 인구가 없는 어촌이었다.

<표2>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1955년 현재) (단위:호, 명)

속초 행정구역		속초1구	속초2구	속초3구	속초4구	속초5구	기타	속초
농/어업별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호동)	지역	전체
호수 및 인구	호수	911	357	1,103	1,316	454	1,209	5,350
	남자	1,840	794	2,380	2,783	1,046	3,059	11,920
	여자	1,890	789	2,363	2,703	930	3,117	11,792
	계	3,730	1,579	4,743	5,486	1,976	6,176	23,699
어업	어가 호수	72	106	296	169	201	302	1,141
	어민수	126	292	653	644	529	519	2,763
	어민 가구원	288	530	1,480	845	1,005	1,518	5,666
	발동선	2	5	50	68	30	1	156
	범선	10	27	42	34	33	120	266
	중선	16	29	52	68	106	85	356

자료 : 속초읍(1955), 『읍세일람』

이러한 여건으로 월남인 중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과 원래 어업에 종사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청호동으로 모여오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여 쉽게 어획물을 팔 수 있었던 경제적 장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촌에 종사하는 많은 인구들은 특별한 가재도구나 어구들이 필요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 요구되었다. 또한 조업의 특성상 그들은 육지에서도 함께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므로 단체 생활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것은 각 방에서 개인적 공간을 찾기보다는 기숙사와 같이 큰 방, 혹은 연속된 몇 개의 방들이 있는 곳에서 같은 조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할 수 있는 일렬로 연속된 방, 혹은 큰 규모의 방이 있는 가옥구조를 만들게 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나. 집터자리

청호동은 편리한 교통로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가 없었고, 백사장만 있고, 농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거의 버려진 국유지로 되어 있었다.

살수가 없는 국유지가 정착민의 거주지로 제공되면서 땅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들만은 생활 거주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것은 정착촌 정책과 함께 좁은 가로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담장이 없고, 공동의 서비스 공간(화장실 등)을 가지며, 소유권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며, 큰 가옥을 갖기보다는 공동의 땅으로써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독특한 청호동 거리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주거환경의 개선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청호동을 떠나고, 1세대들이 옛 터를 지키고 있어 거주공간의 크기에 대한 제약은 크게 많이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역설적으로 옛 향기가 있는 주거환경의 상품화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

즉 주민전체의 소득사업으로써, 속초시의 관광정책과 함께 독특한 역사성이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꼭 흥미있는 주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래의 살았던 고장에서의 급격한 인문자연환경 변화는 전통적으로 지역성이 함께 하는 주거환경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피난민 가옥의 구조

우리 나라의 민가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쪽지방의 온돌중심형으로 이루어진 겹집 형태의 가옥과 남쪽지방의 마루중심형으로 만들어진 홑집은 외형상 크게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기능에 따라서 각각 발생한 독특한 공간은 함경도 지방의 정주간(구들),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방의 봉당 등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집합되어 함경도·평안도·서울 중부지방·남부지방·제주도 지방으로 각각 나누어서 좁은 국토 안에서 독특한 민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가옥은 거주자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 건축되어지는 형식은 처음에는 옛날 양식을 따라서 건설되어져 점차 그 지역에 동화되어 지역적 특색을 받아 들여 변형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본 조사지역의 실향민 가옥은 대부분 정상적인 삶의 이동에 따른 온전한 형태의 이전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헤쳐 나온 삶의 형태이므로 대단히 독특한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일실 주거에서 출발하여 점차 집단의 성격에 맞는 형태로 완성되어 갔다.

가. 원추형 가옥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착민의 거주공간보다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임시 생활공간으로써 군용폐기물, 비닐 등을 이용하여 수혈공간과 유사한 원추형 가옥을 만들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생활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므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막대기를 땅 위에 기둥처럼 세우고, 삼각형으로 서로 지지되게 골격을 갖춘 후 요즘의 등산용 텐트와 같은 형태로 단일공간을 만들었다.

식·침과 가족의 생활을 단일공간에서 공동으로 하였으며, 남·녀 공간의 구분, 기능에 따른 각각의 허용공간 소유 등을 위한 각 실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여 점차 다른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추형 가옥의 내부에서 높낮이의 조절, 간이벽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실

내를 구분하였다. 평면의 내부 공간이 크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절대 필요한 넓이 만큼만을 확보하여 천막 안에서 생활을 하였다.

나. 방+부엌

거주공간과 부엌공간을 분리한 형태의 2실 구조의 평면이 있었으나 부엌공간은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듯이 방보다 전체 면적이 넓은 것이 아니고, 한정된 식사의 준비와 물품 저장을 위한 크기였다.

청호동에서는 ‘하꼬방’ 집으로 불리지고 있으며, 외부의 재료가 판자, 깡통 넓힌 것, 혹은 일부 벽체는 종이박스 등을 이용하여 건축되었다.

현재 청호동에서 몇 가구가 남아 있어 생활은 하지 않고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는 이러한 형태의 가옥을 보여주고 있다. 출입은 부엌 측면에 있는 외쪽여닫이 문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오며, 부엌의 왼쪽 측면에 있는 미닫이문을 열고, 현재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을 지나서, 다시 작은 쪽문 형태의 외쪽여닫이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다. 방에는 미닫이 창호가 좌측과 전면에 있으며, 현재 마감은 벽지로 도배되어 있으나, 처음에는 기름종이, 신문지 등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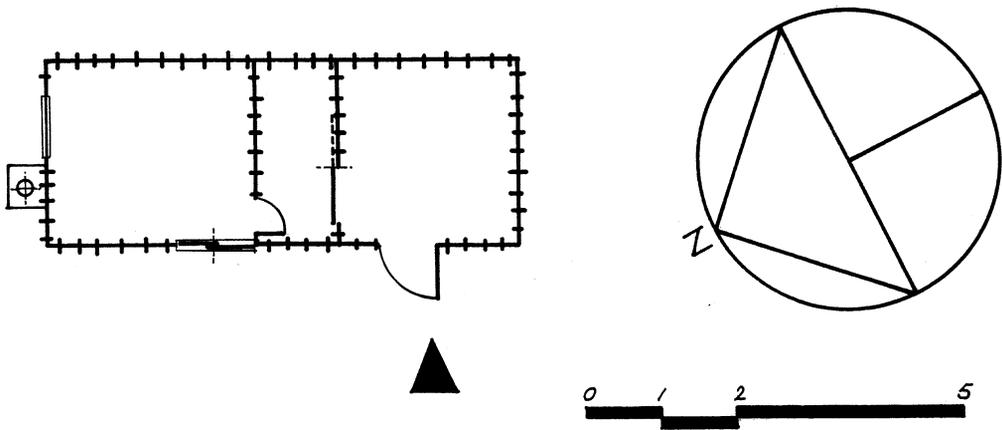


그림 1



사진 1. 전상수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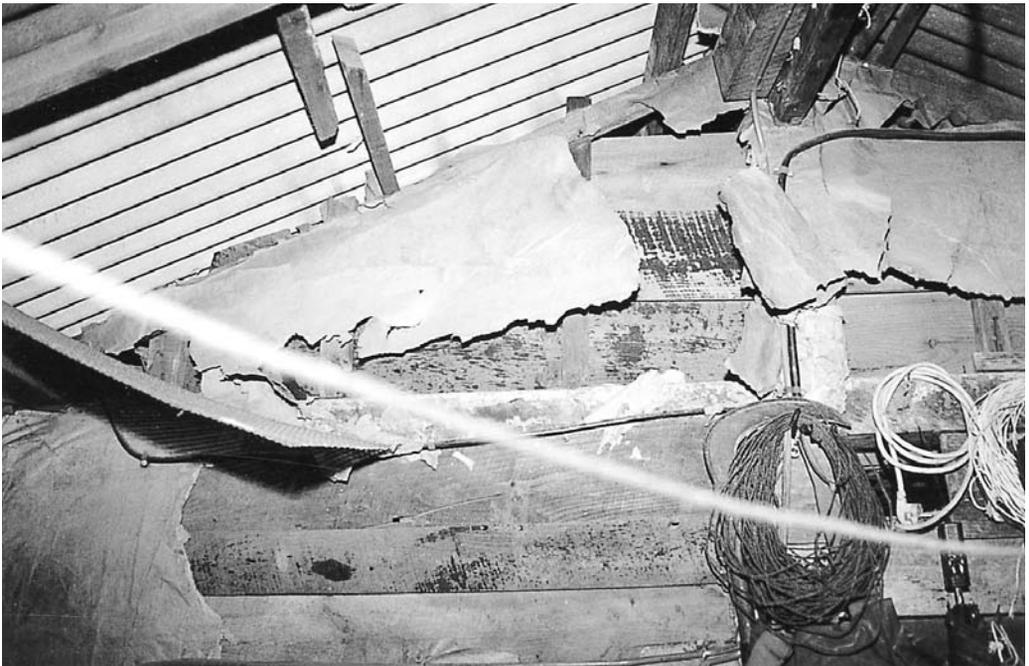


사진 2.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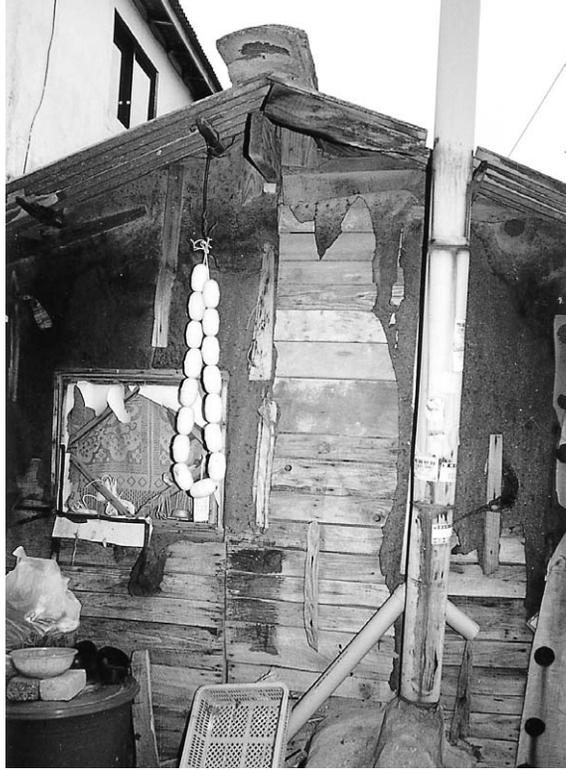


사진 3. 측면



사진 4. 내부

평면의 형식은 방과 부엌사이에는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는 벽체로 분리된 전이 공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함경도지방 민가의 특징은 부엌과 안방 사이에는 부뚜막을 연결한 넓은 '정주간'이 있어 겨울철 추운 날씨가 연속되므로 여기에서 작업, 단란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게 평면이 구성되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서 혹독한 겨울철 추위와 기나긴 겨울날을 갖지 않는 자연적 조건이 다른 속초 지역에 정착하였으나, 처음의 형태는 함경도 정주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작은 정주간을 방과 부엌 사이에 만들고 있다. 즉 정착지 이전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전승되어 전통적 관습을 이어오고 있다. 가옥주에 의하면 벽체의 칸막이는 처음에는 가마니 등으로 시야를 가리는 정도였으나 점차 벽체로 만들어졌다하며, 이것은 함경도지방 정주간의 초기 형태와 유사한 것이다.

방+부엌 형태의 이 지방의 일반적 평면은 방의 측면에 부뚜막이 있고, 곧바로 부엌이 연결되는 형식이다. 이 때 출입은 방의 전면에 덧들을 놓고 외쪽여닫이문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엌 출입문을 따로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방과 부엌은 부뚜막에 의해 직접 연결되며, 만약 공간이 필요하면 부엌의 뒤쪽 좌측면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전상수 가옥에서는 정주간과 유사한 공간을 갖고 있으며, 또한 출입에 있어서도 폐쇄적이고 내한적인 부엌 출입구 하나만 갖추고 있다.

다. 연결형

전쟁이 곧 끝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간이구조로 간단히 평면을 구성하였으나, 점차 세월이 흘러 오랜 기간 정착하면서 주거건축은 또 다른 형태를 만들게 하였다. 청호동 거주민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활공간은 더욱 많이 필요하였으나 제한된 면적과 경제적 사정에 의해 모두가 주거건축물을 소유할 수는 없었다.

또한 가족을 두고 혼자서 생활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취업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거건축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방과 극히 필요한 면적의 부엌만이 전부였다. 즉 낮에는 외부생활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함께 공동작업이 요구되는 어민에게는 단체생활을 위하여 더욱 필요하였다.

다음 <그림 2>, <사진 5>, <사진 6>은 50년 전 건축된 청호동의 박송월 가옥으로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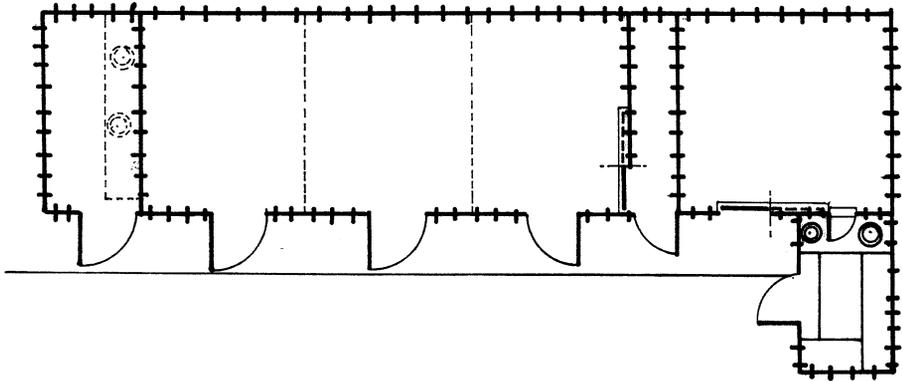


그림 2

개 연결된 각 방과 작은 부엌은 그때의 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가옥은 원래 중간의 폭 60cm, 길이 270cm의 부엌과 좌측의 방 3개로 이루어졌다. 방의 크기는 270cm×270cm 정도이며 12~15명의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즉 방 하나에 4~5명이 함께 생활하였다. 이러한 크기는 그 인원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이며, 간이의 손에 잡을 수 있는 간단한 부피의 물건 몇 개를 더 놓을 수 있는 정도이다. 주로 함께 어로작업을 하는 어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였으며, 그나마 이러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한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면서 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측면과 끝에 각각 부엌을 증축하여 지금과 같은 평면이 완성되었다. 주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세면실 등은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개인 가정에서는 극히 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부엌을 방의 중간 혹은 측면에 두면서 각각의 방이 증가하는 것은 청호동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평면형식이며, 토지공간의 여유와 수요가 있을 때는 3칸, 4칸, 5칸으로 계속 일렬로 증축하였다.

사용하는 재료는 미군들이 버린 판자를 주워서 벽체를 만들었으며, 밀가루 포장지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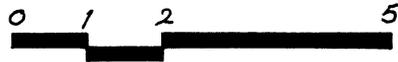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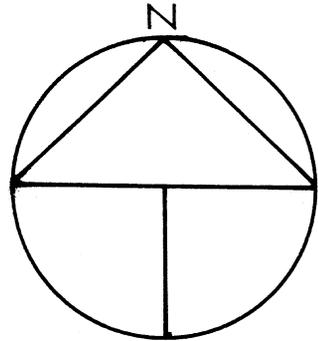




사진5. 박송월 가옥



사진 6. 전면 도로

부를 도배하였다. 지붕은 판자, 종이박스, 비닐 포장지, 루핑으로 만들었고, 현재의 스트리트는 30년 전 인근 공장에서 사용한 것을 다시 재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정착 초기의 일반적인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³⁾

일렬로 방들이 배치되고, 이러한 집들이 인근에 붙어있고, 토지소유에 대한 구분과 각 집에 대한 영역성이 표시가 필요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출입구는 각 방의 문을 통하여 외부로 연결되며, 마당의 개념이 필요치 않았다. 즉 사회적인 공간은 실내·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에 필요한 출입 통로 공간만 있었다.

라. 근대 주거건축

정착생활이 점차 안정화되어 6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의 움막형태, 판자집, 일자연결형 등은 거의 사라지고, 흙과 불력을 이용한 가옥이 점차 증가하였다. 건축자재가 임시 거처용이 아닌 내구재를 사용하여 구조적 강도를 갖추게 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점차 확보 가능하고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족과 개인을 위한 공간에도 갖추게 되었다.

〈그림 3〉,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의 김춘자 가옥은 맞배스레트 지붕 구조로써 기둥은 9cm의 각재를 사용하고, 높이는 240cm이며 도리는 6cm의 각재로 구조체를 결구하고 있다.

기둥 구조는 자연석 주초석 위에 곧바로 놓이지 않고 하인방을 주초석 위에 두고 그 위에 세우고 있다. 즉 충분한 건축자재와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이 완성되었으며, 아직도 완전히 정착 단계는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면에서는 부엌을 측면에 두고 방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으며, 부엌에서 돌출 되게 샤워실이 있다. 방의 크기는 250cm, 260cm×360cm이고, 부엌은 270cm×360cm, 샤워실은 140cm×230cm로써 넓이에 있어서도 부엌+방과 연결형 양식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99쪽.



사진 7. 김춘자 가옥



사진 8. 초석



사진 9. 측면



사진 10.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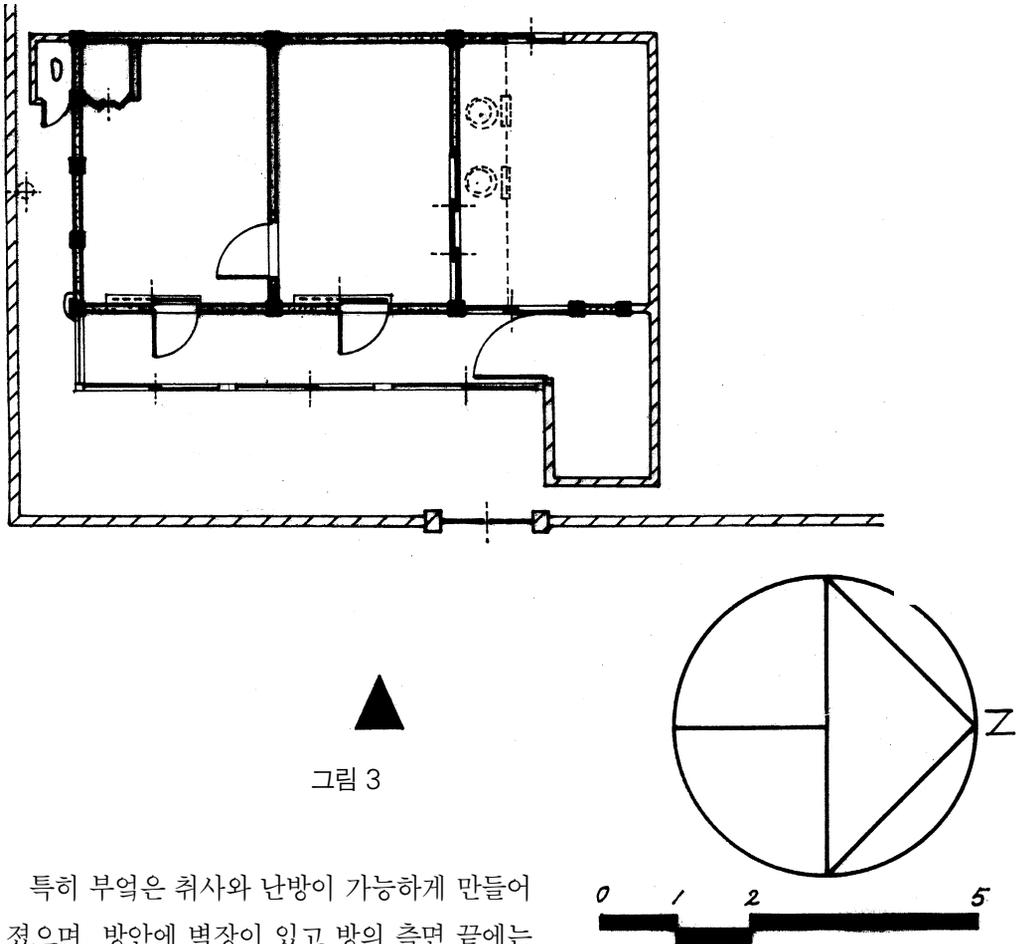


그림 3

특히 부엌은 취사와 난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며, 방안에 벽장이 있고 방의 측면 끝에는 화장실이 붙어있다. 평면의 형식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각 실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여 용도에 맞는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바닷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하여 방의 창호는 외쪽여닫이(폭 70cm)와 미닫이의 이중창호로 하였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처마 끝에서 알루미늄 창호를 집의 전면에 부착하였다. 방과 부엌의 일부 벽체는 흙벽에 시멘트 몰탈 마감을 하였으며, 후에 증축한 부엌과 샤워실은 블록으로 벽체를 쌓았다. 즉 구조체는 보호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바람, 혹은, 혹은에 견딜 수 있게 건축되어지며, 외부에 대하여서도 영역성에 관한 개념이 분명하여 블록 담장과 대문을 두고 있다. 즉 초창기의 담장이 없이 좁은 가로를 형성하였던 시기를 지나서 사회적 구분을 갖는 가옥을 건축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피난민의 주거촌은 급격한 인구증가, 경제적 능력의 취약함, 교통의 편리함, 정착지 토지와 계획의 불분명과 같은 인문적 환경과 백사장과 어항이 있는 자연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주거환경을 이루면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수혈주거 형태의 간이가옥에서 식침을 동시에 행하며 간단한 천막의 구조체에서 높낮이와 생활도구의 두는 위치에 따라서 주거공간의 활용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조금의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집단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자, 종이박스, 루핑 등으로 지은 '하꼬방'이라는 방과 부엌이 있는 주거에서 생활을 하였다. 부엌은 필요한 행위가 가능한 정도의 크기이며, 방과 부엌 사이에는 함경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정주칸을 닮은 작은 공간을 두고 있다. 이것은 피난민이 전에 생활하였던 전통적 습관을 현지에서 처음에는 만들고 있으나, 점차 주변환경에 적응하여 그 전 가옥에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창조하는 전이단계이다.

한편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더욱 많은 거주공간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엌에 방이 연결된 일자 형태의 가옥이 만들어지고 몇 개의 큰방이 다시 부엌에 이어 붙는 연결된 형태가 나타났다. 거주를 위한 공간 이외에는 공동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 크기만 허용되었다.

천막 형태와 방과 부엌, 그리고 방이 연결된 구조는 토지소유의 불분명, 이주정책 초기의 정책 모호성 등에 따른 당시 형태의 고착에 의해 좁은 가로로 형성하고, 골목길이 있으며 지붕이 맞대어 있는 담장이 없는 가로경관을 만들게 하였다.

점차 경제적 능력이 확보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사용하는 건축재료도 내구적인 흙, 벽돌, 알루미늄을 사용하면서 완전한 근대주택을 건축하게 되어 담장이 있고,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방과 부엌의 크기에 있어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이를 확보하였으며, 샤워실, 화장실 등의 3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마감과 의장에 있어서도 자연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면 알루미늄 샷시, 도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독특한 마을의 형태는 교통의 편리성, 속초 중심에 가까운 입지성, 갯배의 교통수단,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마을의 가로경관, 뛰어난 해변의 아름다움 등과 함께 마을의 상품화가 가능하며, 이것은 청호동의 현대화되어 가는 모습과 함께 발전적 주거환경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제6장 문학 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

채 재 순(詩人)

1. ‘실향민 문학’의 이해

일반적으로 ‘분단문학’이라 함은 “분단상황을 제재題材로 다룬 문학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학은 사회현상을 반영하므로, 분단分斷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최근세사最近世史가 문학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해방 이후 55년 동안 많은 문학작품이 생산되었고, 그 중 상당수는 이런 현실과 관련되어졌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더 섬세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분단문학의 개념을 ‘현대문학사의 시대적 단위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방 이후의 모든 문학작품을 ‘분단시대의 문학’이라 지칭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개화기시대의 문학, 식민시대의 문학, 분단시대의 문학, 통일시대의 문학 등의 시대사時代史적인 분류가 가능한 것이다. 이때 만약 ‘분단문학’이 ‘분단시대의 문학’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면, 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일찍부터 분단문학 연구에 힘써 온 임현영¹⁾은, ‘분단문학’이란 “분단의 원인에 대한 탐구,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의 형상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

등을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그는 “8·15 뒤 분단시기의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갈등과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체의 문학행위”를 분단문학의 개념으로 삼았다.

한편, 분단문학 연구로 상당한 실적을 쌓은 권영민²⁾은 ‘분단문학’과 ‘분단극복문학’을 구별하자고 제안한다. 해방 이후의 문학 중에 “분단의 원인 탐구,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등을 다룬 것”은 분단문학으로, “분단극복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은 분단극복문학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해방 이후 일체의 문학을 “분단시대의 문학”이라 하고, 이를 ‘분단문학’과 ‘분단극복문학’으로 나누면, 기존의 전쟁·이산·귀향·분단 문학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분단극복문학을 “통일문학”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에 의하면, 통일문학은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한 해방 이후 분단시대의 문학”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분단시대의 문학’은 “분단문학”과 “통일문학”으로 구분되는 셈이다.

그와 함께 권영민은 분단문학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분단 상황에 안주하면서 분단의 논리를 추종해 온 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분단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분단 논리의 모순을 끊임없이 문제삼고 있는 문학”이다. 그는 이를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도피형 문학”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형 문학”이라 규정 짓는다.

그러나 이런 학술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분단문학의 개념은 대단히 협의적이다. 일간신문 문화면의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면, 분단문학이라는 용어가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는 문학’ 또는 ‘분단시대의 아픔과 현실을 담은 문학’이라는 뜻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6·25전쟁을 소재로 다루거나, 이산가족의 한, 실향의 아픔, 이념적 충돌 등을 다룬 작품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분단문학의 개념인 듯 하여, 이 글에서도 ‘분단 상황을 제재로 다룬 문학작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단으로 인해 6·25전쟁이 발발했고,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또한 전쟁 유민流民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6·25 전쟁문학·이산문학·실향민문학 등의 하위 개념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실향민 문학’이라 함은, “남한에 정착한 북한출신 전쟁유민들의 삶이나 의식을 소재 또는 주제로 다룬 문학”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앙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2) 서울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그러므로 이 글에서도 ‘속초 실향민 문학’이라는 개념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속초 실향민’이라 함은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을 일컫는 것이며, 따라서 ‘속초 실향민 문학’이란 “속초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전쟁 유민들을 소재 또는 주제로 다룬 작품”이라는 의미이다.

주지하다시피 속초는 6·25전쟁 직후 전쟁유민들에 의해 재구성된 도시이다. 전쟁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이산離散과 실향失鄉의 한恨을 안고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서가 형성되었다.

이는 문학적으로 주요한 제재가 될 것인 바, 이 글을 통해 이들 작품을 일별一瞥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의 목표가,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속초 정착 피난민’들의 삶의 양태와 의식 구조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데 있음을 명확히 밝혀둔다.

2. ‘속초 실향민 문학’ 개관

휴전 이후 ‘속초’는 피난민들의 정착 공간이 된다. 피난민들은 낯선 땅에서 기존의 모든 사회적 기득권을 상실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들이 머문 속초라는 공간 역시, 사실은 북조선 통치에서 막 벗어나 새로이 남한 영토로 편입된 상태였다. 그리하여 ‘속초’는 피난민이라는 새 구성원으로 재편된, 또한 ‘적성국敵性國’으로부터 탈환되어 뒤늦게 남한에 편입된 ‘이 나라 이방異邦지대’로 자리 매김 된다.

속초라는 공간에 모여든 낯선 이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속초인을 형성한다. 이들의 개별적 체험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북한 전역의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게 되고, 거기에다 전쟁 직후 황폐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겹쳐 수복지구收復地區 ‘속초’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피난민들은 이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남한의 신민新民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자신의 본적지를 속초로 정하고, 가족관계를 새로이 설정해 일가一家를 창립한다. 한편 본디 속초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농토 등 일부 생계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피난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도 여느 실향민과 같이 북한 통치를 받던 이들이었으므로, 남한 정부 입

장에서는 ‘적성국에서 유입된 난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항민들이 반공투사로 행세할 때, 속초 본토인들은 북한 정부에 협조한 경력 때문에 ‘빨갱이’로 매도되어 사회적 고립의 위기에 처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형성된 ‘속초’는 얼마 전까지 자기를 통치하던 북한 정부를 적대시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은 북에 남겨진 가족과 지인(知人)들을 적성국가 국민으로 인식해야 할 처지에 이른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다간 자칫 적성국을 고무 찬양한다는 누명을 쓰기 십상이어서 함부로 내색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묘한 처지의 속초인들이 내적으로 겪는 갈등은 곧 이 시대 한반도의 비극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할 만했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문학적으로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기에, 몇몇 문인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인 이상국³⁾, 김춘만⁴⁾과 극작가 이빈⁵⁾은, 속초 실항민의 삶과 의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 속초 지역 문인으로 구성된 ‘갈피’⁶⁾ 동인들도 이 문제에 집요하게 천착(穿鑿)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적 현상을 대변하였다.

시인 이상국은 투철한 역사 의식으로 분단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시도했다. ‘청호동 새 섬’ 등의 작품을 통해, 실항민들의 삶이 ‘단절로 점철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혈연의 단절, 개인사의 단절, 추억의 단절, 사회적 기득권의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립된 채 새로이 시작’하는 그들 삶이 흡사 ‘바다 한가운데의 물’ 곧 ‘섬’과 같다고 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육지’와 교신하기를 원하고, ‘물’을 동경하는 속성을

3) 시인. 1947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태어났다. 민중의 아픔을 대변하는 사회성 있는 작품들을 주로 발표했다. ‘우리는 읍으로 간다’, ‘내일로 가는 소’ 등의 시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민족예술총연합회 강원도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1회 백석문학상을 수상했다.

4) 시인. 1954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서 출생했다. 1988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어린 생명에게도 그들을 던져야 한다] 등을 출간했다.

5) 극작가. 1939년 함경남도 흥원에서 출생했다. 1951년 1.4후퇴 때 가족과 함께 청호동으로 이주해 소년 시절을 속초에서 보냈다.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숭실대 철학과를 다녔다. 스웨덴 옘살라 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극 미학을 전공했다. 숭의여자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연극제, 동아연극상 등에서 희곡상을 수상했다. [그날 그날에], [아버지 바다], [실항민], [셋바람], [바다로 가는 사람들] 등을 통해 주로 분단상황과 실항민들의 정서를 묘사하는 데 주력했다. 본명 이명수.

6) 속초지역 문인들의 모임인 설악문우회가 발간하는 문학동인지. 196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발간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제30집이 발간되었다. 윤홍렬, 강호삼, 박명자, 이성선, 최명길 등이 창립하였으며, 속초지역 문인 대부분이 이 동인지를 통해 작품 발표를 시작하였다.

지니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삶이 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선 ‘국토의 단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귀향 욕구는 결국 강한 ‘통일에의 의지’로 이어진다. 이상국은 이렇듯 분단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에의 염원’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상국은 또한 『수복지구에서 - 대포동 오씨 일가』 등의 작품을 통해 다수의 민중들이 단지 소수 지배층의 이념, 곧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당해야 하는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 예시로 그려낸다. 이 모든 것이 외세 의존에 따른 최근세사에 그 원인이 있음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그는 『바다로부터 우리들의 적이 온다고』 등의 작품을 통해 분단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형제를 ‘적’이라 부르고, 동포를 ‘적국’으로 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정서가 얼마나 황폐해 졌는지 그 피폐함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철조망 안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되기에 이른다. 그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민족 화해가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러 방식으로 펼친다.

시인 김춘만도, 차별하지만 집요하게 분단상황을 묘사해왔다. 그는 객관적이면서도 근접적인 관찰로 실향민들의 ‘삶의 양태’를 그려내었다. 김춘만은 『장지葬地에서』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 1세대들이 조용히 한 시대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역사의 뒤안길로 ‘소문없이 귀향’하는 저들의 모습을 마치 사관史官처럼 냉철하고 담담하게 기록한다.

또한 『청호동 나무』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 2세대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 그 과정에 대한 관찰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듯 ‘실향 1세대의 소멸’과 ‘실향 2세대의 정착 과정’은 김춘만에 의해 실록처럼 기록되고 있는 중이다.

시인 장승진⁷⁾은 『명대』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민의 ‘해체된 삶’을 형상화하며, 『청호동 아바이』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민의 그리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납득할 수 없는 분단 현실을 사실적인 어조로 토로하기도 한다.

그 외 최명길⁸⁾, 고흥렬⁹⁾, 김영준¹⁰⁾, 권정남¹¹⁾, 채재순¹²⁾ 등의 시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아동문학가 박용열¹³⁾도 분단문제와 관련된 동시들을 여러 편

7) 시인. 1956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1991년 [심상] 및 1992년 [시문학] 신인상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한계령 정상까지 난 바다를 끌고 갈 수 없다’를 출간했다. 설악문우회, 영북문화회 회원이다.

8) 시인. 1940년 강릉에서 출생했다. 1975년 [현대문학]지의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화접사], [풀피리 하나만으로] 등을 출간했다.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교직 생활의 대부분을 속초에서 보냈다. 1981년부터 [몰소리 시낭송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유지하는 등 문학향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 서왔다.

썼다.

소설이나 희곡 등 서사분야에서 속초 정착 피난민들을 소재로 다룬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실향민들의 삶을 체감하기에 시문학보다 훨씬 용이하다. 소설이나 희곡에서는 주로 남북의 대립되는 이념으로 인한 갈등, 실향 1세대와 2세대간의 귀향 의식과 관련된 갈등, 분단 상황으로 인해 파생된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그 삶의 양태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소설가 강호삼¹⁴⁾은 문학동인지 [갈피]를 통해 10여 년 동안 『북녘나그네』라는 장편소설을 연재하였다. 미완未完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 소설에는 당시의 대북관對北觀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의 친구가 조업 중 남북 당해 대남 선전원이 되고, 자신의 애인이 고정 간첩에게 속아 결혼하는 등 분단체제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주인공을 통해 분단현실과 그 비극을 체감하게 된다.

이은자¹⁵⁾의 단편 「만선」에는 실향민 배군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월선 조업의 위험을 안고 만선을 위해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어민들의 실상과 함께, 청호동과 속초 어판장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문영남¹⁶⁾의 장편 『분노의 왕국』은 분단상황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소설 무대를 60~70년대 청호동으로 설정함으로써, 당시 청호동 실향민들의 삶의 양태가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봄의 콩치잡이와 ‘조기바리’, 여름의 오징어잡이, 겨울의 명태잡이로 이어지는

9) 시인. 1954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했다. 1981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했다. [대청봉 수박밭] 등의 시집을 냈다.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고성군 공무원으로 재직한 적도 있다.

10) 시인. 1956년 속초에서 출생했다. 1984년 [심상]지의 추천으로 등단했다. 시집 [봄을 기다리며]가 있다.

11) 시인. 1954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했다. 1987년 [시와 의식]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속초바람] 등이 있다. 설악문우회 회원이다.

12) 시인. 1963년 강원도 원주에서 출생했다. 1994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그 끝에서 시작하는 길]이 있다. 설악문우회 회원이다.

13) 아동문학가. 1929년 함북 청진에서 출생했다. 1959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동시집 [엄마], [고요] 등을 낸 바 있다. 속초에서 의원醫院을 경영해왔다.

14) 소설가. 1940년 만주에서 태어나 경남 김해에서 성장했다. 1975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했다. 속초 기상대장을 역임했다. 설악문우회 창설멤버로 초창기 속초에서의 문학운동을 주도했다.

15) 소설가. 1941년 함남 흥원에서 출생해 속초에서 성장했다. 문학동인지 [갈피]를 통해 작품활동을 해왔다.

16) 방송극작가. 1960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다. 제1회 MBC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KBS 텔레비전 일일연속극 등을 집필하고 있다.

속초 어판장의 사계가 그대로 투시되어 있으며, 청호동의 주거환경 등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극작가 이반은 그의 작품 대부분이 실향민을 소재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에 공세적으로 접근해 왔다. 그는 『실향민』, 『바다로 가는 사람들』, 『셋바람』, 『어판장 부근』 등 일련의 분단 문학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그 자신이 실향민이며, 수복지구 속초에서 소년시절을 보내기도 했기에 그 누구의 작품보다도 생생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 『그날 그날에』와 『아버지 바다』 등은 그가 청호동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녘 고향 땅에 묻어 주기 위하여 아내의 시신을 다락에 감춰둔 채 보관해 온 김노인, 그리움에 복받쳐 현역장교 신분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한땅을 다녀온 형철 등 실향의 한을 강하게 느끼는 인물들이 그의 작품 곳곳에서 등장한다. 이들 작품에는 작가의 개인 체험과 염원이 문학적으로 승화되어 있다.

연극협회 속초지부는 최재도작 『그대여, 바다로 가거든』이라는 실향민 뱃군들의 삶을 그린 작품을 전국연극제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재도¹⁷⁾는 라디오 드라마를 주로 써 왔는데, 특히 KBS 라디오 미니시리즈 《회한》(원제 ‘훈장, 푯대 끝에 나부끼다’)은 분단문제를 민족사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인민군 고급장교 출신으로 전쟁 중 포로가 되었다가, 얼떨결에 반공포로로 분류되어 석방된 김일권은 북조선 정부로부터 전쟁 중에 받은 ‘훈장’을 한평생 소중하게 간직해 왔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불행을 자초할 터이다. 북조선으로 돌아갔더라면 인민의 영웅으로 대접받았을 인물이 남한의 속초에서 뱃놈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은, ‘이념의 푯대 끝에’ 깃발처럼 나부끼는 그의 훈장만큼이나 시사적이다.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속초라는 특이치대에 대해 묘사했으며, 실향민들의 아픔을 그렸다. 이제 이들 작품을 통해 속초라는 공간, 그리고 실향민들의 삶의 양태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17) 극작가. 1957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다. 1978년 KBS 라디오드라마 현상공모에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8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입선된 적이 있다. 희곡집 [멈춘 곡선의 우아한 고독]이 있다.

3. 시詩 문학을 통해 본 실향의 공간

가. 떠도는 섬, 청호동

낮선 땅에 던져진 피난민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생계수단의 확보였다. 기존에 누렸던 사회적 신분은 월남越南과 동시에 상실되었으니, 토지도 기술도 자본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이들이 이 생소한 곳에서 삶을 일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육체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중 수월한 것이 일용선원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사실 수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다.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는 선원뿐 아니라, 그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속 관계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 명태나 오징어를 할복하고 건조하며 수송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용효과가 나타난다. 어선을 건조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산업이 파생했다. 속초에 피난민들이 밀집하게 된 것도, 이런 ‘막별이’ 직종이 흔했기 때문일 것이다.

피난민들의 상당수가 어업 또는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주거지도 어촌 촌락에 밀집하게 된다. 이들은 속초항 주변인 청호동, 영랑동, 금호동 등과 그 인접 내륙지역인 중앙동, 청학동, 동명동 등에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그 이전엔 야산이거나 모랫벌에 불과했다. 피난민들은 여기에서 판자집을 짓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청호동¹⁸⁾은 전쟁 전엔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이었으나 피난민들이 판자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순수 실향민 밀집촌’이 된다. 청호동은 피난민들에겐 안성맞춤의 거주지였다. 속초항을 끼고 있어 작업 장소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잡아온 수산물을 가공처리하기

18) 지금은 지난날의 청호동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1998년 신수로 개설로 청호동이 두 동강 나버린 데다, 청초호 일부가 매립되어 청호동쪽 해안이 육지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행정구역마저 달라져 지금은 중앙동 일부가 편입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청호동]은 청초호 매립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곳은 본디 청초호를 둘러싸고 있는 사주沙洲로, 속초 시내에서 대포로 이어지는 도로였다. 현재 교동에서 쌍다리틀 건너 중앙동 부영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 대포로 향하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이는 일제 때 개설된 신작로이고, 전통적으로 속초의 주 도로는 청호동을 경유했었다. 일제말기에 정어리 가공공장이 일부 들어서 있었고, 또 남쪽 일대는 군정시에 군용비행기 활주로로 쓰이고 있었다. 속초항이 천연항구로서 기능機能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주 때문이다. 이곳이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속초항은 어선들의 안전한 피항처가 될 수 있었다.

도 쉬웠으며, 또 그곳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였으므로 별다른 마찰 없이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었다.

혹시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집집마다 걸려 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 오징어 배를 가르면/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 햇살이/ 퍼들쩍거리며 튀어 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지/ 그 납작한 몸뚱이 속의/ 촉촉은 동해를 떠올리거나/ 통통배 연기 자욱하던 갯배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 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줏집이 들었었고/ 우리들 삶이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마흔 해가 넘도록/ 오징어 배를 가르며 사는 사람들의 고향을 아는지/ 그 청호동이라는 떠도는 섬 깊이/ 수장당한 어부들을 보았거나/ 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 / 누가 청호동에 와/ 새끼 줄에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보며/ 납작할 대로 납작해 진 한반도를 상상한 적은 없는지/ 혹시 청호동을 아는지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이상국)〉

청호동은 문인들에게 있어 분단작품의 주요 소재로 애용되었다. 그들의 선봉에 시인 이상국이 있다. 그는 청호동을 ‘섬’이라 지칭한다. 갯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는 점에서 짐짓 현실적인 묘사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중의中意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섬’이 육지로 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듯, 이는 실항민들의 ‘단절된 삶’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애 중 그 이전의 삶을 부인否認하거나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개인사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고, 가족 중 일부를 북에 두고 월남함으로써 혈연의 단절을 체험해야 했던 것이다. 전쟁유민으로서 남한에 편입된 이후 느껴야 했던 삶의 공허감은 이렇듯 복합적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떠나야지./ 청호동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 이곳에선 물이 흐를 때마다/ 자꾸 발목이 빠진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잠들지 않으려고/ 서로 모래뿌리는 저녁./ 갈매기들이 청초호 더러운 물에 부리를 박고 있을 때/ 늙은 아바이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 있다./ 섬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끝내 떠도는 섬./ 흐르고 물이 흐르는 동안/ 청진이나 신포 부두에 매어 놓은 배들이 삐걱거린다./

〈떠도는 청호동 (이상국)〉

‘청호동 사람들’ 혹은 ‘늙은 아바이들’이 머무는 이 땅은 아직 그들이 뿌리 내릴 곳이 아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은 단지 ‘잠시 머무르는 과도기적 삶’에 불과한 것일 뿐, 진정한

그들의 삶터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찾을 수 있다. 청호동은 분명 이들에게 ‘객지’이고, 그래서 청호동은 ‘끝끝내 떠도는 섬’이 된다.

이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호동 방파제 너머에 또다른 ‘섬’이 있고 그곳에 ‘과수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청호동 사람들은 때때로 거기에 가곤 한다는 것이다.

청호동 방파제 너머 떠 다니는 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장화를 신은 채 청호동 사람들마저 잠들고/ 흥남이나 청진 물이 속초 물과 쓰린 속으로/ 새 섬 근처에서 캄캄한 소주를 까다가 쓰러지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새 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험뎅거리며 짐승처럼 날다 바다의 벽에/ 다치고 돌아와 죽은 듯이 잠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새 섬을 사람들은 모른다./ 청호동 사람들이 동해 밑바닥 극적없는 고기를 잡거나/ 모래 위에 집 짓고 아이들을 낳는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는 건 무서운 일이다/ 나룻배 끌기엔 흐르는 땅 모래 썩안고 아이들 잠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이남 물과 이북 물이/ 야이 간나이 새끼 마이 늙었구만 하며 / 공개적으로 억세게 무너지면/ 동해 속으로 사라질 청호동은 잠시 객지일 뿐이고/ 분명히 객지여야 한다/ 청호동 방파제 너머/ 청호동 사람들의/ 흐르는 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청호동 새 섬 (이상국)〉

속초에서 배로 바다 동쪽 두어 시간 가면 과수원이 있다고 한다./ 지난 8월에도 속초비행장에 내린 칼 조종사는/ 항로에 없던 섬을 보았다고 했다./ 미국이나 소련 위성이 밤낮 이잡듯 뒤지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과수원이 있다니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주문진이나 거진 속초 뱃군들은 그렇지 않다./ 배 고프면 떠도는 과수원이 보인다고 한다./ 그 일로 이곳 해경이나 높은 곳에서 수차 수색을 했었지만/ 동해가 과수원을 내 놓을리 없었을 것이다./ 돌아가 보았자 밥도 땅도 없는 뱃군들이/ 폭풍이나 월선조업을 핑계삼아 자꾸 늘려 왔다는 섬으로/ 거진 속초 과부들 그리우면 머리 풀고 가는 물길 있다. 하지만/ 한국의 해도에도 없고 끝없는 정찰에도 나타나지 않는 동해 과수원/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맑은 날 고성 운봉산만 올라도/ 사과나무 숲이 보인다고 한다./ 과수원 울타리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동해 과수원 (이상국)〉

‘이남 물과 이북 물이 공개적으로 무너지는’ 통일이 되면, 실향민들은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텅텅 빈 청호동도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금새 가라앉아 버

릴 곳에다 영구히 살집을 지을 수는 없는 법, 그래서 청호동 사람들은 '방파제 너머'에 있는 '흐르는 섬'으로 미리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해난사고로 인해 끝내 육지로 되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사실은 '동해과수원'에 눌러 앉은 것이라고 시인은 전한다. 사과나무 숲이 우거진 그곳은 '배고플 때' 보이고, '그리울 때' 갈 수 있다. 실향민 뱃군들의 이상향이어서, '해도에도 없고, 끝없는 정찰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국은 이처럼 실향민들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고향에의 그리움'을 간절한 '통일'에의 의지'로 건져 올려놓고, 그것을 다시 '섬' 또는 '과수원'이라는 구체적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리하여 실향민들이 지닌 그리움의 실체, 그 공허함의 근원을 이 '섬'에서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나. 바람의 도시, 속초

실향민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한 도시, 이곳은 본디 바람이 드센 곳이다. 양간지풍襄杆之風¹⁹⁾으로 대변될 만큼 유달리 바람이 많다. 속초지방기상대에 의하면, 속초의 연평균 풍속은 초속 3.2m로, 이는 내륙 지역인 춘천의 1.7m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다.

속초에서 폭풍²⁰⁾이 나타나는 날은 연중 16일로서 어느 지역보다 많다. 겨울철에 이는 바람은 강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이고, 봄철에 부는 바람은 영동지방 특유의 현상이다. 이는 백두대간의 지형적 원인과 기상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열적 차이가 많은 백두대간과 동해 바다가 가까이 있어 국지적으로 공기의 이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²¹⁾이라 한다. 이 바람이 어찌나 지독한 지, 어떤 시인은 숫제 [속초바람]이라는 시집을 냈을 정도다.

색깔도 모양도 없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현실뿐/ 사월 밤/ 검은 망토를 걸친 무리가/ 바다

19) '양양과 간성 지방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영동지방에 유달리 심하게 부는 바람을 일컫는다. 襄杆之風(양양과 강릉지방의 바람)으로 쓰기도 한다.

20) 폭풍은 10분간 평균풍속이 13.9m/s이상일 때를 말한다.

21) 천광인(전 속초기상대장), 속초시지 1991.

끝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육지로 올라선다// 무슨 용서받을 일 있다고/ 거리 현수막 찢고/ 출항 어선 밧줄 끊어 놓는다/ 아파트 허리 사정없이 난타하다가/ 키 큰 미루나무 머리채 끌고 다니다가/ 괴성을 지르며 회오리 친다// 죄명도 모른 채 당하고만 사는/ 바닷가 사람들 표정이 없다/ 검은 망토를 걸치고 천 년을/ 숨어 살던 폭도들이/ 아마도 오늘 밤엔/ 어디론가 지구를 떠메고 갈 침입자 보다.

〈속초바람1 (권정남)〉

힘찬 바람에 의해 초토화된 정경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시에서 보듯, 속초는 사시사철 모진 바람과 맞서야 하는 도시다. 그러나 시인들은 이 바람이 단순한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실향민들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 유달리 심한 안개도 어찌면 그들에 의한 것일 지 모를 일이다. 바람은 ‘떠나고 싶어 안달’ 하고, 안개는 ‘무엇이든 지우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향민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떠나고 싶어 안달하는/ 바람 끝 잡고/ 밤새도록 고래고래 씹박질하다/ 아득하게 쳐드는/ 푸석푸석 부은 얼굴// 늙지 않는 바람아/ 목선들 발목 잡고 당겨 봐/ 바다의 잔등 밀어 땅 위에 곤두박질 시켜 봐/ 불빛들 날리며 골목길에 들어/ 생선회칼 들고 한 번 설쳐 봐// 봄이면 까마득히 살아나는/ 고향집 마루/ 가지런한 댕들들/ 너답게 창문에 발길질을 해 다오/ 몸 늙어 이 땅에 새로 지은 집/ 뿌리를 흔들어/ 안락함에 뿌리를 찍어내어/ 그 위에 땡땡 네 얼굴을 걸어도 오// 쓸려간 목련과 귀 떨어진 꽃나무들/ 어린 것들 속 모르고/ 아쉬워하는 아침이면/ 아바이들 식전부터 사발로 소주 까는/ 바람 속에 실종된 속초를 아시나요?

〈바람의 도시 (장승진)〉

그물이나 작살로는 잡을 수 없는 안개 때문에/ 원산이 보이지 않는다./ 원산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서울, 안개 속에 넘어진 아바이들은 모래바닥에 못을 박으며/ 캄캄한 소주만 마신다./ 안개가 청진을 먹고 원산 진남포를 먹어 치우고/ 목포 인천을 먹으며 영을 넘어와/ 뻥뻥스럽게 청호동 여자들과 동침하는 밤에도/ 인천 등대와 같은 속초 무적霧笛으로는 속수무책이다./ 청호동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그리움 속에 몸을 숨기고/ 지워져야 한다고, 아픈 청호동은 지워져야 한다고/ 안개는 속삭인다./ 전라도나 함경도는 지구에 없다고/ 먹어 치우는 안개 잡으려고 작살이나 그물 퍼 들고/ 넘어진 아바이들 기쁘다 잠들면/ 지워지지 않으려고 우는 청호동.

〈청호동 안개 (이상국)〉

청호동이 아직 그곳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청호동 스스로 이 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바람은 속초를 ‘실종’ 시키려 하고, 안개는 청호동을 ‘지우려’ 한다. 바람은 유달리 ‘깜깜’ 해서 대낮에도 속초를 실종시킬 수 있고, 안개는 한 밤에 ‘뻘뻘스럽게도 청호동 여자들과 동침’ 을 하며 ‘그리움 속에 몸을 숨긴다’.

새벽을 건져 올리던 바람이/ 어지러운 물살로 뒤척인다// 어느 아침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물질을 기다렸던 명태가/ 비릿한 바람으로 걸러들고// 청호동 마실을 따라 나란히 선/ 단천
상회, 북청이용소 간판이/ 네 이놈, 네 이노움!/ 뿔어지게 내려보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아
이들// 아이들이 햇살로 팔팔거리도/ 설악산 대청봉 바람에/ 손발이 시린 청호동은/ 아침이 오
지 않는 한/ 캄캄한 바람, 어두운 대낮이다.

〈청호동 바람 (채재순)〉

속초의 구성원이 곧 ‘바람’ 이지만, 속초는 바람 때문에 ‘대낮에도 어둡다.’ 사람들은 바람과 안개의 근원을 자연현상에서 찾으려 했으나, 이 땅의 시인들은 그것을 ‘실향민들’로부터 찾아냈던 것이다.

다. 실향의 상징 - 갯배, 수복기념탑, 공원묘지

속초가 실향의 현장이라면, 마땅히 그 상징이 있어야 한다. 순수 실향민 집단촌인 청호동으로 통하는 갯배와, 전쟁 후 수복을 기념해 세운 수복기념탑이 그 상징물인 셈이다.

또한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향의 한限을 안은 채 하나둘 망향동산에 묻히게 되는데, 그곳 또한 분단의 한 표징表徵이 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갯배’는 청호동과 중앙동을 잇는 나룻배이다. 60~70년대 청호동에는 6~7천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조양동 대포동 등 인근 지역 주민도 이 갯배를 이용했으므로, 하루 승선 인원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수산물 등 여러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손수레나 자전거도 이 배로 건너다녔다.

이 배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다. 그 동력원動力源도 ‘승선한 이용객들의 인력(人力)’

이다. 이 특이한 형태의 나룻배는 그대로 실항민들의 삶을 상징한다. 실항민들은 배 위에서 밧줄을 당기며 마치 시지프스처럼 수없이 배 위를 오갔지만, 태양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휴전된 지 사십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시인 이상국은 문득 이 배의 행선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저녁 삐걱거리며/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 갈매기들은 슬픔없이도 끼룩거리며 울고/ 아이들이 바다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는 동안/ 세계의 시궁창 같은 청초호에 아랫도리를 적시며/ 우리는 우리들 피난의 나라를 끌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우리들 살 속을 헤맨 것이다.

〈갯배1 (이상국)〉

이상국은 이 갯배가, 수십 년간 청호동과 중앙동 나루 사이만을 오간 건 아닐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아이들이 바다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는 동안’, 갯배만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 인류역사는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곳 청초호에서 그 비극의 양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니 이곳은 ‘세계의 시궁창’이며, 갯배는 그 위에서 ‘피난의 나라’를 실어 나른 것이다. 갯배가 오간 곳은 ‘이북과 이남’ 사이였고, 실항민들이 헤맨 곳은 ‘우리들 살 속’이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청호동 갯배는 청초호 위에 머물러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갯배는 돛대도 삿대도 키도 동력도 없다. 갯배가 떠나려면 그를 ‘묶고’ 있는 ‘청호동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청호동이 너무 무겁다.

우리는 밧줄 북쪽으로 돌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와이어 로프에 복장 켜인 채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가로막은 철조망 너머 동해에서/ 청진 원산 물이 가자고/ 신포 단천물이 들어가자고/ 날래 따라 나서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바람 물 때 손바닥 보듯 하던 아바이들 모래벌에 다 묻고/ 이따위 죽은 배로는 갈 수 없어/ 와이어로프에 복장 켜어 떠도는 함경도일 뿐./ 우리는 강원도가 아니야/ 우리는 속초가 아니야.

〈청호동 갯배 (이상국)〉

확실히 갯배는 청호동 사람들에게 있어 ‘관념의 공간’ 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이

진행되는 ‘현실의 공간’이었다. 일터로 가기 위해, 학교로 가기 위해, 시장으로 가기 위해 청호동 사람들은 이 갯배를 탔다. 갯배는 청호동 사람들에게 있어, 일종의 대문大門이었으며, 마을광장이었다.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쪽 나루에서 갯배에 오르는 순간 현관을 나선다고 생각했고, 중앙동쪽 나루에 도착하는 순간 대문 밖을 나온 것이라고 여겼다. 또 그 배 위에서는 늘 개인적 면담과 사회적 여론조성이 진행되었으니, 갯배 위 공간은 청호동 사람들에게 정보공유의 장場이기도 하다. 두 척의 갯배가 서로 엇갈리며 대문과 현관 사이를 오갈 때, 들어오는 이쪽 배와 나가는 저쪽 배 사이에는 대문 안팎 상황을 전하는 정보가 오간다.

미시령 너머로 해 떨어지고/ 개 건너 호텔은 벌써 불야성이야./ 월급쟁이들 학생들 리어카
 품팔이 갔다 돌아오는 여자들로/ 청호동 들어오는 배는 몸이 무겁다./ -야야, 성진훗집 선자
 야! 느엄마가 꼬치까리 사오래는 걸/ 내레 깜빡 까먹었다. 니 건너올 때 사와라/ 들어가는 배
 를 탄 아주머니가 나가는 배에 대고 소리지른다./ -에이, 아줌만 챙피하게, 얼마천데요?/ 하고
 건너다보는 처녀 얼굴이 고춧가루 빛이다./ -야 이 간나 다 컸다고 꼴값한다. 무시기 챙피하
 니./ 꼬치까리 안 먹고 사니?/ 학생들이 먼저 킁킁거리자/ 오가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웃는
 다./ 오늘도 갯배는 청초호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갯배3 (이상국)〉

문학적 세련미는 없어도 이 시는 [생활공간으로서 갯배]가 청호동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 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청호동 그 임시 거처로 돌아가는 실향민들, 그들은 갯배를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다다를 수 없다. 이처럼 갯배는 한 시대의 상징물이자, 격렬한 생활공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속초의 또 다른 상징은 단연 ‘수복기념탑’이다. 수복기념탑은 속초가 수복收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4년 5월 10일 동명동 현위치에 건립된다. 이 탑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속초읍이 부담하였으나 피난민들의 회사금도 큰 몫을 차지했다. ‘적치敵治’였던 곳이었기에 속초는 수복직후 수년동안 군軍에서 직접 관리하는 군정軍政체제 하에 있었다. 그렇기에 이 탑의 설계와 도안은 모두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탑의 설계는 이형찬이,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 조각은 박철성이, 비문은 전형운 소령이 썼다. 그리고 탑에는 장호강 소령의 〈모자상부母子像賦〉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이 탑의 모자상은 잡지에 실린 영국의 어느 탑 사진을 보고 이를 흉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호강은 현역군인이

자 참전시인으로 그 무렵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 탑은 그 외형이 대단히 조악했으나, 전쟁기념탑 중 유일하게 ‘총칼이 새겨지지 않은 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탑은 1983년 4월 27일 새벽, 강풍에 의해 부서지게 된다. 그러자 시민들에 의해 이 탑을 복원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이 조성되어, 그 해 11월 17일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하였다. 수복기념탑복원위원회는, 청양군 칠갑산 아래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던 박칠성을 찾아내 그에게 모자상 조각을 다시 의뢰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이전 탑보다 더 웅장하고 세련되게 설계하였다.

이 탑에 새겨진 장호강의 시는, 수복기념탑의 건립 의의를 선명하게 설명한다.

첩첩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복讖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짓궂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 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들로 갈리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고 온 옛집이 잿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피땀 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 고운 복讖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카락 붙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 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 있기에, 모진 풍파, 육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 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길 더듬는 벼 다리는 비록 가 날프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가며 걸음걸음 내디디는 참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옆에 소중히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듯 아롱진 향수가 담뱃머리 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

〈모자상부 (장호강)〉

‘두고 온 옛집이 잿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는’ 것이 실향민들에게 주어진 운명적 과업이다. ‘통일의 새 날을 겨누어’, ‘모진 풍파 육된 세월에도 줄곧 앞으로 가야’ 한다. 수복기념탑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기원을 구체적인 형상形象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수복기념탑은 어디에 있는가. 시인 장승진은 금강산 옆, 곧 실향민들의 고향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금강산 말사末寺 화암사 수바위/ 신평벌 지나 영랑호 옆에 끼고/ 돌아들면 거기에 수복탑 있
다/ 두고 온 고향을 손잡고 달려가는/ 모자상母子像 주변에서 수십년 끼룩대는/ 철이 들대로
든 갈매기들 있다.

〈속초2 (장승진)〉

금강산 한 끝에 화암사 수바위, 그 옆에 신평벌, 다시 그 옆에 영랑호, 그리고 그 곁에 수복기념탑이 놓여 있다. 다시말해 금강산과 수복기념탑은 공간적으로 나란히 있다. 그 수복기념탑의 모자상母子像 주변엔, ‘철이 들대로 든 갈매기’ 들이 있다. 수복기념탑은 속초 동명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실향민들의 마음 속 고향 땅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곳은 실향민들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으로서 기능해 왔다. 실향민들은 수복기념탑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향 땅도 하루빨리 ‘수복’ 되기를 염원한다.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어린 아들 손잡고 북녘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의 모자상은 이 땅의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분단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활용되었다. 수복기념탑은 마치 종교적 표징처럼 고향을 상징하는 대물代物이고, 모자상은 귀향을 꿈꾸는 심리상태가 형상화된 것이다.

1./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섰다./ 동상에 부른 땅/ 쓰러졌던 이 자리로 돌아왔다.// 2./ 폐선의 복장을 통하여/ 바다가 허물어지는 시각/ 먼 바다로 나간 사내를 생각하거나/ 오징어 함지박과 과부는 생존일 뿐/ 잿빛 안개에 젖어 있던/ 그 해 겨울 성진 앞 부두와/ 퍼렇게 얼어가는 내 어린 것의 손등 위에/ 뜨거운 눈물을 쏟는 역사는/ 아픔이었음을/ 여자를 버리면서 알게 되었다.// 3./ 동목을 쏟는 빈 가슴/ 들플처럼 흔들리며/ 그렇게 오늘을 떠나는.

〈수복기념탑 (김춘만)〉

속초에는 실향민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원묘지가 30여 곳이나 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출신지역별로 향우회鄉友會를 구성하고, 향우회 소유의 묘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 묘지는 대부분이 속초시 장사동과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시인 김춘만은 이들의 묘지를 새삼 돌아보며 상념에 젖는다. 망향동산의 비석에는 각기 자기 출신지역이 명기銘記되어 있는데,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저들은 본디 거기에 묻혀야 할 사람들이다. 속초 한 귀퉁이 망향동산을 거닐다보면 이곳이 북한 땅인 지, 속초 땅인

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 함북 학성 사람들의 묘지가 왜 속초에 있는 걸까. 학성 땅을 일부 떼다 이곳에 붙여 놓은 것인가. 김춘만은 그렇다고 말한다. 이곳은 분명 속초이고, 저 묘지는 북한 땅에서 '떠내려 온 것' 이라고 주장한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천천히 막이 내리고 있었다.// 함경도 학성 학남 사람들의 공동 묘지가 / 강원도 속초 장사동으로 떠내려 왔다./ 그 언제런가/ 한 번 달힌 땅문은 까닭없이/ 열리지 않은 빗장 지른 세월/ 어쩌다 생면부지의 이곳에 밀려와/ 퍼렇게 열어버린 손등 위에/ 속절없이/ 평평 눈물같은 눈은 내리는데/ 왜 이리 안개만 가득한가/ 흐려진 시력을 문지르며/ 산허리 올라서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더기 무더기로/ 저마다 말꽃을 피우며/ 모닥불을 올리는데/ 그 위를 하얗게/ 재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장지葬地에서 (김춘만)〉

몹시 춥고 눈발마저 훑날리는 어느 겨울날, 이 망향동산에는 또 한 사람의 유택이 마련되고 있다.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곁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고향사람일진대 이곳은 고향과 진배없다.

살아서는 사는 일이 바빠/ 우리는 죽어서야 공원에 온다/ 이남 고성군 토성면 신평 가는 보독솔밭에/ 흥남시민공원이라고 큰바위 하나 세워놓고/ 피난살이 서럽던 몸 숨 끊어지고/ 혼백만 훨훨 날아 휴전선 넘어가면/ 우리는 공원 보독솔 밑에/ 함경도를 묻고 흙을 덮는다/ 넓은 흥남 다 어디 두고/ 월남하던 LST 위에서나/ 청호동 갯배머리 살 때처럼 땅이 좁아/ 죽어서도 다리 오그린 채/ 보독솔 밑에서 우리는 쉰다

〈흥남 시민공원 (이상국)〉

‘혼백은 휴전선을 넘어’ 가고 무거운 육신만이 이곳에 남아 있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다. 통일이 되면 고향 땅에 [영원한 유택]을 장만하여 거기에 묻힐 것이기 때문이다. 북으로 향하던 기차길이 지금 저처럼 끊겨 있으나 그것이 복원되는 날, 그들의 육신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무덤은 ‘무너진 기차길’ 옆에 모여 있다.

무너진 동해북부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기차는 다니지 않고/ 무너진 기차길 옆에/ 하나 둘 모여 앉았네// 길 터지면 갈 거라고/ 휴전선 가까이 살다가/ 평생 애태우며 살다가

/ 동해북부선/ 고향으로 가는 기차길 옆에/ 낮은 무덤이 모여 앉네.

〈동해북부선 (김춘만)〉

망향동산이 밀집해 있던 장사동은 한동안 '통일동'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일대에 고급 휴양시설들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망향동산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시인 장승진은 이 '성스러운 숲'의 '한 평 짜리 서민주택'들이 관광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른 곳으로 떠돌아야 하는 비극을 간과하지 않는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소나무 숲이 있었네/ 하얀 망향비로 고요하던 곳/ 함경도 사람들 칼바람으로 명태 배 갈라/ 어렵사리 장만한 한 평 짜리 서민주택들/ 그 숲은 그들의 마지막// 마지막이 될 수 없는 정박지 같은 곳/ 미시령 넘어 속초 가는 입구/ 나무들 사이로 뺏가루도 희끗희끗 보여/ 괜히 가슴 떨리던 곳/ 이제 준비한 콘도와 온천 레저 시설로/ 가슴 설레며 관광객들 찾아드는데/ 아우슈비치로 가는 유래인들처럼/ 발목에 페인트 표시 달고 서 있는 소나무들// 달빛 그윽한 밤이면 함경도 아바이들/ 하나 둘 걸어나와 항구쪽 바라보며/ 솔바람 소리로 시름 달래던 곳/ 떠나야 한디네/ 철거 명령에 망향비도 초리해진/ 속초시 통일동 합남 향우회/ 소나무 숲 속 실향민들 안식처/ 이제 어디에고 성스러운 숲은 없네.

〈성스러운 숲 (장승진)〉

갯배는 쉬지 않고 가지만 매양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수복기념탑의 모자(母子)는 떠나고 싶어하지만 아직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복년의 묘지들은 거침없이 이곳까지 떠 내려와 저기 속초 북쪽 한 마을에 모여 있다. 갯배와 수복기념탑과 망향동산이 숨처럼 가벼워져 저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진정한 '해방의 날'은 언제쯤이나 맞게 될까.

라. 실향의 형상화 - 명태, 오징어, 북청사자

'속초'라는 공간에 배치된 갯배와 수복기념탑 그리고 망향동산이 속초의 상징이라면, '실향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물은 무엇일까. 속초의 대표적 생산물인 명태와 오징어가 바로 그것일 거라고 시인들은 믿는다.

주지하다시피 명태와 오징어는 이곳 동해안이 주산지이다. 거진항과 아야진항 그리고 속초항에서 생산되는 명태가 한때 우리 나라 전체 소비량의 70%를 충당하던 적이 있고, 속초의 오징어는 시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개발되어 있다. 실로 수십 년간 이들 명태와 오징어는 실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명태낚시에 미끼를 끼우는 것에서부터, 잡아온 명태를 할복割腹하고 이를 건조하는 것은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한겨울 속초 시내 고지대와 미시령, 진부령 등의 덕장에 널려 있는 명태들, 그리고 여름날 철조망에 꿰어져 널려 있는 오징어는 이곳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었다. 명태잡이는 양미리나 정어리를 잘게 잘라 미끼로 쓰는데 이를 낚시바늘에 끼워 서로 엉기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에서부터, 명태를 할복하고 널려 말리는 전 과정이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파생시켜 실항민들의 생계를 도왔다.

오징어잡이 배들은 집어등集魚燈을 달고 한 밤 중 속초 앞바다 수평선 가에 머무른다.

이들 어선에서 발하는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난다. 그 불빛은 내일 새벽 풍성한 어판장을 예고한다.

이렇듯 명태와 오징어는 속초 거주 실항민들에게 있어 일종의 구원이자 일상의 굴레였다. 따라서 실항의 상태를 묘사함에 있어 이들 명태와 오징어가 빠질 수 없다. 시인들은, 할복된 채 말려지고 있는 명태와 오징어에서 실항의 모습을 찾아냈다.

우리가 낚시 바늘에 꿰여/ 혹은 그물코에 걸려/ 미역냄새 향기로운 바다를 떠났지만/ 바다는
어둔 밤 바람 속에도 출렁이고/ 가장 먼 별빛에도 반짝인다/ 그대가 은빛 낚시 바늘로/ 튼튼한
그물로 바다를 떼어놓고 싶어해도/ 우리들 그리움은/ 밤마다 가장 깊은 오오츠크해로 달리고/
상어 이빨 같은 흰 물결로 살아/ 동트는 수평선/ 뼈속 시린 햇살과 만나고 있는 것을.

〈명태1 (장승진)〉

시인 장승진은 ‘명태’라는 연작시를 발표하는데, 그 주요 심상은 ‘찬 물에 사는 명태가 그 고향 바다를 떠나 낚선 육지에서 내장을 까발린 채 말려지고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육지에서 ‘미이라’가 된 채 잠만 자고 있는 명태는 ‘실항의 다른 형태’이다.

잡드는 그대를 베갯머리 위에/ 잔 근심 그늘처럼 자라고 있을 때/ 어두운 심해 불빛도 없이/
떠돌다 래면한/ 저 시린 하늘/ 덕장 꼭대기에 매달려/ 나는 잔다/ 그래/ 이 세상 어느 언저리에
/ 그리움의 내장 빼어두고// 미이라가 되어 나는 잔다/

〈명태2 (장승진)〉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인 권정남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미시령 건너 고지대에서 한겨울 내내 말려지고 있는 황태를 보며 실향의 삶이 어떠한 지 유추한다.

겨울 용대리를 지나다가/ 황태 덕장을 만났네/ 세찬 바람에 몸이 휘어지듯/ 눈맞은 황태들이
고랑대에 걸려 있네// 고향을 버리고, 살붙이를 버리듯/ 깊은 바다를 버렸느니라/ 속 내장 다
버렸느니라/ 밤이면 끽끔 얼었다가/ 낮이면 서서히 녹으며/ 용대리 깊은 계곡에서/ 한 세월 허
공만 쳐다보고 있었느니라// 이제 속살 익은 바람이 되어/ 북쪽 하늘 별을 쳐다보다가/ 제 살
찢기우듯 속을음 삼키며/ 남과 북 철조망 언저리를/ 밤마다 맴돌고 있느니라// 하늘 아래 용대
리 마을/ 황태들은/ 흰 수건 쓰고 산비탈을 내려오던/ 피난민 모습으로/ 얼었다 녹았다 한 세
월/ 삐득삐득한 기다림으로 고랑대에/ 걸려 있느니라.

〈겨울용대리에서 (권정남)〉

황태들은 '고향도 버리고, 깊은 바다도 버렸으며, 속 내장도 버린 채 한 세월 허공만 쳐다보고' 있다. 이는 실향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권정남은 겨울 추위 속에서 말려지는 황태들에서 '흰 수건 쓰고 산비탈을 내려오던 피난민 모습'을 본다.

이는 오징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더욱이 오징어는 열 개의 다리가 한데 달라붙어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형제애 곧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열 개의 다리가 있는 일 열/ 허공에 매달려 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청
호동에 모여 나부끼고 있다// 소금기 물은 바람 불어와/ 온 몸 탈수가 일어나는 한낮이면/ 죄
어오는 그리움에/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버리고// “먹물 뱉어내던 그 바다 돌아갈 수 없을까”//
목이 아프도록/ 청호동 하늘의 별을 세며/ 오징어들은 밤이슬 맞고 있다// 북쪽 고향바다 그리
워/ 줄에 매달린 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팔에 팔을 걸치고/ 바다보다 속 깊
은 청호동 사람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징어 덕장이 있는 청호동 (권정남)〉

한편 북청지방의 민속놀이인 '북청사자놀이'²²⁾이 이곳 속초에서 북청 출신 실향민들에 의해 1958년 처음 재현된 이래, '북청사자' 역시 속초 실향민들의 정서적 요람이 된다.

사자는 본디 저 남쪽나라 초원에 사는 짐승으로, 어찌된 연유인지 멀리 우리 나라 북청 지방에서 정착했다. 이미 한 차례 '실향'을 한 셈인데, 또다시 1000년만에 북청을 떠나 속초로 떠밀려 왔으니, 실향의 원조 '북청사자'야말로 이중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북청사자가 오늘은/ 속초를 울고 있다// 정월 보름달 떠오르면/ 퉁소소리에 온 마실이 들썩
이고/ 밤 이숙토록 팽과리가 흥겨웠지// 잊혀지려는 눈빛 잘리내며/ 온 몸에 헌 그물 올 풀어/
옷 지어 입고/ 뒷발로는 땅 치며 울부짖어도/ 떨리고 기침이 날 뻔// 청초호 얼음장이 풀려도/
그냥 추운 속초/ 속초를 울고 있다// 난리통에 떠밀려 온 이 땅에서/ 유난히도 아린 겨울./ 겨
울나기./

〈북청사자 (채재순)〉

그래서 '실향의 겨울을 우는 북청사자'는, '위대한 봄'을 기다리며 '살아갈수록 잠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피난민이다// 철조망 거두고 능름히 걸어갈 수 있다고/ 그날이 곧 온다고/ 살아
갈수록 잠들지 못하는 북청사자들이/ 실향의 겨울을 울고 있다// 두고 온 북녘 하늘 부르며/
무너진 원산행 철교 위를/ 청초호 갈매기떼 끼룩이고/ 위대한 봄은 도착하지 못했다// 숲처럼
쓰러져 있는 이 도시의 성/ 길조차 함박눈이 지워버리려는데/ 피난민 실은 목선이/ 어슴 새벽
을 떠가고 있다.

〈속초 (채재순)〉

이렇듯 실향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이를 대변하는 명태와 오징어 그리고 북청사자는, 실향의 상태를 구체화시키는 요소들로서, 현실을 통해 관념으로 오르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마. 청호동 불빛 아래의 갈매기

22)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 정착하게 된 과정은 장정룡 박사의 저술 '속초의 민속' 등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실향민들이 ‘덕장에서 말려지고 있는 명태와 오징어’와 닮은꼴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단지 ‘실향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움을 안은 채 전쟁유민으로서 한평생을 살아온 실향민들에 직접 대응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청초호 주변을 떠도는 갈매기를 꼽는다.

노분/ 늙은 꿩이갈매기/ 썩은 고기 먹으며 피난살이 하는 노분./ 청호동 모래사장 위 6천원 짜리 집 사고/ 그 속에서 아들 들 딸 셋 낳았다./ 육이오 때 함포소리에 놀라/ 성진 떠난 갈매기 노분./ 중학교도 못 마치고 쇠들배 타던 말년도 이젠 환갑이 가깝고/ 밑에 아들도 할 수 없이 뱃놈 만들었지만/ -아아비, 평생 물질해도 바다 돈이 무시기 돈이니?/ 손가락 끝에 담배 끼고/ 손자 빨래 개는 노분./ 청초호 썩은 물에 날개 다 버리고 주저앉은/ 일흔 네 살 늙은 꿩이갈매기/ 노분 [* 작가 주 : 노분=청호동에 사는 할머니]

〈성진 갈매기 (이상국)〉

시인은 ‘청호동에 사는 할머니’를 ‘늙은 꿩이갈매기’로 직유直喩한다. 저들은 ‘청초호 썩은 물에 날개 다 버리고 주저앉아’ 있다. 그 이래 시인들은 갈매기를 통해 실향민들의 실체를 보곤 했다.

그 갈매기들이 머무는 이향異鄉, 이제 그곳에서의 삶을 살펴볼 때이다.

엇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그리운 바닷물인 줄 알았다/ 어찌면 그 늙이 마시고 간 바닷물도/ 십중팔구 씹쓰름한 소주맛이었을지 모른다// 휘청이는 바닷물에 떠서/ 잡기는 밧줄 건져 올리며/ 힘있게 빨아내는 소주 기운이/ 매양 이승의 아침으로 닥치고 있는 지 모르지만/ 어판장 죽은 생선들/ 감지 못한 눈동자 핏발 같은 햇살로/ 따스해져오는 속초의 지붕들과 창문들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엇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정말 내 고향 바닷물인 줄 알았다/ 부러진 나무젓가락 두드리는 소리도/ 젊은 날 네 녀석들 웃음소리 줄 알았다/ 이 땅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뜰 앞 꽃덤불도 해마다 줄기를 키우는데/ 슬개는 아침이면/ 동전만한 크기로 가물대는 땅/ 고개 돌려 따라가면/ 무더기로 내다버린 눈동자들뿐인 바다// 바람만 드나드는 눈자위에/ 하나 가득 다시 해장술을 따르면/ 아바이 아바이 고향이 어데요/ 아바이 아바이 리향은 어디메요/ 갈매기들 끼룩대는 소리에/ 새로 돌은 하루가 물살로 감긴다

〈청호동 아바이 (장승진)〉

실향민들을 가장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회환이다. “힘들더라도 같이 올 걸, 며칠간만 피해있으면 된다 하길래 훌훌 단신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이야” 하는 후회 속에서 지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어둠이 내리면 실향민들은, 술이 아닌 ‘내 고향 바닷물’을 마신다. 나무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노라면, 들리는 건 ‘젊은 날 네 녀석들 웃음소리’ 들이다. 이렇게 밤사이 고향에 가 있다가 ‘갈매기들 끼룩’ 거리는 새벽이면 다시 일상으로 쫓기 듯 돌아온다. 그리하여 지난 밤 다녀온 내 ‘고향’은 어디 갔고, 왜 다시 이곳 ‘타향’에 있어야 하느냐고 따진다. 그리고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 가득 다시 해장술’을 마신다. 이번에 마시는 건 진짜 ‘술’이다.

이산은/ 평생을 살아도/ 사는 것같이 살지 못하는 것// 일곱 살 짜리/ 북에 떨구고 나온 장모님/ 평생 눈가를 짓무르게 한 아들은/ 자라지도 않는다.// 함경북도 함성군 원적지를 비문에 새기고/ 장인마저 세상 뜨신 후/ 그 무거운 이산의 죄를/ 혼자 감당하신다.

〈이산 (김춘만)〉

북에 두고 온 아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곱 살’이다. 그 아이에게 지은 죄를 어찌 살아서 다 갚을 수 있을까. ‘장모’ 또한 이데올로기로 인한 피해자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있어 장모는 명백한 죄인이다. 늙고 병든 장모에겐, 가혹한 ‘이산離散의 죄’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 이미 김춘만의 ‘장인’은 앞의 시詩〈장지葬地에서〉어느 추운 겨울날 ‘눈물 같은 눈’, ‘재 같은 눈’에 덮혀 버렸다. 이제 장모 혼자 남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울기’만 하니 ‘바라보는 자식들만 애가 탄다.’ 장모는 이산의 형벌로 평생 ‘고향만 그리며’ 그렇게 살았다.

산, 바다, 호수가 있고/ 싱싱한 횡감 많다고/ 모두가 속초를 살기 좋다 하여도/ 끝내 이곳에 정 붙이지 못하고/ 장모님은 그저 고향만 그리십니다./ 한도 서리다 주저앉아/ 웬만하면 잇을 날도 있겠는데/ 고모부 가시고 장인어른도 가시고/ 모두가 떠나신 이 땅을 거저는 못 떠나시겠다고/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읊니다./ 평생을 보이지 않던 울음/ 참고 사시던 울음 터뜨리니/ 참으로 큰 일입니다./ 장모님 달려줄 세상은 오지 않고/ 바라보는 자식들만 애가 탑니다./ 바다 없어도 산이 없어도 좋습니다/ 장모님 살고 싶은 곳에서/ 진랑 갈던 나날들 하루만 말려서/ 가뻍게 터시고/ 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듯이/ 장모님은 살고 싶은 사람과/ 살고 싶어합니다.

〈장모님 (김춘만)〉

장모만 그런 것이 아니다. 평안도 출신의 윤씨 영감도 그러하다. ‘신고 가려던 흰 고무신이 시렁 위에 저렇게 삭고 있는데’ 속절없이 세월만 흐른다. ‘흙먼지 풀풀 이는 신작로 따라 걸어서 가고 싶고, 달려가던 바람냄새 따라 날아서 가고 싶는데’ 고향 가는 길은 아직 막혀 있다. 그래서 윤씨 영감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가슴’을 부여안고 한평생을 살아왔다.

가고 싶어/ 추우면 추운 대로 군불 지피고/ 감자 몇 톨 잿속에 묻고/ 화로가에 모여 서캐 털
어넣던 세월 저 편/ 피어오르던 살 냄새/ 흙먼지 풀풀 이는 신작로 따라/ 걸어서 가고 싶어/ 문
퉁지 떠는 소리에/ 내다보던 쪽유리 하얀 성에 사이로/ 달려가던 바람냄새 따라/ 날아서 가고
싶어// 소주 반 병에 송장처럼 쓰러져 잠드는/ 속초 청호동 윤씨 할아버지/ 십오년 전 아버지
망향동산 산자락에 파묻고/ 내 대에는 갈 수 있다/ 목소리도 짙짙 사나웠는데/ 바람 빠진 풍선
으로 쪼그라든 가슴/ 더듬이도 상해버린 풀여치처럼/ 찌르르찌르르 속절없는 여름 하나 또 떠
나고/ 가야한다/ 신고 가려던 흰 고무신/ 시렁 위에 저렇게 삭고 있는데/ 찬 서리 내리기 전/
습길 끊어지기 전에/ 툭툭배처럼 희미하게 정박 중인/ 아 빛 바랜 산천.

〈피안도 (장승진)〉

어디 그들뿐이라. 청호동에 가면 ‘광녀’와 ‘청상과부’들의 통곡소리가 ‘그물’에 다 걸릴 정도다. ‘청호동 그물’은 참으로 특이해서 ‘깜깜한 대낮’도 걸리고 ‘선달 하현달’도 걸린다. 이 마을 ‘명태’가 ‘고향’을 몰고 오면 ‘비릿한 바람’이 이를 ‘저녁 노을’로 걸어 놓는다. ‘청호동은 등 따신 아랫목이 될 수 없다’며 ‘갈매기떼’들이 청초호를 맴돌며 ‘끼룩’ 거린다.

햇발이 종종걸음으로/ 달려오는 날에도/ 캄캄한 대낮이 걸려드는 청호동 그물// 핏발선 광녀
의 목청이/ 와-와 울며 걸려도/ 소금에 절여진 모래땅이/ 등 따신 아랫목이 될 수 없다며/ 비
릿한 바람으로 물러와 안겨도/ 어제 놓아준 명태가/ 청상과부로 늙고 있는 고향을 몰고 와/
저녁 노을로 걸리고// 청초호 갈매기떼/ 속초 하늘을 끼룩이는데/ 선달 하현달을 건져 올리는데/
청호동 그물.

〈청호동 그물 (채재순)〉

하지만 망향의 설움과 이산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려 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오징

어 내장처럼 새까맣게 멍든 가슴'은 단지 '청초호 썩은 물'만이 알 뿐이다. 실향민들은 그 슬픔을 '주먹으로 틀어막는' 수밖에 없다.

저렇게 푸른 동해도/ 청초호에 들어오면 썩을 수밖에 없다/ 흐르는 물 길 막히면/ 우리들 그 리움 또한/ 이까 복장처럼 새까맣게 멍들 수밖에 없다/ 갈매기들 흰 배 뒤집으며 끼룩거리는 여름/ 낯선 관광객들은 갯배를 타고 사진을 찍는다/ 우리들 분단의 고통이/ 피서지의 추억이 되고/ 떠도는 삶이 구경거리가 되는 동안/ 씹어가는 청초호에 몸을 담그고/ 우리는 주먹으로 슬픔을 틀어막는다.

〈갯배2 (이상국)〉

실향민들의 '고통'과 '떠도는 삶'은 단지 관광객들에게 있어 '구경거리'와 '추억거리'에 불과하다. 이 시대 그들의 아픔은 더 이상 공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갈매기들이 흰 배 뒤집으며 끼룩거리는' 건 '먹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걸우리는 안다. 만약 당신이 '관광객'이라면 좀더 가까이 다가가 청초호의 갈매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새는 이곳에서 먹이를 찾지 않는다/ 두 눈과 두 발을 모두 걷고/ 청초호 어디쯤 잠기어 가는 신촌이나 함흥을/ 청호동 가는 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호동 일기3 (김영준)〉

바. 청호동에 나무를 심는 뜻은

실향민들이 이곳에 정착한 지 50년. 이제 그 '아들의 아들'들이 성인이 되고 있다. 흔히 유년시절에 부모와 함께 월남한 이들을 '실향 1.5세대'라 부르고, 휴전이후 이곳에서 태어난 5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을 '실향 2세대'로 불러왔다. 세월이 흘러 '실향 1.5세대'와 '2세대'의 '자녀'들도 이제 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성장했다. 이들을 '실향 3세대'로 불러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저항이 있다. 그들 세대가 '실향 세대'로 분류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저들은 자신들이 '속초 본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지난 날 실향민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한 정부에 편

입하기 위해 일가一家를 창설해 호적신고를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때 이미 ‘속초 1세대’로 등록된 상태였다. 따라서 기실은 실향 2세대와 3세대들도, 각기 속초 2세대와 3세대로 불러야 옳을 일이다. 실제로 그들의 호적엔 모두 속초가 ‘본적지’로 되어 있다. ‘실향 1세대’들의 본래 고향은 단지 ‘원적지’일 뿐이다.

‘실향 1세대’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고향을 버리지 못했다. 이곳은 어디까지나 임시 거처였고, 따라서 일체 정을 두지 않으려 애썼다. 이곳에 정착하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고향을 ‘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단천에서/ 뱃길로 사흘 객지 속초에 와/ 나무를 심는 일은 단천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청호동 모랫바닥에 엮드렸다가/ 한두 달이면 떠나야 할 객지./ 청호동에 나무를 심고 뿌리를 키운다는 건/ 단천나무를 욕하는 일이다/ 철공소집 변돈도 받아야 하고/ 삐뜰네 콩명석 두 닢도 돌려줘야 하는/ 단천이 보이지 않는다./ 뱃길 사흘 머나먼 단천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하는 청호동 사람들의 단천은/ 단천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겐/ 아프리카나 마차가지임을/ 청호동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지만/ 아직 청호동 모랫바닥에 나무를 심는 일은/ 뱃길 사흘 단천을 아주 버리는 일이다.

〈청호동에 나무를 심는 일은 (이상국)〉

고향엔 추억도 남아 있고 부채負債도 그대로 있는데, 어찌 그곳을 버리고 이곳 객지에도 ‘나무’를 심겠는가. 이곳에 새 집을 짓거나 ‘속초 사람’ 행세를 하는 건 저 가까운 내 고향 ‘뱃길 사흘 단천’을 영원히 ‘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실향 1세대’들은 이곳에 ‘나무’를 심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었다. 바람 드세고 안개 심한 이곳에선 도저히 ‘꽃’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물은 모여도 이곳에선/ 모래를 끌지 못한다// 새들은 새섬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고/ 주둥이 가득 거품만 물고 있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슬잔을 달래고 있을 때/ 고인 물처럼 점점 어두워가는 파도가/ 오늘도 다만 침묵하고 있다// 아픔이라고 하자/ 허연 생채기같은/ 우리들 쭈켜진 길이라 하자// 아침과 아침의 말을 고이 보내고 난 다음/ 청호동 네 굵은 어깨 너머/ 기침 같은 소주만 보이고// 물은 모여도 이곳에선/ 꽃이 되지 않는다/ 처박고 앓을 나무가 되지 않는다

〈청호동 일기1 (김영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세대들은 이미 이곳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이 청호동에 ‘오줌을 깔기며’ 무력무력 자라, 안개와 바람 속에서 ‘수액’을 나누며 ‘가지’를 치고 있는 것이다.

가지를 치고 있어요. 파고들어 모래뿐인 땅 위에 피는 소금꽃 나무들은 흔들리며 소금을 뽑어내요. 이 세상 한복판 낮은 땅에서 날아온 가지들이 버린 안개와 모래 바람 속에서 그렇게 쓰디쓴 수액을 나누는 일은 신기해요. 보아요. 발바닥 써늘한 소금밭에 지난날을 물어 두고 흰 뼈의 통통선은 어디로 가는 지 안개가 끌고 다니는 적막 속에서 맨 발의 아이들이 뛰어 올라요. 그물을 치고, 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익숙한 장난질 속에는 펄떡거리며 아비가 놓친 고기떼가 걸려들고 와와 작은 섬을 채우는 환호 소리에 나무가 흔들려요. 흔들리며 소금을 뽑어내요.

〈청호동 나무 (김춘만)〉

청호동에도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한다. ‘엉경퀴나 바랭이 종자들은 흠냄새만 맡으면 아무데서나 뿌리를 내리’지만, 실향민들의 씨앗은 그렇게 쉽게 정착하지 못해 오랫동안 청호동은 황량한 모랫벌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실향 세대들은 [속초]를 본(本)으로 하는 성씨를 창립해 자신들의 뿌리가 이미 청호동에 깊이 박혀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니, 곧 청호동은 울창한 숲으로 바뀔 것이다.

흠냄새만 맡으면 뿌리를 내리는/ 엉경퀴나 바랭이 종자들이야/ 바람이 부는 쪽으로 풀풀 머리를 풀며 나가지만/ 누구라? 束草 金氏/ 아들딸 오롯이 피워놓고// 아이들은 아이들과 어울려 자라는 동안/ 이제는 짜그리진 束草 金氏/ 바람에 훌훌 날아와 박힌 솔씨리아/ 뿌리 내리고 살지/ 푸르게 버티지// 산다는 건 가벼워지는 것/ 사망 몇 자 벌린 가지/ 거두면 짐 될 것 없다고/ 가볍게만 살아라/ 소금쟁이처럼 가벼워지면/ 물 위라도 걸겠다.

〈束草 金氏 (김춘만)〉

마음을 비우니 몸도 가벼워지고, 그러니 솔씨처럼 훌훌 날아 제 2의 고향인 이곳 속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된다. 이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오랜 실향 생활을 마치고 어엿한 속초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사. 분단 현실, 그 참담한 체험

이 시대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곤혹스러움은, 과연 북한 사람들을 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같은 민족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실향민들에게 있어 분명 저들은 형제자매임에 분명하나, 이 나라에서는 저들을 '적敵'이라 불렀다. 서로가 서로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며 살육하고 규탄한다.

우리 작은아버지/ 불알이 새빨개서부터 논바닥을 기었는데/ 왜정 때 큰 모심이 점심 합지 지고 가다/ 개울 바닥에 얽은 죄로 넓다 만주로 뛰었다가/ 해방되고 돌아와 양양장 우차꾼 되어서는/ 경인년 남조선 해방하러 가는 인민군 38선까지 날리주고/ 찌까다비도 얻어 신고/ 복진하는 국방군따라 북조선 드나들며 미제 담요도 얻어 덮다가/ 죽고 죽이는 북새통에/ 인민군에게 밟히고 국방군에게 터져서/ 한쪽 귀 떨어지고 골병든 채/ 국군에게 수복된 땅에 씨를 떨구고/ 육십 몇 년도 가을비 노고지리처럼 지상을 떠났는데/ 지금쯤 통천 할머니 집 하늘 마당에서/ 없어진 한쪽 귀 머릿수건으로 가리고/ 시벨건 우차소를 기르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수복지구에서 - 우차꾼 작은 아버지 (이상국)〉

우매한 민중에 불과하던 우리 시대의 '작은아버지'는 북조선정부에도 협조하고 남한정부도 도왔건만 '인민군에게 밟히고 국방군에게 터져서', '노고지리처럼 지상을 떠났다.'

대포에 사는 '내 친구 오강환' 네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큰아들은 인민군 장교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조업 중 납북되었다 돌아와서는 엉뚱한 고초를 겪다 스물 아홉 나이에 죽는 바람에 그 집안은 '절손'이 되었다.

내 친구 오강환은 동해 어로 한계선 근처에서 명태 잡다 납북되어 귀환된 후 무슨 귀신이 씌웠는지 술만 퍼 마시다 간이 부어 스물 아홉에 찍었는데 그래서 대포동 오씨 일가는 절손이 되었다./ 그의 드장날 밤 바닷바람에 꼬질때 휘청거리는 차일 밑에서 화로를 끼고 앉은 나는 한 툄튼한 어부가 바짓가랑이 부여잡는 홀어머니를 버리며 술과 패배로부터 그렇게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이 마당에 그의 형 오국환은 어디 있는가./ 전쟁 나던 해 유월, 말 타고 바람처럼 들렀다가 38선으로 몰려간 인민군 장교 그의 형 오국환은 어느 족보에 있는가./ 그 길로 남쪽 어느 새강풀이 되었는가, 살아 북쪽 돌아가 우리의 적일 오씨의 씨를 계속 낳고 있는가./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탄광에서 징용 살다 물간 생선되어 돌아와 쓰러진 선친 오상근과 그의 나라 다른 두 아들의 멸실을 위해 어느 큰 무당이 하늘땅 뒤섞이는 곳 한 판 벌일 것이냐./ 우리가

나라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다 해도 그 형이 말 타고 유월 밤, 새 풀을 밟으며 오거나 그 아우가 바다의 덮을 피해 배를 타고 속초 바다에 다시 올 리 없다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계속하여 완전하게 씨를 묻는 해방의 땅은 어디 있는가./ 적이 적을 몹시 그리워하는 반도, 바닷 바람에 큰 꼬질대 휘청거리는 하늘 밑에서 나라의 어머니가 슬피 우는데 나는 피 가득한 장화를 끌며 한 툄툄한 어부가 칩묵과 도피로부터 그렇게 해방되는 것을 보았다.

〈수복지구에서 - 오씨일가吳氏一家의 절손 (이상국)〉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만이 서러운 것이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수복지구 본토민들은 ‘빨갱이’ 라는 오명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야 했다. 오강환이네 집도 ‘빨갱이’ 다. 형 오강환은 전쟁 나던 해 인민군 장교로 징집되어 남쪽으로 몰려간 이래 여지껏 소식이 없다.

만약 살아서 북쪽으로 돌아갔다면 지금쯤 ‘우리의 적을 계속 낳고’ 있을 것이다. 내 핏줄을 ‘적’ 이라 불러야 하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적을 몹시 그리워’ 한다.

더 이상 적을 낳지 않아도 되는, 그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해방의 땅’ 을 위하여 아주 큰 곳 한 판 벌이고 싶은데, 아직은 철조망 저 건너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적’ 이 두려워 엄두를 못 낸다.

온다고/ 갈매기가 아니고/ 오징어 쪼치가 아니고/ 우리들의 무서운 적이 온다고/ 우리는 동해 캄캄한 철조망을 들렀다/ 찢기우는 꿈 때문에 몹서리치며 온다/ 갑갑하다고 들리게 온다/ 바다가 온다/ 로스캐나 양키가 아니고/ 지구에서 가장 무섭다는 적을/ 철조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우리가/ 우리를 보이게 가두고/ 온다고/ 저렇게 푸른 곳에서 되놈이나 왜놈보다 더 무서운/ 우리들의 적이 온다고

〈바다로부터 우리들의 적이 온다고 (이상국)〉

바다와 육지 사이 그 경계엔 온통 철조망이 쳐져 있다. 우리의 적이 쳐들어 올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동해바다 수평선 건너에서 오는 것은 ‘오징어나 고등어가 아니고’, ‘되놈이나 왜놈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적’ 이다. 그 적은 바로 내 민족이고, 내 형제의 다른 호칭이다.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막기 위해 ‘철조망’ 과 ‘방위병’ 이 그곳에 주야로 서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간혀 있게 되었다. 혹은 동해바다를 가두어 둔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이 어느 날 저녁 아직 처녀처럼 빛나는 동해 바다를 지나다가/ 푸르고 투명한 물에 손이라도 한 번 담가보고 싶어 다가서면/ 녹슨 철조망이 당신과 바다 사이를 완강하게 가로막아 설 것이다/ 거기에다 방위병이 당신의 아래 위를 수상쩍게 훑어보기라도 하면/ 당신은 별수없이 동해를 포기하며 묘한 공포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철조망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안에서도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당신은 얼핏 거대한 수용소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철조망이 버티고 있는 한 철조망 밖으로/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도 당신이 불순분자가 아니라고/ 아무도 쉽게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다른 조국으로부터의 잠입이나 탈출을 꿈꾸지 말라는/ 경고이며 생명을 추낼 수 있는 고압선의 상징인 것이다/ 철조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까짓 동해를 버리고 간다 해도/ 철조망은 당신의 마음을 찢으며 한사코 따라올 것이다

〈철조망 (이상국)〉

분단상황과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실향민들과 시인들은 이 분단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적대관계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 바다가 되고’, 그 ‘한숨이 모여 이렇게 바람’이 되었는데, 어찌 그곳을 적지敵地라 부르고, 저들을 적이라 말하는가.

이런 멍청한/ “북한이란 나라는 어디쯤에 있나요?”/ “거기 사람들 영어 쓰나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금강산 관광은 시작된다고/ 그것만도 어디냐고 부푼 가슴 위로/ 잠수정이 들어오고/ 총을 멘 군인들의 시체가 떠올랐다// “그 사람들 같은 민족 맞아?”/ “끓어 죽는다는 말 맞아?”// 고향 가고 싶어서 흘린 눈물이/ 이젠 잠잠한 저 바닷물 되었는데/ 한숨이 무너져 바람이 되고/ 그 바람 밤마다 파도와 울었는데/ 미련한 사람아. 오십 년이구나/ 내 동무들 목이 벤 채 하나 둘 죽어간다// 이념도 모르고 정치도 모른다만/ 부모형제 오직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데/ 미련한 사람아/ 억장이 무너진다// 고향을 기억하는 우리가 다 죽고/ 경제만 따지는 아이들이 자라난 뒤/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코리아인들 한 민족 같은 말 쓴다죠?/ 다른 나라 때문에 갈라진 피해자라던데/ 왜 아직 가족끼리 연락마저 못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참 바보다

〈우린 참 바보다 (장승진)〉

‘고향을 기억하는 우리 세대’가 다 죽고, ‘경제만 따지는 아이들 세대’가 되면,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시인들은 질문한다. 남북의 아이들은 이미 분단된 나라에서 이질적인 상태로 성장해 ‘민족적 동질 의식’을 상실해 버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고성군 현내면 민통선 한참 지나/ 해금강이 마주 보이는 통일전망대에서/ 북녘땅을 처음 본 딸 아이가 물었습니다/ 북한땅이 왜 빨강지 않아요?/ 갈대꽃 지천으로 핀 군사분계선 너머 푸른 파도 흰 백사장과/ 말무리반도 뒤덮은 기름진 소나무와 가을 하늘뿐인데/ 빨갱이들 산다는 저 땅이/ 빨갈 거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이 무섭지요/ 그쪽 낙타봉 쪽에서 바라보면 손바닥처럼 흰할/ 명파 거진 대진 화진포로 이어지는 남녘땅 바라보며/ 북녘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왜 양갈보와 거지떼가 안 보이느냐고 묻지는 않지요/ 그러면 북의 아버지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그러면 북의 아버지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이상국)〉

아.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꿈꾼다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일을 간절히 바라던 [실향1세대]들의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들이 다 떠나 버리면, 정말이지 통일이 된들 아무 소용없을 것 같다.

몇 해 전인가 정월 초하루/ 설쇠러 가듯 박첨지 할아버지 이승을 뜬 뒤/ 다시는 귀향치 않는 데/ 말벗되어 함께 하던 박첨지네 할머니/ 이제는 기동을 못하신다// 단 하루도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고/ 고향에 두고 온 자식 생각하며/ 당신들은 혈육 한 점 안두었다/ 평생 한 일이란 기다린 일// 이제 통일이나 되면 뭐하나/ 박첨지 할아버지 생각뿐이라/ 두고 온 아들조차 꼬부라질 나이// 살아 본 것 같지도 않게 한 세상 살다가/ 가볍게 세상을 뜨는 거겠지만/ 배고플 때 밥을 먹고/ 기다리는 것도 기력이라네// 그곳보다 가까운 저승길 휘젓고/ 박첨지네 할머니 떠나면/ 정말 이제 통일이나 되면 뭐하나.

〈박첨지네 할머니 (김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의 염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산의 고통, 실향의 한을 옆에서 지켜본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당대에서 이런 불행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는데, 유독 내 혈육의 땅에만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잔혹한 형벌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향민 아내를 둔 시인 최명길도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처가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한다.

통일이 되어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은/ 우리 빙모님 사시던 성진집이지요./ 내가 그 집 바로 찾을는지 모르지만/ 나의 그 사람 손 꼭 잡고/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은 바로 그 집이지요.// 백두산 천지 장구봉에도 들러보고/ 사명당이 한평생 짚고 다니던 주장자가 되살아나 / 아직도 봄이면 잎을 무성히 달고 나온다는/ 묘향산 그 정자나무도 어루만져 보고/ 금강산 만물상 삼선봉에 올라 밤하늘 별밭에 누워도 보고// 하지만 통일이 되어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은/ 우리 빙모님 신혼 꿈 가득 실린/ 함경북도 성진집/ 가끔 동해 새파란 파도 물살에 밀려와/ 정어리 새끼들과 털게들이 마당에까지 와서 놀다 갔다는 바로 그 집이지요. 그곳에서 내가 무얼 할는지 모르지만/ 그 이쪽과 저쪽을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다가/ 우리 빙모님 모시치마 선 같은/ 그 동구 밖 모퉁이길을 만나보면 그 뿐// 그도 아니라면 집 떠나던 날/ 자꾸 떨어져 가던 그 미루나무를 찾아내/ 그 집 마당이나 한바퀴 빙 돌다 오면 되겠지/ 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야.

〈통일이 되어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최명길)〉

사실 이즈음 들어 통일시대로 조금씩 들어서고 있긴 하다. 1998년 속초항에서 물자를 싣고 신포항으로 가는 배가 출항한 적이 있는데, 김춘만은 그 ‘첫 배’에다 실향민들의 염원을 담아보냈다.

휴전 45년만에/ 속초에서 북한 땅으로 가는 첫 배/ 카타마란호/ 네 시간만에 가 닿을 땅은/ 북한 신포 양화항// 너는 못간다/ 고향가는 첫 배 라자고/ 버르고 버르던 실향민들 두고/ 너 혼자 등당거리며 혼자 가지 못한다// 고향 땅 가는/ 배나 보자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부글거리는 가슴들이 동명항에서 눈을 부릅뜬다/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울고 있지 않는 것 아니란 걸/ 서로는 안다// 영금정 돌아 장사동 앞바다 지날 때/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민 공동묘지/ 보이는가, 카타마란호/ 공현진, 거진, 대진/ 곳곳에서 기다리는 귀향객// 철썩철썩 그 바다 소리 습찬다/ 덩석덩석 잡는 손길 뜨겁다/ 저기 주름잡힌 얼굴은 누구더러 누구더러// 어리숙하게 누구 눈에 뜨일까/ 은근하게 스며들어서 내 한 줌 무게 얹는다/ 누구는// 속초에서 신포 가는 첫 배/ 사람들은 그렇게 손 흔들어 보냈다

[작가 註: 카타마란호는 신포 양수발전소 기술자와 물자를 싣고 속초에서 첫 출항 (98.2.26)]

〈첫 배, 카타마란호 (김춘만)〉

금강산 유람선이 오가는 지금, 그러나 그것으로 분단의 모든 한을 다 삭일 수는 없다고 김춘만은 지적한다. 쌓이고 쌓인 가슴 속 슬한 사연들을 백두산이나 금강산 유람 한두 번으로 모두 씻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백두산 꼭대기 올라서서/ 고향 땅 바라보고 왔다고/ 자랑삼아 말 못하겠네// 속초서 신포 가는 배/ 손이나 흔들었다고/ 그것도 차마 말하지 못하겠네// 금강산 구경이나 하자고/ 호화선 타고 그 땅에 가면/ 몇 날 며칠/ 산천 구경이나 하고 그날은 돌아오지 못하겠네// 우리 얘기가/ 백두산 꼭대기나 올라가 보았다고/ 빈 배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나 보고/ 금강산 유람만으로/ 어디 풀어질 얘기던가.

〈우리 얘기 (김춘만)〉

그러나 어느 순간 기어코 이 땅엔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팔도 대혈에 쇠뿔이 뿔히고, 양이洋夷들이 병장기를 거두어 강과 바다를 건넌 후, 솟구치는 양수와 음수가 강물처럼 흘러’, ‘임진 이북 이남 사내 계집들이 새로운 인종을 퍼뜨리는 시대’²³⁾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이 되면 아마, 수복기념탑의 모자母子도 ‘날래날래 걸어서’ 고향으로 갈 것이다.

지금은 굳은 채 탑 위에 묶여 있지만, 통일이 되는 그 순간 저들은 그간의 설움에 눈물을 펄펄 쏟으며 아주 가벼이 발걸음을 땄 것이다.

눈물이나 펄펄 쏟으며 가자/ 마흔해 동안/ 동명동 바닷바람에 예미는 머리가 다 세었다/ 한 눈 팔지 말고 날래 앞장 서거라/ 떠나는 마당에 무엇인들 마음에 걸리지 않으랴/ 손바닥만한 발뺨기 하나/ 장난감 같은 배 한 척 못 가지고/ 물질하며 좁게 살던 속초를 잊고/ 서러움과 분노도 파도 속에 던져 버리고/ 그저 눈물이나 펄펄 쏟으며 가자/ 모래기 흰고개 넘어 봉포 지나 거진 썸에서 하루 묵어도/ 슬피쯤이면 통천 달겠지비. 눈물 펄펄 쏟으며 날래가자

〈수복탑을 떠나며 (이상국)〉

23) 이상국 시 〈신감결新鑑訣〉 (시집 [내일로 가는 소])

숫제 통일의 시대에 벌써 다다른 이들도 있다. 이미 [통일한국] 시대에 살고 있는 시인 고희렬은 ‘원산의 매제’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업이 바빠서’, ‘백두산 못가겠다’고 잘라서 말한다.

원산에서 어물점을 차리고 있는 매제가/ 오는 가을엔 백두산 가자고/ 음년 경침말 새벽같이 전화를 했었는데/ 지난 말복 한밤중에 전화가 또 왔다// 전화를 새로 왔나 백두산은 가을이 좋다고/ 그 전에 나 자신이 참으로 그랬다/ 만사를 버리고 가겠다 했지만/ 지금은 사업이 바빠 못가겠다, 그렇게 잘라서 말했다./ 피서철에 돈벌이가 좋았는지/ 그래서 함경도 아바이를 닮아가는지 목소리가 좀 들떠 들렸는데/ 제대로 미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원 없는 세상이 되었다/ 세계 일주 해도 못가던 곳 아닌가/ 속으로 이듬해나 가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알아보라면서 그 사람/ 인간성을 생각해 보았다/ 또 평양에서 오늘 아침, 포목점을 하는 숙부도 백두산 가자고/ 서울 조카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해주를 가는 길에 역에서 건단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일이 빨리 끝나게 되면/ 서울을 들르겠다 하시는데/ 내가 거길 가느니 속초나 갔다 오겠다고/ 일본, 영국, 미국을 생각하며/ 난생 처음 코웃음을 쳤다/ 인제 언제 가면 못갈까/ 그러면서 두 양반이, 호랑이 담배 먹던 80년대를, 올챙이 적 운운하면서 들먹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섭섭키가 한정이 없을 것 같았다.

〈백두산 안 간다 (고형렬)〉

이상국도 ‘원산에 사는 박형’에게 발빠르게 사신私信을 보내고 있다. 더 쭉기 전에 ‘한번 모이자’는 것이다. 아직 ‘박형’한테서 회신이 오진 않았지만, 아마 11월 어느 날 ‘오후 두시’ 조금 넘으면 속초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북쪽에 겨울이 더 빠르다지요/ 설악에도 두어 차례 눈이 왔습니다/ 쉬 시간이 날 것 같지 않아 우선 글발 드립니다/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평양이나 서울 사람들에게 매달릴 게 아니라/ 우선 원산, 통천, 고성, 속초 사람들로만 동인지를 묶고 싶습니다/ 백두대간 동쪽 풍광도 장관이지만/ 바다 사람들 삶의 이야기 또한 얼마나 진합니다/ 통천 고성분들께서도 같은 편지 띄웠습니다/ 대체적인 합의가 되면 원고청탁부터 서둘러야겠지만/ 이름도 짓고 상견례도 겸해 한번 모여야지요/ 더 쭉기 전에 날 잡아 하루 내려오십시오/ 언젠가 부탁드렸던 백석 선생 시집 잊지 마시고/ 수삼 인삼주도 몇 병 가져오세요/ 안주로 양양 송이 좀 말려 놓은 게 있습니다/ 통천 고성분들께 출발 시간 알려주시고/ 동해북부선으로 오전 10시쯤 원산 떠나면/ 오후 2시면 속초역에 닿을 겁니다/ 아이들도 보고 싶습니다// 무진 10월 30일 속초에서

이런 시들은 통일시대를 가상하고 그곳에서의 ‘인간적 삶’을 묘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고통과 아픔이 민족 분단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우쳐 준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때, 다시 말해 역사와 국토가 단절로부터 벗어나 서로가 소통을 새로이 시작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이 나라 이 시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실향1세대들은 그것을 보상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대부분 숨을 거두었다. 이제 유일한 위안은, 이 땅의 시인들이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민족과 역사 앞에 증언하여 자손만대로 그 원혼을 달래 주는 것뿐이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철조망’ 안에 갇힌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며, 이로써 인간적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어울려 ‘화해를 위한 큰 곶한 판’ 벌일 그 날은 언제인가.

4. 소설 및 극작 문학을 통해 본 ‘실향의 삶’

가. 북녘에서 온 나그네들

소설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실향민들의 삶이 드러난다. 소설적 묘사는 아무래도 시조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은자의 「만선」, 문영남의 「분노의 왕국」 등에서 청호동 사람들과 어부들의 삶이 묘사되고, 강호삼의 「북녘나그네」에서 당시의 사회상과 사상적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소설가들이 포착한, ‘북녘에서 온 아바이들의 삶, 그 나그네로서의 행적’을 살펴본다.

「북녘나그네」는 강호삼이 문학동인지 [갈피]에 10여 년간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갈피 제4집(1972년)에 1회분이 수록된 것을 시작으로 제14집(1984년)에 이르기까지 총10회에 걸쳐 발표되었으나, 미완성인 상태로 연재가 종결되었다. 그 줄거리는 대략 아래와 같다.

[속초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병석은 겨울방학 동안 선원 체험을 위해 명태잡이 어선을 탔다가 뜻하지 않게 납북된다. 그는 그 후 휴전선 대남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선전하거나 북한 전역을 돌며 남한체제를 비방하는 연설원이 된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저항했으나, 북한에 잔류하던 가족들을 앞세워 유혹과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결국 변절하고 만 것이다. 속초에 남아 병석과의 약혼 준비를 하던 수애는 이에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중앙정보부 고급 간부인 수애 아버지의 부하직원으로, 평소 수애를 사모하던 조석규는 이를 계기로 수애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한다.

한편 병석의 친구이자 신문기자인 훈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주가 선창가 ‘어깨’의 재취再娶로 들어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훈은 속초로 출장을 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영주의 약혼자가 단순한 깡패가 아닌, 북한의 고정간첩임을 알게 된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알고도 그의 조직을 일망타진하고자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영주가 곧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 뻔함에도 자신 역시 손쓸 도리가 없다. 훈은 자신의 친구인 병석과 애인인 영주가 모두 북한정권의 앞잡이로 이용되는 기막힌 운명을 한탄하며, 그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분단의 희생자임을 깨닫는다.]

이 소설에서는 70년대 북한체제와 그 대남 활동상황이 일부 묘사되어 있다.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이 내부 체제 옹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또 남한에 파견된 간첩들이 어떻게 남한 체제를 흔들어놓고 있는 지를 대비하고, 여기에 애정의 삼각관계를 삽입해 소설적 흥미를 돋우고 있다. 작중 무대가 속초인데다 등장인물들이 속초사람이어서 작품 발표 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정보기관 사람들의 활동이 소개되고 있어 소설적 박진감도 있다.

강호삼은 이 소설을 통해, 전쟁의 한 결과로 형성된 속초와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라고, 이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의 난민’ 들임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은자의 단편소설 『만선滿船』은 「갈피」 제7집(1975년)에 발표되었다. 이은자는 이 소설을 통해 당대 실향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5톤짜리 작은 배를 운영하던 성철의 아버지는 해난사고로 배와 선원을 모두 잃게 된다. ‘살겠다고 피난 나왔다가 허무하게 죽어간’ 선원들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남은 재산

을 모두 처분해 선원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후부터는 고향을 그리며 술만 퍼마시다 절명한다. 그의 아들 성철은, 피난시절 아버지의 신세를 크게 진 바 있는 박노인 배의 선장이 되는데, 최근 조업실적이 좋지 못해 그로부터 책망을 당한다. 그는 북한 해역에서의 조업으로 만선을 이루는 꿈을 꾀다. 선주와 선원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성철은 월선조업에 대한 법적 문제를 두려워하다 잠을 깬다.]

이 소설에서는 당시 속초에서의 실항민 어민들의 삶과 사회적 상황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조업부진이나 해난사고로 인한 어민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 하역작업이나 할복작업 과정을 통한 어판장 풍경, 청호동 아이들의 성장과정, 월선 조업에 대한 불안, 실항민의 한(恨) 등등이 이 한 편에 고루 담겨 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직업으로서의 어부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고, 직업으로서의 바다는 험난하기 그지없다. 해상 조난사고는 이곳 사람들의 또 다른 일상이었다. 난리를 피해 온 이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직업'은 그러나 전쟁보다 더 위험했을 뿐, 결단코 그보다 덜하지 않았다. 이은자는 그래서 "실항은 곧 전쟁상태의 지속"이라고 인식했다.

문영남의 장편소설 『분노의 왕국』은 1991년에 발표되었다. 제1회 MBC 문학상 수상작으로, 후에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전쟁이나 실항민의 삶을 그린 '분단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작품의 무대가 청호동이어서, 60~70년대 속초 지역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일종의 위사(僞史)소설로, 순종 임금이 승하하기 직전 왕자를 생산했고 그가 다른 이들 몰래 성장해 아주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가상적 전제 아래 전개된다. 이 나라 순수 혈통 마지막 왕족인 이호李皐가 청호동에 흘러들어 잠시 뱃사람으로 살아가는 사이 그 가족들이 겪는 생활사가 이 작품 전반부의 주류를 이룬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호의 아들 이하연이다. 그는 청호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누나를 비롯한 일가(一家)의 고난을 지켜본다. 이하연은 뒤늦게 자신이 왕족임을 알게 되고, 나아가 일본의 간계에 의해 우리의 정신적 구심점인 '왕'의 혈족이 더럽혀지고 소멸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하연은 우여곡절 끝에 일본 천황의 암살을 시도하고 자신은 자결한다. 이 모든 과정이 김성현이라는 전직 중학교 역사교사의 관찰에 의해 묘사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왕정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정신적 지주를 잃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황폐한 삶이 근원한다고 주장한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신선한 소재가 돋보이는 수작이다.

이 작품의 무대가 속초인 관계로, 여러 곳에서 속초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관찰자인 김성현에 의해 ‘갯배’는 이렇게 소개된다.

속초의 부두는 좀 특별했다. 바닷물과 통하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그 입구가 좁은 통로처럼 되어 있었다. 배들은 그 통로로 들어와 부둣가에 정박했는데, 호수 건너편에도 마을이 있었다. 이쪽에서 그 편으로 건너가는 갯배라는 게 있었다. 일반적인 배 모양이 아니라 넓직한 직사각형의 두터운 판자같은 거였는데, 물 속에 드리워진 가래떡 굵기만한 쇠줄이 그 판자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쇠갈고리고 그 줄을 잡고 배와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면 배는 자연히 그 줄을 잡아 당긴만큼 진행되는 것이었다. 두 대가 서로 오갔는데, 이하연의 말에 의하면 속초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 갯배라는 거였다.

마침 갯배 한 대가 내가 서 있는 부두에 닿는 것이 보였다. 삼십 명쯤의 사람들이 왈차하게 내렸다. 호수 건너편 사람들이 빠르게 시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었고, 학생들의 통학시간 때면 칠팔십 명도 탄다고 했다. 나는 훌쩍 갯배에 올라섰다. 왜소한 체격의 노인이 그때와 다름없이 느린 걸음으로 배 가운데를 오가며 줄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자전거를 싣고 탄 젊은이가 배 기둥에 걸어둔 쇠갈고리를 내려 노인의 뒤를 따랐다. 배의 속력이 조금 빨라진 듯 했으나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며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와 같았기 때문에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난간에 서서 내려다보니 물빛이 탁한 검푸른 빛이었고 수많은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들이 등등 떠다니고 있었다. 뱃길이라 백미터인지 이백미터인지 길이가 가늠되지 않았다. 건너편 부두에 닿자 통행료를 받는 창구가 있어 백 원을 내고 그곳을 빠져 나왔다.

갯배를 타고 개를 건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작품에서는 갯배의 뱃길이 ‘백미터인지 이백미터인지 가늠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 갯배의 뱃길은 92미터이다. 이 뱃길은 곧 현 위치에서 다소 북쪽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 소설만큼 수복이후의 청호동 뱃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작품은 아직 없다. 청호동의 면적은 0.29km²로, 그 작은 곳에 한때 1,260가구 6,400명이나 모여 살았으니 주거환경이 조악했을 거라는 건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이하연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그때의 청호동 주거조건이 드러난다.

쌀가게를 겸한 점방을 하는 영자네 뒷방 하나를 얻어 살았는데, 아버지 빼고도 네 식구가 누우면 더도 덜도 남지 않는 아주 작은 방이었다. 방문을 열면 바로 앞에 어른 발로 훌쩍 떨어진

폭의 하수로나 길 위로 드러나 있었고, 그 옆이 바로 동네 골목길이었다. 집집마다 담이나 대문, 마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길에서 바로 문을 열면 방문이나 부엌문이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목길에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는 셈이었고, 밤에는 그 신발을 부엌에 들여놓고 자곤 했다. 어린애들이 장난치며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갈 때는 벗어던진 신발이 곧잘 골목길 한가운데다 혹은 남의 집 방문 앞에 떨어져 있기가 예사였다.

‘골목길에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 가야 했을 정도로 집들은 촘촘히 들어서 있었고, 그만큼 속초 정착 피난민들의 주거 공간은 대단히 협소했다. 당시 통계로 청호동에서는 그 좁은 방 하나에 평균 네 사람이 기거했다 하니 개인적 프라이버시란 애당초 보호될 수 없었다. 아침이면 공동화장실을 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또한 이 시대에만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명태’는 문학적으로 속초를 상징하고 실향을 형상화하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실향민들로서는 주요한 생존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 명태도 그냥 잡는 것은 아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선망旋網 작업이 아닌, 낚시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낚시바늘에 일일이 미끼를 끼워야 했다. 소설 『분노의 왕국』에서는 왕손인 이호의 딸 북남福男이 생계를 위해 ‘국민학교 졸업 후’ ‘낙수찍기’와 ‘꽂치털기’ 작업을 하는 광경이 그려져 있다.

집에는 역시 누나 혼자 낙수 -그곳 사람들은 낚시를 모두 낙수라고 발음했다-를 찍고 있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속초엔 명태잡이가 대성행이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낙수찍기와 낙수고르기로 겨울을 냈다. -중략- 낮이면 낙숫대에서 낙수를 빼내는 소리가 킬킬킬킬 골목을 울렸고, 밤이면 바다에서 명태를 잡고 거뒀던인 형클어진 낙수를 고르느라 밤늦도록 방문 밖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곤 했다.

누나는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세워 둔 낙수 함지 앞에 무릎 하나를 세우고 앉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중략-

탄력있는 대나무 가운뎃대를 쪼개 만든 낙수걸이(쪼빋대)에서 빼낸 물음표처럼 생긴 낙수 끝에 함지 상단에 손가락 굵기보다 작게 어슷썰기를 한 소금에 절인 양미리를 꿰어 낙수 함지 삼분의 일쯤 되는 하단에서부터 가지런히 놓는 일이 낙수 찍기였다.

누나는 거의 끝부분을 찍다가 잘못 건드렸는지 형클어진 부분을 조심조심 고르고 있었다. 누나의 낙수 찍는 모습은 언제나 진지했다. 까닭 잘못해 손으로 건들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 찍어 놓은 낙수가 형클어지면 다시 고르기가 더 힘들었다. 낙수 찍기도 고도의 기술을 요했다.

누나는 국민학교도 다니는 등 마는 등 어려서부터 일만 해 왔는데, 그때쯤엔 기술과 솜씨가 뛰어나 누나에게 일거리를 맡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누나의 낙수 짙는 소리, 즉 쪼빰대에서 낙수를 빼낼 때, 그 대나무에서 나는 명쾌한 소리는 정말 듣기 좋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찰칵찰칵 이어지는 그 소리는 밖에서 들어도 얼마나 낙수를 잘 짙는가 입증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었다. 초보자나 낙수 짙는 솜씨가 별로인 사람은 자연 그 소리의 간격이 일정치 않고 굵땀으며, 소리가 명쾌하지도 않았다.

이하연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낚시함지니, 낚시걸이니 하는 낚익은 용어들에서 친근감을 느낄 정도다. 당시 실향민 뱃군들과 그 가족들 중 이 광경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난 날 청호동 사람들에게 있어 '배 짜는 처녀' 이야기는 설화로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낙수 짙는 처녀' 이야기는 현실에서 목격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배 들어왔다, 배 들어왔다야!”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아스라한 잠결에 들려왔고 어떤 흔들림에 퍼뜩 눈을 떠보니 누나가 나를 업고 사람들에게 섞여 뛰고 있었다. 콩치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누나는 다른 여자들처럼 장화를 신지 않고 겨울내내 신던 낡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배에서 부러지는 그물 사이를 뛰어 다니기엔 고무신은 너무 역부족이었다. 나는 누나가 겨울만 되면 동상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정순이베랑 한 조가 되어 자리를 잡기가 바쁘게 누나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무더기무더기 앉은 여자들은 한번이라도 더 손을 놀려 콩치를 그물에서 따내려고 야단법석이었다.

그물에 목이 매달리거나 아가미가 걸린 콩치 꼬랑이를 잡아채서 그물에서 떼 놓는 일이었는데, 누나의 손은 속도가 일정하게 빠른 게 역시 놀라운 솜씨였다. 누나는 아무래도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처음엔 득달같이 달려들어 하나라도 일거릴 더 맡으려고 눈에 불을 켜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속도가 느려졌고 얘기 보따리들을 풀어놓으며 유행가를 함께 어울려 부르기도 했다. 정순이 누나의 이야기 보따리 근원은 바로 이런 곳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누나는 입 한번 뻥긋하는 일 없이 가끔 나를 보살피 줄 때만 그물에서 눈을 땄 뿐 일에 열중이었다.

떨치는 여럿이서 그물을 잡고 휘이휘이 하며 박자에 맞추어 터는 것에 비해 콩치는 각자 하면서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었다. 배들은 계속 들어왔고 그러는 사이에 날이 흰히 밝아왔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동해의 해 뜨는 광경을 찬란해 마지않으며 경이롭게 바라보고 자연의 신비가 어떨고 떠들어대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에게겐 아침의 떠오르는 해는 단지 해일 뿐이고 일의 시작을 알리거나 혹은 일의 마무리를 알리는 신호의 의미 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콩치 따는 일은 어느 정도 끝이 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물에서 떼어낸 콩치를 상자에 담은 사람, 찢어진 그물을 깨매는 사람들로 복잡한 중에 아침이 되면 조합에서 나온 사람들이 낙찰 부르는 소리로 부듯가는 절정을 이루었다.

속초항의 봄날 새벽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어마이’와 누이들이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소란한 어판장은 낮선 이곳에서 그들의 참담한 삶을 지켜준 근원이었다. 이렇듯 실항민과 그 가족들은 눈비가 아무리 퍼부어도, 추위가 아무리 혹독해도, 따사로운 봄별이 아무리 유혹해도 사시사철 주야 이 어판장을 떠나지 못했다.

청호동에서 또 하나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은 바로 ‘굿’이었다. 속초에서는 한때 300명에 달하는 무녀들이 있었을 정도로 무속이 성행했다. 뱃사람들에게 그것은 필수적인 의례 행위였다.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무하는 ‘수살굿’이나 동해 용왕에게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해안 별신굿’ 같은 대규모 굿도 자주 볼 수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소소하게 ‘배 고사’ 정도는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곤 했다. 문영남은 이 또한 놓치지 않는다.

목숨을 내놓고 바다에 나가는 뱃사람들에게 재수란 절대적인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초엔 유별나게 재수굿이 많았다. 집안에 배를 타는 남자가 있는 집은 일 년에 한두 번 반드시 굿을 했다. 더구나 배를 한 척이라도 가지고 있는 선주의 집에서는 특하면 굿이 열렸고, 속된 말로 방귀만 똥래도 굿판이 벌어졌다. 저녁이면 동네 어디선가 징소리가 울리고 무당의 굿풀이가 장단 고저를 달리해 어깨춤이 절로 나도록 골목을 울릴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면 서로들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 대왕호 뱀제(배임자)에서 굿 한단다아!’ 하며 저녁도 하다말고 쫓아가곤 했다. 나도 어머니 누나를 따라 나서곤 했는데, 굿판은 어린 나를 오래도록 묘한 흥분과 두려움 속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아슬아슬한 서커스 묘기 같은 무당의 작두 타기나 십 미터도 넘을 듯한 흰 무명천의 가운데를 바람처럼 가르며 뛰쳐나오는 시원함이나 귀신을 불러 대나무 끝의 방울을 울리게 만드는 회한한 구경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쏟아지고 손아귀에 땀이 쥐어지게 만들었다. 또 죽은 냇이라도 달래는 굿이라면 무당이 귀신을 불러 그 동안의 사무치는 고생을 서러운 가락에 실어 읊을 때면 굿을 벌인 주인은 물론,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혀를 차며 눈물을 찍어내는 게 보통이었다. 그만큼 배타는 사람들의 설움은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뼈에 사무친 한이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던 내 또래의 아이들의 눈길을 잡아당기는 것은 역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떡시루와 돼지 머리까지 올라앉은 떡 벌어진 굿상이었다.

설사 끼니를 굶는 한이 있어도 무당이 굿을 해야 액이 막아진다는 진단만 내리면 무슨 빛을

얻어서라도 기어이 굶을 열어야 다리를 뺏고 자는 게 부둣가 사람들의 속성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곳의 무당들은 웬만한 선주보다 사는 게 나은 편이었다. 인기있는 무당들은 재산을 꽤 축적하기도 했다는 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굶 구경의 하이라이트는 굶이 끝나고 나서 집집마다 돌려지는 떡과 부침개였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반드시 한 귀퉁이를 떼어 고시레를 한 뒤에야 먹을 수 있었지만 명절이나 구경해 보는 떡맛이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어디서 굶이 열리지 않나 은근히 기다려지곤 했다.

청호동 아이들에게 있어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다. 굶을 은근히 기다리던 추억은 자신이 청호동 출신임을 확인시키는 키워드이다. 하지만 실항 1세대들에게 있어 무국은 ‘원한의 해소’이기도 하고 ‘한恨의 승화’이기도 했다. 그들은 무국을 통해, 이 땅에서 누적된 원한怨恨의 때를 씻어내곤 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눈물겹도록 서러운 삶이었건만, 당시 실항민들로서는 그것을 미처 느낄 틈이 없었다. 오로지 전쟁통에 살아남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고, 무릇 힘들이지 않고 세상살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직 이 모든 고난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것이다. 확실히 그들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밖에 속초를 비롯한 영북지역을 소재로 삼고 있는 분단문학 작품이 몇 발견된다.

그 중 김원일의 「환멸을 찾아서」는 우리 문학사에서 분단문학의 진수로 꼽힐만큼 수작이다. 김원일은 「노을」, 「도요새에 관한 명상」 등 여러 편의 분단문학을 발표한 바 있는데, 「환멸을 찾아서」도 그의 이런 일련의 작업 소산 중 하나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파괴된 민족의식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애쓰고 있다.

[속초와 근접한 한 바닷가 마을의 중등학교 교사이자 시인인 오윤기는 월남한 오염감이 남한에서 얻은 아들이다. 오염감은 함남 흥원이 고향으로, 북에 두고 온 전처와 그 소생인 세 아들을 그리워하며 사는 실항민 어부이다. 조업 중 우연히 이북에서 떠내려온 공책을 건져내는데, 그것은 월북한 좌파 지식인 박중렬의 비망록이었다. 주음을 앞두고 삶의 감회를 적어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덕군 병곡면을 향해 띄워 보낸 것이다. 이북에서 새로 가정을 꾸렸지만 이남에 남겨놓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에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공책을 넘겨받은 오윤기는 막연한 사명감 때문에 박중렬의 고향을 찾는다. 그러나 오윤기가 엿본 그들 가족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월북한 공산주의자인 아버지로 인해 남한의 가족들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고, 그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

윤기는 그 상처의 치유가 쉽지 않음을 깨닫고 무력감을 느낀다. 어쩌면 북에 남아 있을 아버지 가족들 곧 내 형제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하니, 진정한 화해는 ‘민족으로서의 사랑’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한다.]

이 소설은 의거 월북한 좌익사상가를 등장시켜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두 가족의 삶을 연결 지었다는 점에서 착상의 독특함을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바다를 화해의 상징적인 장소로 설정해 바닷물에 띄워보낸 공책으로 서로의 지향공간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수집으로 북한 내부의 유형流刑생활을 완벽하게 그려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소설에서도 작중 무대인 80년대 초의 속초 상황이 일부 소개되긴 하지만, 그것이 곧 실향민들의 삶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호철의 중편 [남녘사람 북녘사람]²⁴⁾에도 전시戰時 중의 양양과 간성 일대가 소개된다. 원산 출신의 인민군 병사가 북진 중인 국군에게 포로가 되어 군단본부가 있는 곳으로 향해 도보로 끌려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 주인공이 양양과 간성을 통과하며 그 감회를 기술하는 형식이다. 일본에서 번역 출간되는 등 우리 문학사를 대표하는 분단문학 작품으로 손꼽힌다. 주인공이 양양군 서면 수리 마을까지 패퇴하다 양양읍내에서 포로로 잡히면서 소설이 시작된다. 그러나 전시의 양양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으므로 이 소설을 통해 속초인의 ‘실향의 삶’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이제하의 단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에는 설악산 앞바다와 설악동 여관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서울의 말단 공무원인 중년사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의 뼈를 뿌리기 위해 동해안을 찾았다가 우연히 실향민 재벌 회장의 죽음과 만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줄거리가 명료하지 않긴 하나 그 심오한 주제로 1985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그러나 역시 ‘실향의 속초’를 직접 그린 작품은 아니다.

나. 아버지의 날개옷

24) ‘남녘’과 ‘북녘’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한 것은 작가 나름대로의 의도라고 한다.

분단상황을 묘사한 작품들은 희곡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박조열의 『모가지가 긴 두 사람의 이야기』, 이제현의 『머나먼 터널』, 노경식의 『하늘만큼 먼 나라』 등 이북 출신 극작가들이 활발하게 작업한 결과이다. 그 중 속초 실향민을 소재로 한 이반의 작품들이 분단희곡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극작가 이반은 그 자신이 함남 흥원 출신의 실향민이다. 그는 열 두 살 때 1.4후퇴로 피난 나온 이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청호동에서 살았다. 실향 1.5세대인 셈이다. 따라서 그는 속초 정착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가장 근접하여 관찰하고 체험한 작가이다. 그런 그가 작품 활동 대부분을 속초 실향민들의 삶을 그리는데 바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의 대표작 『그날 그날에』와 『아버지 바다』는 서울연극제 등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았거니와 속초지역 연극인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공연되었다. 초창기 속초지역 연극 활동은 이반 작품의 공연으로 시발始發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 정서를 이보다 더 진지하게 묘사해 낸 작품은 앞으로도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날 그날에』는 1979년 12월 극단 [광장]에 의해 세실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작가 이반의 나이는 40세였으며 실향한 지 28년째 되는 때였다.

[1970년 고향을 잃은 지 20년째 되는 해, 청초호 끝자락 속초항 한 켠의 주막집이 이 극의 무대이다. 이 주막은 실향민 김노인 소유로, 북청택을 주모酒母로 두고 있다. 김노인은 배도 한 척 가지고 있는 선주船主인데, 이 배에는 친구 박노인을 선장船長으로 세워 놓고 있다. 이 배 선원들이 주막에 들어와 털어놓는 푸념에 의해, 선장 박노인이 걸핏하면 북쪽을 향해 기수를 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때문에 어군魚群을 놓쳐 어획漁獲이 부진할 뿐 아니라, 월북조업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박노인 역시 실향민으로서, '이름도 못 지어주고 나온' 어린 딸이 고향에 남아 있다. 그 때문에 늘 가슴아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조급한 마음이 유별나다. 김노인은 박노인을 선장직에서 해임하려 하나, 주모 북청택이 강하게 박노인을 옹호하는 바람에 실패한다. 사실 지난 날 박노인이 배를 지니고 있던 시절, 김노인은 그 배의 선장으로 고용되어 조업 중 '마랑도에 가서 깨어 먹고' 온 바 있다. 그러나 박노인은 김노인을 격려하며 일체 문책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김노인이 배를 장만했을 때, 군말 앓고 박노인을 선장으로 세운 것이었다. 그러니 김노인으로서 박노인을 해임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다.

한편 김노인의 아들 창길이 대학을 마치고 은행원으로 취직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 김노인은 아들이 배 사업을 이어받길 원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다. 창길은 현재의 판자집이 너무 누추하니 새 집을 짓자고 김노인에게 제안한다. 그러나 김노인은 이북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다 짓지며 응하지 않는다. 창길은 ‘통일이 요원’하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해 보지만 김노인은 끄떡도 않는다.

이때, 출항했던 배가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중 별안간 북한경비정이 접근하며 나포하려 하자 박노인은 선원들을 모두 바다에 밀어 넣고 자신만 끌려갔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김노인은 사실상 박노인이 의도적으로 월북한 것임을 직감한다. 박노인과 동병상련인 김노인은, 아들 창길을 다락으로 올려 보낸다. 창길은 그곳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한다. ‘고향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이루기 위해, 김노인이 그 시체를 횡가투로 둘러싸 남몰래 다락에 보관해 왔음을 이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이 작품에서 박노인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염원을 실천하려 하고, 김노인은 통일의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채 죽어서라도 그 아내를 고향 땅에 묻어 주려 하고 있다. 실향 1세대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지 이 이상 극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작가 이반은 이 작품 집필 후기에다 이렇게 썼다.

- 아버지의 한숨을 생각하며

어릴 때 놀던 친구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바다가 보고 싶으면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훌쩍 서울을 떠난다. 터덜터덜 버스를 타고 대전, 거진, 오희리로 해서 속초로 간다. 짧은 미역냄새와 비릿한 콩치냄새는 내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늑함을 안겨준다. 어판장에서 떠드는 소리, 고기를 헤아리는 어부들과 아낙네들의 고함소리, 난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면서도 한참동안 그들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려는 나를 발견한다. 어판장은, 바다는 살아있다. 바다는 모든 만물의 어머니처럼 생명을 잉태한다.

속초 어판장에서 나룻배를 타고 청호동으로 건너간다. 내 앞에는 60이 넘는 노인이 걸어나다. 나는 노인의 무거운 발걸음을 따라 비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노인은 대문이 없는 판자집으로 들어서면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으로 저녁 햇살을 받으면서 먼 저 북쪽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한 번 쉬고는 판자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노인의 등어리에서 빛나던 햇빛과 슬픈 한숨을 사랑한다. 그것은 현상의 보잘 것 없는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조각들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리얼하게 드러내는 실상實像이다.

내 아버지도 저 노인과 마찬가지로 북을 향하여 매일 한 번 이상은 한숨을 쉬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서울에서는, 그리고 도시에서는 북을 향하여 한숨을 쉬는 노인들을 볼 수 없다. 1년에 한두 번씩 임진강변에서 한숨을 쉴 뿐이다. 그러나 동해 바닷가에서 사는 많은 노인들은 매

일 하루 한 번 이상은 북을 바라보며 고향을 생각한다. 나는 적어도 그만큼 우리의 리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민족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가 해결해야 할 세계인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골치 아픈 것이니 잊고 살자고 한다. 이젠 우리 나라 사람들마저 한숨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 세대, 피난 나온 1세대들은 모두들 그렇게 한숨을 쉬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젠 정말 몇 분이 남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쩐가. 보다 넓은 아파트와 보다 많은 싸라리, 그리고 포니를 위해서 늙어가면서 언제 북쪽을 향하여 한숨 한 번 쉬어 보았던가?

-중략-

바다는 변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다. 변하고 또 변하는 세태 속에서 변하지 않는 바다. 그 바다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한숨을 생각하며 북쪽을 바라본다. 이 동해 바닷가에 하늬바람이 불면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뚝을 올리고 고향에 가기 좋은 바람인데...”

지금은 가을이다. 동해 바다에는 매일 하늬바람이 분다. 이 하늬바람을 맞으며 북을 향하여 한숨을 지을 노인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날, 그날에...>를 서둘러 쓰게 되었다.

이반은 “한숨 짓는 실향 1세대들이 없어져 가고 있기에 서둘러 이 작품을 썼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들의 한숨을 바로 코앞에서 줄곧 지켜보아 놓고도, 실향 1.5세대인 자신이 “한숨 한 번 쉬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책한다. 정말이지 이 작품에는 청호동 노인들의 한숨이 가득 차 있고, 작가가 “그 한숨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들이 왜 청호동을 떠나지 못하는 지, 그리고 실향 1세대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실향 1.5세대와의 갈등은 무엇인 지 다음 대목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아들과 김노인의 대화 장면이다.

창길 : 제 생각은 이래요. 배가 들어오면, 아버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김노인 : 무시기라구?

창길 : 서울이 아니라도 좋아요. 좀 큰 도시로 이사갔으면 좋겠어요.

김노인 : 아니, 창길아, 니 지금 날보구 여기서 떠나 살자, 이 말이니?

창길 : 네, 아버님.

김노인 : 이 바다와 저 사람들을 두구 이사 가자 이 말이니?

창길 : 네, 이젠 아픈 기억들을 떨쳐 버릴 때도 되었어요. 고향, 고향집, 배, 바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사세요.

김노인 :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혔니?

창길 : 직접 고통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이젠 밝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고향은 아버님의 생을 앗아갔어요.

김노인 : 야, 힘든 문자 쓰지 말아. 생이라는 기 무시기니, 생이라는 기? 고향이 내 생을 앗아 갔다구? 니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 내기 있어서, 아이 나쁜이 아이다. 박아바이나 북청 아지미에게 있어서 생이라는 것은 말이다. 그기 고향을 그리는 맴하고 다른 기 아이다.

창길 : 그러실 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제 생마저도 고향 때문에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김노인 : 니 행복이구 내 행복이구, 그런 소리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하자. 넌 여기서 살기 싫다, 이거니?

창길 : 네, 그렇지만, 아버님의 동의 없이는….

김노인 : 내 말은 하지 말구 니말만 해라. 여기서 살기 싫니?

창길 : 네, 싫어요.

김노인 :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창길 :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죠?

김노인 : 혼자 올라가라.

창길 : 넷? 혼자라니요?

김노인 : 나는 여기서 한 발도 옮길 수 없다. 니 혼자서 가겠으면 가거라. 니가 살고 싶은 디 가서 맴대로 살아. 그렇지만, 나는 아이 된다. 아이 되구말구.

창길 :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여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김노인 : 고향에서 제일 가까운 땅이다.

창길 : 넷?

김노인 : 여기가 고향서 제일 가까운 땅이다. 여기서, 움직일 순 없다.

창길 : 저도 아버님과 헤어져 살 수는 없어요.

김노인 : 고마운 이야기다마는, 나는 너를 꼭 품에 안구 살구 싶은 생각은 없다.

창길 : 전 달라요. 아버님은 절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저에게는 아버님의 마지막 생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김노인 : 의무구, 무시기구 그런 소리 하지두 말아. 사람이 지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희생이니 무시기니 그런 말 하는 기 아이다. 니 좋을 대로 해라. 가구 싶으면 가구 오구 싶으면

오구.

창길 : 전 아버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김노인 : 댁이 내키는 대로 해라. 니가 같이 살다가 떠난다구 해도 내 섭섭하게 생각 아이 하겠다.

아들 창길은 이곳을 뜨자고, 바다를 잇자고 권하지만, 김노인에게는 가당치 않은 소리일 뿐이다. 김노인에게 있어서 바다는 곧 어머니고 속초는 곧 고향으로 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대단원은, 실향 1세대들이 얼마나 애타게 고향을 그리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실향 1.5세대들로서는 도저히 짚 수 없다는 절망을, 충격적 방식으로 드러낸다. 김노인은 아들 창길로 하여금 다락을 뒤지게 하고, 이윽고 창길은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보 관되던 어머니의 시체를 확인한다.

창길 : 저기 다락 위에….

김노인 : 무시기 있디?

창길 : 시체가, 시체가 있어요.

만길 : 시체가?

김노인 : 너어 어미다.

창길 : 이십 년 전에 죽은 어머니가?

김노인 : 너어 어미다.

창길 : 어머니 여기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김노인 : 너어 어미는, 거제도에서 죽었다.

창길 : 네, 그래요. 거제도에서 돌아가셨어요.

김노인 : 그 어미의 유언이 무시긴 줄 아니? 마지막 말이 무시긴 줄 아는가 말이다. 이남 흙을 아이 쓰구 고향 흙을 쓰구 자겠다는 기다. 저 귀신이 고향 흙을 쓰구 자겠다구 저기서 지드러움을 쓰구 아이 내려온다. 고향에 가는 날이나 저기서 내려오겠다구, 저러구 있다.

창길 : 아, 아버지.

김노인 : 사람은, 제 물에서 살아야 된다. 고향에 가서 살아야지비. 그렇잖고는 사는 기 아이다. 그날, 그날이 곧 온다. 꼭 오고야 만다. 그날, 그날은, 빠르면 봄에 늦어두 가을까지는….

하지만 통일의 ‘그 날’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극작가 이반은 다시 『아버지 바다』라는 작품을 내 놓는다. 이 작품도 역시 속초항 부둣가, 그 어판장 한 귀퉁이 포장마차가 무대다. 『그날 그날에』가 청호동 한 노인의 일화를 소재로 한 것 이듯, 『아버지 바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황도 상당부분 실제에 근거했다. 이반은 이 작품 후기에다 이렇게 밝혔다.

나에게는 동호, 형철, 길모, 성자, 장근이라는 어릴 때의 동무들이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판장에서 몇번 스친 친구도 있고 함께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한 사람도 있다. 그 중에는 벌써 바다에서 실종되어 자기 몸이 바다가 된 친구도 있고 아직 배를 타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꼬리도 대가리도 없는 소문 속에서 ‘소대원들과 휴전선을 넘어갔다’ 온 친구도 있다.

이 ‘친구’들은 모두 이 작품에 실명實名으로 등장한다. 이반은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리얼리즘’ 극의 형태로 이복사투리를 그대로 구사하는 대본을 완성했다. 이 작품 역시 1989년 9월 서울연극제²⁵⁾에 출품되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속초항 부둣가. 어판장 경비원 길모와 작은 어선의 선장 동호, 포장마차를 하는 성자는 모두 친구사이이다. 이곳에 낚선 사내가 찾아든다. 알고보니 30년만에 고향을 찾아온 이들 친구 형철이다. 형철은 장교로 전방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 휴전선을 넘어갔던 적이 있다. 그 죄로 20년 동안이나 감옥생활을 했다. 형철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는데, 6.25전쟁 때 군 작전상 불을 켜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을 밝혔다가 ‘반동’으로 몰려 인민재판으로 처형된 바 있다.

한편, 선주(船主)가 새 배 마련을 위해 노임을 주지 않고 빼돌리자 선원들은 파업을 계획하는 등 갈등이 격화된다. 이에 동호가 중재에 나서고, 여기에 깨달은 바가 있어 선주는 노임을 해결하기로 약속한다. 이 과정을 지켜본 길모는 어판장의 갖은 부정을 뿌리뽑겠다며 새로운 다짐을 굳힌다.

형철도 친구들이 동요없이 강하게 사는 모습에 활력소를 얻는다.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을 밝힌 아버지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며, 아버지가 어둠을 밝혀준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반이 『아버지 바다』를 발표한 지 또다시 10년 후, 이제 이 땅에는 화해무드 분위기가

25) ‘대한민국연극제’는 이 무렵 ‘서울연극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썩트기 시작한다. 이런 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분단작품들이 발표된다. 통일 정책에 대한 풍자가 등장하고, 반공 이념에 대한 회의懷疑가 고개를 든다. 그 길목에 극작가 오태영이 있다.

극작가 오태영²⁶⁾은 1994년부터 5년간 속초에 머물면서 <통일 익스프레스> 등의 희곡을 발표했다. 오태영은 여러 편의 분단 작품을 써 왔는데, 특히 속초에 머무는 동안 이 문제에 더욱 깊이 파고들게 된다. 희곡 <통일 익스프레스>는 분단을 근거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이른바 '분단 장사꾼' 들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의 무대는 휴전선 인근의 “조통면옥”, 음식점 분위기의 간판과는 달리, 북한과 은밀히 왕래하는 비밀통로가 이곳에 있다. 남에서 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 지하통로를 통해 오가게 하는 이 ‘사업’은, 물론 북한의 요직 인사들과 결탁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공식적인 통로 개설이 임박해지면서 위기에 봉착한다. 이에 ‘사장’은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면 손해를 보게 될 ‘기득권자’들을 모아 “통일 절대 불가”를 외친다.

<통일 익스프레스>는 이처럼 패러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다시금 부상시켰다. 직접적인 감상은 일체 배제한 채 현실을 무심한 듯 비판 고발한다. 이 작품은 분단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1999년 ‘KBS 라디오 미니시리즈’로 발표되었던 최재도작 <회한> (원제 : 훈장, 꽃대 끝에 나부끼다)도 주목할 만 하다. 이 작품은 20세기를 보내며 ‘지난 세기 우리의 이념을 재조명한다’는 의도로 KBS가 의욕적으로 제작한 두 시간짜리 특집 라디오드라마이다.

이 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반공이념 수호 과정의 정당성을 재평가하고, 이념 보호의 명분 아래 국가 권력의 횡포에 시달린 당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그 구성원 보호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진지하게 제기된다. 예컨대 남북 당했다 귀환한 어부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가가 그 구성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놓고 그 책임을 오히려 떠넘기고 있는 셈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공 이념에서 통일 이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백으로 남은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그 혼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시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99년 12월 24일 KBS 제1라디오로 방송되었다.

26) 극작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1987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작품의 개략적인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인민군 고급장교였던 김일권金一權은 6.25 전쟁 중 생포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조치로 풀려 나, 실항민들이 밀집해 사는 속초에 정착한다.

김일권은 자신이 인민군 장교 출신이며, 전쟁 때 험격한 공을 세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북한 정부에서 하사한 훈장을 소중하게 간직한 채 늘 과거를 회상하며 산다. 하지만 반공이념의 남한 체제에서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오히려 사회적 불이익을 자초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북한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연히 인민의 영웅으로 대접받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늘 귀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슬에 취하면, 인민군가를 부르고, 인민 앞에서 호령을 하는 망상에 젖는 등 기행奇行을 일삼는다. 휴전 이후 46년 동안 그의 삶은, 그러므로 자신의 낙원을 빼앗겼다는 '실락원失樂園의 한限'이 누적되어 있다.

한편, 그의 아들 동선(東先)과 동후(東後)는 이런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받는다. 동생 동후는 수재였기에 학교대표로 반공월기대회에도 수시로 참여하는 등 반공이념에 충실했으나,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럴수록 아버지를 미워하며 끝내는 아버지와 불목한 채, 도회지로 떠나 현재 은행의 증권간부로 살고 있다. 그러나 형 동선은 아버지의 세계를 나름대로 인정하며, '북한에 남겨진 아버지의 가족'에게 총칼을 겨누기 싫다 하여 고등학교 교련교육을 거부하다 퇴학당하고 고기잡이배를 타는 선원의 길을 택한다.

그러던 중 김일권은, 금강산 유람선 취항 소식을 접한다. 아들 동선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일권은 금강산 여행을 거부한다. 그는 이때부터 자신을 영웅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펼친다. 남북교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념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북한정부의 명을 받고 싸운 것은 사실이나, 자신도 역시 민족을 위해 영광스런 혁명과업을 수행하여 험격한 공을 세웠으므로,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와 협의해 자신을 민족지도자로 예우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던 중, 김일권은 지병이 악화되어 임종을 맞게 된다. 동후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향한다. 그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아버지의 기행에 대해 들으며,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동후는, 남한 정부가 만약 국시를 반공에서 통일로 바꾸려 한다면, 반공 이념 아래서 희생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다.

동선과 동후 형제는 아버지의 영결식장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군 중좌 김일권'이라는 위패를 당당히 세운다. 통일 한국 시대에 이르면, 남북한의 영웅 모두가 추앙되는 세상이 될 것임을 이들 형제는 확신한다. 장례 행렬 뒤로, 비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 인민군 복장을 한 김일권 중좌가 말을 탄 채 위풍당당하게 무지개 위로 오르는 모습을 동선과 동후는 함께

목격한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무리의 선녀들이 이 땅에 목욕하러 잠시 내려왔다가, 그 중 한 선녀가 날개옷을 잃어 버려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옷은 나무꾼이 감추었다.

이 시대 우리의 ‘아바이’ 들도 고향을 무척 그리워 하지만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체 ‘아바이’ 들의 날개옷은 누가 감추었을까. 우리 시대 작가들은 ‘나무꾼의 실체’ 를 밝혀 하루빨리 ‘아바이’ 들에게 날개옷을 되돌려 주자고 목선 웅변가가 되어 저자거리에서 외쳐왔다.

5. ‘속초실향민문학’ 의 의의

속초와 그 구성원인 실향민들의 삶이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지 대강 살펴보았다. 대체로 관념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나름대로 문학적 성과를 거둔 작품도 상당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분단시대 실향민 집단촌의 형성은 사회사社會史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일본강점시절 중국이나 소련으로 흘러들어 가기도 하고, 전쟁 때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엔 개별적으로 흩어져 생존했고, 어떤 때엔 집단을 이루어 머물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 지역에 분포한 북한 이주민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본래 문화적 습속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남아 있는 지 살펴본다면, ‘문화의 전파 경로나 그 유형’ 또는 ‘사회적 조건과 개인이 주고받는 상호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북청 출신 이주민들은 만주에도, 블라디보스톡에도, 또 서울이나 포항 등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고유 민속인 ‘북청사자놀이’ 을 재현하고 전수한 것은 유독 속초에서 뿐이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정작 북한에서는 북청사자놀음이 더 이상 전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속초의 북청인들만 자신들의 민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연구자들은, 휴전직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북청 출신 이주민들이 각기 피난민연락소나 군민회를 구성했을 때, 유일하게 속초에 정착한 북청인들만이 ‘북

청도청²⁷⁾을 세웠다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북청사자놀음 등 북청 지역의 민속과 공동체 의식 등 문화양태가 쉽게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속초에 북한 전역의 이주민들이 혼재混在함에 따라, 문화적 자부심이 각별했던 북청인들이 그 우월감의 표출 욕구로 사자놀음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듯 속초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주민들이 독특하게 유지했던 고유의 문화 습속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실향민들이 속초라는 도시를 형성함에 있어, 상호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속초에 거주하는 북한 이주민들은 타 지역 거주 이주민들과는 다른 독특한 양태를 지녔음에 분명하다. 그러니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현상의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은 사회사적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분단상황에 대한 문화적 기록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학사文學史적으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분단문학은 우리 문학사의 기저基底를 이루고 있고, 특히 실향민문학도 상당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속초실향민문학’은 그 다루는 소재면에서나 추구하는 주제면에서 상당한 넓이와 깊이를 확보하고 있다.

극작가 이반의 경우, 『그날 그날에』를 통해 회향의식을 집요하게 그렸을 뿐 아니라, 분단 현상이 비극적 상황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켰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대표되는 새 세대가 분단현실을 망각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고발함으로써, 70년대를 대표하는 분단문학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아버지 바다』를 통해 인간에게도 강력한 회귀본능이 있으며, 통일이야말로 궁극적인 한국인의 자아 찾기임을 천명했다. 소설에서 종종 전쟁 간접체험 세대의 자아 상처를 통해서 뿌리 찾기에 귀착되는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희곡작

27) 北靑都廳. 북청지방에만 고유하게 전승되던 일종의 ‘마을회관’을 지칭한다. 마을 소유의 가옥을 지어 이곳을 공동으로 이용했다.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청년들의 공동작업장이고, 노인들의 쉼터이며, 길손의 유숙장이기도 했다. 북청사람들은 20여호 정도의 마을이 형성되면 반드시 도청都廳을 지었다고 한다. 북청사람들의 투철한 공동체 의식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도청을 중심으로 갖가지 민속놀이가 재현되고 마을의 대소사가 의논되었다. 속초에 거주하는 북청읍邑 출신 실향민들은 도청계都廳契를 조직하여 이곳 피난지에도가도 도청을 세움으로써 이런 전통을 계승했다.

28) 이미원, 「금기의 시대에서 패러디의 시대로 -통일을 지향했던 남한희곡의 흐름」, 『한국연극』 1999년 8월호.

품도 그와 맥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²⁸⁾. 이로써 이반의 작품들은 우리 문학사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속초를 제재로 다룬 문학작품들이 문학사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 안될 일이다. 속초실향민문학에 대한 연구가 좀더 충실하게 이루어져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일례로, 분단문학 소재로 우리 문학사에 ‘지리산’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주 활발한 실정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비롯하여 이병주의 『지리산』, 이태의 『남부군』, 황순원의 『잃어버린 사람들』, 문순태의 『피아골 철쭉제』 등 일련의 소설들이 우리 문학사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속초실향민문학의 경우, 아직 수적數的이나 질적質的으로 이들에 비해 열세인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대작의 출현을 기대해야 하겠지만, 기존 작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작업도 시급히 병행되어야 한다. 속초실향민문학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시인 이상국 김춘만과 극작가 이반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들 작품이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작품은 속초 정착 피난민들을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현장 문학’이기 때문이다.

‘속초실향민문학’은 이처럼 전쟁 난민들이 속초지역에 집단으로 정착한 이래 겪게 되는 삶의 역정들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사회사적인 의의를 지니며, 우리 최근세사의 독특한 시대 상황을 소재로 삶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그 가치가 대단히 크다.

속초 정착 피난민들은 이런 일련의 문학작품을 통해 그 원인을 풀고 한恨을 해소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속초실향민문학의 존재 의의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Ⅲ부
속초시·경주 피난민과 속초발전



- 제1장 피난민 정착이 속초 경제에 미친 영향
- 제2장 속초의 남·북 통일 및 북방교역 활성화 전망
- 제3장 피난민 문화의 복원과 전승



제1장 피난민 정착이 속초경제에 미친 영향

김 영 식(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분단 반세기만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간에 신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이산가족간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속초시의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보다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많은 실향민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으며, 그들의 아픔의 역사는 어둠에 묻혀 수 십여 년을 지나왔다. 늦게나마 소외되어 온 실향민의 진솔한 모습과 생활,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하여 연구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쟁이후 80년대까지 전국에 93개소였던 실향민 정착촌은 현재 36개소로 줄어들었으며, 아직도 월남인 정착마을이 있다는 사실은 뼈아픈 분단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유일하게 도가 양분되어 있어 그 아픔을 더해주고 있다. 속초시는 해방이후 38선 이북에 속하여 공산치하에 들었으나, 1951년 2월 11일 재탈환하여 8월 18일 수복지구로서 군정치하에 들어갔으며, 민족이 분단되면서 북한거주 주민들이 해안가에 집단 유입됨에 따라 청호동이라는 난민촌락이 형성되었다. 이때 많은 숫자의 이북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정착 거주함에 따라,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읍 5구로 설정되었다.

1955년부터 59년까지 속초지역의 전입자를 살펴보면, 해방기에 3,561명이 동란기에

48,722명이 양양군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5년경에 월남난민 분포지였던 속초읍에 6·25이후 유입된 월남 난민은 48,722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¹⁾ 출신지별로는 함경남도 출신이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어업종사자가 6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종사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청호동 거주 난민집단은 함경남도 해안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어민들로 구성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²⁾ 후에는 청호동에서 금호동, 청학동, 교동 등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속초 월남인의 부모 세대는 40가구 중 27가구(67.5%)가 어업(반농·반어를 포함)에 종사했고, 10가구(25.0%)가 전업 농가였다. 또한 청호동 월남인의 부모 세대의 계층을 살펴보면, 상층이 5명(12.5%), 중상층 6명(15%), 중간층 10명(25%), 하층 10명(25%), 최하층 9명(22.5%)으로 조사되었다.³⁾

청호동은 본래 사람이 살지 않던 백사장으로, 실향민들이 차츰 이곳으로 몰려 들면서 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수복이후 북쪽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거주하여 속초리 5구로 지정되었다.⁴⁾ 이후 66년 1월 1일 동제실시에 따라 청호동이라 하였는데, 이는 청초호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함경도 피난민들이 많아 청호동을 함경도 사투리인 ‘아바이마을’이라 별칭하기도 하였다. 66년 현재 청호동은 0.30km²에 1,301세대, 7,348명이 거주하였으며, 이곳은 항만이 접하고 있어 주민의 6할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의 70%가 집단으로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향민이란 한국전쟁 중 월남하여 남쪽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문화가 나름대로의 정체성 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이 속초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의 삶과 생활속에서의 경제적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거 실향민들의 생활경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에 대한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속초시의 전반적인 경제현황으로부터 속초에 뿌를 묻고 살아왔던 실향민들의 경제생활을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1) 內務部, 『大韓民國 第一會 簡易貿易 總人口調查報告』, 1955, 1959

2) 장정룡,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3)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182쪽.

4) 제37회 『속초통계연보』, 속초시. 1999

1. 속초시의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 초기월남민들의 정착과정과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

“처음에는 길어도 3개월이면 되겠거니 하고 내려 왔는데 그래서 짐도 안가지고 내려왔네. 임시 피난만 하려고 왔었는데.... 내가 아홉 살에 피난 나와 가지고 석 달을 산다는 게 내가 60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런 장기 계획을 짜지 않고 석 달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내려 온 거야. 내려오다 보니깐 임시로 필요한 것만 갖고 오고, 나머진 싹 다 두고 내려왔어. 이제 영영 못 가게 됐지!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었지. 근데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먹을게 없어 가지고 솔직히 밀가루로 수제비 먹는 집은 A급이야. 그때는 그것도 못 먹는 집이 많았지. 그래서 아버지가 배를 탄 거야. 그때는 명태가 많이 낚거든. 그 명태를 석 달 잡아 가지고 즉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3~4개월 명태잡이 해서 1년을 먹고사는 거야. 그때 만해도 쌀 10가마니를 한꺼번에 사다놓고 먹었지. 그때는 쌀 10가마니를 사다놓고 먹는 집은 그리 많지 않았지. 그래봤자 10가마니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진거야. 지금 자네들은 6·25를 겪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고생 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리밥도 없어 가지고 굶는 사람이 많았지. 지금은 허연 밥 먹지 누가 보리밥 먹나?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는 생활이 안정된 적이 한번도 없었어. 속초는 바다에서 고기가 안나면 먹고살기 힘들지. 속초는 공장이 없잖아. 바다에서 고기가 나아지만이 속초가 크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공장도 없으니깐 배아니면 달리 할게 없었어. 생활이 안정됐다면 오히려 지금이 낫지. 그때는 안정이란 게 없었어. 그리고 나도 안정된지 얼마 안됐지. 내가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배를 20년 탔고, 요즘은 경비 보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다가 이결(집) 얻은 거야. 얻은 지 3년이 되었어. 요결 얻은 것은 돈을 구해가지고 그런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낸거야. 그리고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었다고. 세상이 무슨 쌀 먹을까 가지고 나왔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안정된 그런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오니까 어쨌든 가족과 함께 살아볼려고 하면 먹고사는 데 제일로 신경을 많이 쓰지. 전부 알몸으로 나와 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실향민들이 이와 같이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게 많이 안전한 거지.”

위의 글에서와 같이 실향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월남하였으므로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사실들을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역시 그

들의 주된 경제 생활이 어업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속초의 경우 1952년 경만 해도 어업보다는 농업 우위의 지역이었으나, 어업기술을 갖고 있는 월남인들이 유입되면서, 속초에서는 농업보다 어업의 비중이 더 커졌다. 50년 후반 속초지역의 어업호황으로 타 지역 거주 난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오면서 난민촌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실향민들은 월남 후 최초 정착지를 속초로 정했다기 보다는 위의 글에서 보듯이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해안지역에 정착했다가 “내일이면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향에 가까운 속초항에 자리잡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3년부터 1년간은 난민집단들이 무작정 북상하였으며, 이때부터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55년 이후에는 난민 집단거주지라는 귀속심리와 어업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청호동에 머물게 되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어업에 의지하며 살았다.

실향민들의 월남직전 직업을 살펴보면, 어업종사자가 69.6%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농업, 상업, 학생, 공무원 등이다. 청호동 지역의 난민집단은 함경남도 해안지역의 어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월남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이 90%, 기타 군트럭이나 도보를 이용하여 남하한 것으로 보이며, 선박 가운데 본인 소유가 10%, 타인 소유가 38%, 군 수송선이 7%에 달해 소규모 민간인 소유선박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⁵⁾

속초시가 63년 시로 승격되고 중소도시로 성장하면서 이질적인 문화와 도시적 생활양식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랫동안 초기와 유사한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60년이래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도시화와 산업화정책에 따라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2차, 3차산업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수산업은 지역산업을 전환시키는 주된 산업이 되었다.⁶⁾

다음 <표-1>과 같이, 청호동의 인구는 정착초기인 6·25전쟁 이후 증가하다가 7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66년 중반까지는 속초시의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청호동의 인구도 크게 늘어, 63년 전국에서 29번째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가 되었다.(홍경희, 1981: 98)⁷⁾ <표-1>에서처럼, 속초시의 인구는 6·25동란 이후 세대수와 인구가 61년 말에 8,883세대에 42,258명에서 66년과 76년에 각각 12,264가구에 63,100명,

5) 장정룡, 『분단 강원의 이해』,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강원사회연구회, 1999. 221쪽.

6)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166~169쪽.

7)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167쪽.

14,801가구에 72,0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호동의 경우는 66년에 1,301가구에 7,348명, 76년에 1,262가구에 6,153명으로 70년 중반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였다.

〈표-1〉속초와 청호동의 인구조사

시/동 연도별	속 초 전 체*			청 호 동**		
	세대수	인구	세대당 평균인수	세대수	인구	세대당 평균인수
1955	5,350	11,350	2.12	454	1,046	2.30
1966	12,264	63,100	5.1	1,301	7,348	5.6
1976	14,801	72,042	4.9	1,262	6,153	4.87
1986	17,584	71,211	4.0	1,143	4,881	4.27
1991	21,012	74,905	3.6	1,155	3,437	2.98
1998	29,729	87,070	2.9	2,146	6,080	3.0

* 1999년 12월 현재 속초 통계.

** 각 연도 청호동사무소 집계 자료.

자료 : 각 연도 속초 통계.

청호동의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월남 1세대의 이출은 완만한 편이지만 월남인 2세대의 이출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2세대의 경우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60년대 속초지역의 수산업의 활성화로 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다가 70년대 어업이 침체되면서부터 취업인구가 외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⁸⁾ 한편, 50년을 지나면서 비교적 정착단계에 들어간 속초시는 5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표-1〉에서처럼, 청호동의 인구는 6·25전쟁 이후 난민들에 의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60년 말부터는 타 지역으로의 전출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호동의 인구는 55년 속초인구의 9.2%를 차지하였으며 66년과 76년에는 각각 11.6%, 8.5%였다. 특히, 80년대부터는 어업부진 및 거주이전 등으로 4~5천명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청호동의 인구는 속초시의 86년에 6.9%, 91년에 4.6%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위의글, 168~169쪽.

62년 말 현재 청호동은 전체산업종사자 4,271명 가운데 1차산업 종사자가 1,438명으로 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어업인구가 1,3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5년 청호동은 전체호수의 44.3%가 어업에 종사했고, 69년 청호동의 전체취업 인구 2,478명 가운데 어업 인구가 1,999명으로서 80.6%라는 높은 집중률을 보였다(방상묵, 1971: 38).⁹⁾ 그리고 제조업이 3%(130명), 건설업과 상업이 각각 4%(167명), 21.7%(925명)로 나타났다. 또한 98년 말 현재 청호동은 전체산업종사자 1,375명 가운데 1차산업 종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이 24%(330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22%(303명), 건설업 14.9%(26명) 등으로 1차, 2차 산업보다 3차 서비스산업 분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그리고 수산가공물이나 사료공장, 선박조선소 등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호동은 속초어업의 전진기지로 어촌계와 종성협회에 가입된 어선은 현재 163척, 어민은 370여명인데 무동력선이 1척, 15톤 미만인 149척, 15톤 이상이 13척, 연승이 54척, 유자망 13척, 머구리배 4톤급 1척이 있고, 해녀는 1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62년 속초의 전체취업 인구 중 32.1%가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그 수치는 68년경에는 41.4%로 증가하여 6년 사이에 1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70년대 산업화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어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70년대 중반까지 속초 및 청호동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인 어업은 사양산업으로 점차 그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속초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지향하면서 80년 후반부터 속초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하였으며, 관광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산업종사자들에 의한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어업인구도 관광산업으로 이직이 가시화 되면서, 속초시와 청호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9)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169쪽.

10) 제37회 『속초통계연보』, 속초시, 1999

11)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분단강원의 이해』, 강원사회연구회, 1999

〈표-2〉 1958~1999년 속초시 산업별 인구현황

구분 연도별	총인구 (A)	농업		수산업		상공업(광공업)			
		인구(B)	비중(B/A)	인구(C)	비중(C/A)	상업		광업	
						인구(D)	비중(D/A)	인구(E)	비중(E/A)
1958*	79,565	-	-	-	-	-	-	-	-
1960*	102,890	-	-	-	-	-	-	-	-
1961*	42,258	21,355	50.5	5,021	11.9	2,902	6.9	980	2.3
1962	50,703	3,660	7.2	7,197	14.2	3,816	7.5	72	0.1
1963	55,619	6,565	11.8	6,473	11.6	2,662	4.8	46	0.1
1964	58,508	6,569	11.2	7,049	12.0	2,551	4.4	93	0.2
1965	60,316	6,572	10.9	9,087	15.1	3,328	5.5	36	0.1
1967	67,079	6,329	9.4	10,209	15.2	5,990	8.9	60	0.1
1976	72,042	6,703	9.3	32,286	44.8	968	1.34	-	-
1980	65,798	7,101	10.8	15,223	23.1	-	-	-	-
1985	69,595	4,511	6.5	12,099	17.4	-	-	-	-
1998	87,070	2,943	3.4	6,168	7.1	-	-	-	-

* 양양군 통계연보

자료 : 양양군, 속초시 통계연보, 1958~1999년

〈표-3〉 속초시 수산 세력 변천 추이

연도별	어가·어민수		수산물생산		어선보유		
	어가(호)	어민(톤)	수량(톤)	금액(천원)	척수	톤수	마력수
1962(A)	3,831	5,873	3,873	15,895	811(325)	784(0.97)	2,967
1972(B)	6,179	32,224	29,479	1,456,413	851(426)	6,032(7.09)	13,950
1982(C)	3,098	15,383	37,773	15,179,422	765(669)	10,884(14.22)	-
1992(D)	1,854	7,369	26,981.4	37,037,232	623(561)	24,980(40.1)	98,144

주 : 1) 어선보유의 척수난의 () 내는 동력 어선수입

2) 어선보유의 톤수난의 () 내는 평균 톤수입

자료 : 속초 통계 연보 1962~1999

한편, 속초시의 산업별 인구현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1년 농업의 비중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업이 11.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농지면적이 줄어들면서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수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76년에 수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72,0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속초시가 개항된 이래 수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44.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수산물 생산이 82년 37,773톤에서 92년 26,981톤으로 29% 감소하면서 어업종사자들의 이직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수산물의 어획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년 4월 27일 속초시가 지정항으로 되면서 30년 후인 92년 비교해 보면, 어가는 52% 감소한 반면, 수산물 생산은 92년에 26,981톤을 생산해 1962년 보다 5.9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선보유 척수는 62년 811척에서 92년 623척으로 23% 감소했으나, 어선의 척당 평균 톤수는 0.97톤에서 40.1톤으로 41.3배, 마력수는 척당 9Hp에서 174Hp으로 33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어획을 위한 첨단기술장비, 고깃배 규모의 거대화 등에 의한 원양어업의 활성화로 수산물의 생산이 증대되었다.

속초시는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업, 수산업, 광공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즉, 60년대에는 수산업과 농업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비슷했으나 60년 후반부터는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수산업분야의 종사자는 증가하였으며, 70년대 후반에는 관광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해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상업과 관광서비스산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98년 속초시의 사업체 수는 7,140여 개에 24,41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업체와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및 수리업에 2,458개 업체에 5,409명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에 2,203개 업체에 6,030명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에 744개 업체에 2,183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각각 411개 업체에 1,513명, 321개 업체에 1,184명이 종사하고 있어 1차산업 종사자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속초시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속초시 피난민의 경제생활

월남민은 주로 어업종사자들이 많았다. 50년대 말 속초시의 인구는 피난민에 의한 정착에 의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초기 속초경제는 그들에 의해 움직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착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통일이 이루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정착하였기에,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난 정착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속초에 정착한 것은 아니고 부산쪽으로 가서 한 2, 3년씩 살았다. 그리고 자세히 들으니 속초에 실항민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하여 속초로 왔다. 그리고 그때 오징어, 명태 같은 생선이 많이 나고 해서 살기 좀 괜찮았거든. 그래서 각처에 굴러 다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집결해 살게 되었지.

아! 속초에 온 거는……. 부산쪽으로도 뭐 왔다 갔다 근대 생활하면서 쫓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속초가 북쪽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난 본래 여기서 산 게 아니고 청호동에서 살았거든. 저 아바이 마을이란 동네에서 쫓살다가 여기 97년도에 왔거든. 한 3년, 4년 되지. 근데 그때 당시는 북진 막하고 근대 생활하면서……. 근대 생활도 왜 했는가하면 집에 빨리 간다고……. 근인으로서 이제 근에 근복 입게 되면 북진하게 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깐. 민간인보다도……. 그래서 나왔다가 여기 정착하게 됐는데……. 정착해서도 여기 그때만 해도 여기 지금 청호동 가게 되면 오막살이집들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도 다 나 같은 심정이지……. 집은 저들어 가고 겨나오지만은 쌀은 집에다 이렇게 저놔서. 먹고사는 것만 계산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배에다 싣고 북에 가져 갈 계산만 하고……. 집 같은 건 생각도 안한 거야. 그 사람들은 집 같은 거를 생각했으면 요새 투기사업 생각하면은 동네 다 샀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집에 간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바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다 나두 똑같은 심정이지. 근대 생활을 나는 많이 했거든…….”

그리고 2000년 8월1부터 8월30일까지 3단계로 실시된 이산가족실태조사는 제1단계(2000. 8. 1~8. 8)에서 시 호적명부 열람작업 실시하였으며, 제2단계(2000. 8. 9~8. 19)에서 2차 이산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단계(2000. 8. 22~8. 30)에서는 3

차 이산가족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출신지별, 연령 및 성별, 직업별, 생활정도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4〉 직업별 인구현황

구 분	농 업	어 업	상 업	서비스업	노 동	무 직	기 타	계
인 원	46	224	180	19	49	1,037	99	1,654
청 호 동	2	123	32	3	17	55	13	245

〈표-5〉 생활정도별 인구현황조사

구 분	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비 고
	세 대	가족수	세 대	가족수	세 대	가족수	
인 원	187	350	95	125	92	225	총 1,654세대중11.3%

주 : 상기통계는 이산 1세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본 자료는 2000년 8월1일부터 30일까지 3단계에 걸쳐 속초시에 의해 조사된 자료임.

자 료 : 속초시청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산가족들에 대한 직업은 어업이 13.5%, 상업이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도 62.7%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호동의 경우 어업에 50.2%, 상업에 13.1% 종사하고 있으며, 무직도 22.4%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5〉에서처럼, 총 1,654세대에 4,986명중 거택보호자가 95세대에 2.5%인 125명이고, 자활보호자는 92세대에 4.5%로 나타나 이들의 생계에 대한 지원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실향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피난 정착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향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는 곧 실향민들의 애절한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이『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발간 집필자로 참가하게 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집필에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한다.



제2장 속초의 남·북통일 및 북방교역 활성화 전망

- 피난민들의 경제를 중심으로 -

김 영 식(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근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북방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간에 경제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과거 동해지역은 '냉전의 바다', '긴장의 바다'로서 항상 전운이 감돌았으나 이제는 '희망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약속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분단의 아픔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실항민들에게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과거 속초지역의 경제를 이끌어온 실항민들은 그 동안 산업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소외 되어온 것이 사실이며, 가까운 날에 통일을 대비하여 그들이 중심이 되어 남·북통일 및 북방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첨병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항민들은 작게는 속초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역에서의 중심적 역할이 요구되며, 넓게는 속초를 중심으로 환 동해지역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 동해지역으로의 진출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특히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한 북방지역으로의 진출은 앞으로 새로운 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화해분위기로 전환되면서, 환 동해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동해지역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가 해빙의 무드를 타면서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주변 4강들에 대한 움직임도 유연해졌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속초지역을 단순히 설악산에 의존한 관광을 주로 한 경제가 아니라, 관광과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T-T(Total trade-tour)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속초를 비롯해 고성, 주문진 등 어업이나 수산업을 주로 살아가는 지역은 인근어장에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 동안 속초지역의 경제를 이끌어온 것은 수산업과 관광산업이었으나, 어류의 감소와 중앙지역간 인프라확대를 통한 교통의 발달로 체류관광객이 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소득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방항로의 개설은, 그 동안 정체해 있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역활성화 방안과 북방항로의 전망 및 북방항로의 개설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북방교역 활성화방안

가. 북방항로 개설에 따른 대對중국 교역 활성화 방안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한 길림성은 인구 2,628만 명(97년말 현재)이며, GDP중 산업별 구성은 1차산업이 25.9%, 2차산업 39.5%, 3차산업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산업은 자동차 및 기관차, 석유화학, 야금, 기계, 임산물가공산업 등이며, 석탄, 시멘트, 목재, 나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길림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요녕성(98년말 현재)은 인구 4,138만 명이며, GDP중 산업별구성은 1차산업이 13.9%, 2차산업 49.9%, 3차산업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원유, 시멘트, 생철生鐵, 강鋼 등을 생산하고 있고, 길림성의 서북쪽에 있는 흑룡강성(1998년말 현재)은 인구 3,751만 명이며, GDP중 산업별구성은 1차산업이 17.9%, 2차산업 53.5%, 3차산업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원유, 목재, 시멘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속초와 자루비노 간 북방항로의 개설과 함께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한 길림성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길림성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현황을 살펴보면 91년 122개 기업에 1억 8천만달러가 투자되었으나, 94년에 1,064개 기업에 88억 2천만달러, 95년에 667개 기업에 8억 5천 7백만 달러로 투자액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97년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99년 6월말 기준으로 148개 기업에 1억 5천만 달러로 투자액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노동 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이 2,394개로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업과 건축업이 각각 12.9%, 6.3%를 차지하고 있다.

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 현대, 대우, 금호 등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한국 투자기업들에 의한 투자증가와 투자규모의 대형화를 가져왔다. 한국인들이 투자하는 분야는 주로 의류 및 섬유제품 제조업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재가공 및 임산물 가공업, 식품가공업이 각각 8.2%,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직업과 음식업 등에도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61.9%가 연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언어소통의 편리성과 내수보다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중간 소무역은 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화교나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IMF이후 한국인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현재 소무역을 업으로 하는 전문 종사자는 99년 말 현재 2,000여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대외중 수출규모는 연간 약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품목은 의류 및 원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약제사리, 문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참깨, 기름, 고춧가루, 마늘 등 주로 농산물과 한약재이다. 한·중간 소무역의 주요경로는 인천↔청도, 인천↔위해, 인천↔대련, 인천↔천진, 인천↔단둥 등 산동성과 요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 우리의 대중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내륙으로의 육상 운송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간의 마늘과 꽃게파동 등 통상마찰로 소무역상들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면서 소무역상들에 의한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길림성지역은 속초(한국)-자루비노(러시아)-훈춘(중국)을 연결하는 해상항로가 개통됨에 따라 많은 소무역상들이 영동지역으로 몰려 항로 개설에 의한 특수를 반영하는 듯 했으나, 한·중 통상마찰로 인천(인천↔청도, 인천↔위해, 인천↔대련, 인천↔천

진, 인천↔단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간 교역 운송화물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속초↔훈춘간 소무역상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량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속초↔훈춘간의 운송화물은 5월 북방항로가 개항된 이후 1항차당 20톤 규모의 컨테이너(출항화물 4.3개, 입항화물은 3.8개)가 3~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화물과 수화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지역으로의 운송화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북방항로 개항 이래 90여 회의 운항중 소무역상이 13,084명이 이용했으며, 관광비수기인 10월, 11월에도 소무역상이 몰리고 있어 정기화물을 비롯한 수화물의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간의 통상마찰이 해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1〉월별「백두산항로」이용실적 (단위 : 명/TEU)

월 별	승 객				화 물		
	관광객	소무역상	기타	계	정기화물	수화물	계
5월	-	765	279	279	-	21	21
6월	-	1,085	15	15	29	61	90
7월	7,662	1,809	59	59	68	84	152
8월	7,422	2,259	70	70	97	82	179
9월	969	2,108	97	97	95	80	175
10월	112	2,883	29	29	135	45	180
11월	29	2,175	9	9	58	27	85
계	16,194	13,084	558	558	482	400	882

주 : 2000. 11. 20일 현재

자료 : 속초시청 북방항로 지원사업소 및 (주)동춘항운자료

나. 북방항로개설에 따른 대韓러시아 교역활성화 방안

블라디보스톡은 “동방을 점령하라”는 뜻을 지닌 러시아의 중요한 항구중의 하나로, 극동지역의 최대도시로 개혁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80만에 이르고 있다. 이 도시는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방정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도시로서, 항구를 중심으로 왼쪽에 우스리스키만과 오른쪽에 아무르스키만이 있어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다. 러시아는 뼈레스트로이카이후 동북아시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극동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였다.

86년 7월에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연설”에서 소련의 당면과제는 동북아지역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언명하였으며, 88년 9월에는 “글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 극동지역에 인접한 국가, 기업들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환 동해지역 국가들에 대한 특혜조건들을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하였다. 또한 92년 러시아정부는 “대 블라디보스톡 계획”에서 블라디보스톡, 나홋트카, 포시에트, 바스토치니 등의 군사항구를 개방하여 국제무역항으로 전환 시켰으며, 나홋트카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중·장기개발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침체해있는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에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산재해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개발하여 극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블라디보스톡은 군항, 산업항, 어항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수산물가공과 조선업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공업의 중심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한국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국제해상무역과 관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무역은 공식적으로 99년 1사분기에 3억 불정도였으며 비공식적으로는 10억 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간 20~30억 불 정도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집적투자도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연해지역에 97년에 9천 4백만 불, 98년 8천 5백만 불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의 성장가능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에 있어서도 98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관광객들이 연간 15~20만 명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고 있으며, 일본관광객들도 연간 2~3만 명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반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중심으로 보따리 무역이 급등하는 추세에 있으며, 98년 수출규모는 일본이 약 20억 달러, 중국이 10억, 러시아가 5억, 기타 10억 달러로 전체 약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보따리 무역은 수출저변의 확대 및 장래 정규무역으로 발전시 수출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액수출 활성화차원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블라디보스톡은 시베리아 횡단열차(TSR)의 종착역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다. 최근 남북한간의 철도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도 깊은 관

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남북한의 철도복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하였다. 남북한의 철도복원사업이 완성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횡단열차와 연계하여 아시아대륙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인적, 물적자원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경유지역들의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삿페르부르크까지는 약 10,200km로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7~8일 걸린다.

따라서 유럽까지는 길어도 20~21일 정도면 물류 수송이 가능해지므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비용을 20~30% 줄일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철도복원사업은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부가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특히 변환기(trangition)를 맞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국가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철도복원사업이 완성되면, 속초는 장기적으로 원산과 부산을 잇는 영동 남북선을 조기에 개설하여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연계시키고, 강원 영동지역을 양양의 국제공항과 천혜의 항만, 철도를 연결하면, 영동지역은 교통의 중심지, 무역·관광의 중심지로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중심에 섰던 동해안을 산업항, 무역항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많은 실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2. 북방항로의 전망과 개선방안

최근 북방항로의 개설에 따라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이에 따른 관광, 무역분야의 특수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방항로 자체는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코자한다.

속초-자루비노-훈춘-백두산을 연결하는 북방항로는 단순 관광코스로 강원지역의 실익과는 차이가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것을 지역의 소득과 연결시키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북방항로의 노선 변경과 함께 지방정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

선변화에 따른 노력이 요구되며, 속초-백두산을 연결하는 북방항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방항로의 새로운 노선개발과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속초-자루비노-후춘-백두산을 연결하는 북방항로의 문제점은 첫째, 관광시즌이 짧아 손익이 맞지 않고, 볼거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과 더불어 소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초기 많은 소무역상들이 몰려 항로 개발에 의한 특수를 반영하는 듯 했으나, 한·중국의 무역마찰로 무역량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서 보면, 국내관광객들에 대한 외유정책보다는 인바운드(inbound) 여행을 통한 외국인관광객유치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내적으로는,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 좋은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며, 새로운 관광상품의 다변화를 통해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에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제공될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실적으로 볼거리 문화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관광객유치에 앞서 그들에게 보여줄 볼거리, 먹거리문화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에 수출하는 상품을 차별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일본의 경우는 강원도의 청정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식료품과 공산품의 수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지방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속초-자루비노-후춘-백두산을 연결하는 북방항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방항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직접 연결되는 항로를 개발하여 연해지역을 포함하여 극동지역 내륙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여야 한다. 최근 남북한철도복원사업으로 시베리아횡단열차와의 연계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블라디보스톡이 관광, 무역,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과의 연계교통망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영동권지역을 연계한 북방항로에 대한 발전적 모델을 두 가지 살펴보면, 하나는 속초-자루비노를 연결하는 항로에 자루비노와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카웨리를 운항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백두산 관광과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 관광

객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어 지역의 규모의 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루비노-슬라반까-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자루비노에서 슬라반까까지 버스로 1시간반 정도 이동하여 다시 카뻬리로 갈아타고 1시간반 이동해야하므로 직접 가는 것보다 3-4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이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광과 무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자보다 관광이나 무역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속초항과 블라디보스톡항이 연결될 수 있다면, 지역의 규모의 경제가 커지는 것은 물론 극동지역의 관광객들과 비즈니스맨들의 유치가 쉬워지며, 이에 따른 부가소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속초-자루비노-훈춘, 그리고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개발하고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속초, 양양, 고성지역 등의 지역을 관광·무역 특구로 조성하여 관광과 무역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가. 북방교역의 의미

속초의 북방교역이 갖는 의미는 ①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내·외국인들에 의한 민간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②정체성(identity) 재구성을 통한 강원지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의 단순 관광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관광과 무역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다 향상된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③장기적으로는 북방교역을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 및 교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연해주, 하바로브스크주등)이나 중국의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의 경제특구와도 연계하여 환 동해권의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화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진다면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냉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속초항의 북방교역의 중요성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비롯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인차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강원도는 백두산 항로 개설에 따라 속초지역을 환 동해의 관광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해나가려는 중·장기적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동해안의 인접지역들을 연계하는 영동지역 종합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접국가들(러시아, 중국, 일본)간의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관광·무역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나. 북방교역의 전망과 문제점

속초-자루비노(러시아)-훈춘(중국)을 잇는 백두산항로는 정체해 있는 강원도의 공간적, 시간적 배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강원도 영동지역은 청정관광지역이라는 특수적 상황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주민들의 삶 권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 자체가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바다와 몇 안 되는 농지가 전부이다. 그러나 혹자는 이 지역을 관광지역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광산업으로 인한 고용증대효과와 그로부터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혹평한다. 혹자는 관광산업이 영동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본인의 작은 경험으로 보면, 관광산업은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해안지역에는 일과 후에 관광산업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낼 만한 아무런 시설(서커스, 전통예술, 놀이기구 등)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이 같은 관광산업은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달았으며, 관광산업이 정체되어 온 지 이미 오래다. 때를 같이하여 영동지역에서의 속초-자루비노(러시아의 연해주)-훈춘(중국의 길림성)을 잇는 육해상로의 관광 및 교역노선은 영동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문의 단비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항로의 개설에 따른 북방관광 및 교역의 형태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백두산관광을 포함한 새로운 관광루트의 개척이다. 최근 한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백두산을 관광하고 있으며, 한국도 갑자기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속초-자루비노간 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중국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 3성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으며, 한국인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브스크의 관광을 연결하여, 나아가서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한 러시아 대륙 관광과 동·북유럽의 여행도 가능해졌다.

둘째로는 북방교역의 확대이다. 중국 길림성의 인구는 2천 7백만 명이며, 러시아 연해주는 240만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연길을 포함한 연변자치주의 인구는 210만 명이다.

연변지역에는 이미 많은 한국상품들이 공급되어 있으며, 한국상품들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특히, 의류를 포함한 식료품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으로의 한국상품 수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도 가구를 비롯한 가전·전자제품들과 식료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상품의 수입루트는 중국의 경우 인천↔위해, 인천↔대련 등을 통해서, 연해주의 경우는 부산↔나훗트카 정기화물선에 의해 운송되고 있다.

따라서 신 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길림성과 연해주지역으로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면, 20~30%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역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는 러시아정부, 혹은 연해주 지방정부로부터 자루비노항 근처의 평야지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것이다. 이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강원도지역의 유희노동인력들을 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도내의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관광 및 교역활성화정책이 마련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관광·교역을 위한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① 자루비노항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인프라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관광객들에게 백두산 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문화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소무역(보따리무역 포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3성과 연해주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확한 현지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③ 소무역상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 및 관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④ 또한, 속초지역에 종합무역 서비스지원 센터와 외국인 소무역상들을 위한 물류 단지를 조성해야 하며, 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밀수입되는 마약류와 무기류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산가족 찾기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이 가시화 되면서 남북

한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햇빛정책은 남북관계 및 북방교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의 열강들 사이에서 한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국가간 혹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인적, 물적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몇 년 전부터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를 부르짖으며,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의 홋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등 동해를 끼고 있는 환 동해권 지방정부들간의 교류, 협력을 강조하여 왔으며, 여러 번의 환 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통해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대외관계에서 시·군 지역간의 정리되지 않은 국제교류관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외교적 능력 내지는 협상력이 떨어져 대외적으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화시대에 세계화, 국제화를 맞이하는데 있어 전문화된 인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은 고급화되고 국제화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개혁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올해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 속초를 거쳐 백두산으로 가고 있으며, 연길을 비롯하여 훈춘 등 길림성의 중·소도시들은 백두산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속초 지역을 비롯한 주변지역들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에 경제적 특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 도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이익이 지역사회에서 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며,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 복원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륙횡단열차와의 연계가능성이 점차지면서 강원도는 영동 지역을 관광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나아가서는 환 동해권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장 피난민 문화의 복원과 전승

장 정 룡(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피난민 문화의 인식과 정착

속초시에는 피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속초시 인구의 34%를 차지한 3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청호동은 2,115세대 가운데 38%인 800여 세대가 피난민 가족이다. 따라서 속초시는 북한 피난민의 집결지로 북한문화전승의 거점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발전을 위한 테마로 피난민 문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전국 피난민 정착촌 거주 2,300세대 가운데 30%가 청호동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속초는 피난민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초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음식, 문화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전승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난 1세대 가운데 50%이상이 자신들의 고향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2세대는 40% 내외가 사용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속초방언과 함경방언의 이중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들 문화의 정착, 보존과 전승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속초시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계획에 따라 2000년 3월부터 2주간 관광객과 주민

230명을 대상으로 속초시 일원에서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성실한 답변을 한 152명을 추려서 피난민 관련 문항의 통계를 낸 것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조사자료에는 피난민을 실향민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향민 대신 '피난민'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기로 위원회에서 정했으므로 이것에 따른다.

〈표1〉 속초시 피난민 정착도

구 분	상당히 잘 정착됨	다소 잘 정착됨	보통이다	별로 정착되지 않음	전혀 정착되지 않음
빈도수	8	86	58	42	4

상기 표에 따르면 속초시에 피난민 관련 문화의 정착은 비교적 잘 정착된 것으로 (mean값, 평균치 3.230) 인식하고 있다.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152명들이 정착된 피난민 관련 문화의 보존과 전승방안에 대한 응답에서는 '피난민촌' (실향민촌)을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향토자료관과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38.8%인 59명이 동의하였고, 피난민문화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하여 피난민의 메카로 만드는 사업을 해야 한다에 51명으로 33.6%에 달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속초 피난민문화의 보존과 전승방안

구 분	피난민촌보존 지구지정	피난민문화 엑스포개최	피난민전통 문화보존	피난민문화 전승과 통일 교육장화	기타	무응답
빈도수(%)	59	51	28	12	1	4

이상의 통계를 인구 통계적 변수별로 파악한 결과, 속초시 피난민문화의 정착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다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3.437)이 남성(3.148)보다 더 정착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난민 문화의 보존과 전승방안으로 남성은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향토자료관 건립과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으며, 여성은 피난민엑스포개최와 메카화 및 피난민전통문화예술의 전승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난민문화의 보존과 전승방안으로 회사원, 공무원, 주부들의 경우는 청호동 아바이마

을을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향토자료관 건립과 지원사업 전개를 주장하고, 교원과 전문기술직 종사자는 통일교육의 산실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냈다.

2. 피난민 문화의 결집과 재창조

가. 피난민문화엑스포 개최

통일부, 이북 5도청과 속초지역 이북시·군민회 후원과 협조를 얻어 속초엑스포 공연장에서 피난민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이것은 통일을 기원하는 구심체로서 천만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잊혀져 가는 북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피난민문화엑스포는 분단 반세기 천만 이산가족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을 피난민의 메카로 만드는 시발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것을 통해 대북 화해정책의 결실을 추구하고, 한반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여 설악과 금강연계관광계획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엑스포는 피난민문화의 정착과 보존에 기여하며, 피난민문화를 재조명하여 통일환경을 조성하며,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통일과 남북교류에 있어서 강원도가 중심적 위치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피난민문화엑스포는 기존의 청초호 엑스포장을 활용하여 이산가족 150만 명과 국내외 관광객 50만 명을 유치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 피난민문화엑스포는 고향을 잃은 천만 실향민의 만남의 장소로 피난민 관련 모든 문화예술테마를 결집하여,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며 공감하며, 공유하는 엑스포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문화관광의 촉매제로 대체 관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통일과 남북관계의 역할에 기여하여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통일과 남북교류에 있어 강원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로는 지역상권의 부흥과 특산품 판로개척, 산업활성화, 고용증대, 지방세수 확장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지역문화창달과 정체성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며, 지역교류에도 긍정적 의미를 부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으로 이북 5도 민속놀이잔치에 북청사자놀이, 황해도 도당 굿 등 여러 북한민속을

통해 피난민의 고통을 위무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진다. 이러한 피난민문화엑스포는 속초시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브랜드로, 나아가 국가적 축제로 승화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 피난민 문화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는 역사성이나 문화유적지의 의미가 강한 가로가 많은데, 관 주도형 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행사가 이루어진 곳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추세로 이미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장소가 유리하다. 우리 나라의 문화의 거리는 거리환경의 독창성과 독특한 분위기 연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강원도는 강릉과 춘천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영월에서도 단종 문화거리를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가을동화'와 같은 드라마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어, 이곳에 문화거리를 지정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청호동 갯배 선착장에서 신수로 개설까지 100미터를 거리로 지정하고 주변 건물을 정비하여 함흥냉면집 등 북한음식점, 북한상품판매점, 피난민생활관, 북청사자놀이공연을 조성하여 다양한 피난민 문화체험 이벤트가 가능하며 드라마 세트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피난민문화거리는 북한지역 민속을 총체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교육자료화, 특성적 자원화를 추구할 수 있다.

다. 피난민 역사문화촌 건립

피난민역사문화촌은 속초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린 테마촌으로 성공가능성이 높다. 청호동은 피난민이 집단 거주하는 소위 '아바이마을'로 분단한국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온 피난민문화를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적 환경이 풍부하며 동시에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의 생활무대이기도 하다.

청호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지역의 초창기 문화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끄러운 과거'로 또는 부정적 속초이미지로 치부하지 말고 '분단조국의 현실'로 재평가하고

‘피난민문화의 실상’으로 드러냄으로써, ‘통일교육의 산실’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과 풍토성을 기반으로 건조물, 예능, 음식, 놀이, 민속, 전통산업, 생활문화 등을 관광자원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피난민역사문화촌을 조성하기 위한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검토하며, 이곳의 입지조건, 환경의 특징상 관광리조트 도시내의 하나의 지점형 즉 One point type 문화마을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내 유일의 피난민 정착촌의 생활문화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상 생활환경의 정비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향토산업으로 북한음식점과 특산품, 기념품의 개발과 판매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지역문화 및 자연관광자원과 연계루트화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이 문화촌은 통일교육의 산실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속초시 도시 재개발과 거리 재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생활의 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갯배를 타고 오징어회와 함흥냉면을 먹을 수 있으며, 북청사자놀음을 볼 수 있으며, 맨손으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고, 낚시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객 견학과 체험의 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청호동 역사문화촌은 특산품, 향토음식, 민속과 예술, 생활현장, 북한체험이 살아있는 테마형 빌리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속초시에서는 청호동 일대 1,500㎡부지에 총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문화촌과 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화촌에서는 매년 북한음식과 북한특산품전 등 북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 실향민의 보금자리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민속박물관에서는 피난민문화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2001년 기본설시설계 용역 및 기반시설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속초 피난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게 될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특성과 개발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청호동 아바이 마을 특성과 개발사항

역사적 환경 요인	역사문화촌 개발 패턴
건조물 및 구조물, 거리의 독특함	도시계획, 생활환경정비, 문화거리조성
유적 및 사적의 특별함 부재	갯배, 등대, 축항자원, 피난민자료관연계
북청사자놀음과 냉면 등 북한문화상존	북한문화의 체험공간, 다양한 경험체득
수공업, 어로작업, 횃집 등 어로문화	볼거리 창조, 먹거리 체험 등 어로문화
바다와 호수의 인접성과 갯배문화부각	야간관광자원 개발, 유람선등 주변 활용

라. 피난민문화의 자료화

피난민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소외되거나 그들의 문화가 간과되어 왔다. 국내적으로 천만이산가족을 비롯하여 속초시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피난민에 대한 정책부재는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국가적 지향점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피난민문화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는 국가적 사업이 필수적으로 계획되어야만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속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료화사업추진단을 발족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북한 말 사투리대회, 피난사진집 발간, 피난민 언어사전 발간, 피난민 역사자료 수집, 피난민 구술자료집 발간, 피난민 민요CD화 사업, 북한음식 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Ⅳ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

- 제1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
- 제2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체험기



제1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證言

- 체험기를 중심으로 -

양 언 석(관동대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모든 인간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것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도처에 질곡極柵속에 묶여있다”¹⁾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다양한 환경 때문으로, 고대사회에서는 자연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자연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폭풍, 홍수, 자연재해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왔지만 현대사회는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싸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종교나 인종간의 싸움, 이념간의 싸움, 소유욕과 지배욕 등의 이해관계로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 이러한 다양하고 미묘한 싸움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운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평화의 역사이다. 이 전쟁과 평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력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²⁾라고 하였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로 태어나 정치로부터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였듯이 오늘날의 삶은 정치의

1) 李佳炯역, 루소, 『사회계약론』, 을유문화사, 1983, 19쪽.

2) Aristotle , “The Politics”

시대(age of politicization)라고 말한다.

정치에서 가장 예민한 전쟁의 원인은, 인간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 충족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생활을 영위하는 곳에서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확대되어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다. 세계 역사상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같은 민족끼리 이념과 지배욕 때문에 일어나 가장 가혹하고 비참한 싸움은 6·25전쟁이다.

6·25전쟁에서 1·4 후퇴까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피난하게 되는데, 그 수가 무려 500만 명에 이르러 오늘날 망향의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산가족을 1000만 명씩이나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³⁾

“동구 밖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오신 어머니는 목에 감았던 목도리를 풀어 내 목에 감아 주시면서 눈시울을 적시셨다. 아버지는 ‘뭘 한 4~5일이면 돌아 올 거야’ 하셨다. 1950년 12월 25일 밤 10시경의 일이다. 우리 부자가 마을의 작은 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 계셨다. 얼어붙은 듯 하얀 눈 위에 아스라이 서 계시던 그 마지막 모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⁴⁾

4-5일을 약속하고 떠난 지금 반세기가 흘렀고, 그 고향에 있을 부모형제,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며 통곡하다 저 세상을 간 피난민이 한둘이겠는가. 군부대가 버린 쌀가마니를 모아서 지붕을 덮고, 벽을 만들어 잠자리를 마련하여 살면서도,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도 고향생각은 간절하였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생사를 몰라 얼마나 애태우고 계실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어떤 유형이든 전쟁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다. ‘고향’의 아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피난민들이 마음에 고향을 잊을 수 없는 것은 고향이 신앙이고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향에 가까운 이곳으로 왔지만 마음에 고향은 너무나 멀었다.

고향을 갈 수는 없지만 지금도 고향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 고향어귀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곳엔 어머니의 모습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보고싶은 어머니를 목놓아 불러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슬픔뿐이다.

3) 함경북도 중앙도민회, 『함북망향반세기』, 1994, 247쪽.

4) 정래섭, 강원도 고성군

피난민들의 고향에는 고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위해 고향 가까이 왔어도 고향은 그림기만 하다. 굶주림과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고향사람들과 의지하고, 어머니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통과 외로움을 참으며, 고향에 돌아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경건하게 느껴진다.

피난민들은 죽음의 고비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었던 자신들의 고생과정과 삶의 진실한 모습과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정착사를 출간하게 될 이겠다.

이 정착사는 피난민들의 역사이다. 피난민들은 이제 고향을 그리면서도 더 큰 세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지 있는 시민으로, 피난민들의 고생의 역사가 속초의 역사이며, 이 땅에 긍지와 자존심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전쟁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던 속초 피난민들의 삶의 과정에서 고통과 시련 그리고, 오늘날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 속초사회 형성과 발전과정에서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함이다.

1. 고향에서의 삶

고향 하면 그리움이 생각난다. 그 그리움은 본능과 자아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기에 항상 생명체들은 고향을 그리워한다. 자주 찾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음에 고향은 항상 아름답다. 더구나 갈 수 없는 고향은 더욱 더 아름답고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이다.

고향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어를 생각한다.

“남대천에 가면 연어 치어를 방류시키잖아요. 그 치어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오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의 고향을 모른다면 말도 안되겠죠? 우리 3세나 4세들도 자기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해요.”⁵⁾

5) 김진국, 함경남도 북청군

태어나서 연어는 어린 고기로 고향인 강물을 떠나 태평양과 먼 알래스카까지 여행하고, 다시 수만km 떨어진 태어났던 고향인 남대천 강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어간다. 이 연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련함을 느끼게 한다.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생명의 위협을 겪게된다. 고래나 상어에게 잡아먹히고, 살아서 강물로 돌아온 연어는 10%정도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폭포를 만나면 많은 시련과 도전 끝에 실패하면 죽게되고, 폭포를 뛰어올라 강 상류에 이르면 또 인간과 짐승들에게 시련을 겪게 된다. 그것을 알면서도 고향을 찾아 연어들은 고향에서 후손인 알을 낳고 죽어간다. 모체의 희생은 새로운 생명체와 후손을 위한 고귀한 행위이다. 아마도 연어들에게 단순히 알을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 연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고, 미래사회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연어들처럼 시련과 참담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 그분들은 6·25 전란으로 고향에 가까운 속초에 피난 온 실향민들이다. 고향에 갈 수 없는 피난민들에게 고향은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다. 고향의 어머니 모습은 항상 그립고 보고싶은 절대적인 존재,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고향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기억된다.

아름다운 금강산, 명사십리 등 고향에 대한 아득하지만 생생한 추억을 갖고 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향, 그 고향의 추억은 피난민들에게 더욱 그립고 소중한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평화롭고 자유스럽게 살았던 피난민들에게 낯 설은 곳에서의 고향은 더욱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 온 사람들만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이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피난민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처가 되어 고통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북한은 무척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명나라의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조선에 조선 봉사奉使로 왔다 가면서 평안도의 연광정에 올라 큰소리로 쾌락라 부르고 ‘천하제일강산天下第一江山’의 여섯자를 자기 손으로 써서 현판을 만들어 걸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함경도의 만세교는 섬천강 위에 있는 것으로 정월의 담교의 풍속이 유명하고, 누각은 경치가 좋아 함흥읍의 전 경치를 바라볼 수 있어 평양의 연광정과 논할만한 곳으로 이 곳은 평야가 먼데까지 뻗쳐 넓고, 바다에 인접하여 풍토가 웅장하고 거칠고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또한 황해도의 황주, 봉산, 서흥, 평산, 안악, 문화, 신천, 재령 등은 풍속이 대체로 같고, 토지가 대단히 비옥해서 오곡과 목화에 적당하였다. 장산곶의 북쪽에 있는 금산사의 바닷가는 모래가 지극히 고와서 금색과 같고, 햇빛에 비치어 20리가 번쩍인다. 황해도에

는 해주의 죽천, 송화의 수회촌이 자못 시내와 산의 경치가 좋고, 땅도 역시 메마르지 아니하고 서쪽은 바닷가의 어염의 이익이 있어 참으로 살만하다. 금강산의 맑은 봉우리가 하얗고, 물과 돌과 못과 골짜기가 굽이치고, 기교함이란 도저히 모두 붓으로 기록할 수 없다.

평안도 산 속 고을들은 땅이 메마르고, 바다 주변의 여러 고을들은 자못 기름져 충청도 못지 않다. 밭을 말하면 산골까지에 있는 고을에서는 조를 많이 심고, 해안지방의 고을에서는 단지 콩과 보리만 심으며, 들판에 있는 고을로서 산과 바다에서 모두 떨어진 곳에서는 어느 작물이라도 잘된다. 그리고 평안도의 인심은 순후醇厚하여 제일이고, 함경도는 오랑캐와 접경되어 백성이 모두 굳세고 용감하며, 황해도 산수가 험악한 까닭으로 백성들의 기개가 강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언 반세기 하늘이여 땅이여 그대는 아는가. 부모, 형제 고향산천이 그 얼마나 그리운가를 고향! 그대 이름을 부르며 푸른 바다 위에 솟은 재추섬 절경의 물맛이 휴양지, 험준한 수호신의 봉수재 그리움에 지쳐 여기 외로운 영혼들 망향의 한이 되어 오늘날 고향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묘비에 이렇게 새겨놓은 재속초 삼호면민의 망향의 노래가 있다. 여기에 망향의 한을 달래며 통일의 그날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뜻이 고향의 뜻이기를 믿고 있다.

이처럼 북쪽의 산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 산, 바다, 평야 그리고, 강 등에서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음식 또한 다양하고 그 맛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풍속을 보면 담교놀이, 뱃노리, 북청사자놀이 등 북쪽유형의 놀이문화가 발달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향유되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고향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며 어린 시절 꿈을 키워왔던 피난민들은 더욱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2000년 속초문화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직업을 보면 농업 32.9%, 수산업 27.2%, 상업 17% 등으로 전형적인 농어촌에서 평범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피난민들이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차이의 의식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생활을 더 이상 공산주의체제에서 이어 갈 수 없기에 고향을 버리고 피난한 것에서 그들의 의식세계를 알 수 있다.

2. 피난 과정에서의 삶

어린 시절 아름다운 고향의 추억은 꿈에서도 잊을 수 없다. 고향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피난민들이 고향을 등지게 된 것은 자유로운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이었다. 우리는 피난민들을 통하여 자유의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유가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8·15 광복을 맞아 우리 민족은 희망과 기쁨으로 보다 변화된 미래사회를 꿈꾸게 되었다. 그러나 그 꿈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으로 동쪽끼리 비극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6·25 전쟁 전에 이미 공산치하에서 자유와 인권과 기본적인 생활이 유린당하자 남하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6·25 전란으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체제하에서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이 유린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월남하게 되었고, 특히 1950년 12월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UN군이 작전상 후퇴하게 되자 공산체제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 때까지 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남하하기 시작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6·25 전란 전에 이미 20%정도가 공산주의 아래서 탈출하여 남으로 피난하였다. 피난민들은 국군과 UN군이 북한을 다시 수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준비도 없이 입던 옷에 쌀 한 말 정도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피난할 생각으로 고향을 떠나 무작정 남으로 남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1950년 12월 8일 원산에서 보도로 남하, 당시 30세의 나이로 원산시장에서 쌀과 야채로 생업을 이어 갔고 누이4명과 3형제, 7남매의 가족구성에 각자 생업 때문에 각각 살아왔다. 이때 젊은 청년 20명이 남하하겠는데 리더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들과 함께 도보로 남하를 감행하였다. 북한유격군의 출현으로 길이 막히자 원산 송정리 물레방아 집에 숨어 있다가 주먹밥을 준비하여 야음을 타고 원산을 탈출하여 쉬지도 않고 밤길을 걸어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까지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천진까지 무사히 도착했다”⁶⁾

6) 임정순, 함남 원산시

언어라는 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민의 정을 느끼지만 피난민이라는 언어 속에는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연상한다. 언어는 고향인 강물에서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상류로 올라가지만 피난민들은 자유를 위해 고향을 버리고 남으로 남으로 이동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픈 것이다. 고향에서 함께 했던 부모, 처자와 이별하고 후일을 약속하고, 미래와 자유를 위해 끊임없는 시련이 시작되었다. 피난과정에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슬픈 것이었다. 그러나 조물주는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었다. 자유라는 말은 북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구하기에 그들은 자유를 찾아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피난민들은 돌아가기 위해 인내를 감내 한 것이다.

피난민들에게 삶이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면서도 고향과 자유와 가족을 위해 견디어내야만 하는 생활이었다. 언어는 고향인 강물에서 부모의 희생으로 먼 알래스카까지 여행을 하면서 다시 고향강물로 돌아 왔을 때는 많은 가족연어들이 적으로부터 희생되었듯이 피난민들도 고향을 떠나면서 떠난 자식 때문에 희생을 하게 되고, 피난 과정에서 처와 어린 자식의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속초문화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피난민들은 남쪽에 78.9%가 연고지가 없었다.

이것이 피난민들의 의식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그들이 피난하게된 원인을 보면 공산군의 만행을 피해서가 29.4%이고, 비행기나 군함의 폭격을 피해서, 그리고 치안단의 권유가 11.6%이고, 가족이나 동네분들의 권유가 11.7%에 해당된다. 이것에서 우리는 공산치하에서 그들의 만행이 얼마나 심했었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피난기간을 짧게는 3일에서 한 달로 일시적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80%나 된다. 그러기에 고향에 74.5%가 가족을 두고 월남하였다. 그리고 6·25 전란이후에 피난한 사람들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월 사이에 집중적이고 조직적으로 피난하였다. 이것은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고있던 11월말부터 1951년 1월 중순에 이르는 사이, UN군이 한반도의 일정한 선에서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⁷⁾

25만 명의 중공군의 추격으로 당시는 달아나는 것만이 만연되었던 시기에 모든 화력과 만행이 자행되자 피난민들은 자유와 살아남기 위해 혹독한 눈보라의 추위와 전란의 공포 속에서 남으로 남으로 이동하였다. 피난방법은 배로 피난한 것이 40%정도이고, 25%가 걸어서 월남하였다. 부두에서 서로 배를 타려는 피난민들의 모습은 참담한 것이었다. 그

7) 『한국전쟁사』, 육군사관학교, 일신사, 1987, 517쪽.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져 서로 찾는 울부짖음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혹독한 추위와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파도 속에서 배에 몸을 싣고 가족과 헤어져 서로 찾는 울부짖음은 참담하고 비참한 것이었다. 추운 겨울바다에 배에 몸을 싣고 남으로 남으로 이동하면서 침몰하는 배를 보기도 해결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자신들만의 배가 무사하기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때부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시련과 외로움을 인내하고 있다.

피난과정에서의 삶은 고통이었다. 몸과 마음, 모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삶이었다. 피난민들은 피난민들의 나름대로 욕망이 있었다. 그 욕망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처음에 피난민들은 정말 피난민처럼 살았다. 그 과정에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외로움과 편견 등은 보호받을 수도 없고, 자유로워질 수도 없었다. 피난민들에게 삶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UN군 측은 어려운 전시에 피난민 수용대책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견디어 낼 수 없는 것이면서도 견디어 내야하는 생활이었다. 고향에서 항상 함께 하던 부모, 형제, 그리고 처자와 떨어져 혼자 먹고살아야 하는 그 자체도 고통이었지만, 고향과 가족에 대한 보고싶다는 그 말보다 더 간절한 것은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외로운 것이었고, 이 외로움은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슬픈 것이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피난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였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국군이 후퇴하게 된 거지. 국군이 후퇴하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고 피난길을 나선거고. 온 가족이 나오고, 부자부부가 또 단신單身으로 몇 일이면 되겠지하고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반세기가 됐다 그거요. 나 부산에서 부두하역, 담배, 빵장사를 하면서 죽지 못해 살았어. 뭐 고생이야 어디 나만 한것인가. 다들 정말 힘들었으나 곧 고향간다는 희망으로 살아간거지.”⁸⁾

“국군이 복진하면 고향을 가는 들뜬 마음으로 복진통일을 믿는 피난민들은 내일이면 고향의 가족에게 갈까하고 속초항 바닷가에 머물러 살기시작한 세월이 이제는 복진통일이 거짓말로 남고 말았다. 삼하면 사람들도 창이배로 명태와 오징어잡이를 하며 동명항 근처에서 자리 잡고 내일이면 고향에 갈 몸 하나 의지할 판자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이다. 50년 전 고향을 떠나온 삼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속초시 동명동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움과 눈물의 고향을 가슴에 안고

8) 김연진, 함북 성진시

이표투리泥豹鬪鯉(진흙 밭에서 싸우는 표범의 기상)의 정신으로 강인하게 생활력을 발휘하는 함경도 정신으로 시민의 본보기가 되어 속초에 정착하였다. 억척같은 생활력이 강하면서 때로는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속초시민이 된 이도 많다”⁹⁾

“속초에 올라와 마땅한 사업을 물색하던 중 명태는 많이 잡히는데 북한에서 타고 온 창이배(범선)는 너무 크고 기동력이 없어 명태 연승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착안하여 선박 엔진 제작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로 15~20마력을 기준으로 단기통을 만들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았다. 그때 업체가 동방기계제작소였다”¹⁰⁾

“고향이 그리워 견딜 수 없어 1953년 11월 친구 강진구씨 도움으로 38선(검문소)을 넘어 속초로 왔다. 먼 친척의 도움으로 영랑동 소재 간장공장에 취직했다. (주)대양에 스카우트되어 설악산 소공원 조성사업에 참여, 속초지구의 중요공사를 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¹¹⁾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 평화를 사랑하기에 농촌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가 파괴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한적인 삶을 살았었다. 남쪽으로 피난 온 실항민들은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 고향사람들이 모여 사는 속초에서 서로 의지하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은 항구로서 동해안에서 수산업이 호황을 이루어 먹고살기에 용이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의 속초는 아주 초라한 어촌이었다. 이러한 어촌에서 생산 장소도 없고, 경제적 장소도 없는 현실에서 피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다를 개척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다의 개척이 오늘날 발전된 속초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었고, 속초에서 어업은 주요생산수단이다. 어업은 피난민들의 속초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피난민들에 의해 수산도시 속초가 형성되고, 오늘의 관광도시 속초로 발전된 것이다. 속초는 정녕 피난민들의 고생의 역사이다.

먹고살기도 힘든 경제적인 여건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외로움은 피난민들이

9) 김규택, 함남 흥원군

10) 임정순, 함남 원산시

11) 박승호, 함남 흥원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였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보다 더 간절한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고향 가까운 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마음으로 항상 아름다운 고향을 바라보았다. 아음(牙音)으로 세상을 울 줄 알았던 피난민들이었기에 세상의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피난민들은 죽음의 순간을 넘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 남은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피난민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강한 의지력과 검소한 생활양식이 그들을 자유로운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었다.

깊은 바다일수록 바다 속의 흐름을 표현하지 않듯이 그들의 희망을 속초에서 가슴속 깊이 품고 이 곳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살면서 발전시켜 왔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아픈 과거를 서술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 오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피난민들은 이 곳에 정착하면서 이곳 주민들로부터 편견을 받기도 했다. 그것은 피난민들을 앞에서 바로 보지 못하고 옆에서 단면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강한 의지력과 피난살이에서 몸에 밴 그 근검, 절약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길을 가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이루면서 속초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속초가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정이 가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피난민들이 이 사회의 배경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피난민들이 서로의 배경이 되었고, 그리고 피난민들이 속초의 배경이 되었다.

피난민들은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받았지만 서로가 배경이 되었고, 속초의 배경이 되면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이 고장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보다 좀더 나은 생활을 생각할 줄 하는 의지 있는 시민이다. 이제는 피난민 스스로 바로 눈앞에 있는 고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찾아 실천하고 있다.

이제는 그 삶의 의미를 이 사회의 발전에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의식하고,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였기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지금 피난민들은 속초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 그리고 민족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반공청년이 총살당했어요. 그들을 위해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우리한테 화해무드를 조성한 다는데 이제는 그 맺힌 것을 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 아직까지 애석한 점이 있고, 억울하고 분한 점은 많지만 온 국민의 바람이 남북한의 화해와 협조와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데서 한 민족이 다시 손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있습니까?”¹²⁾

피난민 후손들에게 부모들이 고생한 역사,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단합 그리고 결속, 친화, 단결 그리고 저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런 장이 되어, 우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유를 호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여기에 나왔으니깐 빨리 고향도 이제는 공산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 국가로서 자주 왔다갔다할 수 있으니깐, 거기 사람들도 나와 볼 수도 있고, 그런 체제가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¹³⁾

속초의 지금 이 모습은, 피난민 부모의 고생과 노력의 역사로, 백사장에서 삶의 터전으로 다져 놓은 사람들이 바로 실항민들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경건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후손들이 부모의 고생한 역사와 뿌리에 대해 긍지를 갖고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 크게 생산수단이 없는 속초의 현실에서 오징어를 잡아야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악천후를 무릅쓰고, 무리한 조업으로 1974년 10월 동해 대화퇴 어장에 오징어잡이 나간 수많은 어부들이 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태와 오징어잡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식을 공부시켜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었다. 그 결과 피난민들의 자제 중에는 훌륭한 인재로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속초는 피난민들의 배경이 되었듯이, 이제 속초는 피난민들의 삶의 역사에 의해 아름답고 사랑 받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연어에게는 연어의 길이 있듯이, 피난민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양식과 세계가 있다. 연어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 피난민들의 희생으로 이곳 속초가 더욱 발전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이다.

12) 박승호

13) 김연진



제2장 속초시지구 피난민의 체험기

[편집자 주]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어언 반세기, 이 무서운 세월의 긴 간극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멈추었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임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데올로기’가 이 시점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극이다.

두고 온 산하는 말할 것도 없으며, 혈육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분단의 장벽 앞에서 북녘 혈육의 피해를 의식한 나머지 체험담에 자유롭지 못하였으나, 후세대에 ‘나와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지면의 제약과 다른 사정 등으로 부득이 25인의 체험담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체험담 집필자의 원적도 시·군 단위까지만 명기하였다.

(배열은 가나다차레이다.)

거리의 그림쟁이로 생활 터전을 마련

- 미군 초상화 주문으로 근근이 피난살이 -

김광수金光秀 함남 함흥시/ 고성군 토성면

나는 1944년에 함흥 사범 심상과를 졸업하고, 그 해 4월 1일 평북 의주義州 육旭公립 학교 훈도로 부임하였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12월 23일 일본군 징병 1기생으로 모집되어 뜻하지 않게 일본 군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45년 2월 하라다 부대에 배속되어 중국 상해 부근 남통南通에서 남양군도 출전 대기를 하던 중 8·15 해방을 맞아 우리는 중국 중앙군에 포로가 되었다.

부대 내의 현승중 소위(전, 국무총리) 등 한국인 60여 명은 상해까지 가는데 배편이 없어 일본 사람들에게서 쌀 등 먹을 것을 빼앗아 연명하는 말 그대로 거지 생활을 하였다.

다음해인 '46년 3월에 배편이 있어 상해에 간신히 도착하였는데, 여기 상해에는 한국인 사병이 무려 1천5백여 명이 모여 귀국 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명 연암방(방직공장) 부대라 칭하면서, 한데 모여 살다가 당해 4월 23일 선편으로 출발하여 28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함경도 출신 15명이 행동을 함께 하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여 장춘동 수용소에서 하룻밤을 묵고는 동두천을 지나 한탄강을 넘어 전곡역에 도착하니, 붉은 완장을 두른 적군들이 검문을 하면서 일본 군복을 모두 회수하고는 노동 당사에 하룻밤을 가둔 후 풀어 주었다.

기차를 타고 함흥역에 도착하니, 그 날이 5월 1일 소위 메이데이 행사가 온 시내에서 한창이었다.

일제의 강제 징병을 당한 나의 일본군 생활은 용케도 전장에 나가지 않은 것만도 천운이었다. 부모는 마을 잔치를 열면서 기뻐하시던 그 모습들이 내일이면 팔순이 되는 오늘 까지도 선하며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는 운이 좋아서인가 보다.

당해 6월 15일 함흥 영정 여자 인민 학교 교사로 임명되었다. '47년 8월 학제가 개편

되면서 영정교가 함흥 제4 중학교가 되고 여기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음해 8월 평양 미술대에 입학하여 수학 중 6·25를 맞았다. 북한 당국은 당시에 우리 학생들을 남조선에 가서 점령지의 선무 공작 요원 노릇을 하는 준비차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고향으로 탈출을 결심하고, 대동강(철교는 이미 연합군에 의해 폭파되었음.)을 배를 타고 건너 기차칸에 숨어 고향 함흥 집에 도착한 것이 7월 6일이었으며, 이날부터 산속, 방공호 등에서 피신하는 생활이 되었다.

아군이 함흥에 진격해 온 10월 17일 도피 생활을 끝내고, 대한 청년단에 입단하여 총무 부장으로 활약하였다. 이 생활도 잠깐 아군이 후퇴하면서 12월 13일 국군 제1군단에 입대하여 흥남에서 L.S.T를 타고 철수, 20일 묵호(동해)항에 입항하였다. 나는 1군단의 무대에서 정훈부로 배속되어 우리 국군의 정규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52년 7월 하사(상등병)로 제대하였다.

남쪽에 아무 연고도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였다. 그때 마침 같은 부대 생활에서 알고 지내던 서울대 미대생이었던 김태, 전상수 동지들이 부산에 가면 미군들도 많으니 초상화를 그려 보자기에 그리하기로 하고, 우리는 거리의 그림쟁이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 셋은 그림 1점에 5달러씩 받고 열심히 그렸으나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다.

우리는 '55년 10월 일선 지구 강원도 양구楊口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옛 군 동지를 찾아가 거리의 화가로 자칭하면서 열심히 뛰어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초상화 그리는 생활은 정말 눈물겨웠다. 만행 격인 나는 미군 부대 철조망을 뚫고 간신히 들어가 손짓, 발짓을 섞어 가면서 간신히 주문 맡아서는 김 군과 전 군에게 넘기는 일, 그리고 몇 푼 벌어들인 달러를 깡패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워커 신발창에 숨기거나 항아리 안에 넣어 땅 속에 묻어 두면서 차곡차곡 모아 두던 일 하며, 두 동지가 복학한다고 떠날 때 허탈함은 우리 이북 출신 고아만이 겪는 슬픔으로 그 어디에 하소연 할 것인가.

이런 와중에서도 나는 피난길의 대한민국에서 2남2녀를 둔 생활이나, 부지 하세월인 피난 생활은 '81년에 나를 고향 사람들이 많은 속초에 오게 하였다.

속초에 미술 학원(중앙)을 차려 후진 양성에 온 정력을 바치면서 속초 예총 미술 협회 지부장, 속초 학원 연합 회장, 속초 예총 지부장, 강원도 문예 진흥 기금 운영 위원, 초대 작가 심사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0년 10월 8일 함경남도 미술인 협회 회원으로 민간 통일 운동에 이바지한 공으로

통일부장관(장관 박재규)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오매불망寤寐不忘-고향의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남매)은 어찌 할꼬-오늘도 통곡하노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주문진 · 포항 · 거제도 장승포로 이어지는 유랑

- 고향 가는 길이 가까운 속초로 가자 -

김규택金奎澤 함남 흥원군/ 속초시 청학동

나는 피난길에서부터 속초의 오늘까지 면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였기에, 여기 피난의 체험은 곧 우리 모두의 얘기로 하여 개략을 적어 보고자 한다.

진눈깨비에 삭풍이 휘몰아치던 '50년 12월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경의 삼호의 포구는 이수라장 그것이었다. 배를 타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감의 피난행렬은 창이배(범선) 잡기에 결사의 행위였다. 삼호면 청년단은 피난 수송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16척에 관내 종교인, 기업가, 지주, 상인, 교사 등 지식인 866명과 선언 96명을 승선하여 오후 4시경에 출항하였다. 이에 앞서 자기 배로 떠난 사람이 60여 명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삼호 부두를 떠난 지 8시간쯤 뒤였을 때 원산앞 바다에 도착하였으나 강풍에 파고 4m의 풍랑이 닥쳐 도저히 더 이상의 항해가 어려워 흥남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어두컴컴한 흥남 시가지는 주검의 폐허였다. 빈집(거의가)에 들어가 눈을 부치려고 이불을 들치면 시체가 밟히곤 하였다.

총소리가 마전리 쪽에서 들려 왔다. 추위와 공포의 밤을 지내고 날이 밝자마자 부두로 내달렸다. 피난민들이 허겁지겁 몰려 들어면서 엄마를 찾고, 아이를 찾는 절규의 도가니는 계속되었다. 다행으로 파도가 자면서 오전 10시에 출항하여 얼마만에 주문항에 입항하였다. 우리는 다시 포항으로 후퇴하였는데, 여기서 1개월이 지나면서 가지고 온 양식이 바닥이 났다. 청년단 간부들이 앞장서 국군입대를 권유하였다. 이렇게 하여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갔다. 이때에 심지어 나이를 올려 군에 간 사람도 상당수였다. 나머지 우리는 다시 거제도로 갔다.

삼호면민 2백여 명으로 미군 구호 단체에서 얻은 큰 천막 3동과 식당용 천막 1동을 장승포 아양리 해변에 치고 집단 생활을 시작하였다.

수용소 생활 1년이 지나면서 고향길이 멀어짐을 느끼고 각자 흩어지기 시작, 부산, 여수, 서울 그리고 죽변, 구룡포 등지로 떠났고 그래도 고향이 더 가까운 곳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주문진, 속초로 오게 된 것이다. 속초에 온 면민은 약 50여 세대로 동명동(등대밀)에 30여 세대, 청호동에 20여 세대가 모여 주로 어업과 건조업을 하면서 살아왔다. 피난길 50년의 세월은 1세대가 거의 타계하고 2~3세대를 맞았어도 오매불망의 고향 산천은 멀어만 가니 이 통한을 어찌하리.

속초의 면민들 중에는 특히 사업가 박승호씨, 경찰관 출신 노춘호씨가 제2의 고향 속초의 발전을 위해 헌신함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나는 '58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교직 생활 30년을 마감하고, 현재 속초 삼호면민회 회장으로 우리 면민들의 상부 상조와 결속을 다짐하면서 귀향의 그 날을 학수 고대 하고 있다.

야밤을 틈타 신포항을 탈출, 부산항에

- 청년 단원 74명, 일반인 90명과 함께 -

김남표 金南杓 함남 북청군/ 속초시 영랑동

나는 명태(건태)를 창이배(범선)에 가득 싣고 주로 포항에 가서 팔고는 남쪽의 포목 등의류를 사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파는 상행위를 하던 와중에 6·25동란을 맞았다.

당시 북조선 민주당 신포 2지구당 지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50년 7월 5일 밤 10시에 통행금지 시간을 기하여 체포당할 것을 알고 당일 오후 5시에 동료 12명과 함께 입산,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다.

10월 20일 국방군의 입성으로 하산하여 자치 위원회 홍보 담당으로 있으면서, 이어 대한 청년단 신포읍단을 창단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아군의 후퇴로 피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당해 12월 7일 남한에 선적을 둔 상선(금바다호)을 빌려 청년 단원 74명과 일반인 90명(본인 가족 12명 포함)을 싣고 야밤

을 틈타 신포항을 출항하여 닷새 만인 12월 12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부산항에서 가지고 온 얼마의 식량으로 선상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방위군 사관 학교가 개교된다는 소식에 청년 단원 전원이 입교하였는데, 나는 16단 사령부 정보 과장이란 직책을 맡아 활약하던 중에 '51년 4월 방위 사령부의 해체로 본의 아닌 군 생활을 마감하였다.(육군 중위 제대)

당해 6월 나는 강원도 장성 탄광에서 광부 생활로 끼니를 이어가는 처지였다.

2개월 가량 광부 생활을 하다가 고향 가는 길만 눈에 서려 광산을 뒤로 하고 북으로 북으로 향하여 고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속초에 와서 수산업을 하면서 50년의 세월을 다한 것이다.

제2의 고향 속초 생활에서 속초시 수협 총대로 부패의 온상이었던 당시의 수협을 정상화 시키는데에 일익을 하였다. 삼양 통상 주식 회사 속초 출장 소장('61년~'72년)으로 수산물 수출(주로 캐나다)에 힘썼다.

재속초 신포 읍민 회장('64년~'82년), 속초 지구 함남 도민 회장('82년~'84년)으로 내 나름대로 피난민들의 망향을 달래왔다. 신포 읍민 회장으로 있을 때 장사동 산 2번지에 향원 27,107㎡(8,220평)을 만들어 공동 묘지로 활용하고, 그것으로 실향의 한을 달래 주고 있음은 나의 제일 가는 보람으로 알고 있다.

부산항에 내린 첫 피난민이라 했지

- 1950년 12월 9일 동생, 매부와 함께 -

김연진 金然陳 함북 성진시/ 속초시 노학동

나는 해방이 되면서 민주당 성진시 총무과에 근무하던 중 6·25가 발발, 인민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집 천정 다락, 산 속의 방공호 등에서 숨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아군이 입성하면서 성진시 자치 위원회에서 일했다. 국군이 철수하던 50년 12월 8일 오후 4시 우리 자치대원 50여 명은 우리 집을 본부로 주둔하고 있던 학도병 중대원들과 함께 성진항에서 L.S.T를 타고 떠났다. 9일 오후 6시에 부산항에 입항, 하선하여 싸구려 하숙방에

들었다.

우리가 부산항에 온 제일의 첫 피난민이라고 하였다. 나는 동생 연우然祐, 매부 김철金喆과 같이 한 사람 하루 5백 원짜리 하숙 3일째 되던 날이었다. 해방되면서 월남한 함북 출신 청년회 광복만씨 등 회원 10여 명이 찾아와 같이 경남 도청을 방문하자고 하여 찾아가 구조 대책을 부탁하였다. 도청에서 부산시 영도 국제 극장에다가 1인당 가마니 2장씩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우리는 가마니를 깔고 덮는, 거지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가마니 생활 사흘만에 부두에서 군수물자 하역 작업이란 남한에서의 첫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1주일 후에 동생은 사진 기술이 있어 남포동 사진관, 매부는 경남 도청의 임시 정부 경비원으로 각각 취직되어 떠났다. 나는 부두 노동을 20여일 하고 나니 체력이 달려 도저히 더이상 일할 수 없었다. 수중에는 집에서 떠날 때 가지고 온 돈 중에서 쓰고 남은 5만 원이 전부였다. 같이 노동하던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담배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사제 담배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주로 평안도 사람들은 담배를 말아(제조)갖고 새벽 3시경에 시장에 나와 도매(한 갑 3원)를 하였는데, 우리(주로 함경도 사람)는 그것을 받아 소매(한 갑 5원)를 한 것이다.

1월의 그 추운 시장가에서 레이손 박스를 좌판으로 하여 열심히 팔았다. 첫날에 1백 갑에서 다음날 2백 갑으로 늘어나는 째짤한 수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며칠 후면 고향으로 갈 수 있겠지 하는 희망 뿐이지 저축이란 생각이 있을 리 없었다.

매일 저녁 벌은 돈으로 모여 앉아 소주타령이었으며, 또 방위군에 입대하여 먹지 못해 부기까지 든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것이 전부였다. 전쟁은 끝날 줄 몰랐다. 고향은 점점 아득했다. 우리는 봄이 오면서 저축을 하고, 좌판의 소매상에서 중간 도매상으로 늘렸다. 중간 도매상이란 사제 담배를 받아서 소매상(전국에서 모여든)에 파는 일인데 수입이 웬만하여 나는 창고에 20만 갑의 담배를 쌓아 두는 거상(?)이었다.

잘 나가던 나의 담배 장사도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게 되었다. '52년 9월의 어느 날 전매서 단속반에 적발, 하루아침에 알려지가 되었다. 빈털터리 피난민이 된 나는 염치 불구하고 수소문 끝에 찾아낸 부산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고향 친구 송보연宋寶連씨를 찾아가서 식객이 되었다. 식객 생활 3개월째 되던 날 이웃의 부산 토박인 김형철씨를 알게 되었다. 김씨는 당시에 부산 제2부두 안의 군 상점(P.X)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상점 배급 물자(주로 광목, 내의, 양말 등 피복류)를 받아서 팔아 이익을 나누자고 하여 나는 그렇게 피복 장사를 시작했다.

범일동 시장 상인들에게 도매값으로 팔기를 6개월, 기백 만 원을 저축하였다. '53년 9

월 부산진 부전 시장에서 피복류 노점상(드럼통 뚜껑을 바퀴로 한 손수레)을 차리게 이르렀다. 차려 놓고 열심히 돈벌이를 하였다. '54년 결혼(부인 정저옥)하고 이듬해에 조그마한 점포(판자로 만든)도 만들었다. 이 단란한 생활도 5·16 군사 정부의 판자촌 철거령에 의해 허물어졌다. 피난 10년에 다시 적수 공권인 나는 '63년 11월 5일 고향 사람들이 많다는 속초에 와서 돈(60만 원)을 빌려 갖고 중앙 시장에서 피복류, 식료품 도산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확실한 신용과 정확한 거래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하였다. '75년 새마을 운동에 참여, 중앙동 새마을 금고 창립을 선도하여 감사를 하다가 '81년에 이사장으로 피선, 10년간 역임하였다. 새마을 금고 속초, 고성, 양양 협의회 회장 및 연합회 대의원, 속초시 번영회, 설악 문화제 위원회 감사를 했고, 지금은 재속 함북 도민회 고문으로 어려운 고향 사람들의 자문에 응하는 보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기술 의용 공병 대원으로 금강산 진격까지

- 인제에서 고성 명파리간 도로 공사 완공 잊지 못해 -

김재성 金在聲 함남 단천군/ 속초시 동명동

6·25 당시 나는 함남 단천 군청에 임시 행정직인 적산 재산과에 근무 중이었으며, 국군이 북진해 오면서 국군 제1101 야전 공병 의용 부대에 입대하였다.

의용 공병으로 단천군 북귀면 기암리에서 정암진 간의 해안선 도로공사, 함북 명천군 주을 천교 복구 공사를 하던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수,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부대와 같이 홍남항에서 함정을 타고 삼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군 부령에 의해 경주로 이동하여 7일 간 체류한 후 포항을 거쳐 묵호와 강릉을 경유, 평창으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평창에서 적군의 저지를 위한 도로 차단 폭파 사업을 하는 도중에 포위되고 말았다. 포위 3일 만에 탈출에 성공하여 강릉의 본 부대에 도착하였는데, 이날이 '51년 1월 4일로 바로 1·4후퇴 일어서 주먹밥 한 덩이를 겨우 얻어먹고는 다시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5일 만에 울진군 매화리에 도착하여 그 후 50일 간 주둔하게 되었다.

수산리에서 군용 비행장 조성을 끝내고 강릉 비행장 복구, 평창에서 연곡간 군사 도로 공사 개설 중 적군의 대공세로 철수 명령을 받고 강릉 왕산면을 거쳐 백봉령을 넘어 옥계천에 체류하고 있는데, 일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으로 전 공병이 일반 전투병으로 출전하여 금강산 앞까지 진격하였다.

다시 공병의 원대 복귀 명령을 받고는 이후 인제 관대리, 고성 명파리간의 도로 확장교량 건설 공사를 완공하였다.

'53년 3월 제한전에 임하면서 기술 의용 공병대 해체령에 따라 '53년 4월 1일자로 제대하여 양양에서 살다가 다음 해 5월에 보다 고향이 가깝고, 고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속초에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향 가는 그날까지 먹고는 살아야 하겠기에 명태, 오징어 등 생선 장사를 하면서 연명하기 시작하였다.

'55년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였다. 지역구의 총무 부장, 지구당 위원장, 중앙당 상무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신익희 선생의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경찰에 체포되어 갖은 시련을 겪으면서 민주화에 앞장, 야당 생활 42년간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영북지구 단천 군민회 회장(제5대)을 역임한 것이 고향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하며, 망향의 한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북청 소년이 속초에 정착하기까지

- 폭설과 하늬바람의 그 모진 피난길 -

김철섭 金喆燮 함남 북청군/ 속초시 조양동

신창 중학교 1학년 때 6·25를 맞았다. 폭설과 하늬바람이 세차게 불던 12월 7일 오후 5시 나는 아버지와 고모부 등 친척 3명 모두 5명이 범선(창이배)을 타고 피난길에 올랐다. 이날 만춘 부두에서 범선 6척이 같이 떠났는데, 우리가 탄 배에는 42명이 승선하였다. 높이 3~4m의 거친 파도에 배는 제자리 걸음하면서 항해하기를 이틀째 되던 새벽녘이었다. 경비정이 나타나 정지 명령을 하였다. 우리는 이제 파도가 아닌 인민군에 의해

수장되는구나 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군 경비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그들이 우리를 속초항으로 무사히 예인시켜 주었다. 속초항에 정박한 지 1주일 만에 후퇴 명령이 났다. 다시 떠나 기향한 곳이 주문진항인데, 이때 항구에 모여든 피난민선이 아마 2백 척이 넘는 것으로 기억된다.

기향한 곳에서 보름 후 또다시 후퇴 명령으로 인해 다음 기향한 곳이 후포항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선원 이외에는 하선하라고 하여 우리는 모두 내려서는 남쪽을 향해 도보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고향에서 농사 밖에 몰랐던 우리는 더욱이 겨울철이라 달리 할 일이 있을 턱이 없었다. 구걸 행각 1개월 만에 포항에 닿았다. 포항 천지가 피난민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래도 같은 피난민들이 운집한 곳이라 살아 보자고 눌러 앉았다.

죽포시장 모퉁이에 가마니 움막을 치고는, 문전 결식 1주일 만에 피난민 수용소(포항 초등학교 자리)에 들어갔다. 여기서 아버지는 부두의 L.S.T하역 작업을 하였고, 나는 시내의 집집을 돌면서 밥을 얻어 오고, 또 농촌에 가서 보리쌀, 감자 등을 구걸하였다. 얻어 온 밥에다가 보리쌀, 감자 등을 넣어 다시 죽을 만들어 먹었다. 하루는 땀감을 위해 산에 가서 가랑잎을 긁어모으는 데 돌맹이 같은 것이 손에 잡히면서 ‘피’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수류탄이었다. 불발이기에 천만 다행이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하다. 나는 아침에는 밥 동냥, 낮에는 담배, 엽장사를 하는 등, 다음에는 죽도 시장에서 빈 깡통으로 세숫대야, 두레박, 물그릇, 쌀통 등을 만드는 소위 깡통 그릇 공장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이때 하루는 백골 부대 군인을 가득 태운 L.S.T가 속초로 이동 중 포항에 기향하면서 군인들을 잠시(약 4시간 가량) 하선 시켰는데 장사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나는 마른 오징어를 팔았는데, 한 축에 2백 원짜리를 2천 5백 원씩 무려 열 축이나 팔아 거금을 쥐고는 좋아라 깡충 깡충 뛰던 일도 기억이 새롭다. 아버지께서는 부두 노동이 너무나 힘들어 도저히 못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포항 생활 6개월 만에 고향 사람들이 많다는 삼척 정라진항으로 떠났다. 그런데 정라진항에서 이틀 만에 아버지가 징용에 차출되어 설악산 전투에서 2개월 가량 포탄 운반 등 노역을 하셨다.

아버지가 정라진항으로 다시 오자마자 우리 부자는 장티푸스에 걸렸다. 사경을 헤매기를 40여일 만에 하늘이 도와 살아났다. 목숨이란 정말 끈질긴 모양이었다. 우리 부자는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는 고향이 더 가까운 주문진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주문진에서는 제일 쉽게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란 고기잡이인 데 농사 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농촌에 가서 머슴이라도 하자고 하여 찾아간 곳이 강릉시 사천면이었다. 산대월리 순포동 부잣집(주인, 최하집崔夏集)에 들어갔다. 소먹이, 땀감 나무하기, 새끼, 가마니, 명석 짜기, 인

분통 나르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이 모두가 머지 않아 고향으로 갈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그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참아 낸 것이었다. 그러나 귀향의 꿈도 '53년 7월 27일의 휴전 협정으로 산산조각이 났으니, 고향의 어머니와 두 동생(남매)을 목놓아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고향 길이 더 멀어지면서 머슴살이도 더 지겨움이 었다. 한 발짝이라도 고향길 가까운 데로 가자 하여 주문진항에서 홀병부의 저인망 선을 얻어 타고 속초로 온 것이 '54년 2월 8일이었다.(당시 38선 검문소를 통과하기 힘들어 선원으로 가장하였음). 속초에 와서 처음 본 것 중에 수복탑을 세우기 위해 벽돌을 찍어서 말리던 것이 기억이 난다. 아버지께서는 서투른 배타기와 오징어 말리기를 하였고, 나는 미시령에 가서 땔나무를 하여 팔아 끼니를 이었다. 그때 벌채 단속이 심해 새벽 3시에 집을 나가 밤 12시에 들어오는 참으로 나날이 힘이 들었다. 명태낚시줄 가리기, 미끼 끼우기 등 나의 손은 갈구리 저리가라였다.

그러다가 1군단 홀병부에 소년 심부름꾼으로 들어갔다. 이때 속초 야간 중학교에도 다녔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생활도 1년 만에 군대가 이동해 가면서 끝이 났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기를 2개월쯤 해서 양복점에 들어갔다. 청소 등 온갖 고된 일을 마다않고 열심히 일하였다. 틈틈이 바느질 기술을 익히느라 하루 3시간 잠이 고작이었다. 이 같은 노력의 덕으로 1년 만에 양복 기술자가 되었다. 속초 시내에 있는 기공 23명을 모아 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을 하였다. 세월은 흘러 '62년 말 노임 인상 투쟁에 앞장서면서 퇴출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나의 양복점 경영이 시작된 것이다. 중앙동 함일상회 3평짜리 한 칸을 얻어 “제일라사”라고 간판을 걸었다. 양복점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이 집을 매입하고 후에 늘려 갔다. '79년에 가게를 정리하였다. 나의 억척 같은 피난 생활속에 '66년도에 고금옥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으나 아버지는 이 손자들의 피어나는 모습, 그리고 고향의 아내와 두 자식을 끝내 멀리한 채, 94년 타계하고 말았으니 이 통한을 어찌하오리까. 아버지의 영혼을 묻은 속초, 이제 이 한 몸 또한 여기에 묻어야 하는 숙명이기에 내 고장에 대한 봉사가 아니었던가. 속초 청년 회의소 회장('79년), 강원도 육상 경기 연맹 재정 이사('82년), 속초 중학교 육성 회장('84년), 속초 지구 함남 도민 회장('98, '99년), 속초 평통 자문 위원(현)으로 조그마한 성의나마 다하면서 내 고장 속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세 소년으로 속초에 정착

- 이제 고향이 된 정든 땅, 이 고장의 붙박이로 -

동문성董文星 함남 단천군/ 속초 동명동

5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때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워진다. 하루 아침에 누대에 걸쳐 살아 오던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50년의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지만 해수욕은 고사하고 바다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는가 하는 데만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B29기의 폭격 소리와 함포사격 소리를 식별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름이었다. 마을 게시판 지도에서 대구 북쪽 왜관에 꽂혔던 인공기가 거의 두 달을 머문 채 있을 무렵, 10월의 어느 날 우리 고향 단천에 국군이 입성하였다. 수도 사단으로 태극기와 UN기가 역사(용각역) 등에 나부끼면서 세상은 한 순간에 바뀐 것이다. 그때 숨어 살던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환희의 물결이었다. 세포 위원장(공산당 리당 위원장) 등 소위 빨갱이들이 줄줄이 붙잡혀 왔다. 우리 아버지는 치안대 일을 맡으면서 매우 바쁜 나날이었다. 그러나 자유는 한순간, 후퇴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 여섯 식구는 이불 두 채와 쌀 두말 그리고 재봉틀 1대, 양은냄비 1개만을 짊어지고 십리 밖의 정석진 나무에서 뱀선을 얻어 타고 피난길을 떠났다.

나의 첫 피난길이 주문진 항구에 닿기까지는 1주일도 채 안되는 시간인데도 한 달도 더 넘는 힘겨운 항로였다.

주문진항에는 피난선으로 배를 댈 틈이 없었고, 육지에는 그야말로 인산 인해였다. 우리 가족은 주문진 등대 부근의 함씨 성을 가진 집 방 한 칸을 얻어 살기를 열흘도 채 못돼 다시 남행길을 재촉했다. 삼척 정라진에서 하선하여 겨울을 나고는 다음해 봄에 국군의 북진을 따라 다시 주문진에 왔다. 중공군의 춘계 공세를 막아낸 국군은 승승장구 고성 남강까지 북진하였지만, 전쟁은 다시 교착상태로 간헐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51년 11월 3일 38선 검문을 피해 산을 타고 120리 길의 속초에

오게 되었다. 속초에서 마침 폭격을 맞아 뼈대만 남은 집 한 채를 찾아 군부대에서 버린 쌀 가마니를 주워다 지붕과 벽을 만들어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나는 양양 수산 관리소에서 급사로 일하는 행운을 얻었다. 하는 일이란 '급사'란 말 그대로 사무실 청소와 직원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과 직원들의 손이 달리면 어선들에 출항계를 발급해 주는 일이었다.

어부들에게 친절히 대했더니 저녁에 부두에 나가면 명태, 양미리 등을 푸짐하게 건네주어 이 생선을 팔려서 팔아, 온 식구의 생활을 도왔다. 전선은 한 치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치열함이었다. 국군은 월비산과 남강 전투에서 밀고 밀리면서 술한 사상자를 내며 '52년의 겨울 해를 넘기고도 속초앞 바다에는 미군 보급 선단이 밀려들어 불야성을 이루었다.

덴마크 병원선과 육군 이동 외과병원 등에는 부상병을 나르는 앰블런스의 굉음이 밤낮으로 이어지더니 '53년 7월 27일 휴전과 함께 소리를 멈춘 것이다. 우리 귀향의 꿈도 접어가는 순간이다. 나는 급사에서 1군단 문서체의 송원으로 승진되었으나, 나의 향학열은 이 직장을 사직해야 했으며, '53년 9월 속초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면서 속초에 정착하게 되었다.

속초 중학교를 졸업, 속초 고등 학교에 진학, '57년에 졸업하고 서울의 중앙대학교 법대 행정학과에 진학하는 기쁨은 얻었으나 부모님의 어려운 뒷바라지와 힘겨운 고학은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몰랐다. '61년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였으나 그해 일어난 5·16으로 각종 규제와 어수선한 사회 환경으로 그 당시 취업이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대학 시절 방학이 되면 집에 내려와 두 동생과 리어카를 빌려 펄감을 마련해야 했고, 돈이 되는 일이면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학은 졸업하였으나 시련은 더욱 가중되었다.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무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후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의 기회를 잃고 있는 세대상은 안타까움에 앞서 심란함이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보다 그 몇 배나 더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실업을 면하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노동관에 뛰어들어 지금은 그 회사가 없지만 동중 토건의 영북 농지 개량 조합 건물 신축 공사장과 속초항 남쪽 방파제 축조 현장이었다.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등짐으로 지는 일과 리어카로 자재를 운반하는 잡역이었다. 어떤 일이라도 일거리가 끊기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다행스러운 시대였다. 정중동으로 몇 년을 보낸 군사 정부가 신문사의 입사 기회를 열었다. '63년 5월 '경향신문사'에 입사, 제2

사회부에 배속되어 언론에 입문, 신문 기자로서 발을 딛게 된다. 그 후 '66년 6월 '조선일보' 사회부로 옮겼으나, '80년 신군부는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언론계에 칼을 뽑았던 그 시절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에 조선일보사를 등지고 사회에 동맹이쳐졌다. 그렇다고 좌절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환경에는 적응하기 나름이라는 체험은 곧 나의 소신으로 '80년 이후로는 지역에서 속초시 재향 군인회 회장직과 대한 민국 재향 군인회 안보 전문 위원직에 위촉되었고, 봉사 단체 국제 로타리에서는 '속초 클럽' 총무와 회장, 지역 총재 특별 대표와 지역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모교인 속초 중학교 및 속초 고등 학교의 동창회 회장을 맡아 모교 발전에 미력함이나마 일조하였으며, 피난민 세대로서 영북 지구 단천 군민회 회장, 영북 지구 함경 남도 도민회에서는 수석 감사와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필하며, 도민들의 상호 유대와 권익을 위한 일에 진력하였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던 가운데 세월은 흘러 '90년대가 다가서고 있었다. 지방 자치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었고, 이에 꿈을 펼칠 요량으로 '89년 봄, 모교 중앙대 사회 개발 대학원에 진학, 행정학(지역 사회 개발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아 기반을 다졌다.

대학원 과정에서 단 하루의 결석도 없이 1주일에 두 번씩 출석함으로써 4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받는 등 대학원장으로부터 2번 열학패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공부를 잘 했다고 보다 왕복 600km를 넘는 통학 길에 단 한 번의 결석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어진 것 같다.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95년 6월에 실시된 민선 속초 시장에 출마하여 6명의 후보자와 겨룬 민선 1기 시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98년 실시된 민선 2기를 맞아 2기 시장에 다시 출마했으며 3명의 후보와 겨룬 결과 민선 2기 속초 시장에 당선되어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 속초에 부모님의 뼈를 묻었고(단천 동산), 또한 이곳에서 고향 후배인 아내를 맞아 슬하에 두 아들과 만자부에 만손자를 두고 있다. 15살 단천군 소년이 포성이 은은히 울리는 이곳에 정착한 후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을 불박이로 살아오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월남 동포 모두는 이제 속초가 고향이나 다름없이 정든 곳이 되었다.

거제도 수용소 생활 군수 하역 노무자로 전전

- 이때의 노동은 오늘에 나를 있게 한 자산 -

박승호朴承浩 함남 흥원군/속초시 노학동

함남 흥원군 삼호면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8·15 해방을 맞았으며, 원산 수산 전문 학교 때 6·25가 발발하였다. 12월 국군이 후퇴하면서 나의 피난길이 시작된 것이다. '50년 12월 19일 국군이 함흥까지 후퇴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졌다. 삼호 대한 청년단은 비상 대책위원회를 급조하여 피난 대책에 나선 것이다. 밤을 새면서 16척의 장이배(범선)를 모아 선단을 조직하고는, 청년 단원 3백여 명을 포함하여 1천 명 가까운 면민들을 싣고 20일 오후 4시에 삼호항을 출항, 한겨울의 차디찬 하늬바람을 타고 높이 3~4m의 검푸른 바다에 내 던져진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서호진에 기항하였는데, 여기에는 L.S.T 몇 척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서로 올라 타려는 피난민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L.S.T에서 “삼호 사람 타시오” 하는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방송을 한 사람은 해양 대학(군산)을 졸업한 항해사인 고향 선배 이정섭씨였다. 그러나 워낙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가 찾아 타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L.S.T를 탄 사람은 30명 내외인 줄 안다. 삼호항을 떠난 지 나흘만에 포항에 도착하였다. 포항에서 청년 10여 명은 해병대에 입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산항 거제도 수용소에 입소되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서유탉 등 친구 4명과 같이 수용소에서 2개월 되던 날, 부산항 4부두에서 군수하역 노무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의 노동생활은 오늘의 강인하다고 자부하는 나를 있게 한 동기였다고 생각한다. 부두의 노무자 합숙소라는 것이 학교 교실 크기의 판자집이었는데, 30~40명이 한 방에서 기거하는 생활이었다. 천장에 새끼줄을 치고 잘 때에 옷을 걸쳐 놓는데 자다 보면 얼굴에 이가 뚝뚝 떨어지는 저지생활이었다. 런닝을 빨래 하면 등쪽이 땀에 젖어 구멍이 뚫어졌다. 나는 고향에서 농촌 학생들의 기운 옷을 입은 것이 이상하다 못해 신기하기까지 한 것이, 이렇게 가난해 옷이 낡아 헤어져 기웠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고는 잘 살았던 부모의 은덕이 새삼 느껴졌다. 나는 이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대연동의 유엔군 묘지 작업장을 찾았다.

묘지 관리 작업장에 새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송장 취급장이었다. 유엔군 전사자의 시신을 가매장하고 또 본국 유족에게 보내는 일이었다. 나의 송장 다루기 생활도 2년이 흘렀다.

다음은 부산시 우암牛岩동에 있는 미 병기창 수송부 타이어 수리부에 용케 들어가 2년 여의 생활을 하다가 원산 친구(강진규)와 같이 얼마의 저축금을 갖고 부산 시내에 나가 주류 도매상을 하여 2년 만에 3백만 원이란 거금을 쥐게 되었다.

우리는 돈벌이에 재미를 부쳤다. 통이 커졌다. 주문진에 와서 마른 명태(건태)를 사서는 부산에 가서 팔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이 탈이었다. 겨울에 덕장에 걸어서 말린 명태를 부산에 보내는데 말린 명태가 사실은 덜 마르고 얼려 있는 것이 더운 지방인 부산에 가서는 녹아서 수산 시장 좌판에 가면 반쯤 썩은 명태가 되었으니 반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3번을 당하니 명태 장사 5개월 만에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이다. 다시 거지 피난민이 된 것이다. 마침 외사촌형(박이빈)이 속초에서 간장 공장을 하기에 죽어라 하고 여기에서 3년간 일하다가 같은 노동팔이면 서울이 낫다 싶어 서울로 떠났다. 이 해가 '59년이었다. 서울 품팔이를 하다가 '61년 5·16혁명이 나면서 서울도 살기 힘들어 제2 고향 속초로 다시 오면서 선배(김병호)의 주선으로 속초 등대 공사를 시공 중이던 동중토건에 들어가 공사 현장 십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회사가 부도를 당하여 또 직장 생활 터전을 잃은 쓰라림이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강릉 노암 초등학교 부지 정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 (주)대양산업에 스카우트되어 설악산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오늘의 사업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오직 성실과 근면을 생활 신조로 하여 노력한 덕이라고 생각한다.

부친('69년도 작고)과 같이 17세 때 월남하여 손정원孫正媛과 결혼하여 아들이 대학원을 나와 성실하게 일함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자부해 본다. 20여년간 10여 명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으며, 대학생 4명에게는 익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향에서 6·25를 전후해 같이 반공투사로 활약하다 먼저 가신 고향의 학우 김병선 군 등 7명을 위한 위령탑 건립에 큰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오늘의 이산가족 상봉 소식 때면 고향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을 보고 싶은 몸부림은 나만의 한일까.

내 생전에 만나 보려는지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학생 자치대를 조직, 마을 자치대를 도우며

- 산에 움막을 치고 피신, 강제 징병을 피해 -

박정일朴正一 함남 정평군/ 속초시 조양동

내가 정평 고급 중학교 3학년을 다닐 때 6·25사변을 맞았다. 인민군 강제 징병이 시작되었고, 나는 징병을 피해 도망 다녔다. 집에서 20km 떨어진 산 속에 움막을 치고 피신 생활을 하였다. '50년 10월 아군이 진격해 오면서 산 속에서 내려와 학생 자치대를 조직하여 대원 40여 명과 같이 마을 자치대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이 후퇴함에 따라 12월 17일 아버지(박창영), 매형(김창학) 그리고 대원 40여 명과 같이 고향에서 범선(창이배)을 타고 피난길에 나섰다. 주문진-묵호-삼척 정라진-죽변-후포항에 도착한 것이 '51년 1월 30일로 기억한다. 우리 대원들은 후포항에서 하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 매형과 같이 경북 영덕군 변곡면 백석동이란 어촌에 닿아, 고기잡이, 빨감하기, 머슴 등 정말 힘든 생활을 하였다. 이 같은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 1개월째 되는 때에 수도 사단에서 군속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매형과 같이 삼척 정라진에 가서 수도 사단 군속(통신대)에 입대하였다. 우리는 부대와 같이 북진하여 북고성 난간에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전세는 여기에서 피아가 교착 상태로 고향을 눈앞에 두고 북진은 멈춘지 오래였다. 마음은 조금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51년 6월 미극독 사령부 소속 8240부대(속초)에 입대하였다. 물론 고향을 빨리 탈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나의 8240부대의 피난 생활은 어찌 다 표현하리요. 첩보를 위해 사선을 넘은 것이 수십 차례, 내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부대가 '54년 4월 해체되면서 고향의 꿈은 깨지고 문전 결식의 생활은 또 시작된 것이다. 그럴 것이 8240부대원은 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군 기피자로 취직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나는 '55년 7월 국군에 지원 입대하여 2사단 의무 중대에 배속을 받게 되었다.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한 덕에 별 탈 없이 '58년 7월 만기제대 하였다. 제대 후 바로 고향 사람들이 많은 속초에 정착, 오징어, 명태 건조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다가 '73년 주유

소(조양)를 차렸다. 마침 속초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시공 업체인 동화 건설의 운반 차량에 기름을 넣어 주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까지 신용을 제일 으뜸으로 생활한 덕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다고 자부해 본다. 피난 생활에 딸을 낳아 출가시켰고, 속초 여중 육성회장, 자유 총연맹 속초시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58년에 맡은 속초 지구 정평 군민 회장을 오늘까지 하고 있다. 군민 회장으로 군민회 공원 묘지 4,959(1,500평)와 1천만 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매월 1일 군민 간담회와 매년 5월 정기 총회를 가지면서 망향의 한을 풀고 또한 통일을 다짐하고 있다.

흐르는 눈물, 성진역의 이수라장

- 총소리와 폭설은 더욱 피난길을 재촉하였지 -

박종삼朴鐘三 함북 성진시/속초시 동명동

12월 8일 성진 시내에는 아침부터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오전 10시까지 성진시 자치회(회장 이승기)에 집결하라는 시달이 내려졌다.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올 희망을 안고 일시 철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사단 최종 후퇴 열차가 성진역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무개차에 성진시를 비롯한 북쪽 자치회 회원들과 함께 승차했다. 열차가 움직이며 애국가 합창이 누구의 지휘도 없이 슬프게 들려졌다. 뺨에는 실새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성진역의 이수라장 같았던 양상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승차 못한 사람들과 가족들의 아우성, 무단 승차를 저지하려는 위협 총소리! 눈은 바람도 없는 하늘 아래 계속 내리는데... 얼마나 뻑뻑이 서 있는지 소변도 서 있는 채로 하는, 서 있다기 보다는 끼여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인 12월 9일 아침 8시경 서호진역에 도착했다. 흥남 부두쪽을 내려다보니 L.S.T를 기다리는 피난민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해변에 운집해 있었다. 눈은 멎었으나 바람은 세차게 불었다. 나는 서호 초등학교 내 주둔하고 있는 제1군단을 찾아갔다. 성진에 제1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 자주 만났던 공병부 최형선 대위를 만났다. 최 대위의 도움으로 수도 사단 공병 대대에 가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L.S.T로 철수할 준비 작업을 도왔다. 함

정에서 발포하는 포성은 밤중에도 밀려오는 중공군을 향해 귀가 아플 정도로 터지면서 들려 왔다. 목호에 상륙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부대가 이동하면 그때마다 5만분의 1지도를 5000분의 1로 확대하여 원도를 만들고, 청사진 감광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2m×2m 정도의 크기 도면이 완성되면 대대장을 거쳐 사단 작전실에 게시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 부대(1군단)는 '51년 10월 지리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나는 고향 가까이를 떠나기 싫어 속초에 눌러 앉았다. '65년 건축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나의 본 직업을 찾게 되어, 그 해 10월 중앙동에 처음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건축 문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설악산 숙박 집단 시설에 참여했던 일, 거진읍 해안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병행되는 재건축 신축 도시를 형성했던 일들이 기억에 새롭고, 목조 건축만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지양하고, 시멘트 벽돌집을 짓도록 적극 홍보한 일, 그리고 7개 벽돌 공장 대표들을 사무실로 초대하여 혼합 기계(믹서)를 구입, 시멘트와 모래의 혼합을 기계화 하도록 하여 조기에 실천하게 되었음은 나의 숨은 노력의 보람이라고 자부한다.

속초 축구단, 조기 축구단 창설에 이어 전국 조기 축구 대회를 3차례 주관하는데에 앞장 섰으며, 영북 지구 함북 도민회 창립과 장학회 육성을 주도하고 또한 교회 인사 12명으로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1년여의 노력 끝에 속초 기독 청년회(YMCA) 탄생('91년 5월 18일)에 노력하였음을 속초 시민으로서 자랑으로 삼고 싶다.

울며 헤진 흥남 부두, 그 아비규환

- 사흘 만에 주문진항에 도착, 다시 포항으로 -

박필일朴弼驥 함남 함흥시/속초시 중앙동

8·15 해방과 6·25 사변은 부모와 7 남매를 이산 가족으로 만들었다.

우리 집은 대지주라 하여 토지는 물론이고, 집까지 빼앗겨 온 가족이 한지에 내동댕이쳐졌다.

큰 누님과 만형 설일雪驍은 공산당에 쫓겨 '46년에 월남하였다. 아버지와 둘째형 수일秀驍이 노동팔이를 하면서, 우리 가족은 나날을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그 없는 살림에서도 학교를 하루도 빠짐없이 결석하지 않고 향학의 일념에 열성으로 다녔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는 제 정신이었던가 싶다. 물론 부모님과 둘째형의 덕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끝내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이 아들은 불효 막심하니 이 죄를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

합흥 제2 고급 중학교 1학년 때 6·25사변을 당하면서 모두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산속으로 피난 다니는 생활이 매일같이 계속 되었다. 아군이 진격해 오면서 둘째형이 마을치안 대장을 하던 중 아군의 후퇴와 함께 나는 둘째 형님과 같이 10월 15일 홍남 부두로 내 달렸다. 홍남 부두의 인산 인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오후 3시께부터 배편을 찾는 것이 다음날 아침 7시경에야 경찰 가족 60여 명이 탄 배(목선)를 발견하고는 같은 경찰이라고 우겨대면서 간신히 동승하는 행운을 잡았다. 타고 보니 배 밑창에는 쌀 가마가 가득한데 모두가 그 쌀을 깔고 앉고는 이 배에 타고 있는 한은 끼니는 문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선뜻 들었다. 아마 이들 내내 굶었던 탓에 쌀을 보고 든 느낌이었으리라.

우리가 타고 있던 쌀 배는 사흘만에 주문진항에 입항했다가, 이틀 후 아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이 또다시 포항으로 향했다. 포항에 도착한 것은 중간에 후포항 등을 거치면서 아마 열흘 후인 듯 싶다. 형님과 또 시인 모운숙 선생의 사촌오빠라는 모학보씨, 셋은 포항 시청에서 정해 준 피난민 임시 수용소에서 1주일을 묵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대구에 일자리(노동)가 있다고 하여 그곳에 가 보니 정말 수많은 사람 속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있을 리가 있었겠는가. 우리는 대구 양키 시장 곁에 허름한 하숙집을 얻어 형님이 허리띠에 묶어 가지고 온 돈으로 근 한달 가량을 소일을 하면서 지냈다.

이때에 형님은 고향 약혼녀가 거제도에 피난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에게 10만 원을 주고 거제도로 떠나고 말았다. 나는 만형이 부산에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학도 의용군 지원자 수송차에 겨우 타고는 부산으로 향하였다. 부산 영주동에서 고향의 지인을 만나니 형님이 계시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형님과 만 5년 만에 상봉을 하는 행운을 맞이하였다. 당시에 형님은 국도피복회사의 지배인으로 계셨다. 나는 정말 행운아였다. 형님은 나를 피난 온 서올대 사범대 부속 고등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다. 그 후에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는 둘째 형님이 계시는 속초에 와서 십자 약국을 개업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세의 동안이 두 아들과 초등 학교 6학년의 손녀를 두었으면서도 반세기의 피난민이라니 이런 한스러움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속초 라이온스 클럽 창립, 속초 약품 판매 협회장, 속초 설악 신탁 이사장, 중앙동 예비

군 막사 건립, 시가로 화단 만들기 등 나름대로 사회 봉사를 해 왔으며, 여생을 사회 봉사에 보다 헌신하며 제2 고향 속초 건설에 힘이 되고자 한다.

아바이 마을 피난민들과 고통을 함께 더는 일이 고향에 묻힌 아버지의 뜻을 대신하는 효도가 된다면 더 없는 고마움이겠다.

“성진까지만 갔다 오면 됩니다”

— “할아버지, 그간 안녕히 계십시오” —

변서운邊瑞雲 함북 길주군/ 속초시 동명동

'45년 11월 1일 천도교에 입교와 함께 청우당에 입당, 장백면 종이원에 근무하다가 '48년 청우당 길주 군당에 입당, 노동당의 은근한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다. 우리 마을에는 라디오를 갖고 있는 집이라곤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늘 할아버지 친구들이 찾아와 서울 중앙 방송 청취로 노동 당원들의 감시가 매우 심했다.

당시 우리 고향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함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47년 1월 1일 갑오 동학 혁명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눈이 십 센치 이상 깔렸는데도 수천 명의 교인과 중·고등 학생들이 악대를 앞세우고 시가 행진을 하였다. 이 같은 행사를 보고 불교, 기독교인들이 내년에는 자기들도 참가하겠다고 하여 승인되었으나, 민청에서 중단시켜 버렸다.

그 해 5월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고려 학생 동맹을 조직함이 탄로되어 여러 학생이 옥살이를 하였거나, 처형되었다. '48년에는 김구 선생이 이북에 들어온다고 하여 청우 단원들이 환영 행사를 준비하다 발각되어 체포 또는 총살 당하였다.

나는 '50년 6·25 바로 전 인민군 입영 신체 검사를 두 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시력을 속이고 불합격 되었으나 1주일 후에 또 영장이 나와 이번에는 무릎을 재에다가 오줌을 섞어 붙여 상처를 낸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 군당 사무실에 제출했다. 3일 후 재신체 검사를 받으러 마음놓고 갔더니 심사 위원장인 동네 이장이 “나가서 입대 통지를 기다려” 라

고 하였다. 이것은 분명 합격이란 말이다. 나는 검사장을 나오면서 군당 사무실에 들러 출장 증명서 10장을 손수 만들었다. 내용은 인민군 도피자 조사와 현물세 납부 독려 차로 적었다. 친구들에게 1장씩 나누어 주고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미숫가루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밤을 새워 한말 가득히 만들어 주셨다. 친구들과 같이 마을 제일 높은 김석산에 숨었다. 그런데 한 친구(김항선)가 다른 친구를 데려온다고 하여 말렸으나 듣지 않고 하산하더니 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후 아군이 입성하여 보니 천도교인 9명과 함께 체포되어 삼과 몽둥이로 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숨어 지낸 8월 하순의 어느 날, 나는 친구 한 사람과 같이 동정을 살피려고 마을로 하산하는 데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 인민군 5명이 나타나 “누구냐”고 소리쳤다. 우리는 모두가 식칼을 몸에 숨고기 있는 터라 발각되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했다. 누구냐 생기는 지기인가 보다. 나는 의젓하게 서서 먼저 손을 내밀며 “동무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니 그들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였다. “우리 현물세 독려차 이 산 넘어 갔다 오는 길ियो.” 하였더니 우리들을 노동 당원인 줄 알았는지 도리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서 가십시오.” 하여 순간을 모면하였다. 집에 돌아오니 할아버지께서 “왜 왔느냐. 빨리 숨어라.” 하여 집 꼭간에 숨었다가 반동 분자의 집이라 위험하여 다음날 담을 타고 이웃 처가집 천장에서 처남과 같이 피신하여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한 지 몇 개월이었다.

어느 날 초저녁에 인민군 한 무리가 바로 이웃의 천씨네 집에 침입하여 반공호에 피신하고 있는 청년 5명을 수색하여 총탄 세례를 퍼부어 죽이고는 온 동네를 휩쓸면서 수색을 폈다. 우리는 천장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몇 시간 후 닥쳐 들었다. 이들은 방안의 아낙들에게 현물세를 공제해 준다면 쌀 등 양식을 자루에 가득히 담았다. 아낙네들이 “우리 인민군들이 어디까지 진격하였느냐.”고 물으니 인천을 탈환하여 우리도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떠났다. 지옥에서 살아난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에 또 놀랐다. 인민재판이 아닌가? 그러나 아군 선발대의 입성을 환영하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었다. 태극기의 물결이었다. “대한민국 만세!” 이날이 '50년 11월 3일이었다. 나는 마을 자치대에 입대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아군의 후퇴가 시작되었다. 12월 3일 우리 삼형제는 할아버지께 큰절을 올리면서 “성진까지만 갔다 오면 됩니다. 그간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이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어찌 알았을까. 아! 통제라. 우리는 집을 떠나 눈길을 밤새도록 걸어 성진에 도착하니 기차역에는 이미 피난 행렬로 인산 인해로 화물칸을 겨우 얻어 타고 단천역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아군들이 민간인들을 모두 하차시키고 군인들만 태우고 떠나 버렸다. 하는 수 없이 어느 민가에서

다행히 밥을 얻어 먹고는 다음 날 새벽에 기차를 타고 서호역에 도착하여 내렸다. 그런데 서호에 오니 민군들이 철조망을 쳐 놓고는 우리들을 시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아우성이었다. 철조망을 부수었다. 겨우 시내로 들어가니 피난민 연락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여 찾아 들어가니 우리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로 꽉 메워 있어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몇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들을 굶은 덕으로 12월 7일 L.S.T를 타는 행운을 잡았다. 배가 거제도에 입항하여 하선하면서 2개월간을 하루 한 끼의 주먹밥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성진에 가서 며칠만 있다 오겠습니다.”고 했던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만이 앞을 가렸다.

우리 삼형제는 조금만 더 살면 고향으로 가겠지. 어떻게든 살아 보자고 결심하였다. 6·25전에 월남하여 울산 중학교에 재직하고 계신다는 은사를 찾아갔다. 선생님은 반가운 마중으로 미군 부대 부두 하역 작업을 주선하였다. 다시 벌이가 더 좋다는 부산 부두에 가서 기름 드럼통 하역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이제 고향 갈 길은 멀고 또한 이만한 고생이라면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상경, 신문 팔이, 굴뚝 소제 등 닥치는 대로 품팔이 하면서,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대학 과정을 1년 수료하고 정치 대학에 입학, 졸업하였다. 영광스러운 학사 학위와 중등 교사 자격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만 하더라도 취직이란 하늘에 별따기였으며, 교사 자격증은 무용지물이었다. 연고가 있어 춘천의 삼환건설에 취업 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고향 사람들이 많다는 속초로 와서 삼영건설에서 2년간 일하였다. 다음 속초 명신 고등 공민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교감으로 승진하여 2년여 근무하였다. 학교를 떠나 속초 시장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면서 천도 교회에서 봉사 활동, '96년 천도교 속초 교구장, 천도교 선도사, 천도교 길주군 도훈으로 임명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함흥 교화소(형무소)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만행 -

설춘 · 오계호雪春 · 吳啓鎬 함남 함흥시/ 속초시 중앙동

‘50년은 나의 생애 중 가장 질곡 속에 허덕이던 해였다. 굳이 월남의 동기를 말하고자 하는 바에야 그때 상황의 설명 없이는 아무 실감도 나지 않을 것 같아, 그 동안 굳게 다물었던 입을 이 자리에서 열까 한다.

당시 23세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던 나는 6·25사변이 발발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피신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정치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다만 고등 교육을 받은 자가 국가 시책에 순응하지 않고 국가 변란을 선동하며 반동 행위를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것은 울타리 등에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라고 적혀 있는 벽보가 나붙었는데, 이것을 내가 지휘했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당한 혐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던 차에 급기야 6·25사변은 발발하고 피신 상태에 있던 나는 7월 21일 정치 보위 부원에게 체포되니, 이때부터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받은 가공할 신체의 고문과 정신착란을 일으킬 정도의 무수한 가학행위를 참으로 필설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 후 정치 보위부에서 국가 변란 등의 혐의가 포함된 소위 반동 죄로 실형 3년을 언도 받고, 동년 9월 하순경 함흥 교화소(형무소)로 이감되어 5사숙 4호 감방에 수감되었다.

함흥 형무소는 중앙사숙, 1사, 2사, 3사, 4사, 5사 이렇게 모두 6개 감옥으로 되어 있었으며, 부속 건물로는 학교 강당보다 넓은 규모의 노동 작업장이 2~3개 있는데, 수감된 사람들의 90% 이상은 그 죄과의 경중은 있겠으나 모두 반동 죄로 구속된 이들이었다.

이것은 후에 안 일이지만 이때 국군은 북진을 거듭하여, 그 정예 수도 사단 제18연대(백골부대)는 함남 정평을 탈환하고, 이미 함흥으로 진격 중이었다.

10월 12일, 운명의 날이었다. 이날 죄수 선별 작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징역 2년 이하 일반 죄수는 석방한다는 것이었다.(이때 선별된 자는 불과 5백여 명 정도였다)

물론 나도 선별되었다. 여기서 나의 운명의 은인 박수정(朴洙禎, 그는 당시 군사 동원 부장과 세포 위원장<노동당 위원장>을 구타한 죄로 1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을 만나게 된다. 그는 나의 형격인 친구로서 참으로 의혈 남아였는데, 그의 도움으로 죄명을 근무 태만(징역 1년)으로 바꾸게 된 나는 일반 죄수 속에 섞여 그와 함께 탈옥에 성공했다. 그는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구세주이나 불행히도 월남을 못하여 지금은 연락이 단절된 상태다. 살아 있다면 78세이다.

한편 탈옥에 성공한 나는 동년 10월 17일, 국군 제18연대가 함흥에 입성하기까지 피신하였다가, 남한 군정 당시 고향인 함흥시 회상리 자치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중공군 개입으로 군에 입대하기까지 그 직책을 수행했다.

동년 12월 14일 당시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소장) 보충 대대에 자원 입대하니, 월남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한다는 동기도 있었다. 그때 입대한 함흥 출신자만 3천 6백여 명이었다.

12월 16일 함흥 내호항에서 이제는 군인의 신분이 되어 미군 L.S.T편으로 남하하여 강원도 묵호에서 군대 전투 훈련을 받은 후 수도 사단 제26연대에 배치되었다.

그 후 일개 전투원으로 강릉 옥계면에서 대관령, 오대산, 양양, 설악산, 고성 향로봉을 탈환하기까지 무수한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도 투입되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보존해 이렇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얼마 뒤 헌병과로 전과하여 약 11년 간의 군 생활을 계속하다 예편하여, 자유업으로 전전하면서 현재에 이르니, 내 나이 벌써 73세에 이르렀다. 어언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 실향민들의 염원인 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듯 하다.

함흥 교화소(형무소) 사건

지금껏 이 사건 내용이 공개된 것을 본 적이 없다. 내 육안으로 직접 본 것과 당시 소문 등을 종합하여 여기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은 그저 그 당시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50년 10월 초순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국군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북한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최후의 발악으로 함흥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소위 반동 죄수 약 1만 2천여 명을 학살하기 위해, 동년 10월 12일 일반 죄수(형기 2년 이하)와 반동 죄수의 분리 작업을 실시한다. 여기서 선별된 반동 죄수는 다시 감금되고, 일반 죄수 약 5백여 명은 이날 밤 7~8시경 심사를 거쳐 석방된다.

나머지는 3일간 굶긴 후 10월 15일을 기하여 함흥시 일대 수도국 저수지 반룡산(盤龍山)에 파 놓은 참호와 함주군 덕산 니켈 광산, 형무소내 감방, 우물 등에 강제로 처넣어 무참하게 학살했다. 이 참상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찌 독일이 저지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 학살 사건에 버금가는 이른바 인간이기를 거부한 대만행이었다.

그 당시 모 신문(중앙지인 지 지방지인 지는 불분명)에서는 무고한 양민과 애국 청년 1만 2천 명을 무차별 학살하였다고 했다.

일설에는 김일성이 후퇴하면서 10월 10일경 직접 함흥 형무소에 내소하여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도 하는데, 그 진위는 알 길이 없다.

그 시신을 수습하여 형무소 뜰과 군대 연병장 등에 나열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가도록 했는데, 그 처참한 광경은 목불인견 바로 그것이었으며, 지금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마우재 도둑질”과 흘레바리

—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만행과 추태 —

오윤근吳允根 함북 종성군/속초시 교동

1950년 6월 25일...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일들은 생생히 되살아난다. 의대 3학년 재학생 때의 일이다. 마침 학년말 고사 기간 중이었기에, 시험 준비를 한다고 전날 밤늦게까지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뒤적이다 보니 아침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눈을 뜨니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마당에 내려서니 구름이 짙게 깔리고,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는 한바탕 비라도 쏟아질 듯한 음산한 날씨였다. 거리의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군가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시끄러워 짜증스러웠다. 군 입대를 고무하는 노래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의 “태백 산맥에 눈 내린다. 총을 들어라 출정이다...” 등의 군가를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일이 근래에 와서 부쩍 잦아졌던

터라 또 시작이구나 하고 중얼대며 돌아서려는 순간, 노래가 끊기더니 긴급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격앙된 목소리에 나는 긴장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총사령부의 보도, 50년 6월 25일 04시를 기해 남조선 국방 경비대가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 공격을 가하여 왔다. 기습을 당한 우리 인민군은 2km 가량 후퇴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장군의 반격 명령에 따라 즉각 반격에 나선 용감무쌍한 인민군은 적군을 38선 너머로 몰아내고 계속 남으로 진격하고 있다.” 순간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차피 2차 세계대전 후의 제반문제 처리를 위하여 45년 12월에 개최된 모스크바 3상 회담이 한국 신탁 통치안과 한국의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를 가결하고 막을 내리니, 한국의 통일은 미·소 두 나라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46년 1월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 예비 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마주 앉은 양국 대표가 5년 간의 한국 신탁 통치안을 가결하자, 이에 격분한 북한 주민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으나, 공산당은 이를 지지하였다.

결국은 이것이 빌미가 되어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기에 이른다. 임시 정부 구성에 신탁통치안을 반대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제외시키자는 소련과 참가시켜야 한다는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47년 5월에 소련 대표가 서울에서 철수하니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다음해에 남북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의 길은 전쟁 뿐이며, 전쟁은 통일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북한 주민의 눈에 비친 이미지는 좋은 것이 못되었다. 시계를 찬 사람만 보면 따발총을 들이대고 뺨기가 일쑤였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길가에 큰 집만 있으면 들이닥쳤다. 겁에 질려 부녀자들이 도망가고 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마우재 도둑질”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소련 병사의 세수하는 장면은 가관이었다. 물사발에서 물 한 모금을 입에다 물고는 그 물을 손바닥에 받아서 얼굴을 문지르는데 두서너번 되풀이하면 그것으로 세수는 끝나니 물 한 사발로 5~6명이 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양말을 신지 않고 감발을 하고 다녔다. 보자기 같은 광목 천으로 발을 싸는 것으로 양말을 대신 하였다. 한번은 어떤 병사에게 야구 방망이를 보이며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생각하더니 “후이 아지나크”라고 하는 게 아닌가?(후이=음경, 아지나크=똑같다는 뜻임) 가끔 목침 덩어리 같은 홀레바리(홀레브=빵)를 종이에 싸가지고 다니는 병사들이 목격되었

다. 트럭을 타고 갈 때는 방석 대신 깔고 앉고, 잘 때에는 베개를 대신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뜯어먹었다. 빵 덩어리가 참으로 여러모로 사용되는 데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정이 이러하였으므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 조직된 인민군은 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과소평가 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남한을 왕래하며 장사하는 보따리 상인들이 꽤 있었다.

남한에서 미군 군수품(군복 바지, 잠바, 셔츠, 미국PX에서 흘러나온 손목시계)이나 패니실린, 구아니징, 다이아징 등의 의약품 등을 사다 팔곤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미국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며, 미군은 최신 무기와 핵무기로 무장한 무적의 군대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실정에 캄캄한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군의 전략은 막강할 것이며, 인민군은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따금 이불 속에서 몰래 청취한 남한 방송도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다. 언젠가 남한 방송에서 참모총장이 “대통령 각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 군은 아침은 평양에서, 점심은 원산에서, 저녁은 청진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허풍떠는 말로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었다.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가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을 가결하였으니, 우리는 한국의 승리를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다.

'50년 6월에 들어서면서 내가 다니고 있던 함흥 의과대학에서는 요지경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학교 민청 위원회와 학교 당세포가 나서서 1학년생에게는 평양 군관 학교 입교를, 3~4학년생에게는 신설된 평양 군의 학교로 전학할 것을 종용하였다. 학교에서 민청 활동에 적극적이던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또 학년말인 6월 30일에 거행기로 결정된 의대 졸업식(의대는 5년제이었음)도 갑자기 앞당겨 6월 20일에 거행하고는 40명의 졸업생 전원을 다음날 소집하여 총위(대위와 소령의 중간계급)로 임관하여 군의관으로 부대에 배치하였다.

6월이 되자 매일같이 밤이면 병력과 무기를 실은 군용열차가 꼬리를 물고 남으로 달리는 것이 목격되었다. 또 함흥에는 인민군 1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어느 새에 이동하여 버리고, 6월 중순에는 중대 병력이 남아 텅 빈 병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항간에는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런데도 6·25가 북침이라고 인민군 총사령부가 발표하니 누가 믿겠는가? 입버릇처럼 남조선 해방을 외친 공산 정권이 저지른 남침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해방 직후 북한 주민 대부분은 정치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였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그 본질이 무엇이며,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흔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이 공산 정권에 등을 돌렸으니 그 까닭은 무엇이였을까?

'45년 10월에 북한에는 소련 군정 당국의 지령에 따라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치되었고, 그 해 12월에 김일성이 당 책임 비서로 선출되었다. 한편 '45년 11월에 이에 맞설 정당으로 조선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민주국가 건설을 표방한 조선 민주당에 북한의 지식층이 대거 입당하니 당세가 급속도로 신장되었다. 그런 와중에 한국신탁통치안이 가결되자 공산당은 이를 지지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격렬히 반대하였다. 이에 당황한 공산당은 갖은 방해 공작으로 민주당을 탄압하였으며, 포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원들은 적대시하여 감시하고 억압하였다. 그러한 극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반탁 운동을 주도하자 소련 군정 당국은 마침내 당수인 조만식 선생을 체포하였다.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의 체포는 많은 주민으로 하여금 공산 정권에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46년 3월에 북한은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 개혁법에 의하면 농민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의 한도는 3정보이며,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몰수하였다. 소작을 주었던 토지도 몰수하였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는 토지 전부를 몰수당하고 추방되었다. 또 농민은 현물세라는 명목으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현물세란 가을에 소출의 20%를 현물로 납부하는 세금 제도였다.

해방 직후 공산당은 “농토는 농민에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사회 건설” 등의 그럴싸한 구호를 내걸었다. 이런 구호에 현혹되어 이념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책이 있었다. 앙드레 지드의 《소비에트 기행기》라는 제목의 일본의 이와나미岩波 출판사가 펴낸 문고판 소련 기행이었다. 앙드레 지드는 한때 소련을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한 프랑스의 작가이다. 그는 소련의 시인 막심 고리키와 교분을 맺고 있었는데 '36년에 와병 중이던 고리키의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하게 되자 지드는 문병차 소련을 방문하였다. 소련 당국의 배려로 특별 열차를 제공받아 20일간 소련 각지를 돌아보고 난 지드는 귀국하는 열차 안에서 그 책의 서문을 썼다고 한다. “어제까지도 소련을 극구 찬양하던 내가 이 책을 씀으로써 경박하다는 비난을 받은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또 다시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는 작가적 양심에서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대충 이

런 내용이었다. 그 책의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소련 사람은 행복하다. 어리석기 때문에’ 나라밖의 사정에 어두운 소련 사람들은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 자기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상점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본 지드가 까닭을 묻자 안내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는 빵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지만 사회주의 소련에서는 노동자도 저렇게 설탕 배급도 탈 수 있다”고 자랑하였다. ○○최신 설비를 갖추었다는 시베리아의 한 제재소를 방문한 그에게 지배인이 자랑을 늘어놓는다. “스타하노브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작업 능률이 크게 향상되어 과거에 일주일이 걸리던 일을 지금은 하루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기가 막힌 지드가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씩이나 걸려서 했던 말이나고 반문하였다. 이런 식으로 소련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 책에 담았으니 그 책이 북한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천만이 넘는 피난민이 가족도, 학업도, 직장마저도 팽개치고 정든 고향을 등진 까닭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7월이 가고, 8월이 되어도 전황은 좀처럼 반전되지 않았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중계하는 맥아더 총사령부의 한국어 방송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하였음을 전하고 있었다. 전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유엔군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자문자답하며 마음을 달래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맥아더 장군이 반격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숨죽이고 참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내야 한다고 마음을 잡았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9월 중순의 어느 날(9월 16일),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습경보가 울리더니 미군기가 내습하였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방공호를 향하여 달리는 데 폭탄의 안전편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머리 위를 쳐다보니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날려 오는 전단 한 장을 어렵게 주어 펼쳐 보고는 나는 그만 감격하고 말았다. 한반도 지도의 한가운데를 유엔군이 가위로 자르는 그림의 전단 상단에는 인천 상륙이라고 씌어져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이 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맥아더 장군의 반격 명령이 떨어져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전단이었다. 얼마나 애태우며 기다리던 소식인가? 전황은 일거에 반전되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38선을 돌파하여 파죽지세로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10월 17일에는 원산을, 10월 21일에는 함흥과 평양을 수복하였다. 10월 24일에는 내가 피신하고 있던 마을 이원에도 진주하였다. 그 전날 밤 우리는 어두컴컴한 다락방에서 조심조심 숨죽여 가며 환영 준비를 하였다. 태극기를 만들고 “Welcome, UN Troops!” 라고 쓴 플래카드도 준비하였다. 그날밤 골방에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다가, 이웃의 밀고로 붙잡혀 마을 근처의 해변가 솔밭에서 살해당한 이웃 주민의 시신을 접하고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리도 갈망하던 자유를 눈앞에 두고 그런 변을 당하였으니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는가?

마을에 국군과 유엔군이 입성하던 날, 온 마을은 환희와 감격의 도가니였다. -덥수룩한 수영에 몇 달씩 굴 속에 숨어 지내다 보니 창백해진 얼굴의 젊은이들이 -커리로 쏟아져 나와서는 만세를 부르고, 아무나 부동켜 안고는 울부짖는 장면은 정말 극적이었다. 해방의 감격이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차츰 평온을 되찾았다.

자치 위원회가 조직되고 치안대가 편성되었다. 대한 청년단도 결성되었다. 치안대는 무장을 하고 부락 경비에 나섰다. 인민군 패잔병이나 마을에서 철수한 공산 분자들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마을에 질서가 잡히면서 주민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유엔군과 국군의 북진은 계속되어 10월 말경에는 선발대가 압록강에 도달하였고, 동부 전선에서는 청진을 지나 부령고개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도 들려 왔다. 우리는 통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공군이 개입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더니, 중공군이 압록강 건너에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확인하고는 불안에 쌓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맥아더 장군이 있는데 설마 하니 스스로를 달랬다. 추수감사절까지는 전쟁을 매듭짓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할 것이라는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병사에게 한 약속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50년 12월 6일은 나에게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날이었다. 우리는 그날 아침이 되어 서야 비로소 국군과 유엔군이 밤 사이에 철수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철수하는 부대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떠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태평하게 있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우리도 서둘러 떠나기로 하였다. 이 군李君과 나는 학교에서 거슬리는 언행으로 미움을 받고 있던 터에 탈영마저 하였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는 날까지 염치 불구하고 이 군의 집에서 계속 신세를 지기로 마음먹고 있던 나에게, 부모님께 말씀 한마디 드리지 못한 채 떠나

야 한다고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지는 아픔이었다. 함경 북도 두만 강변이 고향인 나는 당시 함흥에서 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6·25가 터지자 몰래 고향으로 도망가서 숨을까 하는 생각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기차는 20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다, 전쟁이 터진 후로는 여행증명서 없이는 차표를 살 수가 없어 포기하고 말았었다.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편지와 학비를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7월 5일이고, 그 후로는 소식을 받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설새없이 날아와서 퍼붓는 B29 폭격기와 그라만 전투기의 폭격으로 철로가 끊기고, 파괴되어 병력 수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 편지 같은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7월초가 되자, 의대생 4~5학년생은 대부분이 군의관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 3학년생은 임상 실습 경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군 입대를 늦출 수 있어 천만 다행이었다.(당시 의대 졸업생은 총위, 5학년생은 대위, 4학년생은 중위, 3학년생은 소위로 임관하였음.) 의료 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터라 일반 병으로 끌여가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의료 요원으로 쓰자니 임상 실습 경험이 없고 하여 생각 끝에 우리를 병원에 배치하여 실습시키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7월 20일에 시내의 여러 병원에 분산 배치되어 주로 폭격에 부상당한 환자의 치료를 돕는 일을 맡았다. 실습을 마치고 9월 30일에 소집된 우리는 밤늦어서야 부대 배치를 받았다. 같은 부대에 배치된 우리 일행 11명은 밤12시 가까이 되어 군 트럭을 타고 부대로 떠났다. 중간에 고장이 나서 수리하느라고 늦어져 다음 날 아침 7시에야 목적지인 북청에 도착하였다. 배속된 부대는 새로 창설된 북청 경비 연대였다. 인민 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병영으로 쓰고 있었고, 운동장에서는 3~40대의 나이 든 사람들을 소집하여 훈련시키고 있었다. 기초 훈련이 끝나 대대로 편성되면 우리는 소위로 임관되어 대대 군의관으로 배속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군복을 보급 받지 않아 교복 차림인데다 신병훈련중이라 별 할 일이 없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나는 10월 7일, 가까운 친구 6명과 탈출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탈출에는 성공하였으나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였다. 다른 친구들은 고향에 가서 숨겠다는데 고향이 천리 밖이라 갈 수 없으니 정말 난감하였다. 그런 나의 딱한 처지를 알고 있던 친구 이 군이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이 아닌가?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들 그 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군은 내가 학교에 입학하여 제일 먼저 사귀 친구이다. 입학하여 대학 생활은 시작되었으나, 누구에게나 선불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이

넘이 다른 학생에게 잘못 마음을 열었다가 털미를 잡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학생도 야간에 학교 시설의 경비를 서야 했다. 남조선 간첩 침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교 군데군데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는, 당번을 정하여 군대가 보초 서듯 2시간씩 서는 것이었다. 그날은 우리 학급이 경비 당번인 날이었다.

'48년 9월 20일로 기억하는데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에 갔다 캠퍼스의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가을의 저녁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는 학생이 눈에 띄었다. 무슨 책을 저리도 진지하게 읽고 있을까? 호기심에 끌려 다가갔다. 어깨 너머로 들여다 보니 일본어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시 애국자를 자처하는 학생들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소련의 러시아어 문법책 “니다 뽀아 뽀아”를 읽음으로서 자신의 당성을 과시하려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군은 순수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일본 작가 문학의 예술성과 윤리성을 요구함으로써 일본 문학의 근대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나쓰메소오세끼(夏目漱石)”가 지은 구사라마쿠라(草枕)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 군은 함경 남도 이원이 고향으로 서울에 유학하여 해방 당시 보성 고등 학교 졸업반에 재학하고 있었다. 해방이 되어 고향에 갔다가 외아들인 그를 부모님이 놓아 주지 않는 바람에 복학하지 못하고, 38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함흥 고급 중학교를 거쳐 함흥 외대에 입학한 대단한 수재였다. 나는 이 군을 따라 이원으로 갔다. 보름 동안만 숨어 있으면 될 것이라고 믿고 그의 집 다락방에 숨었다. 그날이 10월 9일이었다. 예측이 용케도 적중하여 숨은 지 보름이 되는 10월 24일 아침에 드디어 국군과 유엔군이 이원에 진주하니 자유천지가 되었다. 그날의 그 감격을 어찌 글이나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마을에는 희망과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꿈에 부푼 나날을 보내며 통일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는 중공군 개입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피난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들 허둥대고만 있었다. 준비해야 간단한데 갈피가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옷을 있는 대로 끼입고, 양식으로 쌀 한말씩 짊어지고, 짐을 나썼다. 길에 나서니 보따리를 이고 진 피난민 대열이 길을 짝 메우고 있었다. 대열은 차호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차호에서 배를 마련하여 남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 대

열에 끼어들어 차호로 향하였다. 차호에 거주하는 이 군 삼촌의 배로 월남할 작정이었다.

차호에 도착하니 집집마다 모여든 피난민이 초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항구에는 남으로 떠날 크고 작은 배(고기잡이 범선)들이 꽉 들어 차 있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차호의 치안 대원들이 마을 경비를 계속하고 있었다.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여 출항 일시를 12월 8일 12시로 잡았다. 그 시각에 일제히 떠나기로 한 것이었다. 다음 날 모두는 출항 준비에 바빴다. 배를 손질하는 사람들, 배에 식수와 식량을 싣는 사람들, 배를 마련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로 부두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타고 갈 배는 쉽게 마련하였으나 배를 몰고 갈 선원이 문제였다.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양탈을 부리는 선원들을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처지인데, 가장인 자기들이 떠나면 가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면서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승객 한 사람당 쌀 열 말씩을 주기로 하고서야 배를 띄울 수 있게 되었다. 8일 18시, 출항 시간이 되었다. 배는 한 척, 두 척 닻을 올려 빠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도 배에 타고 선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려도, 기다려도 선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멀리서 총성이 들리더니 간혹 총알이 머리 위를 날아간다. 상황은 급박해지고 있는데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무작정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힘깨나 쓴다는 청년 3명이 식칼을 집어들고는 선장의 집으로 찾아갔다. “월남하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이니 너 죽고 나 죽자” 라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하여 선장을 끌고 와서 배를 출항시켰다. 멀리서 간간이 들려 오던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망갔던 지방 공산 당원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배가 항구를 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부두가에서는 만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왔다. 저들이 우리 배를 공격하여 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애 다들 사색이 되어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무사히 배가 항구를 벗어나 닻을 올리니 그제서야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우리가 탄 배는 그리 크지 않은 고기잡이 범선으로 선원 5명을 포함하여 45명이 타고 있었다. 배는 부산을 향하여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차호에서 부산까지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주일이면 갈 수 있다며 식량은 1주일 분만 준비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하여 무게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대해에 나오니 파도가 여간 높은 것이 아니었다. 풍랑을 피해 여러 곳에 들르다 보니 여정이 늦어지고 있었다. 출항한 지 6일 만인 12월 14일에 식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속초항에 들렀다. 배 멀미에 지친 일행은 하선하였다. 시내를 돌아본다고 시장을 찾았다. 지금의 영랑동에 장터가 있었는데 그리 넓지 않은 공터 둘레에 초가집이 몇 채 서 있는 곳이 고작이었다. 돌

아다녀 보았자 대포 한 사발 사 마실 처지가 못되는 빈털터리라 차라리 배에 돌아가서 쉬는 편이 낫겠다고 지금의 법원 앞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국군 상사가 소대를 인솔하여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그 상사가 느닷없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더니 내 앞에서 걷고 있던 장 형張兄을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닌가? 겁먹고 멈추어 서서 눈만 멀뚱멀뚱 굴리고 있는 장 형더러 다짜고짜로 신고 있는 목이 긴 새 구두를 벗으라고 눈을 부라린다.

장 형이 영겁결에 구두를 벗자 헌 농구화를 벗어 놓고는 새 구두를 신고 사라져 버렸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곳이 서울인 줄은 알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 사람의 구두를 빼앗는 곳이 속초인 줄은 미처 몰랐으니…” 장 형은 중얼대기만 하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검은 안경을 쓴 군복 차림의 사나이가 검문을 한다고 배에 올랐다. 북한에서 살았다는 게 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혹시 무슨 흠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공연히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배 안을 설치더니 한 처녀를 붙잡고는 억박지르며 기세 등등하다.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는 그 처녀를 더 조사해야 한다며 데리고 하선하는 것이 아닌가? 출항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처녀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넘게 지나서야 돌아온 그 처녀는 자기 자리에 가더니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그놈이 그 처녀를 데리고 가서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짐작이 갔다.

그놈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처녀 혼자 따라가게 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자책하였으나 이미 버스는 지나간 후였다. 이처럼 피난민은 인권의 사각 지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 항해는 계속되어 배가 삼척군 정라진 앞 바다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별안간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배의 “따리”를 고정하는 나사가 풀어졌기 때문이라 한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만사휴의萬事休矣라고 생각하니 온몸의 힘이 빠져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때에 선원 한 사람이 용감하게도 바다에 뛰어 들었다. 그 추운 날씨에 바다 속에 잠수하여 들어가서 배 밑바닥에 붙어 있는 풀어진 나사를 조여서 위기를 넘겼다. 정라진 항에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는 계속되었다. 일주일분 식량만을 준비하였는데 20일 넘게 걸렸으니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다. 자나깨나 먹을 생각 뿐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부산까지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것만 같으니, 중도에서 하선하여 걸어서 부산에 가자고 이 군과 나는 뜻을 모았다. 12월 28일에 배가 포항에 기항, 상륙하려 하였으나 포항에는 피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 왔기 때문에 상륙을 허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직에서 해임되고, 리찌웨이 장군이 후임 사령관에 임명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피난민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소식이었다.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우려한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의 중국 본토 폭격 건의를 거부한 내막을 알 리 없는 우리는, 맥아더 장군이 반드시 반격할 것이며, 중국 본토 폭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잡고 석달이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가 해고되었다니 우리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토록 맥아더 장군을 믿은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2차대전 초기 일본군의 공격에 밀려 필리핀에서 철수하던 날 “I shall return(나는 기필코 돌아올 것이다.)”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던 맥아더 장군은 1944년 가을에 필리핀 국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돌아와서는 “I have returned(나는 돌아왔노라.)” 라고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12월 29일에 배가 구룡포에 기항하자 이 군과 나는 상륙하였다. 부산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경주로 발길을 돌렸다. 해만 저물면 잠자리를 얻느라고 고생고생하며 걸어서 경주에 도착한 것이 다음해 1월 1일이었다. 경주 경찰서로 찾아가서 피난민 증명서를 발급받고 피난민 연락소에 들어서 구호물자 담요 1장씩과 안남미 쌀 2되를 받아 들고는 동가식, 서가식의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였다. 낮에는 피난민 연락소에 나가 기웃거리다가 저녁이 되면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복걸하여 가까스로 잘 곳을 얻는 처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난민 연락소에서 미군부대에 일자리를 얻으면 고향 가는 날까지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군과 나 그리고 피난민 연락소에서 사귀게 된 친구 3명 그렇게 다섯이서 일자리를 찾아 미군 부대를 돌아 다녀 보기로 하였다. 이 부대 저 부대를 기웃거렸으나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녔다. 그러던 1월 15일에 드디어 우리에게도 별들 날이 찾아왔다. 미군 부대에 취직이 된 것이다. 경주에 주둔하고 있는 미 10군단 본부의 장교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의식주 걱정이 없어진데다 매주 토요일이면 주급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였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고향 생각이 간절하였다.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애태우고 계실까? 생사조차 알지 못하시어 얼마나 상심하고 계실까?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우리는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 하루를 보냈다. 드디어 1951년 2월 28일에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부대의 북진이 시작되었

다. 이동을 시작한 미10군단은 안동, 충주, 제천, 홍천을 거쳐 10월에는 인제군 관대리에 옮겨왔다. 이런 속도로 북진을 계속한다면 머지 않아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다고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데 부대가 관대리에 옮긴 후로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주 그 곳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마침내 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조인되니, '석 달이면 돌아갈 것' 이라고 믿으며 떠나온 고향에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된 현실을 나는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부대가 홍천에 주둔하고 있을 때, 알게 된 친구의 소개로 홍천 농업 고등학교 영어강사로 일하게 되면서 교직에 몸 담게 되었다. 그 후 강원도내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가 68년 3월에 속초 여자 고등학교로 발령되면서 속초와 인연을 맺었다. 88년 8월에 속초 고등학교에서 정년 퇴임하고 속초에 눌러 앉으니 속초는 나의 제2 고향이 되었다.

아버지는 팔에 관통상을 입으며 38선을 넘고

- 금강산 관광길이 고향 가는 길로 이어졌으면 -

유창영柳昌榮 함남 해산군/ 속초시 금호동

나는 함남 해산군 해산읍 하남리가 고향으로 혜명 소학교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아버지는 일제 하에서 군용 목재 관리소 부소장으로 계시면서 고장의 포천 포사고, 박달 사건에 비협조 하였다는 이유로 해방과 동시에, 반동 세력으로 분류되어 숙청 대상에 올려졌다. 그러나 아버지가 목재 운반에 사람과 황소가 무한정 동원되면서 생계의 위협과 사고가 빈번하여, 케이블과 레일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의무 동원을 피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친일파의 부류를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 피체될지 모르는 운명의 하루 하루가 계속되는 때인 '46년 4월 9일 친구(소련 주둔군 사령부 근무)가 양민 확인서(소련 주둔군 사령관 발행)를 주면서 서울에 피신 할 것을 재촉하여 밤 12시 어머니와 동생 3명 등 6식구가 야밤 도주 길에 나섰다.

우리는 평양행 기차를 타고 3일 만에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다시 그곳에서 38선 근접역인 여현행 기차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여현역에 도착하자마자 검문을 당하면서 아버지께서 보안서에 연행 되셨다. 아버지는 연행 당하시던 중 탈출에 성공하여 가족과 합류되어 38선을 넘으시다가 인민군들의 총탄에 맞아 오른팔 관통상을 입으면서도 우리들의 탈출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오후 2시경 어느 백발 노인이 다가와서는 주먹밥을 주시면서, 내일 새벽이면 경비원들 경비가 소홀해 진다면서 그때 넘으라고 알려주셨다.

우리 가족은 새벽 4시경에 초소에서 경비원들이 모닥불을 피워 놓고 코를 고는 틈을 타서 38선 넘기에 성공하였다.

6살된 막내 동생이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있다가 사선을 넘어서 웃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일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이 '46년 4월 15일이었다. 아버지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던 미 24 군단 한국인 총책(문관, 준장 대우)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남한에서 그나마 편안한 생활이 시작되는가 싶던지 미군의 철수로 직장을 잃고, '49년 봄 피난민 일백 세대를 모집하여 강릉시 구정면 금강평(현, 구정면 학산3리)에 국 공유지 1백 정보를 개간 허가를 받아 정착 사업을 하던 중, 6·25사변으로 실패하면서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으며, '55년 고향 사람들이 많다는 속초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나는 학교와 군 복무 등을 마치고 '59년도 속초 시청에 취직되어 '94년까지 35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현재 속초 지구 한남 도민회 회장을 맡아 나름대로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있다.

“이제 소원이라면 타향살이에 묻혀 있는 부모님을 고향에 안치하는 일이다.”

울진과 묵호에서의 피난살이

- 속초에서는 안정된 생활로 이어져 -

이관희李寬熙 북강원 북고성/속초시 중앙동

아버지가 백화점과 피복공장을 경영하다가 해방을 맞으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위 부르주아로 분류되어 온 재산을 몰수 당하여 후에 구멍가게로 우리 9명의 형제 등 11

식구는 근근히 살아왔다. 끝내 아버지는 반동분자로 몰려 원산 교화소에서 6개월간의 복역을 살다가 사돈의 덕으로 간신히 풀려났다.

1·4후퇴는 우리 가족을 남으로 피난길을 주었다. 흑한의 겨울은 어찌 그리도 길고 긴지 도보 행군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러나 걸어야 했다. 주문진, 삼척을 지나 문전 걸식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군의 북진이 시작되었다. 아군의 뒤를 따라 묵호에 와서 오징어 말리기로 생계를 이었다. 나는 처음 지게라는 것을 지어 보았다. 부두에서 생오징어를 지게에 담고 10리 길을 걸어 건조장으로 왔으며, 땀나무를 지게짐으로 해 오는 일은 정말 힘들었다. 옥수수 죽에다가 오징어다리 10개 중 제일 긴 2개씩을 떼어 반찬으로 먹었다. 우리는 군대 후생사업 트럭을 용케 타고 속초에 왔다. '52년 한여름이었다. 영랑동에 중석상회란 간판을 걸고 술, 냄비, 수저, 철물 등 생필품을 팔면서 차츰 생활의 안정을 가져왔다.

나는 아버지의 배려로 속초고 2학년에 편입하여 졸업을 하였다. 후에 성균관대 약대를 나와 속초에서 약국(백림)을 차렸다.

속초고 총동창회장, 속초시 약사 회장, 시 체육회 이사,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속초문화원 부원장, 속고 육성회장, 재속초 고성 군민 회장, 평통 위원, 강원도 의회 의원 등을 하면서 내 나름의 속초시 번영에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해 본다.

“너희들이 가기는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 “3일 간만 홍남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

이광춘李光春 함북 길주군/ 속초시 금호동

삼일 피난 - 반세기

'50년 12월 2일 아버지의 11년 기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날밤에 서설瑞雪인지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다음날 10시경 형님과 함께 대문을 나서려는데 백부님께서 “너희들이 가기는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형님이 “백부님, 3일 간만 홍남까지 갔다 오겠습니다.”고 말씀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울기만을 하

쳤다. 어머니는 포목상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길러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인공 화폐 12만 원을 나의 손에 꼭 쥐어 주시면서 “얼른 오너라.” 이것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말씀이다. 우리 형제는 치안대와 자치대에 근무한 탓에 성진역에 가면 기차가 있어 홍남까지 태워준다는 말에 눈길을 헤치고 우선 성진역으로 간 것이, 어둠이 깔린 오후 6시였다.

그러나 성진역에는 기차가 없었다. 우리는 마구잡이 시내를 헤맸다. 수도사단 18연대에서 모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로 교회당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 합격하니, 12월 7일 이날부터 우리 형제는 대한민국 군인이 된 것이다.

우리 군인들은 성진항에 정박중인 빅토리호(1만2천톤급)에 승선하게 되었다. 빅토리호는 1하치부터 5하치까지 있는데, 3하치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들어가보니, 온통 무기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이 겨우 기어 다닐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잠은 단불에서 새우잠이고, 화장실은 배 뒷편에 로프로 널빤지를 묶은 것이었다.

월남미 주먹밥을 얻어 먹으면서 다음날 홍남부두에 정박하게 되었는데, 부두에는 레이손 박스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대대장이 “각 분대장은 저기 레이손 박스를 힘 자라는 대로 가져와서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정말 힘 자라는대로 가져다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렇게도 좋아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12월 9일 부산 4부두에 정박, 하선하니 부두 노무자들은 우리를 보고 군복도 안 입고, 오버에 털모자만을 쓴 모양이 꼴불견이었는지 손가락질 하면서 이북에서 끌려온 빨갱이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날 기차를 타고 전선으로 가는데 예산역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송하는데 일제시 군에 나갈 때 환송하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다음부터는 행군이 시작되었다.

원주를 거쳐 홍천에 도착한 것이 12월 16일이었다. 홍천에서 훈련을 받는데 3일 만에 춘천 S커브까지 출동명령이 내렸다. 아직 총기 분해도 모르는 데 출동이라니 이것은 분명 총받이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물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후퇴 명령이었다.

그러니 총 한번 쏘 보지 못한 것이다.

나는 허리 디스크가 도지기 시작하였다. 의병제대가 허락되었다. 다음날 군트럭을 얻어 타고 서울 청량리에 내렸다. 동향인 장운죽과 같이 함북 도민회를 찾아갔다. 물어 물어 겨우 찾은 도민회 문이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사람들이 밀려 들었다. 이들 모두가 남쪽으로 피난가려는 함북 출신 피난민들이었다. 한참 기다리는 데 젊은 청년이 나타났다.

그 뒤에 키가 작은 노인이 따랐다. 그 노인이 함북 도지사였고, 청년은 비서였다. 우리

는 피난민증을 받아 갖고, 한강을 가교(한강다리 폭파된 후)로 건너 영등포역까지 가서는 기차를 겨우 얻어 탔다. 이날이 12월 22일 동짓날이었다고 기억된다. 다음날 대구에 도착하니, 여기도 피난민들로 온 시내가 메어지고 있었다.

시청 사회과로 찾아갔다. 여기서 운 좋게도 고향 형님벌 되는 지인을 만나 그의 주선으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었다. 하루 일당이 2천원이었는데 밥 한끼에 3백원, 잠자는 데 7백원, 담배 2백원을 쓰니 남는 것이 없었다. 친구하고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나는 친구에게 밀어주고 공군 첩보부대에 입대하였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첩보 요원 생활을 청산(제대)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4부두 하역 작업을 하였는데, 그때의 노무 반장 직책이 어떻게든 득세인 지 경찰 서장 권력보다 더 센 정도였다. 부두에서 가까운 염주동 산꼭대기에 한평 되는 가마니 움막을 치고 4명이 기거하였다. 이같은 끝없는 고생은 고향을 더 그립게 하였다. 어머니가 그리도 보고 싶은 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아니 하였다. 그때에 고향이 보다 가까운 속초에 가는 레바(노무자) 모집이 있어 응모하여 합격하였다. '52년 12월 24일 L.S.T를 타고 속초에 도착하여 미 8군 수송 부대에 복무하게 되었다. '54년 4월 11자로 속초 읍사무소 서기로 취직, '75년 12월 15일 중앙 동장을 끝으로 23년의 공직을 마감하였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이어 '91년 2월 5일 금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어 10년간의 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실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나 끝이 없는 것이 고향길, 그래도 기다려 보자꾸나.

'51년, 첩보 부대원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

- 원산 여도·명천 양도까지 진출 -

이근하李根夏 함남 영흥군/속초시 금호동

나는 고향에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조그마한 식당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었다. 당시 인민군대의 강제 징집이 심하여 이를 피해 '49년 소련(러시아) 노무자 모집에 응하려고 함북 청진 임시 수용소에 갔다. 그런데 노무자 파견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소식에 소련가기

를 포기하고, 사촌 형님이 살고 있는 중국 연길로 갔다. 용케도 사촌 형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 얹혀 살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얼마되지 않아 중국의 공안원에게 밀입국자로 체포되어 강금되는 신세가 되었으며, 사촌 형님의 주선으로 감옥에서 15일 만에 풀려 강제 퇴출되어 집에 되돌아오게 되었다.

6·25 전후의 인민군 강제 징집은 극에 달했다. 반공호, 산속, 갈대밭 등 숨어 지내기를 1년여 만에 아군이 입성하면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치안대에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수없이 외쳤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은 나를 피난민으로 만들었다. ’50년 12월 대원들과 함께 창이배를 타고 고향을 떠나 주문진항을 거쳐 포항에 내렸다.

우리 대원들은 현지 입대를 하기로 하였다. 그때 동향인 한신 장군이 백골부대 연대장으로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호산을 찾아갔다. 그러나 우리가 호산에 갔을 때는 그 백골부대가 이틀 전에 전선으로 이동한 후였다.

우리는 다시 묵호(동해시)에 와서 첩보 부대인 4863부대(H.I.D)에 입대하였는데 모두 84명인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가 ’51년 4월로 약 1개월 간의 교육을 받고 원산 앞바다 여도에 파견, 적지에 상륙하면서 바로 첩보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함북 명천 앞바다 양도섬까지 진출하여 적군 지역의 교량, 터널을 파괴하고, 군 보급 트럭을 폭파, 그리고 인민군, 노동당 고위 간부 등을 생포하여 묵호의 본대(부대장 김익직 소령)에 후송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현역 1명을 포함해 13명이 한 조가 되어 작전하였는데, 그 전과는 실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전과 중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어대진에 상륙하였을 때였다. 거룻배(뎀마) 2척에 나누어 타고 상륙하면서 배를 바위틈에 숨기고 초병 1명을 남기었다. 이 상륙 작전에서 노동당원 1명을 생포하여 철수하느라고 바닷가에 닿았는데 숨겨 두었던 배 2척 가운데 1척이 침몰되어 있었다. 배를 관리하던 초병이 우리를 뒤쫓는 인민군들의 총소리에 놀라 다른 바위틈으로 피신한 사이에 배 1척이 바위에 부딪혀 침몰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하겠는가. 13명이 남은 배 1척을 타고 나오는데 10m도 못 나와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배에 5명만 남기고 나머지 8명은 물로 뛰어 내려 헤엄치기 시작하였다. 뒤의 육지에서는 인민군들의 총알이 비 오듯 퍼부었다. 물론 캄캄한 밤인 것이 다행이었다. 아니면 몰살은 불문가지의 순간이었다. 무전기도 물에 잠겨 못쓰게 됐다. 천우신조로 보조 무전기가 「S.O.S」 한 마디를 띄울 수 있었다. 본선에서 구조선 보트가 달려와 전원이 무사히 귀대하였다. 그때의 모골이 송연함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작전은 거센 폭풍우와 달밤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계속이었다. 우리가 납치한

인민군과 공산당원 만도 아마 50명은 넘을 것으로 기억된다.’ 52년 10월 나는 고향에 상륙하였다. 어머니(김증고)와 동생 근삼이하고 큰어머니와 조카 5명, 그리고 이은섭씨 등 10여명을 구출하여 묵호에 데려왔다.

하루는 전투함 갑판에서 미군 병사 1명이 힘 겨루기를 하자면서 치근덕거리는데 도가 지나쳐 못살 정도였다. 그때 내 나이 25살에 키 183m, 몸무게 105kg의 한창 힘이 넘치는 나이로, 한번 붙어보기로 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갑판에는 아군, 미군 하여 아마 150명이 넘는 관중이 있었는데, 우리 시합은 시작되었다. 나는 그 장대같은 미군을 번쩍 들어서 머리위로 던져 버렸다. 그 미군은 5m 멀리 떨어지면서 뺨이 떨어 버렸다. 나는 죽는 줄 알고 겁이 확 났다. 얼른 달려가 머리부터 들어 올렸더니, 그 미군은 상긋이 웃으면서 “헤이, 다이조브” 하면서 일어나 나를 얼싸 안았다. 갑판원들의 박수 갈채가 요란하였다.

내가 위의 이야기를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펼쳐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 힘겨루기가 끝난지 사흘 후에 미 함장이 나를 보자는 것이었다. 혹시 자기네 미군을 해쳐서 벌이라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함장실로 조심조심 찾아갔다. 함장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당신 같은 한국 사람은 처음 봤다. 어쩌냐, 나의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장가를 들지 않겠느냐. 물론 시민권도 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도와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신이 미국에 가면 다시는 한국에 못 오는 것은 각오하라.”는 것이었다. 그때에 나는 어머니와 동생이 묵호에 있어 내가 부양하고 또 앞으로도 책임져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영영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마 나를 설득하기를 근 한달 가량이나 했던 것 같다. 나는 지금도 “그때 한 팔자 고치는 건데”하고 후회(?)하면서 혼자 웃는다.

나는 1년 10개월의 첩보 요원 생활을 끝내고, 어머니가 계시는 묵호항에 눌러 앉았다.

오징어 잡이와 짐 나르기 등 막노동을 하다가 속초에 와서 미군 부대 보급소 하역 작업을 하기를 3년 후에 조그마한 식당을 차리고 장가도 갔다. 다음에는 수산업(정치망업)에 뛰어 들어 오늘에 정치망 두 틀을 갖고 그럭저럭 밥은 먹고 있다. 어머니는 작고 하신 지 오래고 3남 1녀의 대가족으로 늘었다. 한마디 더하면 나는 그 어려운 피난 시절에 상급에 욕심이 났던 지 전국 씨름판에서 소를 30마리 이상 타기도 했다. 그래서 “이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것이 다 피난덕이라 하면서 자위해 본다. 이제 제2의 고향 속초에서 재속초지구 영흥 군민 회장으로 동향인들과 같이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있다.

“동무들 서라우! 움직이면 쏘겠어”

- “이남으로 가는 거 아냐” -

이만원李萬元 황해도 장연군/ 속초시 동명동

공산치하에서 이웃 마을을 다녀오려해도 부락의 인민 위원장의 여행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자유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농지는 전부 몰수하여 국유화를 하는 등 그 행정 형태는 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우리 부락에는 공산 당원이 두 집이었는데, 부락 전체가 여주 이씨의 집성촌이고, 공산당 두 가구만 고씨였으므로 인해 심한 감시는 당하지 않았다.

1차 도위원 선거가 있었다. 당시 면위원이었던 나를 약 20리쯤 떨어진 쌍월리에 선거 참관인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투표 과정은 입후보자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찬성·반대하는 제도로써 찬성은 백색, 반대는 흑색통에 투표하는 것이다. 투표완료와 동시에 개표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냐. 반대표가 7장이 나온 것이다. 그 즉시 선관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을 불러 100% 찬성으로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어느 령이라고 거절 할 것인가. 그런데 다른 부락에서는 반대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한 결과 반동 분자 색출로 큰 고통을 당했다.

나는 자유가 없는 이곳을 탈출하기로 결심, 친구 김용식, 송자번 군과 같이 월남하기로 하고, '46년 5월 1일 고향을 하직 한 것이다. 우리는 저녁에 태탄읍에 도착, 다음 날 어둡기를 기다려 남한의 웅진으로 향하였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앞에서 “동무들 서라우! 움직이면 쏘겠어!” 하는 것이었다. 인민군 3명이 “동무들 어드메 가는 거야? 이남으로 가는 거 아냐!” 우리는 얼른 “요념어 동네 친척집에 제사 보러 가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거짓말 말라우. 거기 무시기 집이 있어. 이 종간나 새끼들 남으로 가는 것이지?” 하며 양손을 묶으려 하였다. 그 순간 저쪽에서 총소리가 요란하였다. 두 명이 나머진 한 명에게 “동무, 종간나 새끼들 잘 지키라우.” 하면서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또 총소리가 나면서 인민군이 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총을 빼앗고 때려 눕히고는 죽으라 뛰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큰길이나오고 몇 채의 집이 보였다. 한 집을 찾아

들어가니 노인이 혼자 있었다. 조심스럽게 물으니 여기가 이남 땅 옹진이라는 것이다. 이제 살았구나 다리에 맥이 확 풀렸다. 우리는 다시 3km를 걸어 화도로 가서 조기 운반선을 타고 마포에 도착, 서울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파고다 공원 뒤 천도교 본부를 찾았다. 총무 원장과 나의 할아버지가 절친한 사이였던 때문이다. 총무 원장에게 인사하고 자초지종을 말하였더니 그곳에 머물라고 허락하였다.

우리는 놀러왔기를 한 달여만에 나와 미 군복, 소금, 고무신 장사를 하다가 굴뚝 청소, 온돌방 고치기 등 닥치는 대로 일했으나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다시 미군 부대에서 탄약 나르기를 하던 중 광고문을 보고 조선 경비대 기계화 부대원 모병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육군 통신 학교를 1년만에 졸업하고 51 통신 부대로 편입, 군 생활을 하는 중 6·25를 맞았다. 온갖 전투에서도 신의 가호인지 죽지 않았다. '58년 육군 준위로 전상(전공 상이 군경 6급) 무공 훈장(화랑)을 받아 갖고 제대하여 속초에 눌러 살아오고 있다. 대한 철광 양양 광업소, 고성 군청, 건봉사 종무소에서 근무하다 나와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무공 수훈자회 속초 지회장을 맡아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다.

꽃감상 · 미곡상으로 피난살이에서 재기

- 군번 0729402로 설악산 전투에 투입되기도 -

이원익李源益 북강원 회양군/속초시 교동

고향에서 심상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뒤로한 채, 뜻한 바 있어 18세 때 서울로 떠났다. 생면부지의 서울에서 문전걸식 한 지 보름만에 일본인 상점에 들어가 점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점원 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공부를 하여 2년 후에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는 행운을 잡았다. 경전주식회사(오늘의 한전의 전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사로 일하게 되었다. 이 버스 운전 생활 2년이 되던 해에 8·15 광복을 맞았다. 귀향하면서 고향의 소비조합에 들어가 운영과 배차 일을 맡아보았다. 이 소비조합 생활도 6·25가 발발하면서 끝이 나는 신세가 되었다. 인민군의 강제 징집이 시작되어 방공호, 다락방, 산속

에 숨어 지내는 생활이었다.

징병 도피 생활 4개월 만인 10월 아군이 진격해 오면서 하산, 부락의 청년 자위대장을 맡아 치안에 앞장섰다. 그러나 아군이 후퇴하면서 피난길이 시작되었다. 50년 12월 20일 대원 10여 명과 같이 도보로 통천을 거쳐 고성, 간성, 주문진에 갔는데, 이때에 아군이 다시 북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아군(수도 사단 26연대)을 따라 고향 길을 향한 것이다. 그러나 아군은 양양군 서면 수리에서 적과 대치하면서 진군이 멈추었다. 이때 군에서 군속으로 차출, 나는 15명을 거느린 대장을 맡아 아군에게 포탄과 식량 등을 날라다 주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다시 후퇴하여 삼척군 도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정규 군인으로 편입(50년 12월 27일)되어 군번(0729402)을 달고 부대(26연대 화기 소대)에 배속, 전투에 투입되었다.

양양, 인제, 설악산 전투는 정말 치열하였다. 설악산 봉정암에 갇혀 1주일 동안 풀뿌리를 캐어서 연명하였으며, 가리봉 탈환전에서는 피아의 시체가 온 산을 뒤덮은 혈전이었다. 나는 지금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군가를 가끔 읊는 이유가 여기에 있나 보다.

끝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속초 의무 중대, 목호 516 병원, 부산 31 육군 병원으로 옮겨 '52년 10월 의병 제대하고 말았다. 이 전쟁 중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갈 길은 어디인가. 당장 끼니가 막막한 처지였다. 피난길 강릉에서 하루 목을 때에 이웃집 사람이 강릉 공군 비행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났다. 그리하여 무작정 비행장을 찾았다. 정문에서 입초하고 있는 한·미합동 헌병에게 "며칠 전 제대하여 일자리를 찾는다"고 부탁하였다. 용케도 이들의 배려로 레이팜 제조(황가루와 휘발류를 섞는)일을 하게 되었다. 일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손을 써 갖고 영내 미군 식당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탈이었다. 팀장(짜지라고 하였음)에게 양해 없이 옮겼다는 이유로 양쪽에서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공군 비행장 잡역 4개월 만인 '53년 4월이었다.

여기서 벌은 몇 푼의 밑천으로 곳감 5점을 사 들고 고향 사람이 많다는 속초에 와서, 교동에서 영랑동까지 온 시내 가게를 누비면서 팔기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 피난살이에서의 첫 장사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군 계급장, 모자, 만년필 장사를 곁들였는데 수입이 꽤 좋았다. 다음에는 위안부와 다방, 요정의 종업원을 상대로 화장품과 옷가지를 팔았는데, 남쪽 멀리 부산에서 물건을 해 갖고 그 어려운 38선 검문소를 통과하여 떠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한번은 한·미 합동 헌병에 걸려 산으로 도망쳐 길을 잃어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산 속을 헤매기를 사흘만에 아군 초소병에 발견되어 살아난 기억은 아찔할 뿐이다. 38선 검문소 통과에 혼줄이 나서 과자류 장사로 바

꾸었다. 속초는 물론 고성군 토성, 죽왕면 일대와 양양 장을 다니면서 주로 도매를 하였는데 영북지구에서는 과자류 도매상은 내가 처음이었다고 생각한다.

'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면서 고향길은 아득, 이제는 죽으나 사나 속초가 고향이 된 것이다. 28세의 청년으로 나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이웃의 처녀 김전이金田伊와 신방을 꾸리고 안정을 가졌다. 이때의 영랑 시장은 군인들이 떠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중앙 시장에 가게를 내고 쌀 도산매를 시작하였다. 쌀은 서울에서 사 왔다.

당시의 교통편이란 속초 - 서울간 버스로 12시간이 소요될 때로 명태(생태)를 실은 트럭이 서울로 가서 쌀을 사 갖고 그 차에 싣고 오는 수송편이었다.

겨울 저녁에 출발하는 트럭 짐칸 안의 생태를 넣은 통 속에 간혀 10시간여의 생선 비린내를 맡고 서울에 내리면,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이 멍하여 하루는 하숙방에서 앓아 누웠다가 다음날 쌀 장을 보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속초에 가지고 온 쌀을 도매는 물론, 집집마다 배달하는 산매를 하여 착실히 돈을 벌었다. '60년 들어 함영태 씨 이승률 씨와 함께 중앙 극장을 운영하였고, 이어 제일 극장을 인수하였다. '61년 5·16 혁명 후 정부가 가격 통제와 정부미 다량 방출을 하면서 쌀 장사가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어 싸전을 폐업하고, 극장 사업에 온 힘을 썼다. 당시 속초에 3개 극장이 있어 경쟁이 치열하였다. 나는 쇼프로에 열을 냈다. 신성일, 김지미, 남진, 나훈아 등 인기 배우와 가수를 초청, 홍보 전단 가두 방송을 하면서 관객을 가득씩 메웠다. 이렇게 하여 그런 대로 호황을 이루었으나, '75년 무렵부터 TV가 등장하면서 극장 사업은 역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변신이 필요했다. 양양군 현남면의 양조장을 인수, 5년 후에 손양, 강현과 통합하여 합동 양조장을 설립하였다. '80년 들어 수산업에 뛰어들어 저인망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4척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속초 생활에서 억척같이 벌어들여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이것은 모두가 속초 시민들의 은덕이다. 속초 시민에 환원할 길이 무엇인가. '97년 2억원을 출연하여 '금강 장학 재단'을 설립하였다. 관내 고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연 1천 5백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모르게 이웃을 돕는 일은 나의 생활이다. 중앙시장 조합장, 속초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해 본다.

피난길 50년에 1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라도, 저 북의 내 고향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생각하면 어찌 편하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불효자는 울고 또 울고 있다.

함남 빌딩을 짓기까지의 지난함

- 죽변과 강구로 이어지는 피난살이 -

이정균李楨均 함남 단천군/속초시 교동

'50년 12월 7일 집사람(박금단)과 같이 고향에서 최상길씨 소유의 범선(창이배)을 타고 피난길에 나섰다.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가 죽변항을 거쳐 강구항에 도착, 하선하면서 본격적인 고난의 피난 생활이 시작되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우리 내외는 달리 먹고 살 길이 없어 문전 걸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마을 저 마을 농촌을 찾아 일거리를 찾았다. 그러나 우리 같은 피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농촌에도 꼭 밀려들었고 또 겨울철이라 잠자리마저 찾기가 어려웠다. 부둣가에 가서 생선을 얻어다 끓여 먹으면서 판대기 엮 장사, 빵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짹짹한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엮, 빵 장사를 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왕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더 많은 포항으로 가기로 하고는 그새 모은 돈으로 마른 오징어 1백 두름을 샀다. 영등을 세고 이틀 후인 음력 2월 3일에 포항으로 갔다. 포항에서 가지고 간 오징어를 판 돈으로 죽도 시장 거리에 노점을 차리고 피복과 고무신 장사를 시작하였다.

노점상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동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는데, 느닷없이 웬 군용차가 내 옆에 멈추더니 고향 후배가 내려서면서 “정균 형님이 아니오? 동생 정익이가 영천 훈련소에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들 셋은 단천읍에서 살았고, 맏이인 우리 내외만 고향 농촌을 지키다가 급하게 피난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은 피난을 못 나온 줄만 알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동생의 피난과 군대에 입대하기까지의 얘기를 적어 본다. 동생은 단신으로 고향 단천에서 '50년 12월 28일 남으로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탔다. 이 기차는 아군 부대 수송 열차였던 것이다. 철수하는 아군들은 기차가 통과한 후 바로 교량과 터널을 폭파하면서 달리기를 1주일만에 함흥역에 도착하였다. 동생은 군인들과 함께 흥남에서 미군 수송기로 부산에 내려 다시 영천에서 철도 운영 대대(제6871부대)에 입대하여 정식 대한민국 육군이 된 것이었다. 나는 동생을 만나려고 단숨에 영천까지 달려갔다. 그러나 동생은

동부 전선 속초로 3일전에 떠났다는 것이었다. 동생을 떼어놓고 홀로 살겠다는 듯이 떠난 죄도 큰데, 남한에 온 동생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싶어 낙담하여 주저앉고 말았다. 동생을 찾아야 했다. 노점상의 옷가지를 대충 정리하여 속초로 향했다. 이때가 '51년 10월말쯤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주문진 아리랑 고개 군 검문소에서 민간 출입 통제라고 저지를 당했다. 할 수 없이 주문진에 눌러 앉게 되었다. 어찌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중앙시장 거리에서 또 노점을 차리고 피복장사를 하면서 집사람은 오징어 말리기 등을 하였다. 이때 나는 1군단 хол병부 군속증을 얻어 38선 검문소를 통과하여 속초에 와서 동생을 만났다. 그때는 최전선이 속초의 코앞인 천진리(고성군 토성면)였으며, 사진리(장사동)에는 포부대가 있어 장거리 사격을 하는 때로, 동생이 속초에 오지 말라고 하여 나는 주문진에 계속 눌러 앉은 것이다. 그래서 뒤늦은 '53년 7월 초에 속초에 들어와 중앙시장 안에 "단천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피복 도산매를 하였다. 우리 내외는 장사를 정말 열심히 하였다. 그새 동생도 제대하여 같이 있었고 돈도 꽤 모았다. 그러나 자유당 말엽 동향인 진승국씨의 국회의원 출마 뒷바라지를 하면서 재산을 날리는 처지가 되었다.

속초를 하직하고 서울로 가서 신문로에 방 한 칸을 얻어 살았다. 생업으로 부평에 조그마한 양계장을 만들어 계란 장사를 2년여 동안 하다가 다음에는 뚝섬에서 식품 가게와 약도매상을 3년간 하였다. 여기서 얼마의 돈을 벌어서 갖고 다시 속초로 왔다. 설악동의 경동여관(후에 설악산장)을 사서 경영하다가 구단지 철거때에 속초 시내로 내려와 삼정여관, 그리고 함남 빌딩을 지었다. 재영북 단천 군민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천진리 망향 동산 건립에 앞장 섰으며, 속초 지구 함남 도민회 창립에도 솔선하였다. 대한민국 품에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행복을 누리고 있으나,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두 동생의 생사는 어찌 되었는지 내 나이 80이 되면서 더욱 간절하다.

고향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 속초에 뼈를 묻어야 할 신세라 -

이호순李虎舜 함남 이원군 / 속초시 동명동

나는 고향이 함경도이지만 일본에서 2차 대전을 맞았고, 해방과 동시에 고향에 갔으나 사상이 맞지 않아 바로 월남하였기에 실은 6·25 피난민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소위 1·4후퇴 피난민보다 더 먼저 피난민 생활을 겪었다. 그러기에 여기 나의 긴 고난의 생활을 엮어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후세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 달라는 뜻을 전하고자 함이다. 나는 이원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북간도 용정의 대성 중학을 거쳐 일본 동경 동양대를 1943년 10월 졸업하였다. (일본은 인력 동원을 위한다고 5개월 단축 졸업시켰음.)

나는 학도병 모집을 피하여 일본 농림부 수산국에 취직하였다. 근무한 지 1개월 만에 고향집으로 함흥 연대에 입대 소집령이 왔다는 소식을 받았다. 이때에 명치대 강당에서 “조선인 학도병 징집 당위성”이란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 이때의 강사는 최남선, 이광수 등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내선 일체”는 기만 정책이라고 항의하였다. 이것이 주효하였는지 징집이 취소되고, 수산국에 눌러 앉아 근무하게 되었다. '45년 3월 10일 밤의 일이다. B29기가 동경을 폭격, 초토화시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심의 일본 궁성은 다치지 아니하였다.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 일본의 패망은 시간문제였다. 수산국에 구두 사표를 내고 동경을 떠나 고베를 거쳐 배편으로 5일 후에 고향에 닿았다. 집다락방과 방공호에서 피신 생활 3개월 후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의 태극기 물결을 뒤로 하고 서울 친구를 찾아 떠났다. 해방 일주일 후 서울에 도착하여 서울시 청년당을 조직하고, 최상린이 회장, 나는 총무 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되었다. 이때에 38선이 생겨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운형 씨가 이끄는 건국 준비 위원회가 유일한 정치 단체였는데, 나는 이 건국 준비위 조직책으로 8월 30일 일행 5명과 고향으로 출발하였다. (함남 2명, 함북 3명) 우리 일행은 영흥 군청을 찾았다. 반갑게 맞아 주었다. 군청 직원들과 건국 위원회 조직을 부탁하고 다음 철원에서 하루밤을 자게 되었는데,

마침 철원 축구팀과 소련군과의 축구 시합이 있어 구경하고 이튿날 원산에 도착하였다. 민족 지도자 강기덕 씨를 찾았으나 부재하여 이주하 씨를 만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하였으나 의견이 달랐다. 우리는 “소련군이 시집가는 신부감을 가마에서 내리게 하고 운간하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소련이 아니면 우리가 해방이 되었겠는가”고 하는 말에 토론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함흥시에 도착하여 함남 도청을 찾아가는데, 벌써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우리는 건국 준비 위원회 조직을 부탁하고, 일행은 각자 고향을 가기 위해 헤어졌다. 고향 이월에 도착한 것이 9월 3일이었다. 고향에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소련군의 지배가 시작되어 있어 나의 임무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9월 10일 조부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다시 서울로 떠났다. 이때부터는 벌써 38선 통과가 어려웠다. 군선역에서 함흥 가는 열차를 타고 다시 동두천에 도착하였다. 임진강 역에 도강을 하려는 사람들이 20여 명이나 모였다. 뱃삿이 한 사람당 50전으로 기억된다. 먼곳에서 흰 깃발이 올랐다. 뱃사공이 빨리 타라고 하면서 갑판에 엎드리라고 하였다. 총소리가 요란하였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뱃사공이 빨리 뛰라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얼마후에 언덕 밑에 닿아 보니, 모두가 돌과 나뭇가지에 긁혀 얼굴, 손, 다리하며 온통 피투성이였으나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이틀만에 서울에 도착해 보니 미 군정이 건국 준비위를 해산시켰으며, 하룻밤만 자고 나면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태어났다. 좌·우익의 싸움이 치열한 판이었다.

우리 청년회는 조직을 위한 돈 마련에 나섰다. 그리하여 한·미친선 권투 시합, 극단 운영 등을 하였으나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어 적산인 후암동의 양조장과 청량리의 고무 공장의 운영권을 받았으나, 사업 경험과 운영 자금이 없어 한번도 운영해 보지 못하고 말았다. 청년회는 할 일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이때에 전남 고흥군 소록도 갯생원 김형태 원장(고향 지인)이 도와 달라고 하여 나환자 수용소에 사무장이란 직책을 맡아 일하게 되었다.

직원 2백여 명과 나환자 7천여 명의 살림을 꾸려 왔다. 소록도에서 3년을 보내고 '48년 10월 순천 사범 학교 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얼마후 여순 반란 사건이 터져 온 시가지가 피바다였다. 내가 있던 소록도에서도 이북 출신이 7명이나 살해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나는 이때에 학교 동창인 오염목 헌병 사령관의 도움으로 반란의 험난을 무사히 넘겼다. '50년 6·25가 발발되면서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죽으란 법이 없나보다. 부산 부두 노동 위원장이 동창인 김희봉 군이었다. 김 군의 덕으로 부두 노동 위원회 선전부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부두 노동자가 10만 명에 달하였는데 모

두가 처참한 생활은 말할 나위 없었다. 수복이 되면서 순천 사범에 다시 가서 교편을 잡아 7년간 근무하고는 대전 사범에서 2년 반동안 일하다 '56년 8월에 고향이 가까운 강원도로 발령 받았다. 나는 고향 사람들이 많은 속초를 원했으나 원주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6년간 근무하다 영동에 넘어와 여러 학교를 부임, 속초상고를 마지막으로 '81년도에 정년 퇴임하였다. 해방과 함께 남한에서 생활한 지 55년. 내일이면 하고 바라던 고향 길은 내 나이 내일 모레면 90이 되는 오늘까지도 아득하고, 제2고향 속초에서 뼈를 묻어야 할 신세가 되었다.

육로 피난길에 목불인견과 그 고초를 이기며

- L.S.T 타기는 우리에게 과분한 것인가 -

임정순任正淳 함남 원산시/속초시 교동

1950년 12월 8일 곤히 잠들고 있는 자정계의 일이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대문가로 나가 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상했다. 밖으로 나갔을 때 대로는 죽은 듯 고요했다. 다시 집안에 들어와 약 30분 정도 시간이 흐를 때였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급히 뛰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갔다. 보따리 행렬이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가자 세간 부두로 가는 행렬이었다. 부두에는 벌써 L.S.T를 타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달려오는데 저쪽에서 총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피난'이란 말만 들었던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은 부모와 처를 거느리고 있는 나는 이 순간 어찌할 도리를 몰라 머리만 멍하였다. 정신 없이 집에 닿으니 동네 청년 23명이 대문 안팎에서 서성거리다가 나를 만나자 "지금 시내에는 벌써 인민군들이 상당수가 와 있으니, 피신해야 하는데 선배님께서 인도하여 달라."는 이야기이다. 그 청년들도 내가 중국, 서울, 부산 등 객지 생활을 많이 하였으니 앞장서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장사차 위의 곳을 수차례 다녀왔음.) 나는 그때 처가 만삭으로 오늘날일 하였기에 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길게 열흘 정도 후면 집에 올 것이라 판단하고, 같이 떠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세간부두로 달려갔다. 이때는 부두가 인산인해로 L.S.T 타기는 이미 늦은 때였다. 총소리는 더 가까워서 요란해졌다. 배 타기를 포기하고 무조건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원산을 벗어나 첫마을의 초가집을 찾아 들어갔다. 그 집에는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체면 불구하고 들어가 새벽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마당 쪽에서 로켓트 포탄이 터졌다. 이 파편이 새신랑의 허벅지를 관통하여 피투성이 되었다. 나는 옷을 찢어 다리를 묶어 지혈을 시키고는 우리가 가면서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곳을 빠져나왔다.

허리까지 차는 눈길을 죽으라고 걸어 해질 무렵에 산골 안의 물레방앗간 집이 보여 찾아 들었다. 그 방앗간 오두막집에는 50대의 아주머니 한 분 뿐이었다. 모두가 기진맥진해 쓰러졌다. 추위는 물론이고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간청하여 밥을 얻어 먹고는 곤히 잠든 자정계쯤 주인 어른이 왔다. 그 주인은 우리의 얘기를 자초지종 듣고는 인근 마을의 인민군이 밀려들기 시작하니 빨리 떠나라는 것이었다.

주인의 허락을 얻어 방앗간에서 쌀 한가마니씩 새끼줄에 묶어서 등에 질머매고 나왔다.

걸은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쌀이고 뭐고 버리고는 맨몸으로 행군하여 송전리에 도착하였다. 동네 입구 큰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 집도 물레방앗간이었다.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주인영감님께 인사하고 피난길이라고 하였다.

그 영감님도 자기도 아들을 3일 전에 남으로 피난을 보냈다고 하시면서 밥을 한 솥 가득히 지어주셨다. 이 영감님께서서는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니 문창지를 뚫어 보시더니 “저기 과수원에 인민군 100명 가량이 있어. 빨리 뒷산 길로 피신해.”라고 하셨다. 우리는 주인 영감님이 형집에 싸 준 밥덩어리와 김치를 바지에 꿰차고 야간 행군을 하면서 금강산 입구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30대의 금강산 안내원이란 자를 만났다. 피난길 안내를 부탁하였는데, 이 자는 안내비를 주지 않으면 싫다고 하였다. 우리는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돈을 주었다. 아마 한 밀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밤새 따라가다가 새벽이 되어 보니 처음 떠나던 그곳이었다. 우리는 언득 이 자가 우리를 속여 인민군에게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이 덜컥나서 죽이기로 했다. 우리의 화난 모습에 겁이 질린 이 자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다시 안내할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다시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이 통천이었다. 통천 시내에는 거의 1백구가 넘는 시체가 발로 밟히었다. 다음 삼일포를 거쳐 제진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에는 마을 사람은 물론 앞서간 피난민들이 가득하였으며, 이들은 앞 강물의 다리가 끊겨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들은 산으로 가서 통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 다리를 복구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때 이 다리를 넘는 사람들이 5백 명은 넘을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가 천진(고성군)에 도착할 때였다. 마을 입구에 들어갈 무렵 ‘탕탕’ 총소리가 두발 가랑 울렸다. 모두 엎드려 있다가 약 30분 후에 일어나 마을에 들어가 보니 18세의 처녀가 인민군의 총에 맞아 방금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 처녀 오라비가 시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울고만 있었다. 우리는 곁의 바닷가 모래사장에 시체를 묻고는, 그 오라비에게 빨리 가자고 하였으나 동생이 죽었으니 혼자서 못 가겠다고 하여, 그를 놔 두고 속초를 지나 양양에 도착하였다. 양양 산등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곳에 가 보니 군대 모집을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전원 지원했다. 그런데 일행 중에 나하고 권투 선수 박순원 동지가 탈락되었다. 이유는 몸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이었다. 후방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이니 빨리 가라고 하였다.

낙오 아닌 낙오자가 된 우리 두 사람은 피난민 대열에 다시 합류하여 남하를 계속하여 주문진의 어느 촌락에 도착하였다. 마침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는 집이 있었다. 우리는 그 제삿집에 들어가 봉투 한 장을 달라고 하여 조의금(얼마였는지 기억 못함)을 넣어 주었더니 상주가 반갑게 맞으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왔다. 이 진수성찬이 얼마만의 만남인가. 한상 다 먹고 또 한 상 차려 먹으니 그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 주인이 흔들여 깨어 보니 어제 초저녁에 잔 것이 다음날 한 나절이 된 것이었다. 우리는 주인에게 피난 가는 길임을 설명하면서 통사정하여 그 집에서 하룻밤을 더 얻어 자고는 떠났다. 강릉 시내를 막 벗어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이번에는 혼례식 집을 만났다. 같은 방법으로 부조를 하고 한상 잘 차려 먹은 후 삼척에 갔다. 농촌의 어느 집에 들어가니 늙은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피난길이지” 하시면서 세숫대야만한 그릇에 밥을 가득 지어 주었다. 거기서 이틀을 묵고는 떠나 울진을 거쳐 포항에 도착하였다. 경찰서 지서 같은 곳에 들어갔다. 경찰관 한 명이 있었다. “원산에서 피난 온 사람인데 육로로 오다 보니 이렇게 늦었다. 하룻밤 신세지자”고 간청하였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란 친구가 안 되니 빨리 나가 달라며 등을 밀어냈다. 옥신각신 싸움이 붙었는데, 이때에 웬 노인이 들어오면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노인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빨리 밥을 지어 주고 뒷방에 불을 넣어 잠 재워 주라.”고 하였다. 안노인이 투덜대었다. 그러니 노인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키 장사를 할 때 이 사람들 선친들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건 팔아 주고 말이야. 애들에게나마 신세를 갚아야지.” 그제서야 할머니는 아무말 없이 응수한 대접이 시작되었다. 저녁밥을 잘 얻어먹고 잘려는 데, 노인께서 들어와 발의 버선을 벗으라 하셨다. 우리의 버선이라야 온전한 버선일리 없었다. 천리 길을 걸은 버선이 그

형체마저 있었을 리 없었다. 천 조각이 몇 개 달랑붙어 있었을 뿐이었다. 발뒤꿈치가 트여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에 가서 먹칠을 한 실을 펜 바늘을 가져와 트인 살갓을 꿰매 주고 천에 밥풀을 발라 붙여 주셨다. 그리고는 새 버선을 가져다 신겨주고는 “며칠이면 괜찮을 거야” 하셨다. 여기서 사흘을 묵은 후 떠나서 도착한 곳이 구룡포였다. 여기도 피난민 천지였다. 부닷가에 갔다. 피난민들이 낚도 모르는 우리에게 오징어 한두름이나 주었다. 우리 둘은 이 오징어를 가지고 피난민촌에 가서 삶아서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먹어치웠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을 설사하였는데 죽지 않기를 천만다행이었다.

몸을 추스리고 일주일 후에 고향 사람들이 많다는 부산으로 다시 갔다. 여기 부산에 도착한 것이 집을 떠난 지 꼭 2개월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우리는 부산의 충무로 동사무소에서 하룻밤을 신세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서(부산)에서 순경이 와서 부른다고 하였다. 나갔더니 서장이오라고 했단다. 이유를 물으니 자기 줄병은 모르니 무조건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 경찰서에 가니 서장이 “고향이 어디야.”, “원산입니다.”, “정보를 들은 대로 비슷하구먼 고향에서 무엇을 했어.”, “야채, 쌀 등 먹는 장사를 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북에서는 개인 장사가 안 되는데 말이야. 관공서에서 월급장이 했지.”, “아닙니다.”, “서장님이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북에서도 얼마의 먹을 것 같은 일반 장사가 있습니다. 이 부산 어디에 우리 원산 고향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누가 빨갱이라고 밀고 하였거나,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서장차 운전 기사가 “서장님 제가 원산 사람들이 광복동에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로 모실까요.” 그래서 나는 서장과 같이 지프차를 타고 광복동에 갔다. 광복동에는 정말 고향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이게 얼마만이나.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목놓아 대성통곡을 하였다. 정신을 차릴쯤 되니, 서로가 달려들어 자기네 집들의 소식을 묻느라 야단이었다. 하기가 2개월 뒤에 만났으니, 고향서 뒤늦게 떠난 줄 알았기에 물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원산에서 여러분과 같이 떠났으나 육로로 천오백 리 길을 오다 보니, 오늘에야 부산까지 온 것이란 것을 설명했더니 모두들 죽지 않고 살아 온 것에 놀라기만 하였다. 경찰서장은 내가 거기서 순 장사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돌아갔다. 나는 그때 처음 꿀꿀이죽이라는 것을 먹어보았다. 정말 별미여서 두 그릇이나 얻어 먹었다. 이제 고향 사람들과 가마니로 만든 움막이지만 같이 생활하는 행복감이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

부산 제3부두에 나가 노무자 생활을 시작했다. 시멘트 포장지에 싨 밥에 다가 소고기

통조림을 따서 같이 먹으니 세상 살 만하였다. 부두 일을 하기 사흘째 되던 날 40대의 사람이 불렀다. “당신 ‘체크’라는 것을 해 보겠나, ‘체크’란 빅토리오호에서 내리는 물건들을 숫자대로 적으면 되오.”, 이게 웬 떡이나. 다음날부터 배에 올라가서 ‘체크’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탱크, 대포, 박스류 등 내리는 물건들을 숫자대로 적어서 군복을 입은 높은 사람에게 보고하면 됐다. 나는 배에서 승선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여 신이 났다. 그런데 편한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하였다. 일한 지 2개월쯤 되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운이 없소. 이북 출신이라고 곤란하답니다. 내일부터 여기를 그만 두랍니다.” 나는 다시 피난민 촌에서 빈둥대기 사흘만인가였다. 인천에서 피난을 온 한청기업의 사장이 부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보니 그 사장이 내가 부두에서 ‘체크’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한청기업이라는 데에 취직하여 일하는 데, 하루는 이웃의 대한조선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람이 “피난민 놈들 죽일 놈들이야. 여기서 쫓아내야돼...” 갖은 욕설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 욕하는 이유를 따져 보았더니, 자기가 사택 근처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 돼지를 피난민들이 독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근처의 피난민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이었다. 증거를 대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이 친구가 부산 토박이라 우리는 영락없이 쫓겨날 판이었다. 나는 생각에 골몰하다가 결론을 냈다. 돼지를 해부해 보기로 하고 배를 갈라 보았다. 창자에서 새우가 나왔다. 누가 새우를 먹인 것이었다. 피난민들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그때의 돼지 먹이는 주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짬 밥통’이었다. 짬 밥통이란 것은 식당의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 8군 식당을 찾아갔다. 그 식당에는 한국 종업원들도 많았다. 사정 얘기를 하여 쓰레기통을 뒤졌다. 아니나 다를까 먹다 버린 새우젓이 봉지와 같이 나왔다. 알아보니 식당의 한국 종업원들이 미제 기름 음식에 익숙치 못하여 김치, 고추장, 새우젓을 사서 섞어 먹은 것이었다. 사진을 찍어 갖고 그 돼지 주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는 그 돼지가 독살이 아니니까 우리 피난민들이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고 하면서 모두 나누었다. 그제야 돼지 주인이 극구 사과하면서 같이들 살자고 하였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일주일 되던 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외출을 하는데, 헌병대에서 지프차가 와서 군인 두 명이 느닷없이 수갑을 채워 헌병대로 연행하는 것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리고는 마치 샌드백을 치듯이 마구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한 후 다시 지프차에 싣고 부산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 버렸다. 나는 문득 지난 번 경찰 서장이 생각이 났다. 이들은 아직 나를 이북 빨갱이로 의심하나 보다. 아무 조사 없이

유치장 생활 14일이 된 날 초저녁 무렵이었다. 감방앞으로 군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지나가기에 손을 내밀어 흔들면서 보자고 하였더니, 다가오기에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검사인데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는 가 버렸다.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이 검사가 찾아와서 “이제 나가도 됩니다. 피난 나와 고생 많습니다.”하고는 총총히 가 버렸다. 오늘까지 그 검사의 이름을 알아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15일 간의 유치장 생활을 했으니 직장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

영도섬을 찾아 산 비탈에 움막을 쳤다. 사흘만에 태풍이 몰아쳐서 이것마저 날아가 버렸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제3부두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3명이 찾아와서 미군 고추장 장사를 권하였다. 그래서 미군 고추장을 헐값에 100 상자를 사 가지고 와룡동에 구멍가게를 내고 팔기를 시작하면서, 나의 피난민 길의 장사군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돈벌이가 잘 되었다. 고추장 장사를 한 지 두 달째 되던 어느날 이웃의 장사꾼 청년 3명이 찾아와 자리를 비우라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대판 싸움이 났다. 1대 3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다. 한 놈을 물고 늘어지며 젓 먹던 온 힘을 쏟으니 다른 두 놈도 도망쳤다. 구멍가게를 지키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다음날 양피장사를 한다는 50대의 아주머니가 찾아와 저녁을 살 테니 중국집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 아주머니는 어제 싸움을 잘 보았고 또 구멍가게의 장사하는 것도 보았는데, 장사 밀친 줄 테니 큰 장사를 해보라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피난민 빈털터리에게 무엇을 믿고 밀친을 주느냐고 거절 했으나 양심을 담보로 한다면, 기어코 1천만원이란 거금을 빌려 주었다. 나는 곧 크리스마스 와 양, 음력 설이 다가오니 이 대목을 노렸다. 선물용 과자 장사를 생각해 냈다. 그래서 1천만원 모두를 제과점과 계약을 하였다. 지금의 독과점과 비슷한 작전이었다. 이것이 명중을 했다. 몇 배의 장사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 너도 나도 달려드니 이 장사도 끝장나게 생겼다. 그래서 돈을 준 아주머니를 찾아가 신문을 보니 복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나도 고향에 가야겠다면서, 얼마의 이자까지 쳐서 빚을 갚고 부산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속초에 온 것이 '53년 3월이었다. 광신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과자, 계란, 돼지군납 등 안 해본 장사가 없었다. 꽤 돈을 모았다. 그러던 '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주둔 군부대도 이동해 가면서 속초 장사가 시원치 않았다. 그때의 속초에는 명태, 오징어, 양미리, 도루묵 등이 처치가 곤란하리만큼 태풍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로 방법이 대부분이 목선이어서 고기잡이가 대단히 힘들었고, 조난 사고도 빈번하였다. 그래서 발동선 기계 제작을 생각하고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동방기계

제작소란 간판을 걸었다. 기계란 ‘기’ 자도 모르는 나는 기술자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라 실패하기를 1백 번 이상이었을 것이다. 공장을 차린 지 3년이 되어서야 소구 엔진을 완성하는데 성공하여, 10마력에서 80마력까지 제작하는데 이르렀다. 선박의 소구 엔진 제작공장으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디젤엔진의 보급과 포항 제철에서 기술자 빼가기에 더 할 방법이 없었다. 30년 가까운 공장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공장 자리에 여관을 지었다가 오늘에는 제화, 피자, 냉면가게를 차려 자식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사업)속에서 속초 상공 회의소(2대회장) 건물 세우기와 속초 초등학교 육성회장, 속초지구 원산 시민회 회장을 하면서 상공인의 육성, 어린이 교육 발전, 동향 피난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했다. 상공 회의소 건물을 지을 때의 어려움은 정말 컸다. 건립 추진 위원장직을 맡은 나는 국회 의장을 찾아가 1천만원을 지원 받은 것을 갖고, 손수레 한 대 분의 모래를 놓고 기공식을 하였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가 없이는 못 산다’는 늪지에 ‘대한 철강 양양광업소’의 폐석을 얻어다가, 외옹치의 모래를 가져다 깔아 터를 닦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도비와 시비 지원에 매달렸다. 전 상공인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결국 7층 건물을 짓는 데에 성공하였다. 속초 초등학교 육성회장 시절이었다. 어린이 가을 운동회를 부활하였다. 다음해부터는 속초 시내 전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가을 운동회가 열린 것이다. 당시에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보급에도 앞장섰다. 매년 2백만 원의 지원을 하였다. 아마 대포 초등학교인가 전국 우승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재속 원산 시민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상부상조에 노력하였다. 가난한 동향인들에게 쌀 주기 운동, 장학금 지급을 우선하였다. 후에는 공동 묘지를 조성하였다. 아들 다섯을 두었다. 애들이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한 아이가 의사이고, 나머지 네 아이 모두가 장사를 하고 있다. 자기들 노력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하다. 이제 80의 고령에 죽을 날만 남았는데 요즈음은 고향의 부모와 처자가 보고 싶음이 이리도 더한 지. 이 한을 안고 끝내 속초에 묻힐 터이니, 어찌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지난 세월이 아련하다. “전쟁이란 정말 없어야 하는데…….”

“혼자 가시려구요? 큰애 달구 가시지요”

— 어머니의 그 말씀 아직도 아련한데 —

정래섭鄭來燮 북강원 북고성/ 속초시 조양동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은 한 사람이 동일한 시각에 두 길을 갈 수 없을 때 선택되는 것이라고 어느 작가는 말했다. 정말 운명은 선택되는 것인가.

그날 밤은 몹시 추웠다. 며칠째 내리던 눈이 그치는가 했더니, 무서운 금강내기바람(금강산 일대에서 불려지는 말)이 스산한 휘파람 소리를 내며 창문을 할퀴고, 뜯어 갈 듯이 요란스러웠다. 윗방 천장 아래 매달린 낡은 라디오에서는 심한 잡음에 섞여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동네 어른들은, 그 앞에 모여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별떡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일단은 며칠 피하는 게 좋겠군. 폭격이 또 시작될 것 같은데…….” 나는 아랫방 아랫목에서 어머니가 바느질 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씀끝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혼자 가시려고요?”, “글쎄” 큰애 달구(테리고) 가시지요. 나달(식량)집을 지켜도 애가 있는 게 날텐데.” “그렇까.” 잠시 후 낡은 배낭(륙색)에 쌀 몇되박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나섰다. 이상이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된 운명의 순간이고, 50년 긴긴 세월을 있게 한 동기이며, 동구밖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오신 어머니는 목에 감았던 당신의 목도리를 풀어 내 목에 감아 주시며 눈시울을 적셨다. 아버지는 “뭘, 한 4~5일이면 돌아올거야.” 하셨다. 1950년 12월 25일 밤 10시경의 일이다. 우리 부자가 마을의 작은 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 계셨다. 얼어붙은 듯 하얀 눈 위에 아스라이 서 계시던, 그 마지막 모습을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허리까지 차 오른 눈을 헤치고 고성읍까지 왔을 때(약 12km), 시내는 이미 적막 강산이었다. 거의가 피난을 떠난 뒤였다. 아버지가 아시는 집에 들러 눈을 좀 붙이고, 동이 트면서 다시 떠나 간성읍에 왔을 때 날은 어두워졌다. 밤을 재촉해 교암(다리 바위)까지 왔을

때였다. 어디선가 “누구얏” 하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요란했다. “뛰자!” 아버지가 외쳤다. “버려!” 등에 진 배낭을 버리고 해변으로 뛰었다. 얼마 후 총성이 멎고 조용한 틈을 타 셋길로 빠져 나왔다. 강을 넘어 남으로 남으로 계속 걸었다. 고무신이 찢겨서 새끼줄을 주워 발에 동여매고 걸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배가 곪아 몇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으나 아버지께서 손을 이끌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셨다.

어디쯤인가에서 한 젊은 아주머니가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10살 박이 아이 시체를 물어 주면 사례하겠다고기에 따라갔다. 잘생긴 남자아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아이 어머니는 한 없이 울고만 있었다. 나는 평생 처음 주검과 마주하고 있었다. 삽과 곡괭이로 얼은 땅을 얼만큼 파고는 물어 주었더니 쌀 몇 되박을 보자기에 싸 주셨다. 도망치면서 내버린 어머니 쌀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마 한 말쯤 된 것 같았다. 이 송장을 묻고 얻은 쌀이 우리 부자가 후포항까지 가는 데 식량으로 충족했으니, 하늘도 무심치 않은 것 같았다.

후포에서 문전 걸식 하기를 1년여인 '52년 1월말 경에 주문진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군 트럭에 강제로 실려졌다. 간성에 와서 아버지는 풀려나고 나는 진부령 주둔 부대까지 실려 갔는데, 이 부대가 수도 사단 1연대 3대대였다. 첫날 캄캄한 밤 천막에 수용되었는데, 한 사람 앞에 건빵 2봉지씩 던져졌다. 우리는 정신없이 먹었다. 이게 웬일일가. 몇시간 뒤 모두가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보니 곰팡이 조각들이었다.

이틀 후부터 80미리 포탄과 수류탄 운반작업이 시작되었다. 한 조가 130명 정도로 기억되었는데, 우리는 새벽에 떠나면 향로봉을 지나 전쟁터까지 갔다 오면 밤 10시가 넘었다. 정말 힘에 부쳤다. 이 같은 군 노무자 생활을 한 지 1개월쯤 되던 어느 날 최전방 중대장이 “어, 학생. 나와 같이 있자.”고 하였다. 나는 집에서 입고 온 교복을 아직 입고 있었다. 대구 출신 최남수崔南洙 대위였다. 중대장은 나에게 군복을 갈아 입혀 주고 동생같이 아껴 주었다. 살맛이 났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 생각이 나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장께서 “너 오늘밤 안으로 대대 병기과로 내려가.”라고 하여 나는 그날밤으로 후방부대에 갔다. 다음날 알고 보니 그 날밤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많은 사상자를 냈단다. 중대장이 나를 보낸 이유를 그제야 알았다. 중대장께서는 나를 보내면서 고향의 주소를 적은 편지 쪽지를 주었는데, 다음에 갈 곳이 없으면 자기 집에 가면 반겨 줄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이 쪽지를 꺼내서 읽고 또 읽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다.

힘든 포탄 운반이 또 시작되었다. 이때에는 130명의 노무자 인솔 대장이 되었다. 다시

연대 본부에 배속, 군속이 되었다. 얼마후 우리 수도 사단이 5사단과 교체되면서 나도 부대를 따라 속초항에서 L.S.T를 타고 여수항에 내렸다. 우리 군속들은 공비토벌 도움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대가 다시 강화로 이동하여 따라 다니다가 '52년 본부 중대장이 귀향증과 건빵을 가득 넣은 보따리 하나를 주면서, "고향이 가까운 강릉쪽에 가서 공부를 하라" 하면서 제대 아닌 제대를 시켜 주었다. 먹고 살 길이 아득한데 공부는 무슨 공부였겠는가.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물어 물어 아버지가 속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속초로 찾아 왔다. 군 트럭을 얻어 타고 38선을 넘었다. 그런데 38선 검문소에서 헌병대 검문중 건빵 보따리를 빼졌다. 알고 보니 이 보따리 안의 건빵 속에 중대장께서 얼마의 돈(정확히 모르는)을 넣은 것을 헌병 아저씨들이 빼은 것이다. 이 돈의 덕이었는데 군 기피자를 면하고, 통과시켜 주었으며, 이것이 속초로 온 것이요, 오늘의 속초 사람이 된 것이다.

속초에 와 보니 아버지께서는 새장가를 가셨으며, 아이도 낳아 구멍가게를 하고 계셨다.

나는 속초항 부두에서 L.S.T하역 작업을 하던 어느 날,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8240부대에 있다고 하면서 고향 어머니를 데려오려면 자기네 부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 친구의 말에 어머니가 더 없이 보고 싶었다. 어머니를 모셔 올 수만 있다면, 내생명 다 바치리라는 생각뿐이었던 나는 다음날 입대를 하였다. 당시 우리 부대장이 고인이 되신 이승근(李承根 : 전 속초고 교장)씨였다. 나는 여기서 약 1개월 간의 훈련을 받고는 실전에 들어갔다. 우리의 임무는 적의 후방에서 교량 폭파 등 보급로를 차단하는 역할이었다. 통천 앞의 알섬에 파견되어 적진을 드나들기를 수십차례, 죽을 고비가 몇 번이었는데, 이 같은 고생에도 고향집에는 끝내 못가 본 채 1년 만에 휴전이 되면서 다음날 철수하였으니 어머니에게 이 죄스러움을 어찌하하고.

'54년 속초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56년에 졸업과 동시에 군에 입대를 하여 6사단에서 만기 제대를 하였다. 후에 인천에서 냉동, 제빙 공장, 문화 선전 영화 제작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는 속초시 수협에 들어가 10년간 근무하였다. 동안의 소년이 이제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백발이 되었다. 이산 가족 상봉 신청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먼발치에서나마 어머니의 숨결을 들을까 하여 금강산 관광선 첫배를 타고 또 타고 하여 무려 4차례나 갔다 왔으나, 내 고향마을에는 성냥갑 같은 몇 채의 집이 있을 뿐이었다. 그 울창하던 뒷동산도 벌거숭이로 변하여 있었다. 참으로 보고 싶은 어머니를 오늘도 목놓아 불러 본다. "어~머~니! 어~머~니!....."

청년 방위대로 구월산 전투에서 생존

- 패잔병 소탕 작전으로 수많은 전투 -

주종칠周宗七 황해도 은율군/속초시 영랑동

우리 집은 해방되면서 형 종기宗基가 기독교 청년회 사건으로 피체 직전인 '45년 11월 중순께 월남하면서 온 가족이 반동 분자로 지목되었다.

나는 '45년 말 친구들과 월남을 시도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다행히도 방속국에 근무하고 있던 형의 친구 도움으로 교원 양성소에서 약 6개월 간의 교육을 받은 후, 인민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50년 초 사상이 불순하다고 퇴출되기 직전에 야밤 도주하여 산 속에서 피신 생활이 시작되었다. 목피로 연명하는 피신 중인 '50년 10월 초 아군이 입성하면서 하산하였으며, 청년 방위대에 입대하면서 인근 구월산의 패잔병 소탕전에 가담하여 무수한 전투를 하였다.

'51년 1월 20일 부대의 후퇴로 초도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군부대에서는 해병대의 입대자와 잔류자로 희망에 따라 분류하였다. 나는 잔류하여 케로부대에 속하게 되었다. 케로부대 내의 수월水月부대의 인사 참모로 근무 중 휴전 전인 '53년 5월 22일 초도를 북한군에 넘기라는 명령에 따라 충청도 안면도와 용유도에서 부대가 해체되어, '54년 2월 16일 광주 육군 보병 학교에 입교, 소위로 임관 후 논산 훈련소(연대 인사 과장), 동해안 방어사령부 수송 과장으로 근무 후, '67년 9월 30일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다. 제대하면서 셋방을 얻어 서울의 친척 도움으로 양화점(신도 양화점)을 차려 20여년간 경영하면서 2남 2녀의 자식들을 모두 대학원을 졸업시켜 공학 박사의 교수를 두고 있다. 나를 오늘날까지 있게 한 대한민국 특히, 속초 시민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향군 속초 분회장('72~75년), 그리고 속초지구 황해 도민회장을 '95년도부터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루빨리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기약해 본다.

제 V 부
사료 · 연표



-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485



속초 시민 헌장탑



충혼탑



설악산지구 전적비



제1군단 전적비



경찰 전적비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해양 경찰 충혼탑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장 재 환 (전 설악신문 편집국장)

허 광 (강원일보, 조사자료부장)

년도	속초	강원도	국내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5:8·15해방. 남북한 38선으로 분단. 8월말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38선 형성. 속초면으로 북한에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가 38선으로 분단,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8월말)/춘천군 북산면 추전리·사북면 원평리(9월 초순)/인제군 남면 부평리·신남리, 춘천군 북산면 부귀리(10월 초)-철 원, 양구, 화천, 이천, 회양, 통천, 고성, 간성군 전지역 등 강원도 지역 절반 정도가 북쪽에 편입 김우중 중심으로 강원도자치위원회 구성-도청에서 도청간부진·민간 유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권을 이양받고 치안유지 활동, 중앙의 건국준비위원회로 연계 건준강원도지부로 발족(8.16) 원주 의용청년대(대장:이정호)원주청년회가 지역 치안유지 활동 소련군 1개 소대 병력 약 30명이 장교 인솔로 춘천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천왕 히로히토裕仁 무조건 항복 선언, 광복(8.15)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위원장, 여운형)(8.15) 소련군, 38선 이북 평양 진주(8.24) 여운형 주도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선언(9.6) 미 주둔군 사령부, 남한에 미군정 실시 포고(9.6) 미군, 인천 월미도 상륙(9.8) '평양인민위원회' 조직기구 발표(위원장:조만식)(9.8) 일본측 '조선군사령관' 및 '조선총독'이 항복문서에 조인(9.9) 하지 중장, 군정장관에 아놀드 소장 임명(9.11) 미군청정 서울에 설치(9.20) 김일성, 소련에서 평양으로 귀국(10.10)

<p>1945</p>		<p>들어와 강원도청서 일본인 내무부장, 경찰부장에게 행정권 경찰권 정식 이양 요구 (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 춘천진주(9.20) • 미군, 삼척 진주(9.25) • 건준 삼척지부 조직, 군청 경찰서 등 주요 기관 접수, 행정 경찰권 장악(9월 말) • 강원도 초대 군정관 즈비만 중령 부임, 소령급 고문관들 배치, 자문기관인 고문회 설치(회장:김우중 건준도지부장, 고문:김진구, 이범래 등 참여) • 도지사 산하 경찰부 창설(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공산당 5도 분국(북조선 중앙국)평양설치(서기장:김일성)(10.13) • 이승만 박사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10.16) • 미군 하지 중장, '남조선 유일 정부는 군정' 성명발표(10.17) • 여운형, '조선인민당' 결성(10.22) • 일본인 철퇴령 포고(10.24) • 서울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 신탁통치 반대 성명(10.26) • 이승만 중심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발족(11.3) • 평양에서 '북조선민주당' 결성(당수:조만식)(11.3) • 함흥 반공 시위(11.7) •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11.23) • 김구, 김규식, 조소앙등 임시정부 요인 제1진 중경에서 귀국(11.23)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이북에 소위 '민주기지' 건설 결의 -북조선분국 책임비서에 김일성 취임(12.17) • 소련 제25군단 사령관 명령으로 소련군인 중 기술자 출신 북한 각 공장 배치(12.18) •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궐기 대회(서울/12.28)
<p>194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9 : 속초애국동지회 사건. 10명 체포 • 7. 29 : 38이남 양양지역 반공청년 친목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우중 위원장 주도 반탁 시민 대회 춘천시청자리에서 개최(1.3)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강원도지회 조직 • 좌익세력, 국민회에 맞서 민주주의민족전선 강원도위원회 결성리 단위까지 조직 확대(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공산당, 모스크바 3국외 상회의 결의 지지 선언(1.2) • 김구, '비상국민회의' 결성(1.4) • 미소대표 아놀드 소장 -스티코프 대장 서울 회동(1.16) • 김구 중심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조직(2.8)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489

<p>194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후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창설 때 강원도 연고 제8연대(중대장:김중갑 부위) 창설 - 4월1일 춘천에서 A중대 편성을 시작으로 강릉 B중대, 원주 C중대로 기간 조직 갖추 -제8연대 본부, 남춘천역 옛 중방회사에 자리잡고 춘천에서 주문진에 이르는 38선 경비 담당 • 제8연대, 울진에서 공산측 선동으로 일어난 쌀파동 진압(11월) • 도 산하 경찰부로 발족한 강원경찰이 제2관구청으로 분리 독립(4월) • 춘천 3·1청년단(단장:박승하), 원주 의용청년대(단장:이정호), 민족청년단(단장:홍범희), 주문진 광복청년회(자치군 중대장:석종문) 등 우익청년단체들이 광복 직후 좌·우익 충돌 등 혼란기 수습 전위대로 활동 • 원주지역 좌·우익 충돌로 유험사태(10월) - 춘천, 강릉, 묵호, 홍천 등 곳곳에서 충돌 • 인제경찰서(제11구)·주문진경찰서(제12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의원 개설(의장:이승만, 부의장:김구, 김규식)(2.14) • 평양에서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발표(3.5)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3.20)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0개정강 발표(3.23) • 광복군 귀국(6.22) •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관한 노동법령’ 공포(6.24) • 북조선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공포(6.27) • 서울에서 소련 영사관 철수(7.2) • 미소공동위원회 재개(7.26) • 김규식, 여운형 주도 ‘좌우합작위원회’ (7.29) • 북조선,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 공포(8.10) • 북조선노동당 발족,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 합당(위원장:김두봉)(8.28) • 노동당 제1차 전당대회(8.28~30) • 김일성대학 개교(9.15) • 대구 공산폭동(10.1) • 남조선노동당 발족(11.23) •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의원 개원(의장:김규식)(12.1)
<p>19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창설(위원장:김일성)(2.21) • 군정청 부처장에 한국인 취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칭(6.3) • 소련측, 미소 군대 동시 철수 제안(10.19) • 김구,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성명(12.22) • 북조선 화폐개혁 구조선

<p>194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 소련군, 38이북 양양군지역 주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헌국회의원 선거 - 춘천 등 12개 선거구에서 총 43명(국민회 19명, 대동청년단 9명, 무소속 12명, 부녀회 노총, 민통, 각각 1명)이 출마 평균 3.5:1 경쟁률 선거인수 467,554명 중 98.7%가 797개 투표소에서 투표(5.10선거) • 미군기, 독도 오폭 誤爆 어선 23척 침몰 16명 사망(6.8) • 북한군 48년 11월~50년 4월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2천 4백여명이 유격전 도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권대남 방출(12.26)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서울 도착(1.8) • 소련측, 유엔 한국위원단 입북 거부 통지(1.23) • 남로당, 단독선거 반대 전국 총파업(2.7) • 조선인민군 창군 발표(2.8) • 조선농민동맹 결성(2.10) • 제주도 대규모 폭동(4.3 사건) • 김구등 한독당 대표단 38선 월경(4.19) • 유엔 한국위 감시하에 남한 총선거(5.10 단독선거) 실시 • 북한, 대남 송전 중단(5.14) •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회(초대 의장:이승만)(5.31) • 북한, 북조선인민회의에서 헌법초안 공포(7.10) • 헌법 · 정부조직법 공포(7.17) • 초대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7.20) •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임명(8.1) •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 하지 중장 미군정 폐지 발표(8.15)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선포(수상:김일성)(9.9) • 남한 미군정 철폐 완료(9.13) • 여수, 순천에 공산 폭동(10.19)
<p>194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29 : 월남 반공청년들로 구성된 육군정보국 소속 호림유격대 제5대대, 제6대대 120명 설악산 등 38이북지역서 유격전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학도호국단 춘천고 운동장에서 창설(3.27) • 춘천이 본부인 제 8연대 산하 2개 대대 월북(세칭 표 · 강 소령 월북사건) -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승만 대통령, 대일배상요구 언명(1.6) •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2차회의 개최 -194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안 채택과 자강도 신설 결정(1.28)

<p>1949</p>	<p>대본부가 춘천인 제1대대와 홍천인 제2대대 병력을 38 선 부근으로 출동했다가 대 대장이 이끌고 월북(5.4) • 육군본부, 제8연대를 원주 로 철수 재편성 -청주에 있 던 제7연대를 춘천에 투입 38선 일대 경비 담당 • 북한군 정규군 약 2개 대 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 대 안 일대 불법 남침(8.5) - 국 군 제7, 8연대, 19일간의 공 방전 끝에 소양강 이북으로 격퇴 • 북한 김달산 유격대 1백여 명이 춘천·홍천군계 가리산 에 입산 공작산 일대 준동(9 월)</p>	<p>• 학도호국단 결성(3.8) •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 원선거(3.30) • 제헌국회 '남로당 국회 프 락치 사건' 관련 김약수 부의 장 등 13명 전원 체포 구금, 실형언도(5.20) • 환율 변경 -1달러:900원 (6.14) • 농지 개혁법 공포(6.22) • 조선노동당 발족 북로당· 남로당 합당(위원장:김일성, 부위원장:박헌영)(6.24) • 김구 피격, 서거(6.26)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4차 회의 인공창건 1주년 사업과 초등의무교육제 의결(9.8~ 10)</p>
<p>1950</p>	<p>• 6. 25:한국전쟁 발발. 북 한군 5사단, 함북 나남을 기 차로 출발하여 원산, 속초, 양양으로 이동, 동해안 국군 진선 돌파. 속초는 개전초기 북한군 제 5사단 진격코스 후방보급루트 역할. 북한군 육전대(해병대)인 제 549부 대, 속초에 대기하고 있다가 유격부대인 제 766부대와 명 주군 정동진과 삼척군 임원 진 상륙 • 9.30:국방군 제1군단장, “제 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 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명령 제 109호 발동. 수도사단 제 18연대 (연대장 임충식 대령) 38선 남쪽 2km지점 양양 서림리 진 출 • 10. 1:국방군 제 1군단(제 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 양양지역 수복. 제 3사단, 제</p>	<p>• 북한군, 발산지서 습격 1 개 대대는 춘천군 유포리 춘 천 중축장 침입, 국군과 교전 (1.17) • 북한 김상호 부대 3백여 명, 김달산 부대 구출기 위해 침투, 국군·주문진경찰 유 도 작전으로 25일만에 노인 봉과 청학동 계곡에서 퇴각 (2.25) • 북한 김무현부대 3백 50 여명이 인제에서 방대산 거 쳐 남하하는 것을 국군·홍 천경찰이 37일만에 격퇴 (3.26) • 북한군 제766부대 1천여 명의 유격대와 1천여명의 제 549부대 육전대의 혼성부대 가 새벽 3시 삼척군 원덕면 임원항 상륙~ 6.25 전쟁 발 발 첫 총성 기록(6.25) • 화천방면 집결 북한군 제2 사단, 38선 접경 춘천군 모 진교를 건너 국도따라 춘천 공격, 양구 방면 집결 제12</p> <p>• 한미군사협정 체결(1.26) • 북한, '국영농기계임경소' 설치 발표 -소련제 트랙터 1 천 대선전(2.8) •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원 수추청으로 일본 방문(2.16 ~19) •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안 부결(3.14) • 환율변경 1달러:1,800 (5.1) • 북한 인민경제발전채권 15 억 활분 발행(5.15) • 의무교육제 실시(6.1) • 한국은행 발족(6.12) • 평양방송,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지하공작원 김삼용, 이주하 교환 제의(6.16) • 북한, 3개년 인민경제계획 발표(6.20) • 북한 인민군 새벽 4시 기해 38선 돌파 남침, 유엔 안보 리, 공산군 38 이북 철퇴 요 구 결의, 공산측, 평양에 임시 독재기구 군사위원회 조직</p>

<p>1950</p>	<p>23연대(연대장 김중순대령)를 선봉으로 제 1군단 양양 38선 이북 진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3:제 3사단 제 26연대(연대장 이치업 대령) 간성 탈환 • 12월:중공군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 후퇴. 흥남 철수. 미군 L.S.T로 많은 피난민들 부산에 상륙 	<p>사단, 춘천군 북산면 내평으로 침공, 7사단 인제 방면 침공(6.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춘천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소양강 도하 저지(6.25~27) • 국군 혼전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제7사단 주력 남하 격퇴(6.25~29) • 강릉, 영월, 울진 수복(9.30) • 국군 제3사단, 동해안 38선 돌파, 원주, 흥천, 황성, 평창, 정선, 삼척, 주문진, 춘천, 장성 수복(10.1~2) • 강원도청 수복(10.4) • 북한군 폐잔병(제2군단 2만여명), 금강산 재집결 후 철원, 평강, 양구, 화천 거쳐 춘천지역 재침공, 강원도청, 마석 피난(11.18) 	<p>(6.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 서울 일시 후퇴(6.28) • 김일성, 인민군최고사령관 취임(7.4) • 미육군, 수원 부근에서 공산군과 첫 교전(7.6) • 정부, 부산으로 이전(7.17) • 유엔 군·국군 인천상륙작전(9.15) • 서울 탈환(9.28) • 38선 돌파 북진·북한지역 반공유격전 활발(10.1) • 평양수복~북한 각지 반공치안대 조직(10.20) • 중공군, 한국전쟁 참전(10.25) • 유엔 군, 압록강 연안 도달(10.26) • 유엔군, 후퇴작전 개시(11.29) • 중공군, 38선 돌파 남하(1.1) • 서울 후퇴(1.4 후퇴) • 유엔 재반격작전(1.20) • '조선여성동맹' 결성(1.23) • 인천 탈환(2.10) • 서울 재탈환(3.14) • 중부전선에서 3각 지대(철원, 평강, 김화) 확보(6.16) • 개성에서 유엔 군·공산군 측 휴전회담 시작(7.10) • 아이젠하워 원수, 한국전선 시찰(12.2) • 자유당 창당(12.23) • 한일회담 개시(12.23)
<p>195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초:국군과 유엔군 38선 이남으로 철수 시작 • 4. 4:38이남지역 재탈환 • 4월 :영흥군민회 창립. 속초읍 속초리 3구 조명상회에서 군민 60여명 참석, 군민총회 개최. 초대회장 김치룡씨 선출. 51년 당시 군민수 400여세대 • 5월:제 1군단 수도사단, 북한군 유격대와 설악산지구 전투. • 6월:양양군지역 재수복 • 8.18:군정실시. 수복지구인 양양군, 유엔군사령부 관할하에 통치. 국군 제1군단 사령관이 군정 집행. 각 읍면에 민정관(읍·면장) 선임. 군정사령부 속초에 설치. • 10. 8:속초초등학교 개교 • 10. 16 : 속초중학교, 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군 한국전쟁 참전으로 강원도 각 지역 철수 작전(1.2~7) • 부산으로 피났갔던 강원도청, 원주읍 일산동 1번지 원주군청에 임시사무소 설치 • 피난민 구호 활동. 53년 7월 30일 춘천이 완전 수복될 때까지 '원주도청' 시대 시작(4.15) • 원주 수복(3.1), 강릉(3.22), 영월, 황성(3.24), 정선, 평창(3.24), 춘천, 주문진, 인제(4.4)등 탈환 • 중공군 2개 군단 병력, 소양강을 사이에 두고 제2차 공세(5.16~22) • 국군 제6사단, 퇴각 중공군대부분 화천저수지(파로호)에서 궤멸(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탈환(9.28) • 38선 돌파 북진·북한지역 반공유격전 활발(10.1) • 평양수복~북한 각지 반공치안대 조직(10.20) • 중공군, 한국전쟁 참전(10.25) • 유엔 군, 압록강 연안 도달(10.26) • 유엔군, 후퇴작전 개시(11.29) • 중공군, 38선 돌파 남하(1.1) • 서울 후퇴(1.4 후퇴) • 유엔 재반격작전(1.20) • '조선여성동맹' 결성(1.23) • 인천 탈환(2.10) • 서울 재탈환(3.14) • 중부전선에서 3각 지대(철원, 평강, 김화) 확보(6.16) • 개성에서 유엔 군·공산군 측 휴전회담 시작(7.10) • 아이젠하워 원수, 한국전선 시찰(12.2) • 자유당 창당(12.23) • 한일회담 개시(12.23)

<p>1952</p>	<p>산리 빈집 이용 3학급 남녀 공학으로 설립. 초대교장 이철우, 교감 이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5:동해일보사 창립. 사장 김진익, 총무국장 박천복 등 • 4.17:동해일보 창간호 500부 발행. 등사관 • 4.20:민간인 전용 승용차 운행시작 • 4.23~24:군·관·민 친선체육대회 개최 • 5. 1: 보훈미망인회 속초 지회 창립 -주민들이 수복에 감사하여 이형근 군단장과 다이나 수석고문과에게 감사장 증정 • 5.28:정평(定平)향우회 발족. 고성군 청간정에서 한성익, 이계선, 박정일씨 주도. 군민 50여명 참석 • 5.18:양양고아원 개원식. 속초읍 상도문리에 전쟁고아 64명 수용 • 6. 1:38선 이남지역과 일반 우체물교환 취급업무 개시 • 6. 2:속초고등학교 개교. 62명 첫 입학. 초대교장 서창하, 교감 김치운 • 7.15:제 1군 제 2주년 기념식. 이승만 대통령과 미8군사령관 밴프리트대장등 참석 • 8. 8:군중대회(대포비행장에서 3만여명) • 9. 1:교육 수복 1주년 기념행사. 미국공보원에서 교재 6상자 기증 • 9. 21:서울 소재 미국 공보원에서 라디오 기증 • 10. 22 : 북한 출신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최초 지방선거, 춘천시, 춘성, 홍천군 등 미수복 3개 시·군 제외한 지역에서 실시, 읍의원 92명, 면의원 8백12명(4.25) • 제2대 대통령선거 38선이북 제외한 전지역 실시(8.5) • 남한 최대 화천수력발전소의 제1호기 복구 2만7천kW 발전(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도 공산군 포로들 dot지 중장 감금(5.7) • 유엔 군, 수풍발전소 대폭격(6.23) • 북한 전역 대기근 1952년 농민세금 면제 발표(7.9) • 북한, '공습피해 막대' 발표(7.11) • 이승만 제2대 대통령 재선(8.9)
-------------	---	---	--

	<p>5용사 영랑호 부근서 공비들과 교전 중 전사. -5용사 : 김덕범(함경북도출신), 지창하(함경북도출신), 이기구(함경남도출신), 김병선(평안북도출신), 김화수(평안남도출신)</p>		
<p>195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1:속초지구 단천군민회 창립 • 5. 29:이원군민회 창립. 보광사 송림에서 군민 2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초대회장에 박성주 선출 • 6. 28:반공포로 9명 귀향 • 7. 1:온정초등학교 개교(당시 설악국민학교). 초대 교장 장태갑. 65년 11월 15일 온정국민학교로 교명 개명 • 7. 27:휴전협정 체결. 이날 밤 10시를 기해 155마일 휴전선에서 포성이 멎음. • 8. 16:수복지구 기자단 결성 • 8. 18:속초읍 청사 준공식 • 8. 26:국회 본회의, 38선이북 미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문제를 정부 및 UN당국과 교섭코저 12명으로된 특별위원회 구성기로 채택 • 8. 30:속초 카톨릭 성당준공식 • 9. 6:밀림극장에서 제 1차 권투시합 • 9. 17:속초구호병원 신축 기공식 • 9. 18:속초어업조합 신축 • 9. 25:속초유치원 개원식(원장 서원필 목사) • 10. 21:읍장선출. 민주선거 실시. • 10. 28:속초체육회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25 휴전협정 조인으로 철원, 김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7개군, 3개읍, 33개 면이 강원도지역 편입(수복지구)(7.27) • 강원도청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전(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일성에게 원수 칭호 수여(2.7) • 제1차 화폐개혁 100원:1환(2. 17) • 북한 출신 반공포로 2만5천여명 석방(6.18) • 휴전협정 조인(7.27) • 텔레스 미 국무장관 한국방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8.3~8) • 북한, 이승엽 등 전 남로당 간부들 숙청재판 박헌영 감금(8.3) • 북한 내각, 미곡 자유판매 금지(10.22)
<p>1953</p>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495

<p>1954</p>	<p>초대회장 김상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3:양양군수 김주혁 임명(이때부터 민정관을 군수, 읍장, 면장으로 개칭) • 11. 5:속초중앙시장 준공식. 총공사비 8백여만원. 점포 263개 • 11. 8:2만여명의 양양주민들, 대포리 비행장에서 수복지구 행정권 정부이양 촉구 민중대회 개최. 이승만 대통령, 손원일 국방장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 참석. 이승만대통령 “조속한 시일내 수복지구 행정을 정부가 이양받는데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연설. 이형근 국군 제1군단장, 최규각 강원도지사 등도 참석 • 12. 4:동해상사 강릉-속초간 민간인 버스 하루 2회씩 운행 • 12. 17:수복이후 최대 화재 발생. 속초읍 3구와 4구 전소. 피해액 약 560여만원. 김법린 문교부장관 등 문교관계자 수복지구 교육, 문화시찰차 래방 <p>• 2. 1:주봉초등학교 승격(대포초등학교 부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5:속초, 인제 등 수복지구 피난농민 복귀 시작 • 3월:영북지역 함경도민회 결성. 초대회장 함남출신 김치룡 선출. “54년까지 영북지역에 정착한 함경도민수는 함남 2,700여 세대, 함북 300여 세대 등 총 3,000여 세대에 2만여명” 『함경북도도지』 • 4. 8:원산시민회 결성 준비. 김창길 자택에서 김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지구 7개 군 3개 읍 33개 면에 대한 행정권 완전회복(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대 민의원 선거(5.20) • 제3대 민의원 개원(의장:이기봉)(6.15) • 아시아 빈공연맹회의 진해에서 개최(6.15) • 북한, 황해남·북도(남해주, 북사리원)에 양강도(해산시) 신설(10.30)
-------------	---	--	---

1954	<p>김영근, 최성호, 윤영익, 심상원, 김창길 등 10여명 첫 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10:수복지구기념탑 건립. 피난민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고자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 건립. 이형찬 설계, 박칠성 제작. 김근식 당시 속초읍장과 이형근 제1군단장의 지원과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들 성금 모아 건립. • 5. 15:고원군민회 창립. 초대회장 서창하, 부회장 박태귀 • 8. 12:유엔군 사령부, “38이북 수복지구의 행정권을 한국정부에 정식 이양할 용의 있다”고 발표. • 8. 18:수복지구 행정권 한미협정 초안작성 착수. • 8. 28:정부,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에 대비, 수복지구 행정인수위원단 조직키로. • 9. 4:수복지구 행정권 이양문제 관련, 한미교섭 제 2차 회담을 미 8군사령부에서 개최. 행정권 이양에 관한 행정적인 세목에 완전 합의 • 9. 13:대홍수 • 9. 18:정부,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정.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식 회부 • 9. 29:국회 51차 본회의,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을 상정하고 전문11조의 정부 원안을 전문9조로 수정 통과 • 10. 3:정부·유엔군사령부, 수복지구 행정권 인수협정에 서명 • 10. 21:정부,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 공포 시행. 임시행정조치법안 내용 ①읍 		
------	--	--	--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497

<p>1954</p>	<p>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②정상적인 상황에 이를때까지 군수가 교육감이나 세무서장의 직무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14:수복지구 행정권 인수식 거행 • 11. 17:유엔군 사령부, 한국정부에 양양군 행정권 이양. 양양군수에 김주혁씨 임명. 민정이양 당시 속초읍의 행정구역은 16개리로 속초리,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상도 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장항리로 구성. • 11. 27:속초의 용소방대 발족 • 12. 1:속초우체국 개국 초대국장 김동엽 		
<p>195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동해일보, 공보처 발행허가 받지 못해 폐간 • 4.1:속초리5구와 3구를 잇는 나룻배(갯배) 1척 건조진수 • 4. 28:원산시민회 결성 결의. 인명록 발간 결의. 보광사 송림에서 야유회 개최. 250명 참석 • 5. 24:최초의 여성전문교육기관 속초여자중학교 개교. 초대교장 유장렬 • 7. 17:속초지구 문천군민회 창립 • 11. 6:속초지구 정평군민회 창립 • 12. 1:영랑초등학교 개교. 초대교장 고연재. • 12. 2:목호지방 해무청 속초출장소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강릉, 시로 승격 행정구역 3시, 17군, 7읍, 116면으로 개편(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초등의무교육제도실시에 관한 법령」채택(3.11) • 북한, 남한에 재송전 제의(11.8) • 북한, 박헌영에 극형 언도(12.5) • 최고인민회의 제10차 회의, 주민소득세 및 농업현물세 법령 채택(12.20)
<p>19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5:대설 • 3. 1: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최초 도의회 선거, 수복지구 7개 군을 제외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유세 중 급서(5.5)

<p>19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속초지구 고성군민회 창립 • 5. 15:수복지구 최초 선거. 제 3대 대통령 및 제 4대 부통령 선거. 양양군 지역 개표 결과 이승만 33,876표, 조봉암 358표, 이승만 99% 득표율 기록. 부통령선거 이기봉 29,935표, 장면 2,899표 • 6. 21:일본공산당원 19명 체포 • 7. 23:KBS속초방송국 시험전파 발사. 출력 0.3kw, 주파수1,000kc • 8. 1:KBS속초이동방송국 개국 • 10월:통천군민회 영동지회 창립 • 12. 31:강원도립 속초병원 설립 	<p>13개 시·군 25개 선거구에서 87명이 입후보 평균 3.5:1 경쟁률(8.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 도의회 구성(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통령 선거,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장면 당선(5.15) • 북한, 병력 8만명 축소 성명서(5.31) •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9.28) • 최고인민회의 제12차 회의, 소련방문대표단 귀환보고 형가리 반공의거 관련 친소 노선 운위(11.5)
<p>19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14:함남북청 출신들 정월대보름 맞아 북청사자놀이 속초서 첫 재연. 앞채사자 김수석, 통소 김하륜씨. • 6. 8:속초등대건립, 첫 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군사령부 동경에서 한국 이동(7.1) • 이 대통령, 휴전협정 무효 선언(7.28)
<p>19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청도청 건립. 전성우 속초읍장으로부터 금호동 소재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 받아 북청 동향친목계원 36명이 손수 건립 • 길주, 명천 친목회 결성. 강형범, 박주익, 김흥경 등 발의. 회원수 120여 세대 600여명. 해마다 음력 대보름에 영북지역 함북 시·군 대향 척사대회 주관 • 1. 19:폭풍우로 속초항에서 선박 38척 파손 • 4. 13:청호초등학교 13학급으로 개교. 초대교장 김진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A 여객기 납북 규탄 쟁기대회(2.25) • 강원도, 수복지구 개발계획 중앙에 제출(10.16) • 수복지구 교육시설 복구비로 새해 8억환 예상 (10) • 철원군에서 행정 수복 기념 행사(11.19) • 고성 앞바다 어선 6척 42명 피랍(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A 여객기 피랍(2.17) • 제4대 민의원 총선(5.2) • 제4대 민의원 개원(의장:이기봉)(6.7)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 회의, 제1차 5개년 계획(1957~61)에 관한 법령 채택(6.9) • 북한 농업협동조합 리 단위로 통합 결정(10.14) • 북한 중등의무교육제 실시(11.1)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499

<p>19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2:제 4대 국회의원 선거. 수복지구 속초 첫 국회의원 선거. 양양군, 자유당 이동근 당선 (선거인수 38,153명 10,366표 득표율 29.7% 경쟁률 9:1) • 7. 5:영국 황실 아시아학회 관광단 방문 계기로 속초-신흥사길 도로 착공 • 7. 15:속초해상과 고성지구에서 무장간첩 8명 생포 • 10. 9:전국체육대회 속초중학교 배구 패권 장악 • 11. 14:박상희 읍장 송덕비 제막식 • 12. 30:폭풍우로 명태잡이 어선 40여척 조난 		
<p>19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함남도민회 창립 결의. 신성철 등 준비모임 가져 • 4. 10:영북지구 함경남도민회 창립. 속초읍 사무실에서 대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 신성철(북청), 부회장 이용을(이천) 임정순(원산) • 5. 15:속초지구 황해도민회 창립 • 5. 31:함남 원산시민회 창립.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창립총회. 시민 350여명 참석. 초대회장에 남수악 선출. 인명록 배포하고, 경로잔치 열어 • 6월:영북지역 함북도민회 결성. 박태송, 김기웅, 최규선, 겸영파 등 주축. 초대회장 박태송 선출 • 7. 3:현대극장 개관 • 11. 13:속초항 소속 명태잡이 어선 용진호와 신영호 동해휴전선 부근서 피랍 • 11. 14:홍신희 선원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통화개혁, 신구화폐 1:100(2.13~17 교환) • 북한 4월 1일부터 전교육기관 수업료 폐지 결정(3.2)

<p>1959</p>	<p>이 북괴 무장선에 의해 강제 피랍 • 12. 22:해군에서 어로저지선을 북위 33° 33분으로 변경</p>		
<p>1960</p>	<p>• 1. 17:대설, 미시령 교통 두절 • 2. 20:눈으로 선박 21척 침몰 또는 파손 • 3. 15:제 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선거, 자유당 이승만, 이기붕 당선 • 5. 5:속초여자중학교 동맹휴학 • 7. 29:제 5대 민의원 및 제1대 참의원 선거. 민의원에 함종빈, 참의원에 정순응, 김대식, 김병로, 김진구 당선 • 8. 5:정낙현 북한군 공군 소위 MIG15 제트기 몰고 속초 비행장(육군 제 5비행장. 당시 대포비행장)에 착륙 귀순 • 8. 27 속초어업조합 임시 통상의원 회의 • 9. 9:연탄가스 사망사건 발생</p>		<p>• 정·부통령 선거,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씨 당선 발표(3.15) •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데모(3.15) • 4·19의거 •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4.26) • 이승만 전 대통령 부부 하와이 망명(5.29) •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한국 방문(6.19~21) • 제5대 국회 개원(8.8) • 대통령에 윤보선 선출(8.12) • 김일성, 남북조선연방제 통일방안 제안(8.14)</p>
<p>1961</p>	<p>• 2. 15:속초지서 형사대에 서 간첩 1명 체포 • 4. 7:대진리 앞 해상에서 어선 6척 선원 43명 납북 • 8. 15:영랑호 순국 5용사 추모비 건립(8. 26 묘비 제막식) • 8. 24:이주민 학사평 도착 • 11. 8:강풍으로 가옥 4동 도괴, 11동 반파 • 11. 29:속초항 소속 제 7 만창호(선원15명) 피랍. 12월12일 귀환 • 12. 31:KBS속초이동방송국이 KBS속초방송국으로 승격</p>	<p>• 춘천댐 기공(9.21) • 윤보선 대통령 전선 시찰, 도하작전 참관(9.28)</p>	<p>• 한미경제원조협정 체결(2.8) • 5·16군사정변(5.16) •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재건 5개년 계획안 발표(7.22) • 박정희 의장·케네디 미대통령 워싱턴 회담(11.15) • 북한, 함경북도 양강도와 강원도 일부 행정구역 개편(12.6)</p>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01

<p>196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주,명천 친목회 공원묘지 조성. 노학동에 임야 2,700평 매입 •신흥군민회 창립. 초대회장 주치돈 •1. 2:풍랑에 속초 선적 어선 5척 침몰. 선원 24명 사망. •1. 17:어부합동위령제 •2. 10:강풍으로 선박 9척 침몰, 주택전과 57동 •2. 19:풍랑사고로 어부 4명, 어선 43척 침몰 또는 파손 •3. 2:강원일보 속초지사 설립 •4. 1:속초어업협동조합 발족 •5월중순:속초지구 평안도 민회 결성 결의. 속초읍내 사육관에서 김은덕, 심인경, 김상연, 김충욱, 김달순 등 모여 준비위원 38명 선정 •5월하순:속초지구 평안도 민회 준비위원회 회의. 속초읍내 사육관에서 준비위원 4명이 모여 도민회 창립총회 일정 등 합의 •5. 19:폭발물 사고로 3명 즉사 •6. 15:속초지구 평안도민회 창립. 보광사 경내 유원지에서 준비위원 29명이 모여 도민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 회장 김은덕, 부회장 심인경, 총무 김달순 등 임원 선출. 창립총회후 준비위원과 가족 등 45명이 모여 야유회. •7. 24:속초시제 실시 추진 위원회 구성 •8. 5:속초 칠순노인 살해 사건 진범 체포 •8. 16:속초시제 실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경찰학교 개교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회담, 일본 경제시찰단 남한입국 반대' 평양시 군중대회(2.16) • 윤보선 대통령 하야 성명 (3.22) • '반미투쟁 남조선 청년학생들 지지' 평양시 학생·청년 군중대회(6.7) • 제2차 화폐개혁-10환:1원 (6.10) • 북한노동당 제4기 5차 회의-4대 군사노선 채택(12.10) • 한일회담 재산청구권문제 타결(12.26)
-------------	---	--	---

<p>1962</p>	<p>위원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에게 시승격 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1:속초시승격 차관회의서 통과 • 11. 21:정부, '시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제1176호' 공포 • 12. 17:국민투표 실시 		
<p>19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법률 제1176호로 속초읍에서 시로 승격. 당시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에 22개 부락과 312개 반으로 구성. 인구는 10,864가구에 55,619명. 김치룡(함남출신) 시장서리 임명 • 1. 6:동해안에 해일이 엄습하여 선박 98척이 파손 또는 침몰되고 가옥도 상당수 파괴 • 1. 7:속초시 승격 기념대회 개최. 박경원 내무부장관 이용 도지사 참석. 시제 실시 경축 시가행진과 비행기 전단 살포 • 2. 1: - 국민은행 속초지점 개점 대한통운속초지점개점 • 2. 12:큰화재 발생. 어판장 주유선 화재 • 2. 25:1대 이동보 초대시장 취임 • 3. 20:속초여자고등학교 3학급으로 속초고등학교서 분리 개교. 초대교장 김갑, 속초여중과 병설 • 4. 1:중앙초등학교 개교. 초대교장 김택용 • 4.20:속초시기 제정 공포식 • 5월하순:속초지구 평안도 민회 제1회 회원정기총회. 보광사 유원지에서 회원과 가족등 80여명이 도민회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후보 당선(10.15) • 제 6대 국회의원 선거 (11.26) • 북한 최고인민회의 · 조국전선 평화통일위 연석회의에서 남북 협상 관련 남조선 국민, 정치인, 사회활동가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12.10) • 제3공화국 출범(12.27)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03

<p>1963</p>	<p>립 후 첫 번째 회원정기총회와 야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18:속초예술제 개최 • 5. 19:제 3회 시·군대항체육대회 개막 • 6. 25:척산리에서 군트럭 굴러 23명사상 • 8. 9:태풍 베스호 동해안 강타 • 8. 11:어민 3백여명 「어업협동조합 통상위원(총대) 불신임 건의서」 농림장관 등에 제출 • 8. 17:상이군경회 속초시지회 창립 • 8. 23:전물군경유족회 속초시지회 창립 • 9. 7:대포리-신홍사간 12km 관광로 포장공사 준공식 • 10. 15:제 5대 대통령 선거. 속초시 개표결과 박정희 7,620표, 윤보선 11,035표 • 10. 26:양양경찰서 속초시로 이전, 속초경찰서로 명칭 변경 • 11.1:속초경찰서 청사 낙성식 • 11.2:김동석시장 취임식 • 11. 23:화재로 소실된 속초어업협동조합 어판장 낙성식 재향경우회 속초시지회 창립 • 11. 26:제 6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공화당 김중호당선 		
<p>19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1:해일, 폭설로 동해안 선박 50척 파괴 • 1월 :강원도 영동분청 유치운동 • 1. 30:속초시개발위원회 발족(82.1.30 속초시번영회로 개칭) • 2월 :속초 시내 7개국교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들 한일회담 반대시위(6.3사태) • 중앙정보부, 인민혁명당사건 수사 결과 발표 41명 검거(8.14)

<p>1964</p>	<p>입생 2,300명 달해 교실부족 사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28:속초고교생 5백여명 한일회담 반대 데모. 「평화선을 사수하라」는 플래카드 들고 시청앞 광장까지 거리행진 • 4. 9:영북지구 함남도민회 제2차 정기총회 북청도청서 개최. 2대회장에 임정순 선출 • 4. 20:학사평정수지 개수식 • 5. 8:속초지구 함주군민회 창립 • 6. 1:속초시보건소 신축공사 기공식 • 6. 6:속초시 1구 등대 뒷산에 충혼탑, 건립 제막식. • 7. 16:전력유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석 시장·한국전력, 전기가설공사 계약 체결 • 7.21:속초시 청사 신축 기공식 • 8. 12:음협주관으로 학생 음악 경연 • 8. 22:수북지구 숙원인 전기복구공사 기공식. 속초중학교 교정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을 비롯 박경원 강원도지사, 김종호 국회의원 등 참석. 총 공사비 1억 5천 4백만원 소요 • 8.27:박건주 속초시장 취임식 • 11. 29:제 7만창호 강제 납북 • 12. 23:영북지구 전기복구공사 준공식 거행. 강릉-속초간 72km 고압선 송전시설 공사 완료. 시내에 네온사인 설치 		
<p>19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한국전력(주)강릉지점 속초출장소 신설 • 1. 9:폭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발전소(춘천댐) 준공(2.10) • 강원도, 수북지구 개발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한·일회담 반대 외무성 성명 발표(2.25) • 단일변동환율제 실시(3.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05

<p>19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8:부두노조 조합원 4백여명 현대극장서 임시총회 열고 양양광산 광석 부두하역 작업 기계화 반대 투쟁 결의 • 3. 1:예총 속초지부 창립. 초대회장 최구현 • 3월:신포읍민회, 명신중학교에서 창립총회. • 3. 22:속초문화원 설립 • 4. 7:강릉-거진간 철도개통 위한 영북지구 철도유치추진위원회 발족 • 4. 10:속초어업협동조합 신용업무 개시 • 5.10:척산리화전민정착개간사업 기공식 • 5. 19:납북어선 사건 • 6. 9:속초1구-6구 가로등가설 • 7. 11:속초고교생 2백여명 대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 학생회장등 11명 연행 • 8. 18:도립속초병원 신축 기공식 • 8. 22:무장피한 5명이 외설악 중턱에서 숲구이 민간인 4명 살해 • 9. 2:속초고등학교 교사 신축 기공식. 속초시 6구 신축 부지내 2층 콘크리트 건물로 14개 교실 마련 • 9월:길주,명천 망향비 건립. 비문,“來否來(올래야 올수없고), 去否去(갈래야 갈수 없고) • 10. 9:무장피한 3명 출현하여 국군 1명 피살, 1명 납치 • 10. 30:향군 주취,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제막식. 한 국전쟁당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영령 추모 	<p>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특별법 시안 마련(4.25)</p>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농업근로자동맹 창립(3.25) • 북한 인민군, ‘불법 침입 미 L-19형 정찰기 1대 격추’ 보도(5.18) • 한일협정 정식 조인(6.22) • 국회, 한일협정 비준안·전투사단 ‘맹호부대 파월안’ 통과(8.13)
-------------	---	------------------------------------	---

<p>19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5:문공부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 • 11. 9:주봉국민학교가 외설악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11. 23:강원도 수산진흥어민대회 속초서 개최.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대일청구권 자금의 증점투자 요구 • 12. 10:북청도청서 전국 부두노조 속초시분회 임시총회 개최. 305명 회원 참석, 민수물자(철광석) 노임인상 요구 쟁의신고 결의, 월수입 1만5백24원선 주장. 국제은행(IBRD)조사단 일행 속초항 개발위한 현지조사차 속초항 방문 • 12. 11:외설악초등학교 설악분교장 개교 • 12. 30:동해안에 풍설 참극, 선원 43명 익사 		
<p>19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속초시 동계 실시. 속초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95조)공포로 리를 동으로 변경시행. 12개 동으로 구성. 영랑동(속초리 1구) 동명동(속초리 2구) 중앙동(속초리 3구) 금호동(속초리 4구) 청학동(속초 6구 일부) 교동(속초 6구 일부) 노학동(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조양동(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1구) 청호동(속초 5구, 부월리 2구) 대포동(대포리) 도문동(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설악동(장항리) • 1. 26:속초고등학교 교사 준공식. 김동진 교육감, 박건주 속초시장, 이달영 속초고등학교 사친회장 등 참석 • 2. 24:납북어선 선장 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무장선 9척 대진 앞 바다에서 어선 40척 습격 (7.29) • 맨스필드 미 국무차관보 강원도 방문(8.7) • 북한군이 명태잡이 어선에 43발의 함포 사격(11.22) • 동해 어른지도본부, 납북이 잦아 주문진 이북 출어 금지령(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3기 5차회의 남한의 월남 파병 반대하여 강력 투쟁하자는 호소문 채택(4.27~29) • 한미행정협정 조인(7.9) • 주월 야전군사령부 설치(8.15) • 존슨 미대통령 방한,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10.31~11.1)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07

<p>1966</p>	<p>구속. 납북됐다 귀환한 행영호 선장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구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7:속초상공회의소 창립. 40여명의 상공인 참여. 초대회장 김치룡, 부회장 박태송, 김용기 • 4.10:동명동에 버스종합주차장 유치 결정 • 6. 4:설악산 비선대~금강굴간 유료 관광로 개통 • 6. 17:속초원자력연구소, 방사성고체 속초 동남방 10마일 수중에 투하 폐기 • 7. 1:조양재건학교 개교식. • 7. 26:속초상공회의소 설립 • 8. 25:향성사지3층석탑이 보물 제443호로 지정 • 9. 7:육군 방첩대, 간첩 16명 검거 • 9.26:상업은행 속초지점 개점 • 9.28:속초시청 구청사에서 신축청사로 이전 • 10. 1:제1회 설악제. 설악동에서 개최 -최규연 속초시장 부임 • 11. 5:강릉축후소 속초출장소 발족, 영흥군민회 묘원 조성 • 11. 7:속초항 수로확장공사 기공식. 폭 60m수로 80m로 늘려 3천톤급 선박출입항 가능 • 12.23:보물 제443호 향성사지 3층석탑 보수공사 • 12.27:속초전신전화분국 자석식 전화를 자동식으로 교체 		
-------------	--	--	--

<p>19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9:해군함정 56함 피격 침몰. 해군함정 56함, 고성 거진북방 9마일 휴전선 근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는 명태잡이 어선들을 저지하고 보호하다 북한의 지상포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침몰. 56함 승무원 79명중 39명 사망, 13명 부상 • 1.21:북괴만행규탄 쉼기 대회 • 2. 26:납북어선 복성호(선원8명) 납북 89일만에 귀환 • 4. 5:속초지구 평안도민회 묘지조성 결정. 김희순회장 대서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 갖고 노학동 산27번지 임야 4천3백20평 구입키로 결정. 묘지구입비 8만원 모금키로 • 4. 6:영랑동 공동시장 개축 준공. 수복지구 특별재정 보조금 700만원 소요. 김종필 공화당 의장 속초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 • 4. 10:신민당 대통령후보 윤보선 선거유세 • 4. 14:유자망어선 전수식.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19척(20톤급) 건조 • 5. 3:제6대 대통령선거 실시 민주공화당 박정희 당선 • 5. 20:미스강원선발대회 개최(대원극장) • 6. 2:문흥주 문교부장관 속초방문. 수복지구 노후교실 대책 언급. • 6. 3:납북 콩치잡이 어선 용진호(속초선적 20톤) 75일만에 속초항 귀환. 선원 8명 구속 • 6. 5:설악중학교 개교, 초대교장 정치규 • 6. 8:제7대 국회의원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 경비정 56호가 동해에서 북한군 포격에 침몰(2명 사망, 28명 실종)(1.19) • 속초에서 내무부 주관 접적지역 종합 개발 관계관 회의(3.18) • 귀농선북방 재건촌 개발, 우선 1만 호 입주. 내무부, 수복지구 전기·도로사업 특별 교부세 1억 배정 • 북한군 침투 5명 사살(4.10) • 전물 경찰관 등 9백구 국립묘지 이전 봉안식(5.30) • 양구에서 무장 괴한 10여명 기습받고 장병 7명 사망(7.1) • 강원 전투경찰대 발대식(9.1) • 동해경비본부 발족(11.1) • 어선 10척, 어부 62명 납북(11.3) • 피랍 부정 1호, 2호, 전진호 등 어선 3척, 어부 39명 귀환(12.25) • 북한선 7척, 명태잡이 어선 5척, 어부 31명 또 납치(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동해안에 공군기지 신설 검토(2.16) • 북한, '남조선해방민족민주연맹 방송' 시작, 평안남도 순안(3.15) • 북한 중앙통신 이수근 부사장, 판문점에서 탈출 귀순(3.22) • 제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공화당 후보 당선(5.3) • 제7대 국회의원 선거(6.8) • 중앙정보부, 동백림사건 발표 1백4명 구속(7.8)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선거 100% 참가, 100% 찬성(11.25) • 동백림 사건 34명 전원 유죄선고(12.13)
-------------	---	---	---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09

<p>1968</p>	<p>민주공화당 김종호 당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17:춘천지방법원 속초 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 지청 개원·개청. 영북지역 주민들 각종 소송사건 처리 위해 강릉까지 왕래하던 불편 해소 • 7. 15:속초지구 평안도민회 묘지조성. 묘지구입비 8만원 완불하고 매매계약 체결 • 8. 1:서울~속초 간 항공로 개통 • 8. 5:속초해수욕장 첫개장 • 9. 8:양양전매서 폐쇄, 속초전매서로 개칭 • 10. 8:제 2회 설악제 개최 • 10. 9:박정희 대통령 가족 설악산 탐방 • 10. 31:동해어로지도본부 발족 • 11. 1:거진항서 56함 전물장병 충혼탑 건립 제막식 • 11. 3:동해어로저지선 근해상에서 명태잡이 어선 10척, 어부 60명 납북 • 11. 11:휴전선 부근서 금성호(5.5톤 선원6명) 피랍 • 12. 1:이건웅 속초시장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6:속초선적 신광호 등 6척 피랍 • 1. 11:어선3척 선원20명 납북 • 1. 23:미해군 정보수집함 '프예블로호' 북한해군에 나포. 장교 6명, 사병 75명, 민간인 2명 등 83명 승선 • 2. 10:속초지역 신년도 대학진학자 15명 • 2.22:목호세관 속초감시소 청사 낙성식 • 2. 27:1월초에 납북된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환어부 22명 반공 및 수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1.8) • 북한 구축함, 남한 어선 습격, 어부 6명 사망, 어선 3척 납치(1.11) • 원주 3225부대에서 대간첩 작전 기동타격대 창설(1.26) • 춘천공설운동장에서 북한만행 규탄대회(2.1) • 피랍 어선 18척 귀환(3.21, 23) •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124군 부대 무장공비 31명, 청와대 기습 목표로 서울 침투, 김신조 제외한 전원 사살(1.21) • 미국 해군 정보 수집 보조함 '프예블로호' 승무원 83명과 함께 동해에서 납북(1.23) • 향토예비군 창설식(4.1 대전) • 제1차 한미국방장관 연례회의 개최(5.26) • 북한군 6명 사살, 서부전선서 4차례 교전(6.22)
-------------	--	---	---

<p>1968</p>	<p>양호 등 어선 5척과 선원 34명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8:춘천지검 속초지청, “납북 귀환어부 수산업법 위반 취급하던 종래 방침 바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적용하겠다” 발표 • 3. 21:금성호 등 납북어선 9척과 선원 51명 귀환 • 3. 27: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납북 귀환어부 20명에게 실행 선고 • 4. 13:속초시 교육청사 신축 낙성식 • 5. 1:대한항공 속초지사 설치 • 6. 18:영랑동 봉직공장 기공식. 박경원 도지사, 이건웅 속초시장 참석. 흥어기 대비 연간 순이익 5천2백만원 기대 • 6. 28: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납북귀환 산양호 선원 등 77명 선고공판. 선장, 기관장 21명 수산업법 적용 징역 6월 선고. 불구속 입건 56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7월:속초지구 북청군민회 창립 • 8. 2:도립속초병원 신축청사 낙성식 • 8. 6:속초선적 오징어잡이 어선 제 2덕수호(99톤), 효중호(11톤)등 어선4척 피랍 • 8. 15:속초시민현장 제정 선포 • 9. 9:속초세무서 신설 (9.13 개청) • 10. 3:대한항공 속초, 서울간 하루3회씩 취항 • 10. 8:제 3회 설악제 • 10. 24:사상최대 해일 피 	<p>춘천 공지천변에서 기공 (3.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10여명 동부전선 넘어와 아군과 교전, 3명 사상(5.14) • 켈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 춘천 방문, 참전 기념비 제막 (5.19) • 북한 분대 병력 침투(6.8) • 중부전선 침투 북한군 7명 사상(6.19) • 북한군 DMZ 침투, 8명 사상(8.4) • 납북어선 44척, 어부 30명 대진항 귀환(11.10) • 울진 · 삼척에 무장공비 60여명 침투(11.3) • 어선 4척 피랍(11.7) • 명태잡이 어선 7척 피랍 (11.8) • 거진항에 어로 저지 기지본부 설치, 월선 어로는 모두 입건(11.9) • 북괴 만행 규탄대회 속초, 황지, 강릉에 잇따라(11.19) • 춘천, 원주, 강릉서 북괴 만행 학생 결기 대회(11) • 공비, 평창군 이승복 군 집침입, 일가족 4명 살해 (12.9) • 삼척, 영월, 정선 을중사태 해제, 공비소탕 작전 일단락 (12.24) • 공비 잔당 4명 사상, 모두 117명 소탕(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혁당 전라남도위원회 검거, 관련자 1백 18명 중 27명 구속(7.20) • 중앙정보부,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검거, 관련자 1백 58명중 50명 구속(8.24) •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 6명에 첫 유죄, 대법원 반공법 적용(11.19) • 전국민에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11.21) • 국무회의, 동해 어로저지선 5마일 남하 의결(11.22) • 통일혁명당 공판을 규탄하는 평양시 집회(11.25) •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과 시신 1구 판문점 귀환 (12.23)
-------------	---	--	--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11

<p>1968</p>	<p>해. 엄청난 폭풍과 해일이 동해안을 강타해 속초지역에서 만 150여동의 가옥이 침수되어 5천 9백여명의 이재민 발생. 동해안 총 4천 9백척의 어선 중 2,879척이 침몰 또는 파손. 33명의 어민 사망, 실종.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어 마비상태에 놓인 가운데 시중 쌀값이 두배이상 뛰어들어 12,000원까지 폭등. 박경원 내무부 장관이 현지에 도착, 현장을 돌아보고, 정일권 국무총리 긴급 각료회의 소집. 건설부 긴급 복구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0:7월남북어선 덕수호등 4척귀환 • 11.19:북괴만행 규탄대회 • 11. 20:재해어선 복구 동력선 건조 기공식. 해일로 전파된 동력선 208척 건조작업 착수 • 12. 1:어로저지선 5마일 남하 항의, 어민들 중앙국교 운동장에서 성토대회 • 12.22:속초방송국 신청사 이전 방송시작 • 12. 28:조양동에 재해주택 825동 복구 준공식. 주원 건설부장관, 권오병 문교부장관 박경원 도지사 등 참석. 68해일 피해 이재민들 입주 		
<p>19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1:설악산이 교통부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 • 2. 14:한국산악회 해외원정 훈련 등반대원 10명, 설악산서 눈사태로 조난 • 2. 17:폭설로 영북지역 초중고 각급학교 휴교령. 2월 13일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 17일에 산간지방의 경우 최고 350cm의 적설량. 귀성객들, 눈속에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안 어부간첩단 15명 검거(2.25) • 주문진에 무장공비 7명 침투, 검문소 경관 1명 살해(3.16) • 미해군 정보기 EC-121, 동해에서 북한군에 피격 추락(4.15) • 남북 어선 23척, 어부 150명 거진항으로 귀환(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혁당 군법회의 판결공판에서 신영복 등 4명에게 사형선고(1.27) • 중앙정보부, 캄보디아로 탈출하던 위장간첩 이수근을 사이공에서 검거 발표(2.13) • 국토통일원 발족(3.1) • 미 정찰기 EC-121 동해에서 북한군에 피격 추락(4.15) • 중앙정보부, 김규남의원 등 60여명의 북한 간첩단 사건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25:육군보안사령부, 납북어부 간첩단 15명 검거 • 3. 20:춘천지방방법원 속초지원, 납북귀환 어선 제2덕수호 선장등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 선원 74명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 4. 12:호림유격대원 국립묘지 안장 결정 • 4. 15:속초수산센터(종합어시장) 개장식. 위판장을 비롯 철조크리트 2층건물과 1층 한 채 • 4. 23:설악문우회 주최로 문학의 밤 행사 개최(가야다방) • 5. 20:68해일 피해 복구동력어선 208척 진수식. 조양동 청초호변에서 김재식 수산청장, 최양진 부지사 등 기관장과 어민 3천여명 참석. 총예산 5억 2천 7백75만원 소요. 정부용자 85%, 자체자금 15% • 6.10:무장공비 규탄속초시민 승공대회 • 7. 6:통천군민회 영동지구, 중앙통천군민회에 '통천군민 충혼비'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제안. 만장일치 결의 • 8. 7:내무부, 속초항에 해양경찰기지대 설치. • 8. 15:속초시민현장, 8·15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선포. • 9. 17:정일권 국무총리 속초시찰 • 9. 23 속초농업협동조합 설립 • 10. 2:아동 증가에 따라 속초초등학교생 1,036명 분리, 교동초등학교 개교. 초대 교장 백운하. • 10. 3:제 4회 설악제 • 10. 15:통천군 순국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읍 천곡리 침투 간첩선 격침(6.8) • 동해 침투 간첩 7명 서울, 경북에서 검거(10.21) • 김화 새 전략촌 연대로 100채 지어 100세대 입주(9.10) • 강릉발 서울행 KAL 소속 여객기(승객, 승무원 51명) 납북(12.11) 	<p>발표(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당, 3선 개헌안 국회 제 3별 관에서 변칙 통과(9.14) • 3선 개헌안 국민투표(10.17)
------	---	--	---

<p>1969</p>	<p>충혼비 제막식. 비문 “해동은 동해의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북한의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가 피흘린/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비석에 깊이 새겨/고향바다 흐르는 이곳에 모시고/반공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하노니/충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7:속초시, 3선개헌 국민투표 찬성률 63.6% • 10. 28:속초축후소 중앙동 시청 뒷산에 준공. • 11. 1:해양경찰대 속초기지대 발족 • 11. 15:청호동 청호시장 개장. 8평짜리 점포 75채 • 12. 13:속초시청 광장에서 강릉발 서울행 KAL여객기 남북 규탄 쫓기대회 		
<p>19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속초상업고등학교(당시 속초실업고등학교)개교. 9학급으로 설립. 초대교장이호순 • 3. 3:김경산 속초시장 취임식 • 3. 24:설악산을 건설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 • 3. 27:김중호 국회의원, 영북지역에 TV송출계획 발표 • 5. 5:대한항공 서울~속초간 여객기 재 취항. 백선영 교통부장관, 이상희 국회의교체 위원장, 김중호 국회의원, 조중훈 사장등 참석. 여객기는 F27(50인승)로 하루 1회 운항 • 5.29: 관내 각 기관장 모임 설악회 창립 • 7. 3:폭우로 가옥, 농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서 남북 KAL기 승객 소환 축구 쫓기 대회(1.27) • 피랍 KAL기 승객 51명중 30명 귀환(2.14) • 북괴 만행 규탄 KAL기 귀환 승객 환영보고 및 미귀환자 송환축구 결의대회(3.2) • 이승복 군 기념비 평창에서 제막(6.11) • 간첩선 1척, 거진 앞바다에서 격침(10.10) • 고성 거진면 송죽리 앞바다에 북한 미그 기 귀순(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연평도 근해서 해군방송선(20명 승선) 납치(6.5) • 북한 ‘남조선해방민족민주연맹 방송’을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으로 개칭-황해남도 해주 남산(6.1) • 북괴공작원 3명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기도(6.22) • 김일성, 통일전 남북한 연방제 실시 용의 표명(7.22) • 박정희 대통령 남북통일에 관한 ‘8·15선언’ 발표(8.15) • 북한 노동당 제5차 대회 김일성 당중앙위 총비서로 추대 / 인민경제 6개년 계획에 대한 결정서 채택(11.2~13) • 주한미군사령부, 미군 1만2천명 철수했다고 발표

<p>1970</p>	<p>등 침수. 6일동안 내린 폭우로 중앙시장 점포 120개 침수. 영랑동, 동명동 30세대 대피. 청호동, 조양동, 중앙동 등 일부 해안가 주택들 해일로 침수. 이재민들 속초중, 속초국교, 명신고등공민학교 등 분산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8:법원지원 검찰지청 신축청사 기공식 • 7. 18:강릉축후소 속초출장소가 속초축후소 승격 • 10. 2:제 5회 설악제 • 12. 1:춘천지법 속초지원 및 춘천지검 청사 준공식 		<p>(1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비적성 공산국과 교역을 인정한 무역거래법 개정안 통과(12.24)
<p>19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대포대건학교교실증축을 위해 재건국민운동 속초지부 주관, 벽돌 10만장 모으기 운동전개 • 1. 23:속초발 서울행 KAL여객기 납북위기 모면.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해안에 불시착 • 1. 27:동명도 시외종합주차장에서 인질극 탈영군인 체포 • 2. 7:강풍으로 어선,가옥 피해. 초속 20~30m의 강풍이 몰아쳐 속초항에 정박중이던 어선 15척 침몰, 11척 좌초, 8척 전파. 가옥도 137채가 파손돼 372명의 이재민 발생. 5명 실종 • 3. 1:설악여자중학교 개교. 초대교장 강천희 • 3. 2:조양초등학교 개교. 초대교장 이석기 • 3. 21:금강산호, 피랍 9개월만에 속초항 귀환 • 4. 27:제 7대 대통령선거, 속초시 박정희 13,577표, 김대중 13,358표 • 5.25:제8대 국회의원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 60명, 승무원 5명 태우고 강릉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소속 F27기 납북 모면,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해안에 불시착 범인 김상태 자폭(1.23) • 피랍 속초항 소속 금강산호 어부 8명 중 4명 거진항 귀환(3.21) • 북한 무장 간첩선 1척 목호 앞바다에서 격침, 17명 승선(5.14) • 서울·원주 고속도로 개통(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 대통령, 신년사에서 '비적성 공산국과 실리 외교관계 수립 용의' 표명(1.1) • 한미, 한국군의 현대화, 미군 감축 문제 최종 합의(2.6) • 7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대통령 3선(4.27) • 제8대 총선거(5.25) • 제 1회 한미안보 협의회(7.13) •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 이산가족찾기 남북적십자회담 제의(8.12) • 북적십자사에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수락(8.14) • 남북적십자 첫 예비회담 판문점에서 개최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및 직통 왕복전화 개통 등 5개 항 합의(9.20)

<p>1971</p>	<p>거 민주당 한병기 당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31:남북 동해호 선원6명, 7개월 20일만에 귀환 • 6. 2:속초고등학교 청사준공과 개교 19주년 기념식 • 6. 3:창동호 남북, 72년 5월9일 귀환 • 6. 26:귀순용사 김신조, 청학동 광장서 반공연맹 속초지부 초청 강연 • 7. 1:설악산케이블카 개통. 69년 12월 24일 착공, 설악동에서 권금성까지 1.1km에 21인승 케이블카 2대 설치. 운행시간 20분 요금은 편도 2백원, 왕복 3백원. 해경 속초기지대, 제3급 영호 등 월선조업어선 13척 어부 224명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 • 7. 5:단천군민회 망향비 영랑호에 건립. • 7.21:엄대현 속초시장 취임 • 8. 23:춘천지검 강릉지청, 동해호 선원6명 반공법 및 수입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9월 :홍어 계속. 속초 315가구 1,900여명 끼니 굶어 • 10. 8:제 6회 설악제 • 10. 22:설악산에서 단풍제 개최 • 10. 25:제 3명성호(선원 20명) 남북 • 10. 27:춘천지검 속초지청 이갑열 검사, “동해안서 남북됐다 귀환한 선원 984명 일체 어선 승선 금지” 밝혀 • 11. 12:원산시민회, 속초시 교동 산250-1번지에 망향의 동산 ‘향원’ 조성. • 11. 16:북한탈출 귀순용사 김영남 상병, 속초서 아버 		
-------------	--	--	--

<p>1971</p>	<p>지 김홍성(51. 중앙동) 만나 • 12. 6:신흥사 극락보전과 경판, 강원도 유형문화재 14, 15호로 지정 • 12. 27:한계령 도로 개통. 양양-인제의 지름길로 육군 9598부대(부대장 박계주)가 66년 9월에 착공하여 6년만에 완공. 총연장 46km. 공사도중 장교 1명과 사병 5명 사망</p>		
<p>1972</p>	<p>• 2. 8:폭설로 속초항 3백여 어선 출어 못해. 동해안 어민 구호 위해 강원도 긴급구조양곡 32,000kg 배정 • 2. 28:영주철도국, 철도부지 사용가구 철거명령 • 3. 5:설악제 폐지 결정(단행사를 축소하고 등산대회를 매년 개최 결정) • 5. 6:속초지구 해양경찰대로 승격 • 5. 10:납북어선 협동호·창동호 귀환. 속초지청, 선원 27명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구속 • 6. 11:설악산 화재 발생 • 8. 18:군용헬기 케이블카 선에 걸려 추락. 설악산 케이블카 헬기충돌로 운행 중단 • 9. 4:노학동 94가구 전기 점화식 • 9. 7:납북어선 7척 선원 159명 귀환. 이들은 귀환 즉시 시내 각 여관에 분산, 투숙되었고, 속초지청, 전원 반공법위반 혐의로 입건 • 9. 15:삼창호 등 4척과 어부 93명, 속초항 귀환 • 9. 17:원산시민회 망향탑 건립 • 9. 18:집중호우 동반한 해</p>	<p>• 반공연맹도지구 주최 방첩 및 송공궤기대회 춘천고 운동장에서 개최, 예비군 등 시민 2만여명 참가(5.1) • 70~71년에 납북된 어부 160명 어선 7척 귀환(9.7) • 소양강댐 공사 5년만에 준공(11.5) • 소양강댐 담수식, 박정희 대통령 참석(11.25)</p>	<p>• 이후락 정보부장, 극비 평양 방문(5.2) • 북한 박성철 부수상 서울 방문(5.29) • '7.4 남북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7개항(7.4) • 문화공보부, 북괴를 북한으로 호칭하도록 각 부서 통고(7.5) •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 평양에서 개최 △의제 5개항의 확인 채택, △7·4공동성명 정신과 적십자 원칙에 기초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풀어주고 통일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 합의(8.29~9.2)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판문점에서 개최(10.12) • 박정희 대통령,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특별선언 발표(10.17) • 남북적십자 제3차 본회담 개최(평양/10.23~26) • 남북적십자 제4차 본회담 남북적십자 공동위·판문점 공동사무소 설치 등 합의(서울/11.22~2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 개막 새헌법 공포·주석제 신설 ·김일성, 주석에</p>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17

<p>1972</p>	<p>일로 청호동 가옥 200여 세대 침수, 갯배줄 끊겨 운항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7:제 7회 설악제(간소화) • 11. 21:유신개헌안 국민투표 속초시 찬성률 91.5% • 12. 15:제 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김원진, 박세각, 최준규, 이관희 당선 		<p>선출(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유신헌법 공포(12.27)
<p>19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 청진시, 학성군 출신 친목단체인 마천령친목회 결성. 발기인 최석현, 김기용, 최성극 등 • 2. 23:영북지역 함북도민회 재발족. 홍성찬씨 자택에서 도민회 총회. 회장에 최근상 선출 • 2. 27:제9대 국회의원선거. 정일권, 김인기 당선 • 3. 1:KBS속초방송국이 한국방송공사 속초방송국으로 개편 발족 • 4. 15:속초지구 흥남시민회 창립 • 6. 1:속초항 어민예비군 발대식. 어선 226척 승선인원 1400명 • 7. 1:고성군 장천리-사진리 속초시에 편입. 장사동 신설, 13개동 • 7. 12:월선조업방지 위한 관계관회의. 속초어협장실에서 해군 제 1해역 사령관, 이형근 어로보호본부장, 장후석 수협도지부장 등 참석. 월선조업시 10년이하 징역, 140만원이하 벌금 가차없이 적용통고 • 7. 31:남북어부 80명, 어선 8척 속초항으로 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조국 통일 '5대 강령' 발표(6.23) • 남북적십자 제7차 본회담 北赤, 추석성도단 교환방문제의거부(평양/7.10~13) • 김영주 남북조절위 평양측 위원장, '남북대화 중단' 성명(8.28)

<p>19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6:설악케이블카 복원 준공식 • 10. 6:제 8회 설악제 • 10. 20:속초종합예술제 개최 • 11. 7:전국 문화원장 회의 개최 • 11. 22:석유파동에 따른 대책으로 속초택시 6부제 운행 • 12.22:속초경찰서 중앙파출소 준공 		
<p>19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17:서해어선 격침 복귀 만행 규탄 쫓기대회 • 2. 27:설악산 관광호텔 준공 • 3. 1:설악분교가 설악국민학교로 승격 • 3. 8:속초여자종합고등학교가 도내 중,고 사격대회에서 우승. • 4. 22:속초지방, 초속 460m 강풍, 기상관측 사상 강원도내 최고기록 • 4. 30:수복기념탑 주변 소공원 조성 • 5월:실함민 도시 속초시, 고향삼기운동 전개 • 5.15:정일권 국회의장 속초시에 자전거 30대기증 • 5. 20:설악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개인 대인50원, 군경,중고생30원, 어린이20원) • 6. 28:해경 경비정 제 863호, 북한함정 공격받고 침몰 • 6. 29:반공연맹 속초, 양양, 고성, 강릉 4개 지부 공동주최로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해경 경비정 863호 격침시킨 복귀만행 규탄대회 • 7. 4:해경 제 863호 승무원 영결식 • 7. 26:속초시, 무허가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묵호·주문진 등 동해안 시민 어민 6만여명 서해안 어선 납북 규탄쫓기대회(2.17~18) • 춘천·원주 시민 7만여명 복귀 만행 규탄 쫓기대회(2.27) • 동해안 군사분계선 남방어로 보호하던 해경 경비정 863호(승무원 28명 탑승)가 북한 함정 3척 폭격받고 침몰(6.28) • 주문진에서 복귀만행 규탄 쫓기대회(7.1) • 침몰 해경 863호 승무원 사체 6구 인양(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함정, 백령도 근해 어선 2척 포격 11명 실종, 14명 납북(2.15) • 북한 김영주 부총리에 임명(2.15) •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4.25) •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육영수 여사 사망.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발표(8.15) • 북한 남침용 땅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견(11.15) • 포드 미대통령 방한(11.22)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19

<p>19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1,500여채 정식허가 결정 • 8. 3:동방원양(주)영랑호 개발착수 • 8. 28:육영수여사 저격사건 북괴규탄 영북지구 총시민궐기대회 • 9. 3:김명한 속초시장 부임 • 9.10:강원은행 속초지점 개점 • 10. 3:제9회 설악제 • 11월:신포읍민회 장사동에 묘지 조성 • 12. 24:청호마을금고 설립 		
<p>197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7:신흥사가 지방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 • 2. 15:해군함정, 영해 침범한 북한 쾌속정 1척 격침 • 2.24:국민은행 속초지점 신축점포 낙성식 • 3월:마천령친목회 공원묘지 '마천원' 조성. 속초시 노학동 임야 1,800평 • 4. 3:홍남시민회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 김일산, 박기호, 김철규, 강용택, 정중덕, 최명철 등 • 4. 15:영동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설악동을 건설부에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 5월 :함북 학생군·학남면친목회 결성. 박순갑, 최민식 등 발기. 초대회장에 최민식. 회원수 60여세대 300여명 • 5. 4:홍남시민회의 모체인 서호친목회, 명신고등공민학교 강당서 결성. 초대회장에 김일산 선출 • 6. 4:속초지구 해양경찰대 월선조업어선 8척 전국서 첫 압류. 선장 8명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 6. 27:속초고등학교 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 간첩선 총기 난사에 희생된 어린이 위령제 및 고성 군민 5천여명 북괴 만행 규탄 궐기대회(2.21) •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10.14) • 이산가족 신정 성묘 실현 축구 속초 시민 궐기대회(11.14) • 파로호 6·25전적비 제막(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노동당 중앙위 제5기 10차 전원회의 '전투력 강화 5대 방침' 제시(2.11) •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투표율 79.84% 찬성률 73.11%)(2.12) • 북한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대회(10.9) • 대흑산도 남쪽에 무장간첩 선출현, 격침(10.26)

<p>1975</p>	<p>개학교 학도호국단 발단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30:영주지방철도청, 수복 후 월남민 71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철도부지 10만평 잇가보다 비싸게 공매처분 공고. 주민들 반발 • 7. 13:속초해수욕장 개장 • 8. 26:박병훈 해경대장 속초 방문, "선단조업과 위치보고 이행 않는 어선 강력 단속" • 9. 10:속초항 준설작업장에서 소련제 기뢰 3개 발견 • 9. 18:재속 함남 북청군 신포읍민회(회장 김남표), 망향동산 향원비 건립 제막식. • 10. 17:제 10회 설악제 속초시일북문화관기공식 • 10. 19:영동고속도로 개통후 첫 휴일 관광객 몰려 • 10. 20:제 1회 속초시 문화상 시상 • 11. 12:중앙새마을 금고 설립 • 11. 15:이북 5도민회, 대원극장에서 이산가족 신년 성묘축구 속초시민 쫓기대회. '북송 일본인처 자유왕래 실천 본부장'인 이께다후미꼬 여사 격려사 		
<p>19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함북 학성군·학남면 공원묘지 조성. 속초시 장사동 임야 1,800평 • 2. 9:중학교 무시험 추천 실시 • 5. 8:관내 해군과 해병, 문관출신 전역자 2백여명, 속초 서해구락부 창립총회. 회장에 박창서 변호사 • 5.22:풍치 10년만에 대풍어 • 6. 20:고성군민회 1차 발족. 속초시 보광사에서 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청, 어선 제3신진호(23명 승선) 동해에서 조업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 발표(8.30) • 제3신진호 어부 23명 피랍 45일만에 속초항 귀항, 부두에 환영인과 1만여명(10.15) • 6·25때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의 산화가 인연이 돼 횡성군과 네덜란드 가스텔 시 자매결연 맺음(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대통령, 자주국방 5개년 계획 실시 표명(1.24) • <로동신문>, '3대 혁명 불은기 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대중적 진군운동' 사설(2.21) • 북한군,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서 집단폭행 끝에 미군장교 2명 도끼로 살해, 한미군 9명 상해(8.18) • 북한 도끼 만행사건으로 남북 긴장 고조(8)

<p>1976</p>	<p>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합대회 및 총회, 초대회장 이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6:금호동 출신 김종학(21.충무무공훈장)일병, 중부전선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한 공훈으로 특별휴가. 동보극장에서 환영식. 김일병은 특별군용기편으로 속초 비행장에 도착, 오픈카편으로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영식장에 도착 • 8. 30:제 3신진호 귀향중 표류하다 피랍, 부녀마을금고 설립(교동 새마을금고 전신) • 9. 10:속초학생체육관 개관 • 10. 1:설악산 집단시설지구 공사 착공. 숙박지구, 공공시설, 주차장 등 조성 • 10. 8:제 11회 설악제 개최 • 10. 14:제 3신진호 속초항 귀환. 19일, 선원들 속초 시청서 기자회견 • 10. 18:설악산에서 박격포탄 76발 발견, 군경합동 탄약반 제거 • 10.29~11.5:국내 사상 최대 해상사고 발생. 울릉도 근해 대화퇴 어장으로 오징어잡이 나갔던 속초항 소속 금성호(20톤)등 어선 48척, 초속 14~16m의 강풍과 5~6m의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 침몰. 이 사고로 어민 408명이 참변을 당하고 유가족 2,000여명 발생. 유가족들의 애절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적 구호운동 • 11. 19:제 2회 속초시 문화상 시상 • 12.22:명신고등공민학교 폐교승인(79.2.28일자) 		
-------------	--	--	--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군민회 망향의 동산 조성. 망향탑 1986년 건립 • 1. 11:대화되어장 해남사고 피해가족에 생계지원금 전달 • 4. 1:속초어업협동조합이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4. 3:일본문화관 준공 개관 • 4. 5:속초지구 평안도민회 제 15회 대의원총회서 공원묘지에 묘비건립 결의. 묘비건립 경비 38만원 모금키로 • 4. 10:갑산군민회 창립. 군민 50여명 참석 창립총회. • 4. 23:홍남시민회, 망향탑 제막식 겸 시민회 총회 • 5. 8:재속 함남 서호진 실향민친목회(회장 김일산) 망향비 제막식. 토성면 인흥리 뒷산 1만 2천평에 망향동산 마련. 남북통일 염원 망향제 지내고 체육진흥기금 1만 2천여원 속초시에 기탁. • 6. 7:전영호 속초시장 취임식 • 7. 5:영랑새마을금고 설립 • 7. 10:함흥시민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이시곤 선출, 망향의 동산 조성 결의. 이후 속초시 교동 산304의 임야 7천 2백평 매입, 망향동산 조성. 시민회 창립 당시 54세대 250명의 시민 속초거주 • 8. 1:서울-속초간 고속버스 개통. 동부고속(8대), 중앙고속(4대)이 하루 6회씩 운행. 편도 소요시간 5시간 20분으로 요금은 1,480원. 전영호 시장. “도시 균형 발전과 교통량 시외분산책으로 조양동에 고속버스 터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철원 서북방 휴전선서 총기 난사 국군 2명 사상(5.3) • 민통선 북방 철원군 김화읍 통일촌에 1일 2회 첫 정기 버스 운행(5.14) •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 항로를 잃은 미군헬기가 북한군 포격에 추락 3명 사망, 1명 부상(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북한에 식량원조 용의 표명(1.12) • 북한, 남한의 불가침협정을 거부하고 남북협상회의를 제의(1.25) • 박정희 대통령 ‘방위산업 대부분 양산체제 돌입’ 언명(4.14) • 파주 통일공원에서 한국전 중군 순국기자 18명 추념비 제막(4.27) • 북한, 경제수역 200해리 선포(7.1) • 북한, 해상군사경계선 동해 50마일 서해 200마일 설정(8.1) • 북한 중앙인민위, ‘3대혁명 붉은기 재정에 대한 정령’ 발표(9.6) • 재일 동포 추석성묘단 2,300명 중 제1진 203명 입국(9.17) •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 회의개막(국가주석:김일성 재선, 총리:이종옥, 부주석:박성철 선출)(12.25)
------	---	--	--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23

<p>1977</p>	<p>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함주군민회,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망향공원 묘원 조성, 망향탑 건립. • 9. 27:영북지구 10만 실향민 망향제. 실향민들 추석을 맞아 출신지별 공원묘지에서 북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며 제사 • 10. 1:제 12회 설악제 • 11. 25:척산온천시추성공.지하300m에서 40 ° C 물줄기 솟음 • 12. 1:오징어잡이 어선 제 11강원호 울릉도 근해서 침몰. 선원31명 중 26명은 실종되고 5명은 한겨울에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다 66시간만에 극적 구조 • 12. 28:속초소방서 개서. 물탱크차 5대, 펌프차 2대, 장비차 1대 보유. 초대 소방서장 정인영 		
<p>197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17:동해안 일대 폭풍. 어선 7척 침몰,선원 29명 실종 • 3. 17:설향호텔(설악파크호텔) 기공식 • 4. 10:동해북부선 12개 역사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속초역사, 37년 애환 간직한 채철거 • 5. 5:속초지구 평안도민회 공원묘지 묘비 준공식 • 5. 18:제 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유성국, 이광춘, 서동석, 박상희 당선 • 5. 27:홍원향우회와 삼호친목회를 통합하여 홍원군민회 창립. 초대회장에 한진수 선출 • 7. 24:설악초등학교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에서 27년만에 찾아온 미 스미스 부대 환영식(3.9) • 무장 간첩선 1척, 거진 앞 바다에서 격침, 8명 생포(5.19) • 귀순용사 오이섭, 권정훈 하사 시민환영대회(11.10) •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안보회관 준공(11.15) • 설악산지구 전적비 제막(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합동군사훈련 ‘탐스피리트 78’ 돌입-11만 병력 참가(3.7) • 제일동포 단오절 모국방문단 1,300명 입국(6.4) • 백령도 근해에서 북한 선박 승무원 5명 구조(6.27) • 통일주체국민회의, 제9대 대통령에 박정희 선출(7.6) • 주한 유엔 군사, ‘관문점 부근서 북한 남침용 제3땅굴 발견’ 발표(10.27) • 한미연합사령부 정식 발족(11.7) • 주한미군 5백명 제1차 철수(11.22) •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12.12)

<p>1978</p>	<p>교사 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4:제 13회 설악제 • 10. 28:설악동 신단지 조성공사 완공기념 제4회 국립공원대회 • 11. 10:함남도민회, 속초수협 2층 사무실에서 제3차 정기총회. 3대회장에 김두환(북청) 선출. 불우한 도민자녀들 위해 함남도민회 장학회 설립기로 • 11.11:북괴남침땅굴규탄 썰기대회 • 11. 29:동해안 일대 해일 피해. 68년 이후 최대규모 해일로 선박 424척 피해 • 12. 9:속초시 상수도 확장공사 통수식. 설악산 쌍천을 취수원으로 1일 1만 5천톤 생산. 상수도 신설허가 신청 무제한 접수 가능해져 • 12. 11:설악산 전적비 제막식. 설악산 소공원내 120톤의 화강암으로 약진국군 동상 조각 • 12. 12:제 1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정일권, 함중빈 당선 		
<p>19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30:함경남도 도민회 장학기금 모금반 편성. 임원회의서 결의 • 2.21:해경대 신축청사 준공식 • 2. 25:금호새마을금고설립 • 3.20:뉴설악호텔완공(4.9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안보회관에서 남북대화 홍보간담회(4.11) • 양구에 무장간첩 3명 침투(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어떤 시기, 어느 장소,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한 당국이 전제조건 없이 만나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1.19) •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전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남북회담 제의(1.23) • 무장 간첩선 삼천포에서 격침, 시체 6구 인양(7.21) •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10.26) • 전국에 비상계엄(10.27)
<p>19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9:장사동 해송새마을금고 설립 • 6. 20:동명새마을금고 설립 • 7. 28:박정희 대통령 설악산 방문. 설악동 일대 개발사업 현지시찰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25

<p>19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조성운속초시장 부임 • 8. 23:속초-고성 대진리간 국도 포장공사 착공 • 8. 27:청학새마을금고 설립 • 9. 1:외설악국민학교와 설악초등학교 통합. 교명 설악국민학교로 • 9. 5:뉴설악호텔 준공 • 9. 28:한국전쟁 당시 설악산 격전지에서 전사한 무명용사유골찾기 운동 발기 • 10월:이원군민회,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 묘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취임 (12.21)
<p>19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6:속초항 결빙. 1월말부터 한파가 계속되자 속초항의 2/3정도가 결빙돼 어선들 얼음에 갇혀 꼼짝 못함 • 3. 27:호텔 설악파크 준공 • 4. 19:속초지역, 최대풍속 46.0m의 강풍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 4.23:북괴간첩남과 규탄 범시민대회 • 6월:영북지역 3개월째 가뭄 극심. 가뭄극복 총 비상령 • 7. 19:속초공설운동장에서 2만5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간첩선신고 유공자 환영 및 비상시국에 대한 속초시민 반공단합대회. • 8월:단천군민회,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묘원 제2동산 조성. • 9. 8:제 2남진호 북한 경비정에 피랍 • 10. 3:제 15회 설악제 • 10. 15:함경남도 도민회 장학기금 1천만원 조성. 제 5차 정기총회 개최 • 10.17:함남 북청실향민장사동 망향의 동산에서 위령제 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화 군민회에서 건립한 망향탑 철원군 근남면 사곡 2리에서 제막(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환 대통령, 미국서 레이건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 주한미군 철수 백지화등 14개항 공동성명(2.3) • 3인조 무장공비 한강어구 침투(3.230) • 광주 민중항쟁 전개(5.18~27) • 5.17 조치 규탄, 평양시 군중대회(5.25) • 최규하 대통령 사임(8.16) •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선출(8.27) • 북한측 실무대표, 남북총리회담 위한 실무대표 접촉 중단 발표(9.24) • 북한 노동당 제6차 대회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 한반도 비동맹 중립국화 주장(10.10) • 제5공화국 헌법 공포(10.27) • 전남 횡간도에서 무장간첩 3명 사살(11.3)

<p>19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22 국민투표 실시 • 11월:함경남도 도민회 장학금 첫 전달. 이사회 구성, 장학생 5명 선발. • 11. 15:전두환 대통령 속초방문. 수협어판장 들러 어민생활 실태 등 파악 • 11.25:속초소방서 교동 신축청사로 이전 • 12. 16:장사동 산268-2에서 나기봉이 석검 등 유물 10점 발견 • 12. 26:속초수협, 속초항 개항 45년이래 사상최대 위판고 130억원 올려 대통령상 수상 		
<p>19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중앙극장 철거하고 상가아파트 건립 시공 • 2. 25:제 12대 대통령선거 실시. 민주정의당 전두환 후보 당선 3. 5:교동천주교회에 교동 새마을합동유아원 설립 첫 개원식 조양동유아원 건립 기공식 • 3. 25:제 1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정재철, 허경구 당선 • 3. 28:속초경상전문대학(현 동우대학) 개교식. 학교법인 동성학원(이사장 전재욱)에 의해 설립. 경영학과 등 8개과 1,150명 입학 • 5월:양화면민회 창립 • 5. 20:제 2남진호 선원 19명, 납북 255일만에 귀환 • 5. 23:명성관광 휴양시설 기공식. 장사동 50만평 부지에 대형 콘도미니엄 및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 계획 • 6. 14:속초시, 살기좋은 도시 3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북 제2남진호 255일만에 선원 19명과 함께 속초항 귀환(5.20) • 장성·황지읍 태백시로 출범(7.1) • 북한, 동해 대화되어장에서 제5마산호와 선원 35명 납치(7.13) • 민통선 북방 철원 대마리에 실 향민 망향대 건립(7.15) • 제5마산호 납북 규탄 동해안 어민 쫓겨대회(속초/7.19) • 소련에 나포된 속초항 소속 영기호 억류 11일만에 귀환(8.6) • 반공소년 이승복 군 유족 강릉시 교동에 새집 마련, 입주(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환 대통령,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1.22) •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취임 제5공화국 출범(3.3) • 제 11대 국회의원 선거(3.25) • 3인조 간첩 김화에 침투 1명 사살(3.27) • 충남 서천에서 간첩선 격침 9명 사살, 1명 생포(6.21) •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 연구소, 이조실록 1,163권 10여년만에 완역 보도(12.5)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27

<p>19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20:함북도민회 장학회 추진위원회 구성. 이사회에서 장학회 구성 추진위원장에 최규선씨를 선출하고 장학회 기금마련 운동 전개 결의 • 7. 1:정주시 속초시장 취임 • 7. 23:속초항 선적 영기호 울릉도 동북방에서 영해침범 이유로 소련에 피랍. 고성군민회 2차 발족. • 8. 18:한계령 도로 포장 완료. 서울-속초간 교통시간 1시간 단축. 속초수협 위판장에서 남북어선 송환 축구 및 안전조업 결의대회 • 8. 19:고성군민회, 고성군 용촌리에 군민회 묘지조성 • 9. 28:제 1회 통일염원 도지사기 쟁탈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대회가 강릉~속초간 왕복으로 열림. • 10. 2:조양새마을협동 유아원 개원식 • 10. 10:제 16회 설악제 • 12. 24:설악 유스호스텔 준공 • 12. 29:명성관광 휴양시설 1차분인 콘도미니엄 200실 완공 		
<p>198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속초전화국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강원지사 속초사업소가 속초우체국에서 분리 독립. • 1. 6:야간 통행금지 해제 • 1. 30:속초시번영회 발기 총회. 영복지구 평남도민회장 최재길 번영회장 선출 • 5월:단천동산 망향비 건립 • 6월:함북도민회 총회서 장학회 규약 통과. 이사장에 김성도 선출 • 7. 2:제 2협동호 화재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 1명 철원 동북방 휴전선 넘어 귀순(1.7) • 철원군, 서울 순담 고석정 직탕 제2땅굴 백마고지 순환 코스 안보관광권 개발 추진 (2.9) • 강원대생 2백여명, 성조기 태우며 반미시위(4.22) • 북한수용소 군도 해방 축구 1천만 서명운동(6.1) •故강재구소령 살신성인비 제막(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통금 37년만에 전면 해제, 일부 접적 지역 제외(1.6) • 김일 부주석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거부 담화 (1.26) • 김정일에게 40회 생일 계기 '조선영웅 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 수여(2.15) • 북한 '조선전사' 현대편 18권 발간(8.5) • 전두환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권 거주 동포에

<p>1982</p>	<p>생, 선원 27명 구명보트로 142시간동안 표류하다 전원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13:제 5마산호, 울릉도 동북방 해상에서 북한 초계정에 피랍. 어부 35명 승선. 수산청, 대화퇴어장 모든 선박 귀항령 • 7. 19:제 5마산호 송환촉구 동해안 어민 쉼기대회. 어선 60여척 속초항서 해상 규탄시위 • 7. 20:동방원양(대표 윤기원), 영랑호 레저타운 고급방갈로 기공식 • 10. 8:제 17회 설악제 • 10. 25:속초공설운동장에서 반공연맹 강원도지부 주최로 강원도 어민 어선납북만행 규탄 쉼기대회 • 10. 28:제 5마산호 귀환 • 10. 30:속초지구 해양경찰대는 태백호, 설악호 취역식 가짐 		<p>계도 문호 개방 선언(8.15)</p>
<p>19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속초전신전화국 개국 • 2. 25: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 설악동에 편입 • 3월:문천군민회,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망향동산 조성 • 3. 8:청학동 금강아파트 준공 • 4. 5:함북 학생군,학남면 망향비 건립. • 4.12:김광용 속초시장 취임 • 4. 27:수복기념탑 모자상 강풍으로 파손 • 5. 19:전국요트대회 개최 • 7. 1:강원도립 속초병원이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으로 변경 • 7. 13:속초시 이산가족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지구 미복구 토지 대상 신청 접수 철원 등 7개 시·군 57만ha(7.10) • 통천 등 미수복군 명예군수 위촉(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이용평 대위 미그 19기 몰고 귀순(2.25) • 피랍 중공 여객기(132명 탑승) 춘천 불시착(5.5) • 북한 신중철 대위 혼전선 넘어 귀순(5.7) • 임진강으로 수중 침투 무장공비 3명 사살(6.19) • KBS,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 시작(6.30~11.14) • 간첩선 울릉도 근해서 격침(8.13) • 레이건 미대통령 방한, 한미정상회담 15개 항의공동성명(11.12)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29

<p>1983</p>	<p>기 접수창구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6:설악산에 한국콘도미니엄 준공 • 8. 14:속초시, 명성그룹 금융사기 사건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388명의 체불노임 7억 2천 500만원 특별융자금으로 지급. 명성사건으로 지역경제 타격 • 9. 16:속초경상전문대학이 동우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 9. 30:제 18회 설악제 • 10. 14:공설운동장에서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 만행 속초시민 규탄대회 • 11. 17:3,500만원의 시민성금으로 수복기념탑 복원 제막식 • 12.27:양종석 속초시장 부임 		
<p>19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조양동 동부고속터미널 준공 • 3. 20:명성 설악레저타운 공사 재개 • 5. 5:명성 스타월드 개장 • 7. 27:속초향균회관, 동명동 수복기념탑 맞은편에 건립 준공 • 8. 7:속초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9. 2:사상최대 폭우. 이틀 동안 635.9mm의 강우량 기록. 사망17명, 부상14명, 재산 피해 23억원 발생 • 10. 2:제 19회 설악제 • 12. 24:미시령도로 2차선 확장 • 12. 28:수해복구 외옹치마을 집단이주사업. 번영로, 청학가로 준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안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 준공(2.9) • 이승복기념관 개관 2년 관람자 1백만명 돌파(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방송, 김정일을 김일성 주석 후계자로 공식 지칭(8.5) • 북한 최고인민회의, 합영법 발표 북적십자사, 남한에 수해물자 제공제의(9.8) • 한국적십자, 북적십자사의 수해물자 제공 제의 수락(9.14) 29일부터 남한 도착 • 남북 직통전화 시험 통화(9.28) • 북적십자사 중앙위 위원장 남북대화 재개에 관한 담화 발표(10.3) • 김화 정무원 부총리, 남북경제 회담 동의 서한(10.16) • 부산 근해에서 무장간첩선 격침(10.20) • 분단이후 첫 남북경제회담(판문점/11.15)
<p>19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7:도문동 하도문리 김근수 가옥과 중도문리 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선박 1척 동해안에서 침몰(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남한의 팀스피리트 훈련 이유로 남북경제회담 ·

<p>1985</p>	<p>우 가옥이 강원도 문화재자료 64호와 강원도유형문화재 85호로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2:제 15홍양호 영해 침범혐의로 일본 억류 • 2. 12:제 1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정재철, 허경구 당선 • 4. 1:KAL 속초-부산간 항로 개설 • 4월:양화면민회,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묘지 조성 • 4. 14:민족화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 2회 전국새마을 사이클 대항진 대회. 속초 공설운동장-설악산 소공원 구간 • 4. 25:속초여고 신축교사 준공식. 교동 802-1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 6월:영북지역 함북청년회 발족. 초대회장 김계원 • 6. 13:제 3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 8. 1: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속초지점으로 개칭 • 9. 13:신흥사 보제루 강원도 지방 유형문화재 104호로 지정 • 10. 1:제 20회 설악제 • 10. 25:KAL 속초-일본 나고야간 부정기 항로 개설. 첫 비행기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 삼봉산 기슭에 백마고지 전투때 희생자 위령비 건립(6.7) • 제66회 전국체전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 분산 개최 강원 6위(10.10~15) • 강원일보·강원대 합동으로 휴전선일대 생태계 학술조사(8.4~20) 	<p>적십자회담 불참 통보(1.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2.12) 전두환 대통령,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4.27) • 북한 통일혁명당 전원회의, 통일혁명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통혁당 방송을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개칭(7.27) • 남북적십자 제9차 본회담(평양/8.27~28) •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동시 교환 방문(9.20~23)
<p>198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17:속초시 공공도서관 개관식 • 5.18:미시령도로 확·포장공사착공 • 8. 22:럭키아파트 준공 • 9. 13:제 21회 설악제 • 11. 24:속초 중앙시장에서 불이나 속초약국 등 4개 점포 불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읍 7번째 시로 승격(1.1) • 강릉~서울 정기항공노선 11년만에 재개(7.10) • 6·25때 한국군 구하고 순직한 프랑스 군의관장 루이 추모상 홍천 두촌면에서 제막(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팀스피리트 86'을 이유로 모든 남북회담을 중단한다고 발표(1.20) • 남북 최은희·신상옥씨 빈에서 탈출 미대사관에 보호요청(3.19) • 북, 남한에 군사회담 제의(6.18) •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한 평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31

<p>198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25:천양호, 파도에 휩쓸려 침몰. 4명 사망 21명 실종 • 12. 17:로얄1차 아파트 준공 		<p>양 국제회의(9.6)</p>
<p>19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6:윤태경 속초시장 취임 • 2. 3:계통발어선 장영호, 제2한일호 실종 • 4. 24:함북 원산시민회 묘지 '향원', 원산시민회 명의로 개정등기 • 4.30:속초시 종합운동장, 속초시립문화회관 기공식 • 5. 5:함경북도 경성군 망향비 건립. 김황만, 황운규 주도. 1년에 1회씩 망향비 앞에서 재북 조상께 합동 제사. • 6월:원산시민회 산하에 청년부 신설 • 6. 26:속초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상호금융업무 취급 개시 • 8. 1:속초의료원 신축청사 준공 • 8. 5:설악산 관리사무소 개소 • 10. 1:제 22회 설악제 개최 • 10. 14:오징어채낚기어선 어부 1백여명 퇴직금 지급 등 요구 가두시위. 경찰 최루탄 발사하며 저지. • 10. 27:국민투표 실시 • 11. 5:동서고속전철 유치 범속초시민추진위원회 결성. 서울예식장에서 4백여명 참석. 추진위원장 김종록 • 11. 8:신민주공화당 강원도 제4지구당 창당(위원장 한병기) • 12. 2:이북5도민 영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 평화의 댐 착공(2.28) • 평창경찰서, 멸공 시범마을 20개 확대 지정(4월) • 미수복 5개 군 군민회관연합회 구성, 회장에 이일무 평강군민 회장(5.27) • 철원안보관광지 '철의 삼각지'로 명명(10.9) • 대한반공청년회원 4천여명 고성 통일전망대서 망향제(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철씨 일가 11명 북한 탈출 24일만에 서울 도착(2.8) •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새 헌법안 국민투표로 확정(10.27) • 제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 후보 당선(12.16) 취임(88.2.25)

<p>1987</p>	<p>구 연합회 주최 반공대회 및 결의대회. 북한서 탈출한 김만철 연사로 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4:속초도서관 개관식. 구 속초여고 교사 보수 및 증축후 개관 • 12. 15:충훈탑, 도문동에 건립 제막식 • 12. 16:제 13대 대통령선거 실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 당선 • 12. 21:로얄2차 아파트 준공 		
<p>19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2:학생체육관에서 북한의 KAL여객기 폭파 만행 규탄 시민대회 • 2. 26:동남증권 속초지점 개설 • 3. 17:속초, 고성, 양양, 인제 번영회 합동으로 설악산 전철유치 추진위원회 결성 • 3. 30:중앙시장 현대화 신축 기공식 • 4. 26:제 13대 국회의원 선거. 통일민주당 최정식 당선 • 4. 30:설악동 소나무가 천연기념물 제 351호로 지정 • 6.11:배계섭 속초시장 부임 • 6. 15:속초 축산업 협동조합 조양동 예금취급소 개소 • 6. 27:이북 5도민 영복지구 연합회 주최 범속초시민 시국안정 다짐대회(제일극장) • 7. 22:강릉MBC속초사무소 개소 • 9. 18:신홍사 속초포교당 준공 • 10. 2:제 23회 설악제 전국등산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 평화통일 염원결의대회가 경찰 저지로 무산(8.10) •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 강원대생 2명 도내 첫 구속(8.27) • 진두환 전 대통령 비리 관련 사과 성명 발표후 연회동사저 떠나 백담사 은둔(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연석회의 제의(1.1) • 제13대 총선(4.26) • 북한, 전국대학생연합대회를 열고 남북학생회담 지지결의(5.17) • '6.10 남북한 청년학생회담' 경찰저지로 무산(6.10) • 노태우 대통령, '남북경제대결외교, 종식, 각계 남북동포 교류 추진, 이산가족 방문, 남북 직접교역' 등을 골자로 한 6개 항 특별선언(7.7선언) • 노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개최제안, '전대협 추진 8.15 남북학생회담' 경찰 원천봉쇄로 무산(8.15) • 북한학생대표단 판문점 도착(8.15) • 88서울 올림픽 개막(9.17)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33

<p>19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7:속초~서울 간 항공기 1일 2회 운항하기로 결정 • 11. 18:제 33삼영호, 대화퇴 어장서 실종 • 12. 20:근로자 복지회관 준공 		
<p>19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박환주 속초시장 부임 • 3. 27: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용문(속초고 동창회장) • 4. 1:한국담배인삼공사 속초지점 • 4. 12:동우전문대생 300여명, 동우학원 민주실천위 발대식 갖고 시위 • 4. 14:속초시 의료보험조합 설립 • 4. 28:자유민주체제수호 속초시민 결의대회 • 5. 20:동화은행 신주청약, 속초지역 실향민들 관심고조. 원적지 이북5도민 출신으로 청약자격 제한. 속초에서만 전체주민 15% 1만여명 청약 • 6. 17:미시령도로 포장 완공 개통. 속초-인제간 총연장 23km. 서울방면 교통시간 30분이상 단축 • 8. 5:북청민속예술보존회, 수북담에서 북청사자놀이 재연. 이날 공연에는 김수석용 양반역으로 출연 • 8. 24:2천년대 향한 속초시 개발계획 설명회. 속초시 변영회 임원 70여명 초청. 속초항을 무역항인 북항과 어선전용항인 청초항으로 구분 개발 • 10. 10:제 24회 설악제 개최 • 10. 13:제 1회 속초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 철의 삼각전적지 관 광개발사업 준공(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제안·남한 4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씨를 평양에 초청(1.1) • 한국·헝가리 수교(1.1)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한국전쟁후 기업인으로는 처음 북한 방문, 금강산 개발 의정서 체결(1.24) • 남북총리회담 첫 예비회담(2.8) • 문익환 목사 북한 방문, '통일 논의하러 왔다' 도착 성명 발표(3.25) • 김일성, 전민련 고문 문익환 목사와 회견(3.27) • 문익환 목사 허담 평화통일 위원과 공동성명(4.2) • 전대협 대표 임수경,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위해 평양 도착(6.30) • 평양에서 내외조선동포의 조국통일축진대회 개최(7.9)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 북한 파견 발표(7.25) • 한국·폴란드 수교(11.1)

<p>1989</p>	<p>문화상 시상식. 문화예술부문 장규호(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사회봉사부문 천병순(새마을부녀지도사), 학술부문 임덕수(동우전문대학 교수), 체육부문 김기용(축구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5:속초지구 평안도민회 임시총회 개최. 속초재향군민회 회의실에서 48명 참석. 회장에 최재길, 부회장에 지인수, 길태주, 김재섭 등 6명 선출 • 12.27:홍순호 속초시장 부임 		
<p>19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5:속초전신전화국이 속초전화국으로 명칭 변경 • 1.18:한일은행 속초지점 개점식 • 1. 30:속초지역, 폭설로 외부로 통하는 모든 교통 두절. 대청봉 적설량 260cm기록 • 3. 1:동지나해에서 북어잡이하던 하나호 침몰. 유정충 선장만 실종되고 선원 21명은 그 다음날 구조 • 3. 9:고 유정충 하나호선장, 전국어민장 • 3. 31:영복신문(주간) 창간 • 4. 2:동우전문대생 학장실 점거 농성 • 5. 3:고 유정충 선장이 5, 16민족상 사회부문상 수상 • 5. 27:속초지구 평안도민회 34년만에 상도문 팔각정에서 정기총회 개최. 회원, 가족 등 120여명 참석. • 5. 28:속초신문(주간) 창간 • 7. 31:대포동에 설악동해콘도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철원 등 민북 5개 군국도이용계획안 마련 건설부 제출(2.7) • 동해항에 개항후 처음 소련산 유연탄 입항(2.24) • 양구 군민, 북한의 남침용, 제4땅굴 범군민규탄대회(3.8) • 도 미수복 5개 지역 군민합동 망향제(4.11) • 양구, 평화의 댐 을지전망대 편치불 등을 잇는 안보관광지 광역 개발 계획(4.23) • 정부 발표 민족대교류기간 중 방북희망 단체·개인 신청접수(8.4~8) • 매봉 한석산 전적비·백골병단 전적비, 6·25후 40년만에 인제에 건립(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신년사에서 콘크리트 장벽 제거, 남북 자유왕래, 남북협상회의 제의(1.1) • 소련 유학생 박철진씨 등 2명 귀순(4.2) • 노태우 대통령, 남북간의 민족 대교류를 위한 특별담화(7.20) • 남북고위급회담 서울에서 개최, 남·북대표 강영훈 총리, 연형묵 정무총리(9.14) • 한소 수교(10.1) • 남북통일축구경기 평양에서 개최(10.11) • 제2회 남북총리회담 평양에서 개최(10.,17~18) • 강영훈 총리, 김일성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촉구(10.18 평양)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35

<p>19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4:방북신청 접수창구 인파 몰려. 첫날 최초 등록된 김학림(67세 금호동) 등 56명 접수 • 10. 10:속초시 문화회관 개관. 객석 750석의 대공연장을 비롯 부속건물에 소강당, 전시실마련 • 10.11:제25회 설악제 • 10. 30:노학동에 설악리조트 레저타운 준공 		
<p>19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중앙시장 전기누전으로 화재. 중앙시장은 53년에 건립되어 63년과 73년, 86년, 89년등 이번까지 5차례나 화재 • 1. 9:하나호선장 유정충 동상 제막식 • 3. 26:속초시 최초 기초의원 선거. 13개 선거구에 39명 출마. 조승남(영랑), 윤중구(동명), 장현영(중앙), 안국준(금호), 정영태(청학), 장동희(교), 임호성(노학), 최창영(조양), 여석창(청호), 이태근(대포), 박용권(도문), 전상익(설악), 한영환(장사) 당선 • 4. 15:속초시의회 개원. 속초시정 사상 처음으로 시의회 구성. 초대 시의원 13명은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위해 솔선 봉사 다짐. 제 1회 임시회에서 초대 의장으로 박용권의원 선출 • 6. 5:제 1군단 전적비 제막식. 한국전쟁 당시 제 1군단 사령부 주둔지였던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전적비 건립 • 6. 16:함북도민회 10대회장에 이인철 선출.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원선(서울-원산) 금강선(철원-금강산) 복구를 교통부에서 본격 추진(1.8) • 9천9백 톤급 소련선박 알만 호 소련산 냉동 명태 3천5백2톤 신고 묵호항 입항(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지바 제41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에서 남북단일팀 우승(4.29) • 광고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고영철씨 귀순(5월) • 북한, 미군 유해 11구 미상원 의원에게 판문점에서 인도(6.24) • 남한, 쌀 5천톤 북한측 전달(8.2)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9.17) • 북한 여성 대표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참석하기 위해 서울 도착(11.25)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12.13) •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6기 19차 총회, 김정일 서기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12.25) • 북한, 나진·선봉지구에 자유무역지대 설치(12.26) • 남북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가 서명(12.31)

<p>19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20:도의원 선거 실시. 이관회, 윤중국, 전상기 당선 • 8. 1:속초해양경찰서로 개칭 • 9월 :청초호종합개발사업 착공. 물량장 조성, 호면 매립, 신수로 개설 공사 등. • 9. 18:속초시 도문동 마을 운동장에서 한민족체육대회에 참가한 5백 70여명 해외 동포 환영행사 • 10. 1:제26회 설악제 • 11. 3:유엔 가입 경축 및 민족통일추진 범시민 걷기대회 개최. 민족통일 속초시협의회(회장 김섭홍) 주관으로 속초초등학교-영랑초등학교 구간서 실시 • 11. 4:함북도민회 청년회 조직개편 • 12. 2:김승래 속초시장 취임 		
<p>19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6:설악신탁개점식 • 4. 7:무공수훈자회 속초지회 창립 • 4. 16:남북한 장애인 걷기대행진 • 8. 8:강릉MBC속초지사로 승격 • 8. 15:고 박상희 속초 초대읍장 송덕비 제막식 • 10. 1:제27회 설악제 • 10. 6:조양동 선사유적지가 사적 제 376호로 지정 • 10. 11:모스크바를 비롯한 동구권서 망명한 북한 대학생 김운학, 김창화, 김남준, 동영준 강연회 • 11. 1:한국전쟁 설악산지구 전투 무명용사 추념식 • 11. 2:속초신문, 설악신문으로 제호 변경 • 11. 20:설악-금강산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평양 도착(2.18)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3.24) • 북한, 김정일에 ‘공화국원수’ 칭호수여(4.21) • 남북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통일안’에 합의(7.17) • 엘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11.18) • 한중 국교 수립, 대만과 단교 발표(8.22) • 정부, 평화유지 협력을 위해 캄보디아에 보병 파견 결정(7.23) • 제14대 대통령 선거, 김영삼 민자당후보 당선(12.28)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37

1992	개발 구상과 통일시대 대비 지역학술 세미나 개최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8:김광용 속초시장 취임 • 2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국토통일원에 북한 금강군 지역 초등학교 30명 설악제 초청계획서 제출 • 6월:속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 금강군 인민위원장에게 남북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열자고 제의 • 8. 7: '93범민족대회 강원도 추진본부 자전거 순례단 속초 도착 • 9. 4:속초평통대표, 북경서 북한대표 2명과 회담 • 9. 23:북한에 사랑의 쌀 보내기 대회, 공설운동장서 개최. KAL폭파범 김현희 강연 • 12. 30: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 착공. 매립면적 20만 8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시, 북 강원도 금강군 초등학교 설악제 초청 추진 • 명주에 간첩 3명 출현 (5.21) • 정부, 동해 어로 허용선 38도 44분으로 북상 조정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결정(1.3)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문민정부 출범(2.25) • 정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 북한에 인도(3.19) • 고교 군사훈련 24년만에 폐지(5.16) • 소말리아 평화유지군(PKO)으로 육군 상록수부대 파병(6.29)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3:한상철 속초시장 취임 • 3. 1: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지청 합의부 승격 • 3. 14:조양 • 대포동주민 하수종말처리장 반대시위 • 5. 3:속초시, 양양군 통합 무산. 주민투표결과 속초시민 95.7% 찬성, 양양군민 84.1% 반대 • 5. 23:영랑호 한일레저에 임대 만료 • 5. 28:황해도민회, 정기총회 • 5. 30:청초항 수로 개설 관련, 청호동 2통~4통 136세대 철거보상작업 착수 • 6. 1:양양철광 폐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 아시아에서는 처음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지사, 성장회가 속초 설악파크 호텔에서 개막, 강원도,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11.8) • 북한의 소군정(45년 해방~48년 12월)때 북한과 김일성에 관한 미공개 사진 179장 국내 첫보도 <강원일보>모스크바 특파원 송광호 차장 • 고성군 명파리 검문소 2km 북상, 내달 착공 연내 완공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만철 씨 일가 4명 탈북 (3.20) • 남북한,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의 전쟁 불사 발언후 회담 결렬(3.19) •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사위 강명도 씨 귀순(5월) • 러시아, 한국전쟁 관련 문서 3백여종의 사본을 정부에 전달(6.2) • 김일성(82), 심근경색으로 사망(7.8) •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 강사 조명철씨 탈북(7.18) • 이철수씨 일가 3명 탈북 (8.13) • 시베이라 북한 벌목공 8명 귀순(8.16)

<p>19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6: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 일행 속초방문, 관내 중국 교민들과 대화 • 6. 13:속초시민현장탐 제막식 • 6. 16:속초시 승격 최초로 제 29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 7. 2:속초-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정부, 동서고속전철 민자유치 추진 발표 • 8. 1:평통자문화 속초시협의회(회장 윤중국), 남북한주민 접촉 신청업무 이관따라 시청사서 현판식 갖고 북한주민 접촉신청서 접수 시작 • 8. 9: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 통해 속초출신 납북억류자 20명 발표. 청호동주민, 함남 새마을협의회 자매결연식 • 8. 31:설악권 관광특구 지정. 24시간 영업가능 • 10. 6:재속 이북 5도민회 총연합회 창립. 초대회장 박성용 • 10. 12:77문창호 울릉도 근해서 조난 • 10. 24:미수복 고성군민회, 대진리 망배단서 제 8회 합동망향제 • 10. 26:속초시·일본 요나고시, 교류협력 추진 기본합의서 교환 • 12. 24:속초지구 이북 5도민회, 청호초등학교서 함경남도 청진군 수성천 모래전달식. 이날 실향민들에게 전달된 청진 모래는 (주)서평건설이 분단후 최초로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 6·25때 포병 소위로 참전 포로로 잡혀 납북된 조창호씨 귀환 발표(10.24) • 이봉 중국 총리 방한(10.31) • 정부, 경제 단체의 북한사무소 개설 허용(11.24) • 정부, 주한미군으로부터 44년만에 국군평시통제권 환수(12.1) • 비무장지대 정찰중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에 들어갔던 미군 OH 58 헬기 북한군이 격추(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령 씨 일가 6명 북한 탈출(3.27) • 북한, 서해상에서 선원 8명
<p>19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3:이돈섭 속초시장 부임 • 1. 23:예총 연극협회 속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군/원주시·군/강릉시·명주군/삼척시·군 통합, 7개 시, 15개 군으로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자료 연표 539

<p>1995</p>	<p>지부, 북한 원산국립극단과 교환 공연 위해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 신청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9:속초시 설날연휴 최악 식수난 • 3. 21:속초·양양 통합 재추진 무산. 주민의견조사서 개표 결과 속초시 94.1% 찬성, 양양군 79.5% 반대 • 6. 27:초대 민선 속초시장에 동문성 당선 • 7. 1:동문성 속초시장 취임 • 7. 3:제33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 8.16:'95설악국제비엔날레 • 9.14:제13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 9. 30:속초시 인구 8만명 넘어서. 9월말 현재 80,950명 • 10월:동해안 해난어민 위령탑,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준공. 59년~95년 6월 해난 사고로 사망,실종된 속초시 어민수 343명으로 집계 • 10. 9:제30회 설악문화제 • 11.17:속초 해양경찰서 신축기공식 	<p>개편(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7 4대 지방선거'로 34년만에 완전 지방자치시대 출범 • 도의원 5명, 강원남북교류위 구성 민간차원 남북교류추진 • 안보관광지 '비목공원' 포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 3백여평에 조성, 시비 제막(6.24) • 첫 북송 쌀 2천톤을 실은 싸이팩스호(선장:김예민)북한 나진항을 향해 동해항 출발(6.25) • 러시아 화물선, 목제품 1백톤 싣고 개항 이후 처음 입항(6.26) • 정도 600주년 강원도민의 날 선포(7.8) • 러시아 쌀 운반선 동해해상서 침몰, 선원 15명 전원 구조(12.5) 	<p>승선한 한국어선 총격 나포 2명 사망(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북경에서 차관급회담 열고 민간차원에서 1차 15만톤 쌀을 북한에 무상 제공 합의(6.17) • 북한, 한국측 쌀수송선 비너스호 선원이 청진항에서 정탐 행위했다고 주장, 선박과 선원 21명 억류하고 북경 3차 쌀회담 거부(8.9) • 김영삼 대통령, 광복 50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위한 3대 원칙 제시(8.15) • 국방부, 95~96년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삭제한지 1년만에 다시 명시(9.10) • LG전자, 95년말까지 평양 인근 공장에 8천대의 컬러TV 조립생산 96년부터는 10만대씩 생산 북한측과 합의(10.5) • 북한인민부후방총국 경영용성무역 합영부장 최주활 상좌 기술표 발표(10.11) • 정부, 북한 국적 중국 거주자 홍승복씨에게 처음 국적 취득 허용(12.12) • 부여서 생포된 간첩 김동식, '90년에 이선실 대동 월북' 회견서 폭로(12.9) • 북한 최대 무역회사인 대성총국 유럽지사장 최제용씨 일가 4명 망명(12.12)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서명(12.15) • 북한중앙통신, 95년 6월 나포했던 어선 우성호 선원 송환한다고 보도(12.22)
<p>19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30:제1회 설악눈꽃제 • 3. 27:속초시 국제화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할린 동포 33명 영구 귀국, 춘천 서면 '사랑의 집'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부인 최수봉씨, 태

<p>1996</p>	<p>추진위원회 구성. 해외 자치단체와 교류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6:속초경찰서 동명동서노학동 신청사로 이전 • 6. 8:제1회 설악트라이애슬론(3종)경기대회 • 7.20:제1회 속초시장기 전국 윈드서핑 경기대회 • 7.27:설악관광정보센터 개소식(서울, 반포) • 8. 1:KBS 속초방송국 개국 40주년기념식 • 8. 15:민예총강원도지부 제1회 통일문학제 청호동 백사장서 개최 • 10. 2:무장공비납과규탄 • 10. 5:제31회 설악문화제 • 10. 7:제77회 전국체전 • 10.29:관광사업 투자설명회(서울 롯데월드 호텔) • 11.29:중앙가로 시내버스 개통식 	<p>입주(2.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 안동함, 강릉 동쪽 1백80km 해상서 표류 북한 선원 2명 구조, 시체 2구 인양(2.29) • 정부, 철원 '평화의 시' 건설검토, 정부관계부처 DMZ 답사 완료 • 제1회 비목문화제 화천 비목공원에서 개막, 가곡 비목작사 한명회, 작곡 장일남씨 등 전국 예술인 참가(6.6) • 국방부, 땅굴 방문절차 간소화, 1주전 신청하면 허용(7.1) • 국방부, 민통선 땅굴 관리운영권 내년에 철원·양구군에; 이관 결정(7.21) • 강원도, 철원 제2땅굴, 양구 제4땅굴, 평화의 댐 있는 통일안보관광코스 개발 • 양구 편치불 진적관광지에 북한관 개관(8.14) • 북한 공작원 등 무장간첩 26명이 3백25톤급 잠수함 타고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앞바다 침투(9.18), 51일만에 11명 자살, 13명 사살, 1명 생포 • 17개 시·군 무장공비 침투 규탄궐기 대회(10.2) • 생포 무장공비 이광수, 귀순 광경일 중사, 기자회견 통해 북한의 공비침투 경위 등 폭로(10.29) 	<p>권도 교관 유세도씨 망명 서울 도착(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탈출 김영진씨(50) 일가족 4명과 유송일씨(46) 일가족 4명 목선 타고 서해안 통해 귀순(1.22) • 망명 북한 외교관 현성일씨 서울 도착(1.30) • 북한 정전협정의무 포기 발언, 인민군 평양대표부 답하(4.4) • 북한 판문점에 중무장병력 1백20명 투입 2시간 동안 군사훈련 시위(4.5) • 김영삼 대통령, 클린턴 미 대통령 제주도서 정상회담 남미북중 4자회담 제의(4.16) • 정부, 대북 쌀지원금 1.854억원 지급 완료 •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4.11) • 북한경비정 2척 연평도 인근서 1시간30분동안 월경(4.20) • 북한 공군 1비행사단 57연대 소속 이철수 대위 수원비행장에 귀순(5.23) • 과학자 정갑렬씨와 방송작가 장해성씨 망명(5.31) • 정부, 북한에 식량자금 3백만달러 지원 확정(6.11) • 북한 경비정 3척 연평도 서남쪽 18km 해역 침범(6.14)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친척인 정순영씨 일가 3명 북한 탈출(6.30) • 접경지역 개발 특별법 국회상정 • 통일원, '북한탈출 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확정, 탈북 주민 3년동안 보호조치(9.14) • 북한 탈출 김경호(62) 최현
-------------	---	---	---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자료 연표 541

1996			<p>실(57)씨 부부 일가족 등 17명이 홍콩에서 대한항공 618편으로 김포공항 도착(10.26~12.9)</p>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30:제2회 설악눈꽃축제 • 3. 1:청대초등학교 개교 • 3.24:중앙동5거리 지하철단보도 착공식 • 3.27:미시령 4차선화 및 터널공사계획 설명회 • 4.16:'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선포식 • 5. 3:통일시민대회 수복탑 광장서 개최, 북한흙 나누기, 북한동포돕기, 통일나무 식수, 옥수수죽 먹어보기 • 5. 21:북한동포돕기 영북시민운동본부 발족 • 5. 31:설악신문사, 북한동포돕기 하덕규 초청공연 • 5. 27:속초예총 연극협회, 북한어린이 돕기 사랑의 공연 • 6. 7:제2회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 • 6. 14:북한동포돕기 영북시민운동본부 가두모금 • 9. 4: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 9. 17:속초지구 합남도민회, 청호초등학교 운동장서 한마당잔치 • 10. 2:제32회 설악문화제 • 10. 9:4개국 10개도시가 참가한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속초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민 접경지역개발 공동협의회 결성추진 • 북한군 5명이 철원 비무장지대 분계선 침범 한때 경계조치 발령(3월) • 환경부, 민통선 생태보호지역 철원평야 제외(3.16) • 기독교 북한동포돕기 후원협의회 평창감자 북한 보내기운동(3.17) • 강원도, DMZ 안보관광코스본격 개발(3.18) • 대한 적십자사와 4개 종교단체가 구입한 평창산 감자 1,650톤 실은 네덜란드 에에나호가 인천항 떠나 북한 남포항 입항(4.1~2) •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13개 시·군 6백km² 3층 이하 관광시설 가능(4.8) • 통일원, 강릉, 안인진 통일안보사적지로 확정(5.19) • 강릉 정동진 10만여 평 통일교육장 조성 추진 • 삼양식품, 북한 주민돕기 라면 15만 상자 북송 결정(6.20) • 태백시기독교협의회, 북한에 석탄보내기운동 확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천억 모금, 2백50톤 지원 결정(7.2) • 북한군 7명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월경, 아군과 23분에 걸쳐 소총사격과 포사격이 오고가는 심각한 교전(7.16) • 남북고성교류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와 측근 김덕홍 전 조선여광무역연합 총사장이 중국 북경주재한국대사관에 망명 신청 후 67일만에 서울공항 도착(2.12~4.20) • 북한 김정일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씨, 괴한에 권총 피살(2.15) • 정부, 민간차원 북한 지원 허용, 허용창구는 대한적십자로 통일(3월) •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주민 안성욱(48·선장)씨 가족 6명과 김원형(57·기관장)씨 가족 8명이 목선 타고 귀순(5.12) • 통일원·건설교통부, 강원 접경지역 2~3곳 통일시범도시 육성추진(6.11) • 민간 지원 구호물자(밀가루 1천톤, 라면 10만 상자)실은 장영해운 소속 제8장영호 부산항출발 처음 북한 흥남항 입항(6.23~25) • 오익제 전천도교 교령 밀입국 파문(7~) • 북한 경수로 건설 신포현장과 한전 서울본사간 직통전화 3회선 개통(8.4) • KEDO, 북한 경수로 착공식(8.19) • 남북한 관제협정 체결 98년 4월23일부터 항공노선 개설 가서명(10.8) • 북한군, 경기도 대성동 마을 주민 2명 납치(10.17) • 첫 국산 미사일 '천마' 시험 발사 성공(10.27)

<p>1997</p>		<p>발족 특산품 교역등 교류 추진 통일원에 승인 신청 (7.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강릉 침투 북한잡수함 강릉에 영구전시 공식 발표(7.31)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측 대표단 2백여명 실은 한나라호 북한 함남 신포금호지구 경수로 착공식 참석 위해 동해항 출발 (8.19~20) • 철도청, 금강산선(철원, 군사분계선간 24.5km)경원선철도(신탄리-철원-월정간 16.2km) 복구계획 마련 설계비 18억원 예산반영(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당시 국군포로였던 양순용씨 귀환(12월)
<p>19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4:설악산 토왕성폭포서 경북대 산악부대원 등 8명 눈사태로 매몰 • 2. 26:속초서 남북한 첫 여객 뱃길 열려. (주)대아고속해운 대원카타마란호 경수로 사업 기술진 태우고 속초항 출발, 북한 신포 양화항 도착 • 3. 18:속초지구 함남도민회 제20차 임시총회 개최. 안동섭회장 사퇴로 제13대회장에 김철섭 선출 • 3. 24:속초지구 함경남도 청년회 창립총회. 아남프라자에서 274명 참석. 초대회장에 고유식(홍남) 선출 • 4.27: “갯배” (목선에서 FRP로) • 5. 12:속초지구 함경남도 부녀회 창립. 초대회장 최춘자(이원) 선출, 조선회관서 68명 참석 • 6. 4:동문성 민선2대 속초시장 당선 • 6. 22:북한 잠수정, 속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양구 금악리·철원 2백90단평 군사보호구역 완화 해제(1.2) • 대원 카페리 소속 카타마란호 속초 북한 신포지구 양화항간 임시 취항(2.26) • 속초 앞바다 11.5마일 해상에 북한 잠수정 1척 침투 풍치 그물에 걸려 표류중 해군에 나포(6.22) • 북한 잠수정 인양 시신 9구 발견(6.25) • 북한 잠수복 차림 무장간첩 1명 동해시 묵호동 해안서 발견(7.12) • <강원일보>한국생태계보존학술조사·실태연재(9.9) • 접경 양구지역 인구 13년만에 증가세로 반전 • 강원대, 북한농업과학원 원산농대와 농업기술협력사업 추진 합의 • 속초시의회, 금강산 쾌속선 조기운행 건의(9.24) • 북한산 수산물 도내 반입량 지난해보다 60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변용관 상위(2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해 귀순(2.3) • 유엔 식량기구 북한대표부 3등 서기관 김동수씨 부인 신명숙씨 아들 명진군이 제3국 통해 귀순(2.6) •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2.25) • 대한항공 KE258 화물기 앵커리지 출발 북한 영공 첫 통과 서울 도착(3.3) • 정부, 고령 이산가족 방북 신고제로 전환(3.17) • 정부, 이산가족 생사 확인·주소 안내 신청서 북한에 전달기로(3.27) •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발표(4.30) • 정부, 북한 억류자 귀환 대비 귀환자 지원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 소 5백 마리 몰고 판문점 통해 1차 방북(6.16) • 대북 구호물자 수송선 인천출항(5.30)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사료 연표 543

<p>1998</p>	<p>선적 콩치잡이 어선 동일호에 걸려 군당국 예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2:금강산 유람선 속초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7. 1:동문성 속초시장 취임 • 7. 7:속초지구 이북5도민회(회장 이인철), 금강산 유람선 속초유치 위해 현대그룹 본사 방문 • 7. 9:금강산 유람선 속초항 유치 범시민 쉼기대회 • 7. 23:청초호 신수로 공사 착공. 청초호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청호동 2, 3, 4통 일대에 1백m 길이의 수로 건설. 청호동 2, 3, 통 철거 주민, 청초호변 매립지 미리네 마을 입주 시작. • 9.11:속초실향민애환 담은 사진책 출간(엄상빈) • 9. 21:속초시 8개 통합 동명칭 확정. 장사동(영랑+장사), 금호동(중양+금호), 교동(청학+교동일부), 노학동(노학+교동일부), 청호동(청호+조양일부), 대포동(대포+도문+설악), 동명동, 조양동 • 10. 2:제33회 설악문화제 • 10. 7:청초호 신수로 공사 관련, 청호동 2, 3, 4통 가옥 철거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제 용대자연휴양림입구에 2천3백평 규모 안보공원 개장(11.12) • 금강산 유람선 시험운항(11.14) • 금강산 유람선 '금강호' 관광객 9백35명 태우고 4박 5일 일정으로 동해항 첫출항(11.18) • 6·25때 철원 김화읍 읍내리에서 생매장된 수백명의 반공투사 유골 발굴작업(11.20)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창립(11.28) • 홍천군, 도내 처음 북한 실향민 실태조사 착수(12.1) • 양구군의회, 금강산 가는 남한 유일의 최단 육로인 국도 31호선 동면 월운리 남방한계선 13.3km 조기 확포장 정부에 건의(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상선, 금강산 관광선 '금강호', '봉래호' 2척 도입(7월) • 국방부, 북한 잠수정 시신 9구 송환(7.3) •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금강산 개발 협의 위해 방북(8.20)법 마련(5.13) • 통일그룹, '1일 금강산관광' 사업승인 신청서 정부에 제출(8.21) • 통일부, 국내 28개 개항 가운데 처음으로 동해항을 남북 교류협력법상의 출입장소 지정(9월) • '북한 화학무기 생산공장 8개 보유, 휴전선 일대에 침투용 땅굴 20여개 추정'-98년도 국방백서(9.28) • 6·25전쟁 때 피랍 장무환(72)씨, 북한을 탈출 제3국에 체류했다가 45년만에 귀환(9.30) • 정주영 명예회장, 소 5백마리와 승용차 20대 몰고 재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10.27~30) • 현대, 금강산 관광객 모집(11.2)
<p>19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4:제4회 설악눈꽃축제 • 2.23:속초팔경 선정 • 4. 3:속초시 피난민 정착사 제작 후원회 발기인 총회 • 6월:함경북도 도민회 장학회, 제1차 장학금 전달식 • 6. 6:북강원도 통천군민회 합동영령추모제 • 6. 22:속초지구 주관,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금강산 시설 30년 독점권 합의(1.13) • 현대, 금강산관광객 2004년까지 4백90만명 유치 계획 • 정부, 설악-금강산 관광자유지역 지정-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1.18) • 인제군·남북강원교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미전향 장기수 17명 포함 8,812명 사면·복권(2.25) • 월·납북 34명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통일원 99북한 인권백서 • 통일원 창설 30돌(3.2) • 남북 전자상거래 제안, 국

<p>1999</p>	<p>경남도 도지사, 명예시장, 군수·읍·면장 등산 및 수련대회 173명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0: “안축” 선생시비 제막식 • 7.11: 제 4회 아시아트라이 애슬론 경기대회 • 7. 27: 백두산 항로 조기개설 위해 동문성시장 등 속초시 대표단 중국훈춘 방문 • 8. 2: 함북청년회중앙도민회 Expo견학 • 9. 11: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속초시 청초호 매립지에서 50일간의 일정으로 개막 • 9.28: 제 26회 관광진흥추진대회 • 10. 1: 제 34회 설악문화제 • 10. 5: 속초시, 인구 9만명 목표 본격추진 • 10. 9: 제 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10.13: 제 8회 전국무용제 • 10. 15: 제 50주기 호림유격대 전몰장병 위령제 • 10.27: 함경남도 시군단체장 간담회 • 11.25: 밀레니엄 타임캡슐매설식 • 12. 23: ‘99 속초밀레니엄평화축제 • 12. 29: 새천년맞이 통일등불축제 	<p>력위, 금강산 길목가전리 개발 현지 답사(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원 민통선 북방지역에 남북농업지구 개발·조류 생태 공원 조성 추진, 집경지역 종합관리 주민설명회(2.11) • ‘DMZ 두루미 생태’ 남북한 제2차 동시 조사(2.25) • 민북 출입 통제 해제·영농활동 가능, 합참 규제 완화(2.28) • 고성수협, ‘어업부진 해결 위해 남북고성 공동조업’ 정부차원 지원요청(3.12) • ‘올여름부터 금강산인근 해수욕장 개방’ 정주영씨 회견(3.11) • 현대, 남북경협 전담(주) 아산 창립, 춘천에 본사(3.16) • 홍천산 찻염소 4백마리 4월 북한 지원 • 고성군,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조사단 현지 파견 도에 건의(3.17) • ‘제1회 DMZ 생태보존과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한국프레스센터) 주최:국제환경운동기구 ‘DMZ 포럼’ (3.22) • 금강산관광선 봉래호 귀항(8.8) • 강원대, 북한 원산대에 씨감자 30톤 제공(11.29) 	<p>민회의 이영일 의원(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나진-훈춘 수륙연결 수송로 빠르면 5월 개통, KOTRA 보고서(2.23) • 국가정보원, 휴전 이후 남북역류자 454명 명단 처음 공개 어부 407명/KAL기 승무원 및 승객 12명(69.12)/어로보호 활동중 피랍된 해군방송선 1-2정 승선자 20명(70.6)/ 해외 체류중 납북자 10명/ 해안에서 납치된 고교생 5명, 신원 확인된 국군포로는 총 407명 생존자 231명(3.9) • 남북 분단후 처음 남북 합작 금강산 온정리 공연장 완공(3.10) •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홍순경(61) 부부, 북한 공관원들에 납치된후 극적탈출(3.10) • 정부, 대북지원을 국제기구나 민간단체통한 간접지원에서 정부 차원의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추진(3.10) • 정부, 3월부터 6월까지 대한적십자사 통해 국민모금으로 비료 10만톤 북한에 지원(3.11) • 현대-북 신변안전합의 체결(8. 5) •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방북대표단 출국(8. 9) • 분단후 첫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 평양서 열려(9.28) • 제1회 민족통일음악제 평양서 개최(12.20) • 계란 500만개 북송(12.21) • 정부, 남북경제공동체 협의 준비위 발족(1.16) • 대북산림지원 홍보영화 극장 상영
<p>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4: 김철섭 등 17명 북청군민회 복원. 김진국 회장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부-도, 남북관광특구 추진(4.18) • 남북합작 공동브랜드 한마 	

<p>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8:대형채낚기어선, 정 부매입 착수. 속초선적 29척 감척 • 2. 18:함남도민회 제 22 차 정기총회 개최. 제 14대 회장에 유창영 선출 • 2. 21:계통발어선 제 5대 성호 침몰 • 4. 7:속초항 신수로 교량 1차 공사 착수. 길이 520m, 아치형 구조. 2002년 9월 27일 완공 예정 • 4. 28:동춘항은 속초-러시아 자루비노 백두산 항로 첫 취항 • 5. 19:강원도, 10월 중 총 연장 3.9km 미시령터널 착 공 발표 • 6. 3:속초지역 시민단체 속 초-춘천철도 조기착공 건의 • 6. 15:남북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발표후 청호동에서 이산가족 상봉 기원제 개최 • 6. 19:현대, 고성군 간성 읍-온정리 신금강산철도 건 설계획 발표 • 6. 26:속초시, 남북교류확 대 대비 남북교류확대 시책 추진단 구성, 운영키로. 남북 교류협력지원, 이산가족지 원, 남북연계교통, 남북연계 관광개발 등 5개 분야별 • 7. 27:설악·금강권 관광 개발계획 최종보고서 주민설 명회 • 7. 28:북한영화 '불가사 리' 속초 상영 • 8. 9:영북지역 통일대축전 개최 • 8. 10:8·15 이산가족방 문 신청 탈락 청호동주민 위 문공연. 청호동사무소와 서울예술전문학교 공동 주관 	<p>음 담배 시판(5.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DMZ 평화마을 추진 위 출범(6. 8) •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도 민경축행사 개최(6.11) • 강원도, 북강원도연구센터 설치(6.21) • 도, 접경지역기획단 구성 (6.27) • 강원도 접경지역변영회 협 발족(7. 4)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방 문단 예비후보 200명 선정. 도내 11명포함.(7.14) • 韓赤·정부, 이산가족 방 문단 북측 후보 공개. 도내 연고 20명(7.16) • 도내 이산가족 방북 신청 후보 11명중 7명 가족생사 확인(7.27) • 정부, 북측 이산가족 방문 단 명단 공개에 도내 출신 11명(8. 8) • 이산가족 상봉단, 서울· 평양으로 귀환(8.18) • 韓赤,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자 도내 거주자 19명 포 함 300명 추첨 선정(9.19) • 도내 이산가족 6명 2차 방 북대상자 선정(11.13) • 김진선 지사·도·민간협 력부문 관계자 등 북한방문 단 방북(12.15) • 방북중인 강원도 대표단, 남북강원도간 교류 협력 방 안 협의(12.16) • 김진선 강원도지사-정운업 북한민족경제협력聯회장, 남 북 강원교류5개항 합의문 서 명(12.19) 	<p>(2.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송 계란 1천만개 인천항 출발(3. 6) • 북한 이탈주민 15명 무더기 입국(3.10) •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평 양개최 합의 발표(4.10) • 남북한 판문점서 첫 준비접 촉 재개(4.22) •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실무 절차합의서 서명(5.18) • 평양학생소년예술단원 공 연 위해 서울 방문(5.24) • 서울-평양 직통전화 재개통 (5.31) • 서울-평양 위성중계 첫 시 험방송 성공(6. 5) • 분단후 첫 남북 정상회담 평양서 개최(6.13) • 김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 장, 남북공동 선언 합의 (6.14) •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서 개최(6.28) • 남북 외무장관, 방콕서 사 상 첫 회담(7.26) • 이산가족 방문단, 북측 가 족 138명중 126명 생사 확인 (7.27) • 현대3차 소떼 방북. 정부· 대한적십자사, 8·15이산가 족 교환방문대상자 100명 명 단공개.(8. 8) • 남북, 판문점 남북연락사무 소 업무 재개(8.14) • 남북이산가족 200명 상봉 (8.15)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분 단후 처음으로 서울 공연 (8.20)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평 양서 개최(8.29) •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 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30:(주) 현대상선, 속초-장전항간 금강산 관광선 9월20일부터 취항 발표 • 9. 30:이북5도민회, 제35회 실악문화제 통일염원제전 주관 • 10. 1:민예총 속초지부 영화위원회, 다큐멘터리 '갯배' 시사회 • 10. 2:속초시, 금강산쾌속선 속초항 조기 취항 건의 		<p>대중 대통령-김용순 노동당비서, 6·15공동선언 이행 재확인(9.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첫 국방장관회담 제주서 개최(9.25) •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11.28) • 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서울과 평양서 상봉(11.30) • 남북 이산가족 개별상봉. 운보 김기창화백 병상서 동생 김기만 재회(12.1) • 제2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경의선 복원기간동안 남북 연락체계 가동 합의(12.5) •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 3박4일 일정으로 열려(12.1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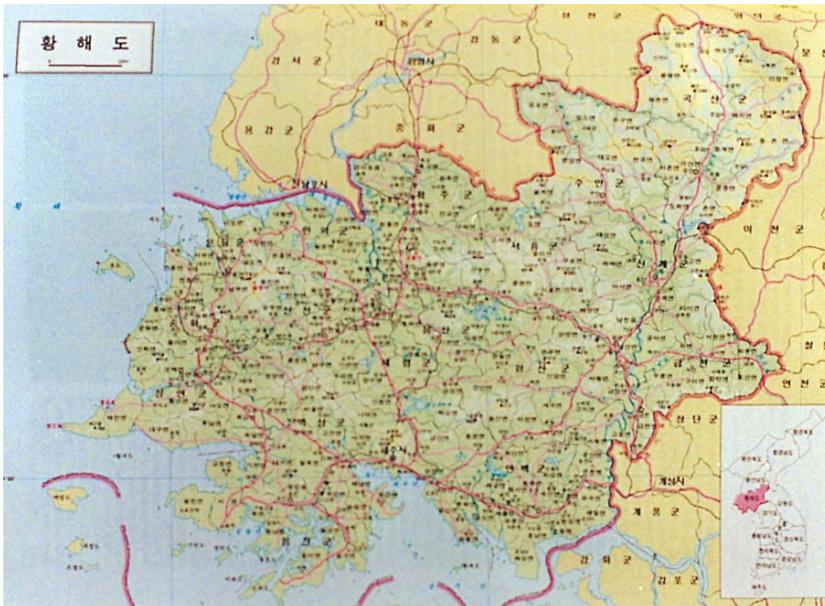
부 록
이북5도민회, 시·군민회 현황
설문조사



- 1. 이북 5도민회, 시·군민회 현황
- 2. 설문조사

황해도

-아! 두고 온 산하여-



우리 나라 중서부에 있는 14도도의 하나로 황주와 해주에서 따 온 말이며, 삼국 시대에 고구려의 땅으로 고려 시대에 관내도關內道, 서해도西海道로 불리다가 조선 태종 때 현 지명으로 바뀌었다. 농림·목축·광산물이 풍부하고, 재령 평야의 쌀, 황주의 사과, 연평도延平島의 조기는 특히 유명하며, 명승고적으로는 황주성黃州城·백천 온천白川溫泉·우리 나라 가곡 '성불사의 밤'으로 유명한 정방산 성불사成佛寺 등이 있고, 도청 소재지는 해주시海州市로 면적 17,000km².



속초 지구 황해 도민회

- 풍경 치는 소리 그윽한 정방산의 성불사여 -



연혁

1959년 3월 15일 박태희·이기섭 등 5명이 도민회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같은 해 5월 20일 도민 130여 명이 온정 초등학교 앞 야외에서 창립 총회를 열어 '속초 지구 황해도 도민회'를 창립하고, 상부 상조를 바탕으로 하는 회칙을 통과시키고, 초대 회장에 박태희를 선출하였다.

역대 회장

- 1대 회장 / 박태희('59. 5. ~ '61. 5). 총무 / 이군필.
- 2~5대 회장 / 박태희('61. 5. ~ '69. 5). 총무 / 김형남.
- 6대 회장 / 이광익('69. 5. ~ '71. 5). 총무 / 김형남.
- 7~8대 회장 / 이광익('71. 5. ~ '75. 5). 총무 / 양성식.
- 9~12대 회장 / 김창길('75. 5. ~ '83. 5). 총무 / 주종칠.
- 13~16대 회장 / 박성룡('83. 5. ~ '91. 5). 총무 / 주종칠.
- 17~18대 회장 / 박성룡('91. 5. ~ '95. 5). 총무 / 윤병선.
- 19대 회장 / 주종칠('95. 5. ~ '97. 5). 총무 / 이명관.
- 20~21대 회장 / 주종칠('97. 5. ~ 현재). 총무 / 최병규.

활동상



71년 속초시 금호동 산 278 임야 10.909㎡(3,300평)에 묘원을 조성, 현재 50인의 타계한 도민들의 유택이 있으며, 매년 한식과 추석에 망향제를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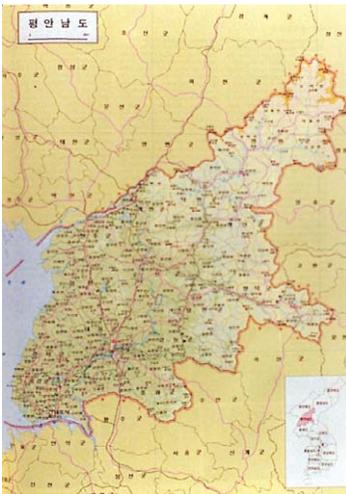
130여 세대 500여 명의 도민들이 해마다 도민 중앙회 총회일인 5월 5일을 전후하여 총회를 열어 경로 우대잔치를 겸하며, 아울러 장학금 모금을 펼치기도 한다.



평안도

-아! 두고 온 산하여-

우리 나라의 북서부에 있는 14도로 본디 고구려의 땅이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 평안도로 불리다가 고종 33년(1896) 전국을 8도에서 13도로 개편할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 평안은 평양과 안주에서 따 온 말이며, 이 고장에 정착한 평안 남·북도 도민들이 하나로 결성한 '평안도 도민회'의 명칭이기도 하다.



평안남도

우리 나라 북서부에 있는 14도道의 하나로 원래 고구려의 땅이며, 고구려 시대에는 북서쪽 방비의 중진重鎭을 삼았으며, 조선 시대에 평안 북도와 함께 평안도平安道로 불리다가 고종高宗 33년(1896) 전국을 13도로 개편할 때, 남·북으로 나뉘어 현 지명으로 바뀌었다.

서부는 넓은 평야 지대로, 평양 평야·강서 평야·안주 평야 등이 있으며, 쌀·소금·사과·석탄 등이 산출되고, 도청 소재지는 평양平壤으로 면적 14,939km².



평안북도

우리 나라의 북서부에 있는 14도道의 하나로 고려 시대에는 강동 육진江東六鎭을 두어 대륙 세력 방비에 중요한 몫을 했으며, 조선 시대에 평안 남도와 함께 평안도로 불리다가 고종 33년(1896) 전국을 13도로 개편할 때, 남·북으로 나뉘어 현 지명으로 바뀌었다. 서부는 농업 지

대, 동부는 산악 지대로 쌀·보리·소금 등이 산출되며, 도청 소재지는 신의주新義州로 면적 28,000km².



속초 지구 평안 도민회

- 모란봉 · 능라도, 묘향산 보현사 꿈결 같구나 -



연혁

1962년 초 속초읍 '사육관'에서 김달순 · 김상연 · 김은덕 · 김충욱 · 심인경 등이 모여 도민회 조직에 합의하여 동년 6월 15일 보광사 경내 송림 유원지에서 도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 지구 평안 도민회'를 창립, 초대 회장에 김은덕, 부회장 심인경, 총무 김달순을 선출하였다.

'89년 12월 6일 총회에서는 회칙을 제정하고, 회장단(회장/최재길)을 유임시키고, '90년 11월 28일 영랑 약국에서 현판식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도민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회원은 100여 세대에 400여 명이다.

역대 회장

1대 회장 / 김은덕('62. 6. 15~'64. 6. 14). 부회장 / 심인경. 총무 / 김달순.

2~4대 회장 / 김충욱('64. 6. 15~'70. 7. 15). 부회장 / 김상연. 총무 / 이찬호.

5대 회장 / 김희순('70. 7. 16~
72. 7. 17). 부회장 / 기망연. 총무
/ 이찬호.

6~14대 회장 / 최재길('72. 7.
18~'89. 7. 18~'89. 12. 5). 부
회장 / 김상연·김재섭. 총무 / 이
찬호.

15~16대 회장 / 최재길('89.
12. 6~'92. 5. 30). 부회장 / 길태
주·김재섭·김택송·백영일·이찬
호·지인수. 감사 / 강용상·원창
석·최홍순. 사무 국장 / 최원춘.

17~18대 회장 / 김재섭('92. 5.
31~'96. 12.5). 부회장 / 계익
선·지인수. 감사 / 강용상·최홍
순·한신제. 사무국장 / 최원춘.

19대 회장 / 계익선('96. 12.
6~'99. 5. 6). 부회장 / 지인수. 감사 / 강용상·최홍순·한신제. 사무국장 / 최원춘.

20대 회장 / 이승주('99. 5. 7~현재). 부회장 / 김양진·김용현·박영춘·백려황·이
기향. 이사 / 길성호·김기태·김선산·노용인·이윤철·이춘택·최경화·최병도. 감사
/ 강용상·최홍순·한신제. 사무국장 / 최원춘.



활동상

67년 7월 15일 회원 찬조금 8만 원으로 속초시 노학동 산 27번지 임야 14.281㎡ (4,320평)를 구입하여 공원 묘지를 조성하였다. 이 묘원의 관리는 이사회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우회'가 적극 돕고 있다. 현재 150여 명의 유족이 안치되어 있으며, 매년 추석에 망향제를 올리며 도민들의 단합을 돈독히 하고 있다. 99년도부터는 장학금 1억 원 목표를 세우고, 임원진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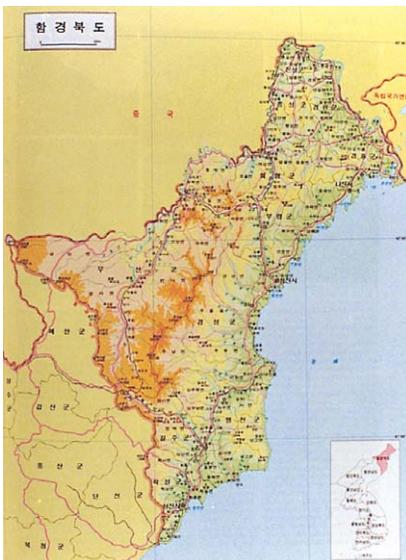
함경도

-아! 두고 온 산하여-



함경남도

우리 나라의 북동부에 있는 14도道의 하나로 본디 옥저沃沮·예濊·부여扶餘의 옛 땅으로, 삼국 시대에 고구려의 땅이었으며, 조선 초기에 영안도永安道·함길도咸吉道·함경도(함흥과 경성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불리다가 말기에 현 지명으로 바뀌었고, 장백 산맥·백두산 등, 산이 많아 우리나라의 광업지대를 이루고, 흥남興南의 질소 비료 등은 유명하다. 도청 소재지는 함흥시咸興市로 면적 31,973km².



함경북도

우리 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14도道의 하나로 본디 옥저沃沮·현도군玄菟郡·삭방도朔方道로 삼국 시대에 고구려의 땅이었으며, 조선 시대에 영안도永安道·함길도咸吉道·함경도로 불리다가 현 지명으로 바뀌었다. 두만강 너머 간도間島와 지금 러시아 령 연해주沿海州에 면한 산악 지대로 석탄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아오지阿吾地 탄광, 청진淸津 근해의 명태·멸치 어업은 유명하다. 도청 소재지는 청진시로 면적 20,346km².



함경남도 도민회

- 동해북부선 철마, 언제 속초를 달리려나 -



연혁

1954년 3월 '영북 지구 함경 도민회'를 결성하고 함남 출신 김치룡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함남 도민 2천7백여 세대, 함북 도민 3백여 세대에 총 2만여 명이였다.

회원수가 늘면서 함남·함북으로 분리되어 59년 4월 10일 대의원 26명이 속초 읍사무소에 모여 '영북 지구 함남 도민회'를 창립, 회칙을 만들고, 초대 회장에 신성철(북청)을 선출하였다. 97년 7월 6일 '속초 지구 함경 남도 도민회'로 개명하고, 현판식과 함께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98년 3월 4일 청년회(회장:고윤식<홍남>), 같은 해 5월 12일 부녀회(회장:최춘자<이원>)를 창립하는 등 도민회 활동의 폭을 넓혔다.

도민회 산하에는 현재(2000년) 함흥시(회장 오계호)·홍남시(회장 차진환)·원산시(회장 양진우)·고원군(회장 조만희)·단천군(회장 안문돈)·문천군(회장 박보근)·북청군(회장 김진국)·영흥군(회장 이근하)·이원군(회장 김기호)·정평군(회장 이종식)·함주군(회장 윤병정)·홍원군(회장 방성춘) 등 시·군민회가 창립,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역대 회장

1대 회장 / 신성철('59. 4~'64.4).

부회장 / 이용을·임정순. 사무 국장 / 김부필.

2대 회장 / 임정순('64. 4~'78. 10).

부회장 / 김남표·한연수. 사무 국장 / 김부필.

3대 회장 / 김두환('78. 11~'80. 10).

부회장 / 김남표·김일산. 감사 / 한연수·동문성. 사무 국장 / 조병희.

4대 회장 / 김두환('80. 11~'82. 10).

부회장 / 김재성·양대길·윤병정·조상수·채명길. 감사 / 동문성·김우찬. 사무 국장 / 조병희.

5대 회장 / 김두환('82. 11~'84. 10).

부회장 / 한진수·최성호·김치룡·원장남·안승찬. 감사 / 동문성·노춘호. 사무 국장 / 조병희.

6대 회장 / 김남표('84.11~'86.10).

부회장 / 이계선·정재옥·박원준·김봉인·이난식. 감사 / 동문성·노춘호. 사무 국장 / 조병희.

7대 회장 / 안국준('86.11~'92.10).

부회장 / 동문성·차진환. 감사 / 노춘호·김철섭. 사무 국장 / 조병희.

8,9대 회장 / 안국준('88.11~'92.10).

부회장 / 동문성·차진환·엄명덕·박정일·김두형. 감사 / 노춘호·김철섭. 사무 국장 / 한전일.

10대 회장 / 차진환('92. 11~'95.3).

부회장 / 동문성·엄명덕·박정일·김두형·김수하. 감사 / 김창규·양현익. 사무 국장 / 한전일.

11대 회장 / 이원식('95. 4~'97. 4).

부회장 / 동문성·김두형·김철섭·황재운·황수연. 감사 / 김창규·양현익. 사무 국장 / 한전일.



12대 회장 / 안동섭('97. 4~'98. 2).

부회장 / 김두형 · 김철섭 · 양현익 · 안문돈 · 장태응. 감사 / 김준철 · 고희광.

사무 국장 / 박영진.

13대 회장 / 김철섭('98. 2~'2000.2).

부회장 / 김두형 · 조만희 · 박춘원 · 안문돈 · 장태응 · 박필일 · 박보근 · 김기호.

감사 / 허응복 · 한전일. 사무 국장 / 조병희.

14대 회장 / 유창영(2000. 2~현재).

부회장 / 김두형 · 김형기 · 박필일 · 한전일 · 이상덕 · 강홍식. 감사 / 허응복 · 한전일. 사무 국장 / 조병희.

활동상

매년 가을철이면 정기 총회를 가지며, 친목과 단합,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등을 결의한다. 현재 22차례에 걸친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장학금 지급, 각 시·군 청년회 체육대회 개최, 경로 잔치, 불우 회원 돕기, 중앙회 참가와 체육 대회 출전 등으로 유기적 관계를 돈독히 다져 나가고 있다.



98년 3월 18일 제20차 정기 총회에서 장학 기금 조성을 결의하고, 2000년 5월 3일 제3차 장학 운영 위원회에서 장학금 5천만 원 달성, 기념식을 가진바 있다.

99년 4월 25일 중앙도민의 날(제26회), 본회 고문 동문성 속초 시장이 '함경 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여 도민회 위상을 높였으며, 동년 6월 22일 함남 도지사·명예 시장, 군수, 읍·면장 수련 및 등산 대회를 주관하였다.

2000년 7월 2일 속초 지구 이북 오도민 단합 대회를 주관, 282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동년 10월 8일 이북 오도민 대통령기 쟁탈 체육 대회에서 본회 청년 축구부가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가 있어 이곳 도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다.

2000년 12월 13일 제5회 '도민회 경로 및 송년의 밤'을 열어 위로하고 불우 노인 회원 82가구에 백미 20kg씩을 전달, 도민의 정을 나누었다.

도민회 장학금 지급 실적

연 도	대 상	인 원	지금액(단위:원)
1980	중학생	5	750,000
1981	고교생	10	2,250,000
	대학생	5	
1982	고교생	10	2,000,000
	대학생	5	
1983	고교생	7	700,000
1984	고교생	7	700,000
1985	고교생	7	700,000
1986	고교생	6	600,000
1987	고교생	6	600,000
1988	고교생	6	900,000
1989	고교생	6	900,000
1990	고교생	6	1,200,000
1991	고교생	6	1,200,000
1992	고교생	5	1,000,000
1993	고교생	5	1,000,000
1994	고교생	5	1,000,000
2000	고교생	11	4,000,000
총계		118	19,500,000



속초 지구 함흥 시민회

-반룡산 · 정화릉 · 귀주사가 잇힐리아-

연혁

1950년대 후반기부터 애항심이 남다른 백유봉 · 이섭봉에 의해 시민회가 결성되어 왔으며, 그 후 '70년대에 들어 시민회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대표 17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당시 설악동에서 '송월여관'을 운영하던 이시곤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77년 7월 10일 창립 총회를 가져 총 56세대에 약 200명으로 '속초 지구 함흥 시민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역대 회장

1~2대 / 이시곤. 3대 / 양대길. 4대 / 안승찬. 5~6대 / 이종희.
7~8대 / 오계호. 9~10대 / 백유봉. 11대 / 백근중. 12~14대 / 오계호.

활동상

'78년 5월 6일 회원들의 공동 찬조금으로 속초시 교동 산 304번지 임야 23.801km² (7,200평)에 '망향 동산'을 조성하고, 다음 해에 '망향탑'을 건립하였다. 매년 정기 총회와 함께 '망향제'를 올리며, 한식과 추석에는 소제도 올리면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97년에는 '망향 동산'의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처분하고 같은 해 3월 5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 66번지 임야 12,248km²(3,705평)를 구입하여 새롭게 묘원을 조성하고, 다음 해에 '망향탑'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묘원에는 26기의 유적이 안장되어 있다.

또한 98년 9월 15일 본회의 기금에서 1억원을 적립하여 장학회(속초지구 함흥시민회 장학회)를 창립하여 철저한 이사장제를 도입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으며, 회원 자녀(중·고·대 재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1회 19명, 2회 26명이 수령하였다.

咸興頌



盤龍山の 精氣어린 莊嚴한 偉容
馳馬臺의 悠久한 옛 情趣
城川江의 여울과 關北 第一의 銀盤
萬歲橋에 물결치던 대보름의 人波
다시 東으로! 瑚璉川의 白沙
白鷺에 덮인 定和陵의 雅致
歸州寺의 殷殷한 鍾 소리
온 누리에 그윽한 餘韻을 남겼거늘
鄉愁와 痛恨의 애달픔이 뒤엎힌
내 故鄉 咸興
버려진 지 於焉 五十 星霜
祖上님들의 넋을 달래며
統一의 念願을 안고
오늘도 이곳에
望鄉塔을 다시 세워
後世에 남기노니
永遠하여라 내 江山아

雪春

西紀一九九八年 十一月 日
東草地區 咸興市民會員 一同



영북 지구 원산 시민회

- 명사 십리 모래톱, 해당화는 오늘도 곱겠지 -



연혁

1954년 4월 8일 남수악·최형재·원형옥·김윤성·김영근·전완식·임정순·최성호·윤영익·심상진·김창길 등이 회동, 친목과 관혼 상제 등을 위한 문제를 논의.

55년 4월 28일 영랑 호반 송림에서 시민 야유회를 가지면서 시민회의 결성과 인명록 발간을 결의.

59년 5월 31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재속초 원산 시민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남수악을 선출하였다.

70년 10월 24일 제2차 총회에서 회칙을 제정하였으며, '원산 시민록' 제2집을 제작하여 256세대에 배포하면서 명실 상부한 시민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79년 8월 5일 피난민 1세대들로 명사明沙 친목계를 발족 본회의 후원 및 자문에 기여키로 했다.

85년 8월 15일 노장부(부장/황석주), 부녀부(부장/정분녀), 청년부(부장/한석)를 재정비하여 활성화를 기했다.

89년 8월 30일 '영북 지구 원산 시민회' 로 개명하였다.

90년 7월 3일 속초시 중앙동478-31에 시민 회관(3층)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구심력이



되고 있다.

역대 회장

- 1대 회장 / 남수악('59~'70).
- 2대 회장 / 임정순('70~'81).
- 3대 회장 / 최성호('81~'90).
- 4대 회장 / 한성일('90~'92).
- 5대 회장 / 김창길('92~'96).
- 6대 회장 / 한성일('96~'98).



元山市民會館(所在地: 東草市 中央洞 478-31 番地)

2000년 현재 임원진

- 고문 / 김창길 · 한성일.
- 이사 / 김대성 · 최홍종 · 고찬열 · 정은상.
- 회장 / 양진우. 부회장 / 김창규.

활동상

71년 11월 12일 속초시 교동 산 250-1 임야 34,050㎡(10,300평)에 향원(망향의 동산)을 조성, '72년 9월 17일 망향탑을 건립하였다.

향원을 시 개발에 따라 폐쇄하고, 89년 9월 6일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산 174-1 임야 13,223㎡(4,000평)에 향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90년 10월 27일 망향탑을 세우고 매년 현충일과 추석에 제를 올리고 있다. 향원에는 현재 타계한 시민 회원 130기의 유택이 안

장되어 있다.

시민회는 경로 우대로 17차례에 걸쳐 1,061명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푸는 한편, 청와대·평화의 댐·용인 자연 농원 등 나들이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설날을 맞아 위로금을 전하기도 했다.

회원 돕기로 불우한 57세대를 찾아 백미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91년도부터는 전 회원 가정에 설날과 추석에 선물 및 제수 용품을 전하여 시민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고 있으며, 또한 21차례에 걸쳐 700여 명을 관광 위문하였고, 98년 10월 해군 원산함과 자매 결연을 맺어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장학 사업으로는 그간 중·고·대학생등 499명에게 학자금을 전달하는 등 활동적인 시민회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고향생각

늦어도 칠일이면
마지막 만져보고
어두운 등불 밑에
부모 형제 처자들의
가슴깊이 간직한 채
힘한 파도 가름짓고
남한 땅에
맥박은 고동친다
원한의 승리는
글씨어라 잘 있으라
고향 땅 선조들께
두고 온 산천도
명사 십리 해당화도
송도원 파도소리
고향의 얼을 담아
천추의 원한

돌아오마 글은 약속
되 돌아 설 때
떨고 서 있는
처량한 모습
홀홀 단신
눈보라 헤쳐가며
어어간 이십개 성상
한탄의 가족 생각
반듯이 올 것인 즉
만나 볼 그날 위해
오늘도 묵념하며
많이 변했으면만
지금쯤 늙었겠지
오늘도 들리는 양
망향탑 세워놓고
위로할까 하노라

1972년 월 일
재속원산시민회
최 성 호 작



속초 지구 흥남 시민회

-수력 발전소·질소 비료 공장 웅장하련만-

연혁 및 활동상



1973년 4월 15일 '명신 고등 공민 학교' 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어, 초대 회장에 김일산. 부회장 / 박기호·고철식. 총무 / 정중덕 등을 임원진으로 시민회를 출범시켰다. 89년 4월 15일 총회에서 회칙을 만들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회장 / 차진환. 총무 / 채명길 등을 선출하고 청년부를 조직하여 회장에 고윤식을 선임하여 시민회의 활성화

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시민회의 가족은 140여 세대로 500여 명의 회원이 1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묘원 또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 64번지 임야 27,769㎡(8,400평)에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였고, 77년에 망향비를 세워 고향을 잃은 한을 달래고 있으며, 매년 한식과 추석에는 망향제를 함께 올리며, 시민회의 결속과 동향同鄉의 정을 나눈다. 현재 묘역에는 115명의 고인이 된 시민의 유택이 마련되어 있다.



망향비



98. 4. 24 속초지구 함경남도 청년회(회장, 고윤식, 흥남) 창립총회



속초 지구 고원 군민회

-잡곡과 무연탄의 고장, 구룡연·양천사가 아련히-

연혁



1954년 5월 15일에 군민 70세대 200여 명이 영랑호 보광사 유원지에서 창립 총회를 가져 초대 회장에 서창하를 선출하여 고원 군민회가 결성 되었다. 70년 5월 30일 총회에서는 회칙을 제정하는 한편으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 68번지 임야 6,314㎡(1,910평)에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78년 7월 16일 '고원 땅' 이라 명명하여 묘비를 세워 군민의 애달픈 한을 삭이며, 매년 추석이면 이곳에서 고향을 향해 망향제를 올리고 있다. 군민 유택 18기 안장.

남과 북이 합쳐지는
즐거운 그날을
기다리다 지쳐서
가신 영령들이다

비문 / 전문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원 땅’
망향비 옆에 오석으로 된 ‘고원
청년 유격대 위령비’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고원 출신 유격대원 97인의 명단과 전사자의 이름이 오석에 암각으로 새겨
져 있다. 주변도 계급도 없는 무명의 용사들, 그래도 고향 못 가다 정착한 주민들에 의해
기억되는 그때들이여, 여기 솔숲에 이는 바람에 실려 오는 그때들의 거친 숨소리를 듣노
라.

군민 20여 세대에 100여 명으로 98년에 청년회(회장/조용건)가 결성되어 피난민 1세
대들의 회무를 맡고 있다.

역대 회장

- 1대 회장 / 서창하('54. 5. 15~'64. 3. 29). 총무 / 조상수.
- 2대 회장 / 신학주('70. 5. 30~'74. 6. 19). 총무 / 조상수.
- 3대 회장 / 이재순('74. 6.20~'78. 5. 9). 총무 / 조상수.
- 4대 회장 / 조상수('78. 6. 10~'86. 10. 14). 총무 / 김윤복.
- 5대 회장 / 손창성('86. 10. 15~'87. 5. 5). 총무 / 김윤복.
- 6대 회장 / 박경문('87. 8. 15~'99. 3. 14). 총무 / 김윤복
- 7대 회장 / 조만희('99. 3. 15~현재). 총무 / 김윤복.





영북 지구 단천 군민회

-금곡 공원 · 유선대 · 용연지 · 은호 보고파라-



연혁

1953년 3월 31일 북한 공군의 속초항 기습으로 상호相互 회사에서 부두하역 작업을 하던 동향인 허문도 · 이선복 · 동형석 · 이방근 · 이동순 등 다섯 사람이 사망하는 비참함에 망연, 다음날 강석창 · 심용석 · 강용준 · 동한수 · 김재성 등이 긴급 회동, 장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인들을 금호동 영랑 호변에 안장. 장례를 치루고, 이 자리에서 '재속초 단천 군민회'를 결성하고, 강석창을 초대 회장에 추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군민 회원들은 매년 추석이면 5인의 제사를 지내면서 총회를 열고 회원 상호 유대를 돈독히 다져 오늘에 이른다.

80년 12월 1일 회칙을 만들고 '영북 지구 단천 군민회'로 개명하였다. 군민회 산하에 향우회(회장/김봉해), 부녀회(회장/김춘옥), 청년회(회장/김강석)가 조직되어 군민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등록된 회원은 157세대에 700여 명이며 속초시 동명동 466-30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활동상

군민회는 매년 추석에 묘원에 서 차례와 함께 총회를 열고, 고령자·불우 회원돕기와 장학 기금 1억 원 조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영랑 호변에 5인의 묘지가 후에 공동묘지로 확대되어 당시 전성우 속초 읍장으로부터 정식 묘원으로

허가 받으면서 30여년간 68기가 안장되어 있었으나, 영랑호 개발에 밀려 묘원이 폐쇄되기에 이르면서, 90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산 45번지 임야 16,860㎡(5,100평)을 구입하여 묘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영랑 호변의 묘 68기를 이전하였으며, 이 묘원(제1동산)에는 현재 129기가 안장되어 있다.

제1동산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99년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산 40번지 임야 9,917㎡(3,000평)을 매입하여 제2동산을 확보 해 놓고 있다.

역대 회장

1대 회장 / 강석창, 2대 회장 / 김용문, 3대 회장 / 신일용, 4대 회장 / 강용준, 5대 회장 / 김재성, 6대 회장 / 전택렬, 7대 회장 / 허경용, 8대 회장 / 전주화, 9대 회장 / 김익준, 10대 회장 / 강석창, 11대 회장 / 심용석, 12대 회장 / 김영규, 13대 회장 / 엄봉규, 14대 회장 / 이민홍, 15대 회장 / 김재성, 16대 회장 / 동문성, 17대 회장 / 최용문, 18대 회장 / 이정균, 19대 회장 / 김봉해, 20대 회장 / 김 형기, 21대 회장(현재) / 안문동 부회장 / 김봉해 김용한.

감사 / 박승희 · 김종언. 총무 / 조병록.

운영 위원 / 김재성 · 동문성 · 최용문 · 이민홍 · 김학률 · 최제성 · 최택림, 청년회장 / 김강석.



영북 지구 문천 군민회

- 옥녀봉 · 인흥령 · 용담약수 그림구나 -



연혁

1955년 7월 17일 정기수 · 박임하 · 박공달 · 방태형 · 김원소 · 노재영 · 조용호 · 이중덕 등 16명이 발기, 총회를 열고 정기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속초 · 고성 · 양양에 거주하는 군민 회원 상호 친목과 상부 상조함과 애국 역량의 결집으로 남북 통일에 적극 동참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북 지구 문천 군민회'를 창립하였다.

역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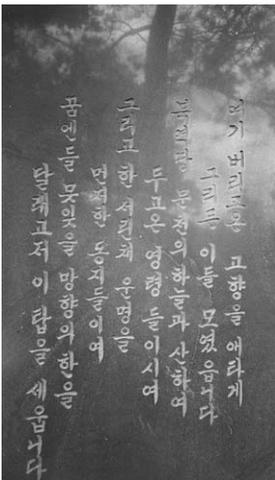
- 1대 회장 / 정기수. 부회장 / 이승언 · 김연직. 총무 / 김원소. 고문 / 박임하 · 박희길 · 박공달.
- 2대 회장 / 정기수. 부회장 / 권택하 · 전춘명. 총무 / 채명길. 고문 / 박임하 · 박공달.
- 3대 회장 / 권순희. 부회장 / 김원소. 총무 / 채명길. 고문 / 방태형.
- 4대 회장 / 채명길. 부회장 / 황여길. 전택준 · 전홍림 · 박보근. 고문 / 방태형 · 권택하.
- 5대 회장 / 방순호. 부회장 / 전홍림 · 박보근 · 이홍범 · 노정래. 총무 / 박보근. 고문 / 채명길 · 황여길 · 전택준 · 노재영.
- 6대 회장 / 박보근. 부회장 / 전홍림 · 이상덕 · 노정래. 총무 / 고기수. 고문 / 채명길 · 황여길 · 이홍범 · 방순호.

활동상

57년 4월 25일 281명의 세대주 회원록을 작성하고, 2000년 12월 초에 제43회 정기 총회를 가졌다. 채명길·방태형·노재영·방순오·김원섭·박보근 등이 앞장 서 81년 1월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임야 8,265㎡(2,500평)에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고, 90년 6월 500여만 원으로 높이 3.2m의 망향탑을 건립하여 군민회의 구심점을 갖추었다. 묘역에는 69기의 유택이 안장되어 있으며, 군민 회원 430여 명이 매년 6월 6일 현충일과 추석이면 망향제를 올리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1990년 6월 6일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묘역에 세워진 '망향탑'



여기 버리고 온 고향을 애타게
그리는 이들 모였습니다.
북역땅 문천의 하늘과 산하여
두고온 영령 들이시여
그리고 한 서린채 운명을
먼저한 동지들이여
꿈엔들 못잊을 망향의 한을
달래고저 이 탑을 세웁니다.

비문 / 전문



속초 지구 북청 군민회

-북청사자놀이, 오늘날도 고향에서 행해지는 지-



연혁 및 활동상

1956년 북청 도청에서 김수석·김하륜 등 20여 명이 모여 동향 친목회를 조직하고, '북청사자놀이' 복원에 주력하면서 북청 군민회의 태동을 이룬다.

66년 제7회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출진,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중요 무형 문화재 제15호로 지정 받았다.

68년 7월 속초 지구 북청 군민회를 창립(회장/박원준)하고, 군민회 산하 14개 읍·면민의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각 읍·면민 별로 분산 활동하면서 군민회가 침체 일로를 걷다가, 2000년 1월 14일 속초 지구 함경 남도 도민회 김철섭 회장의 주선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김진국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재정비에 들어갔다. 새롭게 탄생한 집행부는 기금을 조성할 것을 결의하고, 매월 23일 월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신창 읍민회(회장/문명일), 신포 읍민회(회장/김기재), 양화면민회(회장/김봉원) 거산 면민회(회장/변경일), 만춘 리민회(회장/김춘길)가 조직되어 망향의 한을 달래며,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청군 양화면 망향탑

임원진

고문 / 변경일 · 김철섭 · 최병일 · 강영모.
회장 / 김진국(양화) · 부회장 / 김태하.
감사 / 박상배. 총무 / 박영진. 간사 / 최광철.



북청군 신창읍 만춘리 묘역



속초 지구 신포 읍민회

-명태·정어리의 고장, 오늘도 풍어겠지-



영흥 군민회 '망향 동산'에 세워진 망향탑
('79.8.15 건립)

연혁 및 활동상

1965년 3월에 북청군 신포 읍민회 창립. 회장 / 김남표. 부회장 / 문진선·최중연. 총무 / 최중구를 선출하고 회원 간의 유대를 다졌다. 74년 11월, 김남표·이광춘·하기운·김춘식 등이 앞장서서 속초시 장사동 가 201번지 임야 27,174㎡(8,220평)을 구입하여 망향원을 조성하고, 매년 음력 9월 9일(중양절) 망향제와 읍민회를 겸하여 행하고 있다.

현재 200세대 800여 명의 회원으로 읍민회가 구성되어 있다.

임원진

고문 / 김남표·최중구·조영희.

회장 / 김기재. 부회장 / 이원식·홍운섭·김하연·김창준.

감사 / 김대연·김철환. 총무 / 최원복.



재속초 영흥 군민회

-용흥강은 오늘도 구비쳐 흐르고 있으련만-

연혁 및 활동상



군민회는 1951년 4월 속초읍 속초리 조명상회에서 군민 60여 명이 모여 창립 총회를 가졌고, 초대 회장에 김치룡, 부회장에 이종석·김연학·김두초를 선출하고 상호 유대를 다짐하였다. 김치룡 회장의 출연금으로 66년 11월 5일 속초시 교동 산 290번지 임야 12,701㎡(3,482평)에 공동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69년에 망향탑을 건립하였다. 묘원에는 140여 명의 유택이 안치되어 있으며, 매년 추석에 100여 세대 300여 명이 이곳을 찾아 동향의 정을 나누며, 망향제를 올리고 있다. 그간 45차례의 총회를 가졌으며, 회원간의 단합과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목놓아 통곡하여 발 구르며 외쳐 보았네. 내일이면 간다더니 벌써 30성상이 가고 구비쳐 흐를 용흥강을 회상하며 이 땅 영랑 호변에 자리 잡은 이 동산에 망향의 설움안고 이 탑을 세우노니 북녘 하늘 가는 저 구름아 한을 이 설움을 전해다오.

서기 1979년 8월 추석

재속초 영흥군민회 회장 김치룡

비문/전문

역대 회장

1대 회장 / 김치룡('51~'60). 부회장 / 이종석·이연학. 감사 / 박병춘.

총무 / 김두초.

2대 회장 / 김치룡('60~'66'). 부회장 / 한영제. 감사 / 박병춘. 총무 / 고영도.

3대 회장 / 김치룡('66~'77). 부회장 / 한영제·김두초·윤덕훈. 감사 / 김봉우·김성기. 총무 / 강봉.

4대 회장 / 김치룡('77~'79). 부회장 / 한영제·안국준. 감사 / 김봉우·김성기. 총무 / 강봉.

5~6대 회장 / 김치룡('79~'85). 부회장 / 한영제·김두초·윤덕훈. 감사 / 김봉우·김성기. 총무 / 강봉.

7대 회장 / 김치룡('85~'88). 부회장 / 한영제·윤덕훈. 감사 / 전상준·허응복. 총무 / 강봉.

8대 회장 / 김치룡('88~'97). 부회장 / 한영제·김두초·윤덕훈·김태선. 감사 / 전상준·허응복. 총무 / 조대형.

9대 회장 / 김두초('97~2000). 부회장 / 김태선·이근하·김봉우. 감사 / 허응복·안칠환. 총무 / 전상준.

10대 회장 / 이근하(2000~현재). 총무 / 허응복.



속초 지구 이원 군민회

-바람도 달린다는 짙은 해안, 그리운 고향-



연혁 및 활동상

1953년 5월 29일 창립 총회를 가져 초대 회장에 박성주를 선출하여 군민회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군민들은 다투어 성금을 조성하여 77년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 161번지의 임야 13,223㎡(4,000평)에 공원 묘원 조성, '이원 공원'이라 명명하였다.

현재 묘원에는 163기의 유택이 안장되어 있으며, 군민들은 매년 추석이면 고향을 향해 망향제를 올리며 아련한 향수를 달랜다.

현재 군민 153세대에 500여 명이 군민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금 4,200만 원으로

불우 회원 돕기와 경조사 등에 일조하고 있다.

역대 회장

1대 회장 / 박성주('66~'67).

2대 회장 / 이용을('67~'69).

3대 회장 / 원정남('69~'96).

4대 회장 / 김기호('97~현재).

부회장 / 김두형.

감사 / 마성초. 총무 / 김준철.



이원공원 /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 161번지(건립일 1979년 10월 5일)



속초 지구 정평 군민회

-쌀·약초·과수 농업과 수산업으로 풍성함이어-

연혁 및 활동상

1955년 11월 6일 한성익 등 20여 명의 회원이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관동 팔경의 하나인 '청간정'에서 창립 총회를 가지고 회칙을 제정, 초대 회장에 한성익을 선출하여 군민회를 결성하여 출발하기에 이른다.(52. 5. 28 정평향우회 발족)

77년 10월 27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 122번지 임야 7,736㎡(2,340평)를 구입하여 '망향 공원'을 조성하고, 다음 해인 78년 5월 12일 '망향탑'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



기까지 매년 추석이면 함께 망향제를 올리며, 같은 고향의 정을 나눈다. 현재 묘역에는 32명의 유적이 안장되어 있다.

97년 5월 5일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 보완하여 군민회의 활성화를 기했으며, 98년 11월 2일 청년회(회장/원종

식)를 조직하여 망향 동산 관리 등 1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82세대 200여 명의 회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역대 회장

1대 회장 / 한성익. 2대 회장 / 이계선. 총무 / 김용식. 3대 회장 / 김성철. 총무 / 최종렬. 4대 회장 / 김성철. 총무 / 김광섭. 5대 회장 / 박정일. 총무 / 이동욱.





속초 지구 함주 군민회

- 조선 태조의 본궁 · 전승비 아직 서 있는지 -

연혁 및 활동상



1964년 5월 8일 영랑호 보광사 송림 유원지에서 317세대 5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창립 총회를 개최, 회칙을 제정하고 초대 회장에 신동진을 선출하여 군민회의 결성을 보았다.

다음 해인 65년에 '망향 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임야 32,403㎡(9,802평)를 구입하였으며, 77년 4월 5일 묘비를 건립하여 '망향 공

원'을 꾸렸다. 매년 추석이면 회원들이 이곳에 모여 망향제를 올리며, 고향의 이야기와 이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로 서로의 정을 나누고 있으며, 현재 이 묘역에는 104기의 유택이 안장되어 있다. 현재 군민회의 세대수는 200여 세대에 7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대 회장

1대 회장 / 신동진. 2대 회장 / 신주균. 3대 회장 / 윤병정. 4대 회장 / 엄명덕. 5대 회장 / 한전일. 6대 회장 / 윤병정. 총무 / 엄명수.



속초 지구 흥원 군민회 -송도와 절부암이 명승이었지-



연혁 및 활동상

1978년 5월 27일 군민 50여 명이 영랑호 보광사 유원지 솔밭에 모여 창립 총회를 가졌으며, 초대 회장에 한진수를 추대하였다. 79년 1월 10일 21명의 회원으로 흥원 향우회(초대 회장 / 한연수)를 조직하여 본 군민회의 활성화에 진

력하였다. 같은 해 3월 10일 속초시 조양동 전(田) 307-1. 산 359-9. 산 380-1 등 12,744㎡(3,855평)를 구입하여 공동 묘지를 조성하고, '흥원 공원'이라 이름하여 이곳에 비를 세워 공원의 면모를 갖추었다.

여기는 故郷山川을 밤낮으로
그리다가 끝내 他郷에서
作故한 失郷民, 洪原人들의
한 서린, 幽宅이다.

이 포근한 鎮魂의 場은
먼저 가신 怨魂들의 넋을
달래려는 뜻에서 우리 洪原
失鄉民들의 精誠 어린 結晶으로
雪嶽山 기슭 양지 바른 곳에다
자리를 마련하였다.

洪原郡 名譽 郡守 朴京鍾 撰書
비문/전문

86년 6월 7일 향우회 한연수 초대 회장의 송덕비를 세워 그의 업적을 후대에 길이 전하기로 하였다. 현재 묘역에는 61명의 유택이 안치되어 있다.



90년 5월 27일 총회에서는 2대 회장에 장태응을 추대하였다.

91년 8월 21일 서울 중앙회의 경로복지 사업에 1십만 원을 찬조하였으며, 92년 11월 16일 중앙회가 주최한 경로불우 수혜자에 지성복을 추천한 결과 1십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 기쁨을 가졌다.

2000년 4월 28일 총회에서는 3대 회장에 방성춘을 추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147세대에 5백여 명의 회원이 군민회에 등록되어 있다.

회장단 명단

고문 / 장태응. 회장 / 방성춘. 부회장 / 김호찬·박창기. 감사 / 최윤일. 총무 / 남사길. 운영 위원 / 남춘원·김건욱·황여중·이동찬·황성윤·장동일·권봉남·김화자·한일권·조중수·이영수·최하룡.



재속초 삼호 면민회

- 재추섬 · 물맞이 휴양지 그 절경이라니 -

연혁 및 활동상

홍원군 산호면 회원들은 상호 고향의 정을 나누기 위해 '보청계'를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망향의 한을 달래며 동향의 정을 나누어 오다, 88년 7월 3일 '재속초 삼호 면민회'를 창립, 초대 회장에 노춘호, 부회장 김순중, 총무 김수현, 고문 약간 명을 선출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99년 10월 12일 총회에서 창립 당시의 회칙을 개정하여 면민회를 새롭게 재창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50여 가구에 200여 명의 면민회는 89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75번지 임야 29,752㎡(약 10,000평)를 구입하여 묘역을 조성하고, '삼호 향원'이라고 명명하고 묘비도 함께 세웠다. 현재 71명의 유택이 안장되어 있다. 또한 묘원에는 '삼호 반공 학생 희생자 위령탑'이 박승호 회원의 건립으로 99년 5월 23일 제막 되었으며, 한편 면민회에서는 황진후 선생 송덕비를 이날 함께 제막하는 면민회의 경사가 있었다.

이로써 면민회가 더욱 결속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면민회 발전에는 현재 면민회 회장은 김규택이며 총무에 한윤덕이 맡고 있다.

‘고향생각’

고향을 떠나온 지 어언 반세기
하늘이여 땅이여 그대는 아는가
부모 형제 고향 산천이

‘젊은 영혼들’

여기 채 피지도 못한 영혼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장했노라.
암흑같은 공산치하에서

그 얼마나 그리운가를
고향! 그대 이름을 부르며
푸른 바다 위에 솟은 제추섬
절경의 물맛이 휴양지
힘준한 수호신의 봉수제
그리움에 지쳐 여기 외로운
훈령들이 망향의 한이 되어
오늘도 고향 하늘을 바라봅니다

향원 비문, 김규택 / 글
1996년 5월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소중했던 목숨을 빼앗겼으니
원망과 원한의 한이 되었음에도
원통함을 달래주는 이 없이
50여년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이
오늘에야 편히 영면할 곳을 마련하였으니
이곳을 찾아 고히 잠드소서.

‘삼호 반공학생 희생자 위령탑’ 비문
김규택 / 글. 박승호 / 건립
1999년 5월 23일



박승호 고문의 물심양면 도움이 컸다.



향원 제막식 행사



함경북도 도민회

-하늘도 얼어붙는다는 그 삭풍도 그림구나-

연혁

1954년 3월 '영북 지구 함경도민회'를 결성하고, 함남 출신 김치룡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함경 남북도를 망라한 도민회가 창립되었다.

함경도 도민회는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도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참여 회원수가 증가되자 남·북 분리 의견이 높아 59년 4월에 발전 지향적으로 해체하여 같은 해 6월에 '영북 지역 함경북도 도민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박태송을 선출, 매년 여름이면 야유회를 겸한 총회를 개최하였다.

74년 2월 23일 총회에서 회칙을 만들고 회장 최근상, 부회장 엄일권·김영파 등 이사 25명 감사 2명을 선출함으로써 도민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78년 간성 지회(지회장 / 변길용), '81년 대진 지회(지회장 / 이방실)가 결성되면서 도민회가 체제를 갖추고 본 궤도에 올랐다.

역대 회장

1대 회장 / 박태송('74. 2~'75. 5). 부회장 / 김영파·엄일권·강원희. 총무 / 변세운.

2대 회장 / 최상근('75. 5~'76. 5). 부회장 / 김영파·엄일권. 총무 / 김연진.

3대 회장 / 전성우('76. 5~'78. 6). 부회장 / 방효근·김영파·강원희. 총무 / 김연진.

- 4대 회장 / 방효근('78. 6~'81. 5). 부회장 / 이광춘·박종삼·박춘섭. 총무 / 김연진.
5대 회장 / 방효근('81. 6~'83. 5). 부회장 / 최규선·이광춘·김연진·박춘섭·김성도. 총무 / 최광웅.
6대 회장 / 방효근('83. 5~'85. 6). 부회장 / 최규선·이광춘·김연진·박순갑. 총무 / 최광웅.
7대 회장 / 방효근('85. 6~'87. 6). 부회장 / 최규선·이광춘·김연진·박춘섭·박순갑·김복동·이주억. 총무 / 김영과.
8대 회장 / 방효근('87. 6~'91. 5). 부회장 / 최규선·이광춘·박춘섭·박순갑. 총무 / 김영과.
9대 회장 / 이광춘('89. 6~'91. 5). 부회장 / 박춘섭·박순갑·이인철·박용렬·김섭홍·이방실. 총무 / 최광웅.
10대 회장 / 이인철('91. 6~현재). 부회장 / 박춘섭·박순갑·박용렬·김섭홍·조동룡·손성익·김계원·황운규·전태극. 총무 / 김인환.

활동상

현재 도민 4백여 세대 2,500여 명이 상호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6월 정기 총회에서 최고령자 5명에게 경로품을 전달하고, 어린이 장기자랑, 경품 추첨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진다.

81년 6월 20일 장학회 구성 추진 위원회(위원장 / 최광웅)를 조직, 기금 모금에 착수하였다.

99년 2월 현재 장학회(회장 / 김성도)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여 같은해 6백 1십만 원(대학생 3명, 고교생 5명, 중학생 7명). 2000년도 6백 5십만 원(대학생 3명, 중학생 5명)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지회·친목회

간성(고성군) 지회(지회장/박인덕)

변길용·김형길·이주억 등이 힘을 모아 결성('78년). 간성읍 탑동리 임야 30,744㎡

(9,300평)에 공원 묘원을 조성하여 매년 음력 9월 9일 망향제를 올리고 있다.

대진(고성군) 지회(지회장/이방실)

16세대 60여 명이 모여 결성('81년), 대진리 임야 2,357㎡(713평)에 공원 묘원을 조성, 매년 추석에 고향을 향해 망향제를 올리고 있다.

마천령 친목회(회장/오윤근)

성진시와 학성군 출신을 주축으로 결성됨('73년). 속초시 노학동 임야 6,149㎡(1,860평)에 공원 묘지를 조성하여 마천원摩天園이라고 명명하였다.

구름만은 오락가락 자유로이 드나드는 데 갈래야 갈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어 지나깨나 향수에 젖어 안타까운 심정 달래기 위해 우리 여기에 망향의 동산을 만들어 한 어 린 마음을 달래려 한다.

비문 / 전문

길·명천 친목회(회장/이주한)

길주·명천 군민회 120세대 6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결성(1958). 속초시 노학동 임야 8,926㎡(2,700평)에 공원 묘지를 조성하고, 매년 음력 9월 9일 망향제와 척사 대회를 열고 있다.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

來不來 去不去

비문 / 전문

경성군 친목회(회장 / 김황만)



경성군 망향비(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소재)

14세대 군민회 60여 명이 모여 결성('80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임야 3,306㎡(1,000평)에 공원 묘지를 조성하고 매년 추석에 망향제를 올리고 있다.

남북이 가로막혀 부모 형제와 고향산천을 그리면서 조각돌 하나에 정을 심고 한 많은 세월 속에 통일을 기원하네.

비문 / 전문

학성군 학남민. 친목회(회장 / 박순갑)



학성군 망향비(속초시 장사동 소재)

60여 세대의 학남민 250여 명이 모여 결성('75. 5) 속초시 장사동 임야 5,950㎡(1,800평)에 공원 묘지 조성.

북녘 땅 바라보고 발버둥치며 외쳐 보았고-38선 아! 무너져라 내일이면 고향 땅 간다더니 어언 춘풍 추우 3십여 성상이 흘렀구려. 우뚝 솟은 백두산을 그리워 하며 이곳 영랑 호반의 동산에 자리잡고 망향의 설움을 달래면서 이 비를 세우노니 이북으로 흘러가는 저 구름아, 한 많은 설움과 쓰린 이 가슴을 고향에 부디 전해 다오.

비문 / 전문

칠보산 청년회(회장 / 이성근)

길주·명천 청년 30여 명으로 결성되어 매년 '아버이 날' 경로 잔치를 베풀며, 환경 보호·관광 안내 등 아버지 뜻을 기리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앞장 서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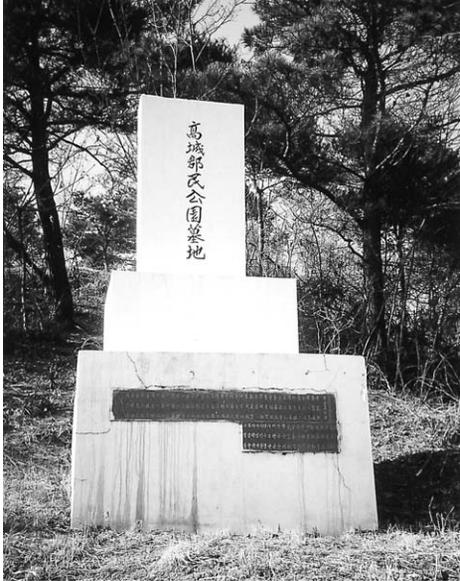
속초 지구 고성 군민회(북강원)

-잡힐 듯한 해금강의 절경-



연혁

1976년 6월 20일 총회에서 회칙을 통과시키고 회장 / 이관희, 부회장 / 권오경 · 주운봉, 총무/박근선, 위원 / 최선기 · 심주섭 · 김백열 · 박상식 · 정덕준 · 김택용 · 박근선 · 전영규 · 김진원 · 정규준 · 최구현 · 함영태 · 심경섭 · 조성구 · 김우학 · 권병태 · 박일래, 고문/정재철 · 김응조 · 박경원을 선출하였다.



활동상

1981년 8월 19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 83번지 임야 1.996㎡(6.600평)에 망향 동산을 조성하고 동산 관리 위원장으로 김기오를 선임하였으며, 현재 60명의 고인 군민 유적이 안치되어 있다. 이 동산에는 매년 5,6월에 날짜를 정하여 망향제를 지내며, 총회를 겸하여 군민회 결속을 다져 나아가고 있다. 1976년 6월 20일 현재 군민회에 가입한 회원은 아래와 같다.

이관희 · 이장원 · 주인근 · 조용구 · 이현규 · 이태근 · 권득수 · 황대근 · 장길상 · 최구현 · 정의현 · 정규성 · 조안성 · 김병국 · 최영환 · 심홍수 · 김오근 · 김용환 · 이경익 · 김교순 · 황용환 · 정규준 · 김교순 · 한문옥 · 안용준 · 최홍영 · 권중옥 · 정재환 · 정범익 · 신언빈 · 차군현 · 김윤옥 · 심상문 · 심규섭 · 홍순용 · 오명헌 · 이성휘 · 은용규 · 김용석 · 김봉익 · 임건택 · 장익교 · 김중호 · 전광수 · 함형봉 · 정증수 · 임중사 · 전영길 · 이송익 · 윤도호 · 오명현 · 안용선 · 최홍영 · 권오경 · 장필수 · 권순관 · 김진열 · 최석윤 · 최석중 · 최성순 · 장창갑 · 김진옥 · 김연기 · 조필구 · 정철 · 최병원 · 최수일 · 최용복 · 최순복 · 최녹식 · 이동근 · 장창교 · 유동렬 · 장창영 · 박용래 · 이보필 · 장명찬 · 최영춘 · 김현섭 · 이영진 · 김종갑 · 이윤수 · 이영진 · 장재곤 · 김도도 · 최영복 · 김선봉 · 박성란 · 최선철 · 이홍성 · 서광태 · 박경신 · 심주섭 · 홍재표 · 박홍신 · 장평식 · 박춘배 · 장동필 · 엄기홍 · 서득호 · 김해경 · 박기성 · 홍해인 · 김기오 · 이하중 · 이동섭 · 김중하 · 정봉화 · 이원식 · 이희명 · 전장우 · 이기영 · 함재수 · 윤길병 · 김석목 · 이선규 · 김춘택 · 심병섭 · 심경섭 · 심재철 · 이만성 · 이맹화 · 황재권 · 윤두만 · 윤성근 · 김인환 · 홍기주 · 양병찬 · 김연옥 · 정봉녀 · 김주해 · 최운용 · 박암이 · 이일규 · 최귀성 · 박문호 · 전연성 · 심하섭 · 이창섭 · 이창렬 · 이창중 · 안용준 · 김우학 · 이원식 · 윤규병 · 김윤호 · 기진목 · 장지호 · 박근선 · 박재길 · 박재신 · 최홍규 · 박상현 · 최광호 · 김경택 · 이갑출 · 이장규 · 마상훈 · 이만봉 · 권병희 · 권병태 · 함종인 · 함종철 · 장창복 · 김홍

림 · 서일갑 · 최춘영 · 김원섭 · 박혁래 · 박우길 · 박상련 · 조선구 · 맹주철 · 권석찬 · 이득춘 · 정찬환 · 박우현 · 박찬익 · 마형근 · 이관익 · 마초선 · 최종길 · 서석력 · 김봉렬 · 이만기 · 김덕겸 · 김택용 · 이장규 · 허민 · 주운봉 · 이오석 · 김태원 · 조승구 · 이봉환 · 이학구 · 정경수 · 김태원 · 주수형 · 최성근 · 정영숙 · 정종혁 · 김운진 · 조성구 · 혈테연 · 강복예 · 조태구 · 이기현 · 박희섭 · 권병혁 · 강용기 · 김정옥 · 서형원 · 이현 · 장응석 · 최선우 · 김익선 · 권부근 · 박란식 · 정인수 · 김우식 · 황창욱 · 김한수 · 김근덕 · 김백열 · 최경홍 · 김광태 · 장덕준 · 정래섭 · 성윤식 · 심재홍 · 윤재봉 · 김순철 · 최만수 · 김이윤 · 박동훈 · 채준봉 · 안천식 · 방상식 · 이옥연 · 임중간 · 박상철 · 최영식 · 김도순 · 이남규 · 함규식 · 최찬국 · 최경엽 · 권순관 · 최화백 · 김원준 · 장덕수 · 신덕영 · 심관섭 · 정래하 · 권기영 · 박성두 · 박희구 · 박상환 · 김종문 · 박영춘 · 정동하 · 김보배 · 박창휴 · 장성규 · 박성구 · 박운학 · 나용무 · 김선봉 · 함영태 · 김두환 · 이병을 · 이준모 · 최운옥 · 이산익 · 최계춘 · 박일래 · 윤시형 · 김봉연 · 조진택 · 김용준 · 최동선 · 문승주 · 최동명 · 이목희 · 김준식 · 김정하 · 김종준 · 박창을 · 김갑복 · 김진국 · 김매춘 · 김성룡 · 고병식 · 김기익 · 김성훈 · 이장식 · 김희관 · 전봉록 · 장헌영 · 임명식 · 조태구 · 김준길 · 장봉익 · 이석률 · 최치준 · 배창수 · 배규철 · 고영화 · 한순영 · 이성달 · 조순구 · 전제현 · 박상룡 · 황세영 · 전영규 · 김탁 · 원선식 · 함규덕 · 원태용 · 김경석 · 황하출 · 조동하 · 박준봉 · 장홍준 · 서진원 · 이상철 · 신차손 · 최태순 · 김화순 · 김선기 · 최석기 · 엄용준 · 이기로 · 정용래 · 최종석 · 심완섭 · 한천길 · 백주해 · 전천성 · 김연택 · 윤춘성 · 김연하 · 전봉표 · 정동혁 · 방호조 · 황려로 · 조동찬 · 정의식 · 박찬호 · 김상태.



통천 군민회 영동 지회(북강원)

- 충석정 · 쌍룡폭, 오늘도 명승이겠지 -



연혁

1956년 10월 창립되어 현재 283세대에 830여 명의 군민 회원들이 상부 상조하면서 유대를 다지고 있다. 신세묵(초대 회장) · 이승률 등 6명이 앞장 서 충혼비 건립을 추진하여 69년 7월 6일 중앙에서 개최된 통천 군민회에 본 취지가 전달되어, 그 뜻이 통과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 춘천 · 영동 지구 회원들의 출연금 1백4십 8만9천 원의 기금으로 속초시 영랑 호변에 기단 높이 1.1m, 비의 높이 6.25m, 둘레 5m 크기의 '통천 군민 순국 동

지 충혼비' 를 동년 10월 15일 제막하였다.

충혼비에는 배연주 외 139명의 순국 동지들의 명단과 통천 군민 일동의 이름으로 비문이 새겨져 있다.

해동은 동해의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 /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 공산 도당과 /



생명을걸고 싸우다가 / 피 흘린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비석에
깊이 새겨 / 고향 바다 흐르는
이곳에 모시고 / 반공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하오니 / 충혼들이여
고히 잠드소서

1969년 10월 15일

통천 군민 회원 일동

이 충혼비에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면 전국에 산재하는 통천 출신 군민들은 물론, 속초 시민 등 5백여 명이 찾아 충혼의 명복을 빌고 있다.

활동상

통천 군민회 영동 지회(지회장 / 조선구)는 또한 속초시 조양동 산 375-1 번지에 묘원을 조성하여, 88년 5월 망향탑을 세우고 매년 한식과 추석에 제례를 올리고 있다.

두고 온 산야와 다를 것이 없구나 / 수명이 때가 있어 이곳에 누웠어라 / 그리던 내 고향
한 땀한 고향 길 / 하늘하늘 향기 따라 일주 일야로 / 자유롭게 이제야 넘나드네 하나 / 애
달퍼라 고향 소식 못 전하네

비문 / 전문

역대 회장

1대 회장 / 신세묵('69. 8~'80. 6). 총무 / 박일훈.

2대 회장 / 서종헌('80. 6~'83. 6). 총무 / 박일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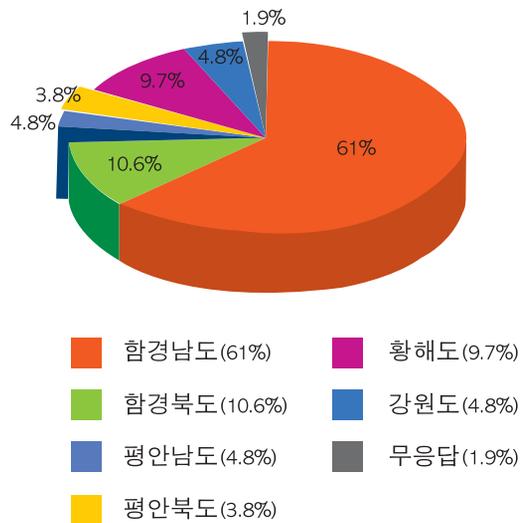
3대 회장 / 이승률('83. 6~'98. 6). 부회장 / 이상직.

4대 회장 / 조선구('98. 6~현재). 총무 / 이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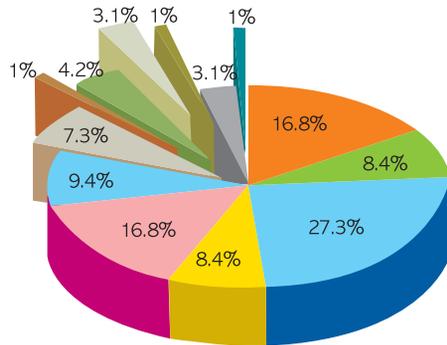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 집필 설문지

양 언 석 (관동대 교수)

1. 원적(부모의 고향) : 도 군(시) 면(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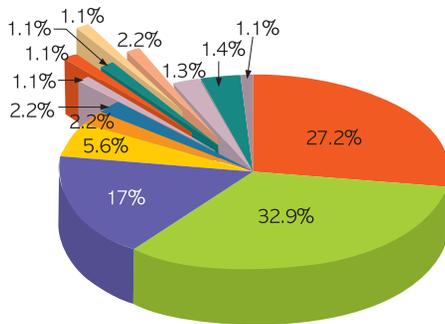


2. 현 거주지 : 도 군(시) 면(읍)



- 교동 (16.8%)
- 조양동 (9.4%)
- 중암동 (1%)
- 영랑동 (8.4%)
- 청학동 (7.3%)
- 양양 (3.1%)
- 청호동 (27.3%)
- 대포동 (1%)
- 무응답 (1%)
- 금호동 (8.4%)
- 노학동 (4.2%)
- 동명동 (16.8%)
- 장사동 (3.1%)

3. 이북이나 타지에서 부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수산업 (27.2%)
- 공무원 (2.2%)
- 구금생활 (2.2%)
- 농업 (32.9%)
- 목수 (1.1%)
- 종교인 (1.3%)
- 상업 (17%)
- 양조장 (1.1%)
- 무직 (1.4%)
- 회사원 (5.6%)
- 교사 (1.1%)
- 무응답 (1.1%)
- 한 의사 (2.2%)
- 정치인 (1.1%)

4. 성명(), 태어나신 연도(), 성별()

성명 생년 성별 월남년도 현거주지로 이사온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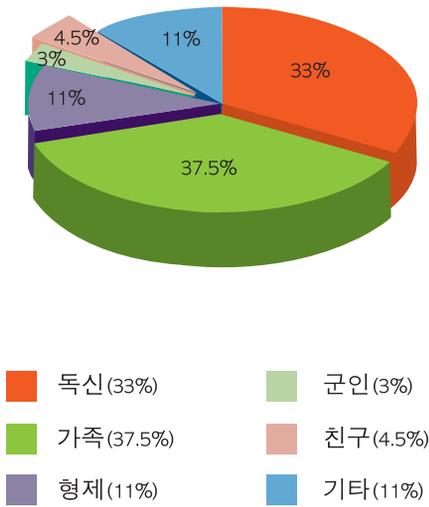
1. 김황만 1920년 남 6.25사변 직후.
2. 유명옥 1928년 여 1947년 1990년 10년 전.
3. 권문국 1931년 남 1951년 4월 1일 1958년 42년 전.
4. 석찬익 1920년 남 1948년 2월 1997년 3년 전.
5. 황승환 1933년 남 1945년 4월 13일 1960년 40년 전.
6. 최명철 1923년 남 1950년 12월 30일 1965년 35년 전.
7. 석기동 1945년 남 1951년 1955년 45년 전.
8. 안문돈 1931년 남 1950년 12월 7일 1953년 47년 전.
9. 김건옥 1934년 남 1950년 12월 12일 1998년 2년 전.
10. 김정일 1935년 남 1950년 12월 1996년 4년 전.
11. 최용문 1936년 남 1950년 12월 1일 1973년 23년 전.
12. 김봉해 1929년 남 1950년 12월 7일 1966년 34년 전.
13. 김기호 1934년 남 1950년 11월 5일 1967년 23년 전.
14. 방성춘 1942년 남 1950년 11월 3일 1980년 20년 전.
15. 고윤식 1945년 남 1950년 12월 18일 1979년 21년 전.
16. 임정순 1920년 남 1950년 12월 8일 1994년 6년 전(2000년 10월 19일 · 작고).
17. 김철섭 1937년 남 1950년 12월 7일 1999년 1년 전.
18. 정복덕 1929년 남 1950년 10월 20일 1970년 30년 전.
19. 김태근 1918년 남 1950년 4월.
20. 감창규 1937년 남 1951년 12월 8일 1968년 32년 전.
21. 채창은 1937년 여 1946년 8월 1992년 8년 전.
22. 정득규 1933년 남 1950년 8월 23일 1968년 32년 전.
23. 변경일 1933년 남 1952년 12월 26일 1953년 47년 전.
24. 이봉엽 1923년 남 6.25전쟁 때 1993년 7년 전.
25. 정응상 1944년 남.
26. 여석천 1936년 남 1950년 8월 24일.

27. 윤경희 1935년 여 1950년 12월 1997년 3년 전.
28. 홍영진 1946년 남 1950년 12월 24일 1982년 18년 전.
29. 계익선 1924년 남 1945년 12월 5일 1958년 42년 전.
30. 정양수 1932년 남 1951년 4월 13일 1951년 49년 전.
31. 김재성 1911년 남 1950년 1999년 1년 전.
32. 유창영 1934년 남 1946년 4월 9일 1959년 41년 전.
33. 박임학 1926년 남 1950년 1월 4일 1953년 47년 전.
34. 윤명자 1930년 여 1950년 11월 18일 1979년 21년 전.
35. 익 명 1935년 남 1949년 11월 18일 1965년 35년 전.
36. 김영석 1931년 남 1951년 1953년 47년 전.
37. 최득환 1913년 남 1957년.
38. 박임학 1930년 남 1951년 1월 4일 1947년 53년 전.
39. 김영진 1916년 남 1952년 12월 8일 1995년 5년 전.
40. 방순호 1927년 남 1950년 12월 5일 1985년 15년 전.
41. 장재승 1933년 남 1951년 1월 14일 1991년 9년 전.
42. 박기철 1923년 남 1947년 5월 27일 1960년 40년 전.
43. 동문성 1937년 남 1950년 12월 1951년 49년 전.
44. 최철호 1922년 남 1951년 12월 15일.
45. 차진환 1938년 남 1950년 12월 10일 1958년 42년 전.
46. 조윤희 1928년 여 1953년 47년 전.
47. 이창우 1942년 남 1955년 45년 전.
48. 김상은 1921년 남 1950년 12월 12일 1953년 47년 전.
49. 허응복 1938년 남 1951년 4월 20일 1962년 38년 전.
50. 김성필 1930년 남 1950년 12월 4일 1959년 41년 전.
51. 신도순 1926년 남 1986년 3월 1990년 10년 전.
52. 김영파 1927년 남 191?년 1987년 13년 전.
53. 이관희 1935년 남 1.4후퇴 때.
54. 주종철 1928년 남 1951년 3월 5일 1994년 6년 전.
55. 익 명 1928년 남 1946년 12월 1992년 8년 전.
56. 변서운 1927년 남 1950년 12월 3일 1998년 2년 전.

57. 박종삼 1926년 남 1950년 12월 8일 1953년 47년 전.
58. 이기훈 1937년 남 1950년 12월 28일 1953년 47년 전.
59. 조동명 1952년 남 6.25때 1997년 3년 전.
60. 박용렬 1929년 남 1950년 11월 27일 1980년 20년 전.
61. 박인학 1930년 남 1950년 1월 4일 1950년 50년 전.
62. 박수길 1922년 남 1950년 11월 3일 1998년 2년 전.
63. 이만원 1926년 남 1946년 5월 1일 1959년 41년 전.
64. 주종칠 1926년 남 1951년 1월 19일 1963년 37년 전.
65. 장만영 1925년 남 6.25전쟁 2년 후 1988년 12년 전.
66. 석찬익 1920년 남 1948년 2월 1일 1995년 5년 전.
67. 백회손 1932년 여 1950년 12월 23일 1960년 40년 전.
68. 이춘섭 1903년 남 1950년 10월 20일 1953년 47년 전.
69. 이원익 1923년 남 1950년 10월 20일 1990년 10년 전.
70. 서용주 1945년 남 1951년 1월 1998년 2년 전.
71. 안동섭 1935년 남 1948년 1월 1985년 15년 전.
72. 조동화 1943년 남 1.4후퇴때 1966년 36년 전.
73. 이춘식 1930년 남 1950년 12월 4일 1970년 30년 전.
74. 현금식 1926년 남 1945년 1955년 45년 전.
75. 김남표 1916년 남 1950년 12월 7일 1990년 10년 전.
76. 이호순 1915년 남 1945년 9월 10일 1983년 17년 전.
77. 익 명 1929년 남 1950년 12월 20일.
78. 김진국 1939년 남.
79. 김대성 1917년 남 1950년 11월 7일 1995년 5년 전.
80. 임연옥 1915년 여 1950년 11월 1954년 56년 전.
81. 정달인 1926년 남 1946년 2월 1994년 6년 전.
82. 김옥선 1937년 여 1951년 12월 21일 1991년 9년 전.
83. 이인철 1928년 남 1947년 10월 1997년 3년 전.
84. 익 명 1925년 남 1950년 6월 25일.
85. 김규태 1932년 남 1950년 12월 20일 1969년 31년 전.
86. 이원식 1934년 남 1950년 12월 8일 1994년 6년 전.

- 87. 김귀옥 1926년 여 1950년 11월 1일 1953년 47년 전.
- 88. 조우섭 1923년 여 1950년 11월 25일 1966년 34년 전.
- 89. 유창연 1924년 남 1953년 6월 1962년도 38년 전.
- 90. 김성은 1921년 남 1950년 12월 13일 1952년 48년 전.
- 91. 이병선 1917년 남 1947년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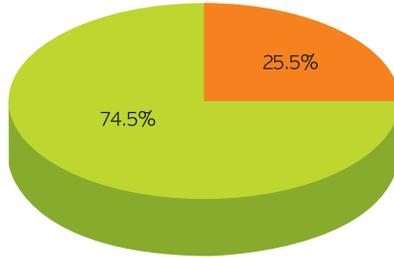
5. 월남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기타 : 외가친척, 고향사람, 처남, 부친, 모친, 무응답 등..)

6. 고향에 두고온 가족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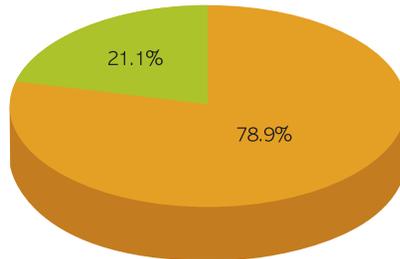
① 아니요 ② 예(누구:)



1번 (25.5%) 2번 (74.5%)

7. 월남 당시 이남에 연고자가 있었습니까?

① 아니요 ② 예(누구:)



1번 (78.9%) 2번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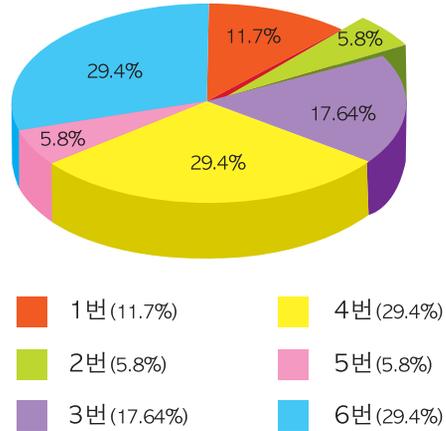
8. 귀하나 부모가 월남하신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년 월 일)

『4번 문항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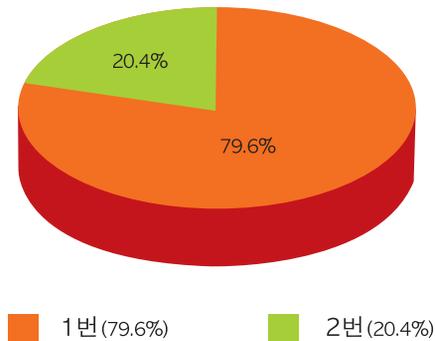
9. 월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개도 괜찮습니다.(표시)

- ① 가족이나 동네분들의 권유에 따라서
- ② 국군이나 유엔군의 권유에 의해서
- ③ 치안대의 권유에 따라서
- ④ 빨갱이의 만행을 피해서
- ⑤ 중공군의 만행을 피해서
- ⑥ 비행기나 군함의 폭격을 피해서
- ⑦ 원자탄 폭격 소문이 두려워서
- ⑧ 기타(적어주세요)



10. 잠시 피난할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남에 와서 아주 살기를 원했습니까?

- ① 잠시 피난(얼마동안입니까?)
- ② 영구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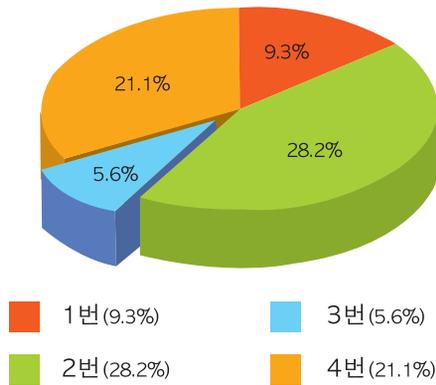


13. 처음 고향을 떠나 속초로 오신 과정을 써 주십시오.

- ① 출발지() ② 출발일자()
- ③ 거쳐온 곳1(기간 : 년 개월, 거주이유 :)
- ④ 거쳐온 곳2(기간 : 년 개월, 거주이유 :)
- ⑤ 거쳐온 곳3(기간 : 년 개월, 거주이유 :)
- ⑥ 거쳐온 곳4(기간 : 년 개월, 거주이유 :)
- ⑦ 거쳐온 곳5(기간 : 년 개월, 거주이유 :)
- ⑧ 최종 도착지 (속초시 도착일 :)

14. 속초에 왔을 때 집은 개인소유였나요, 세집이었나요?

- ① 철도부지에 집만 소유 ② 관청 소유 ③ 개인 땅과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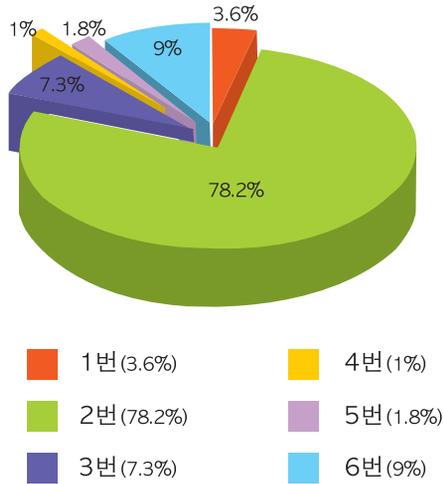
15. 현재 주거지로 이사온 해는 언제입니까?

(연도, 년전)

『4번 문항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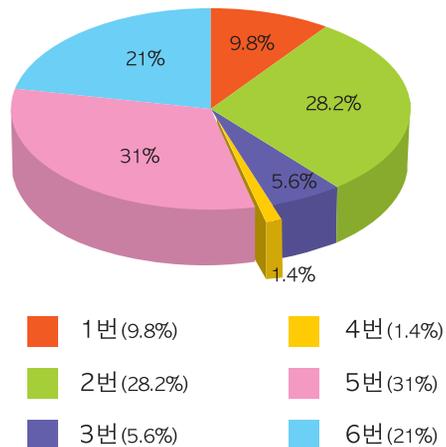
16. 현재 살고 계신 집은?

- ① 사유지에 집만 소유 ② 자기 소유 땅과 집
- ③ 전세 ④ 월세 ⑥ 친척집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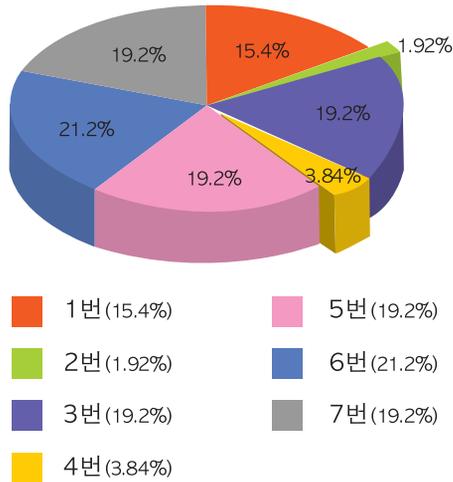
17. 월남하여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월남민에 대한 이남사람들의 편견
- ②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 ③ 정부나 도와 시의 잘못된 행정정책
- ④ 이남의 말씨와 풍습의 차이
- ⑤ 열악한 생계조건이나 지리적 조건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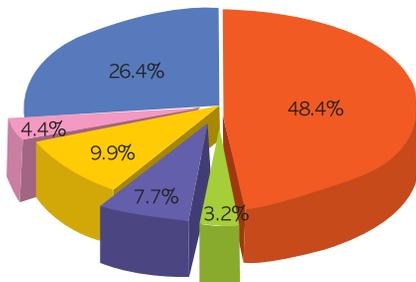


18.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대졸 ② 대학 중퇴 ③ 고졸 ④ 고등학교 중퇴
- ⑤ 중졸 ⑥ 중학교 중퇴 ⑦ 초급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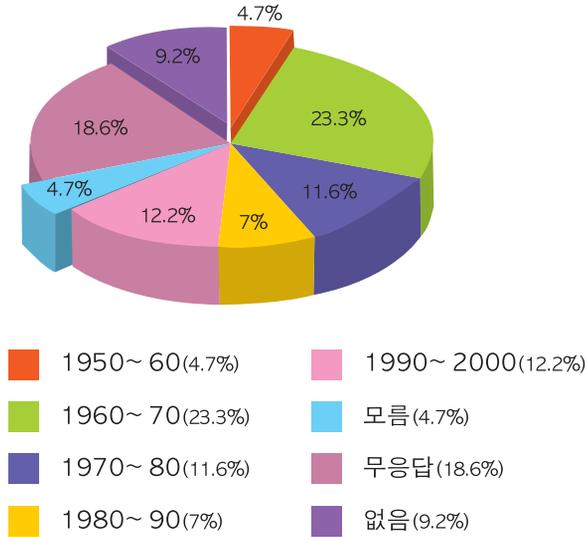
19.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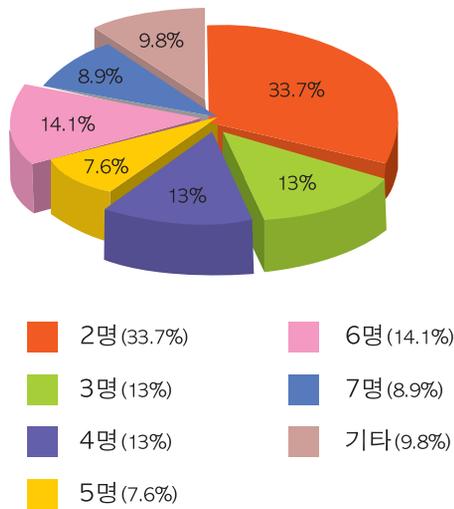
(기타 : 용역, 운수업, 농사, 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건조업, 인쇄업, 변호사, 의사, 사법 단체, 은행원, 여행사 사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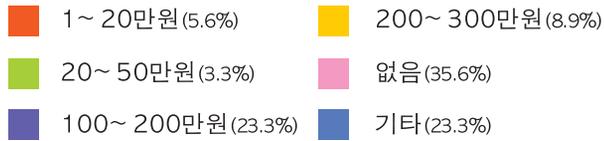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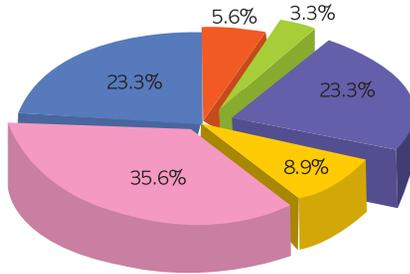
20. 생활이 안정된 때는 언제입니까?



21.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분이고, 누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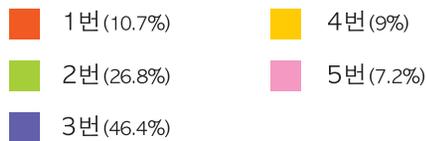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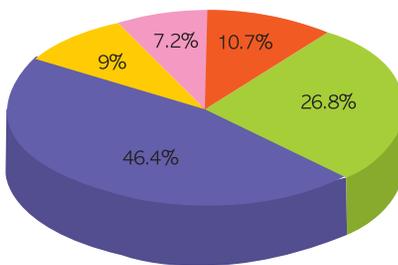


22. 현재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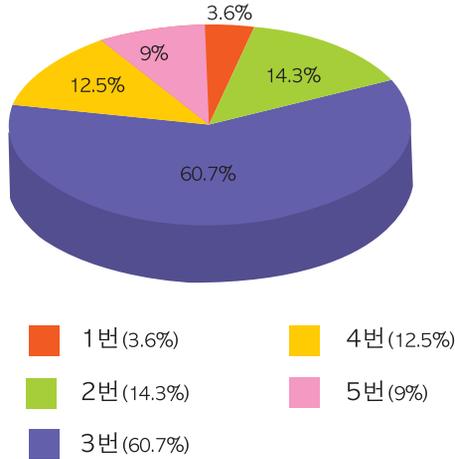
23. 귀하나 부모님이 이복이나 타지에 사실 때 생활수준?

- ① 상류층 ② 중상층 ③ 중류 ④ 중하류 ⑤ 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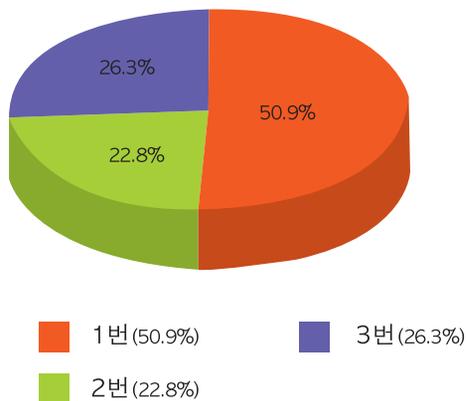
24. 현재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류층 ② 중상층 ③ 중류 ④ 중하류 ⑤ 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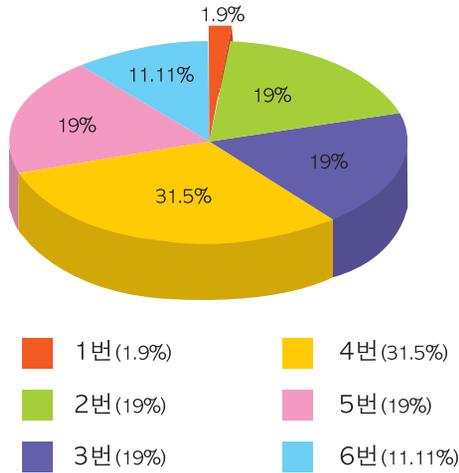
25. 이곳 피난민촌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없어야 한다 ③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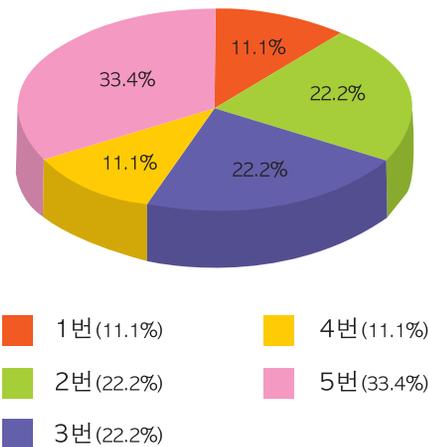
26. 이곳이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무조건 이사하고 싶다
- ② 권리금이나 철거보상금을 받고 이사하고 싶다
- ③ 웬만하면 그만 살고 싶다
- ④ 꼭 이곳에서 살고 싶다
- ⑤ 그 때가서 생각하겠다
- ⑥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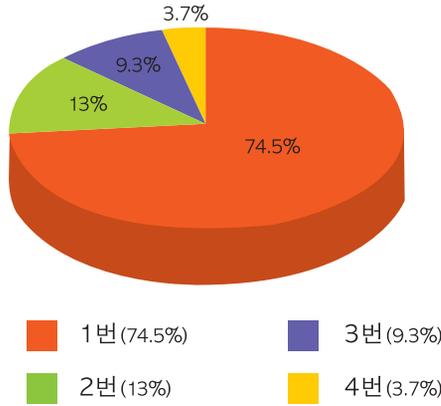
27. 이곳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낙후된 주택문제
- ② 낙후된 문화시설
- ③ 행정적 뒷받침 미비
- ④ 불편한 교통시설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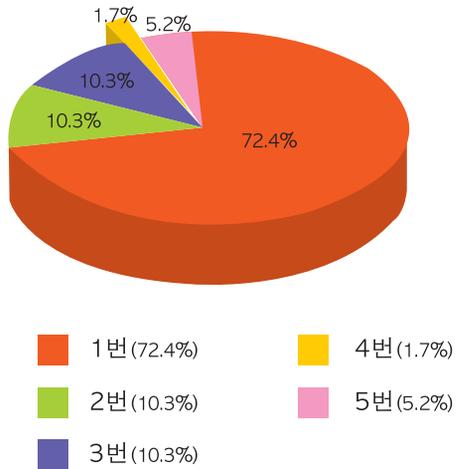
28. 군민회나 동향인 모임에 나가십니까?

- ① 자주 ② 가끔 ③ 거의 안나간다 ④ 관심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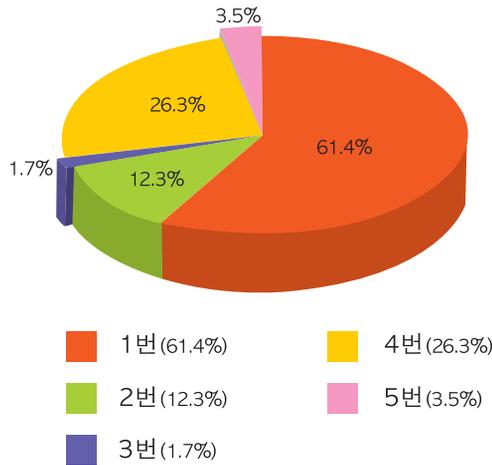
29. 이북에 대한 소식이나 뉴스가 나오면 보십니까?

- ① 자주 ② 가끔 ③ 거의 안본다 ④ 관심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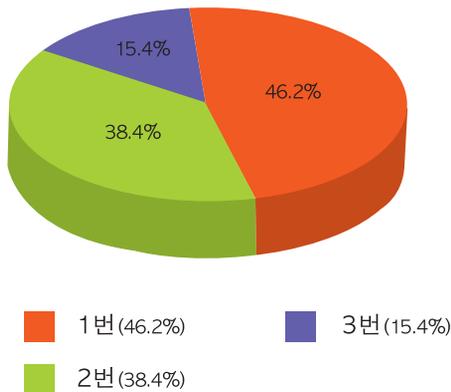
30. 고향의 것 중에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 ① 말씨 ② 음식 ③ 집형태 ④ 전혀없다 ⑤ 기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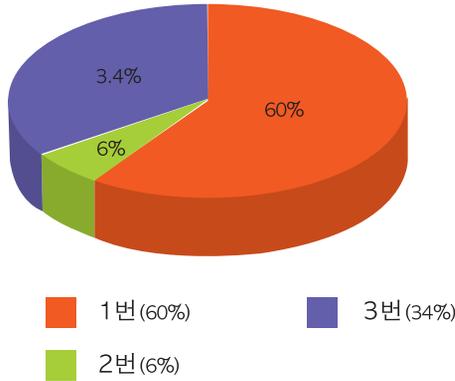
31. 관혼상제의 경우 고향 풍습을 그대로 따르십니까?

- ① 예 ② 거의 없다 ③ 일부만 지킨다
 (어떤 것을 지키십니까?)



32. 고향의 특별한 풍습이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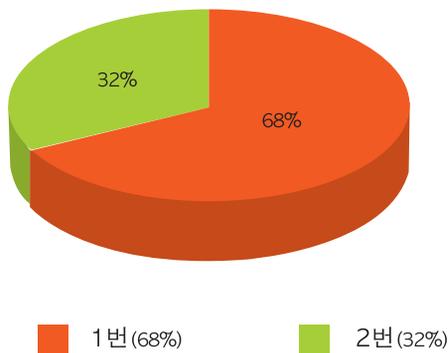
- ① 이북식 음식
- ② 의복
- ③ 기타



33. 이북 출신이라는 긍지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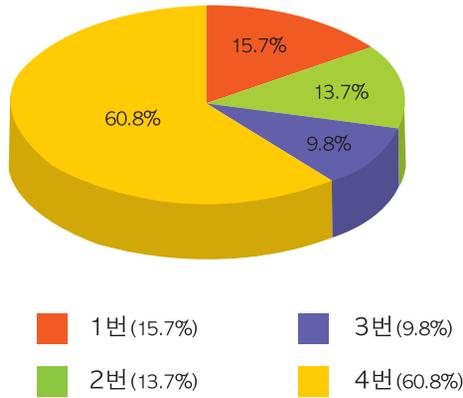
- ① 있다
- ② 없다

(있다면 무엇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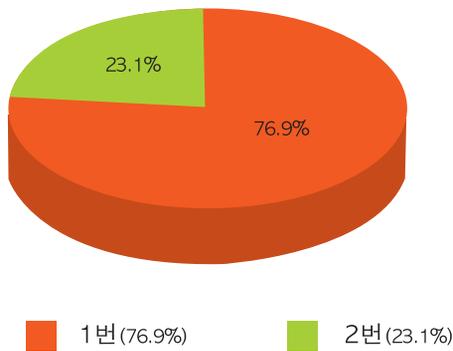
36.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이곳에 정착하겠다고 생각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 ① 10년전 ② 20년전 ③ 30년전 ④ 기타



37.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간다면 옛날의 토지나 집을 찾고 싶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이유 :)



38. 정부나 시에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통일, 바른정치, 이산 가족 상봉, 세금감면, 영동 영서 간의 원활한 교통수단, 도시개발, 헌법시행, 강원도 발전, 남북정상회담을 잘 성취, 경제성장, 행정적 뒷받침, 근로복지, 역사관 설립, 무응답 등..

39.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라,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고향에 찾아가 보고 싶다, 양심껏 살아라, 지금처럼 살아라, 건강히 살아라, 부모들의 고향뿌리 찾아줬으면 한다.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무응답 등..

40. 통일이 되면 이북 고향에 살고 싶습니까? 피난민 정착사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뿌리찾기,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의 인적사항, 살아온 역사, 진실되게 작성, 남북통일 내용, 이산가족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및 고통, 피난민들의 통일에 대한 바람, 이북에 대한 내용, 피난 생활 사진, 고향의 향수 느낄수 있게, 선조들에 대한 숭배, 피난민들의 정신자세, 피난민들의 고생담, 월남 과정에서의 아픔, 정착사를 쓰게 된 동기, 피난민들을 도와준 속초 시민의 봉사정신, 무응답 등.

□ 편집·집필위원 소개

● 편집위원 (위원장 최용문 원장)

김철섭/ 함남
 엄명덕/ 함남
 오윤근/ 함북
 유창영/ 함남
 이관희/ 북강원
 이승주/ 평안
 이인철/ 함북
 정래섭/ 강원
 주종철/ 황해
 최용문/ 함남

● 집필위원 (위원장 장정룡 교수)

• 제 I 부

전상인/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용길/ 동우대학 행정학과 교수
 김귀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철환/ 강릉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옥한석/ 강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사득환/ 동우대학 행정학과 교수
 심상목/ 관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제 II 부

황재희/ 영동전문대 호텔조리과 교수
 장정룡/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무림/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재주/ 동우대학 행정학과 교수
 정재국/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채재순/ 시인

• 제Ⅲ부

김영식/ 강릉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장정룡/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Ⅳ부

양언석/ 관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Ⅴ부

장재환/ 전, 설악신문 편집국장

□ 후원회 소개

● 후원회 임원

• 명예회장/ 동문성 속초시장

• 고 문/ 김남표, 김재성, 김철섭, 이기섭, 이원익, 이호순, 임정순.

• 회 장/ 유창영 속초지구 이북5도민 연합회장

• 부 회 장/ 이관희 북강원도민회장

이승주 평안도민회장

이인철 함북도민회장

주종칠 황해도민회장

• 위 원/ 김봉해, 김형기, 김호응, 박보근, 박순갑, 변서운, 석찬익, 엄명덕, 양성식, 오계호,
오윤근, 원선식, 이기훈, 전태극, 정래섭, 조병희, 차진환, 최병규, 최승현, 최원춘.

• 감 사/ 김영진, 이만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증보판)

엮은이/ 박영도 · 한정규

펴낸이/ 최용문

펴낸곳/ 속초문화원

집필인/ 장정룡 외 15인

사진제공/ 최구현, 최춘영, 최홍영, 김귀옥 그 외

찍은곳/ 강원일보사 출판국

초 판/ 2000년 12월 20일

증보판/ 2002년 12월 20일

주소/ 우)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화/ 033)632-1231

팩스/ 033)632-1241

홈페이지/ www.sokcho-culture.com

E-mail/ sc1241@sokcho.org

이 책은 보조금 및 속초 지구 이북 5도민 연합회 후원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여러 개의 저작권을 선택 배열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요소가 된 개인의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1950년

- ◎ 6.25 : 한국전쟁 발발. 북한군 5사단, 함북나남을 기차로 출발하여 원산, 속초, 양양으로 이동. 동해안 국군전선 돌파. 속초는 개전 초기 북한군 제5사단 진격코스로 후방 보급루트 역할. 북한군 육전대(해병대)인 제549부대. 속초에 대기하고 있다가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와 명주군 정동진과 삼척군 임원진 상륙.
- ◎ 9.30 : 국방군 제1군단장.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명령 제109호 발동. 수도사단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대령) 38선 남쪽 2km지점 양양 서림리 진출.
- ◎ 10.1 : 국방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양양지역 수복. 제3사단, 제23연대(연대장 김종순 대령)를 선봉으로 제1군단 양양 38선 이북진격.
- ◎ 10.3 : 제3사단 제26연대(연대장 이치업대령)간성 탈환.
- ◎ 12월 :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 후퇴. 흥남 철수. 미군 L.S.T로 많은 피난민들 부산에 상륙.



남부여대男負女戴 - 피난길을 재촉하였다.
(속초향토사료전시관)

속초 정착촌 피난민들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나 대책이 없이 자력으로 주거를 해결 하였다. 초기 정착촌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청호동 좁은 모래톱에 움집이나 판자집을 짓고 살면서 오늘의 소위 '아바이마을'을 형성 하였다.

청호동 앞바다에 떠다니는 군용 목재나, 드럼통과 박스, 죽더끼 등이 재료로 사용되었다…….